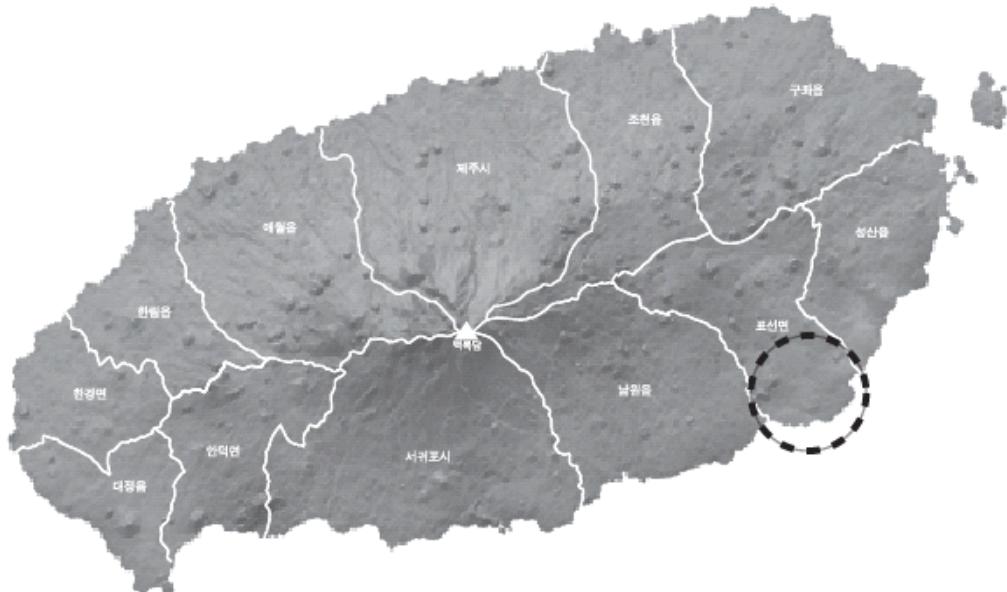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3-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표선면 표선리

구술: 고옥년 송봉휴
전사·표준어 대역: 허영선 김순자

5



그의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5

-표선읍 표선리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사업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9
2. 제보자 일생	20
3. 밭일	39
4. 들일	100
5. 바다일	138
6. 의생활	173
7. 식생활	207
8. 주생활	333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슬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꽂표(**)를 사용한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 띠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띠어쓰기를 같게 한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 ‘하다’의 경우 ‘흐다’가 아닌 경우는 ‘혀다’로 하고, ‘허는구나, 헷구나’ 등 ‘-나’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속에 표기한다.
-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 · 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용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용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돋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II. 구술 자료

(@: 김순자, 허영선 #1 고옥년 #2 송봉휴)

1. 조사 마을

101001 @ 동창예? 옛날부터 이제 해온 이거 조사마을 해도 돼겠구나. 남자 삼춘 쪽 살았으니까 이 마을 형성이 어떻 됐던 헌 말 굴아줍서.(동창요? 옛날부터 이제 해온 이거 조사마을 해도 되겠구나. 남자 삼촌 쪽 살았으니까 이 마을 형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한 말 말해주십시오.)

101001 #2 이 마을 형성은 본래 표선리라도 서상리라고 했는데.(이 마을 형성은 본래 표선리여도 서상리라고 했는데.)

101001 @ 예.(예.)

101001 #2 표선리가. 저기 저 마을 형성은 현집에서가 묻져 여길 내려왔수다. 저 웃드르에서.(표선리가. 저기 저 마을 형성은 현집에서가 먼저 여길 내려왔습니다. 저 윗마을에서.)

101001 @ 예.(예.)

101001 #2 웃드르에서 내려와서 에 요 밑에 가면 거기 어디우팡? 막상올레¹⁾? (윗마을에서 내려와서 에 요 밑에 가면 거기 어딥니까? ‘막상올레’?)

101001 #1 막상올레.(‘막상올레’.)

101001 #2 막상올레 물이 나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막상올레’ 물이 나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101001 @ 예.(예.)

101001 #2 경 뛰십주.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많이 형성되니까 에 요 안카름²⁾, 안카름이라고 해서 요 웃동네가 있었고, 서카름이라고 해서 두 개 마을로해서 형성이 시작해십주.(그렇게 됐습지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많이 형성되니까 에 요 ‘안카름’, ‘안카름’이라고 해서 요 웃동네가 있었고, ‘서카름’이라고 해서 두 개 마을로해서 형성이 시작했습지요.)

101001 @ 경 헤영 이제까지 온 거라예?(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온 거네요?)

101001 #2 예.(예.)

101002 @ 그러면 아까 현집이부터 설촌을 표선리는 요즘 표선리는 어떤 성씨들로 이루어졌마씨?(그러면 아까 현집에서부터 설촌을 표선리는 요즘 표선리는 어떤 성씨들로 이루어졌어요?)

1) ‘막상올레’는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의 하나다.

2) ‘안카름’은 한 마을에서 안쪽 마을이라는 의미다.

101002 #2 표선리는예, 젤 강 씨가 만허후다. 편안 강씨.(표선리는요, 젤 강 씨가 많습니다. 편안 강씨.)

101002 @ 아아.(아아.)

101002 #2 강 씨가 많고 그 다음은 고 씨.(강 씨가 많고 그 다음은 고 씨.)

101002 @ 예.(예.)

101002 #2 그 다음은 고 씨가 많고, 그 다음에 오 씨.(그 다음은 고 씨가 많고, 그 다음에 오 씨.)

101002 @ 예.(예.)

101002 #2 게 우리 송 씨도 많은데 우리 송 씨는 본래 여기 잇는 사름은 별로 엇었는데 저 애월읍 저 동귀리³⁾에서 여기 와서.(게 우리 송 씨도 많은데 우리 송 씨는 본래 여기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저 애월읍 저 ‘동귀리’에서 여기 와서.)

101002 @ 아.(아.)

101002 #2 애월읍 동귀리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 이루었는데, 에 아마 몇 년 전까지도 송씨들이 좌지우지해집주.(애월읍 동귀리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 이루었는데, 에 아마 몇 년 전까지도 송 씨들이 좌지우지했습죠.)

101003 @ 예. 표선 송씨는 유명허지 아님니까?(웃음) 아,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 허멍 살아마씨?(예. 표선 송 씨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웃음) 아,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 하면서 살아요?)

101003 #2 마을에 처음에는 보리도 같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전부 밀감으로.(마을에 처음에는 보리도 같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전부 밀감으로.)

101003 @ 예.(예.)

101003 #2 그렇게 하고. 육지 분들도 많이 와 살면서 특작을 많이 힙니다, 여기.(그렇게 하고. 육지 분들도 많이 와 살면서 특작을 많이 합니다, 여기.)

101003 @ 예, 어떤 특작들 힘신고예?(예, 어떤 특작들 하고 있는가요?)

101003 #2 감자. 지슬감자.(감자. 감자.)

101003 @ 예. 지슬감자.(예. 감자.)

101003 #2 무.(무.)

101003 @ 예.(예.)

101003 #2 많이 힙니다.(많이 합니다.)

101004 @ 예. 삼춘 앞으로 말씀힐 땐 제줏말 조사하는 거난예, 제주도말로 더 하영 헤줍서양? 웃음. 이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천 이런 바위나 굴 등도 있어마씨?(예. 삼촌 앞으로 말씀힐 땐 제줏말 조사하는 거니까요, 제주도말로 더 많이 해주세요? 웃음. 이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 이런 바위나 굴 등도 있어요?)

101004 #2 예. 이십주.(예. 있습죠.)

101004 @ 예, 어떤 것덜 이신고예?(예, 어떤 것들 있는가요?)

3) ‘동귀리’는 하귀2리의 옛 이름이다.

101004 #2 오름은 표선 메오름⁴⁾이라고 잇고.(오름은 표선 ‘메오름’이라고 있고.)

101004 @ 예.(예.)

101004 #2 표선 메오름이라고 잇고, 세화리 가면은 돈오름.(표선 ‘메오름’이라고 있고, 세화리 가면 ‘돈오름’.)

101004 @ 예.(예.)

101004 #2 돈오름이라고 잇고.(‘돈오름’이라고 있고.)

101004 @ 예.(예.)

101004 #2 성읍리 가면은 영주산.(성읍리 가면 영주산.)

101004 @ 예.(예.)

101004 #2 그 쪼끔 그 가면은 어, 백약이오름이라고. 그 백약이오름은예, 백 가지 약초가 난다 그래서 거기서 염소나 소 말이 먹은 것을 어, 그 고기를 남자가, 사람들이 먹으면에 백 가지 약초 먹은 고기를 먹으니까 무병장수한다고.(그 조금 그 가면 어, ‘백약이오름’이라고. 그 ‘백약이오름’은요, 백 가지 약초가 난다 그래서 거기서 염소나 소 말이 먹은 것을 어, 그 고기를 남자가, 사람들이 먹으면요 백 가지 약초 먹은 고기를 먹으니까 무병장수한다고.)

101004 @ 음.(음.)

101004 #2 경도 굴웁니다.(그렇게도 말합니다.)

101004 @ 계믄 이 표선리에 잇는 오름은 메오름 흐나뿐.(그러면 이 표선리에 있는 오름은 ‘메오름’ 하나뿐.)

101004 #1 메오름.(‘메오름’.)

101004 #1 메오름 흐나.(‘메오름’ 하나.)

101004 @ 물 같은 거는 엊수가? 어떤 거 엉수가?(물 같은 거는 없습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101004 #1 물은 우물에서 두레박 행 먹다가 그것이 이젠 이제 쪼끔 발전되니까 수돗물.(물은 우물에서 두레박 해서 먹다가 그것이 이젠 이제 조금 발전되니까 수돗물.)

101004 @ 예.(예.)

101004 #1 수돗물로 지금도 그자 수돗물도 먹엄수다.(수돗물로 지금도 그저 수돗물도 먹고 있습니다.)

101004 @ 그냥 드레박 행은에 물통 이름은 무신 일름마씨?(그냥 두레박 해서 우물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101004 #1 뭐 뎅가락, 데가라왓통⁵⁾. 으, 저 알동넨 나룩질통⁶⁾.(뭐 ‘뎅가락’, ‘데가라왓통’. 으, 저 알동넨 ‘나룩질통’)

101004 #2 나룩질통.(‘나룩질통’.)

101004 @ 음.(음.)

4) ‘메오름’은 표선면 표선리 지경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5) ‘데가라왓통’은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의 하나다.

6) ‘나룩질통’은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의 하나다.

101004 #1 그 섯동네.(그 ‘셋동네’.)

101004 #2 서오일장통.(‘서오일장통’.)

101004 @ 나룩질통은 거기 나록 갈아난 모냥이우다?(‘나룩질통’은 거기 벼 갈았던 모양입니다?)

101004 #1 그 나룩 갈아난 것이 아니고 그디 못이 잊어나신디 못 이름이 나룩질⁷⁾, 나룩질 그 옛날엔 거기를 경허연 그 저끗되 그 통이 이시니까 나룩질통.(그 벼 갈았던 것이 아니고 거기 못이 있었었는데 못 이름이 ‘나룩질’, ‘나룩질’. 그 옛날엔 거기를 그렇게 해서 그 곁에 그 통이 있으니까 ‘나룩질통’.)

101004 @ 음. 혹, 그 굴 같은 것도 잊어마씨?(음. 혹, 그 굴 같은 것도 있어요?)

101004 #2 예.(예.)

101004 @ 굴은 무신 굴 잊어마씨?(굴은 무슨 굴 있어요?)

101004 #2 한드르.(‘한드르’.)

101004 @ 한드르.(‘한드르’.)

101004 #2 한드르굴⁸⁾이라고 해서 사삼사건 때.(‘한드르굴’이라고 해서 사삼사건 때.)

101004 @ 예.(예.)

101004 #2 어디 갈 때 엊이니까 거기 가서 숨어서도 잊어나고. 또 그 일본시대.(어디 갈 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숨어서도 있었었고. 또 그 일본시대.)

101004 @ 예.(예.)

101004 #2 막 공습 오라가면은 거기도 강 숨어나고 그렇게 헤낫수다.(막 공습 와가면 거기도 가서 숨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1004 @ 음. 그 한드르굴이 표선리에서 유명해낫구나예?(음. 그 ‘한드르굴’이 표선리에서 유명했었군요?)

101004 #2 유명허진 안하고.(유명하진 안하고.)

101004 #1 나룩질 저끗되 오면은 그 곱은챙기⁹⁾ 그디도 굴이 잊어낫어. 우리 웨정 때에 비행기 절로 메오름으로 이렇게 와가믄 그 굴에.(‘나룩질’ 곁에 오면 그 ‘곱은챙기’ 거기도 굴이 있었었어. 우리 웨정 때에 비행기 저리로 ‘메오름’으로 이렇게 와가면 그 굴에.)

101004 @ 예.(예.)

101004 #2 그다가 이시면은 우리 할머니네 어머니네 이 보리개역해근에 가정와근에 거기서 먹엉 음찍허지 말양 여기 그만이 앗양은에 놀렌. 근치룩 혜난 굴이 지금 그 굴이 그냥 이신지 어신지 몰를커라. 두린 때 텡겨나부난.(거기가 있으면 우리 할머니네 어머니네 이 보리미솟가루해서 가져와서 거기서 먹고 옴쭉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앉아서 놀라고. 그처럼 했던 굴이 지금 그 굴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 다녔어버리니까.)

7) ‘나룩질’은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 이름이다.

8) ‘한드르굴’은 표선면 표선리에 소재한 굴 이름이다.

9) ‘곱은챙기’는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 이름이다.

101004 @ 두린 때 뻥겨나부난예? 그 막 큰 바위 같은 것도 잇어마씨? 이쪽에. 우리 왜 성산포 가면 바위 잇잖아예? 일출봉 헐 때 등명대 같은 거예?(어릴 때 다녔어벼려셔요? 그 매우 큰 바위 같은 것도 있어요? 이쪽에. 우리 왜 성산포 가면 바위 잇잖아요? 일출봉 할 때 ‘등명대’ 같은 거요?)

101004 #1 여기는 바닷가에 바위가 있어도 바닷가 아닌 디 바위 별로 엇어.(여기는 바닷가에 바위가 있어도 바닷가 아닌 데 바위 별로 없어.)

101005 @ 큰 뭐 이름 있는 거거나 이런 건 엇고예? 그 다음에 이 마을은 표선면 중심지니까 기관들도 하서예?(큰 뭐 이름 있는 거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은 표선면 중심지니까 기관들도 많지요?)

101005 #2 기관 많이 이십주.(기관 많이 있습죠.)

101005 @ 어떤 기관들이 이신고예?(어떤 기관들이 있는가요?)

101005 #2 기관이 뭐 면, 면사무소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가 있고 옛날 민국민학교 그거 있고.(기관이 뭐 면, 면사무소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가 있고 옛날 같으면 초등학교 그거 있고.)

101005 @ 예.(예.)

101005 #1 중학교 있고.(중학교 있고.)

101005 #2 중학교 있고.(중학교 있고.)

101005 #1 고등학교 있고.(고등학교 있고.)

101005 #1 지서. 이젠 파출소엔 허지만 그 옛날엔 지서.(지서. 이젠 파출소라고 하지만 그 옛날엔 지서.)

101005 #2 지서. 주재소하면은 얼마나 므스와낫수가?(지서. 주재소하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101005 #1 주재소.(주재소.)

101005 @ 주재소하고.(주재소하고.)

101005 #2 주재소 있고. 또 뭐 농협 축협 신협.(주재소 있고. 또 뭐 농협 축협 신협.)

101005 #1 다 잇어.(다 있어.)

101005 @ 뭐 엇인 거 었다예?(뭐 없는 거 없네요?)

101005 #1 제주은행 있고.(제주은행 있고.)

101005 @ 여기 보난 소방도, 아까 보건소렌 혜신가. 아, 보건소.(여기 보니까 소방도, 아까 보건소라고 했는가. 아, 보건소.)

101005 #1 보건소.(보건소.)

101006 @ 음. 이런저런 거 다 있고. 옛날에 접들 하영 들어나지 안 했수가예?
(음. 이런저런 거 다 있고. 옛날에 계들 많이 들었었지 안 했습니까?)

101006 #2 접. 개인덜 허는 접덜.(계. 개인들 하는 계들.)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거 말협서.(거 말하십시오.)

101006 #1 아, 그거는 뭐 유채, 유채 그때는 이제 유채 팔양은에 얼마씩 내놓은
에 이제 접을 했다가 그 집의 큰일 나면은 뭐 보리쌀 흔 가멩이 쌀 한 가망이 인치
룩 헤줄락 헤근에 그런 접덜 허고. 감자 때도 그런 식으로. 경 헤영 허고. 그, 그 시
절이 쪼금 지나가니까 흐꼼 세련되게시리 영 마을 영 그자 자기 또래 사름 헤근에
큰일 때 돌아보는 거.(아, 그거는 뭐 유채, 유채 그때는 이제 유채 팔아서 얼마씩
내놔서 이제 계를 했다가 그 집에 큰일 나면 뭐 보리쌀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이
처럼 해주기 해서 그런 계들 하고. 고구마 때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그 시절이 조금 지나가니까 조금 세련되게끔 이렇게 마을 이렇게 그저 자기 또래
사람 해서 큰일 때 돌아보는 거.)

101006 @ 음.(음.)

101006 #1 잔치 때, 뭐 영장 때 그런 때 가서 일덜 강 같이 해주고 경허믄 자기
네끼리덜 영 돌아보는 거.(잔치 때, 뭐 상 때 그럴 때 가서 일들 가서 같이 해주고
그러면 자기네끼리 이렇게 돌아보는 거.)

101006 @ 그 전에 그런 거 말고 그전에 무사 화단제¹⁰⁾여 아니면은 뭐 잔치헐
때영 멧 명 행은에 제허곡 그레 허는예, 옛날 연자매 이런 거 그런 접들도 헤낫지
아녔수가?(그 전에 그런 거 말고 그전에 왜 ‘화단계’다 아니면 뭐 잔치할 때랑 몇
명 해서 계하고 맷돌 하는요, 옛날 연자매 이런 거 그런 계들도 했었지 않습니까?)

101006 #1 그런 거 다양하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헨. 접엔 헌 거 다 헤낫주게,
여기도.(그런 거 다양하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했어. 계라고 한 거 다 했었지, 여기
도.)

101006 @ 음, 그 중에 하나 뭐 저기 화단제 이런 거 헤난 기억남수가?(음, 그
중에 하나 뭐 저기 ‘화단계’ 이런 거 했던 기억납니까?)

101006 #1 화장제¹¹⁾ 아니고. 사름이 그때는 죽으면 화장이라는 건 엇고. 운상
해다근에 그 정시 데려당 터 봄근에 거기에 문상. 그 사람덜이 이제 그, 그 멧 사람
이 해가지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 모셔근에 그 저 장터에까지이.(‘화장제’
아니고. 사람이 그때는 죽으면 화장이라는 건 없고. 운상 해다가 그 지관 데려다가
터 봄서 거기에 문상.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그 몇 사람이 해가지고 이 양쪽으로 이
렇게 해서 거 모셔서 그 저 장지에까지.)

101006 @ 으.(으.)

101006 #1 여기서 같으면 저 제주, 성읍리 영주산도 지나가근에 그 터가 좋덴
해민 그디까지도 운상해다근에 다 문곡.(여기서 같으면 저 제주, 성읍리 영주산도
지나가서 그 터가 좋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운상해다가 다 묻고.)

101006 @ 그렇게 이제 메영 가는 것들도 다 접으로 헌 거라예?(그렇게 이제 메
어서 가는 것들도 다 계로 한 거네요?)

10) ‘화단제’는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화단계’ 정도로 바꿀 수 있다.

11) 여기에서 구술자는 ‘화단제’를 ‘화장제’로 잘못 들어서 발화한 것이다.

101006 #2 우리도 고 회장 모친 돌아갈 때 우리 그 동창회로 헨에, 국민학교 동창회.(우리도 고 회장 모친 돌아갈 때 우리 그 동창회로 해서, 초등학교 동창회.)

101006 @ 예.(예.)

101006 #2 거기서 저 성읍리 우에 올라가면 준동산¹²⁾이 엔 잇수다. 준동산.(거기서 저 성읍리 위에 올라가면 ‘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준동산’.)

101006 @ 예, 준동산예?(예, ‘준동산’요?)

101006 #2 그다가 그 산터가 막 좋아마씨. 그꺼지 터 빤 허니까 우리 그디끄지다 메영 가낫수게.(거기가 그 뒷자리 매우 좋아요. 그까지 터 봐서 하니까 우리 거기까지 다 메에서 갔었습니다.)

101006 #1 여기서.(여기서.)

101006 #2 그디 가면은 가당은에 배고프덴 허명 돌레떡 호나씩 쥐낫어.(거기 가면 가다가 배고프다고 하면서 도래떡 하나씩 췄었어.)

101006 #1 믈물가루.(메밀가루.)

101006 #2 돌레떡 하나씩 먹엉 또 메영 가고.(도래떡 하나씩 먹어서 또 메어서 가고.)

101006 @ 아, 그러면은 일찍 돌아가셔난 쟁이우다예? 몇 세 때 경 헌 거우과?(아, 그러면 일찍 돌아가셨던 모양이네요? 몇 세 때 그렇게 한 겁니까?)

101006 #2 멧 세 때 돌아가셔낫수가?(몇 세 때 돌아가셨었습니까?)

101006 #1 우리 어머니,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쉬은두 설에 돌아가셔시난에 우리 한 서른 정도 됨 때에.(우리 어머니,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쉰두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한 서른 정도 된 때에.)

101006 @ 그러면 뭐 생생허겟네예?(그러면 뭐 생생하겠네요?)

101006 #2 예.(예.)

101006 @ 계영 돌레떡 호나씩벳기 안 줍디가?(그런데 도래떡 하나씩밖에 안 줍디가?)

101006 #1 아, 그땐 그것도.(아, 그땐 그것도.)

101006 #2 점심 그디서 먹고.(점심 거기서 먹고.)

101006 #1 그것도 막 부잣집이나 흐꼼 영 산덴 허는 집의서 모멀돌레 그런 거 헷주. 그, 그때엔 뭐.(그것도 매우 부잣집이나 조금 이렇게 산다고 하는 집에서 메밀도래 그런 거 했지. 그, 그때엔 뭐.)

101006 #2 경 혜영양, 성읍리에 그 가름으로 들어가젠 허난.(그렇게 해서요, 성읍리에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101006 @ 예.(예.)

101006 #2 영장이 들어가젠 허난, 성읍리에 청년들이 오란 막아산.(송장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읍리 청년들이 와서 막아서서.)

101006 @ 아.(아.)

12) ‘준동산’은 표선면 성읍리의 지경 이름이다.

101006 #2 막아산 못 들어간덴. 가름 안으론 못 들어가난 돌아서 가렌. 영허니까 표선이 청년덜이 성읍리 청년덜 몰릴 수가 잇수강계?(막아서서 못 들어간다고. 마을 안으론 못 들어가니까 돌아서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표선리 청년들이 성읍리 청년들 몰릴 수가 있습니까?)

101006 @ 예.(예.)

101006 #2 경 허연에 가젠 허니까 멀리서 돌멩이 영장더레 던정.(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니까 멀리서 돌멩이 송장으로 던져서.)

101006 @ 아아.(아아.)

101006 #2 영장 놔됭 잡아단에 그 놈 잡아당 혼나게 팻수다.(송장 놔두고 잡아다가 그 놈 잡아다가 혼나게 팻습니다.)

101006 @ 잘햇수다. 텃세를 부린 거 아니라예?(잘했습니다. 텃세를 부린 거 아닌가요?)

101006 #2 텃세 불연.(텃세 부렸어.)

101006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1006 #2 가름으로 못 들어간덴.(마을로 못 들어간다고.)

101007 @ 이 마을에는 그 옛날부터 해왔던 풍습들이 어떤 풍습이 잇수가? 남아 있는 것 혹시?(이 마을에는 그 옛날부터 해왔던 풍습들이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 혹시?)

101007 #2 요즘은 남아 있는 것이 엇수다. 기자 전에는 조금 아프면은 아이덜 아프면은 심방 빌어당 넉도 들이곡.(요즘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전에는 조금 아프면 아이들 아프면 심방 빌려다가 넉도 들이고.)

101007 #1 굿허곡.(굿하고.)

101007 #2 요디 가면예 마을 신 모신 디 저바당¹³⁾이라고 잇수다. 저바당.(요기 가면요 마을 신 모신 데 ‘저바당’이라고 있습니다. ‘저바당’.)

101007 @ 저바당?(‘저바당’?)

101007 #2 예.(예.)

101007 @ 예.(예.)

101007 #2 저바당에 당을 지어놓고 뭐, 뭐 마을, 마을에 잘 헤드렌 헤는 거, 가정적으로 잘 헤드렌 세백이 강 기도도 허고 경 행. 심방 가근에 헤는 것이 잇었는데.(‘저바당’에 당을 지어놓고 뭐, 뭐 마을, 마을에 잘 해달라고 하는 거, 가정적으로 잘 해달라고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방 가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101007 @ 음.(음.)

101007 #2 이제는 거의 사라져서마쯤. 건디 이제도 마을에서 당 짓어 잇기 때문에 심방이 그디 딱 상주해영 이십니다.(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도 마을에서 당 짓어 있기 때문에 심방이 거기 딱 상주해서 있습니다.)

13) ‘저바당’은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 이름의 하나다.

101007 #1 본향, 본향.(‘본향’, ‘본향’.)

101007 @ 아, 본향예, 아, 그럼 본향 혜영 지금도 험구나. 언제, 본향제는 언제 해마씨?(아, ‘본향’요, 아, 그럼 ‘본향’ 해서 지금도 하고 있구나. 언제, ‘본향제’는 언제 해요?)

101007 #1 본향은 계난 정월달에 하는 거주, 그.(‘본향’은 그러니까 정월달에 하는 거지, 그.)

101007 @ 음.(음.)

101007 #1 초에. 정월달 뛰면은 다 그 본향¹⁴⁾에델 가는 사름은 쭉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우리는.(초에. 정월달 되면 다 그 ‘본향’에들 가는 사람은 쭉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우리는.)

101007 @ 삼춘넨 안 가고?(삼춘넨 안 가고?)

101007 #1 이천년, 나도 이천년까지는 다녀신디 이천년 지나난에 안 다년.(이천년, 나도 이천년까지는 다녔는데 이천년 지나니까 안 다녔어.)

101007 @ 무사 안 다녔수가?(왜 안 다녔습니까?)

101007 #1 이천년까지 혜시민 됐주. 무시거 또.(이천년까지 했으면 됐지. 무엇또.)

101007 #2 나도 운수업 혈 때예, 차에 돈 많이 벌어오렌 혜근에 그디 강 자꾸 기도도 혜낫수다.(나도 운수업 할 때요, 차에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자꾸 기도도 했었습니다.)

101007 @ 아, 옛날 운수업 헛구나예?(아, 옛날 운수업을 했군요?)

101007 #2 예.(예.)

101007 #1 공들이래, 공들이래. 계난 이겟말로.(공들이리, 공들이리. 그러니까 이겟말로.)

101007 @ 그때 잘 공들이난게 이제 잘 사는 겁주게.(그때 잘 공들이니까 이제 잘 사는 거지요.)

101007 #1 아, 어떻사 혜신디.(아, 어떻게 했는지.)

101007 @ 이 표선리 특산물로는 뭘 내세울 수 잊어마씨?(이 표선리 특산물로는 뭘 내세울 수 있어요?)

101008 #1 표선이라고 해서 특별이 특산물은 없고.(표선리라고 해서 특별히 특산물은 없고.)

101008 @ 예.(예.)

101008 #1 밀감 같은 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밀감 같은 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101008 #2 전 가정에 다 험수다.(전 가정에 다 하고 있습니다.)

101008 @ 다 허는 거예?(다 하는 거요?)

101008 #2 많이 허고 적게 허고.(많이 하고 적게 하고.)

14) 여기에서 ‘본향’은 ‘본향당’을 가리키는 것이다.

101008 #1 하이튼 만 평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천 평까지. 다 그거는 골고로 다 허는 거고.(하여튼 만 평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천 평까지. 다 그거는 골고루 다 하는 거고.)

101007 @ 굴들 많이 허는구나.(굴들 많이 하는구나.)

101007 #1 해녀덜 뭐 바다에 가서 해녀덜토 이젠 몇 명 엊고.(해녀들 뭐 바다에 가서 해녀들도 이젠 몇 명 없고.) <중략>

101009 @ 예. 그러면 그, 이 마을 자랑거리?(예. 그러면 그, 이 마을 자랑거리?)

101009 #2 이 마을 자랑거리는예.(이 마을 자랑거리는요.)

101009 @ 예.(예.)

101009 #2 요즘 관광. 제주도 관광 산업으로 뭐하고, 허고 있수다.(요즘 관광. 제주도 관광 산업으로 뭐하고, 하고 있습니다.)

101009 @ 으음.(으음.)

101009 #2 표선리란 마을이예, 관광도로의 요충지가 됩니다, 여기가.(표선리란 마을이요, 관광도로의 요충지가 됩니다, 여기.)

101009 @ 음.(음.)

101009 #2 웬냐하면 제주공항에서 내리면 성읍릴 거쳐가지고 여기에 해비치호텔로 가는 손님들. 이렇게 하면 바로 건너야 돼고.(왜냐하면 제주공항에서 내리면 성읍릴 거쳐가지고 여기에 해비치호텔로 가는 손님들. 이렇게 하면 바로 건너야 되고.)

101009 @ 으음.(으음.)

101009 # 그 다음 성산일출봉으로 가젠 허민예, 여길 거쳐서 가고.(그 다음 성산 일출봉으로 가려고 하면, 여길 거쳐서 가고.)

101009 @ 음.(음.)

101009 #2 서귀포로 중문관광단지에 가더라도 여기 와서 구경해서 이렇게 해서 한참 관광철에는 예 상당히 많이 불비는 도로우다.(서귀포로 중문관광단지에 가더라도 여기 와서 구경해서 이렇게 해서 한참 관광철에는요 상당히 많이 불비는 도로입니다.)

101009 @ 으음.(으음.)

101009 #2 그리고 또 촘 유명한 해비치호텔이 잇지 아녀우과?(그리고 또 참 유명한 해비치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101009 @ 예, 예.(예, 예.)

101009 #2 이렇기 때문에 촘 해비치호텔 잇는 그디가 당캐¹⁵⁾라고 합니다. 당캐.(이렇기 때문에 참 해비치호텔 있는 거기가 ‘당캐’라고 합니다. ‘당캐’.)

101009 @ 예, 예. 당캐. 옛날 당캐식당¹⁶⁾ 유명했주마씨.(예, 예. ‘당캐’. 옛날 ‘당캐식당’ 유명했지요.)

15) ‘당캐’는 표선면 표선리 해수욕장 있는 근처의 지명 이름이다.

16) ‘당캐식당’은 표선면 표선리에 있었던 식당 이름이다.

101009 #2 이제도 유명한데, 그 당캐에 그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사만 불 시대는 뛰여마씨?(이제도 유명한데, 그 ‘당캐’에 그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사만 불 시대는 되어요?)

101009 @ 으음.(으음.)

101009 #2 그디가. 아주 수입이 좋수다. 이디허고 우리 잇는 디 허고 당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허고예 천지 차이 나마씨.(거기가. 아주 수입이 좋습니다. 여기하고 우리 있는 데 하고 ‘당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요 천지 차이 나요.)

101009 @ 아, 계난 여기는 그래도 해수욕장도 유명하고.(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해수욕장도 유명하고.)

101009 #2 예. 백사장예, 백사장에 해수욕장도 유명하고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예. 백사장요, 백사장에 해수욕장도 유명하고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101009 @ 음, 민속촌도 잇고.(음, 민속촌도 있고.)

101009 #1 민속촌 잇고 해비치 잇고 뭐 백사장 잇고 그러니까 관광지. 옛날에, 옛날에는 그 부둣가에는 당캐라고. 당캐.(민속촌 있고 해비치 있고 뭐 백사장 있고 그러니까 관광지. 옛날에, 옛날에는 그 부둣가에는 ‘당캐’라고. ‘당캐’.)

101009 @ 예.(예.)

101009 #1 거기는 다 못 사는 사름만 살아가지고 우린 우에선 토지가 많으니까 일이 많고 그던 못 살양 허민, 그디 강 다 인부덜 놓덜 빌어다근에 검질메곡 혜신디 이젠 완전히 껴풀로. 이젠 껴풀로 혜연 당캐 사름덜이 다 잘 살고 에 우에 사름이 못 살게 웬 원인은 민속촌 해비치 백사장 그 관광지 그것이 거기 잊기애 그 거풀로 웬 거. 지금은 당캐 사름덜이 가름에 와근에 사름 빌어갈 정도로 거꾸로.(거기는 다 못 사는 사람만 살아가지고 우린 위에선 토지가 많으니까 일이 많고 거긴 못 살아서 하면, 거기 가서 다 인부들 놓들 빌려다가 김매고 했는데 이젠 완전히 거꾸로. 이젠 거꾸로 해서 ‘당캐’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에 위의 사람이 못 살게 된 원인은 민속촌 해비치 백사장 그 관광지 그것이 거기 잊기애 그 거꾸로 된 거. 지금은 ‘당캐’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사람 빌려갈 정도로 거꾸로.)

101010 @ 예. (웃음) 사이좋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덧붙일 말씀 있으면? 마을과 관련행 제가 물어 본 것 중 이 말은 안 물어본 거?(예. (웃음) 사이좋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덧붙일 말씀 있으면? 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 본 것 중 이 말은 안 물어본 거?)

101010 #2 당캐란 뜻 모르지예?(‘당캐’란 뜻 모르지요?)

101010 @ 예.(예.)

101010 #2 당캐. 그 당 자가 당나라 당이우다계. 그런데 당나라 캐 허면은 바다 갯짓을 이야기하고. 당캐란 그 뜻이 옛날에 그 당나라 무역선이 여기 들리는 그런, 그래서 당캐우다, 그게. 보통덜 표선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당캐 허믄 거기 당신을 모셔 있는 그, 그걸로 아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라마씨.(‘당캐’. 그 당 자가 당나라 당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캐’ 하면 바다 갯가를 이야기하고. ‘당캐’란 그 뜻이

옛날에 그 당나라 무역선이 여기 들르는 그런, 그래서 ‘당캐’입니다, 그게. 보통들 표선리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당캐’ 하면 거기 당신(堂神)을 모셔 있는 그, 그걸로 아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101010 @ 무사 거기 당 잇수가?(왜 거기 당 없습니까?)

101010 #2 당 잇수다.(당 있습니다.)

101010 @ 개당¹⁷⁾ 잇잖우과예?('개당' 잇잖습니까?)

101010 #2 그걸 모셨다고 당캐라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건 아니라마씀.(그걸 모셨다고 ‘당캐’라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101010 @ 야.(야.)

101010 #2 당나라 무역선이 들르는 곳이라고 해서 당캐, 당캐. 게 여기서 그거 무역선 오민예 새덜, 새 이디서 막 했다가 뺨마로 실려당은에 그디 강 실려주고, 물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돈 받곡 혜난 디우다. 유명한 딘데 그자 당 모신 디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젭주.(당나라 무역선이 들르는 곳이라고 해서 ‘당캐’, ‘당캐’. 게, 여기서 그거 무역선 오면요 떠들, 떠 여기서 마구 했다가 전마선으로 실어다가 거기 가서 실어주고, 물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돈 받고 했던 텁데. 유명한 텁데 그저 당 모신 데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젭죠.)

2. 제보자 일생

102001 @ 예에, 요번은 이제 어쨌든 남자어르신한티 물어보쿠다예. 낳고 자란 과정, 나 언제 태어났을 때 그 어떻게 살았수다 헌 거를 간단하게 좀 굽아줘봅서?(예에, 이번은 이제 어쨌든 남자 어르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낳고 자란 과정, 내가 언제 태어나서 그 어떻게 살았습니다 한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102001 #2 어디서 태어난.(어디서 태어나서.)

102001 @ 예.(예.)

102001 #2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습니다.(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102001 @ 어디서 태어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간단하게 굽아주민 웬 거예?(어디서 태어나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간단하게 말해주면 될 거요?)

102001 #2 그걸 나가 대답허민. 나 표선리서 태어낭양 농사지으명 겨우 베꼈드니간 운전받안예, 운전면허증 받았 운수업 했수다.(그걸 내가 대답하면. 나 표선리서 태어나서 농사지으면서 겨우 바깥에 나가서 운전(면허증) 받아서요, 운전면허증 받아서 운수업 했습니다.)

102001 @ 예. 게 그 운수업은 몇 년 동안 했습니까?(예. 그 운수업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7) ‘개당’은 바닷가에 있는 당으로, 주로 어부나 해녀들이 주로 다닌다.

102001 #2 운수업 막 오랫동안 했수다. 혼 이십 년. 부산에 가서도 해나고예.(운수업 매우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이십 년. 부산에 가서도 했었고요.)

102001 @ 예.(예.)

102001 #2 서귀포에서 택시업도 해나고. 경허단에 이제 돈 좀 벌어지난에 표선이 오란에 바나나도 허곡 경 혜연 살았수다.(서귀포에서 택시업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벌어지니까 표선리 와서 바나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102001 @ 예, 계영 요즘은 어떻 살멘마씨?(예, 그렇게 해서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02001 #2 요즘은 뭐 경로당에 오라근에게 회장 허는 일 도와주기도 허곡 경혜염십주, 뭐.(요즘은 뭐 경로당에 와서 회장 하는 일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마씨?(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나요?)

102002 #2 우리 아버지는예, 예 저 모관.(우리 아버지는요, 예 저 ‘목안’.)

102002 @ 예.(예.)

102002 #2 애월읍 동귀리에서 여기 오란에 여기 그 웬당네가 술 공장을 했수다 게.(애월읍 동귀리에서 여기 와서 여기 그 친족들이 술 공장을 했습니다.)

102002 @ 예.(예.)

102002 #2 술 공장 기술자로.(술 공장 기술자로.)

102002 @ 음.(음.)

102002 #2 그렇게 해서 공장장으로 우리 잇으면서 우리들 키웠고, 뭐.(그렇게 해서 공장장으로 우리 있으면서 우리들 키웠고, 뭐.)

102003 @ 어머닌마씨?(어머닌요?)

102003 #2 어머니는 표선리. 본래 표선린데 에 우리 아버지한테 씨집오란에 우리덜 낳고, 우리가 육 형제. 계난 팔 남매우다, 팔 남매.(어머니는 표선리. 본래 표선린데 에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우리들 낳고, 우리가 육 형제. 그러니까 팔 남매니다, 팔 남매.)

102003 @ 팔 남매예, 아이고, 어머니 하영 고생 하영 혜신계예?(팔 남매요, 아이고, 어머니 많이 고생 많이 했네요?)

102003 #2 큰어머니도 두 분, 큰어머니도 둘 낳고 헨에 팔 남매. 그래서 크단 보니까양 굉장히 고생허명 살았수다. 먹지도 못허고.(큰어머니도 두 분, 큰어머니도 둘 낳고 해서 팔 남매. 그래서 크다가 보니까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102003 @ 음, 어머니는 어떤 일을 헌 거라마씨?(음,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102003 #2 어머니는 뭐 어떤 일 협니까? 저 농사 그치 짓고, 이렇게 허는데 자꾸 몸이 아판예, 경헨에 허고 아버지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이시난에 그디서 월급도 받고.(어머니는 뭐 어떤 일 합니까? 저 농사 같이 짓고, 이렇게 허는데 자꾸 몸이

아파서요, 그렇게 해서 하고 아버지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월급도 받고.)

102003 @ 음.(음.)

102003 #2 그래서 겨우 겨우 커낫수다. 우린 참 곤란하다 보니까 회장넨 막 잘 살았수다마는.(그래서 겨우 겨우 컸습니다. 우린 참 곤란하다 보니까 회장넨 매우 잘 살았습니다만.)

102003 @ (웃음)(웃음)

102003 #2 우린예 학교도 별로 못하고.(우린요 학교도 별로 못하고.)

102003 @ 예.(예.)

102003 #2 우리 저 큰형님은 경찰관으로 들어간에 허고, 셋형님은 저 고등학교 나오란에 애, 수협 그래도 지소장도 허곡. 난 서귀고등학교 서귀농고 갓단에 돈 엇언에 2학년 때 중퇴혜연에 계연 열일곱 살에 부산에 나갔수게.(우리 저 큰형님은 경찰관으로 들어가서 하고, 둘째형님은 저 고등학교 나와서 애, 수협 그래도 지소장도 하고. 난 서귀고등학교 서귀농고 갔다가 돈 없어서 2학년 때 중퇴해서 그래서 열일곱 살에 부산에 나갔어요.)

102003 @ 예, 계영 언제 들어온 거라마씨?(예, 그래서 언제 들어온 거예요?)

102003 #2 부산에 가서 혼 팔년 이상 살았수다.(부산에 가서 한 팔년 이상 살았습니다.)

102003 @ 아.(아.)

102003 #2 경허단에 이디 들어오란에 택시도 허곡.(그러다가 여기 들어와서 택시도 하고.)

102003 @ 예.(예.)

102003 #2 경 혜연 살았수다.(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102003 @ 게도 농사는 하영 안 짓어신게마씨?(그래도 농사는 많이 안 지었네요?)

102003 #2 농사는 별로 땅이 잊어사 농사지을 거 아니우과?(농사는 별로 땅이 있어야 농사지을 거 아닙니까?)

102004 @ 기구나양, 알았수다. 어린 땐 어떤 놀이허명 놀아수가? 노는 거?(그령 네요, 알았습니다. 어릴 땐 어떤 놀이하면서 놀았습니까? 노는 거?)

102004 #2 초등학교 노는 거 중학교 노는 거 다 틀립주게.(초등학교 노는 거 중학교 노는 거 다 다르지요.)

102004 @ 예. 어떤 식?(예. 어떤 식?)

102004 #2 초등학교 때사 무시걸 헙니까? 굴렁쉥 요즘 말론 굴렁쉥는데.(초등학교 때야 무엇을 합니까? 굴렁쉥 요즘 말론 굴렁쉥는데.)

102004 @ 옛날은?(옛날은?)

102004 #2 그 당시에는 자전거 그 바쿠 잇지 안 허우까? 그거 쌀 다 빼여불민 이렇게 흄지지 아념니까? 그걸로 대허연 등그련 다녀십주게.(그 당시에는 자전거 그

바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쌀 다 뽑아버리면 이렇게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해서 굴려서 다녔습지요.)

102004 @ 둉그령예?(굴려서요?)

102004 #2 요즘 굴렁쉥는 요렇게 훈 쇠로 해서 이렇게 허는데, 그런 것도 못 허컵니다, 요즘은. 그거 막 밀멍 막 나가는 건디.(요즘 굴렁쉥는 요렇게 된 쇠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겠대요, 요즘은. 그거 마구 밀면서 막 나가는 건데.)

102004 @ 그걸 등그리렌 해마씨?(그걸 굴리라고 해요?)

102004 #2 그렇게 해서.(그렇게 해서.)

102004 @ 허고, 게믄 중학교 낭은?(하고, 그러면 중학교 되어서는?)

102004 #2 중학교 때는 저 축구 선수로 해가지고예, 지금 시청 있는데 그다가 광장이라낫수다.(중학교 때는 저 축구 선수 해가지고요서, 지금 시청 있는데 거기가 광장이었습니다.)

102004 @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102004 #2 거기 오현중학교 간에 우리 오 대 빵으로도 져낫고.(거기 오현중학교 가서 우리 오 대 빵으로도 졌었고.)

102004 @ (웃음.) 혹시 일제시대 아까 막 비행기도 날고 햇덴한게마는.((웃음.) 혹시 일제시대 아까 마구 비행기도 날고 했다고하던데.)

102004 #2 예.(예.)

102005 @ 그 일제강점기 때 공출 같은 것도 직접 해봅디가?(그 일제강점기 때 공출 같은 것도 직접 해보셨나요?)

102005 #2 아, 공출 우리는 그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네가 말하는 거 보민예, 놋그릇 ㅋ뜬 거.(아, 공출 우리는 그거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네가 말하는 거 보면요, 놋그릇 같은 거.)

102005 @ 음.(음.)

102005 #2 에 쌀도 공출허젠 허면은 이 어디 우녕팟듸라도 굴 파근에게, 막 파낳은에 공출 그 적게 내젠 그디 다 묻어뒹 이것뺏기 엇덴 허곡, 경현 거 기억나곡 우리 어린 때. 경허면은 표선면장예.(에 쌀도 공출하려고 하면 이 어디 터밭에라도 굴 파서, 막 파놓아서 공출 그 적게 내려고 거기 다 묻어두고 이것밖에 없다고 하고, 그런 거 기억나고 우리 어린 때. 그러면 표선면장요.)

102005 @ 예.(예.)

102005 #2 면장네는 춤 그 사름덜 일본놈덜 오랑 막 못살게 굴면서 공출 웨 이 것뺏고 안 뛰느냐 허면 호호방문하면서 공출 많이 내라고 영 헷는데 그 면장덜토 예, 본의 아니게 경현 거라마씀.(면장네는 참 그 사람들 일본놈들 와서 막 못살게 굴면서 공출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 호호방문하면서 공출 많이 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면장들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거예요.)

102005 @ 음, 경혜실 텁주마씨게.(음, 그렇게 했겠지요.)

102005 #2 경현디 여깃 사름덜은 면장한티 막 굿텐 굴아도 지나고 나서 그 생

각을 헤보니까양 그 웃어른들이 말하는 거 보면, 본의 아니게 이녁도 살젠 허난. 경 헷센덜 평을 헙디다. 우린 어릴 때난 잘 몰라마씀.(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면장한테 매우 궂다고 말해도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웃어른들이 말하는 거 보면, 본의 아니게 이녁도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평을 합디다. 우린 어릴 때니까 잘 몰라요.)

102005 @ 삼춘넨 부자니까 더 공출 하영 헤실 거 닳은디 뭐렌 헙디가? 어머니네가.(삼춘넨 부자니까 더 공출 많이 했을 거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네가.)

102005 #1 우리는 이 우리는 이 동창네 허고 하여튼 농사짓는 것도 그 밭이 너무 많으니까.(우리는 이 우리는 이 동창네 하고 하여튼 농사짓는 것도 그 밭이 너무 많으니까.)

102005 @ 예.(예.)

102005 # 밧 많으면은 일도 많이.(밭 많으면 일도 많이.)

102005 @ 맞수다. 일부제예?(맞습니다. 일부자요?)

102005 #1 우린 일만 일만. 부잣집에 우린 태어나도 그 당시에 여자덜 국민학교도 안 시킨 사름이 천지우다.(우린 일만 일만. 부잣집에 우린 태어나도 그 당시에 여자들 초등학교도 안 시킨 사람이 천집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우리 어머니는 경 혜도 국민학교는 시켜야 웬덴 혜연 중학교는 가젠 허난에 일 버친 일할 사람이 엊어부난에 경 혜연 혜신디, 우리는 므물, 산듸 같은 거 므물 같은 거, 멧, 멧 가망이 엊언 그때는 가망이 엊어, 맹탱이.(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초등학교는 시켜야 된다고 해서 중학교는 가려고 하니까 일 부쳐서 일할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메밀, 산도 같은 거 메밀 같은 거, 몇, 몇 가마니 없어서 그때는 가마니 없어, 망태기.)

102005 #2 맹탱이.(망태기.)

102005 #1 맹탱이로 일로 천장까지 아래는 요만은 헌 거. 그 다음 그보다 족은 거 허멍 막 거기까지 행은에 우리 집에 왕은 공출 마차로 시꺼가수게. 시꺼가서. 그 때에 일본 놈덜. 계곡 우리 종손첩이난에 제사하는 디 놋그릇이 그때는 그릇 없으니까 맹탱이에.(망태기로 이리로 천장까지 아래는 이만큼 한 거. 그 다음 그보다 작은 거 하면서 매우 거기까지 해서 우리 집에 와서는 공출 마차로 실어갔습니다. 실어가서. 그때에 일본 놈들. 그리고 우리 종손집이니까 제사하는 데 놋그릇이 그때는 그릇 없으니까 망태기애.)

102005 @ 예.(예.)

102005 #1 혼 맹탱이로 막 혼 다섯 개 정도 담아논 걸 짹 다 썰어가고 우리 어머니네 공출 적게 내젠 도새기 집의 강 그거 강 다 묻어놓곡 무시거 혜도 잘도 찾았어 잘도 그 공출혜 간.(한 망태기로 막 한 다섯 개 정도 담아놓은 걸 짹 다 썰어가고 우리 어머니네 공출 적게 내려고 돼지우리에 가서 그거 가서 다 묻어놓고 무엇해도 잘도 찾아서 잘도 그 공출해 갔어.)

102005 @ 종손첩이니까 얼마나 헤실 거라예. 그 제기들이랑예?(종손집이니까 얼마나 했을 건가요. 그 제기들이랑?)

102005 #1 제기고 명석이고 덕석이고 이 동창네 집원 명석 덕석은 엇엇어.(제기고 명석이고 덕석이고 이 동창네 집에는 명석 덕석은 없었어.)

102005 @ (웃음.)(웃음.)

102005 #1 우린 농사 하영 진 집의 명석 덕석 잇엇주. 엇어. 놀 것이 없으니까 엇는 거주게.(우린 농사 많이 지은 집에 명석 덕석 있었지. 없어. 놀 것이 없으니까 없는 거지.)

102005 @ 삼춘, 명석하고 덕석은 어떻 트난 거우과?(삼춘, 명석하고 덕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102005 #1 명석은 네개방장한 것이 명석이고, 덕석은 동글랑한 거.(명석은 네모난 것이 명석이고, 덕석은 동그란 거.)

102005 @ 으음.(으음.)

102005 #1 동글락해근에 ㅋ래 영 놔근에 영 영영 글 때에 쓰는 것은.(동그래서 맷돌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 쓰는 것은.)

102005 @ 덕석이렌 허고?(덕석이라고 하고?)

102005 #1 덕석. 명석은 네귀방장 해근에 보리하고 조하고 마당에 막 페아놔근에 그 하는 거는 명석.(덕석. 명석은 네모나게 해서 보리하고 조하고 마당에 막 페놓아서 그 하는 거는 명석.)

102005 @ 아, 명석허곡 덕석을 구분햄구나, 여기는예? 아.(아, 명석하고 덕석을 구분하는구나, 여기는요? 아.)

102005 #1 그 멩텅이하고 뜻가래착¹⁸⁾하고 다 틀리듯이.(그 벽등구미하고 ‘뜻가래착’하고 다 다르듯이.)

102005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05 #1 명석 그 멩텅이는. 멩텅이는 영 해근에 곡식만 놓는 거 멩텅이. 뜻가래착엔 헌 거는 보리 갈젠 하면은 거름.(명석 그 망태기는. 망태기는 이렇게 해서 곡식만 넣는 거 망태기. ‘뜻가래착’이라고 한 거는 보리 갈려고 하면 거름.)

102005 @ 예.(예.)

102005 #1 그 뜻통에서 펴내여근에 씨 뿌령은에 막 물허고 소허고 빨라근에 그 거를 이거 뜻가래착에 해근에 소에 혼 착씩 이쪽에 혼 저쪽에 혼 착씩 시깽 밧데 강은에 평, 그거 영 영영 뜻가래를 풀령 밧 하나 전체 뿌려낳은에 보리 갈곡.(그 돼지우리에서 펴내서 씨 뿌려서 마구 말하고 소하고 밟아서 그거를 이거 ‘뜻가래착’에 해서 소에 한 짹씩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한 짹씩 실어서 밭에 가서 펴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지거름을 풀려서 밭 하나 전체 뿌려놓아서 보리 같고.)

18) ‘뜻가래착’은 돼지거름을 넣어서 다니는 벽서리다. 지역에 따라서 ‘뜻걸름착’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뜻가래’, ‘뜻걸름’은 ‘돼지거름’을 뜻하는 제주어다.

102005 @ 음.(음.)

102005 #1 우리는 그런 거를 얼마나 헤신지 몰라.(우리는 그런 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102006 @ 맞아예. 옛날 일부제들예, 맞수다. 삼촌, 사삼사건 때는 어떻 힙디가?
(맞아요. 옛날 일부자들요, 맞습니다. 삼촌, 사삼사건 때는 어떻게 합디까?)

102006 #2 우리 사삼사건 때는예, 국민학교 육학년 때 육학년 오학년 말씀 뒤가니까 사삼사건이 일어나십주게. 그렇게 해서 하니까 표선이는 습격이 안 들어났수다.(우리 사삼사건 때는요, 초등학교 육학년 때 육학년 오학년 말씀 되어가니까 사삼사건이 일어났습지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표선리는 습격이 안 들었었습니다.)

102006 @ 음, 해안이니까.(음, 해안이니까.)

102006 #2 위낙 해안보담도 워낙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잘 뒤팽양 잘 지켰고,
그래서 안 드니까 육학 년 때 성담을 싸는데 우리 이거 무시것과 이거 푸지게¹⁹⁾?
(워낙 해안보다도 위낙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잘 되어서 잘 지켰고, 그래서 안 드니까 육학 년 때 성담을 쌓는데 우리 이거 무엇과 이거 ‘푸지게’?)

102006 #1 으, 지계.(으, 지계.)

102006 @2 푸지게, 푸지게.(‘푸지게’, ‘푸지게’.)

102006 #1 그 산디찍으로 다 만들영은에.(그 밭볏짚으로 다 만들어서.)

102006 #2 돌 지영 날를 거. 경현에 표선리 성담을 다 싸니까. 이웃 마을 저 하천이끄지 다 원정 나가명예 경허명 그게 헨 쌉수게.(돌 지어서 나를 거. 그렇게 해서 표선리 성담을 다 쌓으니까. 이웃 마을 저 하천리까지 다 원정 나가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해서 쌓았습니다.)

102006 @ 음, 큰 피해는 엇고마씨?(음, 큰 피해는 없고요?)

102006 #2 표선리는 습격은 안 들어.(표선리는 습격은 안 들었어.)

102006 #1 습격 혼 번도 안 들언. 표선리는.(습격 한 번도 안 들었어. 표선리는.)

102006 #2 계난예 뜯 모을은 가시리 우에 가시리 토산 서화리 다 망가겼는데,
표선이는 습격 안 든 건 우리 어릴 때 그만이 들어보민예 표선리는 산사름하고 연락자가 엊어부난애.(그러니까요 다른 마을은 가시리 위에 가시리 토산 세화리 다 망가겼는데, 표선리는 습격 안 든 건 우리 어릴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표선리는 산사람하고 연락자가 없어버리니까.)

102006 @ 음.(음.)

102006 #2 경 혜연 안 들엇젠텐.(그렇게 해서 안 들었다고.)

102006 #1 폭도덜하고 연락할 사름 엇고, 웃드르가 마을이, 마을로 싸쳤기 때문에 웃드르에는 저 습격이 많이 들곡 파산웬 마을이 많이 이신디 우린 워낙 거리가 멀고 또 그런 사름이 엇고 하니까 우리 표선이는 습격도 혼번 안 들곡 빨갱이도 없고.(폭도들하고 연락할 사람 없고, 웃마을이 마을이, 마을로 쌓아졌기 때문에 웃마

19) ‘푸지게’는 짚 따위로 만든 지계를 말한다.

을에는 저 습격이 많이 들고 파산된 마을이 많이 있는데 우린 워낙 거리가 멀고 또 그런 사람이 없고 하니까 우리 표선리는 습격도 한 번 안 들고 빨갱이도 없고.)

102006 #2 경 혜연.(그렇게 했어.)

102006 @ 돌아가신 분은 엊어마씨? 그 당시에는.(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102006 #2 돌아가신 분은예, 저 국민학교에 가시리 사름덜이며 뭐 소까이혜영 내려온 사름덜 그 사름덜이 막 있었는디 군인도 주둔해낫수다게, 여기.(돌아가신 분은요, 저 초등학교에 가시리 사람들이며 뭐 소개해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군인도 주둔했었습니다, 여기.)

102006 @ 예.(예.)

102006 #2 지서 순경들이. 그 중에 말이지 어디 강 죽여불카부덴 도망가버려서. 도망가부니까 쫓아 오니까 **이 아방 이름 무신거?(지서 순경들이. 그 중에 말이지 어디 가서 죽여 버릴까봐 도망가 버려서. 도망가부니까 쫓아서 오니까 영찬이 아버지 이름 무엇?)

102006 #1 **이 아방, **이 어멍이 죽었주.(**의 아버지, **의 어머니 죽었지.)

102006 #2 그러니까, 그 집의 그레 아무튼 그 근방에 가서 **이, *** 어머니는 놀에서 감저 영 캐는데.(그러니까, 그 집에 그리로 아무튼 그 근방에 가서 **이, *** 어머니는 가리에서 고구마 이렇게 캐는데.)

102006 @ 음.(음.)

102006 #2 오란에 말여 “여기 어떤 사름 안 들어와시넨?” 허니까 놀에 영 허단 보니까 몰르니까 안 들어왓젠 혜십주게. 경 허니까 굴뚝에 곱안. 그디서 죽여벗수 게.(와서 말이야 “여기 어떤 사람 안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가리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르니까 안 들어왔다고 했습죠. 그렇게 하니까 ‘굴뚝’에 숨었어.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102006 #1 거짓말 햇덴.(거짓말 했다고.)

102006 @ 거짓말햇젠, 몰란, 몰란 혜신디도.(거짓말했다고, 몰라서, 몰라서 했는데도.)

102006 #1 몰란 혜신디.(몰라서 했는데.)

102006 #2 경 허니까양 그 집의 비참허게 살았수가?(그러니까요 그 집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102006 #1 우리, 우리 아버지는 사삼사건에 돌아가셨는디.(우리, 우리 아버지는 사삼사건에 돌아가셨는데.)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우리 아버지는 어떠혜연 돌아가셔시닌 허민 토산, 토산에덜이 그 폭도들이 많이 낫어.(우리 아버지는 어떡해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토산, 토산에들 그 폭도들이 많이 낫어.)

102006 @ 토산에.(토산에.)

102006 #1 그 토산 사름덜을 하영 이제도 폭도, 폭도도 기고 폭도 아닌 사름도 기고 문딱 썰어단. 표선면사무소 이제 옮겼지만 묵은 면사무소에 거기에 다 가둬 놓니까, 그 이제 폭도가 혼 사름이 폭돈지 폭도 아닌 사름이 도망천에 우리 친정집 의가 나무가 많이 잊어나수다게. 게난. (중략-개인사)(그 토산 사람들을 많이 이제도 폭도, 폭도도 그렇고 폭도 아닌 사람도 그렇고 몽땅 쓸어다가. 표선면사무소 이제 옮겼지만 옛 면사무소에 거기에 다 가둬 놓으니까, 그 이제 폭도가 한 사람이 폭돈지 폭도 아닌 사람이 도망쳐서 우리 친정집에 나무가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략-개인사))

102006 @ 아, 여기 표선에 이신 사름은 혼자 잊어마씨?(아, 여기 표선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요?)

102006 #1 나 밑에 여동생.(나 밑에 여동생.)

102006 @ 예예.(예예.)

102006 #1 저 국민학교 저 선생이라나신디 가이 요디 동생 이젠 퇴직하고. 그 밑에 또 우리 남동생이 이신디 여기서 살고.(저 초등학교 저 선생이었는데 걔가 요기 동생 이젠 퇴직하고. 그 밑에 또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여기서 살고.)

102006 @ 예.(예.)

102006 #1 우리 삼 남매 표선리 살고 우리 사 남맨디 오빠는 서울 살고.(우리 삼 남매 표선리 살고 우리 사 남맨데 오빠는 서울 살고.)

102006 @ 음. 게난 오빠한테만 다 투자를 했구나게. 부모님네가.(음. 그러니까 오빠한테만 다 투자를 했구나. 부모님네가.)

102006 #2 아이, 잘 삽니께.(아니, 잘 삽니다.)

102006 @ 예. 아, 집도 큅디다게. 슈퍼는 족아도.(예. 아, 집도 큅디다. 슈퍼는 작아도.)

102006 #1 예. 산다는 게 그자 그럭저럭 살다보난 살았주.(예. 산다는 게 그자 그럭저럭 살다보니까 살았지.)

102006 @ 맞아예?(맞아요?)

102006 #1 옛날 산 거 생각허민.(옛날 산 거 생각하면.)

102007 @ 우리 결혼은 어명 중매결혼 협디가? 연예결혼 협디가? 삼촌.(우리 결혼은 어떻게 중매결혼 합디까? 연예결혼 합디까? 삼촌.)

102007 #1 중매결혼이주.(중매결혼이지.)

102007 @ 어떤 식으로 행은에 결혼협디가? (웃음).(어떤 식으로 해서 결혼합디까?(웃음).)

102007 #2 나 부산 살 때.(나 부산 살 때.)

102007 @ 예.(예.)

102007 #2 표선리 그 처녀들이 부산엘 물질 가십디다게.(표선리 그 처녀들이 부산엘 물질 갔습디다.)

102007 @ 예예.(예예.)

102007 #2 겐디 우리 후밴데.(그런데 우리 후밴데.)

102007 @ 예.(예.)

102007 #2 게, 가니까 이제 춤, 고향에서 왓젠 허고 후배들 왓젠 허니까 저 부산 기장.(게, 가니까 이제 참, 고향에서 왔다고 하고 후배들 왔다고 하니까 저 부산 기장.)

102007 @ 예, 기장. 다시마 유명헌 디.(예, 기장. 다시마 유명한 데.)

102007 #2 예, 기장이란 디 그디 왓젠 헨에 우리 형님은 동아대학교에 입학해낫수다게.(예, 기장이란 데 거기 왔다고 해서 우리 형님은 동아대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2 경 혜연 그디 간 보니까 바로 우리 후배고, 겐 와십디다게. 왠에 그때 후배 눈독 들엿단에 난 집의 잇고.(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바로 우리 후배고,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그때 후배 눈독 들었다가 난 집에 있고.)

102007 @ 예.(예.)

102007 #2 난 부산에 잇고, 장계 새각시 구하肯 허면서 허길래 그, 그 집의 혜줍센 헨 들어쥔 결혼햇수다.(난 부산에 있고, 장가 새색시 구하겠다고 하면서 하기에 그, 그 집에 해 주십사고 해서 들어줘서 결혼했습니다.)

102007 @ 맷 설에 결혼협디가? 일찍 혜신게.(몇 살에 결혼합디까? 일찍 했는데.)

102007 #2 우리 두 살에. 우리 처는 스무 살에.(우리 두 살에. 우리 처는 스무 살에.)

102008 @ 아아, 그땐 사주도 봐실 거 아니라예?(아아, 그땐 사주도 봤을 거 아닌가요?)

102008 #2 아주 봐십주. 보니까 막 천생연분이엔 헨마씨.(사주 봤습지요. 보니까 매우 천생연분이라고 했어요.)

102008 #1 (웃음).((웃음).)

102008 #2 정시 사주보는 사름이 우리 웬당입주게. 웬당이니까 물론 좋게 말해 준 거 닮아.(지관 사주보는 사람이 우리 권당입지요. 권당이니까 물론 좋게 말해 준 거 같아.)

102008 @ 아, 원혜부니까?(아, 원혜버리니까?)

102008 #1 잘 살곡, 애기덜이영 잘 살고.(잘 살고, 아기들이랑 잘 살고.)

102008 @ 인상이 좋아갖고 여자들이 막 따라 뎅겨실 거 닮아. 웃는 거 보난 닮아예.(인상이 좋아갖고 여자들이 막 따라 다녔을 거 닮아. 웃는 거 보니까 같네요.)

102008 #1 어?(어?)

102008 @ 웃는 거 보난 여자들 따라실 거 닮아예?(웃는 거 보니까 여자들 따랐을 거 같네요?)

102008 #1 동창으로 모여근에 기자 먹고 놀고 그자.(동창으로 모여서 그저 먹고

놀고 그저.)

102008 #2 우리 동창덜, 상당히 춤 동창훼 잘 훼어낫수다.(우리 동창들, 상당히 참 동창회 잘 되었었습니다.)

102009 @ 아아, 그,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은 뭘 해주고 뭘 받읍디가?(아아, 그,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은 뭘 해주고 뭘 받읍디까?)

102009 #2 혼수품은 받질 아닙니다. 그때는예 여자한테 받질 아닙니다. 나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시계 흐나 핸 와십주게, 시계 허난 막 소문난.(혼수품은 받질 않습 니다. 그때는요 여자한테 받질 않습니다. 나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시계 하나 해서 왔습지요, 시계 하니까 막 소문났어.)

102009 @ 아, 그때 시계도 엊일 때난예?(아, 그때 시계도 없을 때니까요?)

102009 #2 손목시계.(손목시계.)

102009 @ 예.(예.)

102009 #2 혼 삼십 년 이상 보전해낫수다게. 고장 나도 그대로 놔두고.(한 삼십 년 이상 보전했었습니다. 고장 나도 그대로 놔두고.)

102009 @ 이제는 엊어마씨?(이제는 없어요?)

102009 #2 이제는 엊어. 어디 갖는지.(이제는 없어. 어디 갔는지.)

102010 @ 거 잊어야 훼는디, 결혼식은 어디서 헨마씨?(거 있어야 되는데, 결혼식은 어디서 했어요?)

102010 #2 결혼식은예 표선리 그 예식장이 엇엇수다게. 엇엇는데 그, 저 저, 보통 뭘 타곡 사모관대 쓰곡 햇는데 우린 신식으로 헛어마씨.(결혼식은요 표선리 그 예식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저 저, 보통 말 타고 사모관대 쓰고 했는데 우린 신식으로 했어요.)

102010 @ 음.(음.)

102010 #2 마당에, 천막 쳐서.(마당에, 천막 쳐서.)

102010 @ 예.(예.)

102010 #2 그래서 허는데 제주시에 가면은 교육계에 오래 있는 분인데 현화진 교장 선생.(그래서 하는데 제주시에 가면 교육계에 오래 있는 분인데 현화진 교장 선생.)

102010 @ 예, 예.(예, 예.)

102010 #2 아십니까?(아십니까?)

102010 @ 성읍 분예?(성읍 분요?.)

102010 #2 예, 그다가 표선중학교 교감으로 올 때우다.(예, 거기가 표선중학교 교감으로 올 땡니다.)

102010 @ 예.(예.)

102010 #2 경현디 그분이 초등학교도 가리켜낫고 우리 동창도 잊주마는 초등학교 육학년 때 그분 처가집의가 신효우다.(그런데 그분이 초등학교도 가르쳤었고 우리 동창도 있지만 초등학교 육학년 때 그분 처갓집이 신효입니다.)

102010 @ 예.(예.)

102010 #2 경행 저 서귀포 결연에 수학여행을 갔다와십주.(그렇게 해서 저 서귀포 걸어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죠.)

102010 @ 음.(음.)

102010 #2 갓다옵디계양. 그분하고는 아주 중학교 때도 우리 가리키고.(다녀왔습지요. 그분하고는 아주 중학교 때도 우리 가르치고.)

102010 #1 장작 다 시끄고, 밥 해먹을 가메 다 시끄곡. 경행에 그 수학여행 같 때. 에이그.(장작 다 싣고, 밥 해먹을 가마 다 싣고. 그렇게 해서 그 수학여행 같 때. 아이고.)

102010 #2 수학여행 간 저 신효국민학교.(수학여행 가서 저 신효국민학교.)

102010 @ 예.(예.)

102010 #2 그디 가니까 밤에 어둑으난에 그 신효국민학교 육학년 아이덜안테 혼 사름, 육학년 학생 두 사름씩 부廛 집의 강 제왓단 아침에 데려와십주게. 경했는 디 우린 이디서 혈 때 정심 싸가게 웨민 조밥에 감자 영 해 놓곡 혜영 먹었는데, 우린 부자첩의 나는 해당이 웨가지고.(거기 가니까 밤에 어두우니까 그 신효국민학교 육학년 아이들한테 한 사람, 육학년 학생 두 사람씩 붙여서 집에 가서 재웠다가 아침에 데려왔습지요. 그렇게 했는데 우린 여기서 할 때 정심 싸가게 되면 조밥에 고구마 이렇게 해 넣고 해서 먹었는데, 우린 부잣집에 나는 해당이 되어가지고.)

102010 @ 예.(예.)

102010 #2 고태근이라고.(고태근이라고.)

102010 @ 예.(예.)

102010 #2 부자첩에 해당이 웨갖고 그디 간 저녁도 곤밥 혜주고, 그 이튿날 싸 주니까 고맙덴 헨 나오란 서귀포 완 점심 먹으명 딱 캔 보니까 딴 사름은 조밥에 보리밥인데 난 완전히 곤밥이라.(부잣집에 해당이 되어갖고 거기 가서 저녁도 흰밥 해주고, 그 이튿날 싸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나와서 서귀포 와서 점심 먹으면서 딱 깨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조밥에 보리밥인데 난 완전히 흰밥이야.)

102010 @ 음. 수학여행 간 때?(음. 수학여행 갈 때?)

102010 #2 예. 그덕서 정심 혜준 것이. 어떻게 우쭐웨지는지양.(예. 거기서 점심 해준 것이. 어떻게 우쭐되어지는지요.)

102010 @ 아아.(아아.)

102010 #2 그 재워준 그 학생 이름을 딱 기억hen 놔둬십주.(그 재워준 그 학생 이름을 딱 기억해 놔뒀습죠.)

102010 @ 예.(예.)

102010 #2 기억hen 놔두서 신효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만큼에 그 집에 잇었다 생각을 했는디, 어느 기회에 나가 신협에 그 이사장을 혜수다게.(기억해 놔둬서 신효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만큼에 그 집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기회에 내가 신협에 그 이사장을 했습니다.)

102010 @ 예.(예.)

102010 #2 여기 오란 살 때 신협에 이사장을 오란 살 때 서귀포 회의실 때 간 그 역대 이사장 명단을 딱 보니까 고태근이라고 있어. 아, 그래서 직원안테 물어서, “고태근 어디 사름이냔?” 하니까 신효 사람이엔. 아니고, 일부로 촛아가십주. 그분은 깜박 잊어버렸어.(여기 와서 살 때 신협에 이사장을 와서 살 때 서귀포 회의실 때 가서 그 역대 이사장 명단을 딱 보니까 고태근이라고 있어. 아,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서, “고태근 어디 사람이냐?”고 하니까 신효 사람이라고. 아니고, 일부러 찾아갔습죠. 그분은 깜박 잊어버렸어.)

102010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2010 #2 잊어버렸는데 아, 그때 와서 자기네 집의 와서 자난 그 생각이 난다고. 경현에 춤 그분 돌아가셨주마는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낫수다게.(잊어버렸는데 아, 그때 와서 자기네 집에 와서 잤던 그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102010 @ 결혼 얘길 허단 이젠 수학여행 얘기. 결혼식은 아까 집의서.(결혼 얘길 하다 이젠 수학여행 얘기. 결혼식은 아까 집에서.)

102010 #2 집에서 허는데, 현화진 그땐 교감으로 잇을 땐 교장 선생도 놔두고 이제 우리 저 삼촌 오촌이 저 여기 표선면장으로 잇엇수다게. 오촌안티 의논하난에 현화진 선생한티 헤드렌 허라. 해서 강 부탁을 해십주게. 부탁하니까 난 주례를 안 사봤는데, 처음으로 산 거라마씨.(집에서 하는데, 현화진 그땐 교감으로 있을 땐 교장 선생도 놔두고 이제 우리 저 삼촌 오촌이 저 여기 표선면장으로 있었습니다. 오촌한테 의논하니까 현화진 선생한테 해달라고 해라. 해서 가서 부탁을 했습지요. 부탁하니까 난 주례를 안 서봤는데, 처음으로 선 거예요.)

102010 @ 예에.(예에.)

102010 #2 그래가지고 우리 마당에 천막 쳐놓고 헌에, 저 둘러리가양 은호허곡 준범이가 했수다게. 나 둘러리.(그래가지고 우리 마당에 천막 쳐놓고 해서, 저 둘러리가요 은호하고 준범이가 했습니다. 나 둘러리.)

102010 @ 예.(예.)

102010 #2 경현에 했는데 굉장히 잘 협디다게, 주례가. 그 다음에 예 그 현화진 교장 선생 제주시에 나 표선이 올 때 만나민, “야, 아이덜 멧이라.” 묻곡. “아이덜 건강해여? 어느 학교 가서?” 지금도 만나면은 그렇게 물웁니다. 첫 주례로 그 신랑 신부를 잊어지질 아녀는 거 닮아마씨?(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합디다, 주례가. 그 다음에요 그 현화진 교장 선생 제주시에 나 표선리 올 때 만나면, “야, 아이들 몇이 야.” 묻고. “아이들 건강해? 어느 학교 갔어?”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묻습니다. 첫 주례로 그 신랑 신부를 잊어지질 안 하는 거 같아요)

102010 @ 음, 경햇구나예? 경현에 결혼사진도 찍고, 사진도 잇수가?(음,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결혼사진도 찍고, 사진도 있습니까?)

102010 #2 예, 예.(예, 예.)

102011 @ 나중에 그 사진 훈번 보게예? (웃음) 신혼살림은 어디서 헨마씨?(나중에 그 사진 한번 봐요? (웃음) 신혼살림은 어디서 했어요?)

102011 #2 아, 이디 여기서 새각씨 나둬된 결혼행 혼 삼 개월쯤 잇단에 난 부산 간 살아십주. 부인은 여기 놔두고.(아, 여기 여기서 새색시 놔두고 결혼해서 한 삼 개월쯤 있다가 난 부산 가서 살았습죠. 부인은 여기 놔두고.)

102011 @ 건 무사마씨?(건 왜요?)

102011 #2 아, 부산 가서 일을 해야 월급 받안.(아, 부산 가서 일을 해야 월급 받아서.)

102011 @ 들양 가깝주. 무사 거 꼭 내불어됭예.(데리고 가깝지요. 왜 거 꼭 내버려두고요.)

102011 #2 그때는예 데령 갈 형편이 아니우다개. 부산예, 나가 오십삼년 도에 부산 갓수게.(그때는요 데려서 갈 형편이 아닙니다. 부산예, 내가 오십삼 년도에 부산 갔습니다.)

102011 @ 예.(예.)

102011 #2 오십삼 년에 육이오 동란 정전뒈지 아녀수가? 한창 팽팽 혀단에. 그디 간 혜놓니까 피난민들이영 무신거 혀영 살 형편이 아니라마씨. 그래서 오십육년, 오십칠년도에 결혼을 헷수게.(오십삼 년에 육이오 동란 정전되지 안 했습니까? 한창 팽팽 하다가. 거기 가서 해 놓으니까 피난민들이랑 무엇을 해서 살 형편이 아니여요. 그래서 오십육 년, 오십칠 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02011 @ 예.(예.)

102011 #2 그래서 이디 살고 난 부산 가서 월급 받노렌 헨 살아봐도 월급도 잘 안 훠고예, 우리 집의 사람 막 고생햇수다, 여기서.(그래서 여기 살고 난 부산 가서 월급 받노라고 해서 살아봐도 월급도 잘 안 되고요, 우리 집 사람 막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102011 @ 옛 년에 내려온 거라마씨?(몇 년에 내려온 거예요?)

102011 #2 거기서 팔 년 만이 내려왔수다.(거기서 팔 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102012 @ 아이들은 어떻 뛰마씨?(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102012 #2 아이들은 아들 둘에 딸 셋마씀.(아이들은 아들 둘에 딸 셋이요.)

102012 @ 음, 아들 둘에 딸 셋예? 씨집살이. 자식들은 다 결혼햇고예?(음, 아들 둘에 딸 셋요? 시집살이. 자식들은 다 결혼했고요?)

102012 #2 예.(예.)

102012 @ 예,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행?(예,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해서?)

102012 #2 며느리 저, 계난 이디는 우리 집사름하고 나하고만 살암수다.(며느리 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102012 @ 지금은예?(지금은요?)

102012 #2 우리 큰아덜 제주시 강 살고예, 또 족은뜰 또 제주시에 가서 교편.(우리 큰아들 제주시 가서 살고요, 또 작은뜰 또 제주시에 가서 교편.)

102012 @ 아, 하고.(아, 하고.)

102012 #2 교육청에 지금 갓수다. 뭐냐 그 교감 훼젠 헨 시험 보니까 합격했에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고.(교육청에 지금 갔습니다. 뭐냐 그 교감 되려고 해서 시험 보니까 합격해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고.)

102012 @ 송연심이우과? 혹시.(송연심입니까? 혹시.)

102012 #2 송미예.(송미예.)

102012 @ 아, 송미예도, 다른 저기우다. 무사 저의 친구도 거기 가 있어서. 아, 경 허고 그 가족관계 헤갖고 덧붙인 거 잊어마씨? 재미있거나 이런 결혼생활 허는 거 중에?(아, 송미예도, 다른 저집니다. 왜 저희 친구도 거기 가 있어서. 아, 그렇게 하고 그 가족관계 해가지고 덧붙일 거 있어요? 재미있거나 이런 결혼생활 하는 것 중에?)

102012 #2 그 족은딸이 큰딸 큰아들 셋딸은 여기 표선에서 학교를 했고, 족은딸은 서귀포 나 가니까 서귀포에서 인자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서귀여고 끄지 나오란 제주대학교 나오란 선생하고 있고 이렇게 현데, 그 위낙 곤란하니까. 서울에 우리 누의동생이 잘 살아수다게.(그 작은딸이 큰딸 큰아들 둘째딸은 여기 표선에서 학교를 했고, 작은딸은 서귀포 나 가니까 서귀포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서귀여고까지 나와서 제주대학교 나와서 선생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그 위낙 곤란하니까. 서울에 우리 누의동생이 잘 살았습니다.)

102012 @ 예.(예.)

102012 #2 큰누의동생이. 그래서 인자 보아가지고 “아이고, 오빠 미엘랑 저 서울에 보내서.” “보내면 나 키우곡 저 대학교 끄지 다 시키쿠다.” 이렇게 해서 “으 좋다.” 경허게 했는데 어명이 “느시 안 웬다.”고. 경행 했는데 그 족은딸이 그걸 눈치 알아가지고 그때 막 울면서 경혜낫수다. “그디 보내젠 햇젠.” 허는데, 아이가 경 공부를 잘 헤가지고.(큰누이동생이. 그래서 이제 보아가지고는 “아이고, 오빠 미엘랑 저 서울에 보내십시오.” “보내면 나 키우고 저 대학교까지 다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좋다.” 그렇게 하자 했는데 어머니가) “도무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작은딸이 그걸 눈치 알아가지고 그때 마구 울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 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102012 @ 예.(예.)

102012 #2 가이 졸업할 때 우리나라에 임용고시가 처음에 생겼수다게. 그때 합격했에 지금 수학 선생으로 잇수다.(걔가 졸업할 때 우리나라에 임용고시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때 합격해서 지금 수학 선생으로 있습니다.)

102007 @ 예, 이젠 삼춘안티 물어보쿠다예. 삼춘 중매결혼 햇수가? 아니면 연예 결혼 햇수가? 삼촌은.(예, 이젠 삼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촌 중매결혼 했습니까? 아니면 연예결혼 했습니까? 삼촌은.)

102007 #2 나는 그때에 그때 결혼 처음 스무한 살에 혜신디 중매결혼 이디 하천리.(나는 그때에 그때 결혼 처음 스물한 살에 했는데 중매결혼 여기 하천리.)

102007 @ 예.(예.)

102007 #1 처음 결혼했을 때는 사랑은 결혼해영 곧 일본 가부난 일본 간 편지도 안 오고 소식이 엊그제 계연 뭐 이제 우리 이제 애들 아방 만난에 그냥 표선서 살고.(처음 결혼해서 사랑 되는 사람은 결혼해서 곧 일본 가버리니까 일본 가서 편지도 안 오고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이제 애들 아버지 만나서 그냥 표선에서 살고.)

102007 @ 남편도 이제 표선이라낫구나예?(남편도 이제 표선이었었군요?)

102007 #1 아니, 육지 진주라나신디.(아니, 육지 진주였었는데.)

102007 @ 예.(예.)

102007 #1 나가 여기에서 다마네기 그튼 거 미역같은 거 이제 부산 장사 막 뎅긴 데 그 우리 사랑은 제주상회 잇어나서. 거기에서 사무 보명.(내가 여기에서 양파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이제 부산 장사 많이 다녔던 데 그 우리 사랑은 제주상회 있었었어. 거기에서 사무 보면서.)

102007 @ 예.(예.)

102007 #1 계난 물건 그디 시꺼당 놔두면 잘 팔아근에 돈으로 잘 주곡. 경 허단 보난에 정들언에 같이 살안에 행 표선이서 살단 돌아가시고.(그러니까 물건 거기 실어다 놔두면 잘 팔아서 돈으로 잘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들어서 같이 살아서 해서 표선리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102007 @ 연예결혼하신게, 게믄예?(연애결혼했네요, 그러면요?)

102007 #1 그거는 ** 연엔지 그자 그럭저럭허연.(그거는 ** 연엔지 그자 그럭저럭해서.)

102008 @ 사주는 봐실 거고. 경 혜도 사주 봅디가?(사주는 봤을 거고. 그렇게 해도 사주 봅디까?)

102008 #1 사주 보명 기자 그냥.(사주 보면서 그자 그냥.)

102008 @ 그냥 거기서 살아붙디가? 계난.(그냥 거기서 살아버렸습니까? 그러니까.)

102008 #1 그냥저냥.(그냥저냥.)

102009 @ 그 혼수품이나 결혼예물은 어떤 걸 헨마씨?(그 혼수품이나 결혼예물은 어떤 걸로 했나요?)

102009 #1 우리 나가 처음에 결혼할 땐 혼수품 그런 건 엊어, 그자. 이불하고 요하고 무신 쿠 허나 허고 그거 해 가는 게 기본.(우리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땐 혼수품 그런 건 없어, 그자. 이불하고 요하고 무슨 쿠 하나 하고 그거 해 가는 게 기본.)

102009 @ 예.(예.)

102009 #1 그거 행 간에 그 하천리 간 뭐 거 다 내벼될에 가져오지도 아년 내벼될 기자.(그거 해서 가서 그 하천리 가서 뭐 거 다 내벼려두고 가져오지도 않고 내벼려두고 그자.)

102009 @ 어, 어쨌든 가부난예? 거기서는 뗏 낸 잇단 온 거라.(어, 어쨌든 가버리니까요? 거기서는 몇 년 있다가 온 거라.)

102009 #1 뗏 낸 잇단 뭐 결혼해연에 뭐 일년도 아니 뛰연에 그 남자 일본 가부난에 그 웨 한 이년 동안 갓다왓다하단 기자 거기 치와불언.(몇 년 있다가 뭐 결혼해서 뭐 일년도 아니 되어서 그 남자 일본 가버리니까 그 왜 한 이년 동안 갔다왓다하다가 그저 거기 치워버렸어.)

102009 @ 소식은 못 들고.(소식은 못 듣고.)

102009 #1 치와불고.(치워버리고.)

102010 @ 잘 했수다. 겐 그때 결혼사진은 찍읍디가?(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사진은 찍었습니까?)

102010 # 결혼사진 찍어신지 그때 결혼사진 어디사 가신지 엇어.(결혼사진 찍었는지 그때 결혼사진 어디야 갔는지 없어.)

102011 @ (웃음). 신혼살림은 어디서 헌 거? 그때.((웃음). 신혼살림은 어디서 한 거? 그때.)

102011 #1 신혼이멍 그때 시집의서 경허단 가부난 무신.(신혼이면서 그때 시집에서 가버리니까 무슨.)

102012 @ 아이들도 엇고, 지금은 자식은 몇마씨?(아이들도 없고, 지금은 자식은 몇이에요?)

102012 #2 딸 두 개 아들 하나.(딸 둘 아들 하나.)

102012 @ 딸 둘 아들 하나. 어디 살암수가?(딸 둘 아들 하나. 어디 살고 있습니까?)

102012 #1 아들은 서울 살고 딸은 큰딸은 저디 모실포.(아들은 서울 살고 딸은 큰딸은 저기 모슬포.)

102012 @ 예.(예.)

102012 #1 그디 살고. 저 작은딸은 제주시, 제주시에 가근에 살고.(거기 살고. 저 작은딸은 제주시, 제주시에 가서 살고.)

102012 #2 아들이 막 유명해마씨, 아들이. (아들이 매우 유명해요, 아들이.)

102012 @ 아들이.(아들이.)

102012 #2 학교 어디?(학교 어디?)

102012 @ 계난 여기는 혼자(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102012 @ 아들이?(아들이?)

102012 #2 어디 대학교.(어디 대학교.)

102012 #1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02012 @ 으, 서울시립대학교?(으, 서울시립대학교?)

102012 #1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학위 다 받고 미국 유학도 갓다오곡. 서울 그냥 그 시립대학교 교수로 기자 기냥 살암서.(서울대학교 석사 박사학위 다 받고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서울 그냥 그 시립대학교 교수로 그저 그냥 살고 있어.)

102012 @ 예.(예.)

102012 #1 메뉴린 서울대학병원에 수간호원이고.(며느린 서울대학병원에 수간호원이고.)

102012 @ 음.(음.)

102012 #2 이제 한이 뛰는 게 아들 안 낳양 딸만 두 개 난에 낳렌 해도 안 나부난에 그것이 복통 나는 거주.(이제 한이 되는 게 아들 안 낳아서 딸만 두 개 낳으니까 낳으라고 해도 안 낳으니까 그것이 복통 나는 거지.)

102012 @ 더 나시민 아들들 저기 할 건데.(더 낳았으면 아들들 저기 할 건데.)

102012 #1 딸만 둘이 난에 족은아이가 국민학교 육학년인디.(딸만 둘이 낳아서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육학년인데.)

102012 @ 안 나肯마씨?(안 낳겠대요?)

102012 #1 안 낳겐. 저 요번이 완에 막 혼나 더 딸이고 아들이고 나보렌 해보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딸만 두 개엔 허멍.(안 낳겠다고. 저 요번에 와서 마구 하나 더 딸이고 아들이고 낳아 보라고 해보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딸만 두 개라고 하면서.)

102012 @ (웃음).((웃음).)

102012 #1 경허멍 ㅋ난 이놈이 자식아, 그 그디 미국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틀린디 그런 말 허민 훼느넨 허멍 막 싸완허난 포기해연 이젠.(그러면서 말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거 거기 미국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데 그런 말 하면 되느냐고 하면서 막 싸워서 하니깐 포기해서 이젠.)

102013 @ 예, 포기하는 게 좋수다게. 계연 그 혹시 씨집살이 이런 것도 안 해봐시커라예?(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시집살이 이런 것도 안 해봤겠네요?)

102013 #1 씨집살이 그런 건 안 허고 그자.(시집살이 그런 건 안 하고 그자.)

102014 @ 자식덜 결혼은 다 시켠마씨? 헨?(자식들 결혼은 다 시켰어요? 했나요?)

102014 #1 모실포 간 거기 모실포 보성에서 행복주유소.(모슬포 가서 거기 모슬포 보성에서 행복주유소.)

102012 @ 예.(예.)

102012 #2 우리 큰딸은 그거 허고. 그런대로 밥은 먹엉 살아.(우리 큰딸은 그거하고. 그런대로 밥은 먹어서 살아.)

102014 #2 잘 살아.(잘 살아.)

102015 @ 계연 메느리허고 사위 자랑 좀 헤봄서?(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위 자랑 좀 해보세요?)

102015 #2 메느리는 우리 아덜 결혼할 때에 그때에 옛 년도에 결혼해시, 결혼할 때에 그때에 전셋돈 팔천만 원 결혼시키고 팔천만 원 해주멍 이 이상은 바래지 말라. 절대 못한덴 지네대로 벌언 그거 팔천만 원 준 것에서 ㅎ꼼 더 보태연에 조그

만 집 샷단에 이젠 떨 두 개 난 방도 다 따로따로 쓰게 됐던 쪽엔 헨 그 집 풀안에 큰집 헨에 헨. 큰집 혜영 할 때도 돈도 그때 그런 말 굴아부난 드렌도 아니고 주젠도 안 하고 또 주젠 해도 또 엇고.(며느리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에 그때에 몇 년도에 결혼했나, 결혼할 때에 그때에 전셋돈 팔천만 원 해주면서 이 이상은 바라지 말라. 절대 못한다고 자기네대로 벌어서 그거 팔천만 원 준 것에서 조금 더 보태서 조그만 집 샀다가 이젠 떨 두 개 난 방도 다 따로따로 쓰게 되니까 작다고 해서 그 집 팔아서 큰집 해서 했어. 큰집 해서 할 때도 돈도 그때 그런 말 말해버리니까 달라고도 안하고 주려고도 안 하고 또 주려고 해도 또 없고.)

102015 @ (웃음).((웃음).)

102015 #1 경헨에 원 아덜네 집의 가보지 안 헨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 아덜네 집의 딱 이를 밤 이를밤 잔에 이디 완. 그거 이를 밤 이를 산 것이 아덜 하고 그거 산 거.(그렇게 해서 원 아들네 집에 가보지 안 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 아들네 집에 딱 이를 밤 이를밤 자고 여기 왔어. 그거 이를 밤 이를 산 것이 아들하고 그거 산 거.)

102015 @ (웃음). 계난 거의 뜰덜하고만 연락해연 살암구나예?((웃음).(그러니까 거의 땅들하고만 연락해서 살고 있군요.)

102015 #1 얘기 떨. 사위는 그 주유소하고 그냥 사업덜 혀멍 살암서.(얘기 떨. 사위는 그 주유소하고 그냥 사업들 하면서 살고 있어.)

102016 @ 노인훼장 안 허민 안 웨. 이 동창들하고만.(노인회장 안 하면 안 되어. 이 동창들하고만.)

102016 #1 동창들 때문에. 동창 권유에 헨에 하단 보난.(동창들 때문에. 동창 권유에 해서 하다가 보니까.)

102016 #2 노인회장 할 때도 세 사람이 출마했는데.(노인회장 할 때도 세 사람이 출마했는데.)

102016 @ 예.(예.)

102016 #1 남자 둘 하곡.(남자 둘 하고.)

102016 @ 남자 둘을 물리치곡?(남자 둘을 물리치고?)

102016 #1 남자덜은 다 대학 졸업한 사름덜.(남자들은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

102016 @ 아, 게도 동창 힘이 크다예?(아, 그래도 동창 힘이 크네요?)

102016 #2 둘이 표보다 훨씬 많이 얻언. 인기가 처녀 때부터 잇엇수다게.(둘 표보다 훨씬 많이 얻었어. 인기가 처녀 때부터 있었습니다.)

102016 @ 음, 베풀기를 잘햇구나예?(음, 베풀기를 잘했군요?)

102016 #1 베푸는 것보단 성격이 남하고 지는 것도 싫어허곡, 또 남하고 쌉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노난에.(베푸는 것보다 성격이 남하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또 남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니까.)

102016 @ 예.(예.)

102016 #1 건드리지 아녀민 쌉지 아녀믄 웨고.(건드리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되고.)

102016 @ 음, 맞습니다. 예.(음, 맞습니다. 예.)

102016 #1 살당 보난 그자 혼자 집의 나 혼자 사는 거.(살다가 보니 그저 혼자 집에 나 혼자 사는 거.)

102016 @ 알았수다. 이제까지는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예 잠깐만예?(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요 잠깐만요?)

3. 밭일

103001 @ 예, 이젠예, 농사지어보젠마씨. 이건 다 옛날에 했던 거난예, 밭일 허는 거는 옛날 혜난 거 굽아줍서예? 어떤 밭일 혜엿수가?(예, 이젠 농사지어보려고요. 이건 다 옛날에 했던 거니까요, 밭일 하는 것은 옛날 했던 거 말해주십시오? 어떤 밭일 했었습니까?)

103001 #2 밭일엔 헌 건 쉐헤근엥에 밧 갈앙 씨 뿌리고 혜근에 남테로 혜서 남테²⁰⁾는 사름이 막 끓니다게.(밭일이라고 한 건 소 해서 밭 갈아서 씨 뿌리고 해서 ‘남테’로 해서 ‘남테’는 사람이 막 끓니다.)

103001 @ 예.(예.)

103001 #2 거 이렇게 혼합시킬라고.(거 이렇게 혼합시키려고.)

103001 #1 남테. 남테도 이만은 둥그렁현 나무를 이 정도 길쭉현 거이.(‘남테’, ‘남테’도 이만큼 둥그런 나무를 이 정도 길쭉한 거.)

103001 @ 예.(예.)

103001 #1 그것에 그 군데군데 고망을 뚫라가지고 거기 다 밭을 박는 거라.(그것에 그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다 밭을 박는 거야.)

103001 @ 음.(음.)

103001 # 거 둥그려 가가면 그 밭로 밧이 딴딴하게 밟아지게 그 남테엔 한 것이 그런 거를 소덜 소 말 엇인 사름덜은 그런 거 가정 사름으로.(거 굴리어 가가면 그 밭로 밧이 단단하게 밟아지게 그 ‘남테’라고 한 것이 그런 거를 소들 소 말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져서 사람으로.)

103001 #2 우린 다 사름으로.(우린 다 사람으로.)

103001 #1 사름으로 허고. 우리 집 경우에는 소하고 말이 많으니까 소덜허고 말하고 혜근에 조. 옛날에는 명청현 거라 그때양. 이제 삐영 내벼도 웨는디 좁씨 삐영 데깍허게 밟으는 거라. 그 완전 굽게기 들어가지 아니할 정도로. 경 혜사 조가 잘

20)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굽은 나뭇가지를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다. 보통 조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묻기 위해서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서 ‘낭테’, ‘목마’라고 한다.

웬다고.(사람으로 하고. 우리 집 경우에는 소하고 말이 많으니까 소들하고 말하고 해서 조. 옛날에는 멍청한 거야, 그때는요. 이제 뿌려서 내버려도 되는데 조씨 뿌려서 단단하게 맑는 거야. 그 완전 호미 들어가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조가 잘 된다고.)

103001 @ 으음.(으음.)

103001 #1 경혜신디 이젠 기냥 빼여근에 끄시게질만. 끄시게엔 헌 건 나무, 소나무라도 영 썹 이신 거 뗏 가지 심영 영 납작하게 만들엉 그걸로 슬슬 끗엉 씨만 묻어져도 뛰는 거를 옛날에는 그치록.(그랬는데 이젠 그냥 뿌려서 끙게질만. 끙게라고 한 건 나무, 소나무여도 이렇게 일 있는 거 몇 가지 잡아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슬슬 끌어서 씨만 묻어져도 되는 것을 옛날에는 그처럼.)

103001 @ 경 다련예?(그렇게 다려서요?)

103001 #1 하루 종일.(하루 종일.)

103001 @ 아.(아.)

103001 #2 그 소, 소 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저 오랑근에 불려드렌 허면은 내일 뗏 시에 오랑은에 불려 줍서 허면은 물, 말덜 가정오라서 딱 디믈라서 다니는데 것보고 테우리, 테우리.(그 소, 소 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저 와서는 맑아 달라고 하면 내일 몇 시에 와서 맑아 주십시오 하면 말, 말들 가져와서 딱 집어넣어서 다니는데 것보고 목동, 목동.)

103001 @ 예.(예.)

103001 #2 그 사름덜 얼마나 잘 받은 줄 맑아우꽈? 우리는 조밥 보리밥을 정심으로 허고예, 그분안티는 고기 다 굽고 곤밥 혜당은에양 경 다 대접허젠허민 잘 불려주지도 아녀마씨.(그 사람들 얼마나 잘 받은 줄 압니까? 우리는 조밥 보리밥을 점심으로 하고요, 그분한테는 고기 다 굽고 쌀밥 해다가요 그렇게 다 대접하려고 하면 잘 맑아주지도 않아요.)

103001 @ 이 표선리도 테우리들이 으라 집 잇엇구나양?(이 표선리도 목동들이 여려 집 있었군요?)

103001 #1 소 우리 친정에도 말 한 오십 개씩 잇어낫수다.(소 우리 친정에도 말 한 오십 개씩 있었습니다.)

103001 @ 아이고.(아이고.)

103001 #1 오십 개 잇언 혼 우린 우잣이 뗏 팽이나 뛰여. 혼 벡 평 정도 될 거라. 뗏 그디 다 물.(오십 개 있어서 한 우린 텃밭이 몇 평이나 되어. 한 백 평 정도 될 거야. 몇 거기 말.)

103001 @ 아.(아.)

103001 #1 이 쪽에 길게시리 집 짓은 거 소.(이 쪽에 길게끔 집 지은 거 소.)

103001 @ 으.(으.)

103001 #1 소는 눈 올 때라도 집 속에서 하고 말은 눈 올 때도 베갯듸 기냥 출만 청 내벼도 어떻 안 허는 거란게.(소는 눈 올 때라도 집 속에서 하고 말은 눈 올

때도 바깥에 그냥 꿀만 쥐서 내버려도 어떻게 안 하는 거던데.)

103001 @ 진짜 부잣집, 일등 부자라낫구나.(진짜 부잣집, 일등 부자였구나.)

103001 #2 막 부자라나서.(매우 부자였어.)

103001 #1 뒷 하나가 만 평. 그거 다 농사지레 두린 때 게나제나 우리 어머니네 일만 일만 해부난 다리가 처녀 때 다리가 고장 난 거.(밭 하나가 만 평. 그거 다 농사지으러 어릴 때 그러나저러나 우리 어머니네 일만 일만 해버리니까 다리가 처녀 때 다리가 고장 난 거.)

103001 #2 경 혜도 고장 나도 아들하고 메느리 이시난 다리 다 새 걸로 고쳤수 게.(그래도 고장 나도 아들하고 며느리 있으니까 다리 다 새 걸로 고치고 있잖아요.)

103001 @ 게니까마씨.(그러니까요.)

103001 #1 아이고.(아이고.)

103001 @ 알았수다. 이제는.(알았습니다. 이제는.)

103001 #1 옛날 생각허민.(옛날 생각하면.)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부터 해보커라예? 보리농사 짓젠허민 어떤 식으로 준비햇수 과?(보리농사부터 해보겠어요? 보리농사 지으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했습니까?)

103002 #1 보리농사 짓젠허민 어떻 준비해신고 허민 그때는 영 둋통 만들어 놔 근에 도새기를 키우지 않아요.(보리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면 그때는 이렇게 돼지우리 만들어 놔서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103002 @ 예.(예.)

103002 #1 도새기 키우민 그 거름을 만들젠 보리찍 같은 거 바당에 가근에 듬북.(돼지 키우면 그 거름을 만들려고 보릿짚 같은 거 바다에 가서 듬북.)

103002 @ 예.(예.)

103002 #1 듬북 그거 헤다근에 보리찍 놓곡 듬북 놓곡 헤근에 돼지가 똥 싸멍 거 밟으민 그것이 거름 뭐. 일 년 동안 하면은. 게면은 음력으로 시월달 뭐면은 그 거름을 이 남테.(듬북 그거 해다가 보릿짚 넣고 듬북 넣고 해서 돼지가 똥 싸면서 거 밟으면 그것이 거름 돼. 일 년 동안 하면. 그러면 음력으로 시월달 되면 그 거름을 이 ‘남테’.)

103002 @ 예.(예.)

103002 # 남테엔 현 거는 양쪽에 영 헤근에 저 남으로 딱 훈 거 헤근에 이디 저 그 줄.(‘남테’라고 한 것은 양쪽에 이렇게 해서 저 나무로 딱 된 거 해서 여기 저 그 줄.)

103002 @ 예.(예.)

103002 #1 집, 초가집 그 이는 줄 잇잖아요. 그거, 그거 가져근에 이레저레 헤근에 그거를 요만은허게 멘들아근에 양쪽으로 영 헤근에 두 사람이 그 둋통에 가근에

그 쉐스렁으로 걸로 막 혜영 그레 다 퍼 놔근에 둘이가 들령 나와근에 올레에.(집, 초가집 그 이는 줄 있잖아요. 그거, 그거 가져서 이리저리 해서 그거를 요만큼하게 만들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 돼지우리에 가서 그 쇠스랑으로 걸로 마구 해서 그리로 다 퍼 놔서 둘이 들어서 나와서 오래에.)

103002 @ 음.(음.)

103002 #1 올레 와근에 혜영. 그 이제 혼 낫전은 그 뜻통에 거 다 퍼내영 거 해놓면은 그거를 이제 보리씨를 그레 막, 그 걸름데레 뿌리멍. 뿌리멍 소 혜근에 막밟으는 거라.(오래에 와서 해서. 그 이제 한 낫전은 그 돼지우리에 거 다 퍼내어서 거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보리씨를 그리로 막, 그 거름으로 뿌리면서. 뿌리면서 소해서 마구 밟는 거야.)

103002 @ 음.(음.)

103002 #1 그 씨를 다 걸름에 서꺼지라고.(그 씨를 다 거름에 섞어지라고.)

103002 @ 예.(예.)

103002 #1 경근에 밭이 천 평이면은 씨가 얼마 든다 그거를이 생각해근에 그 씨를 다 뿌리멍 그 소 혜근에 그거 다 밟아. 또 이제 두집어 놔근에 또 씨 뿌리멍 다 밟아. 경 혜영 그거 영 영 혜영 모두와 놔근에 뒷날은 그거 아까 뜯가례착.(그렇게 해서 밭이 천 평이면 씨가 얼마 들겠다 그것을 생각해서 그 씨를 다 뿌리면서 그 소 해서 그거 다 밟아서. 또 이제 뒤집어 놓아서 또 씨 뿌리면서 다 밟아.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여 놓아서 뒷날은 그거 아까 ‘돛가례착’.)

103002 @ 음.(음.)

103002 #1 응. 그 ‘돛가례착’²¹⁾에 그거 다 혜근에 걸름을 담아놔근에 다 밟아.(응. 그 ‘돛가례착’에 그거 다 해서 거름을 담아놓아서 다 밟아.)

103002 @ 음.(음.)

103002 #1 경 혜영 소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에 혼나씩 시꺼근에 밭되 가근에 다 시꺼당 비와 놓민 그 뜻날은 사름 멧 사람이 빌어가지고 그 뜻가래. 그 뜻가래엔 허주제. 그 걸름을.(그렇게 해서 소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에 하나씩 실어서 밭에 가서 다 실어다가 부어 놓으면 그 뒷날은 사람 몇 사람을 빌려 가지고 그 돼지거름. 그 돼지거름이라고 하지. 그 거름을.)

103002 @ 예, 예. 뜻가래.(예, 예. 돼지거름.)

103002 #1 뜻가래를 그거 옛날엔 고무장갑도 장갑도 아무 것도 엇이니까.(돼지 거름을 그거 옛날엔 고무장갑도 장갑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103002 @ 맞수다.(맞습니다.)

103002 #1 손으로 문딱 그거 소로 막 밟아논 거 딴딴한 거를 부비멍 그거 막부벼근에 골고루 뿌려야 그 보리씨가 골고로 날 거니까 근치룩혜근에 보리 같아.(손으로 몽땅 그거 소로 마구 밟아놓은 거 딴딴한 거를 비비면서 그거 마구 비벼서 골고루 뿌려야 그 보리씨가 골고루 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리 같아.)

21) ‘돛가례착’은 돼지거름을 담는 역서리를 말한다.

103002 @ 음,(음,)

103002 #2 경 혜영 그 이튿날은 소로 갑주게.(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은 소로 갑지요.)

103002 @ 예.(예.)

103002 #1 소로 다 뿌려놓은 거 소로 밧 갈멍 그 돛가레 다 묻엉. 계영 그 뒷날 쯤 털면은 돛가레가 다 묻어져시냐 안 묻어져시냐 그 곰베엔 헌 거. 곰베.(소로 다 뿌려놓은 거 소로 밧 갈면서 그 돼지 거름 다 묻어서. 그렇게 해서 그 뒷날쯤 되면 돼지거름이 다 묻어졌느냐 안 묻어졌느냐 그 곰방메라고 한 거. 곰방메.)

103002 @ 예, 예. 곰베.(예, 예. 곰방메.)

103002 #1 그거 곰베 가정 다니멍 그 흑이 이렇게 혜진 거는 병에. 그 병에 그 곰베 보리 이제 흑이 이렇게 혜진 거는 병에.(그거 곰방메 가져서 다니면서 그 흑이 이렇게 해진 것은 흙덩이. 그 흙덩이 그 곰방메 보리 이제 흑이 이렇게 해진 거는 흙덩이.)

103002 @ 예.(예.)

103002 #1 병에를 그거 곰베로 뿌스멍 거름을 묻는 거라.(흙덩이를 그거 곰방대로 부수면서 거름을 묻는 거야.)

103002 @ 아아.(아아.)

103002 #1 계영 묻어근에 허영 보리 나면은 이제 밭로 다 밟아.(그렇게 해서 묻어서 보리 나면 이제 밭로 다 밟아.)

103002 @ 삼춘, 아까 그 걸름 옮길 때 나무로 행은에 만들엇던 헨 그 일름이 뭐라마씨?(삼춘, 아까 그 거름 옮길 때 나무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뭐예요?)

103002 #2 남테, 남테. ('남테'. '남테')

103002 #1 남테.('남테').

103002 @ 아까 밧 끓을 때 쓰는 그거는?(아까 밭 밟을 때 쓰는 그건요?)

103002 #1 그거는 남테, 아니.(그거는 '남테', 아니.)

103002 @ 두 개 다.(두 개 다.)

103002 #1 산테²²⁾, 남테.('산테', 남테..)

103002 #2 산테.('산테').

103002 #1 산테, 남테.('산테', '남테').

103002 #2 들러서 허는 거는 남테.(들어서 하는 거는 '남테').

103002 @ 예, 기지예.(예, 그렇죠.)

103002 #2 두 사름이 들르는 거는 영해서 들른 거는 산테.(두 사람이 드는 거는 이렇게 해서 드는 거는 '산테').

103002 #1 밧 밟으는 그거는 남테.(밭 밟는 그거는 '남테').

22) '산테'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를 말한다.

103002 @ 아까 이것도 남테렌 허고, 이것도 남테렌 허니까.(아까 이것도 ‘남테’라고 하고, 이것도 ‘남테’라고 하니까.)

103002 #1 계난 그거는 요샛 아이덜 말하면은 하나도 알아먹지도 못하고.(그러니까 그것은 요새 아이들 말하면 하나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103002 @ 맞수다.(맞습니다.)

103002 #1 거 우리, 우리도 웃터레만 알지 그 밑으로는 잘 몰라.(거 우리, 우리도 위로만 알지 그 밑으로는 잘 몰라.)

103002 @ 계난 이런 살아온 이야기를 이치록 녹음 안 행 놔두면 누계가 훗날 알 거우과게. 계난 허는 거마씨?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영 가는 거라예? 아까 보리밭 걸름은 우리 삼촌은 경 햇덴 어떻 준비해수가? 보리밭 걸름.(그러니까 이런 살아온 이야기를 이처럼 녹음 안 해서 놔두면 누가 훗날 알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가는 거라고요? 아까 보리밭 거름은 우리 삼촌은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보리밭 거름.)

103003 #2 우리도 마찬가지.(우리도 마찬가지.)

103003@ 마찬가지예?(마찬가지요?)

103003 #1 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103004 @ 그럼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 행 가는 거우과?(그럼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103004 #1 보리 그때 거름 보리 해근에.(보리 그때 거름 보리 해서.)

103004 @ 계절(계절)

103004 #2 시월달에.(시월달에.)

103004 #1 시월달에 다 허면은 그때는 음력 오월달 퀘면은 보리 빌 거 아니?(시월달에 다 하면 그때는 음력 오월달 되면 보리 벌 거 아니?)

103004 @ 예.(예.)

103004 #1 다 비여근에 오월 단오맹질 해여 먹엉 보리 비례 가젠 허민 완전 실평 죽어지는 거라. 맹질해근에 막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맹질 때 같으면 봐지는 냥 막 먹으민 베도 불령 실픈 디 보리 비례 글렌 허민 완전 안 가면은 매얻어맞일 거고 보리 비례 가근에, 보리가이 그때도 사름덜이 이제그치 역아시면은 그렇게 꼬부라질 때끄장 내불지 아낼 건디. 보리가 다 곱는 거라.(다 베어서 오월단오명절 해서 먹어서 보리 베려 가려고 하면 완전 싫어서 죽어지는 거야. 명절해서 매우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명절 때 같으면 봐지는 대로 마구 먹으면 배도 불러서 싫은 데 보리 베려 가자고 하면 완전 안 가면 매 얻어맞을 거고 보리 베려 가서, 보리가 그때도 사람들이 이제같이 약았으면 그렇게 꼬부라질 때까지 내버리지 않을 건데. 보리가 다 곱는 거야.)

103004 @ 음.(음.)

103004 #1 보리꼬고리가 땅드레 가고. 경 허민 그거 혼 줌 영 끊엉 영 영 폐왕 그 고고리가 혼 디레 와야만 그 저 거세기 틀.(보리이삭이 땅으로 가고. 그러면 그

거 한 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이렇게 퍼서 그 이삭 한 데로 와야만 그 저 거시기 틀.)

103004 @ 예.(예.)

103004 #1 보리를 그것에서 보리 이렇게 혜근에.(그네 그것에서 보리 이렇게 해서.)

103004 #2 홀탕.(훑어서.)

103004 #1 홀탕.(훑어서.)

103004 @ 음.(음.)

103004 #1 경 혜영 이제.(그렇게 해서 이제.)

103004 #2 도께로.(도리깨로.)

103004 #1 도께로 혀영 두드령. 그 두드리명 보릿고스락 다 꺼꺼지게 그거 쓸만 웨케시리 두두려근에 바람에 불령.(도리깨로 해서 두들겨서. 그 두들기면서 보리까끄라기 다 꺾어지게 그거 쌀만 되게끔 두들겨서 바람에 불려서.)

103004 @ 음.(음.)

103004 #1 경 혜근에 보리 그 기겟방에 가정강 굽아근에 경 혀영 그 시절엔.(그렇게 해서 보리 그 정미소에 가져가서 갈아서 그렇게 해서 그 시절엔.)

103004 @ 엊그저께 같은 디예?(엊그저께 같은 데요?)

103004 #1 이제, 이제 우리 땅덜안티라도 경 굽으민 그거 무신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여.(이제, 이제 우리 땅들한테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해.)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종류 잇어낫수파?(보리 종류는 어떤 종류 있었었습니까?)

103006 #1 술우리하고 이 줄우리.(쌀보리하고 맥주보리.)

103006 @ 음.(음.)

103006 #1 술우리, 술우리엔 한 거는 이 줄이 저 네 줄로 잇어, 네 줄. 술우리는.(쌀보리, 쌀보리라고 한 거는 이 줄이 저 네 줄로 있어, 네 줄. 쌀보리는.)

103006 @ 음.(음.)

103006 #1 네 줄로 잇어근에 이제 그 보릿고스락이 영 영 부떠잇고. 줄우리는 두 줄.(네 줄로 있어서 이제 그 보리까끄라기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고. 맥주보리는 두 줄.)

103006 @ 음.(음.)

103006 #1 두 줄만 이신 거는 줄우리. 넉 줄 이신 건 술우리.(두 줄만 있는 거는 맥주보리. 네 줄 있는 건 쌀보리.)

103006 @ 음.(음.)

103006 #1 그 보리 이름이.(그 보리 이름이.)

103006 @ 이름이. 두 가지만 잇어낫수가?(이름이. 두 가지만 있었었습니까?)

103006 #1 두 가지만. 그 다음은 밀.(두 가지만. 그 다음은 밀.)

103006 @ 음, 밀도 헤연예?(음, 밀도 했네요?)

103006 #1 밀도 갈양 밀 그거 헤근에.(밀도 갈아서 밀 그거 해서.)

103006 @1 것보리 이런 거는 엊어나수가?(겉보리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103006 #1 것보리가 거 줄우리.(겉보리가 거 맥주보리.)

103006 @ 아, 것보리하고 줄우린 그튼 거예? 예. 혹시 보리밭도 불랏수가?(아, 겉보리하고 맥주보린 같은 거요? 예. 혹시 보리밭도 밟았습니까?)

103006 #2 불랏주.(밟았지.)

103006 #1 보리 불랏주게. 보리 나면은 보리 나민 옛날에는 눈이 워낙 많이 오면은 막 땅이 곳아근에 이만이 올라와, 곳양. 그거 밟아주지 아녀민 보릿발 다 들려져근에 보리 다 죽어분덴 해여근에 보리를 다 불른 거라.(보리 밟았지. 보리 나면 보리 나면 옛날에는 눈이 워낙 많이 오면 매우 땅이 곱아서 이만큼 올라와, 곱아서. 그거 밟아주지 않으면 보리뿌리 다 들려져서 보리 다 죽어버린다고 해서 보리를 다 밟은 거야.)

103007 @ 보리 불를 때 어떤 식으로 불른 거라마씨?(보리 밟을 때 어떤 식으로 밟은 거예요?)

103007 #1 파니 우의 뎅기멍 그 포기 포기마다 발작 놓명 막 불르멍 가는 거라.(이랑 위에 다니면서 그 포기 포기마다 발자국 놓으면서 마구 밟으면서 가는 거야.)

103007 @ 파니 우의서.(이랑 위에서.)

103007 #1 가근에 다 헤지민 돌아오멍 또 불르고.(가서 다 해지면 돌아오면서 또 밟고.)

103007 @ 음.(음.)

103007 #1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보리 불르는 것도.(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보리 밟는 것도.)

103007 @ 그러니까예. 아, 보리밭 그 검질은, 검질도 하영 매암니까?(그러니까요. 아, 보리밭 그 검은, 검도 많이 매암니까?)

103008 #1 검질도 메영.(김도 매서.)

103008 @ 멧 번 맵니까?(몇 번 맵니까?)

103008 #1 검질, 보리밭 검질은 혼불벗기 안 메고.(김, 보리밭 김은 애벌밖에 안 매고.)

103009 #2 혼 번 매문 훼여.(한 번 매면 돼.)

103009 @ 아, 혼불만 메여예? 어떤 검질들 납니까? 거기는.(아, 애벌만 매요? 어떤 김들 납니까? 거기는.)

103009 #1 겨울 검질은 그 옛날엔 겨울 검질이나 여름 검질이나 검질은 잘 난. 잘 나서. 무사 ** 허민 이제그치록 제초제 그런 거 안 썽 순 손으로만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두루 두루hen 내부난 만날 매해 그자 그 뿔리에 그 검질이 나는 거라.(겨울 김은 그 옛날엔 겨울 김이나 여름 김이나 김은 잘 났어. 잘 나서. 왜 **

하면 이제처럼 제초제 그런 거 안 써서 순 손으로만 깨끗하게 하자를 못하니까. 덜 덜해서 내버리니까 만날 매해 그저 그 뿌리에 그 김이 나는 거야.)

103009 @ 그 일름들은 알아지쿠파? 어떻 검질 나나신 거.(그 이름들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김 났던 거.)

103009 #1 검질 그거 무슨.(김 그거 무슨.)

103009 #2 제완지.(바랭이.)

103009 #1 제완지.(바랭이.)

103009 @ 예.(예.)

103009 #1 따시 뭐 고롬풀²³⁾.(다시 뭐 ‘고롬풀’.)

103009 #2 고롬풀. 고롬풀은 죽지도 아녀.(‘고롬풀’. ‘고롬풀’은 죽지도 않아.)

103009 @ 고롬풀은 어떤 거우파?(‘고롬풀’은 어떤 거예요?)

103009 #1 영 메면은 고롬 닳은 거 나.(이렇게 매면 고롬 같은 거 나.)

103009 @ 음.(음.)

103009 #1 그 검질에서.(그 김에서.)

103009 @ 검질에서.(김에서.)

103009 #2 고롬풀이예 메여서 저 돌담 위에도 놔둬도 흔 들이 뛰어 죽지 아녀.
(‘고롬풀’이요 매어서 저 돌담 위에도 놔둬도 한 달이 되도 죽지 않아.)

103009 #1 죽지 아녀.(죽지 않아.)

103009 @ 고롬풀이 그 요즘 쇄비눔이렌 헌 거우파?(‘고롬풀’이 그 요즘 쇠비름이라고 한 겁니까?)

103009 #1 쇄비눔 말고.(쇠비름 말고.)

103009 @ 아, 또 다른 게 잊구나예?(아, 또 다른 게 있군요?)

103009 #2 쇄비눔 닳아.(쇠비름 닳아.)

103009 #1 쇄비눔은 뻘경혜근에 막 영 이치록 술정 막 영 벌겨지는 건디 그 고롬풀은 그 줄이 꺾는꼬는 혜영 땅소곱에서 막 영 범어가멍 우터레 기자 쟁만 동글랑한 거.(쇠비름은 뻘개서 매우 이렇게 이처럼 살져서 매우 이렇게 벌겨지는 건데 그 ‘고롬풀’은 그 줄이 가는가는 해서 땅속에서 마구 이렇게 뻗어가면서 위로 그저 잎만 동그란 거.)

103009 @ 음.(음.)

103009 #1 요만씩 동글락한 거 직깍혜여근에 흔 덩어리가 이만씩 행 그거 그 혹 다 털젠 하민 그치록 혜근에 그거는 다 풀치는 거.(요만큼씩 동그란 거 빽빽해서 한 덩어리가 이만큼씩 해서 그거 그 혹 다 털려고 하면 그처럼 해서 그거는 다 풀어헤치는 거.)

103009 @ 으음. 풀치는 거.(으음. 풀어헤치는 거.)

103009 #1 그 농사짓젠 허면은 밧 갈아낳은에 그 풀이 없어야 농사가 뛰기 때문에 혹 다 풀치는 거. 농사 그 풀이 농사를 그 검질을 다 쳐 내는 거라. 다 메여내

23) ‘고롬풀’은 김의 한 가지다. 풀에서 하얀 액이 나와서 ‘고롬풀’이라고 한 것 같다.

는 거. 메영 다 치와둬근에 그거 조도 불리고. 그런 것에 얼먹언.(그 농사지으려면 밭 갈아놓고 그 풀이 없어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흙 다 풀어헤치는 거. 농사 그 풀이 농사를 그 김을 다 쳐 내는 거야. 다 떼어내는 거. 떼어서 다 치워둬서 그거 조도 밟고. 그런 것에 언걸먹었어.)

103010 @ 고롬풀이 잇어낫구나예? 아까 보리 그 수확예, 아까 저 비엇젠허는데 어떤 식으로 수확했나씨? ('고롬풀'이 있었군요? 아까 보리 그 수확요, 아까 저 베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확했습니까?)

103010 #1 계난 그거 아까 도께로 두드려근에. (그러니까 그거 아까 도리깨로 두들겨서.)

103010 @ 벌 때부터?(벌 때부터?)

103010 #1 보리 비명 다 그 꾸고라진 거 영 영 비명 보릿고고리를 한쪽으로 오게시리 다 텔멍 이제 비여근에.(보리 베면서 다 그 구부러진 거 이렇게 이렇게 베면서 보리이삭을 한쪽으로 오게끔 다 텔면서 이제 베어서.)

103010 @ 음.(음.)

103010 #1 거 다 무경. 무꺼근에 마차나 무시거 엇인 사름덜은 다 지어오고.(거다 뚫어서. 뚫어서 마차나 무엇 없는 사람들은 다 쳐오고.)

103010 @ 음.(음.)

103010 #1 경 아년 사름덜은 부자침의덜은 뭐 소 말 이신 사름덜은 소 말에 다 시꺼근에 집의 와근엥게 그거를 이제 놀 놀엉.(그렇게 않은 사람들은 부잣집들은 뭐 소 말 있는 사람들은 소 말에 다 실어서 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가리 가려서.)

103010 @ 음.(음.)

103010 #1 놀 이렇게 놀어근에 놋다근에 그거를 날 좋민 홀테에 다 홀탕.(가리 이렇게 가려서 놓았다가 그거를 날 좋으면 그네에 다 훑어서.)

103010 @ 음.(음.)

103010 #1 경 혜근에 보리찍은 보리찍대로 혜근에 무경 행 놋다근에 그거는 둇통에 놓명 거름을 만들고.(그렇게 해서 보릿짚은 보릿짚대로 해서 뚫어서 혜사 놋다가 그거는 돼지우리에 넣으면서 거름을 만들고.)

103010 @ 음.(음.)

103010 #1 그 보리 그 행 도께로 막 두드려근에 그 ㅋ스락 다 꺼꺼지만 그 바람에 불려근에 하면은 그 보리만 이렇게 나오민 그거 혜영. 그거 혜영 그거 혜근에 장만해 놓면은 이젠 또 멍석을 폐와놔근에 삼일씩, 삼일씩을 말려야 돼여.(그 보리 그 해서 도리깨로 마구 두들겨서 그 까끄라기 다 꺼어지면 그 바람에 불려서 하면 그 보리만 이렇게 나오면 그거 해서. 그거 해서 그거 해서 장만해 놓으면 이젠 또 멍석을 폐서 삼일씩, 삼일씩을 말려야 돼.)

103010 @ 음.(음.)

103010 #1 이 혼 번 말령은 그 기겟방에 가근에 굽아지질 아녀.(이 한 번 말려서는 그 방앗간에 가서 갈아지질 않아.)

103010 @ 아.(아.)

103010 #1 강 삼일씩을 말라야만 삼일씩 그 명석 페와놔근에 그거 해근에 하루 두 번 세 번 체우쳐근에²⁴⁾ 또 널엉 또 해가 저만인 가민 혼 번 체우청 이제 또 널엉 그치록 하명 삼일 동안 말려근에 기겟방에 가근에 그 굽아근에 보리쌀.(가서 삼일씩 말라야만 삼일씩 그 명석 페놓아서 그거 해서 하루 두 번 세 번 ‘체우쳐서’ 또 널어서 또 해가 저만큼 가면 한 번 털어 ‘체우쳐서’ 이제 또 널어서 그처럼 하면서 삼일 동안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그 갈아서 보리쌀.)

103010 @ 그 보리 빌 때는 뭘로?(그 보리 빌 때는 무엇으로?)

103010 #1 호미로.(낫으로.)

103010 @ 호미로 헨에.(낫으로 해서.)

103010 #1 호미로 앗아근에 영 영 비는 거라. 앗양.(낫으로 앗아서 이렇게 이렇게 베는 거야. 앗아서.)

103012 @ 음, 그 아까 이제 보리를 명석 우의 영 년덴 햇잖아예? 그 너는 거를 뭐렌 협니까? 뭐 널엇저 허여?(음, 그 아까 이제 보리를 명석 위에 이렇게 너다고 햇잖아요? 그 너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뭐 널었다 해?)

103012 #1 보리 널엇저.(보리 널었다.)

103012 @ 날레 이런 말은 안 써마씨?(‘날레’ 이런 말은 안 써요?)

103012 #1 보리 널엇젠도 날레²⁵⁾ 보리. 보리 지금 우리 어머니네 경우는 “밧듸 강 날레 체우청 널라.” 경허명이 “날레 체우정 널라.” 그치록 허명.(보리 널었다고 도 ‘날레’ 보리. 보리 지금 우리 어머니네 경우는 “밭에 가서 ‘날레’ ‘체우쳐서’ 널라.” 그렇게 하면서 “‘날레’ ‘체우쳐서’ 널라.” 그처럼 하면서.)

103012 @ 거기도 이렇게.(거기도 이렇게.)

103012 #1 근데, 근데, 근데로 이제 영 영 나무 영현 것에 쪼뼛쪼뼛하게 이렇게 영 돋게시리 해근에 이걸로 긋어지게시리 허영 근대.(고무래, 고무래, 고무래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무 이러한 것에 ‘쪼뼛쪼뼛하게’ 이렇게 이렇게 돋게끔 해서 이걸로 그어지게끔 해서 고무래.)

103012 @ 건 근대예?(건 고무래요?)

103012 #1 조록에여 막끗데 부쩡.(자루에 끄트머리에 붙여.)

103012 @ 건 근데예?(건 고무래요?)

103012 #1 그걸로 근데여 그런 거 그 우리부터 우에 사름이나 알주. 그 밑에 사름은 근대니 무신거니.(그걸로 고무래다 그런 거 그 우리부터 위에 사람이나 알지. 그 밑에 사람은 고무래니 무엇이니.)

103012 @ 근대 허는 거잖아예? 굴뚝 짓는 거는 뭐렌 허여? 굴뚝도²⁶⁾ 허는 거? (고무래 하는 거잖아요? 굴뚝 때는 거는 뭐라고 해? ‘굴뚝’ 입구 하는 거?)

103012 #1 굴뚝²⁷⁾ 허는 것도 근데엔 허여, 그거.(‘굴뚝’ 하는 것도 고무래라고

24) ‘체우쳐근에’는 ‘명석 끝을 들어 그 안에 있는 곡식 따위를 걷어 모아서’라는 의미다.

25) ‘날레’는 ‘별을 쬐기 위하여 명석에 널어 놓은 곡식’을 말한다.

26) ‘굴뚝도’는 ‘구들방 아궁이의 앞쪽 턱’을 말한다.

해, 그거.)

103012 #2 작은 거.(작은 거.)

103012 #1 족게시리 혜영.(적게끔 해서.)

103012 #2 날레에 허는 거 영 넓게 헌 거고. 굴뚝에 허는 거는 작게.(‘날레’에 하는 거 이렇게 넓게 한 것이고. ‘굴뚝’에 하는 거는 작게.)

103012 @ 일름을 둘 다.(이름을 둘 다.)

103012 #2 굴뚝근데²⁸⁾.(‘굴뚝근데’.)

103013 @ 아, 굴뚝근데? 으, 그리고 삼촌, 이제 보리쌀 이제 멘들 거 아니우과? 아까 기겟방에 강은에 그 보리쌀론 뭘 혜영 먹었수가?(아, ‘굴뚝근데’)? 으, 그리고 삼촌, 이제 보리쌀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아까 방앗간에 가서 그 보리쌀론 뭘 해서 먹었습니까?)

103013 #1 밥 혜영 먹었주제.(밥 해서 먹었지.)

103013 @ 예, 밥만 혜영 먹어시카?(예, 밥만 해서 먹었을까?)

103013 #1 밥만, 밥만 혜영 먹언.(밥만, 밥만 해서 먹었어.)

103013 #2 보리쌀로 무신거 혜영 먹을 것이 엇수다.(보리쌀로 무엇 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103013 #1 술 ㅋ튼 거는 혜도 술은 그 워낙 이제 보리 같아가지고 이녁네 식구를 먹당 남을 정도로 한 사름덜은 술 담고.(술 같은 것은 해도 술은 그 워낙 이제 보리 같아가지고 이녁네 식구를 먹다가 남을 정도로 한 사람들은 술 담그고.)

103013 @ 음.(음.)

103013 #1 저 그치룩 남을 정도로 혜근에 먹을 집의가 멧 집 엇어.(저 그처럼 남을 정도로 해서 먹을 집이 몇 집 없어.)

103013 @ 무사계 보깡은에.(왜 볶아서.)

103013 #1 아니, 계난 개역 행 먹는 거는 그 개역은 뭐 양식이 남으나 안 남으나 일단 한번 보리농사 지면은 개역덜은 한번씩 술우리 집에서 혜근에 솟두깽이에 보까근에.(아니, 그러니까 미숫가루 해서 먹는 거는 그 미숫가루는 뭐 양식이 남으나 안 남으나 일단 한번 보리농사 지으면 미숫가루들은 한번씩 쌀보리 집에서 해서 솔뚜껑에 볶아서.)

103013 @ 예에.(예에.)

103013 #1 보까근에 그거 집의서 집의서 ㅋ레에서이, ㅋ레에서 굽아근에 하는 것도 있고, 헨 그 초창기는 그치룩 굽양 먹어신디 ㅎ꼼 션 기겟방에 가근에 굽아다근에 보릿개역.(볶아서 그거 집에서 집에서 맷돌에서, 맷돌에서 갈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초창기는 그처럼 갈아서 먹었는데 좀 있어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보리미숫가루.)

103013 @ 보릿개역예?(보리미숫가루요?)

27) ‘굴뚝’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 가리키는 말이다.

28) ‘굴뚝근데’는 ‘구등방에 불을 뗄 때 멜감을 집어넣거나 재를 꺼낼 때 쓰는 도구’를 말한다. ‘근데’는 표준어 ‘고무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3013 #1 보릿개역예, 그땐 설탕도 없으니까 사까린.(보리미숫가루요. 그땐 설탕도 없으니까 사까린.)

103014 #2 사까린.(사까린.)

103014 #2 사까린 그거 헤근에 하면은 ㅎ꼼 달주게.(사까린 그거 해서 하면 조금 달지.)

103014 @ 예.(예.)

103014 #2 둘ㅋ롬허게예.(달콤하게요.)

103014 @ 둘ㅋ롬허게예, 맞수다. 그 다음에 그 보리체라든가 보리씩 ㅋ시락은 뭘허멍 써신고?(달콤하게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릿겨라든가 보리짚 까끄라기는 뭐하면서 썼을까?)

103014 #1 ㅋ시락은 굴뚝 짙엉.(까끄라기는 ‘굴뚝’ 때서.)

103014 @ 음.(음.)

103014 #1 굴뚝 겨울에 굴뚝 짙어야 그 방이 ㅎ꼼 뜻일 거 아니.(‘굴뚝’ 겨울에 ‘굴뚝’ 때야 그 방이 좀 따뜻할 거 아니.)

103014 @ 예.(예.)

103014 #1 굴뚝 짙곡 보리씩은 돛통에 막 일부러 막 집어놔근에 그거를 썹여근에 걸름.(‘굴뚝’ 때고, 보릿짚은 돋지우리에 막 일부러 막 집어넣어서 그것을 썹혀서 거름.)

103014 @ 음.(음.)

103014 #1 보리 걸름 하젠 허면 일부러 막.(보리 거름 하려고 하면 일부러 막.)

103014 @ 보리체는?(보릿겨는?)

103014 #2 경 허곡 아까 무시거 저 그 ㅋ스락.(그렇게 하고 아까 무엇 저 까끄라기.)

103014 @ 예.(예.)

103014 #2 ㅋ스락은 또 어떤 때 쓰느냐 허면은 여름에 마당에서 막 밥 먹곡 모기 오라가민 모기 다 다울리는 거.(가끄라기는 또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여름에 마당에서 막 밥 먹고 모기 와가면 모기 다 내쫓는 거.)

103014 @ 아, ㅋ스락을예?(아, 가끄라기요?)

103014 #2 ㅋ스락에 불 피왕.(까끄라기에 불 피워서.)

103014 @ 아아.(아아.)

103014 #2 그렇게 허민 모기들이 다 도망가.(그렇게 하면 모기들이 다 도망가.)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연기 나니까.(연기 나니까.)

103014 @ 거기 뭐 다른 거 서끄는 게 아니고.(거기 뭐 다른 거 섞는 거 아니고.)

103014 #2 아니고, 다른 거 서끄는 게 뭐 있어.(아니고, 다른 거 섞는 게 뭐 있어.)

103014 #1 그런 용도로도 셨어.(그런 용도로도 셰어.)

103014 #2 주로 굴뚝 짓는 거.(주로 ‘굴뚝’ 때는 데.)

103014 @ 보리체는 뭐 햇수가?(보릿겨는 뭐 했습니까?)

103014 #1 보리체 보리 굴 때에 그 거시기 아이고.(보릿겨 보리 갈 때에 그 거시기 아이고.)

103014 #2 그건 도새기 줘.(그건 돼지 줘.)

103014 #1 건 훠지.(건 돼지.)

103014 @ 예.(예.)

103014 #2 도새기 도새기 맥여.(돼지 돼지 먹여.)

103014 #1 보리 껍데기, 보리 껍데기 그거 기겟방에서 벗겨진 거 그거는 도새기.(보리 껍데기, 보리 껍데기 그거 방앗간에서 벗겨진 거 그거는 돼지.)

103014 @ 음.(음.)

103014 #1 훠지 이제 주어근에 이제 훠지 키우곡.(돼지 이제 줘서 이제 돼지 키우고.)

103015 @ 예. 혹시 보리농사 지을 때예, 이것만큼은 나 절대 잊어볼 수가 없다 하는 거 잊수파?(예. 혹시 보리농사 지을 때요, 이것만큼은 나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거 있습니까?)

103015 #1 에이그, 보리 나 이제 자리, 자리젓양, 식당에 강 자리젓 내놓면 자리젓 먹을 때마다 그.(에이그, 보리 나 이제 자리, 자리젓요, 식당에 가서 자리젓 내놓으면 자리젓 먹을 때마다 그.)

103015 #2 둇가례.(돼지거름.)

103015 #1 보리 둇가례 그걸 영 영 막 뱃 하나 다 뿐려놓 그 손으로 자리젓 영 헤근에 그냥 손 씻지도 아녀고 그냥 밥 먹어난 거. 이제 자리만 보면은 그 때에 그치록 헤근에 그 밥 먹어난 거 잊어버지지 아녀.(보리 돼지거름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구 밭 하나 다 뿐려놓아서 그 손으로 자리젓 이렇게 해서 그냥 손 씻지도 않고 그냥 밥 먹었던 거. 이제 자리돔만 보면 그때 그처럼 해서 그 밥 먹었던 거 잊어버리지 않아.)

103015 #2 그때 물이 엇엇수게, 물이.(그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103015 @ 맞아예?(맞아요?)

103015 #1 그것이 잊어져불지 아녀. ㅎ꼼 무시거 허민 손 시껴 왕 먹으라 허민, 예, 옛날 둇가례 놔한 손으로도 먹어나신디 헤근에 경 헤근에.(그것이 잊혀져버리지 않아. 조금 뭐 하면 손 씻고 와서 먹어라 하면, 예, 옛날 돼지거름 놓았던 손으로도 먹었었는데 해서 그렇게 해서.)

103015 @ 요즘도 그 말 험구나예? 삼촌 어떤 거 기억했수가?(요즘도 그 말 하고 있군요? 삼촌 어떤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103015 #2 아니, 그거 말현 거.(아니, 그거 말한 거.)

103015 @ 너나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시난예. 예, 맞수다. 이제는 보리농사를 지

엇고, 혹시 여기 농사를 뭐 ‘용시지엄찌’ 이런 말은 안 합니까?(너나없이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보리농사를 지었고, 혹시 여기 농사를 뭐 ‘용시 지엄찌’ 이런 말은 안 합니까?)

103015 #2 ‘무시거 험찌’?(‘무엇 하고 있지’라고?)

103015 #1 ‘용시, 용시지엄젠’도 굽아.(‘용시, 용시짓는다’고 말해.)

103015 #2 용시, 용시지엄텐.(농사, 농사짓는다고.)

103015 @ 용시헴텐은 혜염구나예? 어른덜이 굽아나신디.(농사한다고는 하고 있군요. 어른들이 말했었는데.)

103015 #1 ‘용시지엄젠’은 완전 사투리고. 농사엔 헌 건 표준어 부튼 거라.(‘용시지엄젠’은 완전 사투리고. 농사라고 하는 건 표준어 붙은 거야.)

103015 @ 옛날 어른덜 용시렌 허엿어예?(옛날 어른들 ‘용시’라고 했다고요?)

103015 #1 용시, 용시엔 헌 거 농사지엄텐 허는 말.(‘용시, 용시’라고 한 거 ‘농사짓는다’고 하는 말.)

조 농사

103016 @ 예, 조도 하영 불려수가?(예, 조도 많이 밟았습니까?)

103016 #2 예.(예.)

103016 #1 그 당시엔 조. 그런 거 아니 불리믄²⁹⁾.(그 당시엔 조. 그런 거 아니 밟으면.)

103016 #2 보리 조 모멸 그것뺏기 더 잇수과?(보리 조 메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103016 @ 조 불릴 때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돼는 거우과? 조 불려 봅서 이젤랑?(조 밟을 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조 밟아 보세요. 이제는?)

103016 #1 조 불릴 때는 어떻 혜신고 허민 밧을 일단 갈아빻이, 소 헤근에 갈아빻은에 밧듸 이제 졉씨는 너무 기프게 묻어지면은 조가 잘 안 난다고 해가지고, 밧을 인치룩 갈앙, 갈아놔근에 밧을 멘짝허게시리 그 남.(조 밟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하면 밧을 일단 갈아놓아서, 소 해서 갈아놓아서 밧에 이제 조씨는 너무 깊게 묻어지면 조가 잘 안 난다고 해가지고, 밧을 이처럼 갈아서, 갈아놓아서 밧을 평평하게 끔 그 남.)

103016 #2 남테로.(‘남테’로.)

103016 #1 남테, 남텐가 그 끂는 거.(‘남테’, ‘남텐’가 그 끄는 거.)

103016 #2 게 끂는 거. 저 무신거.(그 끄는 거. 저 무엇.)

103016 @2 크실퀴.(끙개.)

103016 #2 저 끄시게.(저 꿩개.)

103016 @ 끄시게예.(끙개요.)

29) ‘불리믄’은 표준어 ‘밟으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 ‘밟으면’은 ‘조씨를 뿐만 후 밟아주면’이라는 의미다.

103016 #1 끄시게 헤근에 그 나무 셉 이신 거 소냥이나 뭐 셉 이신 거 혜영 일단 혼불 가명오명 그 막 파니 없이 멘짝허게 만들어놔근에.(끙게 해서 그 나무 일 있는 거 소나무나 뭐 일 있는 거 해서 일단 한번 가며오며 그 막 이랑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놓아서.)

103016 @ 음.(음.)

103016 #1 좁씨 빼여근에 그 이제 혼불 영 혜영 그 아까 그 끗인 거. 결로 끗어 놔근에 끄시게 허영 막 소로 소 말 헤근에 게나제나 막뎅이 영 찔러보명.(조씨 뿌려서 그 이제 초별 이렇게 해서 그 아까 그 끈 거. 결로 끄어다 놓고 꿍게 해서 막 소로 소 말 해서 그러나저러나 막대기로 이렇게 찔러보면서.)

103016 @ 어어.(어어.)

103016 #1 막뎅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갈 때갓장 막 불리는 거라.(막대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갈 때까지 막 맑는 거야.)

103016 @ 남태로도.(‘남태’로도.)

103016 #1 엇인 소 말 엇인 이제 남태로 하고. 또 놈의 집의 강 말이나 소나 막 빌어다근에 하는 사름은 소 말 또꼬망에 강 테우리.(웃음) 테우리 그 잘 대접. 그 사름은 잘 대접해야 잘 해주지 안 대접해주면.(없는 소 말 없는 이제 ‘남태’로 하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말이나 소나 마구 빌려다가 하는 사람은 소 말 꽁무니에 가서 목동.(웃음) 목동 그 잘 대접. 그 사람은 잘 대접해야 잘 해주지 안 대접해주면.)

103016 @ 대접헐 때는 어떤 식으로?(대접할 때는 어떤 식으로?)

103016 #2 술허고.(술하고.)

103016 @ 술허고. 곤밥허고.(술하고. 흰밥하고.)

103016 #2 그때 돈도 줬어양?(그때 돈도 줬지요?)

103016 #1 돈 아니 받으면은 겸질이라도.(돈 아니 받으면 김이라도.)

103016 #2 메여주고.(매어주고.)

103016 @ 음.(음.)

103016 #1 메칠 메여주고. 소 말 임제네 집의 강.(며칠 메어주고. 소 말 임자네 집에 가서.)

103016 #2 막 테우리는 완전히 춤 그땐 부제첩의.(매우 목동은 완전히 참 그땐 부잣집에.)

103016 #1 테우리는 완전 큰 냥 행 뎅겼어. 완전 이젠 내년 잘 대접 안 허민 잘 우주민 안허민 내년에는 안 해주겠다 허는 식으로.(웃음)(목동은 완전 큰 척해서 다녔어. 완전 이젠 내년 잘 대접 안 하면 잘 위하지 안하면 내년에는 안 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웃음))

103016 @ 게 헤여근에 그렇게 오십 머리씩 그런 거를 뭐렌 헙니까? 테, 물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십 머리씩 그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헤, 말떼?)

103016 #1 물테덜.(말떼들.)

103017 @ 아, 물테예? 음, 그 조 불릴 때도 걸름도 헨마씨? 아까 보리는 걸름햇

덴 헨게.(아, 말떼요? 음, 그 조 밟을 때도 거름도 했어요? 아까 보리는 거름했다고 하던데.)

103017 #2 걸름 아녀.(거름 안 해.)

103017 #1 조는 걸름 아녀.(조는 거름 안 해.)

103017 @ 전혀 그거는 안 해예?(전혀 그거는 안 해요?)

103017 #1 걸름 할 게 없주게. 비료도 엇고 아무 것도 엇이니까. 그건 허난 그거는 조는 그 밧 좋은 밧에는 조가 이만씩 크고.(거름 할 게 없지. 비료도 없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건 하니까 그거는 조는 그 밧 좋은 밧에는 조가 이만씩 크고.)

103017 @ 음.(음.)

103017 #2 밧 끗인 디는 조가 이만씩 벗고 아니 허여.(밭 끗은 데는 조가 이만씩 밖에 아니 해.)

103017 #2 계난예 이디서는 밧 좋은 디는 흐린조, 흐린조.(그러니까 여기서는 밧 좋은 데는 차조, 차조.)

103017 @ 흐린조?(차조?)

103017 #2 흐린조 난덴 허는 밧은 좋은 밧이고.(차조 난다고 하는 밧은 좋은 밧이고.)

103017 @ 음.(음.)

103017 #1 그 어디 어느 밧 허면은 그 흐린조 나는 밧이라, 영. (웃음).(그 어디 어느 밧 하면 그 차조 나는 밧이야, 이렇게. (웃음).)

103017 @ 아아.(아아.)

103017 #2 그래서 좋다는 거.(그래서 좋다는 거.)

103017 #1 좋다는 말로 흐린조 나는 밧이라 경 헤근에.(좋다는 말로 차조 나는 밧이야 그렇게 해서.)

103017 #2 경 헤연 저 밧 끗은 디는예? 흐린조 아녕 그대로 모힌조 해도 밧 끗인 디는예 이만큼씩 벗고 안 협니다. 고고리도 요만큼.(그렇게 해서 저 밧 끗은 데는요? 차조 안 해서 그대로 메조 해도 밧 끗은 데는요 이만큼씩 밖에 안 합니다. 이삭도 요만큼.)

103017 #1 조코고리도 요만씩 벗고 안 허고 밧 좋은 디는 고고리기 이만씩. 이만씩 하느니.(조 이삭도 요만씩 밖에 안 하고 밧 좋은 데는 이삭이 이만씩. 이만씩 하느니.)

103017 #2 가름팟³⁰⁾ 쯤은 이만씩.(‘가름팟’ 쯤은 이만씩.)

103017 #1 젠젠헌 거 우리 두릴 때 생이 잡으레 조코고리 요만은 헌 거 훈아군에 저 눈 이만이 묻으민, 아이고, 나도 진짜 소나이나 마찬가지주. 눈 가근에 묻은 거 발로 영 영 근어벼 뒹 그디 조코코리 헤근에 영.(자잘한 거 우리 어릴 때 새 잡으려 조 이삭 요만한 거 따서 눈 이만큼 묻으면, 아이고, 나도 진짜 소나이나 마찬가지지. 눈 가서 묻은 거 발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버려 두고 거기 조 이삭 해서 이

30) ‘가름팟’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이라는 말이다.

렇게.)

103017 #2 물총.(말총.)

103017 #1 해근에 물, 물 꿀랑지 흔번 빠당 얻어 찬에.(해서 말, 말 꼬리 한번
뽑아다가 얻어 차서.)

103017 #1 그것에 헨에 그거 영 허영 졸라매뒹 놋당 뒷날 강 보민 참새.(그것에
해서 그거 이렇게 해서 졸라매두고 놓았다가 뒷날 가서 보면 참새.)

103017 @ 예.(예.)

103017 #1 참새 발 걸령 죽을 때 데가리 걸령 죽을 때.(참새 발 걸려서 죽을 때
데가리 걸려서 때.)

103017 @ 계영 그거 해당 뭐허여?(그래서 그거 해다가 뭐해요?)

103017 #1 그디서 작허게 벗기민 완전 그거 텔하고 가죽허고 멘짝허게 벗겨지
께. 경 허민 그디 영 나무, 나무께기 봉가근에 불 숨아근에 거 구왕덜 갈라먹고 경
혜난.(거기서 좁하게 벗기면 완전 그거 텔하고 가죽하고 반드시 벗겨지지. 그러면
거기 이렇게 나무, 나뭇가지 주워서 불 때서 거 구워서들 나눠먹고 그랬지.)

103017 @ 놀이로예?(놀이로요?)

103017 #1 막 그것이 벌른이주게, 벌른이라.(매우 그것이 놀이지, 놀이야.)

103017 @ 벌른이?(놀이가?)

103017 #1 벌른.(놀이.)

103017 @ 벌른이 뭐우과?('벌른'이 뭡니까?)

103017 #1 벌른이엔 한 건 쓸데가리 엇이 일을 만들명 냉긴텐 허는 말이주기.
벌른.('벌른'이라고 한 건 쓸데가리 없이 일을 만들면서 다닌다고 하는 말이지. '벌
른'.)

103018 @ 벌른이엔 허는구나, 여기서는예? 삼춘, 계믄 조는 언제 불리는 거라마
씨? 시기적으로.('벌른'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서는요? 삼춘, 그러면 조는 언제 밟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103018 #1 시기적으로 건 봄에.(시기적으로 건 봄에.)

103018 @ 봄에.(봄에.)

103018 #1 봄에 가을에 다 해들이고. 조는 봄에, 봄에 해근에 여름에 다 검질메
곡 문딱 해근에 가을에 해들이고. 보리는 가을에 갈아근에 봄에 해들이곡 경 혜여.
(봄에 가을에 다 해들이고. 조는 봄에, 봄에 해서 여름에 다 김매고 봉땅 해서 가을
에 해들이고, 보리는 가을에 갈아서 봄에 해들이고 그렇게 해.)

103018 @ 왜 조 헐 때면 무슨 마같이조³¹⁾여 이런 말? 마걷이? 마같이? 이런 말
안 들어봅디가?(왜 조 할 때면 무슨 '마같이조'다 이런 말? '마걷이'? '마같이'?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103018 #1 그런 말은 우린 안 들어보고?(그런 말은 우린 안 들어보고?)

103019 @ 안 들어보고예? 좁씨는 어떤 식으로 뿌려마씨?(안 들어보고요? 조씨

31) '마걷이조'는 장마가 끝난 이후에 과종한 조라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서 '마같이조'라고 한다.

는 어떤 식으로 뿐려요?)

103019 #1 좁씨는 짹짜 뭐 좁씨는.(조씨는 짹짜 뭐 조씨는.)

103019 #2 손으로.(손으로.)

103019 #1 그거는 조가 덕작허게 검질이, 조가 이만씩 영 영 해야 조가 잘 훠주. 복작허민 조가 안 훠니까 좁씨 하영 빼여도 메겐 해도 검질이라 그것도.(그거는 조가 빽빽하게 김이, 조가 이만씩 이렇게 이렇게 해야 조가 잘 되지. 복작하면 조가 안 되니까 조씨 많이 뿐려도 메려고 해도 김이야 그것도.)

103019 @ 조가 검질 훠불어예?(조가 김 되어버려요?)

103019 #1 메겐 허민 검질이주게. 겨난.(메려고 하면 김이지. 그러니깐.)

103019 #2 좁씨 빼는 아무나 기술자라야 훠여. 아무나 못 빼여.(조씨 뿐리는 아무나 기술자여야 돼. 아무나 못 뿐려.)

103019 #1 빼는 사름이 그 ** 딱 이치록 멜 거 엇이 그자 검질만 멜 정도로 뿐리는 사람.(뿐리는 사람이 그 ** 딱 이렇게 멜 거 없이 그저 김만 멜 정도로 뿐리는 사람.)

103019 @ 아, 경 잘, 기술자를 뭐렌 불러낫수가?(아, 그렇게 잘, 기술자를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3019 #1 씨 뿐리는 사름개.(씨 뿐리는 사람.)

103019 @ 씨 뿐리는 사름 별도로 허는 거라예?(씨 뿐리는 사람 별도로 하는 거네요?)

103019 #2 오랑은에 씨 좀 뿐려 좁서. 이렇게.(와서 씨 좀 뿐려 주세요. 이렇게.)

103021 @ 아, 진짜 별도로 험구나게. 아까 조, 조도 검질이엔 혜신디 조팟 검질은 맷불이나 맵니까?(아, 진짜 별도로 하고 있구나. 아까 조, 조도 김이라고 했는데 조밭 김은 몇 벌이나 맵니까?)

103021 #1 조팟 검질은 두불. 보리밧 검질은 혼불, 산듸밧 검질은 세불.(조밭 김은 두벌. 보리밭 김은 애벌, 밭벼밭 김은 세벌.)

103021 @ 아아, 산듸밧이 더 검질 하구나? 게민 조팟 허는데 두불 허면은, 처음 매는 거는 무신거렌 해?(아아, 밭벼밭이 더 김이 많구나? 그러면 조밭 하는데 두벌 하면, 처음 매는 거는 무엇이라고 해?)

103021 #1 초불.(애벌.)

103021 #2 초불.(애벌.)

103021 @ 초불.(애벌.)

103021 #1 두불.(두벌.)

103021 @ 두불. 처음 헐 때는 소끄는 거우과?(두벌. 처음 할 때는 속는 겁니까?)

103021 #1 처음 할 때는 좁씨도 소끄고 기자 초불만 메여놓면은 두불은 쉽주게.(처음 할 때는 조씨도 속고 그저 애벌만 매어놓으면 두벌은 쉽지요.)

103021 #2 두불은 막 이만큼 헐 때.(두벌은 막 이만큼 할 때.)

103022 @ 아, 클 때 메는 거고. 그 초불검질은 어떤 종류 검질들이?(아, 클 때
메는 거고. 그 애벌김은 어떤 종류 김들이?)

103022 #1 그 제완지거든 거.(그 바랭이 같은 거.)

103022 @ 보리나 마찬가지.(보리나 마찬가지.)

103022 #1 보통 제완지가 많이 나와.(보통 바랭이가 많이 나와.)

103022 @ 아.(아.)

103022 #1 검질이.(김이.)

103023 @ 예, 조 수확은 어떤 식으로 햇수가? 보리하고 튼나잖아예?(예, 조 수
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리하고 다르잖아요?)

103023 #1 조는 어떤 식으로 허냐허민 조팟듸 강 다 비어근에 놓면 밧되서 조
를, 조를 다 조코고리를이, 그거를 주근주근 심어근에 호미로 영 헤근에 끊엉, 끊엉
은에 맹텅이에 다 담양은에 쳐오는 사름 시꺼오는 사름. 우린 조코고리 툰양, 그 조
코고리 툰넨 말 허주게. 조코고리 툰아근에 집에 가정와근에, 옛날에는 마당도 깨끗
해낫어. 그 흑 땅 마당에서 그 조 같은 거 다 두드려낫어.(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조밭에 가서 다 베어서 놓으면 밭에서 조를, 조를 다 조 이삭을, 그것을 차근
차근 잡아서 낫으로 이렇게 해서 끊어서, 끊어서 망태기에 다 담아서 쳐오는 사람
실어오는 사람. 우린 조 이삭 따서, 그 조 이삭 만다는 말 하지. 조 이삭 따서 집에
가져와서, 옛날에는 마당도 깨끗했어. 그 흑 땅 마당에서 그 조 같은 거 다 두들겼
었어.)

103023 @ 음.(음.)

103023 #2 조 빙 때 우리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것이.(조 빙 때 우리 어릴 때 기
억에 남는 것이.)

103023 @ 예.(예.)

103023 #2 조 비당 보민 부께, 부께.(조 베다보면 꽈리, 꽈리.)

103023 @ 예, 부께.(예, 꽈리.)

103023 @ 부께 알지예?(꽈리 알죠?)

103023 #1 갈장귀.(개똥참외.)

103023 #2 갈장귀.(개똥참외.)

103023 @ 갈장귀.(개똥참외.)

103023 #2 그거 그걸 흐나씩 먹을라고.(웃음).(그거 그걸 하나씩 먹으려고.(웃
음).)

103023 #1 갈장귀도 이시면 아이고, 이젠 먹지도 아녀는 거. 요 길에 그 미깡이
천지만지라도 그 미깡도 하나 안 타 먹는다.(개똥참외도 있으면 아이고, 이젠 먹지
도 않는 거. 요 길에 그 밀감이 천지만지여도 그 밀감도 하나 안 따 먹는데.)

103023 @ 맞아.(맞아.)

103023 #1 그 옛날에 갈장귀 하나 먹겠 허민 스뭇.(그 옛날에 개똥참외 하나 먹
으려고 하면 사뭇.)

103023 @ 아, 노랑허게 익엉예? 어어.(아, 노랗게 익어서요? 어어.)

103023 #1 갈장귀, 부께.(개똥참외, 꽈리.)

103023 @ 음. 그 다음에 그 조 수확은 아까 그런 식으로 빈 다음에 이제?(음.
그 다음에 그 조 수확은 아까 그런 식으로 빈 다음에 이제?)

103023 #1 빈 다음에 집의 다 이제 고고리 다 헤영 그거 집에 다 쳐다방이. 소
말 이신 사름덜은 시꺼당 놓곡 헤근에 날 좋은 때에 그 마당에.(빈 다음에 집에 다
이제 고고리 다 해서 그거 집에 다 쳐다놓아서. 소 말 있는 사람들은 실어다 놓고
해서 날 좋은 때에 그 마당에.)

103023 @ 예.(예.)

103023 #1 마당에 헤근에 벙허게 돌아가멍 다 명석 그 튀어난 거 그 궂인 디레
가지 못허게 명석 다 돌아가멍 폐와놔근에 가운데서 행은에 두드령.(마당에 해서 뱅
하게 돌아가면서 다 명석 그 튀어난 거 그 궂은 데로 가지 못하게 명석 다 돌아가
면서 폐놓아서 가운데서 해서 두들겨서.)

103023 #2 마당질.(마당질.)

103023 @ 마당질.(마당질.)

103023 #1 마당질. 마당질 도깨로 헤근에 마당질헤영 그거 허영 이제 조각메
기³²⁾는, 조각메긴 다 걸러냇둬근에 것도 이제 그 여물만 이치룩 헤근에 불려근에
그 말류와근에 기겟방에 강 굽아당.(마당질. 마당질 도리깨로 해서 마당질해서 그거
해서 이제 ‘조각메기’는, ‘조각메긴’ 다 걸러놨다가 것도 이제 그 여물만 이처럼 해
서 불려서 그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103024 @ 으음, 그 조각메기는 뭐허여마씨?(으음, 그 ‘조각메기’는 뭐해요?)

103024 #1 조각메긴 소 먹여. 소. 소 이제 그 이제 소 그 메는 그 쇠막 잇주
게.(‘조각메긴’ 소 먹여. 소. 소 이제 그 이제 소 그 메는 그 외양간 있지.)

103024 @ 예.(예.)

103024 #1 소막에 그 이제 그런 거 다 갖다 놓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 소 앞에
그거 다 이제 굴체로 헤근에 아져당 밤의 혼 굴체씩 앗다당 다음날 밤의 혼 굴체씩
앳다당 줘.(외양간에 그 이제 그런 거 다 갖다 놓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 소 앞에
그거 다 이제 삼태기로 해서 갖다가 밤에 한 삼태기씩 갖다가 다음날 밤에 한 삼태
기씩 갖다가 줘.)

103024 @ 아. 조각메기를?(아. ‘조각메기’를?)

103024 #1 조각메기는 소 먹고.(‘조각메기’는 소 먹고.)

103025 @ 음. 예전에 그 조도 이제 쌀 허젠허면 또 강 껍질 벗겨얄 거 아니우
과?(음. 예전에 그 조도 이제 쌀 하려고 하면 또 가서 껍질 벗겨야 할 거 아닙니까?)

103025 #1 계난 널어근에 것도.(그러니까 널어서 것도.)

103025 #2 물론 다음에.(마른 다음에.)

32) ‘조각메기’는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어버리고 남은 줄기를 말한다.

103025 #1 명석에 널엉 체우치멍³³⁾ 헤근에 혼 이삼일 물랴근에 기겟방에 가근에 거 굽아다근에 그 체는 그 굽멍 나온 체는 도새기.(명석에 널어 ‘체우치면서’ 해서 한 이삼일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그 겨는 그 갈면서 나온 겨는 돼지.)

103025 @ 음, 계난 조칵메기는 쉐 맥이고. 그 체는 도새기 맥이고. 음. 그 좁쌀은 그런 식으로 장만허는 거? 여기에 삼춘네는 연자매영은 안 해봄디가?(음, 그러니까 ‘조칵메기’는 소 먹이고. 그 겨는 돼지 먹이고. 음. 그 좁쌀은 그런 식으로 장만하는 거? 여기에 삼춘네는 연자매랑은 안 해봄디까?)

103025 #1 무시거?(무엇?)

103025 @ 그 연자매, 물그레³⁴⁾, 물방에³⁵⁾ 이런 거.(그 연자매, ‘물그레’, ‘물방에’ 이런 거.)

103025 #1 그런 그는 기겟방 엇인 때는 그 거시기 그 저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헤여근에 한 거 헤낫주마는.(그런 그는 방앗간 없을 때는 그 거시기 그 저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해서 한 거 했었지만.)

103025 @ 거 몰르고예?(거 모르고요?)

103025 #1 하단에. 거 우리 커울 때도 일이년 하단에 기겟방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차차로 없어�.(하다가. 거 우리 커울 때도 일이년 하다가 방앗간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차차 없어졌어.)

103025 @ 그 일름은, 물그량힙니까?(그 이름은, ‘물그량’합니까?)

103025 #2 물그량³⁶⁾.(‘물그량’.)

103025 #1 물그량인가 이디.(‘물그량’인가 여기.)

103026 @ 좁쌀로는 뭘 헤여신고예?(좁쌀로는 뭘 했는가요?)

103026 #1 죽도 쟁 먹고.(죽도 췄서 먹고.)

103026 @ 음.(음.)

103026 #1 또 밥도 행 먹곡. 감자 놔근에.(또 밥도 해서 먹고. 고구마 넣어서.)

103026 @ 음.(음.)

103026 #1 감자 좁쌀 놔근에 모힌조. 흐린조 엇이난에 모힌조 감자 헤근에.(고구마 좁쌀 넣어서 메조. 차조 없으니까 메조 고구마 해서.)

103026 #2 감자밥.(고구마밥.)

103026 @ 감자밥.(고구마밥.)

103026 #1 보리쌀에 또 그거 서꺼근에 보리밥 밥 다 트웨강 물 조끔 확 놔근에 젓어근에 흐꼼 잇당 틈제왕 놔두민 밥이 트웨가지고.(보리쌀에 또 그거 섞어서 보리밥 밥 다 되어가서 물 조금 확 넣어서 저어서 조금 있다가 뜰을 들여서 놔두면 밥이 되어가지고.)

103026 #2 이 훠장네는 부자니까 흐린조에 오메기떡³⁷⁾도 헤영 먹고 헷주마는

33) ‘체우치멍’은 ‘명석 끝을 들어 그 안에 있는 곡식 따위를 걸어 모으면서’라는 뜻을 지닌 어휘다.

34) ‘물그레’는 표준어 ‘연자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35) ‘물방에’는 표준어 ‘연자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36) ‘물그량’은 표준어 ‘연자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우리는 그런 거.(이 회장네는 부자니까 차조에 ‘오메기떡’도 해서 먹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103026 @ 오메기떡은 어떻 거우파?(‘오메기떡’은 어떤 겁니까?)

103026 #1 오메기떡. 그거 그 흐린조 굴아근에 가루 그거 물 썩싹 끓영 그거 허영 반죽해여근에 오메기떡 이만씩 허주게. 영 영 영 헤근에 요만씩 만들어근에 그거 헤근에 숟아내연 그거 뀌여근에 우리 집의는 그때는 농사도 많고 흐끔 옛날 부자난에 그거 가져근에 저 누룩에 서껑 그 막걸리처럼.(‘오메기떡’. 그거 그 차조 같아서 가루 그거 물 썩싹 끓여서 그거 해서 반죽해서 ‘오메기떡’ 이만씩 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만씩 만들어서 그거 해서 삶아내어서 그거 이겨서 우리 집에는 그때는 농사도 많고 조금 옛날 부자니까 그거 가져서 저 누룩에 섞어서 그 막걸리처럼.)

103026 @ 예.(예.)

103026 #1 그치룩 헤근에 술. 술 만들어근에.(그처럼 해서 술. 술 만들어서.)

103026 #2 오메기술³⁷⁾.(‘오메기술’.)

103026 @ 오메기술.(‘오메기술’.)

103026 #2 여기 민속촌에 가면 지금도.(여기 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103026 @ 예, 예.(예, 예.)

103026 #1 술 만들어근에 보리밭 할 때에 일, 일꾼 밭 가는 사름덜 그거 헤영 줘야 잘.(술 만들어서 보리밭 할 때에 일, 일꾼 밭 가는 사람들 그거 해서 줘야 잘.)

103026 @ 일이 워낙 하난.(일이 워낙 많으니까.)

103026 #1 잘 하주. 경 아녀민 계난 우리 어머니네 보면은 그때 보리밭 하젠 허민 이만은 항으로, 이만은 항으로 그 술 흐나.(잘 하지. 그렇게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네 보면 그때 보리밭 하려고 하면 이만한 독으로, 이만한 독으로 그 술 흐나.)

103026 @ 음.(음.)

103026 #1 그거 헤근에 그 보리밭 할 때 그거 먹곡. 조오메기³⁹⁾ 헤근에.(그거 해서 그 보리밭 할 때 그거 먹고. ‘조오메기’ 해서.)

103026 @ 조오메기 음.(‘조오메기’ 음.)

103026 #1 검은오메기⁴⁰⁾. 보리쌀 그 거피여근에 보리 검피여근에 그거 헤영 누룩 만들영.(‘검은오메기’. 보리쌀 그 거피해서 보리 거피해서 그거 해서 누룩 만들어서.)

103026 @ 음.(음.)

103026 #1 토와근에. 물 버무려근에 멩텡이에 담양 놔두면은 그것이 복삭허게 막 곰팡이 올라오잖아. 계믄 그거를 헤근에 다 부수레기 헤영 다 말리와근에 골.(띠

37) ‘오메기떡’은 차좁쌀가루로 둥그렇게 만들어 물에 삶아낸 떡이다.

38) ‘오메기술’은 오메기떡에 누룩과 물을 넣어서 발효시킨 제주 전통 술이다.

39) ‘조오메기’는 좁쌀가루로 둥그렇게 만들어 물에 삶아낸 떡이다.

40) 여기에서 ‘검은오메기’는 누룩의 의미로 쓰였다.

워서. 물 벼무려서 망태기에 담아서 놔두면 그것이 폭신하게 막 곰팡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서 다 부스러기 해서 다 말려서 엿기름.)

103026 @ 골.(엿기름.)

103026 #1 엿, 엿 만들젠 해도 그 골이 있어야 엿 만들곡.(엿, 엿 만들려고 해도
그 엿기름이 있어야 엿 만들고.)

103026 @ 예.(예.)

103026 #1 술 만들젠 해도 그것이 있어야.(술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있어야.)

103026 @ 누룩. 누룩해영예?(누룩. 누룩해서요?)

103026 #1 누룩혜근에.(누룩해서.)

103027 @ 어, 조찍은 뭐협니까?(어, 조짚은 뭐합니까?)

103027 #1 조침?(조짚?)

103027 @ 예.(예.)

103027 #1 조침은 그 이제 옛날에는 마당이 너르니까 마당에 주근주근하게 시리
ㅋ찡허게 이제 처음에 끌 땐 막 놈이 왕 영 봐도 막 굽닥허게. 경 혜근에 그거 말
류명 그거 불 때명 다 밥 해먹는 거.(조짚은 그 이제 옛날에는 마당이 너르니까 마
당에 차근차근하게끔 나란하게 이제 처음에 깔 땐 매우 남이 와서 이렇게 봐도 매
우 굽게. 그렇게 해서 그거 말리면서 그거 불 때면서 다 밥 해먹는 거.)

103027 @ 아, 조찍으로 밥행 먹어?(아, 조짚으로 밥해서 먹어?)

103027 #2 조찍으로 소 주당 둉케기덜.(조짚으로 소 주다가 등치들.)

103027 #1 소도 줘근에 부드러운 디는 소 먹어나고 그 질긴 저 못 먹엉 하면
그거 다 혜근에 말류명 밥 행 먹을 것이 그런 것뺏고 더 잊어?(소도 줘서 부드러운
데는 소 먹었었고 그 질긴 저 못 먹어서 하면 그거 다 해서 말리면서 밥 해서 먹을
것이 그런 것밖에 더 있어?)

103027 @ 음, 이쪽에는 지들커들이 별로 엊구나예?(음, 이쪽에는 뱤감들이 별로
없군요?)

103027 #1 지들커 엊어. 저 우리는.(탕감 없어. 저 우리는.)

103027 #2 촐.(꼴.)

103027 #1 촐왓 이시냔에 그런 거 혜근에 귀하지 아녀난디, 그 촐밧 어신 사름
덜은 솔, 솔입 가근에 다 글켕이 가정가근에 걷어근에.(꼴밭 있으니까 그런 거 해서
귀하지 않았었는데, 그 꼴밭 없는 사람들은 솔, 솔잎 가서 다 갈퀴 가져가서 걷어
서.)

103027 @ 음.(음.)

103027 #2 겨울에.(겨울에.)

103027 #1 겨울에 그거 혜근에 멩텅이에 담양 쪄왕 굴뚝도 살르고 아니믄 밥도
헹 먹고.(겨울에 그거 해서 망태기에 담아서 쪄와서 ‘굴뚝’도 사르고 아니면 밥도
해서 먹고.)

103027 #2 계난 조칙은 놀어놔뒀당 소 말 주당 남뎅이 이런 거 남은 거 그런

거 거두와당 뺄감으로 허고.(그러니까 조짚은 가려놔뒀다가 소 말 주다가 줄기 이런 거 남은 거 그런 거 거두어다가 뺄감으로 하고.)

103027 @ 으음.(으음.)

103027 #1 밥 행 먹고.(밥 해 먹고.)

103027 @ 계난 이 버리는 게 혼나도 엇엇어예?(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103027 #1 엇어.(없어.)

103027 #2 비니루 요만큼 헌 거 혼나 있으면 얘기 지성기 허젠. 이젠 버리는 것이 혼나 엇어. 이젠 쓰레기가 많은데 그때는.(비날 요만큼 한 거 하나 있으면 아기 기저귀 하려고. 이젠 버리는 것이 하나 없어. 이젠 쓰레기가 많은데 그때는.)

103027 #1 씨례기 하나 엇어.(쓰리기 하나 없어.)

103027 @ 그러니까.(그러니까.)

103027 #1 밥 먹는 찌깨기 그런 거 나오는 거 웨지가 먹곡.(밥 먹는 찌꺼기 그런 거 나오는 거 돼지가 먹고.)

103027 #2 웨지 먹곡.(돼지 먹고.)

103027 #1 또시 검질 그런 조찍 무신 그런 거는 소가 먹곡.(웃음).(다시 김 그런 조짚 무슨 그런 거는 소가 먹고.(웃음).)

103027 #2 경 허다가 순밥. 순밥.(그렇게 하다가 순밥. 순밥.)

103027 @ 예.(예.)

103027 #2 깃어근에 순다리⁴¹⁾ 만들엉 술 행 먹곡.(씻어서 ‘순다리’ 만들어서 술 해서 먹고.)

103027 #1 순다리.(‘순다리’.)

103027 #2 지금 말하는, 말하는 요구르타.(지금 말하는, 말하는 요구르트.)

103027 @ 순다리 맛좋주마씨.(‘순다리’ 맛좋지요.)

103028 @ 조 농사 헐 때 보리 헐 때처럼 잊어불지 못하는 거?(조 농사 할 때 보리 할 때처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103028 #1 에이그, 조 농사 헤근에 그 유월 염천에 긴긴 구 해에 그 땅볕 맞아 가명 그 검질메영. 우리 오빠도 그때 검질 혼꼼 메여신디 검질 한창 메여 가당 무신 것에사 싸와신디 돌 영 혼 사름 떤지민 나가 또 떤지민 떤지민 경 헤근에 나 어디 발에나 맞이민 막 아팡 울어 가민 우리 오빠 훈들곡 맞앙 우는 사름안티 욕만 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쳐구니었어근에 이제도. 아이고, 경 허민 우리 오빤 더 출싹거려근에 더 들락퀴여.(아이고, 조 농사 해서 그 유월 염천에 긴긴 그 해에 그 땅볕 맞아가면서 그 김매어서 우리 오빠도 그때 김 조금 매었는데 김 한창 매어 가다가 무슨 것에야 싸웠는지 돌 이렇게 한 사람 던지면 내가 또 던지면 그렇게 해서 나 어디 발에나 맞으면 매우 아파서 울어 가면 우리 오빠 편들고 맞아서 우는 사

41) ‘순다리’는 쉬 듯한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 만든 음료다. 여름철에 많이 해 먹는다. 지역에 따라서 ‘순다리’라고 한다.

람한테 욕만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어처구니없어서 이제도. 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오빤 더 출썩거려서 더 날뛰어.)

103028 @ 출싹거련. 계난 삼촌 편을 안 들었구나, 어머니가예?(출썩거렸어. 그러니까 삼촌 편을 안 들었구나, 어머니가요?)

103028 #1 나 맞양 우는 사름신디만 엄살햄덴 막 욕행 빨리 메어오지 아념젠.(나 맞아서 우는 사람한테만 엄살하고 있다고 매우 욕해서 빨리 매어오지 안한다고.)

103028 #2 그 당시에는 아덜보단 뜰, 뜰덜 막 괄세햇어.(그 당시에는 아들보단 딸, 딸들 매우 괄시했어.)

103028 #1 에이그, 뜰은.(아이고, 딸은.)

103028 @ 뜰은 사름이 아니라예?(딸은 사람이 아니지요?)

103028 #1 이젠 이젠 뭐 완전 뜰덜토 스뭇 큰소리만 빵빵 치고.(이젠 이젠 뭐 완전 딸들도 사뭇 큰소리만 빵빵 치고.)

103028 #2 계난 우리나라도 그 저 호주제 폐지하는 통에.(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저 호주제 폐지하는 통에.)

103028 @ 예.(예.)

103028 #2 *통에 뜰덜이 막.(*통에 딸들이 매우.)

103028 #1 출싹거령.(출썩거려서.)

103028 @ 뜰이 좋지 아념니까? 아덜보단은 뜰이 안 좋아마씨?(딸이 좋지 안합니까? 아들보다는 딸이 안 좋아요?)

103028 #1 아멩 혜도 아델이 잊어야 든든하주. 뜰은 원. 아니, 우리 아델 저 미국 저 거시기 유학 갈 때 가부난 제사 때에 저 안네 방에 그 젯상 그거 이신디 뜰덜 거 들러와질 말이우과? 행글락행글락허영. 아델 이실 때 거 젯상 들어오렌 허민 우끗 들러근에 원 말엇이 들어오는디 에이그, 뜰덜은 원 당췌 안 웨커라.(아무리 해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은 원. 아니, 우리 아들 저 미국 저 거시기 유학 갈 때 가버리니까 제사 때에 저 안에 방에 그 제상 그거 있는데 딸들 거 들어와질 말입니까? 한들한들해서. 아들 있을 때 거 제상 들어오라고 하면 우끈 들어서 전혀 말없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딸들은 전혀 당최 안 되겠어.)

103028 @ 젯상이 막 무거운 거구나예?(제상이 매우 무거운 거군요?)

103028 #1 우리 아델이 막끗덴 곧는 말이 어머닌 나 잇이난 걱정 잇수가? 나가 걱정이주.(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말하는 말이 어머닌 나 있으니까 걱정 있습니까? 내가 걱정이지.)

103028 @ 나가 걱정이주. 맞아예?(내가 걱정이지. 맞아요?)

103028 #1 경 굽아난. 경 굳꼭 경 굽아.(그렇게 말했었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

콩 농사

103029 @ 삼춘 콩도 여기 하영 싱것지예?(삼춘 콩도 여기 많이 심었지요?)

103029 #1 우리 우리 여기는이, 옛날에 콩이 잘 안 훠낫어. 짠물 헤불면은.(우리 우리 여기는, 옛날에 콩이 잘 안 됐었어. 짠물 해버리면.)

103029 @ 아.(아.)

103029 #1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태풍 불어근에 짠물 하면 콩이 하나 엇이 다 죽어비여.(바다가 가까워가지고. 태풍 불어서 짠물 하면 콩이 하나 없이 다 죽어버려.)

103029 @ 음.(음.)

103029 #1 경하면은 조 그튼 거 무시거 혜근에 모관⁴²⁾ 사름덜 콩 아쳐와근에 좁쌀에 바꽈가곡.(그렇게 하면 조 같은 거 무엇 해서 ‘목안’ 사람들 콩 가져와서 좁쌀에 바꿔가고.)

103029 @ 아아.(아아.)

103029 #1 경혜신디 어느 날 그 이제 과수원덜 허멍 담덜 노프게 하고 방풍낭 노프게 혜난에 콩 ㅎ꼽씩 가난에 그 콩이 웬 거라.(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과수원들하면서 담들 높게 하고 방풍나무 높게 하니까 콩 조금씩 가니까 그 콩이 된 거야.)

103029 @ 으음.(으음.)

103029 #1 계난 이제는 이녁 먹을 건 이녁이 같아근에 행 먹는디 그 옛날에는 다 모관 사름덜신디 바꽌에 좁쌀 정 바꽌근에.(그러니까 이제는 이녁 먹을 건 이녁이 같아서 해서 먹는데 그 옛날에는 다 ‘목안’ 사람들한테 바꿔서 좁쌀 줘서 바꿔서.)

103030 @ 콩 농사는 여기는 하영 안 햇구나예? 게믄 콩 허게 훠면 언제 가는 거우과?(콩 농사는 여기는 많이 안 했군요? 그러면 콩 하게 되면 언제 가는 겁니까?)

103030 #1 콩도 그 이제 쪼금 시민 같아.(콩도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같아.)

103030 @ 음.(음.)

103030 #1 하지. 절기로 하지. 하지 한 열흘 앞뒤근에 갈곡 열흘 두에 갈곡 경 허멍 그거.(하지. 절기로 하지. 하지 한 열흘 앞뒤서 같고 열흘 뒤에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103030 #2 콩은 날짜를 잘 봐야 훠여. 콩은.(콩은 날짜를 잘 봐야 돼. 콩은.)

103030 @ 콩은마씨?(콩은요?)

103030 #1 절기. 절기를 잘 봐서 그건 옛날은. 검은콩도 막 같앙 잘 훠곡 뭐 이젠.(절기. 절기를 잘 봐서 그건 옛날은. 검은콩도 많이 같아서 잘 되고 뭐 이젠.)

103030 @ 이제는 음.(이제는 음.)

103030 #1 사름덜이 막 역앙 어디 땅만 요만은 어디 남은 거 벼린 거 이시민 검은콩 거 혜영 싱그면 콩입도 틈앙 콩도 장만혜영 밥에 냥 먹어도 맛싯곡.(사람들

42) ‘모관’은 ‘목 안’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목 안’은 제주목 안, 즉 제주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막 약아서 어디 땅만 요만한 어디 남은 거 버린 거 있으면 검은콩 거 해서 심으면 콩잎도 따서 콩도 장만해서 밥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103030 @ 게도 예전에는 우리 웬장하고 장을 담아야 훠난예, 콩은 갈아실 거 아니라예?(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된장하고 장을 담가야 되니까요, 콩은 갈았을 거 아닌가요?)

103030 #1 콩은 계난 여기 짠물 헤근에 그 옛날엔 방풍낭도 없고 담도 무시거 안 허난 짠물 하면 콩이 안 훠여. 계난 이 바다 쪽으로는 다 고구마만 심것어.(콩은 그러니까 여기 짠물 해서 그 옛날엔 방풍나무도 없고 담도 무엇 안 하니까 짠물 하면 콩이 안 되어. 그러니까 이 바다 쪽으로는 다 고구마만 심었어.)

103030 @ 감저.(고구마.)

103030 #1 땅속에 들어강 그거는 짠물 해도 피해가 없으니까.(땅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짠물 해도 피해가 없으니까.)

103030 @ 예.(예.)

103030 #1 그런 거 콩 ㅋ뜬 거.(그런 거 콩 같은 거.)

103030 #2 옛날에는 콩 허젠 허면 물물교환.(옛날에는 콩 하려고 하면 물물교환.)

103030 @ 음.(음.)

103030 #2 우린 쌀 주고 그디선 콩 주고. 이제는 콩이 안 훠면은 돈 줘근에 사당은에 장 담으곡.(우린 쌀 주고 거기선 콩 주고. 이제는 콩이 안 되면 돈 줘서 사다가 장 담그고.)

103031 @ 으음. 콩도 저 뭐냐 걸름 힙니까?(으음. 콩도 저 뭐냐 거름 합니까?)

103031 #1 걸름 안 해.(거름 안 해.)

103031 @ 안 허고예?(안 하고요?)

103031 #1 콩은 너미 걸면은 콩이 열지를 아니 허여.(콩은 너무 걸면 콩이 열지를 안 해.)

103031 @ 음.(음.)

103031 #1 너미 걸러지민.(너무 걸면.)

103031 @ 예.(예.)

103031 #2 경 허난 그거는 걸름 아녀도 적당허게 커근에 적당히 잘 여난에.(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거름 안 해도 적당하게 커서 적당히 잘 여니까.)

103032 @ 게믄 아까 보리씨 헐 때도 튼나고 좁씨 헐 때도 튼나잖아예, 콩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그러면 아까 보리씨 할 때도 다르고 조씨 할 때도 다르잖아요, 콩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

103032 #1 콩, 그 옛날에 우리 할 때는.(콩, 그 옛날에 우리 할 때는.)

103032 #2 콩 싱그지 아녓수가?(콩 심지 않았습니까?)

103032 #1 콩 싱것수가게. 옛날에는 그 조팟듸 하나씩 뿌립니께. 하나씩.(콩 심었습니까? 옛날에는 그 조밭에 하나씩 뿌립니다. 하나씩.)

103032 #2 으, 맞아, 맞아.(으, 맞아, 맞아.)

103032 #1 하나씩 뿌려근에 조 비여나민 그 콩이 이제 내불민 그거 익으면 그 때 콩 강 비여당 먹어수게. 콩엔 헨 따로 갈진 아녀서.(하나씩 뿌려서 조 베어나면 그 콩이 이제 내버리면 그거 익으면 그때 콩 가서 베어서 먹었습니다. 콩이라고 해서 따로 갈진 않았어.)

103032 @ 갈진 안 허고 조팟되. 조팟디 하나씩 가는 콩은 무신 콩 헤낫수과?(갈진 안 하고 조밭에. 조밭에 하나씩 가는 콩은 무슨 콩 했었습니까?)

103032 #1 장콩⁴³⁾, 장콩.(장콩, 장콩.)

103032 @ 그냥 장콩엔. 으, 머들콩 이런 말은 안 허고.(그냥 장콩이라고. 으, 대우콩 이런 말은 안 하고.)

103032 #1 그자 장콩.(그저 장콩.)

103035 @ 장콩. 음, 그러면은 그 장콩 갈면 수확은 어떤 식으로 헤연마씨?(장콩. 음, 그러면 그 장콩 갈면 수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3035 #1 수확 그거 조 다 해난 다음에 조 할 때 파랑현냥 잇어, 콩이. 조 헤여불면은 조 이실 때 조로 그늘지니까 그 잘 익지 못했다가 조 다 비여불면은 그땐 헤벗 잘 받으난 잘 익엉 다 비여근에 무꺼 와근에 집의 와근에 명석 영 폐와놔근에 명석 우의서 막뎅이로 때리멍. 뭐 마당에 영 헤영 때릴 정도로 하영은 안 허고.(수확 그거 조 다 한 다음에 조 할 때 파란대로 있어, 콩이. 조 해버리면 조 있을 때 조로 그늘지니까 그 잘 익지 못했다가 조 다 베어버리면 그땐 햅볕 잘 받으니까 잘 익어서 다 베어서 끓어 와서 집에 와서 명석 이렇게 펴놓아서 명석 위에서 막대기로 때리면서. 뭐 마당에 이렇게 해서 때릴 정도로 많이는 안 하고.)

103035 @ 아아.(아아.)

103035 #1 명석 폐와낳근에 막뎅이로 영 두드리멍 행 하면은 콩 두 말 아니민 서 말 정도 그 정도 웨민 집의 장 담양은에.(명석 펴놓아서 막대기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해서 하면 콩 두 말 아니면 서 말 정도 그 정도 되면 집에 장 담가서.)

103036 @ 별도로는 안 하고예? 계믄 이제 콩으로 해서 먹는 거는 옛날에?(별도로는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콩으로 해서 먹는 거는 옛날에?)

103036 #1 콩 옛날은 장벳기.(콩 옛날은 장밖에.)

103036 @ 음.(음.)

103036 #1 콩으로 행은에 먹는 거 엊어. 뭐 콩 헤근에 콩 그 옛날엔 어떻 헤시* 콩 싯경 물에 담갓당 막 즈눌민 이만씩 헐 거 아니?(콩으로 해서 먹는 거 없어. 뭐 콩 해서 콩 그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 * 콩 씻어서 물에 담갔다가 막 무르면 이만큼 씩 할 거 아니?)

103036 @ 예.(예.)

103036 #1 그거 소쿠리에 놔근에 물 빼여둬근에 방에에 뜬 양 죽 쟁은에.(그거 소쿠리에 놓아서 물 빼두고서 방아에 짱어서 죽 췄서.)

43) '장콩'은 장을 담글 용도로 가는 콩을 말한다.

103036 @ 아, 콩죽? 그렇게 행 먹으면 맛있겠다.(아, 콩죽?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103036 #1 미역 놓곡 헤근에 콩죽 쑤민 것도 웬간이 맛있어낫어.(미역 넣고 해서 콩죽 쑤면 것도 엔간히 맛있었어.)

103036 #2 영양식으로.(영양식으로.)

103036 @ 콩죽 헐 때 메역을 놔마씨?(콩죽 할 때 미역을 놔요?)

103036 #1 음, 미역 놓민은 완전 미역도 민작하고 완전 맛있어. 미역 넣.(음, 미역 넣으면 완전 미역도 무르고 완전 맛있어. 미역 넣어서.)

103036 @ 게믄 거기는 뭐 뭐 냉은에 허는 거라마씨? 콩죽 헐 때.(그러면 거기는 뭐 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콩죽 할 때.)

103036 #1 콩죽 헐 때 좁쌀이나.(콩죽 할 때 좁쌀이나.)

103036 @ 좁쌀에 콩 그거 헤갖고 메역 냉은에에.(좁쌀에 콩 그거 해갖고 미역 넣어서.)

103036 #1 경 혜영 쟁 먹어난.(그렇게 해서 췄서 먹었었어.)

103036 @ 혹시 뭐 콩느물허거나 콩주름 이런 건 안 헤마씨?(혹시 뭐 콩나물 하거나 콩기름 이런 거 안 해요?)

103036 #1 제사할 때, 제사 하영 허는 사름덜은 콩 집의서 그땐 콩느물 같은 거 혜영 파는 디가 엇고, 엇으니까 제사헐 때는 콩 영 컷당은에 그 **민 시리.(제사할 때, 제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콩 집에서 그땐 콩나물 같은 거 해서 파는 데가 없고, 없으니까 제사할 때는 콩 이렇게 담갔다가 그 **민 시리.)

103036 @ 예.(예.)

103036 #1 시리에 콩 벗겼디래 나가지 아녀거 무시거 영 고망에 뭐 깔아근에 콩 혜여근에 물에 막 물 짹 빼면은 그디 영 놔근에, 놔근에 뭐 방구석에 냉.(시루에 콩 바깥으로 나가지 안게 무엇 이렇게 구멍에 뭐 깔아서 콩 해서 물에 막 물 짹 빼거기 이렇게 놔서, 놔서 뭐 방구석에 놔서.)

103036 #1 이만은한 장탱이에 남 영 놔근에 그 시리 우터레 냉 물 우터레 줘근에 하민 물 밑으로 빠지민 그거 비와불곡 경허명 콩느물 키와근에 그 제사햇주.(이 만한 장태에 나무 이렇게 놓아서 그 시루 위로 놓아서 물 위로 줘서 하면 물 밑으로 빠지면 그거 부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콩나물 키워서 그 제사했어.)

103036 @ 예, 맞아. 옛날은 다 집의서만예?(예, 맞아. 옛날은 다 집에서만요?)

103036 #1 집의서 다 제사.(집에서 다 제사.)

103036 @ 삼춘, 둠비도 해봄디가?(삼춘, 두부도 해봄디까?)

103036 #1 둠비?(두부?)

103036 @ 예.(예.)

103036 #1 둠비⁴⁴⁾ 그거, 그거는 둠비 갈아근에 ** 그거 일일이 다 거 혼꺼번에

44) 조사자가 ‘두부’의 제주어로 ‘둠비’를 물었는데, 구술자는 표준어 ‘동부’에 대응하는 제주어 ‘둠비’로 알아듣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익지 아녀니까 거 일일이 그자 영 우잣에 쪼끔 가는 건 해도 큰 밧듸 갈양 엉간히 힘든 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네 천오백 평 갈아신디 돈은 하영 샀어. 그거에. 그거 혜근에 혼 번에 익지 안 하니까 익으민 익은 것만 탕. 선 거 놔두민 선 거 익으민 또 그 너른 밧듸 거 타젠 하난에.(동부 그거, 그건 동부 같아서 ** 그거 일일이 다 거 한꺼번에 익지 안하니까 거 일일이 그저 이렇게 텃밭에 조금 가는 건 해도 큰 밭에 같아서 엔간히 힘든 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네 천오백 평 같았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 그거에. 그거 해서 한 번에 익지 안 하니까 익으면 익은 것만 따서. 선 거 놔두면 선 거 익으면 또 그 너른 밭에 거 따려고 하니까.)

103036 @ 그게 이름이 뭐마씨?(그게 이름이 뭐예요?)

103036 #1 돈비, 돈비.(동부, 동부.)

103036 @ 돈비. 으, 돈비 행은에 그 콩 닮은 거예?(동부. 으, 동부 해서 그 콩 같은 거요?)

103036 #1 요만씩 헌 거.(요만큼씩 한 거.)

103037 @ 음, 콩 타작해나면 그 남뎅이덜 남을 거 아니우과예?(음, 콩 타작해나면 그 줄기들 남을 거 아닙니까?)

103037 #1 응.(응.)

103037 @ 그건 뭐렌 협니까? 여기서.(그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103037 #1 콩찌.(콩짚.)

103037 @ 콩찌이렌 협니까? 으, 콩찌, 콩찌 용도는?(콩짚이라고 합니까? 으, 콩짚, 콩짚 용도는?)

103037 #1 콩찌 그 뭐 자리 같은 거 무시 거 같은 거 바당에 고기 같은 거 영굴 거 이실 때는.(콩짚 그 뭐 자리돔 같은 거 무슨 거 같은 거 바다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울 거 있을 때는.)

103037 #2 자리 궁 먹을 때.(자리돔 구워 먹을 때.)

103037 #1 콩찌으로 불 숨아놔근에 불, 콩찌 불이 완강⁴⁵⁾허주게.(콩짚으로 불때어나서 불, 콩짚 불이 완강하지.)

103037 @ 예.(예.)

103037 #1 그것에 적쉐에 그 자리 영 영 놔근에 그 불에 궁 먹는 거.(그것에 석쇠에 그 자리돔 이렇게 이렇게 놓아서 그 불에 구워 먹는 거.)

103037 @ 아아, 콩찌 용도가 그냥 막 불 숨아부는 게 아니고 딱 놔뒀당은에.(아아, 콩짚 용도가 그냥 막 불 때버리는 게 아니고 딱 놔뒀다가.)

103037 #1 무신거 굽젠허면은 혼 단 빼다근에 자리 궁 먹곡.(무엇 구우려고 하면 한 단 뽑아다가 자리돔 구워서 먹고.)

103037 @ 아, 쉐 주거나 영은 안 헤마씨?(아, 소 주거나 이렇게는 안 해요?)

103037 #1 소 ** 거칠엉.(소 ** 거칠어서.)

103037 @ 기구나.(그렇구나.)

45) ‘완강허주게’는 ‘완강하지’의 의미다. 여기에서 ‘완강’은 (불이) 아주 강하지 하는 뜻이다.

103037 #2 땀땀해여.(단단해.)

103038 @ 예, 콩 용시헐 때 또 아까처럼 잊어불지 못하는 이런 추억이라도 있수가?(예, 콩 농사할 때 또 아까처럼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추억이라도 있습니까?)

103038 #1 콩은 그치룩 막 그 힘들게 한 적이 엊이난에 그거는 그자. 젤 힘들게 한 거는 그 돛가례 다 펴내여근에.(콩은 그렇게 매우 그 힘들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그자. 젤 힘들게 한 거는 그 돋지거름 다 펴내서.)

103038 #2 보리 헐 때.(보리 할 때.)

103038 #1 그거 다 씨 뿌리멍 소 말 헤근에 그 돛가례 막 불령 이제 또 다 쇠스렁으로 다 뒤집어 놔근에 또 씨 뿌리멍 또 막 불려낳 맹텅이로 소에 다 시끄멍 뱃듸 강 다 방수 벌영⁴⁶⁾ 이디 혼나 놓민 저만 쪽에 혼나허곡 허멍 다 비와낳 돛가례 뿌린 거.(그거 다 씨 뿌리면서 소 말 해서 그 돋지거름 마구 밟아서 이제 또 다 쇠스랑으로 다 뒤집어 놔서 또 씨 뿌리면서 또 마구 밟아서 망태기로 소에 다 실으면서 밭에 가서 다 ‘방 수 벌이고’ 여기 하나 놓으면 저만 쪽에 하나하고 하면서 다 부어놓고 돋지거름 뿌린 거.)

103038 @ 것도 추운 때에?(것도 추운 때에?)

103038 #1 그 손으로 헤근에.(그 손으로 해서.)

103038 @ 상강 넘엉은에.(웃음)(상강 넘어서.(웃음))

103038 #1 그 손으로 자리젓 경 해도 맛만 좋아. 보리밥에.(그 손으로 자리젓 그렇게 해도 맛만 좋아. 보리밥에.)

103038 @ 예.(예.)

103038 #1 조, 조는 그 검질메젠 허민.(조, 조는 그 김매려고 하면.)

103038 @ 음.(음.)

103038 #1 그 땅벗듸. 거 검질이 발창 뜨거와근에 양말도 엇고 아무 것도 어시난에 발창 뜨거와근에 검질 할 때 매영은에 놓앙은에 그 검질맨 우터레 발 영 영 놓멍 검질 쪽 메영 잣덴 허난 옛날에.(그 땅별에. 거 김이 발바닥 뜨거워서 양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발바닥 뜨거워서 김 할 때 매어서 놓아서 그 김맨 위에 발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서 김 쪽 매고 갔다고 하니까 옛날에.)

103038 @ 맞아예? 게난 그런 말들이 재미진 말들입주게.(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재미있는 말들입지요.)

103038 #1 게난 저 옛날엔 페렝이, 모자도 엇곡 허난에 고사리 큰 거 영 꺼꺼근에 머리에 낳 수건 영 쌩. 그늘지게시리 혜영은에.(그러니까 저 옛날엔 밀짚모자, 모자도 없고 하니까 고사리 큰 거 이렇게 꺾어서 머리에 놓아서 수건 이렇게 써서. 그늘지게끔 해서.)

밭벼 농사

46) ‘방수 벌영’은 ‘방처럼 일정한 공간으로 띄어 간격을 벌이고’의 의미로 쓰였다.

103039 @ 맞수다. 여기 산듸도 하영 갑니까?(맞습니다. 여기 밭벼도 많이 갑니까?)

103039 #1 산듸 우리, 우리 집인 산듸 하영 같아서. 산듸하고 믈물.(밭벼 우리, 우리 집엔 밭벼 많이 같아서. 밭벼하고 메밀.)

103040 @ 산듸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우과?(밭벼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겁니까?)

103040 #1 산듸도 그거 빼영은에.(밭벼도 그거 뿐여서.)

103040 @ 언제 계절부터?(언제 계절부터?)

103040 #1 계절에 것도 봄에 가는 거난. 같아근에 하면은 산듸는 세불 메는 게 농사 중에 젤 무녀 산듸가 젤 무녀 갈주게.(계절에 것도 봄에 가는 거니까. 같아서 하면 밭벼는 세벌 매는 게 농사 중에 젤 먼저 밭벼가 제일 먼저 갈지.)

103040 @ 음.(음.)

103040 #2 경하는 때문에 겸질 혼불을 더 메는 거라.(그런 때문에 김 애벌을 더 매는 거야.)

103040 @ 음.(음.)

103040 #1 겸질 딴 거는 나근에 요만씩 할 때는 산듸는 이만씩 하니까.(김 다른 거는 나서 이만큼 할 때는 밭벼는 이만큼 하니까.)

103040 @ 어, 겸질이 더 한 거라예?(어, 김이 더 많은 거네요?)

103040 #1 세불 메곡. 산듸밧.(세벌 매고. 밭벼밭.)

103042 @ 산듸는 씨는 어떤 식으로 빼영 허는 거우과?(밭벼는 씨는 어떤 식으로 뿐여서 하는 겁니까?)

103042 #1 산듸씨도 좁씨 빼는 식으로.(밭벼씨도 조씨 뿐리는 식으로.)

103042 @ 먼저 같아낳은에?(먼저 같아놓아서?)

103042 #1 으. 같아낳. 그것도 같아낳 씨 뿐여낳은에 똑 조 하는 거나 마찬가지.(으. 같아놓아서. 그것도 같아놓아서 씨 뿐여놓아서 꼭 조 하는 거나 마찬가지.)

103042 @ 것도 불려마씨? 어.(것도 뺏아요? 어.)

103042 #1 또 믈물 같은 거는 불치.(또 메밀 같은 것은 재.)

103042 @ 음.(음.)

103042 #1 불치 가져다근에 밧듸 불치를 옛 가마니 실어당 놓. 혼 천 평 정도 모멸 갈젠 허민 믈멸씨 서 말 정도. 경 관뒈로 한 열두 개 정도 씨를 헤가지고 그 불치에 그 씨를 다 벼무령.(재 가져다가 밭에 재를 몇 가마니 실어다가 놓고. 한 천 평 정도 메밀 칼려고 하면 메밀씨 서 말 정도. 그렇게 관되로 한 열두 개 정도 씨를 헤가지고 그 재에 그 씨를 다 벼무여서.)

103042 @ 음.(음.)

103042 #1 벼무령은에 밧을 영 영영 졸졸 그거는 밧 골 깃엄젠허주게. 그 믈멸가는 거는.(벼무여서 밧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졸졸 그거는 밧 골 굿는다고 하지. 그 메밀 가는 거는.)

103042 @ 아. 골 깃엄젠허?(아. 골 굿고 있다고요?)

103042 #1 골 깃엄젠. 골 요디 깃고 요디 깃이민 그때 옛날 출구덕⁴⁷⁾.(골 굿고 있다고. 줄 요기 그으면 그때 옛날 ‘출구덕’.)

103042 @ 예.(예.)

103042 #1 출구덕에 헤근에 영 저것이 끈 헤근에 어깨에 영 허영 그 불치 담아근에 젵아 놓는 거라, 다. 요디 젵아 놓민 요만쯤에 가게시리. 것도 완전 기술적으로 세 고랑씩 심어근에.(‘출구덕’에 해서 이렇게 저것이 끈 해서 어깨에 이렇게 해서 그 재 담아서 집어 놓는 거야, 다. 여기 집어 놓으면 요만쯤에 가게끔. 것도 완전 기술적으로 세 고랑씩 심어서.)

103042 @ 음.(음.)

103042 #1 경 헤근에 그 젵아 놓면은 므물은 난 거 보면은 텅기당 난 거 보면은 모록모록 나는디, 지금은 씨 삐연에 갈암신그라 므물 간 디 가보난에 조 나듯이다 나선게. 아, 씨 뿌령 갈암구나.(그렇게 해서 그 집어 놓으면 메밀은 난 거 보면다니다가 난 거 보면 모록모록 나는데, 지금은 씨 뿌려서 갈고 있는지 메밀 간 데가 보니까 조 나듯이 다 났던데. 아, 씨 뿌리고 길거 있구나.)

103042 @ 아, 옛날에는 이렇게 골 굿엉은에 다헨예?(아, 옛날에는 이렇게 골 그어서 다 했네요?)

103042 #1 골 굿이민 불치 씨를 다 버무려근에 탁탁탁탁 영 젵아놔근에, 젵아놔근에 하면 혼 밧듸 대으섯 개씩 모록모록_hex 나신디 그때 므물 영 나는 디 간 보난하나씩 하나씩 나난 우리가 해보난 씨 뿌련 이건 험구나. 씨 뿌령구나 경 생각.(골그으면 재 씨를 다 버무려서 탁탁탁탁 이렇게 집어 놓아서, 집어 놓아서 하면 한군데 대여섯 개씩 모록모록해서 났는데 그때 메밀 이렇게 나는 데 가서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씨 뿌려서 이건 하고 있구나. 씨 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

103042 @ 게문 그 므멀 가는 것도 잘도 힘들 거라예? 젱아낳 허면.(그러면 그 메밀 가는 것도 잘도 힘들 거네요? 집어 놓아서 하면.)

103042 #1 므멀은 언제 가느냐 하면 한 저 음력으로 유월달 쯤에 같아.(메밀은 언제 가느냐 하면 한 저 음력으로 유월달 쯤에 같아.)

103042 @ 음.(음.)

103042 #1 유월달.(유월달.)

103042 #2 췌고 더울 때.(최고 더울 때.)

103042 #1 췌고 더울 때. 경하는 때문에 그 소를 잘 맥여야 그 밭을 잘 거니까 어데 출밧듸 가근에 가둬근에 맥영 하여튼 새벽 혼 시나 두 시나 뛰면 밧듸 가근에 밤의 갈아근에 새벽이부터 므멀은. 여덟 시나 아홉 시 뛰면은 끗나야 뛰여.(최고 더울 때. 그렇게 하는 때문에 그 소를 잘 먹여야 그 밭을 잘 거니까 어데 꿀밭에 가서 가둬서 먹여서 하여튼 새벽 한 시나 두 시나 되면 밭에 가서 밤에 갈아서 새벽에부터 메밀은. 여덟 시나 아홉 시 되면 끗나야 돼.)

47) ‘출구덕’은 ‘출+구덕’ 구성으로, 허리에 차서 나물 따위를 캐서 넣는 용도로 쓰는 바구니다.

103042 #2 쉐가 열먹어.(소가 언걸먹어.)

103042 #1 더워부난에.(더워버리니까.)

103042 @ 사름 열먹을 생각 아녀고 쉐 열먹을 생각? (웃음).(사람 언걸먹을 생각 않고 소 언걸먹을 생각? (웃음).)

103042 #2 경허젠 허면은 잘 맥이젠 놈의 출왓듸 담 컬엉은에 들어강은에 밝도록 퉁아상 쉐 맥영 몰르게 주인 몰르게 나와야주. 거 걸리민 혼나.(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먹이려고 남의 꿀밭에 담 허물어서 들어가서 밝도록 지켜셔서 소 먹여서 모르게 주인 모르게 나와야지. 거 들키면 혼나.)

103042 @ 놈의 밧듸 강 맥여불어?(남의 밭에 가서 먹여버려?)

103042 #2 어떻게 해? 맥일라고 허면.(어떻게 해? 먹이려고 하면.)

103042 #1 옛날에 다 그치룩허멍.(옛날에 다 그처럼 하면서.)

103042 #2 이녁네 밧듸는 이녁네 밧듸는 아깝고.(이녁네 밭에는 이녁네 밭에는 아깝고.)

103041 @ 나중에는 난리가 나오예? 아까 산듸도 걸름 험니까? 산듸밧듸.(나중에는 난리가 나오요? 아까 밭벼도 거름 합니까? 밭벼밭에.)

103041 #1 산듸도 걸름 엊주게. 산듸는 땅들이 이제 제일 가만히 젤 걸름을 잘 해야 뛰는 모냥이라. 그거 불치에 벼무령 이거 다 영 영 똑 인치룩 혜근에 쟁아 놓. 쟁아 놋근에 행 끄시게질 행 내불민 그건.(밭벼도 거름 없지. 밭벼는 메밀이 이제 제일 가만히 젤 거름을 잘 해야 되는 모양이야. 그거 쟈에 벼무려서 이거 다 이렇게 이렇게 똑 이처럼 해서 집어 놓아서. 집어 놓아서 끙게질 해서 내버리면 그건.)

103043 @1 그거, 그러면 이제 아까 산듸 검질은 세불예?(그거, 그러면 이제 아까 밭벼 김은 세벌요?)

103043 #1 으.(으..)

103043 @ 게믄 그거는 처음 매는 거는 초불?(그러면 그거는 처음 매는 것은 애벌?)

103043 #1 초불, 두불, 세불.(애벌, 두벌, 세벌.)

103044 @ 세불검질 영 허는 거구나예? 그 산듸밧듸는 어떤 검질 이십니까?(세벌김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 밭벼밭에는 어떤 김 있습니까?)

103044 #1 검질.(김.)

103044 @ 예.(예.)

103044 #1 검질 그 제완지그튼 거게.(김 그 바랭이 같은 거.)

103044 #2 뭐 그런 거.(뭐 그런 거.)

103044 #1 그런 거 하고 저 무신거 물 흐끔 영 골르는 밧은 저 쉐터럭엔 혜근에.(그런 거 하고 저 무엇 물 조금 이렇게 고이는 밧은 저 김의털이라고 해서.)

103044 #2 거 쉐터럭.(거 김의털.)

103044 #1 여름에 나는 검질이 그 쉐터럭.(여름에 나는 김이 그 김의털.)

103044 #2 그것이 우터여.(그것이 위태해.)

103044 #1 그것이 복삭하게 막 구멍이 엇이 나는 검질이 있어.(그것이 복삭하게 매우 구멍이 없이 나는 김이 있어.)

103044 @ 쉐터력.(김의털.)

103044 #1 게믄 쉐터력하고 산뒤하곡이 비슷허여.(그러면 김의털하고 밭벼하고 비슷해.)

103044 @ 어.(어.)

103044 #1 종자가 경 허민 이거 뭐 그 산뒤, 산뒤를 그 잘 놔두명 검질을 메야 웨 건디 그거 골리멍 메젠허민 여간 아니. 그.(종자가 그렇게 하면 이거 뭐 그 밭벼, 밭벼를 그 잘 놔두면서 김을 매야 될 건데 그거 고르면서 매려고 하면 여간 아니. 그.)

103044 @ 산뒤 메불엄덴 어명안티 욕 듣고.(밭벼 매벼리고 있다고 어머니한테 욕 듣고.)

103044 #1 산듸 다 메불엄젠흑 듣고.(밭벼 다 매벼린다고 욕 듣고.)

103045 @ 맞아예. 산듸는 어떤 식으로 수확합니까?(맞아요. 밭벼는 어떤 식으로 수확합니까?)

103045 #1 그거는 보리하고 똑각뜬 식이라. 비여근에 시경 왕.(그건 보리하고 똑같은 식이라. 베서 싣고 와서.)

103045 @ 음.(음.)

103045 #1 시경 와근에 홀테를 홀탕.(실어 와서 그네로 훑어서.)

103045 @ 홀테로 홀탕예.(그네로 훑아서요.)

103045 #1 두드령은에.(두들겨서.)

103045 @ 여기는 클을 홀테렌도 허기도 헙니까?(여기는 틀을 ‘홀테’라고도 하기도 합니까?)

103045 #1 홀테, 홀테.(‘홀테’, ‘홀테’.)

103046 @ 아, 홀테렌 혜예. 산뒤笞로는 뭐 혜수가?(아, ‘홀테’라고 한다고요. 밭벼笞로는 뭐 했나요?)

103046 #1 산듸笞?(밭벼笞?)

103046 @ 예.(예.)

103046 #1 산뒤笞은 뭐 제사 때에 그 메.(밭벼笞은 뭐 제사 때에 그 메.)

103046 @ 예.(예.)

103046 #1 메 하곡. 뭐.(메 하고. 뭐.)

103046 #2 절벤 솔변 각르 굽아당.(절편 솔편 가루 같아다가)

103046 #2 각르 굽아당은에 절벤 솔벤 집의서 다 그땐 멘들앙.(가루 같아다가 절편 솔편 집에서 다 그땐 만들어서.)

103046 @ 예.(예.)

103046 #2 그때는 우리 그때 할 때는양 기겟방이 엇엉 것도 물에 담갓당 걷정다 방에에 뺏아.(그때는 우리 그때 할 때는요 방앗간이 없어서 것도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다 방아에 빻아.)

103046 @ 음.(음.)

103046 #1 방으로 이거 빼이난 나 이디 쟁이진 거 엊어진지가 멧 년뺏기 안 됐수다. 이디가 막 다 쟁이 다 전.(방으로 이거 빼으니까 나 여기 옹이진 거 없어진지 가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가 매우 다 옹이 다 쥬서.)

103046 @ 종손집이니까 또 식게도 하구나.(종손집이니까 또 제사도 많구나.)

103046 #1 하도 식개가 일 년에 열두 번씩. 맹질 부뜨민 혼 열대여섯 번씩 하니까.(하도 제사가 일 년에 열두 번씩. 명절 붙으면 한 열대여섯 번씩 하니까.)

103046 @ 아.(아.)

103046 #1 옛날에는 우리 그 친정 우리 처녀 때는 일 보민. 그 메쓸 멧밥도 두 말떼기⁴⁸⁾로 혼나 해. 이만한 속으로.(옛날에는 우리 그 친정 우리 처녀 때는 일 보면. 그 맵쌀, 메밥도 ‘두말떼기’로 하나 해. 이만한 속으로.)

103046 @ 어어.(어어.)

103046 #1 혼나 허민 육춘 수춘 구춘 십춘끄장 다 먹으려 오면은.(하나 하면 육촌 사촌 구촌 십촌까지 다 먹으러 오면.)

103046 @ 예.(예.)

103046 #1 그것도 족양. 혼 두말떼기 그 밥현 것도.(그것도 작아서. 한 ‘두말떼기’ 그 밥한 것도.)

103046 @ 으으.(으으.)

103046 #1 떡 같은 것도 헤근에 다 허민 아니 온 분들 나시 밥에 떡에 무시것에 다 보내곡.(떡 같은 것도 해서 다 하면 안 온 분들 둘 밥에 떡에 무슨 것에 다 보내고.)

103046 #2 식개밥 나누레.(제삿밥 나누러.)

103046 #1 혼 동네 다 식개밥 아이고, 눈 이만이 온 때는 어느 집의 아져가라, 어느 집의 아져가라 허멍 우리 얼먹언.(한 동네 다 제삿밥 아이고, 눈 이만큼 온 때는 어느 집에 가져가라, 어느 집에 가져가라 하면서 우리 언걸먹었어.)

103046 #2 그땐 뭐 가로등이 이실카. 캄캄한 디.(그땐 뭐 가로등이 있을까. 캄캄한 데.)

103046 #1 캄캄한 디.(캄캄한 데.)

103046 #2 후라시가 이시카.(플래시가 있을까.)

103046 @ 계난 식개 끝나면 그 밤에 아경가야 뛰예?(그러니까 제사 끝나면 그 밤에 가져가야 돼요?)

103046 #1 계난 그 만약에 제사 먹으려 안 온 집의 다 아져가야 뛰.(그러니까 그 만약에 제사 먹으려 안 온 집에 다 가져가야 돼.)

103046 @ 밤에.(밤에.)

103046 #2 참 정말.(참 정말.)

48) ‘두말떼기’는 쌀 두 말 들이 속을 말한다.

103046 @ (웃음).((웃음).)

103046 #1 산듸 갈양 그치록 허멍 이제 이제 아이고, 이제 그 이제 맹질 이제 식으로 못 견디다, 못 살겠다 허난. 옛날 우리 식으로 살민 진짜로 일 년도 못 살았다 죽을 사름덜.(밭벼 갈아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아이고, 이제 그 이제 명절 이제 식으로 못 견디다가, 못 살겠다 하니까. 옛날 우리 식으로 살면 진짜로 일 년도 못 살아서 다 죽을 사람들.)

103047 @ (웃음). 게난 그 산듸씩은 뭐협니까?((웃음). 그러니까 그 밭볏짚은 뭐 합니까?)

103047 #1 산듸씩도 그 소, 소덜 주민 소 말덜 주면은 산듸씩 먹어. 젠디 저 그 때에 보난에 소덜은 잘 안 주젠 헨게. 이빨 그 하영 저 거세기 다여분덴.(밭볏짚도 그 소, 소들 주면 소 말들 주면 밭볏짚 먹어. 그런데 저 그때에 보니까 소들은 잘 안 주려고 하던데. 이빨 그 많이 저 거시기 닳아버린다고.)

103047 @ 아.(아.)

103047 #1 그 산듸씩이 찔기는 생이라.(그 밭볏짚이 질기는 모양이야.)

103047 @ 음.(음.)

103047 #1 이빨 제게 다여분덴 허멍 잘 안 징. 무시거 이 작두로 영 영.(이빨 빨리 닳아버린다고 하면서 잘 안 줘서. 무엇 이 작두로 이렇게 이렇게.)

103047 #2 작두로 짤랑.(작두로 잘라서.)

103047 #1 짤라근에 무시것에 저 조칵메기⁴⁹⁾나 그런 거에 벼무려근에 물 흐끔 놓곡 헨 벼무려근에 징.(잘라서 무슨 것에 저 ‘조칵메기’나 그런 것에 벼무려서 물 조금 놓고 해서 벼무려서 줘서.)

103047 @ 응, 산듸씩은예?(응, 밭볏짚은요?)

103047 #1 기냥은 저 찔긴 생이라.(그냥은 저 질긴 모양이야.)

103047 @ 게도 산듸씩은 용도가 하지 아님니까?(그래도 밭볏짚은 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103047 #2 어.(어.)

103047 @ 어떤 걸로 썸수가?(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103047 #2 새끼도 꼬고 초신도 **놓고.(새끼도 꼬고 짚신도 **놓고.)

103047 #1 그걸로 헤근에 저 맹텅이 하곡.(그것으로 해서 저 망태기하고.)

103047 #2 맹텅이허고.(망태기하고.)

103047 #1 둇가래착도 다 그거 하고 명석도 다 산듸씩으로 하고.(‘窦가래착’도 다 그거 하고 명석도 다 밭볏짚으로 하고.)

103047 @ 산듸씩으로 하곡 아까 새끼 꼬양.(밭볏짚으로 하고 아까 새끼를 꼬아서.)

103047 #2 새끼 꼬왕은엥에 초신 만들고.(새끼 꼬아서 짚신 만들고.)

103047 @ 어, 초신도 만들고. 게난 캤장히 크게.(어, 짚신도 만들고. 그러니까

49) ‘조칵메기’는 조를 타작하고 나서 남는 껌질이나 찌꺼기를 말한다.

굉장히 크게.)

103047 #1 그 옛날에는 던드렁마께⁵⁰⁾.(그 옛날에는 ‘던드렁마께’.)

103047 @ 예.(예.)

103047 #1 던드렁마께 그 산듸쪽만 두드리는 마께. (웃음).('던드렁마께' 그 밭벗
짚 두들기는 방망이. (웃음).)

103047 @ 예.(예.)

103047 #1 이만은 돌 멘깍현 등그령현 거 그것에 놓 그 덩드렁마께로 산디쪽
막 피우면 북삭하주게.(이만큼한 돌 때끈한 동그란 거 그것에 놓아서 그 ‘덩드렁마
께’로 밭벗짚 막 부풀리면 폭신하지.)

103047 @ 예.(예.)

103047 #1 경하면 그치록 헤 놔사 노 꼬우면은 곱닥하주. 그냥 벼깍한 냥 노꼬
민은.(그렇게 하면 그처럼 해 놓아야 노 꼬면 곱지. 그냥 뻣뻣한 대로 노 꼬면.)

103047 #2 노 꼬지 못허여.(노 꼬지 못해.)

103047 #1 노 꼬지 못허여. 그것도 옛날 말 굽아가난 우습다. 나가 굽아도.(노
꼬지 못해. 그것도 옛날 말 말해가니까 우습다. 내가 말해도.)

103047 #2 우리도 국민학교 때 산듸쪽 피왕은에 조리 삼양 신영.(우리도 초등학
교 때 밭벗짚 부풀려서 조리 삼아서 신어서.)

103047 @ 국민학교 때예, 산디쪽으로.(국민학교 때요, 밭벗짚으로.)

103047 #1 우리 학교 다닐 때 초신, 초신 신영 다녔다가 조리 신영 다녔다가 허
민.(우리 학교 다닐 때 짚신, 짚신 신어서 다녔다가 조리 신어서 다녔다가 하면.)

103047 @ 으, 흐루에 다 늘라볼 거 아니예? 그건예?(으, 하루에 다 날라버릴 거
아니요? 그건요?)

103047 #1 아이고, 흐루. 저 우린 지금 민속촌 한 디 볼레 타 먹으래 초신 신어
근에 강 흐르에 끗낭 오민 어멍안티 맬 조그만이 맞아.(아이고, 하루. 저 우린 지금
민속촌 하는 데 보리수 따 먹으려 짚신 신어서 가서 하루에 끝나서 오면 어머니한
테 맬 조금만큼 맞아.)

103047 @ (웃음).((웃음).)

103047 #1 옷도 강 다 채어 비팅은에.(옷도 가서 다 째져 버려두고.)

103048 @ 아, 그 산듸 농사허명 아까같이 잊어불지 못하는 기억 같은 거 잊어
마씨?(아, 그 밭벼 농사하면서 아까같이 잊어버리지 못하는 기억 같은 거 있어요?)

103048 #1 그 산듸, 산듸 농사 질, 산듸밭듸가 부께하고 갈장귀가 하.(그 밭벼,
밭벼 농사 젤, 밭벼밭에가 꽈리하고 개똥참외가 많아.)

103048 @ 아까 조팟듸도 하고.(아까 조밭에도 많고.)

103048 #1 경 헤근에 산듸밭듸 우리 할머니네 영 보면은 부께낭덜은 매지 아녕
은에 듬상듬상 놔두민,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 옛날 굴중이⁵¹⁾. (그렇게 해서 밭벼밭

50) ‘던드렁마께’는 ‘던드렁’이라는 둥그런 돌 위에서 짚이나 대나무 따위를 두들길 때 사용하는 방망
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덩드렁마께’라고도 한다.

51) ‘굴중이’는 여성들이 치마 속에 입는 통이 큰 중의를 말한다.

에 우리 할머니네 이렇게 보면 꽈리나무들은 매지 않아서 듬성듬성 놔두면,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 옛날 ‘굴중의’.)

103048 @ 예.(예.)

103048 #1 굴중이 이디 이만헌거 영 영영 영 헤여근에 다님 메여근에 하면은.
(‘굴중의’ 여기 이만한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님 매어서 하면.)

103048 @ 예.(예.)

103048 #1 부께를 일로 행은에 이레 다 타낳.(꽈리를 이리로 해서 이리로 다 타놓아서.)

103048 @ 아아.(아아.)

103048 #2 아이덜 주젠.(아이들 주려고.)

103048 #1 손지덜 주젠.(손자들 주려고.)

103048 @ 예.(예.)

103048 #1 그 밧듸 강 와가민 손지덜 막 왈젠 헤가믄 그거 헤근에 부께 주민
그거 영 영 다 갈란 줘낫어. 부께를.(그 밭에 가서 와가면 손자들 막 온다고 해가면
그거 해서 꽈리 주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눠서 줬었어. 꽈리를.)

103048 @ 아, 요즘 사탕 주듯이.(아, 요즘 사탕 주듯이.)

103048 #1 쌉지 말렌 하명.(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103048 @ 게믄 그 푸케예? 푸케도 막 으라 가지 잇지 안 허우파?(그러면 그 꽈리요? 꽈리도 막 여러 가지 있지 안 합니까?)

103048 #1 개부께⁵²⁾. 개부께는 젠젠하면서 영 ㅎ꼼 영 저 볼례⁵³⁾치록 졸랑쫄랑
하게시리 생긴 거고. 그 개부께는 색깔도 다양하게 검은 색깔도 잇곡 빨간 색깔도
잇곡 경.(‘개부께’, ‘개부께’는 자잘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 보리수처럼 졸랑쫄
랑하게 생긴 것이고. 그 ‘개부께’는 색깔도 다양하게 검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그렇게.)

103048 @ 아.(아.)

103048 #1 그냥 부께는 이제 푸리룽한 색깔에다가 하여튼간에 이만씩 허게 훑으
게.(그냥 꽈리는 이제 푸르스름한 색깔에다가 하여튼 이만큼하게 긁게.)

103048 @ 훑고예?(긁고요?)

103048 #1 건 익으면, 익으면은 먹을 만해여.(건 익으면, 익으면 먹을 만해.)

103048 #2 새콤한 게 맛있었어.(새콤한 게 맛있었어.)

103048 @ 옛날 개부께도 있어나고예?(옛날 ‘개부께’도 있었지요?)

103048 #1 개부께.(‘개부께’.)

103048 @ 게믄 이제.(그러면 이제.)

103048 #1 그치록 하당 어쩌다가 갈장귀낭 하나 이시민 갈장귀가 지락지락허게
열어근에 다 빨강캐 익은 것도 있고 꽈랑 것도 잇곡 허민 그 갈장귀. 그 신신헌
거.(그처럼 하다가 어쩌다가 개똥참외 하나 있으면 개똥참외가 주렁주렁하게 열어서

52) ‘개부께’는 꽈리의 일종이다.

다 빨갛게 익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하면 그 개똥참외. 그 쓰디쓴 거.)

103048 #2 거 뿐이라. 담에 영 보면 멀위, 멀위.(거 뿐이야. 담에 이렇게 보면 머루, 머루.)

103048 @ 예.(예.)

103048 #1 멀위. 개멀위여 무신 멀위여, 아이고.(머루. 개머루다 무슨 머루다, 아이고.)

103048 @ 계난.(그러니까.)

103048 #1 또 갑자 놀 때에 저 무신거우과? 딸기 이름 무시거여마는.(또 갑자 놀을 때에 저 무엇입니까? 딸기 이름 무슨 거다만.)

103048 #2 탈.(딸기.)

103048 #1 탈. 그 탈을 맹계낭 썹 하나 해근에 그것에 다 타놔근에 영 허영 텅 기명 타 먹곡. 아이고.(딸기. 그 딸기를 청미래덩굴 잎 하나 해서 그것에 다 따놓아서 이렇게 해서 다니다가 따 먹고. 아이고.)

103048 @ 계도 그런 것들이 이젠 다 사라져부런예?(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젠 다 사라져버렸어요?)

103048 #2 다 사라져변.(다 사라져버렸어.)

103048 #1 사라져변 엇어. 그거 그 탈인가 그것도 원 잊어난디 이제 흔적 다 쐐멘 혜벼선계.(사라져버려서 없어. 그거 그 딸기인가 그것도 원 있었는데 이제 흔적 다 시멘트 해버렸던데.)

103048 @ 으.(으.)

103048 #1 길 요만은 한 길덜 넓히명.(길 요만큼 한 길들 넓히면서.)

103048 @ 계난예.(그러니까요.)

103048 #1 다 포장해부난에 씨가 다 사라젼.(다 포장해버리니까 씨가 다 사라졌어.)

103048 #2 메옹이꽃⁵³⁾, 메옹이꽃.(‘메옹이꽃’, ‘메옹이꽃’).

103048 @ 메옹이꽃 어떤 거우과?(‘메옹이꽃’ 어떤 겁니까?)

103048 #2 이 출왓듸나 담벽 돌덜 모아놓은 디 메옹이꽃 그것이 상당이 고와낫어.(이 꿀밭이나 ‘담벽’ 돌들 모아놓은 데 ‘메옹이꽃’ 그것이 상당히 고왔었어.)

103048 @ 메옹이꽃은 나 처음 들어수다.(‘메옹이꽃’은 나 처음 들었습니다.)

103048 #1 메옹이꽃은 나 잘 모르키여.(‘메옹이꽃’은 나 잘 모르겠어.)

103048 @ 색깔은 어떤 거우과?(색깔은 어떤 겁니까?)

103048 #2 난초 닮은 건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이.(난초 닮은 건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이.)

103048 @ 어,(어,)

103048 #2 여러 가지로 됧어.(여러 가지로 됐어.)

103048 @ 난초 닮은 거예?(난초 닮은 거요?)

53) ‘메옹이꽃’은 야생 식물의 한 종류다.

103048 #2 난초 ** 쭉 올라와서 그 메옹이꽃 보면은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난초 ** 쭉 올라와서 그 ‘메옹이꽃’ 보면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

103048 @ 계믄 주황색 꽃 피는 거우과? 혹시.(그러면 주황색 꽃 피는 겁니까? 혹시.)

103048 # 그런 것도 있고. 빨간 것에서 점 딱 적어진 거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엇는디.(그런 것도 있고. 빨간 것에서 점 딱 찍어진 거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103048 @ 아아.(아아.)

103048 #2 ** 혼 번 딴 마을에 강도 혼 번 들어봅서. 메옹이꽃.(** 한 번 딴 마을에 가서도 한 번 들어보십시오. ‘메옹이꽃’.)

103048 @ 메옹이꽃엔 헌 말은 처음 듣네예? 삼촌, 혹시 감저 농사는?(‘메옹이꽃’이라고 한 말은 처음 듣네요? 삼촌, 혹시 고구마 농사는?)

103048 @2 혹시 그 꽃 피면 장마가 가둔덴 힘니까?(혹시 그 꽃 피면 장마가 가둔다고 합니까?)

103048 #2 그건 모르겠는데.(그건 모르겠는데.)

고구마 농사

103049 @ 아, 감저 농사?(아, 고구마 농사?)

103049 #1 감저는.(고구마는.)

103049 #2 고구마?(고구마?)

103049 @ 예.

103049 #1 감저도 아이고, 감저 모종 놓젠 허민 바당에 강 들풀 해당 이제 밑에 다 끌양 이제 흑 더꺼놔근에 감저 냥 감저에 흑 더경 그 갈레죽질을 얼마나 해사 감저 ****. 이제 그치룩 비니루 씌왑서. 그자.(고구마도 아이고, 고구마 모종 놓으려고 하면 바다에 가서 들풀 해당이 이제 밑에 다 깔아서 이제 흙 덮어놓아서 고구마 놓아서 고구마에 흙 덮어서 그 가래질을 얼마나 해야 고구마 ****. 이제처럼 비닐 씌우고 있어. 그저.)

103049 #2 모종 놓젠 허민양.(모종 놓으려고 하면요.)

103049 #1 우리, 우리 집 경우에는 혼 오천 평씩 감저 놓주게. 그 감저꼴을 그 밧듸 다 사름으로 쳐가젠 허난 그 뭐 길 옆의 밧이 이시민 허주마는 놈의 밧 넘영 넘영 가는 밧은 놈의 밧으로 사름만 땡겨도 땡겸젠 욕하는데 그거 무신 마차나 무신 거 그런 건 리아까나 못 땡기니까 사름으로 다 쳐 날라. 하루 맷 짐을 정, 혼 서너 너이는 게나제나 감저꼴 쳐 날름이 일이라.(우리, 우리 집 경우에는 한 오천 평씩 고구마 놓지. 그 고구마줄기를 그 밭에 다 사람으로 쳐가려고 하니까 그 뭐 길 옆의 밧이 있으면 하지만 남의 밧 넘어서 넘어서 가는 밧은 남의 밧으로 사람만 다녀도 다니고 있다고 욕하는데 그거 무슨 마차나 무슨 거 그런 건 리어커나 못 다니

니까 사람으로 다 쳐 날라. 하루 몇 짐을 지어서, 한 서너 넷은 그러나저러나 고구마줄기 쳐 나름이 일이야.)

103049 #2 감자 놓는 것이 농사가 젤 힘들었수다게. 감자 캘 때도.(고구마 놓는 것이 농사가 젤 힘들었습니다. 고구마 캘 때도.)

103049 @ 아.(아.)

103049 #1 캘 때도 눈 올 때. 눈 올 때 감자 파니까.(캘 때도 눈 올 때. 눈 올 때 고구마 파니까.)

103049 #2 그때는 또 전분공장에 그거 허젠 허민 마다리에 다 담곡 젤 힘들었수다. 겐디 돈은 많이 생겨도.(그때는 또 전분공장에 그거 하려고 하면 마대에 다 담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생겨도.)

103049 @ 돈은 많이 생겨도.(돈은 많이 생겨도.)

103049 #1 전분공장 하기 전에.(전분공장 하기 전에.)

103049 @ 예.(예.)

103049 #1 이제 그 감저를 혜근에 버덕디래 다 이제는 다 측량하명 그 우리 골왓⁵⁴⁾ 그디도 벼더기⁵⁵⁾가 엔간하게 다 널러난디 다 다벼쉽디다. 맷덜 측량허멍 문딱 앗아부난 햄주. 옛날엔 벼데기가 잔디밭 그런 디 다 쳐내영 뻣데기.(이제 그 고구마를 해서 ‘벼더기’로 이제는 다 측량하면서 그 우리 ‘골왓’ 거기도 ‘벼덕’이 엔간하게 다 널렸었는데 다 쌓아버렸습니다. 밭들 측량하면서 몽땅 가져버리니깐 하고 있지. 옛날엔 ‘벼데기’가 잔디밭 그런 데 다 쳐내서 고지.)

103049 @ 음.(음.)

103049 #1 이거 막 골양 뻣데기하멍 그거 물류와근에 그 뻣데기 혜영 그거 풀멍 혜신다. 뻣데기는 막 받아갔어.(이거 막 갈아서 절간고구마하면서 그거 말려서 그 절간고구마 해서 그거 팔면서 했는데. 절간고구마는 막 받아갔어.)

103049 #2 주정공장, 주정공장.(주정공장, 주정공장.)

103049 #1 주정공장에서 다.(주정공장에서 다.)

103049 #2 술허젠큰.(술하려고.)

103049 #1 뻣데기를 혼 삼십 가마니씩 우리 집의 경우에는.(절간고구마를 한 삼십 가마니씩 우리 집의 경우에는.)

103049 #2 잘도 열먹엇수다.(잘도 연결먹었습니다.)

103049 #1 그거 하멍 이거 독모리 다 *** 간 수술 다 행 왓덴 허난.(그거 하면서 이거 무릎 다 *** 간 수술 다 해서 왔다고 하니깐.)

103049 #1 우리 너으누이 중에 우리 오빠는 서귀고등학교 냉기멍 그 남로당 만세 불르레 냉겨부난 심으레 냉겨부난 그거 괴හ에 서울 어디 갓단에 군인 장교හ에 서울서 살고. 우리 아신 공부함이엔 공부 허라 공부 허라 허멍 나만 게나제나 이거 물 질어 오라, 송키 혜오라. 무신 아이고.(우리 네 오누이 중에 우리 오빠는 서귀고

54) ‘골왓’은 표선리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55) ‘벼더기 · 벼데기’는 잔디가 깔려 있는 너른 들판을 일컫는다.

등학교 다니면서 그 남로당 만세 부르러 다녀버리니까 잡으러 다녀버리니까 그거 피해서 서울 어디 갔다가 군인 장교해서 서울서 살고. 우리 아운 공부한다고 공부 하라 공부 하라 하면서 나만 그러나저러나 이거 물 길어 와라, 푸성귀 해 와라. 무슨 아이고.)

103049 @ 큰딸이었구나예? 큰딸.(큰딸이었군요? 큰딸.)

103049 #1 그치록해시민 무시거 요즘 ㅋ따시민 땅 혼 삼사천 평은 분배받아실 건디 옛날이라 놓난 땅 혼 평 주지도 안 하고.(그렇게 했으면 무엇 요즘 같았으면 땅 한 삼사천 평은 분배 받았을 건데 옛날이어 놓으니까 땅 한 평 주지도 안 하고.)

103049 @ 혼 평도 주지 안 헙디가? 그 널른 땅을. 아까 감저 농사 새로 지어사 커라예? 어렵덴 혜신디 모종 놓젠 허민 갈례죽질 햇수과? 그것은 무사?(한 평도 주지 안 합디까? 그 너른 땅을. 아까 고구마 농사 새로 지어야겠어요? 어렵다고 했는데. 모종 놓으려고 하면 가래질 했습니까? 그것은 왜?)

103049 #1 갈례죽으로 영 파니를 만들어 놓민 이것이 이 파니민, 이 파니에 흑을 다 베껴되레 허영 이디 듬북.(가래로 이렇게 이랑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이 이랑이면, 이 이랑에 흙을 다 바깥으로 해서 여기 듬북.)

103049 @ 예.(예.)

103049 #1 듬북을 깔앙.(듬북을 깔아서.)

103049 @ 음.(음.)

103049 #2 또 듬북 우티레 씨 감저를 놓으면 감저 썩으카부텐 흑을 이제 ㅎ꼼 더꺼낳.(또 듬북 위로 씨 고구마를 놓으면 고구마 썩을까봐서 흙을 이제 조금 덮어놓아서.)

103049 @ 음.(음.)

103049 #1 감저 씨를 다 이제 쭉하게 방수 벌영 영 영 영 놔놔근에 그 감저 씨 보이지 아녀게 갈례죽으로 흑이 다이 더프는 거라.(고구마 씨를 다 이제 쭉하게 ‘방수’ 벌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아놓고서 그 고구마 씨 보이지 안하게 가래로 흙 다 덮는 거야.)

103049 @ 으음. 계난 듬북 걸름을 거기 놓은 거구나예? 아아.(으음. 그러니까 듬북 거름을 거기 놓은 거군요? 아아.)

103049 #2 열 받아야 그것이 잘 나게. 요새 비니루 더퍼불민 웨는데.(열 받아야 그것이 잘 나게. 요새 비닐 덮어버리면 되는데.)

103049 @ 아, 옛날은 비닐 안 허난에 듬북을 끌아근에.(아, 옛날은 비닐 안 하니까 듬북을 깔아서.)

103049 #2 경 허민 가메기 다 오랑은에 감저덜 파먹어불민 그걸 다울리고.(그렇게 하면 까마귀 다 와서 고구마들 파먹어버리면 그걸 쫓고.)

103049 @ 음, 계연 그치록 허면 모종이 날 거 아니우파예? 모종 나면 싱그젠히면 또 어떻 혜야 웨?(음, 그래서 그처럼 하면 모종이 날 거 아닙니까요? 모종 나면 심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103049 #1 감저꼴 민싹하게 감저를 놓을 때가 됐던 감저가 감저 하나에 모록모록 나올 거 아니, 그 순이. 그 순 흔나가 한 줌이라. 영 영 끊어근에 감저꼴 끊엉은에. 낼 감저 놓젠 허민 오늘 저녁에 그 감저 이슬 맞은 거 해당 심으면은 죽어부난 예.(고구마줄기 매끈하게 고구마를 놓을 때가 되면 고구마가 고구마 하나에 모록모록 나올 거 아니, 그 순이. 그 순 하나가 한 줌이야.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고구마줄기 끊어서. 낼 고구마 놓으려고 하면 오늘 저녁에 그 고구마 이슬 맞은 거 해다가 심으면 죽어버리니까.)

103049 @ 아.(아.)

103049 #1 죽기 때문에 앞선 날에 이거 다 끊엉 쉐막이나 이문간⁵⁶⁾에 다 무끄명 날라당 냇당은에, 뒷날은 감저 놓젠 흐면은 이제 쉐 두 개로 놓을 때 잇고 흔나로 놓을 때 잇고 놓는 사름도 한 대여섯 명 됐주마는 져가는 사름도 서너 네 사름은 됐여사 그 감저꼴 져 날르젠.(죽기 때문에 앞선 날에 이거 다 끊어서 외양간이나 ‘이문간’에 다 끊으면서 날라다가 놓았다가, 뒷날은 고구마 놓으려고 하면 이제 소두 개로 놓을 때 있고 하나로 놓을 때 있고 놓는 사람도 한 대여섯 명 되지만 져가는 사람도 서너 네 사람은 되어야 그 고구마줄기 져 나르려고.)

103051 @ 거기 헐 때는 뭐 거름 같은 거는 안 협니까?(거기 할 때는 뭐 거름 같은 거는 안 합니까?)

103051 #1 옛날에 거름 안 허연.(옛날에 거름 안 했어.)

103051 @ 거름 안 혜연예? 거름 안 행 꿀을 싱근 거.(거름 안 했다고요? 거름 안 해서 줄기를 심은 거.)

103051 #1 파니 영 만들민 그자 하나로 쪽허게 싱거갈 거주게. 싱거근에 또 파니 안 웬 디는 이제 뭐 쉐스랑으로 이렇게 파니 멘들엉 다 행 싱그고. 우리, 우리는 옛날에 우리 집원 반이 좋으니까 감저 같은 거 그 곡식은 잘 됐어. 잘 크고 잘 됐고 이제 생각해보민 비료 줘서 큰 거만큼 큰 거 닮아.(이랑 이렇게 만들면 그저 하나로 쪽허게 심어갈 거지. 심어서 또 이랑 안 된 데는 이제 뭐 쇠스랑으로 이렇게 이랑 만들어서 다 해서 심고. 우리, 우리는 옛날에 우리 집에는 밭이 좋으니까 고구마 같은 거 그 곡식은 잘 돼. 잘 크고 잘 되고 이제 생각해보면 비료 줘서 큰 거만큼 큰 거 같아.)

103051 @ 경 허영은에 허잖아요? 그거는 어느 철에 싱그는 거마씨? 감젓메는 언제 메고.(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철에 심는 거예요? 고구마모종은 언제 맹고.)

103051 #1 감저 그거 어쨌든 간에 이제.(고구마 그거 어쨌든 간에 이제.)

103051 @ 모종하는 거는 언제 싱거?(모종하는 거는 언제 심어?)

103051 #2 봄에 싱거.(봄에 심어.)

103051 #1 음력으로 이월 말경에 새** 놓면은 싱그기는 음력 유월절 그때 절기 보명 다 허여. 하지 절기.(음력으로 이월 말경에 새** 놓으면 심기는 음력 유월절

56) ‘이문간’은 집 입구의 대문(大門) 곁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그때 절기 보면서 다 해. 하지 절기.)

103051 @ 음.(음.)

103051 #1 유월들 절기에는 비가 오니까 유월절 비 물 흐꼼 고이는 밭은 유월 절 물 오는 거 보명 감저를 놓고.(유월달 절기에는 비가 오니까 유월절 비 물 조금 고이는 밭은 유월절 물 오는 거 보면서 고구마를 놓고.)

103051 @ 음.(음.)

103051 #1 또 경 아년 경 아니한 물 아니 하는 밧들은 하지.(또 그렇게 않은 그 렇게 않은 물 아니 하는 밧들은 하지.)

103051 @ 음.(음.)

103051 #1 하지에 그 절기 때에 맞추와근에 감저를 놓고.(하지에 그 절기 때에 맞추어서 고구마를 놓고.)

103053 @ 예, 경행 검질은 또 여름에 메는 거 아니우과예?(예, 그렇게 해서 김은 또 여름에 매는 거 아닙니까?)

103053 #1 검질이 나믄 여름에만 다 메는 거.(김이 나면 여름에만 다 매는 거.)

103053 @ 계난 고생현 거지.(그러니까 고생한 거지.)

103053 #1 여름에. 계난 만 평 가까운이 다 농사허젠허민 그 검질멘다는 생각만 해봐. 그 얼마나 사람 고된 일을 해시니? 그때 다.(여름에. 그러니까 만 평 가까운 다 농사하려고 하면 그 김멘다는 생각만 해봐. 그 얼마나 사람 고된 일을 했느냐? 그때 다.)

103053 @ 보리왓 검질하고 감저밭의 검질은 트날 거 닮아예?(보리밭 김하고 고구마밭에 김은 다를 거 같아요?)

103053 #1 감저밭되는 감저풀 영 어우러지만 감저풀 글계기로 영 걷엉 영 혜근에 손으로 영 영 영 언주와근에 내불면은.(고구마밭에는 고구마줄기 이렇게 어우러지면 고구마줄기 호미로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글어 모아서 내버리면.)

103053 @ 음.(음.)

103053 #1 감저풀 그 막 벣어불민 그 아래서 검질이.(고구마줄기 그 막 뻗어버리면 그 아래서 김이.)

103053 #2 자라지 못하니까.(자라지 못하니까.)

103053 #1 자라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죽어부는 것도 있고. 그자 살아도 그자 무신 씨 생기거나 무시거 하지 못할 정도로.(자라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죽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자 살아도 그자 무슨 씨 생기거나 무엇 하지 못할 정도로.)

103053 #2 감저왓의 검질이 젤 쉬와서예?(고구마밭에 김이 젤 쉬웠지요?)

103053 #1 제 쉬와. 혼불만 메곡.(젤 쉬워. 애벌만 매고.)

103053 @ 혼불만 메든 끊나고예?(애벌만 매면 끊나고요?)

103053 #1 감저왓의 검질은 혼불만.(고구마밭에 김은 애벌만.)

103053 @ 기구나. 그러면 감저는 언제 파마씨?(그렇구나. 그러면 고구마는 언제

파요?)

103053 #1 봄나민 봄나민 다 농사 헤근에 여름에 다 씨 뿌령 뭐허민 파는 건 음력으로 구월 하여튼 십이월달까지.(봄되면 봄되면 다 농사 해서 여름에 다 씨 뿐 려 뭐하면 파는 건 음력으로 구월 하여튼 십이월달까지.)

103053 @ 감저 웃일 때도 재미지지 아녀수가?(고구마 주울 때도 재미지지 않습니까?)

103053 #1 감저?(고구마?)

103055 @ 예, 어떤 식으로 팔수가? 감저는.(예, 어떤 식으로 팔습니까? 고구마 는.)

103055 #1 글게기로.(호미로.)

103055 @ 아, 글게기로 해여에.(아, 호미로 한다고요.)

103055 #1 글게기로 영 허영.(호미로 이렇게 해서.)

103055 @ 쉐로 헌 게 아니고?(소로 한 것이 아니고?)

103055 #2 쉐로.(소로..)

103055 @ 예.(예.)

103055 #2 아니 그때는 글게기로.(아니 그때는 호미로.)

103055 #1 글게기로. 글게기로 다 파.(호미로. 호미로 다 파.)

103055 @ 경 허난 더 힘들었다는 거구나. 쉐 갈양은에 웃이는 게 아니고.(그러니까 더 힘들었다는 거군요. 쇠 갈아서 줍는 것이 아니고.)

103055 #1 그 막 묻어져불곡 무시거 한텐. 잠대로 보섭으로 헤근에 문딱 감저 끊어져분덴 허멍.(그 막 묻어져버리고 무슨 거 한다고. 쟁기로 보섭으로 해서 몽땅 고구마 끊어져버린다고 하면서.)

103055 #2 손으로 판 거라야 눌에 눌엉 놔둬.(손으로 판 것이라야 가리에 가려서 놔둬.)

103055 @ 아.(아.)

103055 #2 겨울 음식으로.(겨울 음식으로.)

103055 @ 겨울 음식으로.(겨울 음식으로.)

103055 #1 거 간식.(거 간식.)

103056 @ 예, 그 말 굽어줍서.(예, 그 말 말해주십시오.)

103056 #1 그거 감저 헤근에 집의 이만은 하게 헤근에 땅 파. 하이튼 땅소곱에 이것이 우이면 이 밑에꼬장 땅을 이만은 둥글게 파근에 그디 이제 조침을 다 세우는 거라이.(그거 고구마 해서 집에 이만큼 하게 해서 땅 파. 하여튼 땅속에 이것이 위면 이 밑에까지 땅을 이만큼 둥글게 파서 거기 이제 조짚을 다 세우는 거야.)

103056 @ 아, 옆에.(아, 옆에.)

103056 #1 돌아가멍 아래도 조침 깔멍 그레 감저를 다 낳. 하이튼 이것이 펭지 면은 이제 요만은 펭지 우로 요만은 노프게시리 감저를 놔근에 그 조침 다 오그려 근에 헤영 다 손으로 다 헤영 펑펑하게시리 다 헤놔근에 누람지.(돌아가면서 아래도

조짚 깔면서 거기에 고구마를 다 놔서. 하여튼 이것이 평지면 이제 요만큼은 평지 위로 이만큼 높게끔 고구마를 넣어서 그 조짚 다 오그려서 해서 다 손으로 다 해서 평평하게끔 다 해놓아서 이엉.)

103056 @ 예.(예.)

103056 #1 누람지 헤근에 뱕뱅 둘러근에 우의, 우의.(이엉으로 해서 뱕뱅 둘러서 위에, 위에.)

103056 #2 주지.(주저리.)

103056 #1 주지. (웃음).(주저리. (웃음).)

103056 @ (웃음).((웃음).)

103056 #2 주지 딱 씌왕.(주저리 딱 씌워서.)

103056 #1 주지 딱 헤근에 놔두면은 (웃음) 하나도 안 씌어. 감저가.(주저리 딱 해서 놔두면 (웃음) 하나도 안 씌어. 고구마가.)

103056 @ 아아.(아아.)

103056 #1 겨울 내낭 그거 파멍, 낮의는 감저 치멍. 이런 차롱에 내당 옛날엔 무슨 고쳤구를 무시거 해서 누물 우잣에 갈아근에 김치산디 그때도 그 김치도 맛잇 엉 이만한 낭푼 닮은 걸로 혼나 혼다 놓민 혼 차롱 감저에 그 김치에 다 먹어낫어. (겨울 내내 그거 파면서, 낮에는 고구마 찌면서. 이런 채롱에 내어다가 옛날엔 무슨 고춧가루 무엇 해서 나물 텃밭에 갈아서 김치인지 그때도 그 김치도 맛있어서 이만한 양푼 같은 것으로 하나 혼다 놓으면 한 채롱 고구마에 그 김치에 다 먹었었어.)

103056 @ (웃음).((웃음).)

103056 #1 이젠 감저도 혼나만 먹어도 사뭇 실플덴 허는디 그때는 아이고.(이젠 고구마도 하나만 먹어도 사뭇 싫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이고.)

103056 #2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03058 @ 예.(예.)

103056 #2 점심 도시락을 감자 두 개.(점심 도시락을 고구마 두 개.)

103056 @ 예.(예.)

103056 #2 이 주머니에 놓 그걸 정심으로 먹어낫어.(이 주머니에 넣어서 그걸 점심으로 먹었었어.)

103056 @ 음.(음.)

103056 #2 보통 다 경 햇수다.(보통 다 그렇게 했습니다.)

103056 @ 다 쌀이 엿이난 이제 감저로예?(다 쌀이 없으니깐 이제 고구마로요?)

103056 #2 경 허고 또 좁쌀이 별로 없으니까.(그렇게 하고 또 좁쌀이 별로 없으니까.)

103056 @ 예.(예.)

103056 #2 감저 그 썰어낳 둑둑둑 혜영 조밥 해놓면은 그 조밥만 다 돌랑 먹다 보민 감자만 남아.(고구마 그 썰어낳어서 둑둑둑 해서 조밥 해놓으면 그 조밥만 다 돌라서 먹다보면 고구마만 남아.)

103056 @ 아, 요즘은 감자부터 먹을 거 닮은디.(아, 요즘은 고구마부터 먹을 거 같은데.)

103056 #1 감자만 둥그려불영 밥만 먹엉. 그 감자만.(고구마만 굴려버려서 밥만 먹어서. 그 고구마만.)

103056 @ 그러니까예, 감젓눌은 맷 개씩 만들아마씨?(그러니까요, 고구마가리는 몇 개씩 만들어요?)

103056 #1 우리 집 경우에는 네 개. 흐나는 씨로 가마니 세 개. 세 놀은 겨울 내낭 간식으로 먹을 거.(우리 집 경우에는 네 개. 하나는 씨로 가마니 세 개. 세 가리는 겨울 내내 간식으로 먹을 거.)

103056 @ 먹을 걸로예. 게믄 씨 묻은 놀을 뜨나게 불르는 거 잊어낫수가?(먹을 걸로요. 그러면 씨 묻은 가리를 다르게 부르는 거 있었습니까?)

103056 #1 그 식으로 그디 거는 그자 더울 때는 주지 열아주곡.(그 식으로 거기 것은 그저 더울 때는 주저리 열어주고.)

103056 @ 음.(음.)

103056 #1 어둑어 가민 더퍼 주곡. 그치록 하명 혜영 감저 놓을 때 영 혜쌍 보민 흐나 안 썩어. 옛날 어른덜토 잘 그 연구도 보통 연구가 아니라.(어두워 가면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고구마 놓을 때 이렇게 헤쳐 보면 하나 안 썩어. 옛날 어른들도 잘 그 연구도 보통 연구가 아니야.)

103056 #2 건 그거는 반드시 조침이라야.(건 그것은 반드시 조짚이어야.)

103056 @ 조침이라야.(조짚이어야.)

103056 #1 조침.(조짚.)

103056 @ 아아.(아아.)

103056 #1 조침은 까들락하니까 흙이 영해도 썩지도 안 하고 하난에.(조짚은 '까들락'하니까 흙이 이렇게 해도 썩지도 안 하고 하니까.)

103056 @ 계난 이 어른들이 정말.(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정말.)

103056 #2 계난 낮 온도 보면서 주지로 그 다 온도 조절현 거.(그러니까 낮 온도 보면서 주저리로 그 다 온도 조절한 거.)

103056 @ 예.(예.)

103056 #2 영 혜영 날 뜨거우민 주지 열양 영 베르쓰고. 추웜직혀민 더퍼불, 주지 더프곡.(이렇게 해서 해 뜨거우면 주저리 열어서 이렇게 벌리고. 추울 듯하면 덮버리, 주저리 덮고.)

103058 @ 음, 이 감저꿀로는?(음, 이 고구마줄기로는?)

103058 #1 소.(소.)

103058 @ 아.(아.)

103058 #1 감저꿀 그거는 소먹이.(고구마줄기 그것은 소먹이.)

103058 #2 말이영.(말이랑.)

103058 #1 소하고 말이 감저꿀을 잘 먹어.(소하고 말이 고구마줄기를 잘 먹어.)

103058 @ 아.(아.)

103058 #1 부드럽는 쟁이라. 그거는 무시거엔 안 허영 게나제나.(부드러운 모양 이야. 그건 무엇이라고 안 해서 그나저나.)

103058 #2 소 만약 길루곡 밟은 엇어근엥에 소 맥일 거 말 맥일 거 엇이민 세벽이 일어낭 님의 좀 몰른 거 밟듸 가서 혼 짐 쪄 와사 아침밥 먹곡 헤나수게.(소 만약 기르고 밭은 없어서 소 먹일 거 말 먹일 거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남의 좀 모른 거 밭에 가서 한 짐 쪄 와야 아침밥 먹고 했었습니다.)

103058 @ 으, 그 사람이 먹거나 허진 아녔구나? 감자.(으, 그 사람이 먹거나 하진 않았군요? 고구마.)

103058 #2 사람은 먹건 ** 감자순은 육이오 동란 피난민덜 먹기 시작하니까 먹었지.(사람은 먹건 ** 고구마순은 육이오 동란 피난민들 먹기 시작하니까 먹었지.)

103058 #1 그런 거 먹을 걸로 생각도 안 허여.(그런 거 먹을 걸로 생각도 안 해.)

103058 #2 생각도 아녀낫어. 맛은 먹어 보니까 막 맛 좋은 건데.(생각도 안했었어. 맛은 먹어 보니까 막 맛 좋은 건데.)

103058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58 @ 쉐만 먹는 거.(소만 먹는 거.)

103058 #1 그 피난민덜 완 먹으난에 그때부띠 ** 헤 먹는 사름은 헤 먹어신디. 우리 경우는 우잣이 막 널르난 우잣에 늑물. 무수허곡 저 콥데산이 그런 마늘 엇인 사름이 천지가 만지. 우잣 엇인 사름.(그 피난민들 와서 먹으니까 그때부터 ** 해 먹는 사람은 해 먹었는데. 우리 경우는 텃밭이 매우 너르니까 텃밭에 배추. 무하고 저 마늘 그런 마늘 없는 사람이 천지가 만지. 텃밭 없는 사람.)

103058 @ 맞아예.(맞아요.)

103058 #1 우리 집원 그 마늘도 문딱 요만씩 다 남뎅이차 무꺼근에 올레 긴긴 헌 올레에 올렛담⁵⁷⁾에 빙지통허게 다 널어놓고 무수도 옛날 그 단지늠삐⁵⁸⁾.(우리 집엔 그 마늘도 몽땅 요만큼씩 다 대째 묶어서 오래 기다란 오래에 ‘올렛담’에 나란히 다 널어놓고 무도 옛날 그 ‘단지무’.)

103058 @ 예.(예.)

103058 #1 단지늠삐 그 단지늠삐 그 썹 헤근에 돛국물 끓이민 얼마나 그 잔치 때 맛잇이카부덴.(‘단지무’ 그 ‘단지무’ 그 잎 해서 돋지국물 끓이면 얼마나 그 잔치 때 맛있을까봐.)

103058 @ 아, 단지느물 썹으로예? 그 썹을 뭐렌 협니까?(아, ‘단지무잎’으로요? 그 잎을 뭐라고 합니까?)

103058 #1 썹. 경 허영 단지느물 그 썹이엔 헤근에.(잎. 그렇게 해서 ‘단지나물’ 그 잎이라고 해서.)

57) ‘올렛담’은 오래 양쪽으로 나 있는 담을 말한다.

58) ‘단지늠삐’는 무의 일종이다. 무 모양이 단지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103058 @ 음. 계난 꼭 이 늄빼가 단지치록 생견?(음. 그러니까 꼭 이 무가 단지처럼 생겼어?)

103058 #1 단지치록 땅소곱에만 들엉 우터렌 나오지 아녕 단지늄빼는. 따시 쇠뿔눔빼⁵⁹⁾엔 헌 거는 우티레만 나오고.(단지처럼 땅속에만 들어서 위로 나오지 않아서 ‘단지무’는. 다시 ‘쇠뿔무’라고 한 것은 위로만 나오고.)

103058 @ 건 쇠뿔처럼.(건 쇠뿔처럼.)

103058 #1 우터레만 나오곡 ھ꼼 추우민 다 گ아.(위로만 나오고 조금 추우면다 곱아.)

103058 #1 گ아변에 먹을 것이 엇이면은 단지늄빼 그거 행은에.(곱아버려서 먹을 것이 없으면 ‘단지무’ 그거 해서.)

103058 @ 단지늄빼는 저장도 잘 훠켜예?(‘단지무’는 저장도 잘 되겠네요?)

103058 #1 건 지대로 저장됌니까. 계난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는 귀하지 아녀게 살아시난. 젤 못 견딘 것이 일 너미 많은 것이 젤 못 견뎌.(건 자기대로 저장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는 귀하지 않게 살았으니까. 제일 못 견딘 것이 일 너무 많은 것이 제일 못 견뎌.)

103058 @ 맞수다. 삼춘 아까 그 감저농사허멍 잊어불지 못하는 거?(맞습니다. 삼춘 아까 그 고구마농사하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103058 #1 감저농사 지멍 그 저 감저 모종 놓을 때에.(고구마농사 지으면서 그저 고구마 모종 놓을 때에.)

103058 @ 예.(예.)

103058 #1 그 땅 파는 거 거 젤 그거. 갈례죽질 하는 거 얼마나 그거 힘들게.(그 땅 파는 거 거 젤 그거. 가래질 하는 거 얼마나 그거 힘들게.)

103058 @ 짊었을 때.(짚었을 때.)

103058 #1 짊으멍 말멍 아이 때 그 어른 할 일을 다 시켰다니까. 우리 어머니.(짚으면서 말면서 아이 때 그 어른 할 일을 다 시켰다니까. 우리 어머니.)

기타 농사

103060 @ 으, 그 다음엔 여기에 이제 수박도 여기 같아신가마씨?(으, 그 다음엔 여기에 이제 수박도 여기 같았는가요?)

103060 #1 우리 이 우리 동네는 수박 안 **.(우리 이 우리 동네는 수박 안 **.)

103060 #2 수박은 별로 안하고 물웨, 물웨.(수박은 별로 안하고 물외, 물외.)

103060 #1 함덕.(함덕.)

103060 @ 아, 물웨.(아, 물외.)

103060 #2 예, 물웨 해서 원두막 짓엉.(예, 물외 해서 원두막 지어서.)

103062 @ 아.(아.)

103062 #1 원두막 짓엉 걸 헨 풉니께게. 경허면은 물웨 사례 갈 적에 보리도 가

59) ‘쇠뿔눔빼’는 무의 일종이다. 무의 모양이 소뿔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정가곡 물물교환으로, 경 혜연 혜나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물웨도 먹고 싶어가지고.(원두막 지어서 걸 해서 팔아요. 그러면 물외 사려 갈 적에 보리도 가져가고 물물교환으로, 그렇게 해서 했었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물외도 먹고 싶어가지고.)

103060 #1 다 도둑질해단.(다 도둑질해다가.)

103060 #2 (웃음). 물웨 원두막에 하르방이 앉아 잇으면 이렇게 앓양 잇으면 두이로 가곡 이렇게 앓양 잇으면 이쪽으로 가곡.((웃음). 물외 원두막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앓아 있으면 뒤로 가고 이렇게 앓아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103060 #1 다 도둑질 해단 먹언.(다 도둑질 해다가 먹었어.)

103060 @ 도망가곡. 아.(도망가고. 아.)

103060 #1 (웃음).((웃음).)

103060 @ 아, 이쪽엔 물웨덜은 하영 갈안예?(아, 이쪽엔 물외들은 많이 갈았지요?)

103060 #1 수박은 함덕, 함덕서 수박 많이 나난 함덕서 시꺼오민 우리 그디서 풀레 오민 산 먹어낫어.(수박은 함덕, 함덕서 수박 많이 나니까 함덕서 실어오면 우리 거기서 팔러 오면 사서 먹었었어.)

103060 @ 음.(음.)

103060 #1 수박은 안 웨고 물웨만.(수박은 안 되고 물외만.)

103061 @ 아, 물웨는 하영 헷구나예? 아, 촘웨 ㅋ튼 건마씨?(아, 물외는 많이 했군요? 아, 참외 같은 건요?)

103061 #2 어.(어.)

103061 @ 촘웨.(참외.)

103061 #1 촘웨.(참외.)

103061 #2 촘웨는 조끔식 헷어.(참외는 조금씩 했어.)

103061 #1 촘웨는 그 수박 가는 디 조끔 대대적으로 하지 아녕. 촘웨하곡 수박은 이제 가만이 생각해보믄 함덕서 그걸 많이 헨 그걸 풀레 뎅겨난 거 닮아.(참외는 그 수박 가는 데 조금 대대적으로 하지 안하고. 참외하고 수박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함덕서 그걸 많이 해서 그걸 팔러 다녔던 거 같아.)

103062 @ ㅋ치도 옛날 싱거낫수가?(고추도 옛날 심었었습니까?)

103062 #1 고치도 기자.(고추도 그저.)

103062 #2 기자 김치 혜 먹을 만큼.(그저 김치 해 먹을 만큼.)

103062 #1 김치 혜 먹을 만이 어디 기냥. 고치 기자 그 옛날엔 우리 어머니네 그 보면은 우잣에 고치, 기자 고치 연 거 남뎅이차 메불민 익도 설도 아년 그 물론 거. 그런 거 다 타다근에 솟뚜껑에 보깡.(김치 혜 먹을 만큼 어디 그냥. 고추 그저 그 옛날엔 우리 어머니네 그 보면 토텁발에 고추, 그저 고추 연 거 대째 메어버리면 익지도 설지도 않은 그 마른 거. 그런 거 다 따다가 솟뚜껑에 볶아서.)

103062 @ 음.(음.)

103062 #1 보까근에 이제 그거 방엣귀에 뿐양. 막 입 영 막안에.(볶아서 이제 그

거 방앗공이에 빽아서. 막 입 이렇게 막아서.)

103062 @ 음, 메운 거난예?(음, 매운 거니까요?)

103062 #1 훈하는디 영 혜영 빽아근에 그거 가져근에 멜젓에 기자 어떻 어떻 김치 벼무령.(환하는데 이렇게 해서 빽아서 그거 가져서 멀치젓에 그저 어떻게 어떻게 김치 벼무려서.)

103062 @ 으음.(으음.)

103062 #1 고치엔 혜근에 어디 강 사오는 건 안 봐왔어.(고추라고 해서 어디 가서 사오는 건 안 봤었어.)

103062 @ 우잣에 그냥 싱경예? 어느 철에 싱그는 거우과? 고치는?(텃밭에 그냥 심는다고요? 어느 철에 심는 겁니까? 고추는?)

103062 #2 요새 싱검주, 요새.(요새 심고 있지, 요새.)

103062 @ 봄에 다예?(봄에 다요?)

103062 #1 봄여름에 다 농사 해낳 겹질 혜놓민 가을 훠민 다 걷어들이고.(봄여름에 다 농사 해놔서 김 해놓으면 가을 되면 다 걷어들이고.)

103063 @ 모든 게. 그 누물은마씨?(모든 게. 그 배추는요?)

103063 #1 누물도 기자 그냥.(배추도 그저 그냥.)

103063 @ 누물은 어떤 누물덜 갈았수가?(배추는 어떤 배추들 같았습니까?)

103063 #1 옛날 누물은 폐기 안 앗안게. 폐데기⁶⁰⁾ 그런 거 김치 김장할 때에 폐데기 한 거 폐닥진 거 흐끔 영 졸랑진 거영 문막 캐영 이제 져근에 어디 바당에 가근에 거 시져당 바당물 물 져단에 등간 놔닷엔 무시거 어떻 어떻 헨 김치 헨.(옛날 배추는 포기 안 앗았어. ‘폐데기’ 그런 거 김치 김장할 때에 ‘폐데기’ 많은 거 뻣뻣한 거 조금 이렇게 자른 거랑 몽땅 캐서 이제 져서 어디 바다에 가서 거 씻어다가 바닷물 물 져다가 담가서 놔뒀다가 무엇 어떻게 어떻게 해서 김치 했어.)

103063 #2 소곰이 비싸니까 쪽끔 절여근에 놔뒀당 그걸 이제 지여근에 이 당케⁶¹⁾에 그디 물 좋난에 그디 강 다 삿엉.(소곰이 비싸니까 조금 절여서 놔뒀다가 그걸 이제 져서 이 ‘당케’에 거기 물 좋으니까 거기 가서 다 씻어서.)

103063 @ 예.(예.)

103063 #2 경 행 오라근에. 오라근에 그대로 김치.(그렇게 해서 와서. 와서 그대로 김치.)

103063 @ 집의서 소금햇당.(집에서 소금했다가.)

103063 #1 소금이 막 비싸난 돈 줘도 소금을 살 수 엇어낫어.(소금이 매우 비싸니까 돈 줘도 소금을 살 수 없었었어.)

103064 @ 소금도 하지 아녀난예? 아까 늄빼는 무신 늄빼하고 무신 늄빼마씨?
(소금도 많지 않으니까요? 아까 무는 무슨 무하고 무슨 무예요?)

103064 #1 쉐뿔늄뻔 우로만 나오는 거 단지는 땅소곱으로만 들어가는 거.(‘쇠뿔

60) ‘폐데기’는 속이 차지 않은 배추를 말한다.

61) ‘당케’는 표선면 표선리의 자연마을 이름이다. 표선민속촌이 있는 마을 이름이다.

무’는 위로만 나오는 거 ‘단지무’는 땅속으로만 들어가는 거.)

103064 @ 음, 그것도 저기 누물 갈 때 갑니까? 언제 갑니까? 거는.(음, 그것도 저기 배추 갈 때 갑니까? 언제 갑니까? 거는.)

103064 #1 그치 가는디 그 저 언제 가느냐 하면 거는 여름에 갈양. 여름에.(같이 가는데 그 저 언제 가느냐 하면 거는 여름에 같아서. 여름에.)

103064 @ 여름에. 경해야 겨울에예?(여름에. 그렇게 해야 겨울에요?)

103064 #1 겸질메난에 메난 끗데에 배추하고 누물하고 같아낫어. 그 생각해 보민.(김매니까 매난 끝에 배추하고 나물하고 같았었어. 그 생각해 보면.)

103064 @ 음, 경 행은에 그 단지늠삐가 맛 좋은 거?(음, 그렇게 해서 그 ‘단지무’가 맛 좋은 거?)

103064 #1 단지늠삐 그 쇠뿔늠비는 흐꼼 얼어가민 다 굽아부난애.(‘단지무’ 그 ‘쇠뿔무’는 조금 얼어가면 다 곱아버리니까.)

103064 @ 음.(음.)

103064 #1 먹지 못허여.(먹지 못해.)

103064 #2 단지늠삐는 겨울용이주게. 땅소곱에만 들어가니까 굽지를 아녀. 쇠뿔늠비는 일찍 눈이 곳아부령 먹을 것이 엇어. 초겨울에는 이거 먹곡 한겨울에는 단지늠삐를 먹곡.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단지무’는 겨울용이지. 땅속에만 들어가니까 굽지를 않아. ‘쇠뿔무’는 일찍 눈이 곱아버려서 먹을 것이 없어. 초겨울에는 이거 먹고 한겨울에는 ‘단지무’를 먹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103064 @ 요즘도예? 게믄 열무 같은 게 쇠뿔늠뺀가마씨?(요즘도예? 그러면 열무 같은 게 ‘쇠뿔무’인가요?)

103064 #1 열무 같은 것이 쇠뿔늠삐 닮아 베여.(열무 같은 것이 ‘쇠뿔무’ 같아보여.)

103065 @ 여기는 요즘 고구마 말고 감자를 뭐렌 해?(여기는 요즘 고구마 말고 감자를 뭐라고 해?)

103065 #1 지슬감저.(‘지슬감저’.)

103065 #2 지슬감저.(감자.)

103065 @ 지슬감저렌. 지슬엔 안허고 지슬감저. 그냥 고구마는.(‘지슬감저’라고. ‘지슬’이라고 안하고 ‘지슬감저’. 그냥 고구마는.)

103065 #1 고구마는 감저.(고구마는 ‘감저’.)

103065 @ 감자고.(고구마고.)

103065 #1 지슬감저는 지슬엔 헌 거 부찌야 알주, 감자엔 허믄 그 고구마허고 꼭같은 걸로 취급하니까.(‘지슬감저’는 ‘지슬’이라 한 거 붙여야 알지, ‘감자’라 하면 그 고구마하고 똑같은 걸로 취급하니까.)

103065 @ 지슬엔 안 글고 여기는 지슬감저렌 협니까?(‘지슬’이라고 안 말하고 여기는 ‘지슬감저’라고 협니까?)

103065 #1 지슬감저.(‘지슬감저’.)

103065 @ 지슬감저? 지슬감저도 여기 같아마씨?(감자? 감자도 여기 같아요?)

103065 #1 여기 우린.(여기 우린.)

103065 #2 아, 그땐 쪼꼼씩.(아, 그땐 조금씩.)

103065 #1 그 시절에는 가는 사를 잊고 안 가는 사를 잊고 그때 그 그때 지슬
감저씨는 먹으면 막 목 아파낫어.(그 시절에는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 있고
그때 그 그때 감자씨는 먹으면 매우 목 아팠었어.)

103065 #2 목 아파낫어.(목 아팠었어.)

103065 #1 그때 씨는.(그때 씨는.)

103065 @ 예.(예.)

103065 #1 막 목 아파근에 에이그 헤나신디.(매우 목 아파서 에이그 했었는데.)

103065 #1 아마 그것이 토종인 모양이라.(아마 그것이 토종인 모양이야.)

103065 @ 음, 헛빗 맞아부난.(음, 헛별 맞아버리니까.)

103065 #1 어명사 헤신디 어명 **사 헤신디 목 아팡 먹지 못해낫어.(어떻게야
했는지 어떻게 **야 했는지 목 아파서 먹지 못했었어.)

103065 @ 반찬 헐 때 옛날에게 그 지슬감자 행은에 반찬덜 하영 허지 아녀수
가?(반찬 할 때 옛날에 그 감자 해서 반찬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03065 #1 그거 놔신디 막끗데.(그거 놨는데 마지막에.)

103065 #2 메리치 놓곡.(멸치 넣고.)

103065 #1 메리치, 메리치도 바당에 강은에 멜 들었져 허민 돌아가근에 거려다
근에 그거 혜영 어명 메리치 멘드는 체 혜근에 혜 가믄 그것에 혜근에.(멸치, 멸치
도 바다에 가서 ‘멸치 들었다’ 하면 달려가서 떠다가 그거 해서 어떻게 멸치 만드는
체 해서 해 가면 그것에 해서.)

103065 @ 아, 지슬감저를?(아, 감자를?)

103065 #1 썰어 놔근에.(썰어 넣어서.)

103065 @ 아, 그 멜 헌 거예예?(아, 그 멸치 한 거예요?)

103065 #1 멜 그 물론 거주제.(멸치 그 마른 거지.)

103065 @ 예, 예.(예, 예.)

103065 #1 이제 생각하면 멜 물를 때 푸리 조그만이 앗아시카. (웃음). 아니 파
리가 그땐 이제보다 더 하낫주제.(이제 생각하면 멸치 마를 때 파리 조그맣게 앉았
을까. (웃음). 아니 파리가 그땐 이제보다 더 많았었지.)

10306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3065 #1 무시거 더끔을 혜시카. 데우청 널어놓민 푸리가 조그만이.(무엇 덮음
을 했을까. 데쳐서 널어놓으면 파리가 조그맣게.)

103065 @ 시에는 멜에 감저를 보끄는 거를 봐보질 아녀신디.(시에는 멸치에 감
자를 볶는 것을 봐보질 않았는데.)

103065 #1 그거 그 저 멜 혜근에 국물 등당하게 놓.(그거 그 저 멸치 해서 국물
홍건하게 넣어서.)

103065 @ 예.(예.)

103065 #1 이 국치록게. 그치록하게 헨 집의 닥덜 키우난 득새기 나민 득새기 뒤 개 깨어 놓은에 휘하게 젓엉. 제법 그 그때 이제 생각해 보민 뭐 국 겸 반찬 겸 거 닮아 벼.(이 국처럼. 그처럼 하게 해서 집에 닭들 키우니까 달걀 낳으면 달걀 두 어 개 깨어 놓아서 휘하게 저어서. 제법 그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뭐 국 겸 반찬 겸 거 같아 보여.)

103065 @ 아, 그 지슬감저행예?(아, 그 감자해셔요?)

103065 #1 지슬감저 경 허영 썰어놔근에 네개방장허게시리 막 혹게 아녕.(감자 그렇게 해서 썰어놓아서 네모반듯하게끔 매우 굽게 안 해서.)

103066 @ 어, 거고 삼춘, 여기 피농사도 헤낫수가?(어, 그리고 삼춘, 여기 피농사도 했었습니까?)

103066 #1 피농사덜은 이 가름, 우리 해변엔 안 허고 웃드르.(피농사들은 이 가름, 우리 해변에는 안 하고 윗동네.)

103066 @ 아.(아.)

103066 #2 웃드르에는 피덜 막 갈아난.(윗동네에는 피들 막 갈았었어.)

103066 @ 음, 계영 피밥도 먹어빤마씨?(음, 그렇게 해서 피밥도 먹어봤어요?)

103066 #1 난 피밥을 우리 큰고모가 이젠 씨집간 디가 신풍리라. 신풍리.(난 피밥을 우리 큰고모가 이젠 시집간 데가 신풍리야. 신풍리.)

103066 @ 신풍리?(신풍리?)

103066 #1 신풍리서 헤근에 피도 굴지 아낼 때는.(신풍리서 해서 피도 갈지 않을 때는.)

103066 @ 예.(예.)

103066 #1 껌데기 실 때는 아이 그것이 거무룽헤근에 무시거 헨디 굽아논 거 보난 헤영헨 게. 피쓸이 헤영헤신디 밥은 하니까 완전 조밥보다 더 살락하는 거라. 피쌀.(껌데기 있을 때는 아니 그것이 거무스름해서 무엇 하는데 갈아놓은 거 보니까 하얀 게. 펑쌀이 하였는데 밥은 많으니까 완전 조밥보다 더 깔깔하는 거야. 펑쌀.)

103066 #2 피.(피.)

103066 @ 예. 삼춘은 피 먹어빤마씨?(예. 삼춘은 피 먹어봤어요?)

103066 #2 피는.(피는.)

103066 #1 피 우린 해변은 피 엊어. 웃드르.(피 우린 해변은 피 없어. 윗동네.)

103066 #2 드리 손당. 드리 손당 그레만 피 나주.(교래 송당. 교래 송당 그리로 만 피 나지.)

103066 #1 이렌 피 안 해. 그 피는 얼굴하고 음식이 틀려. 빛깔은 헤영헨디 밥은 하니까 조밥보단도 더 살락.(이리로는 피 안 해. 그 피는 얼굴하고 음식이 달라. 빛깔은 하얀데 밥은 하니까 조밥보다도 더 까끌.)

103066 @ 음, 살락헤연예? 맛도 없고.(음, 까끌해셔요? 맛도 없고.)

103066 #2 드리 손당이 보리도 안 뛰고 조도 안 뛰고 허난에 피벳기 안 뛰낫어.

게난에 처녀덜 말 안 들어가민 드리 손당에 씨집보네肯.(교래 송당이 보리도 안 되고 조도 안 되고 하니까 피밖에 안 됐었어. 그러니까 처녀들 말 안 들어가면 교래 송당에 시집보내겠다고.)

103068 @ 아, 여기서. 그만큼 힘든 삶이니까예? 혹시 여기 담배도 같아낫수가?
(아, 여기서. 그만큼 힘든 삶이니까요? 혹시 여기 담배도 같았었습니까?)

103068 #2 아, 노인네들 담배 같안.(아, 노인네들 담배 같았어.)

103068 @ 예.(예.)

103068 #2 봉초. 봉초 만들언.(봉초. 봉초 만들었어.)

103068 @ 그 말 굽아줍셔.(그 말 말해주십시오.)

103068 #1 담배 우리 어릴 때주마는 담배 같아근에는 여자분들은 담배 가는 디는 신경 안 쓰는데 이녁 피울 거니까 하르방덜 캐어근에.(담배 우리 어릴 때지만 담배 같아서 여자분들은 담배 가는 데는 신경 안 쓰는데 이녁 피울 거니까 할아버지들 캐어다가.)

103068 #1 여경.(엮어서.)

103068 #2 헷빗 안 발른 디.(햇볕 안 바른 데.)

103068 #1 둘아맹 내비는 거라.(매달아서 내버리는 거야.)

103068 #2 둘아맹 놔두면 인제 다 물르면은 피울 때 웨면은 거 아져당 썰엉. 썰어근에 봉초로 물아근에 허곡 통대 헤근에 피우곡 혜낫주게. 굉장히 독해난 건데.
(매달아서 놔두면 인제 다 마르면 피울 때 되면 거 가져다가 썰어서. 썰어서 봉초로 말아서 하고 담뱃대 해서 피우고 했었지. 굉장히 독했던 건데.)

103068 #1 둘아메영 우리 셋하르버지. 셋하르버지네 집의 강 보민 그 맷그레 이제 정제 닮은 디 둘아메신디 것도 오래난 별경협디다.(매달아서 우리 둘째할아버지. 둘째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보면 그 바깥채 이제 부엌 같은 데 매달았는데 것도 오래니까 별경습디다.)

103068 #2 별경허여. 별경.(별개. 별경.)

103068 #1 말르난에 색깔이. 별경현 디 우리 셋하르버지 이 작두 닮은 결로 막 헤근에 보민 신문지에도 물아근에 피우곡. 경 아녕 통대 헤근에 이만헌 거 헤근에 헤착에 앗양은에 보민 저 새.(마르니까 색깔이. 별건 데 우리 둘째할아버지 이 작두 같은 것으로 막 해서 보면 신문지에도 말아서 피우고. 그렇게 안 해서 담뱃대 해서 이만한 거 해서 별바른 쪽에 앗아서 보면 저 띠.)

103068 @ 예.(예.)

103068 #1 새 혜영은에 통대에 영 빼내는 거 보민 니꼬찐. 시꺼명현 니꼬징이 그 새에 막 묻엉 나오는 거라. 통대 그 청소하는 거.(띠 해서 담뱃대에 이렇게 빼내는 거 보면 니코틴. 시꺼먼 니코틴이 그 띠에 막 묻어서 나오는 거야. 담뱃대 그 청소하는 거.)

103068 @ 아, 아.(아, 아.)

103068 #1 아이고, 그걸 다 이디 다 들어가 놓난 어떨 거라.(아이고, 그걸 다 여

기 다 들어가 놓으니까 어떨 거야.)

103068 @ 그거를 물랑 영허는 거를 봉초렌 헤여예?(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를 봉초라 하지요?)

103068 #2 봉초.(봉초.)

103068 @ 아아.(아아.)

103068 #1 봉초, 봉초.(봉초, 봉초.)

103067 @ 이젠 삼춘 막 열먹어난 무물 농수. 무물씨 한번만 더 굽아줍서?(이젠 삼춘 막 언걸먹었던 메밀 농사. 메밀씨 한번만 더 말해주십시오?)

103067 #1 무물 가는 거는 밧 갈렌 안 혜영 골 굿으렌 허주게.(메밀 가는 것은 밭 같라고 안 해서 골 그으라고 하지.)

103067 @ 예, 예. 골 굿으렌.(예, 예. 골 그으라고.)

103067 #1 골 크게 일찍 선으로 이치룩 이치룩 행은에 하면은 그 불치를 그 무 멀 갈젠 불치를 다이 모두와 냥. 일 년 내낭 모양 낫당 무멀 그 불치를 다 모앙 밧되다 시꺼다근에 이 땅 영 영영 골라근에 우티레 불치를 다 비와놔근에 씨 놓명 막 거 서끄는 거라.(골 크게 일찍 선으로 이처럼 이처럼 해서 하면 그 재를 그 메밀 갈려고 재를 다 모아 놓아서. 일 년 내내 모여 놨다가 메밀을 그 재를 다 모아서 밭에 다 실어다가 이 땅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위로 재를 다 부어놓아서 씨 놓으면서 마구 섞는 거야.)

103067 @ 예.(예.)

103067 #1 불치에 골고로 가게 혜근에 쪽 올려놔근에 혜영 그 골 굿은 더레 그 출구덕⁶²⁾에 영 담으명 하나 솜빡 담으민 무겁곡 반씩 담으명 이거 영 혜근에 영 이거 끈 뚜러멩은에 요만쯤에 허민 출구덕을 이추룩 이추룩 허명 이젠 막 놓는 거라.(재에 골고루 가게 해서 쪽 올려놔서 해서 그 골 그은 데로 그 ‘출구덕’에 이렇게 담으면서 하나 가득 담으면 무겁고 반씩 담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끈 둘러매서 요만쯤 하면 ‘출구덕’을 이처럼 이처럼 하면서 이젠 막 놓는 거야.)

103067 @ 음.(음.)

103067 #1 쪽끔씩 쪽끔씩 접으명.(조금씩 조금씩 집으면서.)

103067 @ 예.(예.)

103067 #1 골고로 경 혜근에 문딱 혜놓민 끗이, 끗는 결로 끗어야 돼여. 씨를 다 묻제 하면은. 계난 그것이 유월에 음력 유월달에 그 무멀 농사를 그때 지젠 허민, 젤 밤 혼 시나 두 시에 밧되 가야 돼여.(골고루 그렇게 해서 봉땅 해놓으면 끗는, 끗는 것으로 끄어야 돼. 씨를 다 묻으려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유월에 음력 유월달에 그 메밀 농사를 그때 지으려고 하면, 젤 밤 한 시나 두 시에 밭에 가야 돼.)

103067 @ 음.(음.)

103067 #1 그 쇠 열먹엉 죽넨. 쟁 혜영근에 강 하여튼 간에 아홉 시나 열 시 돼면은 다 끗나.(그 쇠 언걸먹어서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가서 하여튼 간에 아홉 시

62) ‘출구덕’은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나 열 시 되면 다 끝나.)

103067 #2 끝나.(끝나.)

103067 @ 경 허영은에 그 이제 키왕.(그렇게 해서 그 이제 키워서.)

103067 #1 계난 그 무멀은, 무멀 농사가 질 막끗데 허주게. 질 맛끗데 허여도 더운 때 크는 거는 똑같이 커.(그러니까 그 메밀은, 메밀 농사가 젤 마지막에 하지. 제일 마지막에 해도 더운 때 크는 것은 똑같이 커.)

103067 @ 빨리예?(빨리요?)

103067 #1 똑같이 현 거도 앞에 한 거 가을 거 무들도.(똑같이 한 것도 앞에 한 거 가을 거 메밀도.)

103067 @ 검질도 메여마씨?(김도 매요?)

103067 #1 우리 집. 으?(우리 집. 으?)

103067 @ 검질도 메여?(김도 매어?)

103067 #1 검질은 안 메여. 유월달에 가는 거난. 계난 무멀 갈[칼] 밧듸 유월 검질 계난 풀은 치주.(김은 안 매. 유월달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밀 갈[칼] 밭에 유월 김 그러니까 풀은 치지.)

103067 @ 풀 친데는 말은 무슨 말이우과?(풀 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3067 #1 검질을 다 메여낸단 말이주. 갈기 전에. 풀 다 쳐근에 다 치와베근에 판칙하게 골 깃는 거라.(김을 다 매어낸다는 말이지. 갈기 전에. 풀 다 쳐서 다 치워버려서 깨끗하게 골 긋는 거야.)

103067 @ 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골 긋을 땐 뭘로?(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골 그을 땐 무엇으로?)

103067 #1 잠대로 긋는 거라. 소에.(잠대로 긋는 거야. 소에.)

103067 #2 잠대로 이빠이 물리지 않고.(잠대로 가득 물리지 않고.)

103067 #1 우의로 슬슬하게 딱 일직선으로.(위로 살살하게 딱 일직선으로.)

103067 @ 으.(으.)

103067 # 1 경 혜근에.(그렇게 해서.)

103067 @ 씨물을 디례 허는 거 아니라예? 혼 파니 세 개씩 혜근에?(씨 물을 데로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이랑에 세 개씩 해서?)

103067 #1 혼 사름이 그 영 영 영 씨 놓아가는 것이 세 고랑씩.(한 사람이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씨 놓아가는 것이 세 고랑씩.)

103067 @ 음.(음.)

103067 #1 세 고랑씩 잡아근에 그 걸름을 놓는 거라. 걸름 놓는 거엔 하는디. 걸름 다 놓아놓민 끄시기로 혜근에. (세 고랑씩 잡아서 그 거름을 놓는 거야. 거름 놓는 거라고 하는데. 거름 다 놓아놓으면 끙계로 해서.)

103067 #2 무멀 난 거 보면은 그거 놓은 거 일정허게 탁 탁 탁 탁.(메밀 난 거 보면 그거 놓은 거 일정하게 탁 탁 탁 탁.)

103067 #1 일정허게 막 눈절 엇이 그냥 막 놓앙 혜도 틀린 디가 하나 엇이.(일

정하게 막 눈결 없이 그냥 막 놓아서 해도 틀린 데가 하나 없이.)

103067 #2 딱 딱 딱 딱.(딱 딱 딱 딱.)

103067 #1 잘도 씨도 딱 맞게시리 잘덜 서꺼놓곡.(잘도 씨도 딱 맞게끔 잘들 섞어놓고.)

103067 @ 눈절 엊어도예?(눈결 없어도요?)

103067 #1 그 옛날 어른덜이 그 하나하나 한 거 이제 가만이 생각해 보민이 다 그 생각하명 연구하명 다 한 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옛날 어른덜 한 것이 진짜로 그 슬프게시리 생각이 들주마는 그 시절에 그 어른덜 한 것이 너무나 그때는 정확 허게 잘했다고 생각 들어. 감자 그 놓는 거나 묵을 가는 거나 계절 맞춰근에 딱딱 묵들은 막끗데 같아도 묵녀 한 것보단 크지 크니까 그 유월달에 이제 젤 마지막에 묵을 가는 거라.(그 옛날 어른들이 그 하나하나 한 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다 한 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옛날 어른들 한 것이 진짜로 그 슬프게끔 생각이 들지만 그 시절에 그 어른들 한 것이 너무나 그때는 정확 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 고구마 그 놓는 거나 메밀 가는 거나 계절 맞춰서 딱딱 메밀은 마지막에 같아도 먼저 한 것보다 같이 크니까 그 유월달에 이제 젤 마지막에 메밀 가는 거야.)

103067 @ 경 행은에 이제 언제 비여? 수학은?(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 베어? 수학은?)

103067 #1 그거 해근에 한 음력으로 구월이나 시월 나민 비여낳. 묵멸이 다 거명케 꽃 혜양케 피엿다가 것이 묵멸 다 열아근에 익으민 거멍허여.(그거 해서 한 음력으로 구월이나 시월 되면 베어놓아서. 메밀이 다 거멓게 꽂 하얗게 피었다가 그것이 메밀 다 열어서 익으면 거매.)

103067 @ 음.(음.)

103067 #1 거멍하면 묵을 익엇던 다 비여근에 밧듸 이제 혼 이를 놋다근에 다무꺼근에.(거며면 메밀 익었다고 다 베어서 밭에 이제 한 이를 놋다가 다 뚫어서.)

103067 @ 음.(음.)

103067 #1 묵멸 무끄는 거는 그냥 영 해근에 보리처럼 이 보리는 이 여물은 혼더레 가게 해근에 무끄는 게 아니고 묵멸은 마주.(메밀 뚫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보리처럼 이 보리는 이 여물은 한쪽으로 가게 해서 뚫는 게 아니고 메밀은 마주.)

103067 @ 아.(아.)

103067 #1 이 묵을 그 열매를 묵물을 딱 마주가게 해근에 가운데로 무끄는 거.(이 메밀 그 열매를 메밀을 딱 마주하게 해서 가운데로 뚫는 거.)

103067 #2 새 비여당.(띠 베어다가.)

103067 #1 새 비여당 그 저 줄 영 만들어근에.(띠 베어다가 그 저 집줄 이렇게 만들어서.)

103067 @ 그 줄은 뭐렌 합니까?(그 줄은 뭐라 합니까?)

103067 #1 이녁 우리가 영 무끄젠 새 두 개로 썩 갈랑 이디 것챙이에 접정 이

디 영 영 영 헤근에 탁하게 영 영 무꺼.(이녁 우리가 이렇게 뮤으려고 띠 두 개로
싹 나눠서 여기 겨드랑이에 끼워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탁 하게 이렇게
이렇게 뮤어.)

103067 @ 게난 그 무끄는 끈을 뭐엔 굴아? 뭐엔 굴아? 여기서는.(그러니까 그
묶는 끈을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여기서는.)

103067 #1 끄네기엔 허주게.(끈이라 하지.)

103067 #2 끄네기. 새 비연에.(끈. 띠 베어서.)

103067 @ 끄네기. 께? 깨틀엉은에.(끈. 매끼? 매끼 꼬아서.)

103067 #2 묵멸단이 이만씩 헤여.(메밀단이 이만씩 해.)

103067 #1 양쪽으로 딱 허게 그 이제 묵물이 그거 잘 털어지주게. 그거 약허영
경 허난.(양쪽으로 딱 하게 그 이제 메밀이 그거 잘 떨어지지. 그거 약해서 그렇게
하니까.)

103067 @ 아아, 경 허난 이렇게 양쪽으로 행은에.(아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103067 #1 벳껏듸레 양쪽으로 무경 헷지. 집의 시꺼당 그거는 눌엉 놋다근에.(바
깥으로 양쪽으로 뮤어서 했지. 집에 실어다가 그거는 가려서 놋다가.)

103067 #2 눌엉 놋뒷당.(가려서 놋뒀다가.)

103067 #1 눌엉 놋뒷당 밧뒷일 뻃데기고 무시거고 싹 다 헤들여나근에. 새 집
이는 새꼬장 다 비여 들여 텡은에 묵물은 젤.(가려서 놋뒀다가 밭의 일 절간이고 무
엇이고 싹 다 해들여서. 띠 집 이는 띠까지 다 베어 들여 둬서 메밀은 젤.)

103067 #2 냉중에.(나중에.)

103067 #1 냉중에 그 두드리는 거라.(나중에 그 두들기는 거야.)

103067 #2 날 보명.(날 보면서.)

103067 #1 도께로.(도리깨로.)

103067 @ 날 보명.(날 보면서.)

103067 #1 다 영 영 세와근에 저 벳 맞촤가멍.(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저 별
맞촤가면서.)

103067 @ 게난 두들길 때는예? 진짜 이 지혜가 어른들이 지혜가 대단했던 거
같아예. 영 허영은에 농사는 다 끊나수다. 부치지예?(그러니까 두들길 때는요? 진짜
이 지혜가 어른들이 지혜가 대단했던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농사는 다 끝났습
니다. 부치지요?)

103067 #1 음.(음.)

103067 @ 막 버천? 어떻하고.(막 부쳐서? 어떡하고.)

103067 #2 다음엘랑 허주게.(다음에는 하지.)

103067 @ 다음에 허카마씨?(다음에 할까요?)

103067 #2 저 이사덜 오난에 훠의 헐 거 닮안게.(저 이사를 오니까 회의 할 거
같던데.)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자, 쉘 어떻 질꽈마씨?(자, 쇠는 어떻게 길러요?)

104001 #1 쉐는 이제 농사짓는 사름, 농사짓는 집의는 다 쉐 혼 머리씩. 암탉나 수탉나 새끼 내와근에 하영 팔곡 무신거 하젠 허민 암쉐.(쇠는 이제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는 집에는 다 쇠 한 마리씩. 암컷이나 수컷이나 새끼 낳게 해서 많이 팔고 무엇 하려고 하면 암쇠.)

104001 @ 예.(예.)

104001 #1 암쉐 혜근에 메고. 경 아녀면 밧만 갈양은에 농사만 대농사 짓젠 수소.(암쇠 해서 매고. 그렇게 안하면 밭만 잘아서 농사만 대농사 지으려고 수소.)

104001 @ 예, 여기는 뭐렌 굽아마씨? 수소를.(예,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수소를.)

104001 #2 부랭이).(부룩소.)

104001 #1 부랭이).(부룩소.)

104001 @ 으.(으.)

104001 #1 부랭이 그 쉐를 키와근에 거 밧 같고 농사짓젠 혜근에 소 키우는 거고.(부룩소 그 쇠를 키워서 거 밭 같고 농사지으려고 해서 소 키우는 거고.)

104002 @ 예, 그 쉐도 종류가 으라 질 아니우꽈예?(예, 그 쇠도 종류가 여러 질 아닙니까요?)

104002 #1 음.(음.)

104002 @ 어떤 종류 잊어마씨?(어떤 종류 있어요?)

104002 #1 우리는 우리 집의는 열룩소 잊어. 열룩소.(우리는 우리 집에는 열룩소 있어. 열룩소.)

104002 @ 열룩소?(열룩소?)

104002 #1 빨간색 까만색 영 혜영 서꺼진 색깔.(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해서 섞어진 색깔.)

104002 @ 그 무사 열룩소를 다른 제주도말로 곤는 말은 엇수가?(그 왜 열룩소를 다른 제주도말로 말하는 말은 없습니까?)

104002 #1 그냥 그자 으 열룩소엔 굽아난 거 닮아.(그냥 그저 으 열룩소라고 말했던 거 같아.)

104002 @ 아, 또 색깔에 따랑도 트나지 아녀마씨?(아, 또 색깔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아요?)

104002 # 색깔에 따랑은 기자 뭐 한 색으로, 빨간색으로 기냥 영 웬 거는 붉은 쉐, 까만색으로만 웬 거는 까만쉐.(색깔에 따라서는 그저 뭐 한 색으로, 빨간색으로 그냥 이렇게 된 거는 붉은 쇠, 까만색으로만 된 거는 까만 소.)

104002 @ 음.(음.)

104002 #1 얼룩쉐.(얼룩소.)

104002 @ 음.(음.)

104002 #2 경 헤근에 그때 헤근에 골아난 거 알아져?(그렇게 해서 그때 해서 말했던 거 알지?)

104002 @ 음, 알았수다. 이 부분은 쉐 질루는 거예, 여기 쉐 질화난 하르방 잇지예? 그 섭외해 줍서? 쉐는.(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소 기르는 거요, 여기 소 길렀던 할아버지 있지요? 그 섭외해 주십시오? 소는.)

104002 #1 쉐는 우리 이상 키운 사름이 엊어.(소는 우리 이상 키운 사람이 없어.)

104002 @ 아.(아.)

104002 #1 우리 그 소는 어떻 뛰느냐 허면은 우리 집의가 소를 키우면은 이제 겨울에는 집에, 우리 집에서 이제 소를 이제 키우면서 그 조, 조껍.(우리 그 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집에가 소를 키우면 이제 겨울에는 집에, 우리 집에서 이제 소를 이제 키우면서 그 조, 조짚.)

104002 @ 음.(음.)

104002 #1 그런 찍 같은 거 감저풀 그런 거 다 말류와근에 놀엉 낯당근에 그거 다 소 이제 그 것으로이.(그런 짚 같은 거 고구마줄기 그런 거 다 말려서 가려서 놋다가 그거 다 소 이제 그 것으로.)

104002 @ 음.(음.)

104002 #1 경 헤근에 쥐근에 키우당, 이제 키우다근에 이 봄 나가면은 이제 농사지기 전에는 웃드르 올리는 거라.(그렇게 해서 쥐서 키우다가, 이제 키우다가 이제 봄 되어가면 이제 농사짓기 전에는 윗마을 올리는 거야.)

104002 @ 음.(음.)

104002 #1 소 키우는 사름안티이. 거 얼마 쥐근에 그디 올렸다근에 또 농사짓젠 허면은 소 가근에 몰아다근에.(소 키우는 사람한테. 거 얼마 쥐서 거기 올렸다가 또 농사지으려고 하면 소 가서 몰아다가.)

104002 @ 응.(응.)

104002 #1 몰아다근에 집의 그 소 매영 그 먹을 거 말른 거만 주민은 잘 안 먹으니까 들에 나가근에 이녁 밧듸 강 어웍 같은 거 무신 새 같은 거 그 쉐출.(몰아다가 집에 그 소 매어서 그 먹을 거 마른 것만 주면 잘 안 먹으니까 들에 나가서 이녁 밭에 가서 억새 같은 거 무슨 떠 같은 거 그 소꼴.)

104002 @ 예.(예.)

104002 #1 쉐출 비어다근에 주명 이제 농사짓고.(소꼴 베어다가 주면서 이제 농사짓고.)

104002 @ 음.(음.)

104002 #1 경 헤근에 농사 다 쳐나면은 또 웃드르 올리는 거라.(그렇게 해서 농사 다 지어나면 또 윗마을로 올리는 거야.)

104002 @ 음. 목장에.(음. 목장에.)

104002 #1 웃드르 그 소만 그 가름에 이 해변에 그 소 하나씩 혼 집의 하나씩
신 소를 다 모여다가 그 돈벌이로 그 키우는 사람이 있어낫어. 그거 저 가꾸는 사
람.(윗마을 그 소만 그 마을에 이 해변에 그 소 하나씩 한 집에 하나씩 있는 소를
다 모아다가 그 돈벌이로 그 키우는 사람이 있었었어. 그거 저 가꾸는 사람.)

104002 @ 가꾸는 사람.(가꾸는 사람.)

104002 #1 소 보는 사람.(소 보는 사람.)

104003 @ 예. 게믄 그 쉐는 어떤 식으로 뭐허멍 이용현 거라마씨?(예. 그러면
그 소는 어떤 식으로 뭐하면서 이용한 거예요?)

104003 #1 쉐는 그거 기자 집의 그 하는 거는 어떤 집의는 아까 근듯이 암ㅋ
키와근에 새끼 막 낭 그거 새끼 전종⁶³⁾해근에 돈 벌젠했는 사람 잇고.(소는 그거
그저 집에 그 하는 것은 어떤 집에는 아까 말하듯이 암컷 키워서 새끼 막 낳아서
그것 새끼 ‘전종’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있고.)

104003 @ 음.(음.)

104003 #1 또 그 소가 많이 시면은 거념하기가 힘드난에 기냥 혼 머리만 농사
짓는 디만 하는 거, 수ㅋ. 부렝이.(또 그 소가 많이 있으면 돌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한 마리만 농사짓는 데만 하는 거, 수컷. 부룩소.)

104003 @ 부렝이.(부룩소.)

104003 #1 그거.(그거.)

104003 @ 게난 농사지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헤마씨? 쉐는?(그러니까 농사지
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소는?)

104003 #1 밧 같고. 밧듸 또 짐.(밭 같고. 밭에 또 김.)

104003 @ 음.(음.)

104003 #1 것덜 이시민 그 짐 조찍 같은 거. 조는 비어 놓면은 이제 다 조코코
리만 틈아근에 멩텡이 놔됭 조찍 그 다 무꺼근에 거는 다 소로 시꺼오는 거라. 집
에.(것들 있으면 그 짐 조짚 같은 거. 조는 베어 놓으면 이제 다 조이삭만 따서 망
태기 놔두고 조짚 그 다 뮤어서 거는 다 소로 실어오는 거야. 집에.)

104003 @ 질메에예, 아, 계영 그거 혼 바리 헤낫수가?(길마에요, 아, 그렇게 해
서 그거 한 바리 했었습니까?)

104003 #1 혼 바리 그거 질메 영 혜근에 질메엔 헌 거 알아지커라?(한 바리 그
거 길마 이렇게 해서 길마라고 한 거 알겠어?)

104003 @ 예, 예.(예, 예.)

104003 #1 소질메엔 행은에 양쪽에 혼쪽에 열 단씩 양쪽에이 스무 단씩 시꺼아
셔근에 하루 종일 그거 혜근에 집에 다 시꺼오는 거라. 게믄 그거 눌엇다근에 겨울
에 눈 와근에, 웃드르가 눈 더 묻으니까 그땐 눈 하영 올 때는 웃드르 소를 못 올
리니까.(소길마라고 해서 양쪽에 한쪽에 열 단씩 양쪽에 스무 단씩 실어가지고 하루

63) ‘전종’은 ‘씨를 계속 잇는 것’이라는 의미다.

종일 그거 해서 집에 다 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리었다가 겨울에 눈 와서, 윗마을이 눈 더 묻으니까 그땐 눈 많이 올 때는 윗마을 소를 못 올리니까.)

104003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3 #1 집의서 조침 같은 거.(집에서 조짚 같은 거.)

104003 @ 음.(음.)

104003 #1 감저풀 같은 거 그런 거 허영 산디찍 같은 거는 영 썰어근에 이제 쬐근에 건 특별하게시리 그 이제 소를 잘 먹여야 이제 여름에 농사질 거라 헤근에 그 할 때는 경 허곡. 낮의는 집에 맬 때 낮이는 물을 먹여야 웜 거니까 클러근에 물양가근에 물통.(고구마줄기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밭볏짚 같은 거는 이렇게 썰어서 이제 쬐서 건 특별하게끔 그 이제 소를 잘 먹여야 이제 여름에 농사지을 거라 해서 그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낮에는 집에 맬 때 낮에는 물을 먹여야 될 거니까 끌려서 몰아가서 우물.)

104003 @ 예.(예.)

104003 #1 물통 이신 디 가근에 물 먹여근에 저 물양 와근에 메여근에 출 주곡.(우물 있는 데 가서 물 먹여서 저 물아서 와서 매어서 꿀 주고.)

104004 @ 출 주곡, 맞수다. 경 허고 삼춘 이제 그 쉐도 키우당 보면 이제 밧 갈 젠 허면 그냥 갈지 못허잖아예? 쉐 질들이는 거 봄ющем?(꿀 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춘 이제 그 소도 키우다 보면 이제 밭 갈려고 하면 그냥 갈지 못하잖아요? 소 길들이는 거 봄셈습니까?)

104004 #1 질들이는 거.(길들이는 거.)

104004 @ 직접 헤빘이?(직접 해봤어요?)

104004 #1 그 부령이 처음 하면은 질들이는 거 그 남테 영 헤근에 헤영 두에.(그 부룩소 처음 하면 길들이는 거 그 ‘남테’ 이렇게 해서 해서 뒤에.)

104004 @ 으.(으.)

104004 #1 그 줄 메여근에 ㅋ레착.(그 줄 매서 맷돌짝.)

104004 @ 예.(예.)

104004 #1 ㅋ레착 영 고망 뜰라진 것에 그 메여근에 끊어근에 갓다왓다 갓다왓다 그걸로부터 이제 질드리기 시작하는 거라. 경 헤근에 그 다음엔 그 남테 헤근에 헤영 밧되 가근에 할 땐 막 그 소가 막 말 안 들민 꼬 퀘여근에.(맷돌짝 이렇게 구멍 뚫어진 것에 그 매어서 끌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걸로부터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그 ‘남테’ 해서 해서 밭에 가서 할 땐 매우 그 소가 매우 말 안 들면 코 퀘여서.)

104004 @ 음, 가 코 퀘영은에 이제 경 헤영 질드리는 거라예?(잡음)(음, 가 코 퀘여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길들이는 거라고요?(잡음))

104005 @ 경 허곡 그 쉐 나이힐 때 혼 설이믄 뭐렌 허는 것도 알아지쿠과?(그렇게 하고 그 소 나이힐 때 할 살이면 뭐라고 하는 것도 알겠습니까?)

104005 #1 나이는 그 소가 그 집에서 행 허면은 멧 살 됐저, 소는 멧 살 됐제.

(나이는 그 소가 그 집에서 해서 하면 몇 살 됐지, 소는 몇 살 됐지.)

104005 @ 금승 다간 이런 말은 안 하고?(하릅 두습 이런 말은 안 하고?)

104005 #2 금승, 금승 다간 경혜여.(하릅, 하릅 두습 그렇게 해.)

104005 @ 그 다음?(그 다음?)

104005 #2 다간.(두습.)

104005 @ 뭐, 예. 사릅 나릅 이런 말은 안 들어반마씨?(뭐, 예. 사릅 나릅 이런 말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104005 #2 사릅, 나릅 허는데.(사릅, 나릅 하는데.)

104005 @ 예. (웃음).(예. (웃음).)

104005 #2 사릅 나릅.(사릅 나릅.)

104005 @ 들어보진?(들어보진?)

104005 #1 그런 말도 잊어낫여. 거 쉘장시덜 와근에.(그런 말도 있었었어. 거 소장수들 와서.)

104005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05 #1 쉘장시덜 와근에 쉘 깍 그거 영 해근에 치젠 허면 이거는 뭐 무시거 그때 말로 아까그치록.(소장수들 와서 소 값 그거 이렇게 해서 치려고 하면 이것은 뭐 무엇 그때 말로 아까처럼.)

104005 #2 금승이우과? 다간이이과?(하릅입니까? 두습입니까?)

104005 #1 금승송애기.(하릅송아지.)

104005 @ 금승송애기 허고, 다간송애기?(하릅송아지 하고, 두습송아지?)

104005 #1 세 살. 세 살이여, 뭐 두 살이여.(세 살. 세 살이다, 뭐 두 살이다.)

104005 #2 그걸 확인허젌 이거 들러근에 이빨로 확인허여.(그걸 확인하려고 이거 들어서 이빨로 확인해.)

104005 @ 아, 이빨로예? 아아.(아, 이빨로요? 아아.)

104005 #2 이빨 몇 개 나민 금승이다 다간이다 이렇게.(이빨 몇 개 나면 하릅이다 두습이다 이렇게.)

104005 @ 행은에 이젌 그 부분도 아 그것도 소만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주게예?(해서 이젌 그 부분도 아 그것도 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요?)

104006 @ 경허곡 혹시 뱃갈젌 허민 잠대?(그렇게 하고 혹시 뱃 갈려고 하면 쟁기?)

104006 #1 잠대.(쟁기.)

104006 @ 잠대도 이름 어디 어디 부분 명칭 알아지쿠과?(쟁기도 이름 어디 어디 부분 명칭 알겠습니까?)

104006 #1 잠대.(쟁기.)

104006 @ 만약에 잠대 영 허영은에.(만약에 쟁기 이렇게 해서.)

104006 #1 잠대 그거 영 영 하면은 곰배.(쟁기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곰방

메.)

104006 @ 예, 곰배 잊고, 이거 잠대가 영 있으면 이거 손이랑 다르잖아. 여기가 뭐여 헌 이런 말은 모르겠지예? 밧 같아나지 아녀니까.(예, 곰망매 있고, 이거 쟁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손이랑 다르잖아. 여기가 뭐다 하는 이런 말은 모르겠지요? 밧 같아나지 않으니까.)

104006 #1 밧 같아나지 아녀니까 어쨌든 잠대하고 곰배 그거는 알아쳐. 그 코짓이에 그 쇄.(밭 같아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쟁기하고 곰망매 그것은 알지. 그 코에 그 쇄.)

104006 #2 그거허곡 또 이제 파니 넘어가는 거.(그거하고 또 이제 이랑 넘어가는 거.)

104006 @ 예.(예.)

104006 #1 파니 넘어가는 거 이름 무시거여마는.(이랑 넘어가는 거 이름 무엇이다만.)

104006 #2 배, 배.(배, 배.)

104006 @ 벳.(벳.)

104006 #2 벳, 벳.(벳, 벳.)

104006 #1 벳.(벳.)

104006 @ 보섭. 뭐.(보습. 뭐.)

104006 #1 보섭 그거.(보습 그거.)

104006 @ 끝에.(끝에.)

104006 #1 벳은 보섭 앞에 잇는 거.(벳은 보습 앞에 있는 거.)

104006 @ 예. 벳, 그다음 여기 뭐 설쳤이여 뭐여 허는 말은?(예. 벳, 그다음 여기 뭐 한마루야 뭐야 하는 말은?)

104006 #1 그런 거는 우린 그자 잠대로만 기자.(그런 거는 우린 그저 쟁기로만 그저.)

104007 @ 맞수다. 잠대로만예? 이 질메도 부분 명칭이 핫텐예?(맞습니다. 쟁기로만요? 이 길도 부분 명칭이 많다고요?)

104007 #1 질멘, 그거 질메는 질메엔 헌 거는 소에 그 짐 시끄는 거보고 질메엔 헤신디.(길마는, 그거 길마는 길마라고 한 거는 소에 그 짐 싣는 거 보고 길마라 했는데.)

104007 @ 이렇게 해영은에 생겼잖아예?(이렇게 해서 생겼잖아요?)

104007 #2 으.(으.)

104007 #1 요쪽에 헤근에 요쪽에 헤근에 소 이거 영 허영 허민 그 곡식 단을 영 허영 소에 이제 질메 그거 헤근에 그 이제 그 노꽃은 그때 뭐엔 굽하신고. 하여튼 간에 그 짐 시끄는 그 노꽃이 잊어낫어.(요쪽에 해서 요쪽에 해서 소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그 곡식 단을 이렇게 해서 소에 이제 길마 그거 해서 그 이제 그 노끈은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 하여튼 간에 그 짐 싣는 그 노끈이 있었었어.)

104007 @ 예, 예. 계난 그런 이름마다 다 잇주마씨. 질맷가지여 무신거여 허니까 이 부분은예, 이 농사 하영 하르방덜 엇어.(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마다 다 있지요. 길맛가지다 무엇이다 하니까 이 부분은요, 이 농사 많이 할아버지들 없어.)

104007 #1 하르방덜 엇어.(할아버지들 없어.)

104007 @ 엇어예. 다 돌아가셨나요?(없지요. 다 돌아가셨지요?)

104007 #1 우리가 췄고.(우리가 최고.)

104008 @ 명에 허는 거는?(명에 하는 거는?)

104008 #1 명에엔 현 건 밧 그거.(명에엔 한 건 밧 그거.)

104008 @ 밧 헐 때 명에도 있고 밧갈젠 허면?(밭 할 때 명에도 있고 밭 갈려고 하면?)

104008 #1 이디 영 긴 거. 이디 영 긴 거.(여기 이렇게 긴 거. 여기 이렇게 긴 거.)

104008 @ 명에. 명에도 보면 이름들이 다 있거든예? 명에여, 아니믄 목에 즙게⁶⁴⁾여 허명 이름 있거든. 그런 것도 기억에 안 남지예? 알았수다.(명에. 명에도 보면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명예요, 아니면 목에 ‘즈게’다 하면서 이름 있거든. 그런 것도 기억에 안 나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104009 @ 여기에서는 목장도 있수가?(여기에서는 목장도 있습니까?)

104009 #1 목장은 계난 여기 목장이 없으니까 웃드르. 웃드르 목장에 올리는 거라.(목장은 그러니까 여기 목장이 없으니까 윗마을. 윗마을 목장에 올리는 거야.)

104009 @ 음, 삼춘. 음.(음, 삼춘. 음.)

104009 #1 우리 경우에는 출왓이엔 해근에.(우리 경우에는 꿀밭이라고 해서.)

104009 @ 예.(예.)

104009 #1 뭐 우리 친정 경우는 만 평 그 출왓이 있어나신디 거 아녀민 이천 평 삼천 평.(뭐 우리 친정 경우는 만 평 그 꿀밭이 있었었는데 거 아니면 이천 평 삼천 평.)

104009 @ 음.(음.)

104009 #1 그자 사천 평 이 정도 자기 그, 그 옛날에는 출왓이 그것이 살림. 살림살이라. 거기에서 그 출을 비여근에 불도 때곡 소도 주곡. 계민 소 먹어난 그 앞에 거 이제 안아당 말류와근에 또 불 때명 밥하곡.(그저 사천 평 이 정도 자기 그, 그 옛날에는 꿀밭이 그것이 살림. 살림살이야. 거기에서 그 꿀을 베어서 불도 때고 소도 주고. 그러면 소 먹었던 그 앞에 거 이제 안아다가 말려서 또 불 때면서 밥하고.)

104009 @ 예, 경 허고.(예, 그렇게 하고.)

104009 #1 경허여.(그렇게 해.)

104009 @1 이제 혹시 소 하영 질뢰시난 쉐 질루멍 막 고생했거나예 잊어불지 못하는 거?(이제 혹시 소 많이 길렀으니까 소 기르면서 매우 고생했거나 잊어버리

64) ‘즈게’는 명에 양편에 각각 췄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개 된 나뭇가지를 말한다.

지 못하는 거?)

104010 #1 잊어볼지 못하는 거, 소가 영 헤근에 소 두 개고 세 개고 쉐막에.(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소가 이렇게 해서 소 두 개고 세 개고 외양간에.)

104010 @ 예.(예.)

104010 #1 쉐막에 이렇게 녹대 헤근에이 녹대 그거 뿔에 영 헤근에 매는 코에 폐영 잇다근에 소 물 맥이젠 내놓면은 이거는.(외양간에 이렇게 고삐 해서 고삐 그거 뿔에 이렇게 해서 매는 코에 매어서 있다가 소 물 먹이려고 내놓으면 이거는.)

104010 #2 들락퀴영.(날뛰어서.)

104010 #1 소가 무껑, 무껑 낯당 클렁 내놓면은 완전 들락퀴명 그 우리 이제 말로 물이 남추굿⁶⁵⁾. 아 이제 아래 저것이 남추굿. 민속촌 하는 그디가 남추굿이주. 그레 꼴랑지 들렁 막 도망가민 그때 그 소 못 심어근에 쫓아가당 쫓아가당 못 쫓아가민 막 앗안 우리 울어낫어. (소가 뜁어서, 뜁어서 놓았다가 끌러서 내놓으면 완전 날뛰면서 그 우리 이제 말로 물이 ‘남추굿’. 아 이제 아래 저것이 ‘남추굿’. 민속촌 하는 그곳이 ‘남추굿’이지. 그리로 꼬리 들어서 막 도망가면 그때 그 못 잡아서 쫓아가다 쫓아가다 못 쫓아가면 막 앗아서 우리 울었었어.)

104010 @ 음. 맞아.(음. 맞아.)

104010 #2 울엉 ㅋ만이 허영 가보민 손 어디 간 곳이 없고 이제 집원 오면은 이제 소 이제 졸바로 아념젠 헹은에 매를 맞거나 육을 들을 거난 경 그거 때문에 확 오지 못해근에 앗앙 이시민 소가 들어와. 자기대로.(울어서 가만히 해서 가보면 손 어디 간 곳이 없고 이제 집엔 오면 이제 소 이제 똑바로 안한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육을 들을 거니까 그렇게 그거 때문에 확 오지 못해서 앗아 있으면 소가 들어와. 자기대로.)

104010 @ 지 먹어질 거 먹엉예?(저 먹어질 거 먹어서요?)

104010 #1 아, 먹는 거 보난 뛸 대로 뛰영 오곰 폐운 모냥이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민.(아, 먹는 거 보니까 뛸 대로 뛰어서 오금 편 모양이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104010 #2 ㅋ만히 가두왕 놔뒀당 풀어놓면은.(가만히 가둬서 놔뒀다가 풀어놓으면.)

104010 #1 그것이 젤.(그것이 젤.)

104010 #2 막 위험허여. 어린아이덜 이시민.(매우 위험해. 어린아이들 있으면.)

104010 #1 이거 영 영 허명 돌아가민 물 맥이젠 그것이 젤 걱정.(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 물 먹이려고 그것이 젤 걱정.)

104010 @ 에에.(에에.)

104010 #1 저 소 강 어명 물 맥영 오늘 올 건고.(저 소 가서 어떻게 물 먹여서 오늘 올 건가.)

104010 @ 음.(음.)

65) ‘남추굿’은 표선민속촌 인근의 우물 이름이다.

104010 #1 물 맥이지 아녀민 안 훨 거니까. 물은 꼭 먹여야 돼난. 게난 그것이 이제도 생각하민 생각하민 우습기도 하고 복통난 일이난에.(물 먹이지 않으면 안 될 거니까. 물은 꼭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도 생각하면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복통난 일이니까.)

104010 @ 잊어불질 아녀예?(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104010 #1 잊어불질 아녀. 젤 그거는 잊어불지 아녀.(잊어버리지 않아. 젤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말 기르기

104011 @ 음, 맞수다. 이젠예 물 질뢰봄주예.(음, 맞습니다. 이제는요 말 길러봄지요.)

104011 #1 물.(말.)

104011 @ 예, 물은 어떻 질렀수과?(예, 말은 어떻게 길렀습니까?)

104011 #1 물은 기냥 물은 쉐 닮진 아녀근에 집 속에 키웁지 아녕 베꼈듸 영 담 다놔근에 문 하나 만들어근에 거기에서 그레 딜여몰고 이제 물 맥이래 영 가곡 헌디. 그 말은 저 소가치룩은 안 허여.(말은 그냥 말은 소 같진 않아서 집 속에 키우지 않아서 바깥에 이렇게 담 쌓아놓고 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리로 들이몰고 이제 물 먹이러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 말은 저 소처럼은 안 해.)

104011 @ 음.(음.)

104011 #1 울타리가 널르게 헨에 가되낳 키우난 그런지 출도 앞듸레 안 낳 아무 디례라도 그 안티레만 께 풀멍 들렁 네경 내볼면은 자기네가 다 뎅기멍 촛양 먹곡. 계민 그거 물 맥일 때는 그 문 울아근에 혜영 하면 그 오야지⁶⁶⁾가 뛰지 아니민은 말은 절대 또꼬망에 새끼덜은 절대 안 뛰여.(울타리가 너르게 해서 가둬 놓아서 키우니까 그런지 꿀도 앞으로 안 놓아서 아무 데라도 그 안으로만 매끼 풀면서 들어서 던져 내버리면 자기네가 다 다니면서 찾아서 먹고. 그러면 그거 물 먹일 때는 그 문 열어서 해서 하면 그 우두머리가 뛰지 않으면 말은 절대 꽁무니의 새끼들은 절대 안 뛰어.)

104011 @ 으, 대장만 딱 잡으민 훠는구나.(으, 대장만 딱 잡으면 되는구나.)

104011 #1 오야지만 뛰면은 ㅋ찌 다 뛰는 거라. 경허는 거 거기에서 우리 생각에 여기서 이 말이 대장이다 그 말만 잘 혜근에 하면은 소처럼 애먹지 아녀.(우두머리만 뛰면 같이 다 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 생각에 여기서 이 말이 대장이다 그 말만 잘 해서 하면 소처럼 애먹지 않아.)

104011 #2 물은 겨울에 추위를 안 타.(말은 겨울에 추위를 안 타.)

104011 @ 아, 경 허니까?(아, 그럼니까?)

104011 #1 경 허난 베꼈듸 집도 엇인디.(그렇게 하니까 바깥에 집도 없는데.)

104011 #2 집 엇이 눈이 이만큼 묻어도 이렇게 막 파면서 먹이를 먹어. 소는 좀

66) ‘오야지’는 일본어 ‘おやじ’에서 온 말로, 여기에서는 ‘우두머리’의 뜻으로 쓰였다.

추위 타니까 집을 지어야 돼고.(집 없이 눈이 이만큼 묻어도 이렇게 막 파면서 먹이를 먹어. 소는 좀 추위 타니까 집을 지어야 되고.)

104011 @ 예.(예.)

104011 #2 말은 그대로 놔두면은.(말은 그대로 놔두면.)

104011 @ 음, 게믄 말을 그치록 예왕 놔두는 디예, 거기는 뭐렌 헙니까?(음, 그러면 말을 그처럼 가둬서 놔두는 데요,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104011 #1 거기는 뭐 말 가두는 디엔 그땐 굽아신가? 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굽아실 거라.(거기는 뭐 말 가두는 데라고 그땐 말했는가? 전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했을 거야.)

104011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11 #1 말 가두는 디엔 굽아신가?(말 가두는 데라고 말했는가?)

104014 @ 말도 부르는 이름이 으라 가지라예. 옛날 혹시 기억해지쿠파? 무슨 말이여 무슨 말이여 허는 말?(말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지요. 옛날 혹시 기억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다 무슨 말이다 하는 말?)

104014 #2 물 연령은 수로 헐 건디? 수.(말 연령은 수로 할 건데? 수.)

104014 @ 수로예?(수로요?)

104014 #2 무슨 수, 몇 수. 소는 뭐 다간.(무슨 수, 몇 수. 소는 뭐 이듭.)

104014 @ 예, 다간.(예, 이듭.)

104014 #2 경혀는데.(그렇게 하는데.)

104014 @ 아, 이수매 일수매 이런 식으로?(아, ‘이수마’ ‘일수마’ 이런 식으로?)

104014 #2 수.(수.)

104014 @ 어, 일수 이수 삼수 행은에예? 아.(어, ‘일수’ ‘이수’ ‘삼수’ 해서요? 아.)

104014 #2 곧 나면은 망아지 아녕은에.(곧 나면 망아지 안 해서.)

104014 #1 몽생이).(망아지.)

104014 #2 몽생이.(망아지.)

104014 @ 예, 몽생이.(예, 망아지.)

104014 #1 또 소는 허면 송애기.(또 소는 하면 송아지.)

104012 @ 예. 맞수다. 혹시 텔 색깔에 따라서 불르는 이름도 잊어신가마씨?(예. 맞습니다. 혹시 텔 색깔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있었는가요?)

104012 #1 말은 색깔이 엊주. 기자 검은색 기자 붉은색 경 저 붉은말 검은말 기자 영 색깔이 경 요란하지 아녀. 소그치록.(말은 색깔이 없지. 그저 검은색 그저 붉은색 그렇게 저 붉은말 검은말 그저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 소처럼.)

104012 @ 음. 그 다음에 물도 색깔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점도 찍은 것도?(음. 그 다음에 말도 색깔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점도 찍은 것도?)

104012 #1 점백이).(점박이.)

104012 @ 으.(으.)

104012 #1 점백이엔 허멍 그 점백인 뭐 흰점백이 저 점백이가 보통 흰 점백이라. 흰 걸로.(점박이라고 하면서 그 점박인 뭐 흰점박이 저 점박이가 보통 흰 점박이야. 흰 걸로.)

104012 @ 예, 예, 예. 코로도 이렇게 허고.(예, 예, 예. 코로도 이렇게 하고.)

104012 #2 걸로. 이렇게 여기까지 해지면서 점백이엔 허여.(걸로. 이렇게 여기까지 해지면서 점박이라고 해.)

104012 @ 음, 점백이엔 허고예? 발도 무사 색깔이 트난 경우도 있고.(음, 점박이라고 하고요? 발도 왜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고.)

104012 #1 발은 소덜, 물덜은 기냥 발, 발 영 헤근에 어떤 땐 영 메여근에 발 영 들렁 보는 거는 봐낫수다. 이런 발 이런 디 뭐 끼어시냐 안 끼어시냐 그거 봐근에 떼어주기도 허곡.(발은 소들, 말들은 그냥 발, 발 이렇게 해서 어떨 땐 이렇게 메어서 발 이렇게 들어서 보는 거는 봤었습니다. 이런 발 이런 데 뭐 끼어있나 안 끼어있나 그거 봐서 떼어주기도 하고.)

104013 @ 물은 어떤 데 이용한 거우과?(말은 어떤 데 이용한 겁니까?)

104013 #2 물은 마차, 마차 헐 때 무시거.(말은 마차, 마차 할 때 무엇.)

104013 #1 물 그거 큰 말 그거는 뭐 나이로 몇 살이나 될 건고? 다섯 살이나 될 건가. 마차 끊는 말.(말 그거 큰 말 그거는 뭐 나이로 몇 살이나 될 건가? 다섯 살이나 될 건가. 마차 끊는 말.)

104013 @ 음.(음.)

104013 #1 경 아녀면은 조 같은 거 같아근에 그 불리는 거.(그렇게 않으면 조 같은 거 같아서 그 밟는 거.)

104013 @ 예, 불리는 거?(예, 밟는 거?)

104013 #1 땀땀하게 좁씨 묻어지게.(땀땀하게 조씨 묻어지게.)

104013 @ 음.(음.)

104013 #1 그거 불리는 용으로 하영 허고, 보리 돛가래.(그거 밟는 용으로 많이하고, 보리 돼지거름.)

104013 @ 음.(음.)

104013 #1 그거 불리는 용. 그런 용으로 헤근에 집집마다 다 돛가래 불리곡 조하곡 혜난에 말 이신 집의가 경 하지 아녀주게.(그거 밟는 용. 그런 용으로 해서 집집마다 다 돼지거름 밟고 조 하고 하니까 말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지.)

104013 @ 예.(예.)

104013 #1 경 혀난 특별히 부잣집 이런 디 말 이시민 그 밑에 사름덜 혼쭐 빌어다근에 “물 그거 혀영 혼쭐 불려줍서?” 하면은 불려줘근에 그땐 돈으로 받지 아니고 일로.(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부잣집 이런 데 말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 조금 빌려다가 “말 그거 해서 조금 밟아주십시오?” 하면 밟아줘서 그땐 돈으로 받지 않고 일로.)

104013 @ 예, 일로예?(예, 일로요?)

104013 #1 일 헤근에 메칠 왕 검질을 매 주든가 그런 식으로.(일 해서 며칠 와서 김을 매 주든가 그런 식으로.)

104013 @ 맞수다.(맞습니다.)

104013 #2 게난 그 당시에 물 마차 이신 디는 막 잘 사는 디.(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 마차 있는 데는 매우 잘 사는 데.)

104013 @ 예. 오십 머리씩 하면예? 거고 여기에 그 물 마차예, 마차를 다른 말로 불르는 거는 안 들어봄디가?(예. 오십 머리씩 하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말 마차요, 마차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거는 안 들어봤습니까?)

104013 #1 구루마⁶⁷⁾?('구르마'?)

104013 @ 구루마 말고 다른 말?('구르마' 말고 다른 말?)

104013 #1 그거, 그거는.(그거, 그거는.)

104013 @ 물바레기. 바레기.('말바레기'. '바레기').

104013 #1 바레기⁶⁸⁾. 바레기, 바레기.('바레기'. '바레기', '바레기').

104013 #2 바레기.(달구지.)

104013 @ 바레기렌 헷지예?('바레기'라고 했지요?)

104013 #1 마차엔도 허고 바레기엔도 허곡 구루마엔도 허곡 허여.(마차라고도 하고 '바레기'라고도 하고 '구루마'라고도 하고 해.)

104013 @ 아.(아.)

104013 #2 구루마는 일본말인가.('구루마'는 일본말인가.)

104013 @ 예, 구루마는 일본말이우다. 바레기, 물바레기, 쉐바레기 해서예? 물로도 하고 쉐로도 하고예?(예, '구루마'는 일본말입니다. 달구지, 말달구지, 소달구지 했지요? 말로도 하고 소로도 하고요?)

104013 #2 이디션 쉐로는 잘 안 허여.(여기선 소로는 잘 안 해.)

104013 @ 여기는 물로가 하영 헙니까?(여기는 말로가 많이 합니까?)

104013 #1 물 헤영 바레기. 간혹 가당 쉐로도 한 데도 있어.(말 해서 달구지. 간혹 가다가 소로도 한 데도 있어.)

104013 #2 쉐로 허면 빠르질 못허여.(소로 하면 빠르질 못 해.)

104013 @ 음.(음.)

104013 #1 말은 빨리빨리.(말은 빨리빨리.)

104013 #2 힘은 있는데.(힘은 있는데.)

104013 @ 음, 요즘 마차지만 옛날에는 바레기엔 헤서예? 그 다음 삼춘네는 물도 하영 질화시난.(음, 요즘 마차지만 옛날에는 '바레기'라고 했다고요? 그 다음 삼촌네는 말도 많이 길렀으니까.)

104013 #1 쓰무 개씩.(스무 개씩.)

67) '구루마'는 마차를 일본어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68) '바레기'는 '달구지'를 표선리에서 부르는 말이다.

104013 @ 예.(예.)

104013 #1 울타리 영 해놔근에 출도 흔꺼번에 한 여남은 단 다 께 풀어근에 아무데다 떤경 내불민 말은 자기네가 냉기명 다, 말은 말 먹어난 디 진짜 흐꼼 허민 워 무신 무시거 어디 가근에 만약에 고사릴 꺼끄레 간다, 강 뽕 허민 물 메여난 딘 똥이나 쌈다 허연 물 메여난 디는 똥이나 쌈다고. 물 메여난 디는 먹을 것이 요만 이도 넹겨 놔두지 아녕.(울타리 이렇게 해놓아서 꿀도 한꺼번에 한 여남은 단 다 매끼 풀어서 아무데나 던져서 내버리면 말은 자기네가 다니면서 다, 말은 말 먹었던 데 진짜 조금 하면 워 무엇 무엇 어디 가서 만약에 고사릴 꺼으러 간다, 가서 봐서 하면 말 매었던 텐 똥이나 쌈다 해서 말 매었던 데는 똥이나 쌈다고. 말 매었던 데는 먹을 것이 요만큼도 남겨서 놔두지 않아서.)

104013 @ 다 먹어불어?(다 먹어버려?)

104013 #1 다 먹어.(다 먹어.)

104013 #2 배고프면은 이거 과면서 뿌리끄지 다 뽑아 먹어.(배고프면 이거 과면서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

104013 #1 발로 다 파멍.(발로 다 과면서.)

104013 #2 생활력이 강해.(생활력이 강해.)

104013 @ 아, 밖에 강은에 산에도 강 키우고예?(아, 밖에 가서 산에도 가서 키우고요?)

104013 #2 아무 디 해여도 말은 살아나고. 쉬는 꼭 줘야 돼고.(아무 데 해도 말은 살아나고. 소는 꼭 줘야 되고.)

104015 @ 음, 물 질루멍 밧 불리는 거 모든 거 허면서예 아까처럼 잊어불지 아년 거.(음, 말 기르면서 밭 밟는 거 모든 거 하면서요 아까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거.)

104015 #1 잊어불지 아녀는 거 말을 헤근에 밧을 영 불리젠허면, 아이고 우리 생각에는 딴딴허게 다 훈 거 닮은 디도 우리 하르버지가 “요레 흔번 돌라. 저레 흔번 돌라.” 허멍 막 그 이레 흔 번 돌면 또, 또 거기 돌렌 허믄 아이고, 그것이 완전 살지를 못하는 거라게. ㅋ찌 막 말하고 게나제나 걸어 다니니까.(잊어버리지 않는 거 말을 해서 밭을 이렇게 밟으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생각에는 단단하게 다 된 거 같은 데도 우리 할아버지가 “요리로 한번 돌라. 저리로 한번 돌라.” 하면서 막 그 이리 한 번 돌면 또, 또 거기 돌라고 하면 아이고, 그것이 완전 살지를 못하는 거야. 같이 막 말하고 그러나저러나 걸어 다니니까.)

104015 @ 예, 게믄 삼춘 역할은, 밧 불릴 때 어떤 역할을 헌 거라마씨?(예, 그러면 삼촌 역할은, 밭 밟을 때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104015 #1 들아나지 못허게 영 에와쌍.(달아나지 못하게 이렇게 에워싸서.)

104015 @ 뒤에서 막는 거?(뒤에서 막는 거?)

104015 #1 따로 영 나가는 거 못 나가게 뭉쳐야 돼니까.(따로 이렇게 나가는 거 못 나가게 뭉쳐야 되니까.)

104015 @ 예.(예.)

104015 #1 계난 젤 이제 앞의 물 하나만 영 이끄면은 그 말 따라근에 졸졸 가는 거 있고, 또 이땅 부량한 것덜은 또 베꼈디레 아니 하젠 도망가젠 허는 것덜 이시니까 그런 거.(그러니까 젤 이제 앞의 말 하나만 이렇게 이끌면 그 말 따라서 졸졸 가는 거 있고, 또 있다가 불량한 것들은 또 바깥으로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 있으니까 그런 거.)

104015 @ 계면 하르버지가 앞에서 물을 이깟구나예?(그리면 할아버지가 앞에서 말을 이끌었군요?)

104015 #1 막 소리허명.(막 소리하면서.)

104015 @ 삼춘이 소리 헤집니까?(삼춘이 소리를 해집니까?)

104015 #1 아이고, 우리 소리는 아녀도 들음은 하영 들어낫어.(아이고, 우리 소리는 안 해도 들음은 많이 들었었어.)

104015 #2 하르방이 허면은 후렴은 혜야주.(할아버지가 하면 후렴은 해야지.)

104015 @ 음, 기억나는 거 홀번 불러봄서?(음, 기억나는 거 한번 불러보십시오?)

104015 #1 아니. 우리.(아니. 우리.)

104015 @ 물 모는 노래엔 협니까? 무슨 노래엔 협니까?(말 모는 노래라고 합니까? 무슨 노래라고 합니까?)

104015 #1 말 거 하는 거.“이러 이러 이러 요레 뻥뻥 돌라, 저레 뻥뻥 돌라. 어어어 어러러.” 허멍. 막 경 허영 허민 막 우리도 같이 “어러러 어러러” 허멍 막 헤근에 허민 말덜이 말 잘 들어, 소보다.(말 거 하는 거.“이러 이러 이러 요레 뻥뻥 돌라, 저레 뻥뻥 돌라. 어어어 어러러.”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면 막 우리도 같이 “어러러 어러러” 하면서 막 해서 하면 말들이 말 잘 들어, 소 보다.)

104015 @ 거 밧occo는 소리예?(거 밧occo는 소리요?)

104015 #1 그 불리는 소리에 맞추어 말덜도 잘 허여.(그occo는 소리에 맞추어 말들도 잘 해.)

104015 @ 삼춘 목청 막 좋은게. 노래 잘 불르컨게.(삼춘 목청 막 좋은데. 노래 잘 부르겠는데.)

104015 #2 노래 잘 불러.(노래 잘 불러.)

104015 @ 이제 경 허고 이제 쉐나 물이나 먹어야 될 거 아니우과예? 쉐나 물덜이 먹는 출덜은 어떤 거 이서마씨?(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소나 말이나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나 말들이 먹는 꿀들은 어떤 거 있어요?)

104015 #1 계난 그 감저. 감저 놔놔 감저꿀 막 그 이제 출. 출왓엔 헌 디서 그 출을 비여근에 하면은 집만씩 놀어놔. 그거를 놀 그거 비 안 들어가게 막 놀여근에 헤여근에 단단히 가을에 다 준비해놔. 소 말 먹을 거. 다 조칙도 다 헤근에 비 안 들게 잘 놀여근에 다 누람지 더꼬멍 하고. 감저꿀 출 막 그런 거 하영 헤근에 하여튼 집만씩 혼 대여섯 개 겨울내낭 그거 말이영 소영 한 삼십 머리 먹젠 하면은 보

통으로 아니 뭐.(그러니까 그 고구마. 고구마 놓았던 고구마줄기 막 그 이제 꿀. 꿀밭이라고 한 데서 그 꿀을 베어서 하면 집만큼씩 가려놔. 그거를 가리 그거 비 안 들어가게 막 가려서 해서 단단히 가을에 다 준비해놓아. 소 말 먹을 거. 다 조짚도 다 해서 비 안 들게 잘 가려서 다 이영 덮으면서 하고. 고구마줄기 꿀 마구 그런 거 많이 해서 하여튼 집만큼씩 한 대여섯 개 겨울 내내 그거 말이랑 소랑 한 삼십마리 먹으려고 하면 보통으로 아니 뭐.)

104015 @ 삼춘네 대여섯 개 허난에 삼춘네 부자는 부자여.(삼춘네 대여섯 개 하니까 삼춘네 부자는 부자다.)

104015 # 득새기, 득도 키울 때 득새기도 그 놀트멍에 고망 뜰랑 들어가근에 촐그거 뽑으레 강 보민 득새기도 잇곡 혜근에 그거 행 봉가당 우리 옛날에 거 도매⁶⁹⁾(달걀, 닭도 키울 때 달걀도 그 가리 틈에 구멍 뚫어서 들어가서 꿀 그거 뽑으러 가서 보면 달걀도 있고 해서 그거 해서 주워마다 우리 옛날에 거 머리핀.)

104015 @ 예.(예.)

104015 #1 도매 강 바꽈당 빈주룽허게 도매 하영 찔른 것도 가다⁷⁰⁾엔 혀멍. (웃음).(머리핀 가서 바꿔다 느린히 머리핀 많이 찌른 것도 모양이라고 하면서. (웃음).)

104015 @ 득새기 가정강은에.(달걀 가져가서.)

104015 #1 도매. 득새기 아경가민 도매 바꽈근에 아이고.(머리핀. 달걀 가져가면 머리핀 바꿔서 아이고.)

먹이

104017 @ 맞수다. 그 출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거라. 출 비는 거 옛날 하영비례 다녔지예?(맞습니다. 그 꿀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거야. 꿀 베는 거 옛날 많이 베려 다녔지요?)

104017 #1 아니. 출은 그 낫⁷¹⁾, 낫이엔 헌 거.(아니. 꿀은 그 낫, 낫이라고 한 거.)

104017 #2 낫으로.(낫으로.)

104017 @ 낫으로 비는구나예?(호미로 베는군요?)

104017 #1 낫으로 영 영 비명 거. 일꾼덜을 낫 비는 사람. 낫도 아무나 못 혜영. 이제 가만히 김창범이 아방네 빌언에 우리 혜여난.(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베면서 거. 일꾼들을 낫 베는 사람. 낫도 아무나 못 해서. 이제 가만히 김창범이 아버지네 빌려서 우리 했었어.)

104017 #2 낫, 낫 비는 놉 낫 허는 놉을 빌젠 혀민 정말 잘 맥이곡. 돈도 하영주곡.(낫, 낫 베는 놉 낫 하는 놉을 빌려고 하면 정말 잘 먹이고. 돈도 많이 주고.)

69) ‘도매’는 ‘とめ’로, 여기서는 ‘머리핀’의 의미로 쓰였다.

70) ‘가다’는 일본어 ‘かた’로, 여기서는 ‘모양’의 의미로 쓰였다.

71) 여기에서 ‘낫’은 보통의 낫과는 달리 ‘날과 자루가 긴 낫’으로 서서 꿀 등을 벨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104017 #1 그날에 하루 종일 이거⁷²⁾니까, 허리 힘 엇인 사름은 못허주. 경 허영 허곡 펜펜한 디는 낫으로 다 비곡.(그날에 하루 종일 이거니까, 허리 힘 없는 사람은 못하지. 그렇게 해서 하고 편편한 데는 낫으로 다 베고.)

104017 @ 예.(예.)

104017 #1 낫으로 후린덴 하주, 후린덴.(낫으로 후린다고 하지, 후린다고.)

104017 @ 낫으로 후려예? 예, 예, 예.(낫으로 후려요? 예, 예, 예.)

104017 #1 낫으로 후리곡. 또시 돌 트명에 인치룩 인치룩 이신 거는 좀호미^{73).}(낫으로 후리고. 다시 돌 틈에 이처럼 이처럼 있는 것은 ‘좀호미’.)

104017 @ 예.(예.)

104017 #1 좀호미로 영 영 이젠 우리가 좀호미로 혜근에 낫으로 못 후릴 디는 낫으로 돌 신 디 후리민 낫이 그 이제 꺼꺼정 나가니까. 그거 경 그런 디 돌 이신 디는 기자 우리 여자덜이 다 비여.(‘좀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이젠 우리가 ‘좀호미’로 해서 낫으로 못 후릴 데는 낫으로 돌 있는 데 후리면 낫이 그 이제 꺾어져서 나가니까. 그거 그렇게 그런 디 돌 있는 데는 그저 우리 여자들이 다 베어.)

104018 @ 게믄 이 촐 이렇게 혜영은에 무끈 거, 께로 무끈 거예? 그걸 뭐렌 협니까? 여기는.(그러면 이 꿀 이렇게 해서 뮤은 거, 매끼로 뮤은 거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104018 #1 줄 틀어근에.(매끼 꼬아서.)

104018 @ 줄 틀영은에 혀잖아요?(매끼 꼬아서 하잖아요?)

104018 #1 줄 틀영은에 촐 무끄는.(매끼 꼬아서 꿀 뮤는.)

104018 @ 촐 무끈 하나 덩어리를 무끈 거를 여긴 뭐렌 굴아?(꿀 뮤은 하나 덩어리를 뮤은 것을 여긴 뭐라고 말해?)

104018 #1 혼 단.(한 단.)

104018 @ 혼 단이 잘도 크쿠다예? 다른 디보단.(한 단이 잘도 크겠네요? 다른 데보다는.)

104018 #2 혼 바리가 삼십 단.(한 바리가 삼십 단.)

104018 #1 그거, 뭐 그거는양 촐에 메여. 조찍 ㅋ튼 거는 혼 바리 스무 단.(그거, 뭐 그것은요 꿀에 메여. 조짚 같은 것은 한 바리 스무 단.)

104018 @ 아까 스무 단 허고.(아까 스무 단 하고.)

104018 #1 이 촐 같은 건 게부우니까 혼 쪽에 혼 열다섯 단씩 혜영 혼 삼십 단씩.(이 꿀 같은 건 가벼우니까 한 쪽에 한 열다섯 단씩 해서 한 삼십 단씩.)

104018 @ 음.(음.)

104018 #2 삼십 단. 그것보고 혼 바리. 소에 실을 수 있는 거 혼 바리.(삼십 단. 그것보고 한 바리. 소에 실을 수 있는 거 한 바리.)

104018 @ 여기가 확실히 뭇이. 뭇이렌 안 허영 단이렌 허더라고예?(여기가 확실

72) 여기에서 ‘이거’는 낫으로 서서 베는 모양을 가리킨 것이다.

73) ‘좀호미’는 손에 쥐어서 앉아서 꿀 따위를 베는 낫을 말한다. 보통의 ‘낫’을 가리키는 말로, ‘낫’에 대비해서 일컫는 용어다.

히 뜻이. 뜻이라고 안 해서 단이라고 하더라고요?)

104018 #1 단.(단.)

104018 @ 단이 큰 거 같애.(단이 큰 거 같아.)

104018 #1 께 틀어근에 우리 말로 께 틀어근에 출단[출딴] 무끈텐 영 혜영은
애.(매끼 꼬아서 우리 말로 매끼 꼬아서 꿀단 둑는다고 이렇게 해서.)

104018 @ 기지예. 여긴 단으로 허더라고마씸. 그렇게 하고, 그 출 빌 때 출 빌
때덜도 낫으로 후릴 때 노래 부르명덜은 허지 안 협니까?(그렇지요. 여긴 단으로 하
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꿀 벨 때 꿀 벨 때들도 낫으로 후릴 때 노래 부르면서들
은 하지 않습니까?)

104018 #1 그 남자덜 노래하멍 막 혜여. 경 혜도 우린 들으면 들엄주 그거 행은
에 무신 여자들은 기자 돌 트멍에 거나 낫, 낫으로 못 비는 디.(그 남자들 노래하면
서 막 해. 그렇게 해도 우린 듣는다고 듣고 있지. 그거 해서 무슨 여자들은 그저 돌
틈에 거나 낫, 낫으로 못 비는 테.)

104018 @ 예.(예.)

104018 #1 하여튼 간에 두 사람이면은 낫으로 다 빌 디를 다섯 사름 비여. 손으
로 비는 건.(하여튼 간에 두 사람이면 낫으로 다 벨 테를 다섯 사람 베어. 손으로
베는 건.)

104018 @ 음, 두 사람이 허는 거를?(음, 두 사람이 하는 거를?)

104018 # 두 사람이면 낫으론 다 후릴 건디.(두 사람이면 낫으론 다 후릴 건데.)

104018 @ 예.(예.)

104018 #1 그 돌 트멍에 두 사람 들 거 사름으론 다섯 사름 정도 들어. 비는
거.(그 돌 틈에 두 사람 들 거 사람으론 다섯 사람 정도 들어. 베는 거.)

104018 @ 비는 게 맞아.(베는 게 맞아.)

104018 #1 늦엉.(늦어서.)

104019 @ 아무래도 손으로 쯔호미로 허젠히면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출
운반하고 이제 저장허젠히면?(아무래도 손으로 ‘缁호미’로 하려고 하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꿀 운반하고 이제 저장하려고 하면?)

104019 #1 게난 그 운반힐 땐 소애.(그러니까 그 운반할 땐 소애.)

104019 @ 음.(음.)

104019 #1 실어근에 우리, 우리 경우는 어떻 혜시닌 허민 우리 이제 출밧이 저
이제 가시리하고 표선하고 똑 중간 지점이라.(실어서 우리, 우리 경우는 어떻게 했
는가 하면 우리 이제 꿀밭이 저 이제 가시리하고 표선하고 똑 중간 지점이야.)

104019 @ 음.(음.)

104019 #1 꿰 멀주계. 이디서 돌새기⁷⁴⁾엔 하면은.(꽤 멀지. 여기서 ‘돌새기’라고
하면.)

104019 @ 예.(예.)

74) ‘돌새기’는 표선면 표선리하고 가시리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104019 #1 돌새기 멀지 안 허우과게. 그디서 이제 여기 오젠 하면은 이제 네 팀. 네 팀이 혼 팀이 두 개주기.(‘돌새기’ 멀지 안 합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 오려고 하면 이제 네 팀. 네 팀이 한 팀이 두 개지.)

104019 @ 예.(예.)

104019 #1 계난에 앞의 모는 사름이 몰양와근에 집의 왕 부려둬근에 몰아가당 또 오는 거 하고 바꾸는 거라.(그러니까 앞에 모는 사람이 몰아와서 집에 와서 부려두고 몰아가다가 또 오는 거 하고 바꾸는 거야.)

104019 @ 으음.(으음.)

104019 #1 올라가는 건 이제 쥐둬근에 짐 실어오는 거를 이제 마타근에 그 일번 사름이 이번 오는 것도 마탕은에 집이 왕 부려둬근에 그추룩 이번에서 가는 거는 삼번 사름이 마탕은에 몰양가곡 이번 사름안티 메끼고. 그치룩 혜근에 네 팀으로 혜근에 으답 개 혜영은에 그거 하루 종일.(올라가는 건 이제 쥐둬서 짐 실어오는 거를 이제 맡아서 그 일번 사람이 이번 오는 것도 맡아서 집에 와서 부려두고 그처럼 이번에서 가는 거는 삼번 사람이 맡아서 몰아가고 이번 사람한테 맡기고. 그처럼 해서 네 팀으로 해서 여덟 개 해서 그거 하루 종일.)

104019 @ 하루 종일.(하루 종일.)

104019 #1 하루 종일 시꺼낫어. 집의 오민 집만큼 그 출이 출 영 누는 건 초가집 두 개만큼 크게.(하루 종일 실었었어. 집에 오면 집만큼 그 꼴이 꼴 이렇게 가리는 건 초가집 두 개만큼 크게.)

104019 @ 것도 크게예? 어어.(것도 크게요? 어어.)

104019 #2 경혜사 혼 겨울에 다 먹일 거.(그렇게 해야 한 겨울에 다 먹일 거.)

104019 @ 예, 맞수다. 그 출 비는 거는 보통 어느 계절에 혜마씨?(예, 맞습니다. 그 꼴 베는 거는 보통 어느 계절에 해요?)

104019 #1 가을에.(가을에.)

104019 @ 가을에.(가을에.)

104019 #1 먹는 거.(먹는 거.)

104019 #2 추석 혜 먹을 때가 그 때 빌 때라양?(추석 해 먹을 때가 그때 벨 때지요?)

104019 #1 추석 혜 먹어근에 저 추석 혜 먹을 때만 혜도 더웁니다. 흐끔 더 잇어야 하느느름 술하게 찬바람이 이젠 저 찬바람엔 하지마는 그때는 ‘하느느릇⁷⁵⁾ 내 렘찌.’ 허명 이제.(추석 해 먹어서 저 추석 해 먹을 때만 해도 덥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하느바람 살하게 찬바람이 이젠 저 찬바람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하느느릇’ 내리고 있지.’하면서 이제.)

104019 @ 음.(음.)

104019 #1 ‘하느느릇 내 렘찌. 앞으로 씨원하켜.’ 저 한라산으로 찬바람이 솔 하게시리 영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출도 잘 말려야 돼니까 출 비어놓 혼 삼일 동안

75) ‘하느느릇’은 표선리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을 일컫는 말이다.

말리와근에 께 틀엉 무꺼근에 시꺼오는 거라.(‘하느느릇’ 내리고 있다. 앞으론 시원 하겠다.’ 저 한라산으로 찬바람이 살 하게끔 이렇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꿀도 잘 말려야 되니까 꿀 베어놓고 한 삼일 동안 말려서 매끼 꼬아서 묶어서 실어오는 거야.)

104019 @ 음, 게니까 ‘하느느릇’ 불엄찌 행은 느렵찌.(음, 그러니까 ‘하느느릇’ 불고 있다 해서 내린다.)

104019 #1 하느느릇 저.(‘하느느릇’ 저.)

104019 #2 하느느릇.(‘하느느릇’.)

104019 #1 ‘불엄젠’ 헌 ‘내려왔젠’.(‘불고 있다’ 한 ‘내려오고 있다’고.)

104019 @ ‘내려왔젠’. 한라산으로 이렇게. ‘하느느릇 내려왔찌’ 이렇게 헤예? 그러면 이 한라산 방향이 여기에선 어디우과? 동서남북으로 헬 때?(‘내려오고 있다’고. 한라산으로 이렇게. ‘하느느릇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한라산 방향이 여기에선 어딥니까? 동서남북으로 할 때?)

104019 #1 우리가 남인가.(우리가 남인가.)

104019 #2 우리 이쪽이 남, 북. 서북쪽, 서북쪽. 한라산이.(우리 이쪽이 남, 북. 서북쪽, 서북쪽. 한라산이.)

104019 @ 서북쪽.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렌 헤마씨?(서북쪽.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고 해요?)

104019 #1 셋부름.(셋바람.)

104019 @ 동은 셋부름이렌 허곡 서쪽은?(동은 셋바람이라 하고 서쪽은?)

104019 #1 마부름.(마파람.)

104019 @ 서는 마부름하고.(서는 마파람하고.)

104019 #2 북쪽은 하느부름.(북쪽은 하느바람.)

104019 @ 북쪽은 하느부름 하고 남쪽은?(북쪽은 하느바람 하고 남쪽은?)

104019 #2 높새.(높새.)

104019 @ 남쪽.(남쪽.)

104019 #2 높새부름.(높새바람.)

104019 @ 남은 높새렌 헤예? 이것도 막 튼나다.(남은 높새라고 해요? 이것도 매우 다르다.)

104019 #1 셋부름하고 저 마부름하고 사이에서 불어오는 높셋부름.(셋바람하고 저 마파람하고 사이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104019 @ 셋부름하고.(셋바람하고.)

104019 #1 마부름하고 그 사이에서 불어오는 거.(마파람하고 그 사이에서 불어오는 거.)

104019 @ 이게 높새예?(이게 높새요?)

104019 #1 따시 그 마부름하고 하느부름하곡 불어오는 건 갈하느.(다시 그 마파람하고 하느바람하고 불어오는 건 ‘갈하느’.)

104019 @ 갈하늬예. 아, 갈부름은 엇어 여긴?('갈하늬'요. 아, 갈바람은 없어 여긴?)

104019 #1 갈부름엔 아녀고 갈하늬 불엄젠 허고 마부름 불엄젠 허여. 또 기냥 한라산으로 직통 막 불어오는 건 하느부름 불엄젠 허여.(갈바람이 아니고 갈하늬 분다 하고 마파람 분다 해. 또 그냥 한라산으로 직통 막 불어오는 건 하느바람 분다 해.)

104019 @ 음, 하느부름엔도 허고 아까 하느느릇이엔 허고.(음, 하느바람이라고도 하고 아까 '하느느릇'이라고 하고.)

104019 #2 살살 하게시리.(살살 하게끔.)

104019 #1 가을에 살 하게시리 느끼는 그런 바람 불 때에 하느느릇 내렵젠 경.(가을에 살 하게끔 느끼는 그런 바람 불 때에 '하느느릇' 내리고 있다 그렇게.)

104019 @ 음, 그자 평소에 이제 그 하느부름 할 때는 북쪽에서 오는 건디 그냥 가을철에만 하느느릇엔 힘구나예?(음, 그자 평소에 이제 그 하느바람 할 때는 북쪽에서 오는 건데 그냥 가을철에만 '하느느릇'이라고 하고 있군요?)

104019 #1 가을 그 접어들 때 뒤면은 진짜 아침저녁으로 씨원한 바람이 솔하게 시리 불어와. 경하면은 그때에 이제 그 부름에.(가을 그 접어들 때 되면 진짜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솔 하게끔 불어와. 그렇게 하면 그때에 이제 그 바람에.)

104019 #2 느릇 내렵젠.(‘느릇’ 내리고 있다고.)

104019 #1 느릇 내렵젠 해근에 조 같은 거 두드려 놋당 그 아침 일찍. 그 부름 꺼지지 아낼 때. 흐꼼 이시민 부름 꺼져분다 바람 꺼져분다 허멍 서들어근에 불림질 허주게. 불림질.(‘느릇’ 내리고 있다고 해서 조 같은 거 두들겨 놬다가 그 아침 일찍. 그 바람 꺼지지 않을 때. 조금 있으면 바람 꺼져버린다 바람 꺼져버린다 하면서 서둘러서 불림질 하지. 불림질.)

104019 @ 음, 조 할 때도예? 출도 잘 물르컨게예?(음, 조 할 때도요? 꿀도 잘 마르겠네요?)

104019 #1 그 계난 그 계절에라야 이 출도 허곡. 모든 곡식이 다 그때에 다 가을에 다 해 들이기 시작하는 거.(그 그러니까 그 계절에라야 이 꿀도 하고. 모든 곡식이 다 그때에 다 가을에 다 해 들이기 시작하는 거.)

104020 @ 경 허곡예, 삼춘, 이제는 아까 이제 쉐도 그 찍 썰엇당 행은에 또 멱인덴 햇잖아요예? 으물 멱이는 거?(그렇게 하고요, 삼춘, 이제는 아까 이제 소도 그 짚 썰었다가 해서 또 먹인다고 햇잖아요? 여물 먹이는 거?)

104020 #1 여물. 그거 그거 행은에 물 끓여근에 조칵메기⁷⁶⁾ 잇잖아. 조칵메기하고 그 산듸씩 썬 거 그거 하고 그거 해근에 소 죽 쑤는 솟 큰 것이 있어.(여물. 그거 그거 해서 물 끓여서 ‘조칵메기’ 잇잖아. ‘조칵메기’하고 그 밭볏짚 썬 거 그거하고 그거 해서 소 죽 쑤는 솟 큰 것이 있어.)

104020 #2 가마솟.(가마솥.)

76) ‘조칵메기’는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어버리고 난 줄기’를 일컫는 말이다.

104020 @ 가마솥.(가마솥.)

104020 #1 그것에 하나씩 쬐근에 그거 더운 때 주면은 소 이빨 빠진덴 허멍 식어근에 주렌 해근에 식으면은 그거 그때는 바께스 그런 것도 엇어. 장탱이.(그것에 하나씩 쬐서 그거 더울 때 주면 소 이빨 빠진다고 하면서 식어서 주라고 해서 식으면 그거 그때는 양동이 그런 것도 없어. 장태.)

104020 @ 음, 장탱이레.(음, 장태에.)

104020 #1 장탱이에 퍼놔근에 들러다근에 그레 이제 그때는 쉐 앞에는 그 나무로 웬 거 무슨 도고리 닮은 거.(장태에 퍼놓아서 들어다가 그리로 이제 그때는 소앞에는 그 나무로 된 거 무슨 함지박 같은 거.)

104020 #2 남도고리.(함지박.)

104020 #1 낭도고리. 그런 거 소가 장탱이도 깨여불곡 무시거 허난에 나무로 웬거. 소가 발로 발라도 안 깨지는 거 그런 거 행 그레 앗당 비와주민.(함지박. 그런 거 소가 장태도 깨어버리고 무엇 하니까 나무로 된 거. 소가 발로 밟아도 안 깨지는 거 그런 거 해서 그리로 가져다 부어주면.)

104020 #2 계난 낼 만약에 무슨 센 일을 허게 털면은 거 그거 해 준 거 쉐것, 쉐것.(그러니까 낼 만약에 무슨 센 일을 하게 되면 거 그거 해준 거 소여물, 소여물.)

104020 @ 쉐것.(소여물.)

104020 #1 쉐것 쟁.(소여물 쬐서.)

104021 @ 쉐것 쟁.(소여물 쬐서.)

104020 #2 쉐것 쬐근엥에.(소여물 쬐서.)

104021 #1 잘 메경.(잘 먹여서.)

104021 #2 잘 맥이라.(잘 먹여라.)

104021 @ 쉐것예? 쉐죽이렌은 안 허고 쉐것.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 출 빌때 잊어불지 못하는 거? 재미란 거라든가.(소여물요? 소죽이라고 안 하고 소여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요? 꿀 벌 때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재밌던 거라든가.)

104021 #1 에이그, 출 빌 때 나 이제 가만히 생각하민 출 빌 때에 그 벌집 이신 걸 몰란에.(에이그, 출 벌 때 나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출 벌 때에 그 벌집 있는 걸 몰라서.)

104021 #2 벌이 심하고.(벌이 심하고.)

104021 #1 벌집 이신 거 몰란 그 벌집 건드렸당 그 벌덜안티 얻어 쏘안에 흄마죽을 뻔 헷어.(벌집 있는 거 몰라서 그 벌집 건드렸다가 그 벌들한테 얻어 쏘아서 자칫 죽을 뻔 했어.)

104021 @ 음.(음.)

104021 #2 요새 벌, 요새 벌은 독이 아주 심헌데 그 옛날 독은 독이 엉어난 거닮아.(요새 벌, 요새 벌은 독이 아주 심한데 그 옛날 독은 독이 없었던 거 같아.)

104021 #1 그자 따끔따끔 막 근지러왕 막 사람이 완전.(그저 따끔따끔 매우 근

지러워서 막 사람이 완전.)

104021 #2 요즘은 벌초 갔다가 하면은 사람 죽고.(요즘은 벌초 갔다가 하면 사람 죽고.)

104021 @ 예. 아.(예. 아.)

104021 #1 벌집이 요만은 헌 거.(벌집이 요만큼 한 거.)

104021 @ 예.(예.)

104021 #1 영 혜근에 우에는 이만은 등그런 아니, 앞의가 이만은 허고 우트래 올라갈수록 쫄아진 거. 쫄아진 거 이런 디 촐에 부뜬 거를 그거 이신 중 몰라근에 비면은 그 소곱에 벌이 고망에 다 들어갓당 왕하게 나와근에 막 하민 촐 손에 심은 걸로 후려도 후려도 막 달려들곡.(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만큼 등그런 아니, 앞에가 이만큼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 거. 좁아진 거 이런 데 꼴에 붙은 거를 그거 있는 줄 몰라서 베면 그 속에 벌이 구멍에 다 들어갔다가 왕하게 나와서 막 하면 꼴 손에 잡은 걸로 후려도 후려도 막 달려들고.)

104021 @ 음.(음.)

104021 #1 그런 것이 젤 이제 기억에 남아.(그런 것이 젤 이제 기억에 남아.)

104021 @ 예.(예.)

104021 #2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때가 저 감자, 고구마가 한창 날 때주게.(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때가 저 고구마, 고구마가 한창 날 때지.)

104021 @ 예, 예. 감자.(예, 예. 고구마.)

104021 #1 뗏데기.(절간.)

104021 #2 그거 혜당은엥에 저 구웡 먹는 거.(그거 해다가 저 구워서 먹는 거.)

104021 @ 예. 촐 혈 때. 뗏데기도 허고.(예. 꼴 할 때. 절간도 하고.)

104021 #1 뗏데기, 뗏데기.(절간, 절간.)

104021 @ (웃음). 계난 뗏데기 구웡 먹는 거라마씨? 그땐.((웃음). 그러니까 절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땐.)

104021 #2 아니 고구마. 이디선 감자라고 허주게.(아니 고구마. 여기서 ‘감자’라고 하지.)

104021 @ 예, 예, 예.(예, 예, 예.)

104021 #2 육지 사람은 감자 허민 지슬을 말하는 건데 이디선 감자. 감자 거 뽑아다근엥에 막 구웡 먹고 경.(육지 사람은 ‘감자’ 하면 ‘지슬’을 말하는 건데 여기선 ‘감자’. 고구마 거 뽑아다가 막 구워서 먹고 그렇게.)

멜감

104022 @ 촐 비명예? 아,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옛날은 여기는 또 해안이니까 멜감예, 지들케. 여기는 지들케 험니까? 지들커 험니까?(꼴 베면서요? 아,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옛날은 여기는 또 해안이니까 멜감요, ‘지들케’. 여기는 ‘지들케’ 합니

까? ‘지들커’ 합니까?)

104022 #1 친을거[지들꺼](‘친을거’.)

104022 @ 친을거. 그 친을거는 어떤 거 주로 그 지들거로 셋수가?(뗄감. 그 ‘친을거’는 어떤 거 주로 그 헬감으로 썼습니까?)

104022 #1 계난 그 소이 먹다근에 조침 같은 거는 소 초집이 이만은 한덴 허면 은 반벗기 못 먹어. 반은 먹고 반은 못 먹는 거 그런 거 다 헤다근에 그런 거 막아침 훠면은 다 밤새낭 먹당 그 남은 거를 다 벗겼디래 균어내어근에 거 말꽈근에 허고. 또 가시리까지 그 친을커 하레 뎅게서.(그러니까 그 소 먹다가 조짚 같은 거는 소 조짚이 이만큼 한다고 하면 반밖에 못 먹어. 반은 먹고 반은 못 먹는 거 그런 거 다 해다가 그런 거 막 아침 되면 다 밤새 먹다가 그 남은 거를 다 바깥으로 긁어내서 거 말려서 하고. 또 가시리까지 그 헬감 하려 다녔어.)

104022 @ 음, 여기서 가시리까지.(음, 여기서 가시리까지.)

104022 #1 서들⁷⁷⁾, 서들에 구럼폐기낭이여. 그 냄새 막 그 낭은 냄새가 굉장히 나. 그런 남덜 막 헤근에 무껑 그 꼭 행 걷어근에 그걸로 헤근에 무꺼근에 훈 다섯 단씩 져근에 그 가시리. 가시리 가기 전에서 헤여근에 얼추 가시리 다 보여.(‘서들’, ‘서들’에 까마귀쪽나무다. 그 냄새 매우 그 나무는 냄새가 굉장히 나. 그런 나무들 막 해서 묶어 그 칡 해서 걷어서 그걸로 해서 묶어서 한 다섯 단씩 져서 그 가시리. 가시리 가기 전에서 해서 얼추 가시리 다 보여.)

104022 @ 음.(음.)

104022 #1 그렇게 가면은. 경 헤근에 헤오곡. 또 소남밧 하영 이신 사름덜은, 우리는 소낭밧이 한 천 평도 더 훠니까.(그렇게 가면. 그렇게 해서 해오고. 또 소나무 밭 많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소나무밭이 한 천 평도 더 되니까.)

104022 @ 음.(음.)

104022 #1 그 소남 그 가지 다 거슬롼.(그 소나무 그 가지 다 속아내서.)

104022 @ 음.(음.)

104022 #1 가지 거슬꽈근에 그거 헤여근에 무꺼근에 영 데명 놔두면은 비 맞고 벗 맞고 하면 그것이 자기대로 삭아근에 경허면 그거 가져다근에 헬감 같은 건 우리 경우에는 그거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안.(가지 속아다가 그거 해서 묶어서 이렇게 쌓아서 놔두면 비 맞고 별 맞고 하면 그것이 자기대로 삭아서 그렇게 하면 그거 가져다가 헬감 같은 건 우리 경우에는 그거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았어.)

104022 @ 음.(음.)

104022 #1 딴 사람덜이 밧 없고 그 게나제나 그 나무. 나무허곡 솔입.(딴 사람들 이 밭 없고 그 그러나저러나 그 나무. 나무하고 솔잎.)

104024 @ 솔입. 솔입 걷으래도.(솔잎. 솔잎 걷으려도.)

104024 #1 글갱이. 글갱이로 솔입 다 걷어다근에 긁어다근에 그거 허영 멩텅이에 담아근에 정 와근에.(갈퀴. 갈퀴로 솔잎 다 걷어다가 긁어다가 그거 많이 망태기

77) ‘서들’은 나무가 자라는 돌무더기를 말하는 것이다.

에 담아서 쳐 와서.)

104024 #2 계난 고 훠장네는 잘 사는 사름이난 그거고.(그리니까 고 희장네는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거고.)

104024 @ 삼춘이 굽아봅서.(삼촌이 말해보십시오.)

104024 #1 못 사는 사름은 식구들이 세백이 일어낭 저 감자 다 캐영은에 감저 꿀 저 소나 물 주젠 그거 놀어 놔둔 것을 걸 세백이 가근엥에 주인 몰르게 혼 짐씩 경 와사 밥 먹어낫어.(못 사는 사람은 식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 고구마 다 캐어서 고구마줄기 저 소나 말 주려고 그거 가리어 놔둔 것을 걸 새벽에 가서 주인 모르게 한 짐씩 쳐 와야 밥 먹었었어.)

104024 @ 음. 모르게.(음. 모르게.)

104024 #2 그걸로 해서 뱤감도 허곡.(그걸로 해서 뱤감도 하고.)

104024 @ 음.(음.)

104024 #2 또 물 혼 머리 두 머리 있는 거.(또 말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거.)

104024 #1 맥이기도 하곡.(먹이기도 하고.)

104024 #2 맥이기도 하고. 경 헤여낫젠 허난. 경 허고 아까 말허지만 글챙이 헤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허면은 이제 또 낫에는 이제 놈의 밧듸 솔입 걷으래 가고.(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하지만 갈퀴로 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하면 이제 또 낫에는 이제 남의 밭에 솔잎 걷으러 가고.)

104024 #1 소냥밧듸.(소나무밭에.)

104024 @ 음.(음.)

104024 #2 소냥밧듸.(소나무밭에.)

104024 #1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솔입이 이만큼 테며정 잇어도 누구 하나 헤가지 안 하는디 그 당시에는 출밧 그 밧 임제들이 솔입도 못 걷어가게 헷어.(그 당시 때는 지금은 솔잎이 이만큼 쌓아져 있어도 누구 하나 해가지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꿀밭 그 밭 임자들이 솔잎도 못 걷어가게 했어.)

104024 #2 못 걷어가게.(못 걷어가게.)

104024 @ 음. 그렇지. 뱤감 자기들이 해야 돼니까예.(음. 그렇지. 뱤감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요.)

104024 #1 자기네가 헤갈 거. 몰르로. 몰르고 걷당 밧 임제 와가민 막 들아나고.(자기네가 해갈 거. 모르게. 모르게 걷다가 밭 임자 와가면 막 달아나고.)

104024 #2 도망가고.(도망가고.)

104024 @ 음, 경 행은에 단 행은에 짐 정 왓덴 허지 안 허우과에? 이렇게 단 무끄는 거를 보달 친텐 이런 말은 안 합니까? 여기는.(음, 그렇게 해서 단 해서 짐 쳐서 왔다고 하지 안 합니까? 이렇게 단 끓는 거를 ‘보달 친다’고 이런 말은 안 합니까? 여기는.)

104024 #2 솔입은.(솔잎은.)

104024 #1 보달⁷⁸⁾ 행.(‘보달’ 해서.)

104024 #2 이 나무가지에, 소나무 가지덜 그거 영 놔근에 그레 놓 이거 무끄는 거주게. 저 꼭이나 저 줄 비여근엥에.(이 나뭇가지에, 소나무 가지들 그거 이렇게 놓아서 그리로 놔서 이거 묶는 거지. 저 칡이나 저 줄 베어서.)

104024 #1 뻥허게 몰아근에.(뻥 하게 말아서.)

104024 @ 예.(예.)

104024 #1 진짜 것도 기술적으로.(진짜 것도 기술적으로.)

104024 #2 기술자가 아니면 안 돼.(기술자가 아니면 안 돼.)

104024 #1 기술적으로 잘 무꺼근에 헤근에.(기술적으로 잘 묶어서 해서.)

104024 @ 그치록현 거를 보달이렌은 안 굽아?(그렇게한 것을 ‘보달’이라고는 안 말해?)

104024 #1 보달.(‘보달’.)

104024 @ 아, 여기도 보달엔 합니까? 소냥 영 무끈 거를 보달이렌은 안 허여? (아, 여기도 ‘보달’이라고 합니까? 소나무 이렇게 묶은 것을 ‘보달’이라고는 안 해요?)

104024 #1 그건 단.(그건 단.)

104024@ 건 단이렌 허고. 솔잎만 보달 쳤덴예?(건 단이라고 하고. 솔잎만 보달 쳤다고요?)

104024 #2 그건 잘 기술적으로 잘 허면은 집에까지 경 와도 어떻 안 허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해싸지는 거라. 오당 보민 해싸지고.(그건 잘 기술적으로 잘 하면 집에까지 져 와도 어떻게 안 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벌어지는 거야. 오다 보면 벌어지고.)

104024 #1 솔잎이 이만씩 한 거를 이만큼 뭉치난에 그 기술적으로 잘 아녀면 은.(솔잎이 이만씩 한 거를 이만큼 뭉치니까 그 기술적으로 잘 않으면.)

104024 @ 맞수다.(맞습니다.)

104024 #1 자꾸 훌려.(자꾸 훌려.)

104024 #2 훌려.(훌려.)

104024 #1 잘 허는 사람은 완전 뛰어도 혼나 털어지지 아녀게 보달 무끄는 사름덜이 있어. 우린 우리 경우는 그 솔잎 그렇게 하게는 안 다니고.(잘 하는 사람은 완전 뛰어도 하나 털어지지 않게 ‘보달’ 묶는 사람들이 있어. 우린 우리 경우는 그 솔잎 그렇게 하게는 안 다니고.)

104024 @ 음, 소냥밧이 있어놓난예?(음, 소나무밭이 있어놓으니까요?)

104023 #1 소냥밧 이시니까 지들커도 경 헷주마는, 말 영 영 키우니까 말뚱 같은 거 막 퍼내근에 널영 말류와근에.(소나무밭 있으니까 뺨감도 그렇게 했지만, 말 이렇게 이렇게 키우니까 말뚱 같은 거 막 퍼내서 널어서 말려서.)

104023 @ 음.(음.)

104023 #2 걸로 굴뚝.(걸로 아궁이.)

78) ‘보달’은 ‘솔잎을 뭉쳐서 한 짐이 되게 만든 덩이’를 말한다.

104023 #1 굴뚝 살루고.(아궁이 사르고.)

104023 @ 음, 물똥으로?(음, 말똥으로?)

104023 #1 물똥 것덜 쌠 거 벳꼈되레 올레레 어디레 다 널만한 디레 날라다근에. 날라당 그거 행 말류와근에 하곡. 또 소똥은 소똥은 이만씩 하잖아.(말똥 것들 쌠 거 바깥으로 오래로 어디로 다 널만한 데로 날라다가. 날라다가 그거 해서 말려서 하고. 또 소똥은 소똥은 이만씩 하잖아.)

104023 @ 예.(예.)

104023 #2 경 허민 소똥은 하잖아. 그 소똥을 영 현 거 담 고망디레 아사당은에.(그렇게 하면 소똥은 많잖아. 그 소똥을 이렇게 한 거 담 구멍으로 가져다가.)

104023 #2 부지대겨⁷⁹⁾.('부지대겨').

104023 #1 탁탁 고망더레 부지대경놔두민.(탁탁 구멍으로 ‘부지대겨서’ 놔두면.)

104023 #2 물랴.(말려.)

104023 #1 바람 불곡 벳 나곡 무시거 허민 거기에서 와상하게 말라. 그거 영 영 폐여다근에 굴뚝 그 떼고. 굴뚝에 그거 해근에 그 불치 같은 거 다 혜영 메왕 낫당 모풀 같고.(바람 불고 별 나고 무엇 하면 거기에서 바삭하게 말라. 그거 이렇게 이렇게 떼어다가 아궁이 그 때고. 아궁이에 그거 해서 그 재 같은 거 다 해서 모여서 놓았다가 메밀 같고.)

104025 @ 음, 그렇지. 모멸허젠 허민예? 삼춘 아까 이제 소낭밭의 강은에 이 낭 거슬.(음, 그렇지. 메밀하려고 하면요? 삼춘 아까 이제 소나무밭에 가서 이 나무 ‘거슬’.)

104025 #1 가지 치는 거.(가지 치는 거.)

104025 @ 가지 치는 거렌 헷잖아예? 그거는 무신 걸로 거슬렸수가?(가지 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걸로 가지 쳤습니까?)

104025 #2 메호미⁸⁰⁾, 메호미.('메호미', '메호미').

104025 #1 메호미.('메호미').

104025 @ 메호미로. 그러면에 좀호미하고 메호미는 어떤 식으로 트난 거우과? ('메호미'로. 그러면요 '좀호미'하고 '메호미'는 어떤 식으로 다른 겁니까?)

104025 #1 그 좀, 좀호미는이.(그 좀, '좀호미'는.)

104025 @ 예.(예.)

104025 #3 호밋즈룩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긴 거이, 긴 거 가다.(낫자루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긴 거, 이 긴 거 모양.)

104025 @ 이렇게 뛴 거예? 영 현 거예?(이렇게 된 거요? 이렇게 한 거요?)

104025 #1 으.(으.)

104025 @ 이건 좀호미고.(이건 '좀호미'고.)

104025 #1 낫은 영 이 쇄가 이렇게 이렇게 널른 것에 또 이것에 즈력이 영 부

79) ‘부지대겨’는 ‘던져서 불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80) ‘메호미’는 나무를 할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낫을 가리킨다. 지역에 따라서는 ‘장호미’, ‘미호미’라고도 하는데, 일본어 ‘나다’도 쓰인다.

뜬 거.(낫은 이렇게 이 쇠가 이렇게 이렇게 넓은 것에 또 이것에 자루가 영 붙은 거.)

104025 @ 이렇게 뭔 거예? 영 허영은에 여기 좀 두툼한 거?(이렇게 된 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두툼한 거?)

104025 #2 으, 두툼한 거 날 잇는 거.(으, 두툼한 거 날 있는 거.)

104025 @ 아아.(아아.)

104025 #1 이거 주력. 주력 심영 착착 거슬리.(이거 자루. 자루 잡아서 착착 베어내.)

104025 #2 막 무거우며.(매우 무거워.)

104025 @ 예, 이거를 아까 이제.(예, 이것을 아까 이제.)

104025 #1 메호미.(‘메호미’.)

104025 #2 메호미.(‘메호미’.)

104025 @ 메호미. 으, 메호미예? 예, 나대란 말은 안 써마씨? 여기는.? (메호미. 으, ‘메호미’요? 예, ‘나대’란 말은 안 써요? 여기는.)

104025 #2 나다.(나다.)

104025 @ 나다엔예?(‘나다’라고예?)

104025 #1 나다엔도 허고 메호미엔도 허곡.(‘나다’라고도 하고 ‘메호미’라고도 하고.)

104025 @ 나다는 일본말.(‘나다’는 일본말.)

104025 #1 일본말, 일본말.(일본말, 일본말.)

104025 @ 어떤 때는 메호미라는 말은 사라지고 나다가 더 유명해?(어떤 때는 ‘메호미’라는 말은 사라지고 ‘나다’가 더 유명해?)

104025 #1 이제도 나다엔 곤는 것이 쉬어.(이제도 ‘나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

104025 #2 우리는 메호미엔 허곡.(우리는 ‘메호미’라고 하고.)

104026 @ 메호미 이젠 허고예? 예, 알았수다. 그 다음에 혹시 솟도 여기도 구워봤수가?(‘메호미’ 이젠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솟도 여기도 구워봤습니까?)

104026 #1 으. 솟.(으. 솟.)

104026 #2 솟 구웡. 솟 구웡 허는 건 표선린 별로 안 허고 저 가시리.(숯 구워서. 숯 구워서 하는 건 표선린 별로 안 하고 저 가시리.)

104026 #1 안자름⁸¹⁾(‘안자름’.)

104026 @ 안자름 사름덜은 허고예?(‘안자름’ 사람들은 하고요?)

104026 #1 안자름 사름덜 저 무신 낭 ㅊ낭.(‘안자름’ 사람들 저 무슨 나무 참나무.)

104026 #2 ㅊ낭. ㅊ낭숯이 젤 췌고.(참나무. 참숯이 젤 최고.)

104026 #1 ㅊ낭 그 숯 구는 낭이라. 그 ㅊ낭이. 숯 멘드는 낭. 경해사 그 숯이

81) ‘안자름’은 표선면 가시리의 자연 마을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

불이 오래.(참나무 그 숯 굽는 나무야. 그 참나무가. 숯 만드는 나무. 그렇게 해야 그 숯이 불이 오래.)

104026 #2 오래 가고.(오래 가고.)

104026 #1 불 살르민 불기가 오래 가곡, 이 소나무 그런 숯은 빨리.(불 사루면 불기가 오래 가고, 이 소나무 그런 숯은 빨리.)

104026 @ 음.(음.)

104026 #2 금방 없어져.(금방 없어져.)

104026 #1 금방 없어. 불이 꺼져. 계난에 그때는 숯 ㅋ튼 거는 우리 다 산에.(금방 없어. 불이 꺼져. 그러니까 그때는 숯 같은 거는 우리 다 산에.)

104026 #2 산. 가시리 사름덜.(산. 가시리 사람들.)

104026 #1 가시리 안자름 그 사름덜이 장날 그거 숯 그거 놓는 그것도 그 무신 조찍.(가시리 ‘안자름’ 그 사람들이 장날 그거 숯 그거 놓는 그것도 그 무슨 조짚.)

104026 #2 어웩.(역새.)

104026 #1 어웩 헤근에 짜는가.(역새 해서 짜는가.)

104026 #2 어웩.(역새.)

104026 #1 뱅하게 큰 숯단⁸²⁾ 족은 숯단 영 헤근에 가시 안자름서 그때 가시리 사름덜토 고생했주. 그거 숯 헤근에 그 두 단이나 석 단이나 쪘근에 표선이 장에 껅 장 걸영 와시난에.(뱅하게 큰 숯단 작은 숯단 이렇게 해서 가시 ‘안자름’서 그때 가시리 사람들도 고생했지. 그거 숯 해서 그 두 단이나 석 단이나 쪘서 표선 장에까지 걸어서 왔으니까.)

104026 @ 으음.(으음.)

104026 #1 걸영오면 여기서 상 허곡.(걸어서오면 여기서 사서 하고.)

104026 @ 계난 안자름서 숯 묻은 거라예?(그러니까 ‘안자름’서 숯 구운 거라고 요?)

104026 #1 그 숯 궁.(그 숯 구워서.)

104027 @ 궁은에 예, 알았수다. 혹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지들커허멍예, 잊어불지 못하는 거라든가 재미진 거?(구워서 예, 알았습니다. 혹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 멜감하면서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라든가 재밌는 거?)

104027 #1 짐을거 허멍 뭐, 딴 사름덜 보면은 혼 집이 어명도 있고 딸도 잇곡 메누리도 이서도 저 웃드르 가근에 이제 어명이 만약에 웃드르 짐을거 하례 가민지들거를 그 헤근에 그 늘낭 그거 잡낭이주게. 그거.(멜감하면서 뭐, 딴 사람들 보면 한 집에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어도 저 윗마을 가서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윗마을 멜감 하려 가면 멜감을 그 해서 그 날나무 그거 잡나무지. 그거.)

104027 @ 예.(예.)

104027 #1 그거 헤근에 단을 혼 다섯 단이나 정오젠 허민 가시리 가까운 디 표선리 오젠 허민 조그만이나 멀어. 계민 마중덜 이제.(그거 해서 단을 한 다섯 단이

82) ‘숯단’은 역새에 숯을 넣어서 단처럼 만든 것을 말한다.

나 쪄서오려고 하면 가시리 가까운 데 표선리 오려고 하면 조금이나 멀어. 그러면 마중들 이제.)

104027 @ 음.(음.)

104027 #1 메누리나 땅이나 이신 그 어명들은 마중 가근에 더러 두 단이나 영 덜어근에 경오곡. 경하는 거는 우린 봄만 햇주. 우리 경우는 그 밧되서 다 행 밧되 그냥 행 놀엉 내벗다근에 행 마차로 시꺼오든가 소로 행 시꺼오던가 짐은 벨로 안 쪄봐신디.(며느리나 딸이나 있는 그 어머니들은 마중 가서 더러 두 단이나 이렇게 덜어서 쪄서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린 보기만 했지. 우리 경우는 그 밭에서 다 해서 밭에 그냥 해서 가려서 내버렸다가 해서 마차로 실어오든가 소로 해서 실어오든가 짐은 별로 안 쪄봤는데.)

104027 #2 경 허난 그저 밧되덜 지들케 해여근에 놀엉 놔둔 거. 그거 없는 사름들은 지들커 허레 갓당 그것덜 혼 단씩 또시 시꺼.(그렇게 하니까 그저 밭에를 뺄감 해서 가리어 놔둔 거. 그것 없는 사람들은 뺄감 하려 갔다가 그것들 한 단씩 다시 실어.)

104027 #1 다 도둑질덜. (웃음).(다 도둑질들. (웃음).)

104027 @ 우리, 삼촌이 하영 도둑질 헌 모양이구나?(우리, 삼촌이 많이 도둑질한 모양이구나?)

104027 #2 하여튼 그거, 그거 도둑질허영 오당 걸리면 어떻사 도망사 가는지.(하여튼 그거, 그거 도둑질해서 오다가 걸리면 어떻게야 도망이야 가는지.)

104027 @ 음.(음.)

104027 #2 경혜난.(그렇게 했었어.)

104027 @ 맞아예?(맞아요?)

104027 #2 도둑질 안 행은 늘 거 거 하면 얼마 지지도 못하고.(도둑질 안 해서 는 날 거 거 하면 얼마 지지도 못하고.)

104027 @ 맞수다. 그 벤벤헌 거.(맞습니다. 그 무겁디무거운 거.)

사냥

104029 @ 그 혹시 여기 사농도 혜마씨?(그 혹시 여기 사냥도 해요?)

104029 #2 사냥?(사냥?)

104029 @ 예.(예.)

104029 #2 아, 꿩, 꿩.(아, 꿩, 꿩.)

104029 #1 꿩 사냥 옛날엔 꿩도 막 사냥.(꿩 사냥 옛날엔 꿩도 막 사냥.)

104029 #2 그건 막 저 개 데령은엥에 막 떼 짓엉 강 늘앙. 이쪽에서 늘리곡 저쪽으로 날리고 이렇게 혜영 개는 뛰어가는데 사름도 ㅋ찌 응원허곡.(그건 막 저 개 데려서 막 떼 지어서 가서 날아. 이쪽에서 날리고 저쪽으로 날리고 이렇게 해서 개는 뛰어가는데 사람도 같이 응원하고.)

104029 #1 꿩이 지치면 꿩 앞디래 돌아, 돌아산텐 말이 잊지 아녀.(꿩이 지치면

꿩 앞으로 돌아, 돌아선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104029 #2 꿩이 지치면은.(꿩이 지치면.)

104029 #2 놀당 안 놀아.(날다가 안 날아.)

104029 #1 담 고당디래 얼굴만 숨지 몸은 그대로 잇는 거라.(담 구멍으로 얼굴만 숨지 몸은 그대로 있는 거야.)

104029 @ 음.(음.)

104029 #1 눈만 보이면은 다 웬 줄 알곡 고망에 영 헤근에 몸땡이 베겼되 놔근에 심어다근에.(눈만 보이면 다 된 줄 알고 구멍에 이렇게 해서 몸뚱이 바깥에 놔서 잡아다가.)

104029 #1 심고 개가 물어오고.(잡고 개가 물어오고.)

104029 @ 개가 물어오고. 계난 삼촌도 직접 가봄디가?(개가 물어오고. 그러니까 삼촌도 직접 가보셨습니까?)

104029 #1 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그때에 이제 보민 치까데비⁸³⁾.(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그때에 이제 보면 ‘치까데비’.)

104029 #2 음, 치까데비.(음, ‘치까데비’.)

104029 #1 저 발각 영 혜진 치까데비 행 신곡 이디끄장 영 무끄는 거 일본 사름덜 하듯이 총 가져근에 꿩 쏘레 뎅겨낫어. 우리 아버진.(저 발가락 이렇게 혜진 ‘치까데비’ 해서 신고 여기까지 이렇게 묶는 거 일본 사람들 하듯이 총 가져서 꿩 쏘리 다녔었어. 우리 아버진.)

104029 @ 아아.(아아.)

104029 #1 꿩 가근에 쏘아낳.(꿩 가서 쏘아 놓아서.)

104029 @ 잘도 멋쟁이라낫수다예?(잘도 멋쟁이였네요?)

104029 #1 말 저, 그 개 집의 키우는 개 데리곡 헤근에 강 하면 꿩 세 개도 혜 오곡 뭐 하면은.(말 저, 그 개 집에 키우는 개 데리고 해서 가서 하면 꿩 세 개도 해오고 뭐 하면.)

104029 @ 꿩은 어떤 식으로 행 먹는 거?(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먹는 거?)

104029 #1 제사. 꿩은 그때 행은에 이제 그 물 끓여근에 그거 허영 그 털 다 이제 혜불민 꿩은 가죽은 안 먹는 생이랍디다.(제사. 꿩은 그때 해서 이제 그 물 끓여서 그거 해서 그 털 다 이제 해버리면 꿩은 가죽은 안 먹는 모양입니다.)

104029 #2 꿩은 벗경.(꿩은 벗겨서.)

104029 #1 가죽 짹 하게 벗겨변게.(가죽 짹 하게 벗겨버린던데.)

104029 #2 가죽 벗기면은 꿩, 수 장꿩은 아주 멋있거든, 여기.(가죽 벗기면 꿩, 수 장끼는 아주 멋있거든, 여기.)

104029 @ 예.(예.)

104029 #2 그거 해서 말려근에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해낫는데.(그거 해서 말려서 장식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83) ‘치까데비’는 문맥상으로 보아 일본에서 발가락양말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인 것 같다.

104029 #1 그치록 해근에 그거 행 무물국수.(그처럼 해서 그거 해서 메밀국수.)
104029 @ 예.(예.)

104029 #1 그때는 무물하고 산다는 이제 허끔 부잣집이는 그 무물하고 산다는 막 많이 있으니까 그 저 무물해근에 무물국수 행 먹고. 그거 영 영 못아 낭은에 무수 놓곡 가루 놓곡 행 국도 행 먹고.(그때는 메밀하고 밭벼는 이제 조금 부잣집에는 그 메밀하고 밭벼는 매우 많이 있으니까 그 저 메밀해서 메밀국수 해서 먹고. 그거 이렇게 이렇게 마아 놔서 무 넣고 가루 넣고 해서 국도 해서 먹고.)

104029 @ 그 국은 무슨 국 해마씨?(그 국은 무슨 국 해요?)

104029 # 그 거 꿩국, 꿩국 국이엔 허멍 꿩 잡아단에 국 끌렸던 허멍 경 해근에 허영.(그 거 꿩국, 꿩국 국이라고 하면서 꿩 잡아다가 국 끓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서.)

104029 #2 옛날에는 그 무물칼국수 할랴면은 제일 먼저 꿩.(옛날에는 그 메밀칼국수 하려면 제일 먼저 꿩.)

104029 @ 예.(예.)

104029 #2 꿩, 꿩 엇이면은 대신이 닥이엔.(꿩, 꿩 없으면 대신에 닭이라고.)

104029 @ 꿩 대신 닭이라예?(꿩 대신 닭이라고요?)

104029 #2 꿩국수로 알아근에 먹으렌 꿩 대신 닥으로.(꿩국수로 알아서 먹으라고 꿩 대신 닭으로.)

104029 @ 음.(음.)

104029 #2 꿩은 경 쉽게 잡질 못햇어.(꿩은 그렇게 쉽게 잡지를 못했어.)

104029 @ 음.(음.)

104029 #1 그 꿩 잡아오는 집도 보통 집은 아니.(그 꿩 잡아오는 집도 보통 집은 아니.)

104029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4029 #1 그 옛날 그 일본 사름덜 총. 그 일본 사름덜 보민 생이도 잘 쏘웁디다. 우리 친정 그 안튀에, 이젠 안튀 우잣이엔 이젠 허는디 먼안튀엔 집보다 허끔 떨어진 두에 우잣 현디 먼안튀엔 현 디 나무가 막 우거지니까 동박생이 참새 무신 지꾸리 무시거 안 모아지는 생이가 엇어.(그 옛날 그 일본 사람들 총. 그 일본 사람들 보면 새도 잘 씁니다. 우리 친정 그 텃밭에, 이젠 ‘안튀’ ‘우잣’이라고 이젠 하는데 ‘먼안튀’라고 집보다 조금 떨어진 뒤에 텃밭 한데 ‘먼안튀’라고 하는 데 나무가 마구 우거지니까 동박새 참새 무슨 직박구리 무엇 안 모아지는 새가 없어.)

104029 @ 음.(음.)

104029 #1 게믄 일본 사름덜이 웨정 때. 일본 사름덜 와근에 일본 사름덜이 그런 건 잘 씁는 생이라. 생이 젠젠헌 생이덜 씁는 거 보믄.(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왜 정 때. 일본 사람들 와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잘 쏘는 모양이야. 새 작디작은 새 들 쏘는 거 보면.)

104030 @ 삼춘, 이 동네도 노리 내려와낫수가?(삼춘, 이 동네도 노루 내려왔었

습니까?)

104030 #2 노리는 내려오지 않고. 노리는 이 저 서화리에.(노루는 내려오지 않고. 노루는 이 저 세화리에.)

104030 @ 예.(예.)

104030 #2 돈오름⁸⁴⁾.('돈오름').

104030 @ 돈오름.('돈오름').

104030 #2 그디꺼지는 내려왔는데 막 한겨울에 한 일주일 동안 저 바당 쪽으로 노루들 오랫젠 말은 있었는데 잡아보진 못허고.(거기까지는 내려왔는데 막 한겨울에 한 일주일 동안 저 바다 쪽으로 노루들 왔다는 말은 있었는데 잡아보진 못하고.)

104030 @ 노리 사냥은 안 해보고?(노루 사냥은 안 해보고?)

104030 #2 노리 사냥은 이 저 가시리나 서화리.(노루 사냥은 이 저 가시리나 세화리.)

104030 @ 음.(음.)

104030 #2 가시오름이나 저 서화리 동으로 이런 디.('가시오름')이나 저 세화리 동으로 이런 데.)

104030 #1 웃드르.(윗마을.)

104031 @ 웃드르예? 지달이엔 행은 들어봄디가?(윗마을요? '지달'이라고 해서는 들어봤습니까?)

104031 #2 지다리는 많이 잡으매.('지달'은 많이 잡아.)

104031 @ 아, 지다리는 어떤 식으로 잡는 거우과? 거는.(아, '지달'은 어떤 식으로 잡는 겁니까? 거는.)

104031 #2 개.(개.)

104031 #1 지다리는 개. 개 허영 지다리는 지다리 고망을 파근에 막 들어강 거기서 사는 건디 베꼈듸 나와근에 이제 놀다근에 뭐 사름 그적이 나나 개 텅기민 그 고망으로 들어가는 거 뺏당 그거 헤영 파근에 잡아 올 때도 있고.('지달'은 개. 개 해서 '지달'은 '지달' 구멍을 파서 마구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건데 바깥에 나와서 이제 놀다가 뭐 사람 기척이 나나 개 다니면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봤다가 그거 해서 파서 잡아 올 때도 있고.)

104031 #2 막 그저 뭐 돌 막 일루고 헤근에 그디 지달이 들어갔젠 허면은 경행 일루민 개가 막 들어가서 지달이가 막 독현 거라, 거. 개가 막 다쳐.(막 그저 뭐 돌 막 일으키고 해서 거기 '지달' 들어갔다 하면 그렇게 해서 일으키면 개가 막 들어가서 '지달'이 매우 독한 거야, 거. 개가 많이 다쳐.)

104032 @ 아, 기마씨? 지다리도 있고 족제비도 있잖으꽈?(아, 그래요? '지달'도 있고 족제비도 있잖습니까?)

104032 #1 족제비 잇주.(족제비 있지.)

104032 @ 족제비허고 지다리 허믄 지다리는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허

84) '돈오름'은 표선면 세화리 지경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여?(족제비하고 ‘지달’ 하면 ‘지달’은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해요?)

104032 #2 지다리는 훨씬 크주. 족제비는 죽아.(‘지달’은 훨씬 크지. 족제비는 작아.)

104032 #1 복강생이⁸⁵⁾만은 해. 강생이.(복슬강아지만은 해. 강아지.)

104032 #2 족제비는 요만큼뺏기.(족제비는 요만큼밖에.)

104032 #1 요만한 몸뚱이도 이만큼 그늘고, 그늘곡 요만은 헤근에 빨강.(요만한 몸뚱이도 이만큼 가늘고, 가늘고 요만큼 해서 빨강.)

104032 #2 족제비, 족제비는 잡으면은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은 거 잡으민 가죽삭 벗겨내면은 그거 물리면은 목도리도 허고.(족제비, 족제비는 잡으면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은 거 잡으면 가죽 삭 벗겨내면 그거 말리면 목도리도 하고.)

104032 @ 음, 옛날도 그런 식으로 목도리 헌 사람 있어난마씨?(음, 옛날도 그런 식으로 목도리 한 사람 있었어요?)

104032 #2 족제빈 꿀랑지 헨 봇도 만들고.(족제빈 꼬리 해서 봇도 만들고.)

104032 @ 예, 지달이는 뭐를 해?(예, ‘지달’은 뭐를 해?)

104032 #2 지다리는 먹는 거.(‘지달’은 먹는 거.)

104032 #1 지다리는 먹는 거. 지다린 약이엔 해서양?(‘지달’은 먹는 거. ‘지달’은 약이라고 했지요?)

104032 @ 직접 봐보기도 헨마씨? 삼촌.(직접 봐보기도 했어요? 삼촌.)

104032 #2 우린 먹어보기도 허고.(우린 먹어보기도 하고.)

104032 @ 먹어보기도 허고.(먹어보기도 하고.)

104032 #1 우린 건 안 먹언.(우린 건 안 먹었어.)

104032 @ 크기는 어느 정도 해?(크기는 어느 정도 해?)

104032 #2 지다린 거북이보다 크나마다 해.(‘지달’은 거북이보다 크나마나 해.)

104032 #1 복강생이 잡아온 거 보긴 봐신디.(복슬강아지 잡아온 거 보긴 봤는데.)

104032 #2 그것이 엄청 것이 살이 많고 지방이 많아.(그것이 엄청 것이 살이 많고 지방이 많아.)

104032 @ 아아. 굴에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아아. 굴에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104032 #1 오만 것 다 쟁이고 무시거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어놓난에.(오만 것 다 쥐고 무엇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어놓으니까.)

104032 @ 음. 아 거는 다 먹는 거.(음. 아 거는 다 먹는 거.)

104032 #2 족제비는.(족제비는.)

104032 @ 예.(예.)

104032 #2 족제비는 닥이 이렇게 여러 마리 잇으면은 닥 그 커다란 것도 딱 물어가지고.(족제비는 닭이 이렇게 여러 마리 있으면 닭 그 커다란 것도 딱 물어가지

85) ‘복강생이’는 텸이 폭신하게 난 어린 강아지인 ‘복슬강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고.)

104032 @ 예.(예.)

104032 #2 이것만 가져가. 몸뚱인 놔두고.(이것만 가져가. 몸뚱인 놔두고.)

104032 @ 아아.(아아.)

104032 #2 거 히안한 거메.(거 희한한 거야.)

104032 #2 아침에 보면은 닥 족제비 물어갓젠.(아침에 보면 닭 족제비 물어갔다고.)

104032 @ 으음.(으음.)

104032 #2 족제비.(족제비.)

104032 #1 옛날엔 닥 허고 비예기도 잘 못 키웠어. 비예기는 매.(옛날엔 닭 하고 병아리도 잘 못 키웠어. 병아리는 매.)

104032 #2 매천이.(독수리.)

104032 #1 매천이 뎅기당.(독수리 다니다가.)

104032 #2 가마귀.(까마귀.)

104032 #1 저 물어 가불곡. 비예기 새끼덜. 족제비덜 다 죽여불고.(저 물어 가버리고. 병아리 새끼들. 족제비들 다 죽여버리고.)

104032 @ 삼춘 아까 매천이마씨?(삼춘 아까 ‘매천이’요?)

104032 @ 음. 매천이렌 협니까?(음. ‘매천이’라고 합니까?)

104032 #2 독수리, 독수리.(독수리, 독수리.)

104032 #1 이젠 말로 독수리는 그땐 매천이.(이젠 말로 독수리는 그땐 ‘매천이’.)

104032 @ 매천이렌 헨예? 북강생인 어떻 거우과?(‘매천이’라고 했어요? ‘북강생인’ 어떤 겁니까?)

104032 #1 북강생인 강생이 북삭현 거 잇잔녀개. 지달이가 그거 닮아. 잡아온 거 흔 번 봄신디 부각합니다 텔.(복슬강아진 보각한 거 있잖아. ‘지달’이 그거 같아. 잡아온 거 한 번 봤는데 보각합니다, 텔.)

104032 @ 요즘은 북강생이가 잘 안 보이지 안 협니까?(요즘은 복슬강아지가 잘 안 보이지 안 합니까?)

104032 #1 이젠 발발이.(이젠 ‘발발이’)

104032 @ 옛날 북강생이가 아니지 아녀우과양?(옛날 복슬강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104032 #1 큰 개 그 새끼. 그것이 채 개 됨기 전에 강생이 때 북강생이그치 경털이 부각헌 거 곱닥혀여.(큰 개 그 새끼. 그것이 채 개 되기 전에 강아지 때 복슬강아지처럼 그렇게 텔이 보각한 거 고와.)

104032 @ 음.(음.)

104032 #1 지달이가 똑 그 그치록 생겨선게.(지달이 똑 그 그렇게 생겼었어.)

104032 @ 아아, 북강생이가 큰 개 됨기 전에 거를 북강생이렌 허는 거우과?(아아, 복슬강아지가 큰 개 되기 전에 거를 복슬강아지라고 하는 겁니까?)

104032 #2 새끼.(새끼.)

104032 @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104032 #2 아니, 아니, 다른 게 아니고.(아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104032 #1 큰 개 새끼. 그 잇당 북삭한 개.(큰 개 새끼. 그 있다가 푹신한 개.)

104032 @ 으.(으.)

104032 #2 뭐 우리 옛날에 복실강아지여 뭐.(뭐 우리 옛날에 복슬강아지여 뭐.)

104032 @ 으음. 똥개라도 어렸을 때는 쫌 털이 많잖아요?(으음. 똥개라도 어렸을 때는 좀 털이 많잖아요?)

104032 #1 털 막 부각허영.(털 막 부각해.)

104032 @ 그때 하면 그때를 북강생이렌 하는구나예? 아아.(그때 하면 그때를 복슬강아지라고 하는군요? 아아.)

104032 #2 종류가 틀린 것이 아니고.(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104033 @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삼춘은 사냥은 안 해보난 사냥에 얹힌 추억은 어시쿠다예?(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삼춘은 사냥은 안 해보니까 사냥에 얹힌 추억은 없겠네요?)

104033 #1 사냥 무시거 우리 아버지.(사냥 무엇 우리 아버지.)

104033 #2 밥주리 잡으레 다녀나지 아냈수가?(잠자리 잡으러 다녔었지 않았습니까?)

104033 #1 밥주리 잡으레. 밥주리, 밥주리 우리 밥주리가 어디냐 허민 (웃음) 벼들못⁸⁶⁾엔 헌 디가 잊고. 나룩질⁸⁷⁾엔 헌 디가 잊고 강단이⁸⁸⁾란 헌 디가 잊는디 그 것가 혼 참을 할 거라예. 그 거리가. 이디 이 벼들못에서 이제 밥주리 이제 수컷를 잡양 썰에 영 궤여근에 그거 막 하명 이제 암컷 봐지민 온다 온다 허멍 그 밥주리 만 보명 나룩질로부터 장단이⁸⁹⁾장 강 포부뜨젠.(잠자리 잡으러. 잠자리, 잠자리 우리 잠자리가 어디냐 하면 (웃음) ‘벼들못’이라고 한 데가 있고. ‘나룩질’이라고 한 데가 있고 ‘강단이’라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이 한 참을 할 거지요. 그 거리가. 여기 이 ‘벼들못’에서 이제 잠자리 이제 수컷을 잡아서 실에 이렇게 궤어서 그거 막 하면서 이제 암컷 보이면 온다 온다 하면서 그 잠자리만 보면서 ‘나룩질’로부터 ‘강단이’ 까지 가서 맞붙으려고.)

104033 @ 음.(음.)

104033 #1 포부뜨면은 잡젠. 잡은 거는 이 손가락에 다 접정. 날개. 영 헤근에 다 접정 그거 아이고, 그거 하래 얼마나 뎅겼어.(맞붙으면 잡으려고. 잡은 거는 이 손가락에 다 끼워서. 날개. 이렇게 해서 다 끼워서 그거 아이고, 그거 하려 얼마나 다녔어.)

104033 @ 그 밥주리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우과? 무사.(그 잠자리도 종류가 여러 개 아닙니까? 왜.)

86) ‘벼들못’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이다.

87) ‘나룩질’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이다.

88) ‘강단이’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이다.

104033 #2 고치.(고추.)

104033 #1 풋자리⁸⁹⁾.('풋자리').)

104033 #2 풋자리.('풋자리').)

104033 @ 풋자리도 있어?('풋자리' 있어?)

104033 #2 으.(으.).)

104033 @ 풋자리하고 밥주리하고 그튼 거우과?('풋자리'하고 잠자리하고 같은 겁니까?)

104033 #1 밥주리하고 풋자리는 그트지 아녀주만 풋자리는 나무에 째글락현 거.(잠자리하고 '풋자리'는 같지 않지만 '풋자리'는 나무에 조그마한 거.)

104033 @ 으, 이거는 매미 종류 아니? 풋자리는 예?(으, 이거는 매미 종류 아니? '풋자리'는요?)

104033 #1 매미 종륜텐 째글락해도 그렇게 커. 우는 소리는 아주 목청도 좋고.(매미 종륜텐 자그마해도 그렇게 커. 우는 소리는 아주 목청도 좋고.)

104033 @ 삼춘, 밥주리 종류 어떤 거 있어?(삼춘, 잠자리 종류 어떤 거 있어?)

104033 #1 고치밥주리.(고추잠자리.)

104033 #2 표준말로 가을에 나면 고추잠자리 그것보고.(표준말로 가을에 나면 고추잠자리 그것보고.)

104033 @ 그거를 여기서는 고치밥주리?(그거를 여기서는 '고추밥주리'?)

104033 #1 고치밥주리.('고추밥주리').)

104033 @ 또.(또.).)

104033 #1 기냥 밥주리.(그냥 잠자리.).)

104033 #2 그것은 가을에, 가을에 늦은 가을에도 조팟데나 늑물팟듸 앓는 거보고 밥주리. 수, 무신거 수커 닮은 암컷엔 허는가.(그것은 가을에, 가을에 늦은 가을에도 조밭데나 배추밭에 앓는 거보고 잠자리. 수, 무엇 수컷 닮은 암컷이라고 하는 가.)

104033 #1 수쿄 닮은 암쿄 그거양, 수쿄가 꿀랑지가 빨강혀주게이.(수컷 닮은 암컷 그거요, 수컷이 꼬리가 빨갛지.)

104033 @ 예.(예.).)

104033 #1 빨강하니까 암쿄는 꺼멍허여. 이 꼬리가.(빨가니까 암컷은 꺼메. 이 꼬리가.)

104033 @ 음.(음.).)

104033 #1 게민은 그 밥주리를 포부뜨젠 허면은 암코안티는 포부뜨지 안 허여. 수쿄안티만 포부땅. 경하니까 이제 그 암쿄 밥주리를 잡앙양 촌역. 촌역 해근에 막 그거 카근에 물이 빨강캐 만들엉은에 밥주리 꿀랑지에 그 물들이는 거라. 수쿄처럼.(그러면 그 잠자리를 서로 맞붙으려고 하면 암컷한테는 맞붙지 안 해. 수컷한테만 맞붙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암컷 잠자리를 잡아서요 찰흙. 찰흙 해서 마구

89) '풋자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작은 종류의 매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거 타서 물이 빨갛게 만들어서 잠자리 꼬리에 그 물들이는 거야. 수컷처럼.)

104033 @ 경 허민 포부떠?(그렇게 하면 맞붙어?)

104033 #1 어.(어.)

104033 @ 경 허민 포부터 왕?(그렇게 하면 맞붙어, 와서?)

104033 #1 영 영 온다 온다 허명 혜영 하민 그 암탉가 그거 저 그거 수컨 줄 알고 포부뜨는 거라. 경 혜근에 심어근에 이런 디 다 끼와아정 뎅기멍 아이고, 우리 이젯, 이젯 아이덜은 그런, 그런 벼른은 아니 허여.(이렇게 이렇게 온다 온다 하면서 해서 하면 그 암컷이 그거 저 그거 수컷인 줄 알고 맞붙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서 이런 데 다 끼워서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이제, 이제 아이들은 그런, 그런 놀이는 아니 해.)

104033 @ 그런 추억이 있어야 돼는데. (웃음).(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웃음).)

104033 #1 우리 하이튿 요디 벼들못에서 강단이엔 혜영 가젠 허면은 여기서 신산리 가는 것만이 멀 거라.(우리 하여튿 요 ‘벼들못’에서 ‘강단이’라고 해서 가려고 하면 여기서 신산리 가는 것만큼 멀 거야.)

104033 @ 음.(음.)

104033 #1 거리가. 그디를 갓다왔다허명 그 밥주리 잡으레 거 아무 것도 잡았자 아무 필요 어신 걸 경 잡으레.(거리가. 거기를 갓다왔다하면서 그 잠자리 잡으러 거 아무 것도 잡았자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그렇게 잡으라.)

104033 #2 먹지도 않고.(먹지도 않고.)

104033 #1 먹지도 아녀고.(먹지도 안하고.)

104033 @ 놀이주계예?(놀이잖아요?)

104033 #2 놀이. 경해서 어둑으면은 그거 촘 날리기가 아까우면은 썰로 무껑.(놀이. 그렇게 해서 어두우면 그거 참 날리기가 아까우면 실로 묶어서.)

104033 @ 예.(예.)

104033 #2 저 누물팟듸.(저 배추밭에.)

104033 @ 예.(예.)

104033 #2 누물팟듸 영 혜영 누물에 올령 놔두주게.(배추밭에 이렇게 해서 배추에 올려서 놔두지.)

104033 @ 예.(예.)

104033 #2 아침에 돋민 죽어불곡.(아침에 되면 죽어버리고.)

104033 @ (웃음). 죽엉 잊어예?((웃음). 죽어 있다고요?)

104033 #1 죽엉. 그 누물에 무꺼근에 그 살류우젠 그디 혜단 놓은 거주게. 아침의 강 보믄.(죽어서. 그 배추에 묶어서 그 살리려고 거기 해다가 놓은 거지. 아침에 가서 보면.)

104033 @ 아침의 강 보민 다 죽엉 있어. (웃음). 계난.(아침에 가서 보면 다 죽어 있어. (웃음). 그러니까.)

104033 #1 아이구, 우리는 그 생각허민 우스왕. 춘역 헤근에 돌, 돌도 잇당 보민 돌고망 잇어이. 돌고망. 돌은 돌인데 영 고망이 잇어. 거기에 이제 물 놓곡 춘역 놓곡 헤영 물 그거 허영 빨갛게 암쿄에 그거를 이레 꿀랑지 문딱 헤영 말르면은 빨강 허는 거라. 경하민 밥주리, 밥주리 암쿄더레 그거를 수쿄카부텐 다 포부뜨는 거라.(아이고, 우리는 그 생각하면 우스워서. 찰흙 해서 돌, 돌도 있다가 보면 돌구멍 있어. 돌구멍. 돌은 돌인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 거기에 이제 물 넣고 찰흙 넣고 해서 물 그거 해서 빨갛게 암컷에 그거를 이리 꼬리 몽땅 해서 마르면 빨강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잠자리, 잠자리 암컷으로 그거를 수컷인가봐서 다 맞붙는 거야.)

104033 @ 음, 음, 음. 흠치 두 개씩 잡앙예?(음, 음, 음. 한꺼번에 두 개씩 잡아서요?)

104033 #1 빈주룽허게 이런 디 끼와아경 뎅기멍, 아이고, 누게 드렌 허민 주지도 안 허곡 결과적으로 다 죽여불멍 그.(나란하게 이런 데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아이고, 누가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다 죽여버리면서 그.)

104033 @ 맞수다.(맞습니다.)

104033 #1 이제 생각허민 우스와근에 원. 이杰 아이덜은 그치록 벼른 아니 허여.(이제 생각하면 우스워서 참. 이제 아이들은 그처럼 놀이 아니 해.)

104033 @ 계난 놀이를 벼른이렌 허는 구나예?(그러니까 놀이를 ‘벼른’이라 하는군요?)

104033 #1 하지도 못하곡.(하지도 못하고.)

104033 @ 계난 그 놀이를 벼른이렌 허는 구나예?(그러니까 그 놀이를 ‘벼른’이라 하는군요?)

104033 #1 벼른.(‘벼른’.)

104033 @ 아아.(아아.)

104033 #1 벼른을 조그만이 햇어.(‘벼른’을 조그마하게 했어.)

104033 @ 아.(아.)

104033 #1 신 그때는 우리 그땐 신 검은, 검은, 검은 코신인가 검은 반한가 헤영 허민 우리 어머니가 신을 발에 맞인 걸 사주지 아녕은에 그냥.(신 그때는 우리 그땐 신 검은, 검은, 검은 코신인가 검은 반화인가 해서 하면 우리 어머니가 신을 발에 맞은 걸 사주지 안 해서 그냥.)

104033 #2 큰 걸로.(큰 걸로.)

104033 @ 큰 거 사줘야 오래 신.(큰 거 사줘야 오래 신.)

104033 #1 오래 신으라고 큰 거 사주민 그 쏘곱에 소게 담아근에. (웃음). 담아근에 신영 그 밥주리 쫓아근에 뛰어가젠 해봐봐. 거 얼마나 사름 (웃음) 경 허영 그 뎅기당보민 신 이런 디 체지민 집의 오민 어명안티 죽게 얻어맞고. 또 듯날 또 그 거 하례 가는 거라.(오래 신으라고 큰 거 사주면 그 속에 솜 담아서. (웃음). 솜 담아서 신어서 그 잠자리 쫓아서 뛰어가려고 해봐봐. 거 얼마나 사람 (웃음) 그렇게 해서 그 다니다보면 신 이런 데 찢어지면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죽게 얻어맞고. 또

뒷날 또 그거 하러 가는 거야.)

5. 바다일

105001 @ 그렇주마씨. 자 이젠 여기 바당 동네난 바다일도 하영 헤시커라예?
삼촌예?(그렇지요. 자 이젠 여기 바다 동네니까 바다일도 많이 했겠네요? 삼촌요?)

105001 #1 바당일도 뭐.(바다일도 뭐.)

105001 @ 바다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거 이십니까?(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5001 #1 바다에, 바다에는 바다에서 그 듬북.(바다에, 바다에는 바다에서 그
듬북.)

105001 @ 예.(예.)

105001 #1 이제 맙지 아녕 이젠 오염뒈부니까 그것이 엇인디 듬북.(이제 맙지
않아서 이젠 오염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없는데 듬북.)

105001 @ 예.(예.)

105001 #1 듬북이 많이 늘 불어나민 듬북 많이 올르민 그 듬북 해여근에 쪘다
근에 뜯통에. 뜯통에 듬북 혼, 혼 도리 쪽 놔놓 보리짚 또 놓곡 거름 만들젠.(듬북
이 많이 파도 불어나면 듬북 많이 오르면 그 듬북 해서 쪋다가 돼지우리에. 돼지우
리에 듬북 한, 한 도리 쪽 놔놓아서 보릿짚 또 넣고 거름 만들려고.)

105001 @ 예.(예.)

105001 #1 저 듬북걸름⁹⁰⁾ 거 물 들게시리. 그 듬북이 거니까 경 허곡. 우리 경
우엔 미역. 그때는 미역 깁이 잘 가니까 그때 그 당시 때 상군⁹¹⁾덜은 그 혼 해 미
역 즈물민 밧 하나씩 삿덴.(저 ‘듬북거름’ 거 물 들게끔. 그 듬북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경우엔 미역. 그때는 미역 값이 잘 가니까 그때 그 당시 때 ‘상군’들은
그 한 해 미역 캐면 밧 하나씩 삼다고.)

105001 #2 밧 천 평씩.(밭 천 평씩.)

105001 #1 밧 천 평짜리 하나씩.(밭 천 평짜리 하나씩.)

105001 #2 혼 쇠역⁹²⁾, 혼 쇠역. 천 평이 혼 쇠역.(한 ‘쇠역’, 한 ‘쇠역’. 천 평이
한 ‘쇠역’.)

105001 @ 아, 천 평을 혼 쇠역이렌 헛니까?(아, 천 평을 한 ‘쇠역’이라고 합니
까?)

105001 #2 소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것이 천 평. 그것보고 혼 쇠역.(소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것이 천 평. 그것보고 한 ‘쇠역’.)

90) ‘듬북걸름’은 듬북을 말려서 만든 거름을 말한다.

91) ‘상군’은 기량이 뛰어난 잠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92) ‘쇠역’은 소가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밭의 크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105001 @ 예, 예, 예. 쉐 할 수 있는 역이구나, 어.(예, 예, 예. 소 할 수 있는 역이구나, 어.)

105001 #2 혼 쉐역.(한 ‘쇠역’.)

105001 #1 그거 하례 다니고.(그거 하려 다니고.)

105001 #2 상군덜은 그자 그 메역 혼 해 허민 혼 쉐역씩 삿주.(‘상군’들은 그저 그 미역 한 해 하면 한 ‘쇠역’씩 삿지.)

105001 #1 메역철 나근에. 오염이 안 웨니까 메역 허곡. 그때는 미역을 그렇게 이제 까이 잘 가근에 육지서 막 미역 받으려 와. 그땐 양식덜 안 할 때난 건가.(미역철 나서. 오염이 안 되니까 미역 하고. 그때는 미역을 그렇게 이제 까이 잘 가서 육지서 막 미역 받으려 와. 그땐 양식들 안 할 때니까 건가.)

105001 #2 육지 양식덜 안 할 때니까.(육지 양식들 안 할 때니까.)

105001 #1 미역이, 육진 미역이 안 나, 나신그라. 이젠 양식해부난 받으려 안 오주마는. 그 옛날에는 제주도에 미역 받으려 육지 사름덜 막 하영 와. 미역 행은에 풀양 뭐.(미역이, 육진 미역이 안 나, 났는지. 이젠 양식해버리니까 받으려 안 오지 만. 그 옛날에는 제주도에 미역 받으려 육지 사람들 매우 많이 와. 미역 해서 팔아서 뭐.)

105001 @ 돈 되는 건 옛날 메역이라낫구나예?(돈 되는 건 옛날 미역이었군요?)

105001 #1 메역허곡 소라. 소라 전복도 그때는 이덧 사름 일본 사름덜이 와근에 통조림 공장 해근에 하민 그디. 우리 아버진 일본 사름 일본 그 이 간스메 공장에 삼마⁹³⁾. 삼마엔 헌 일본 사름 알아지쿠과? 그 사름하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을 잘 하니까 그디 채용헨에 허민 그 일본서 온 납작보리꼴이여 무시거여 그 웬장도 요만한 양철통으로 막 가져오민 우린 거기서 다 갓당 먹으난 옛날에.(미역하고 소라. 소라 전복도 그때는 여기 사람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조림 공장 해서 하면 거기. 우리 아버진 일본 사람 일본 그 이 통조림 공장에 ‘삼마’. ‘삼마’라고 한 일본 사람 알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을 잘 하니까 거기 채용해서 하면 그 일본서 온 납작보리다 무엇이다 그 된장도 요만큼한 양철통으로 막 가져오면 우린 거기서 다 갔다가 먹으니까 옛날에.)

105001 #2 그 옛날에는 이디 전복도 이따만 것덜.(그 옛날에는 여기 전복도 이만한 것들.)

105001 @ 예.(예.)

105001 #1 점복이 바로 이만씩 헤여. 점복 혼나가 뭐 일 키로 오백씩 나갈 정도로.(전복이 바로 이만씩 해. 전복 하나가 뭐 일 킬로 오백씩 나갈 정도로.)

105001 #2 상군덜 허면은.(‘상군’들 하면.)

105001 #1 요만큼 한 거는 잡지도 아녕 내불고.(요만큼 한 것은 잡지도 않아서 내버리고.)

105001 @ 그게 다 어디 가신고예?(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93) ‘삼마’는 통조림 공장에 관여했던 일본인 이름이다.

105001 #1 아이고, 이젠.(아이고, 이젠.)

105001 #2 양어장덜 해부난.(양어장들 해버리니까.)

105001 #1 양어장 해부나마나 면바당에 점복씨가 다 쳐비연에.(양어장 해버리나마나 면바다에 전복씨가 다 쳐버려서.)

105001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5001 #2 이젠 전복 해녀덜 헤도 전복은 나지 안 하고 기자 양식 전복덜 헤근에 전복죽도 쑤고.(이젠 전복 해녀들 해도 전복은 나지 안 하고 그저 양식 전복들해서 전복죽도 쑤고.)

105003 @ 삼촌, 소라를 이 동네 말로 뭐렌 골아마씨?(삼촌, 소라를 이 동네 말로 뭐라고 말해요?)

105003 #1 구챙기.(‘구챙기’.)

105003 #2 구챙기.(‘구챙기’.)

105003 @ 구챙기? 으. 구챙기.(‘구챙기’)? 으. ‘구챙기’.)

105003 #1 구챙기엔도 고동엔도 허곡.(‘구챙기’라고도 ‘고동’이라고도 하고.)

105003 @ 아, 여기도 고동 표선도 헵구나예?(아, 여기도 ‘고동’ 표선도 하는군요?)

105003 #1 또 구챙기보단 영 족은 건 생쾡이⁹⁴⁾.(또 소라보다 이렇게 작은 건 ‘생쾡이’.)

105003 @ 생쾡이? 아아, 생쾡이 말양 구챙기보다 컹은에 저 뭐 없는 거는?('생쾡이'? 아아, ‘생쾡이’ 말고 소라보다 커서 저 뭐 없는 거는?)

105003 #1 민둥, 민둥구챙기⁹⁵⁾.(민둥, ‘민둥구챙기’.)

105003 #2 민둥구챙기.(‘민둥구챙기’.)

105003 #1 쌀 엇인 거 민둥구챙기.(쌀 없는 거 ‘민둥구챙기’.)

105003 #2 오래 뭔 거.(오래 된 거.)

105003 @ 맨 족은 거는 생쾡이?(아주 작은 거는 ‘생邈이’?)

105003 #1 생邈이. 그 중간에는 구챙기, 민둥구챙기.(‘생邈이’. 그 중간에는 소라, ‘민둥구챙기’.)

105002 @ 여기 감태⁹⁶⁾튼 것도 헤낫수가?(여기 감태같은 것도 했었습니까?)

105002 #2 아, 감태.(아, 감태.)

105002 #1 감태 그때는 약으로 약한덴 허멍.(감태 그때는 약으로 약한다고 하면서.)

105002 #2 옥도챙기 만든텐 헤낫어.(옥도 만든다고 했었어.)

105002 #1 감태 행은에 감태도 즈물앙덜 풀곡 막 헤나서.(감태 해서 감태도 캐서 팔고 막 했었어.)

105002 @ 옥도챙기예?(옥도요?)

94) ‘생邈이’는 작은 소라를 표선면 표선리에서 가리키는 말이다.

95) ‘민둥구챙기’는 늙어서 표면의 살이 없어진 소라를 말한다.

105002 #2 독현 약.(독한 약.)

105002 @ 예, 삼춘, 그 메역 조물젠 하면 언제 메역은 조물아서마씨?(예, 삼춘, 그 미역 캐려고 하면 언제 미역은 캤어요?)

105002 #1 삼월달에.(삼월달에.)

105002 @ 음.(음.)

105002 #2 허제 허주. 허제.(허채 하지. 허채.)

105002 #1 음력 삼월달 웨면은 지금은 삼월달에 음력 삼월달 웨면은 날씨가 따뜻하주마는 그때는 얼어도 그때 웨면은 기자 한 이월 중순경에 할 거라도 속, 속곳⁹⁶⁾만 입어근에 고무옷 안 입어근에 할 때니까.(음력 삼월달 되면 지금은 삼월달에 음력 삼월달 되면 날씨가 따뜻하지만 그때는 얼어도 그때 되면 그저 한 이월 중순경에 할 거라도 속, ‘속곳’만 입어서 고무옷 안 입고 할 때니까.)

105002 @ 예.(예.)

105002 #1 추워부난에 삼월 보름 물끼에 그 미역 허제를 허여.(추워버리니까 삼월보름 물때에 그 미역 허채를 해.)

105002 @ 음.(음.)

105002 #1 경하면은 그 속곳허곡 저 거세기 광목수건 써근에 눈 영 헤근에 그 것만계 물적삼⁹⁷⁾이엔 헤근에.(그렇게 하면 그 ‘속곳’하고 저 거시기 광목수건 써서 물안경 이렇게 해서 그것만 ‘물적삼’이라고 해서.)

105002 @ 예.(예.)

105002 #1 그거 입곡 경 헤근에 하면 얼어근에 거 삼월달에 그 미역 허제도 막얼어. 추웡.(그거 입고 그렇게 해서 하면 추워서 거 삼월달에 그 미역 허채도 매우 추워. 추워서.)

105002 @ 그때 ** 헤갖고.(그때 ** 해가지고.)

105002 #1 경 헤근에 막 불 숨아근에 몸 조금 풀어지민 또 들곡 흐루 세 번씩.(그렇게 해서 막 불 때서 몸 조금 풀어지면 또 들고 하루 세 번씩.)

105002 @ 흐루 세번씩 들어? 게믄 세 번씩 들민 혈 때마다 혼 망사리씩?(하루 세 번씩 들어? 그러면 세 번씩 들면 할 때마다 한 망사리씩?)

105002 #1 혼 망사리씩 행 나민.(한 망사리씩 해서 나면.)

105002 #2 상군덜 쯤은 영 들르지 못허여. 우리 남자들이 가서 그 덕에서 영 세 사람이 들르젠 헤도 들르지 못허주, 뭐.(‘상군’들 쯤은 이렇게 들지 못해. 우리 남자들이 가서 그 언덕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들려고 해도 들지 못하지, 뭐.)

105002 #1 옛날 질구덕⁹⁸⁾.(옛날 ‘질구덕’.)

105002 @ 예.(예.)

105002 #1 질구덕으로 아마 혼 번 헤 오면은 혼 다섯 개 정도 담아놔.(‘질구덕’

96) ‘속곳’은 잡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복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97) ‘물적삼’은 잡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한다.

98)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닐 수 있는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으로 아마 한 번 해 오면 한 다섯 개 정도 담아놔.)

105002 @ 아아.(아아.)

105002 #1 그치록 망사리 막 크게 헤영은에.(그처럼 망사리 아주 크게 해서.)

105002 @ 으.(으.)

105002 #1 크게 헤영 메역도 잘 나와.(크게 해서 미역도 잘 나와.)

105002 @ 그 망사리는 무신 망사리로 햇수가? 그때는.(그 망사리는 무슨 망사리로 했습니까? 그때는.)

105002 #2 테왁, 테왁.(테왁, 테왁.)

105002 #1 그때 망사리는 그거 아니우과? 어월 미뿌쟁이⁹⁹⁾.(그때 망사리는 그거 아닙니까? 억새 새풀.)

105002 #2 미뿌쟁이.(새풀.)

105002 #1 미뿌쟁이 그거 빠당은에 물리왕 그거 영 영 그 던드렁마께¹⁰⁰⁾에서 막 두드령 북삭하게 헤영 다 깨여근에 그거 허영 끄는끄는하게 노 꼬아근에 거 가져근에 망사리.(새풀 그거 뽑아다가 말려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그 ‘던드렁마께’로 막 두들겨서 부각하게 해서 다 깨서 그거 해서 가늘디가늘게 노 꼬아서 거 가져서 망사리.)

105002 #2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갈대.(지금 여기서 말하는 갈대.)

105002 @ 음.(음.)

105002 #1 갈대 거 춤 미뿌쟁이 그거.(갈대 거 참 새풀 그거.)

105002 #1 곧 날 때 그거 뽑아다가.(곧 날 때 그거 뽑아다가.)

105002 @ 억새, 억새. 갈대가 아니고.(억새, 억새. 갈대가 아니고.)

105002 #2 억새, 억새.(억새, 억새.)

105002 #1 그거 가정. 옛날에는 만약에 메느리, 메느리도 물질 잘하는 메느리만 다 구해가젠 했어.(그거 가져서. 옛날에는 만약에 며느리, 며느리도 물질 잘하는 며느리만 다 구해가려고 했어.)

105004 @ 아아, 역시 해안 마을이니까예. 예. 자 이제 하나씩 물어보쿠다예, 여기 그 바당에서 잡을 수 있는 보말? 여기는 뭐렌 힙니까?(아아, 역시 해안마을이니까요. 예. 자 이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고등?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5004 #2 ㅋ메기.(개울타리고등.)

105004 #1 보말 ㅋ메기엔도 허고.(고등 개울타리고등이라고도 하고.)

105004 @ 아, ㅋ메기 허는구나예? ㅋ메기 종류는 어떤 게 있어낫수가?(아, ‘ㅋ메기’ 하는군요? 고등 종류는 어떤 게 있었어요?)

105004 #1 춤 ㅋ메기도 있고 뭐 마타살.(개울타리고등도 있고 뭐 ‘두드력고등’.)

105004 #2 마타살¹⁰¹⁾.(두드력고등.)

99) ‘새풀’의 방언이다

100) ‘던드렁마께’는 ‘던드렁’이라는 돌멩이 위에서 새풀 따위를 깔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말한다.

101) ‘마타살’은 장마에 모아지는 ‘다살’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표준어 ‘두드력고등’에 해당하는

105004 @ 마타살.(두드력고등.)

105004 #1 춤 그 메기.(개울타리고등.)

105004 @ 으.(으.)

105004 #1 따시 거 하나 이신디 보말¹⁰²⁾, 춤 그 메기, 보말.(다시 거 하나 있는데, ‘보말’, 개울타리고등, ‘보말’.)

105004 #2 마타살.(‘두드력고등.’.)

105004 #1 마타살. 것뿐인가.(‘두드력고등.’. 것뿐인가.)

105004 @ 수두리?(팽이고등?)

105004 #2 수두리.(팽이고등.)

105004 #1 수두리, 수두리는 보말하고 틀려. 수두리는 그자 이제는 수두리.(팽이고등, 팽이고등은 ‘보말’하고 달라. 팽이고등은 그저 이제는 ‘수두리’.)

105004 @ 먹보말도 헙니까? 여기도.(밤고등도 합니까? 여기도.)

105004 #1 먹보말은 먹보말 거기서 멘짝현 거. 반들반들하게시리 한 거는 먹보말.(밤고등은 밤고등 거기서 미끈한 거. 반들반들하게끔 한 거는 밤고등.)

105004 @ 그 다음에 막 쓴 것도 잇잖우파?(그 다음에 매우 쓴 것도 있잖습니까?)

105004 #1 쓴 거 그거 마타살.(쓴 거 그거 ‘두드력고등.’.)

105004 @ 쓴 것도 마타살도 잇주마는 동글락허영 돌포말. 아니면은 뭐렌 해야 웨나 웨는고? 남?(쓴 것도 ‘두드력고등.’도 있지만 동그래서 눈알고등. 아니면 뭐라고 해야되나 되는가? 남?)

105004 #1 보말.(‘보말.’.)

105004 @ 으. 보말.(으. ‘보말’.)

105004 #2 그 껌데기가 두툼헌 거. 그것이 쓰는 거 아니?(그 껌데기가 두툼한 거. 그것이 쓴 거 아니?)

105004 #1 수두리.(팽이고등.)

105004 @ 아니, 수두리 말고 이제 보말 그 메기는 얄룬얄룬 껌데기가 얄룬얄룬 허지 안 헙니까? 그런데 얄룬헌 거 말고.(아니, 팽이고등 말고 이제 ‘보말’ 개울타리고등은 얇디얇은 껌데기가 얇디얇은 하지 안 합니까? 그런데 얇은 거 말고.)

105004 #2 두툼헌 거.(두툼한 거.)

105004 #1 아이고 그거. (웃음).(아이고 그거. (웃음).)

105004 #2 쓴 거.(쓴 거.)

105004 #1 먹으민 쓰는 거.(먹으면 쓴 거.)

105004 @ 썬데기?(‘썬데기’?)

105004 #1 먹으민 쓰는 거?(먹으면 쓴 거?)

105004 @ 생각해영 놔둬봄서.(생각해서 놔둬보세요.)

명칭이다.

102) ‘보말’은 표선면 표선리에서 고등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105004 #1 건 해녀들안티 물어봐야겠다.(건 해녀들한테 물어봐야겠다.)

105004 @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잡아낫수가?(그거는 어떤 식으로 잡았었습니까?)

105004 #1 그건 그때 우리 그 시절에는 그것이 뭐 바당, 바다에만 가민 뭐.(그건 그때 우리 그 시절에는 그것이 뭐 바다, 바다에만 가면 뭐.)

105004 #2 돌만 일루민.(돌만 일으키면.)

105004 #1 돌만 일루민 뭐 수두룩하게시리 그것이 있어. 춤ゞ메기로부터 보말까지 수두리까지 그 안네에.(돌만 일으키면 뭐 수두룩하게끔 그것이 있어. 개울타리로부터 ‘보말’까지 팽이고등까지 그 안네.)

105004 @ 예.(예.)

105004 #1 게들레기까지.(소라게까지.)

105004 @ 게들레기.(소라게.)

105004 #2 으, 저 소라 작은 거 생쾡이 그런 거끼지 막 있어.(으, 저 소라 작은 거 ‘생쾡이’ 그런 거까지 막 있어.)

105004 #1 있어난디 이젠.(있었는데 이젠.)

105004 @ 오분제긴 여기 뭐렌 협니까?(오분재긴 여기 뭐라고 합니까?)

105004 #1 조개.(‘조개’.)

105004 @ 조개렌 허고예? 여긴 조개렌 허고. 경 허고 점복도 부텅 이시고.(‘조개’라고 하고요? 여긴 조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전복도 붙어서 있고.)

105004 #1 점복도 꺼끄며¹⁰³⁾도 있고 전복 마타살. 마드레¹⁰⁴⁾.(전복도 ‘꺼끄며’도 있고 전복 ‘두드려고등’. ‘마드레’.)

105004 @ 마드레.(시볼트전복.)

105004 #1 마드레, 마드레 점복 잡앗저 뭐.(시볼트전복, ‘시볼트전복 전복 잡았다’ 뭐.)

105004 @ 마드레는 어떤 식으로?(시볼트전복은 어떤 식으로?)

105004 #1 마드레는, 그 마드레는이 영 점복이 전복이면서도 납작하게시리.(‘마드레’, 그 ‘마드레’는 이렇게 전복이 전복이면서도 납작하게끔.)

105004 @ 음.(음.)

105004 #1 보기애 납작하게 생긴 것은 마드레. 그거 그 저 꺼끄먹엔 헌 거는 그 허꼼 영 옴팡하면서 요 정도 낭 큰 거. 크지 아녀근에 헌 거.(보기애 납작하게 생긴 것은 ‘마드레’). 그거 그 저 ‘꺼끄며’이라고 한 거는 그 조금 이렇게 움푹하면서 요 정도 나서 큰 거. 크지 안 해서 한 거.)

105004 @ 건 꺼그먹? 으.(건 ‘꺼그먹’? 으.)

105004 #1 꺼끄먹.(‘꺼끄먹’.)

105004 @ 으.(으.)

105004 #1 그 다음에 전복 생복.(그 다음에 전복 생복.)

103) ‘꺼끄며’은 작은 전복을 일컫는 말이다.

104) ‘마드레’는 전복의 한 가지다.

105004 @ 생복. 생복하고 껴끄먹하고는 트난 거?(생복. 생복하고 ‘꺼끄먹’하고는 다른 거?)

105004 #1 아니, 저 점복은 막 큰 거를 말해영 전복.(아니, 저 전복은 매우 큰 거를 말해서 전복.)

105004 @ 음.(음.)

105004 #1 껴끄먹은 그 이제 족은 거.(‘꺼끄먹’은 그 이제 작은 거.)

105004 @ 족은 거에? 전복이라도 족은 거 중에 이렇게 오목한 것을 거끄먹하고, 아까 ‘마드레’는?(작은 거요? 전복이라도 작은 거 중에 이렇게 오목한 것을 ‘거끄막’하고, 아까 ‘마드레’는?)

105004 #1 마드렌 납작헌 거.(‘마드레’는 납작한 거.)

105004 @ 아, 마드레는.(아, ‘마드레’는.)

105004 #1 크면서도 납작한 것이 있어. 옴탕한 거 말고. 베짝헌¹⁰⁵⁾ 거 말고.(크면서도 납작한 것이 있어. 오목한 거 말고. 아주 납작한 거 말고.)

105004 @ 삼춘, 계믄 암천복하고 수첨복은 어명 트나?(삼춘, 그러면 암전복하고 수전복은 어떻게 달라?)

105004 #1 계난 그 수첨복은 그 납작헌 거고 암천복은 그 깊은 거. 옴탕한 거.(그러니까 그 수전복은 그 납작한 거고 암전복은 그 깊은 거. 오목한 거.)

105004 @ 음, 경 허영은에 이제 하고, 새끼, 전복 새끼는 뭐렌 협니까?(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새끼, 전복 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105004 #1 전복 새끼 그 껴끄먹 새끼. 껴끄먹.(전복 새끼 그 ‘꺼끄먹’ 새끼. ‘꺼끄먹’.)

105004 #2 껴끄먹엔 하고.(‘꺼끄먹’이라 하고.)

105004 #1 껴끄먹이지 무시거.(‘꺼끄먹’이지 무엇.)

105004 #2 저 무신거냐? 오분작, 오분작은 뭐?(저 무엇이냐? 오분자기, 오분자기는 뭐?)

105004 #1 오분작 조개주게. 오분작은.(오분자기 ‘조개’지. 오분자기는.)

105004 @ 오분작은 조개고. 셈피역인가 셀피역 이런 말은 안 해?(오분자기는 ‘조개’고. ‘셈피역’인가 ‘셀피역’ 이런 말은 안 해?)

105004 #1 그런 말은 안 해.(그런 말은 안 해.)

105005 @ 예, 알았수다. 껴끄먹. 음, 자 그 다음에 깅이? 여긴 깅이렌 협니까? 깅이렌 협니까?(예, 알았습니다. ‘꺼끄먹’. 음, 자 그 다음에 계? 여긴 ‘깅이’라 합니까? ‘겜이’라 합니까?)

105005 #1 쟁이.(‘겜이’.)

105005 #2 쟁이.(‘겜이’.)

105005 @ 여긴 쟁이. 쟁이도 종류도 으라 캡디다예?(여긴 계. 계도 종류도 여러 개던데요?)

105) ‘베짝헌’은 전복 모양이 납작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 105005 #1 쟁이도 여러 가지다 잇주.(게도 여러 가지 다 있지.)
- 105005 #2 똥챙이¹⁰⁶⁾, 똥챙이.(‘똥챙이’, ‘똥챙이’.)
- 105005 @ 똥챙이도 잇고.(‘똥챙이’도 있고.)
- 105005 #1 춤챙이.(‘참개’.)
- 105005 #2 춤챙이.(‘참개’.)
- 105005 #1 따시 게들레기.(다시 소라게.)
- 105005 @ 예.(예.)
- 105005 #1 그 뭐냐? 그 된장찌개 해먹곡 허는 거 그 쟁이 이름 무신거여마는.
(그 뭐냐? 그 된장찌개 해먹고 하는 거 그 게 이름 무엇이다만.)
- 105005 @ 식챙이?(‘식챙이’?)
- 105005 #1 식챙이¹⁰⁷⁾.(‘식챙이’.)
- 105005 @ 으.(으.)
- 105005 #1 식챙이.(‘식챙이’.)
- 105005 @ 음.(음.)
- 105005 #1 그거 그 종류.(그거 그 종류.)
- 105005 @ 식챙이하고 아까 똥챙이는 어떻 생긴 걸 똥챙이렌 협니까?(‘식챙이’하고 아까 ‘똥챙이’는 어떻게 생긴 걸 ‘똥챙이’라 합니까?)
- 105005 #2 거멍현 건데 똥챙이가 젤 맛이 있어.(검은 건데 ‘똥챙이’가 젤 맛이 있어.)
- 105005 @ 아, 맛이 있어?(아, 맛이 있어?)
- 105005 #1 껍데기, 껍데기 영 저 선이 짹짜짜 짹어져서. 똥챙이는.(껍데기, 껍데기 이렇게 저 선이 짹짜짜 짹어져서. ‘똥챙이’는.)
- 105005 #2 똥챙이는 물 없는데 우에, 우에꺼지 막 올라오랑 잡식성이주게.(‘똥챙이’는 물 없는데 위에, 위에까지 마구 올라와서 잡식성이지.)
- 105005 @ 예.(예.)
- 105005 #1 똥 쌈 거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똥챙이, 똥챙이하는데 그것이 젤 맛잇어.(똥 쌈 거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똥챙이’, ‘똥챙이’하는데 그것이 젤 맛잇어.)
- 105005 @ 아, 춤챙이는 어떤 거우과?(아, ‘참개’는 어떤 껍니까?)
- 105005 #1 춤챙이는 아래 아래 돌 밑에 이신 거.(‘참개’는 아래 아래 돌 밑에 있는 거.)
- 105005 #2 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좀 크고 춤챙이는.(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좀 크고 ‘참개’는.)
- 105005 @ 아, 춤챙이는 커예? 아까 식챙이는?(아, ‘참개’는 커요? 아까 ‘식챙이’는?)

106) ‘똥챙이’는 게의 일종이다.

107) ‘식챙이’는 게의 일종이다.

105005 #1 식챙이는 빨강헌 거 이만은 헌 거 저 무슨 웬장찌개 그거 하는 식챙이.(‘식챙이’는 빨간 거 이만큼 한 거 저 무슨 된장찌개 그거 하는 ‘식챙이’.)

105005 #2 식당에 가면 두 개 딱딱 잘라서 그것보고.(식당에 가면 두 개 딱딱 잘라서 그것보고.)

105006 @ 음, 그런 식으로 이제하고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횃불 헤여근에 바당에 강 뭐 잡아낫수가? 횃바리¹⁰⁸⁾?(음, 그런 식으로 이제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횃불 해서 바다에 가서 뭐 잡았습니까? ‘횃바리’?)

105006 #1 횃불 ㅋ메기. 초파일날.(횃불 개울타리고등. 초파일날.)

105006 @ 예.(예.)

105006 #1 초파일날 저 기신새¹⁰⁹⁾.(초파일날 저 ‘기신새’.)

105006 @ 예.(예.)

105006 #1 기신새, 새 지붕에 그 새 말고 그 집 일 때 영 영 저 ㅎ꼼 높은 거 영 내리운 거 그거 가져근에 막 무껑. 이만은허게 무껑 이만은 슬지게 이만하게 무꺼근에 쪘아져 강은에 그것에 불 부찌근에 그거 영 영영 비추멍 그 ㅋ메기 잡아낫 어. 게난 횃불 봄근에 ㅋ메기 나온덴 그 헤근에 거 행은에.(‘기신새’, 떠 지붕에 그 떠 말고 그 집 일 때 이렇게 이렇게 저 조금 높은 거 이렇게 내린 거 그거 가져서 막 둑어서. 이만하게 둑어서 이만큼 살찌게 이만하게 둑어서 쪊가져 가서 그것에 불 붙여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비추면서 그 개울타리고등 잡았었어. 그러니까 횃불 봄서 개울타리고등 나온다고 그 해서 거 해서.)

105006 @ 그걸 횃바리엔 협니까?(그걸 ‘횃바리’라고 합니까?)

105006 #1 횃바리. 그거 헤근에 혜영 그 ㅋ메기 밤의 강 ㅋ메기 하영 잡아낫어서.(‘횃바리’. 그거 해서 해서 그 개울타리고등 밤에 가서 개울타리고등 많이 잡았었어.)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초파일날 불 보젠 이젠 ㅋ메기가 나온덴 헤근에. 초파일날 불 그 초, 그 초파일날 등 싸잖아.(초파일날 불 보려고 이젠 개울타리고등이 나온다고 해서. 초파일날 불 그 초, 그 초파일날 등 켜잖아.)

105006 @ 예, 예, 예.(예, 예, 예.)

105006 #1 게난 그런 불 보젠 ㅋ메기가 남왑전 혜영 초파일날 저녁에는 ㅋ메기가 하영 나온덴 혜영 그치룩허영 잡으레 뎅겨낫어. 그거 찍, 훠, 훠엔 허주. 훠.(그러니까 그런 불 보려고 개울타리고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초파일날 저녁에는 개울타리고등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처럼 해서 잡으려 다녔었어. 그거 짚, 쐐, 훠라고 하지. 훠.)

105006 @ 훠예?(쐐요?)

105006 #1 훠 그거 쪽근에 잘못혀당 그 불에 그 횃불, 훠례 부찌벼 놔근에 속못

108) ‘횃바리’는 밤에 횃불을 켜고 바닷가에서 고등 따위를 잡는 일을 말한다.

109) ‘기신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 떠를 말한다.

불영 물더레 다 끄명 얼먹곡 경.(홰 그거 쳐서 잘못하다가 그 불에 그 횃불, 헤에 불여버리고 나서 사뭇 불이랑 물로 다 끄면서 연결먹고 그렇게.)

105006 @ 음. 게영 그 경 가는 거를 훼렌 헨예? 아아. 게영 그 횃바리 헤영은에 저기 ㅋ메기 말고 다른 건 안 나와?(음. 그렇게 해서 그 쳐서 가는 거를 헤라고 했어요? 아아. 그렇게 해서 그 ‘횃바리’ 해서 저기 개울타리고동 말고 다른 건 안 나와?)

105006 #1 아이, 문어도 나오고.(아니, 문어도 나오고.)

105006 #2 문어도 나와.(문어도 나와.)

105006 #1 막 그 바당에 신 거는 그 굿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막 그 바다에 있는 것은 그 가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

105006 #2 쟁이덜토 막 올라오고.(게들도 막 올라오고.)

105006 #1 쟁이도 나오고 으.(게도 나오고 으.)

105006 @ 계믄 밤에 가민 하영 잡양 오는구나?(그러면 밤에 가면 많이 잡아서 오는구나?)

105006 #1 봐지는 냥 막 잡아. 문어 새끼덜토 기어 다니믄 잡고.(보이는 대로 막 잡아. 문어 새끼들도 기어 다니면 잡고.)

105006 @ 이 바당에도 낙지 ㅋ뜬 것도 잇수가?(이 바다에도 낙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105006 #1 낙지 잇어.(낙지 있어.)

105006 @ 아, 낙지.(아, 낙지.)

105006 #1 밤의덜 가근에 요즘도 밤의 강 낙지 잡아와. 우리 동네 굴밥 집의 그 스나이.(밤에들 가서 요즘도 밤에 가서 낙지 잡아와. 우리 동네 굴밥 집의 그 남자.)

105006 @ 으.(으.)

105006 #1 그 횃불 그 무신 불 헤근에 그 낙지 막 잡아다근에 우리 집의도 아경 오민 먹고 헷어.(그 횃불 그 무슨 불 해서 그 낙지 막 잡아다가 우리 집에도 가져 오면 먹고 했어.)

105009 @ 이 바당에서도 옛날 멜 거리고 헤낫수가?(이 바다에서도 옛날 멸치 뜨고 했었습니까?)

105009 #1 멜 거림. 통, 통 이신 디 물 솜빡 들민 그 멜 수룩 다니다근에 그 통에 와근에 노는디 물 싸불민 나가지 못 헤근에 그 통에 가두와지민 뭐 차롱 아경 가는 사름, 족바지¹¹⁰⁾ 렌들양 가는 사름, 뭐 가근에 거려근에 그거 가경 것도 담곡.(멸 뜸. 통, 통 있는 데 물 가득 들면 그 멸치 때로 다니다가 그 통에 와서 노는데 물 써버리면 나가지 못 해서 그 통에 가둬지면 뭐 채롱 가져서 가는 사람, ‘족바지’ 만들어서 가는 사람, 뭐 가서 떠서 그거 가져서 젓도 담고.)

105009 @ 으.(으.)

110) ‘족바지’는 멸치나 자리 따위를 뜯 수 있게 만든 손잡이가 있는 그물이다. 표준어 ‘뜰채’에 해당하는 말이다.

105009 #1 페르치도 헤여근에.(멸치도 해서.)

105009 #2 경현디 여기 사람들은 자기만 먹을라고 허는 것이 아니라.(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105009 @ 예.(예.)

105009 #2 그런 통에다 물 저, 멜 들면은 “멜 들었저, 멜 들었저” 막 웬다고.(그런 통에다 물 저, 멸치 들면 “멸치 들었어, 멸치 들었어” 막 외친다고.)

105009 @ 음, 음, 음.(음, 음, 음.)

105009 #2 다 나와서 잡으라고.(다 나와서 잡으라고.)

105009 @ 음.(음.)

105009 #2 이렇게 하지. 요즘 사름 같으면 자기가 가서 해 올 건데.(이렇게 하지. 요즘 사람 같으면 자기가 가서 해 올 건데.)

105009 @ 예.(예.)

105009 #2 아이고, “갯谙¹¹¹⁾에 멜 들언.” 막 선전허면은 막 가는 거야.(아이고, “갯谙”에 멸치 들었어.” 막 선전하면 막 가는 거야.)

105009 @ 음.(음.)

105009 #1 족바지 들른 사름. 족바지 들른 사름은 ㅎ꼼 그거 바당에 관심 이신 사름 족바지 만들양 놋당 하곡. 경 아년 사름덜은 차롱 들령 가는 사름, 구덕 들령 가는 사름.(뜰채 든 사람. 뜰채 든 사람은 조금 그거 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 뜰채 만들어서 놨다가 하고. 그렇게 않은 사람들은 채롱 들어서 가는 사람, 바구니 들어서 가는 사람.)

105009 @ 음, 음.(음, 음.)

105009 #1 겟 혜영 가도 멜 물쌍 가멍 미쳐 못 나간 거는 그 빌례 우의.(그렇게 해서 가도 멸치 물써서 가면서 미쳐 못 나간 거는 그 너럭바위 위에.)

105009 @ 예.(예.)

105009 #1 빌례 영 호랑겐이¹¹²⁾에.(너럭바위 이렇게 ‘호랑겐이’에.)

105009 @ 음.(음.)

105009 #1 멜덜이 소복소복 다 잇어.(멸치들이 소복소복 다 있어.)

105009 @ 음.(음.)

105009 #1 호랑겐이에.(‘호랑겐이’에.)

105007 @ 음, 삼춘 아까 그 멜 헐 때 이렇게 통 햇잖우파예? 그 통은 직접 영 사람이 만든 거우파? 아니면?(음, 삼춘 아까 그 멸치 할 때 이렇게 통 햇잖습니까? 그 통은 직접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105007 #1 자연.(자연.)

105007 #2 자연.(자연.)

105007 @ 자연으로.(자연으로.)

111) ‘갯谙’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의 지명 이름이다.

112) ‘호랑겐이’는 바닷가 바위 가운데 길게 흙이 진 곳을 표선리에서 이르는 말이다.

105007 #1 자연적으로 통이 다 뭔 거, 다.(자연적으로 통이 다 된 거, 다.)

105007 @ 아.(아.)

105007 #1 그 통이 자연적으로.(그 통이 자연적으로.)

105007 @ 무슨 통 무신 통 합니까? 여기 이신 거?(무슨 통 무슨 통 합니까? 여기 있는 거?)

105007 #1 무신 바당 이름 글으멍 뭐, 뭐.(무슨 바다 이름 말하면서 뭐, 뭐.)

105007 #2 갯놉통¹¹³⁾.('갯놉통').

105007 #1 갯놉통.('갯놉통').

105007 @ 갯놉통.('갯놉통').

105007 #1 물통여¹¹⁴⁾.('물통여').

105007 #2 물통여.('물통여').

105007 #1 물통여 또 뭐냐.('물통여' 또 뭐냐.)

105007 #2 저 서쪽에 가면 성코지¹¹⁵⁾, 성코지라고.(저 서쪽에 가면 '성코지', '성코지'라고.)

105007 @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돌을 이렇게 해서 원담 같은?(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돌을 이렇게 해서 원담 같은?)

105007 #1 저늘레통¹¹⁶⁾. 무시 거.('저늘레통'. 무슨 거.)

105007 @ 갯담처럼 허진 아녀마씨?('갯담'처럼 하진 않아요?)

105007 #2 원담 다나지는 아녀서예?(원담 쌓지는 않았지요?)

105007 #1 원담 그 물통여는 원담 다낫수다.(원담 그 '물통여'는 원담 쌓았었습니다.)

105007 #2 물통여?('물통여')?

105007 @ 원담도 잇긴 잇어낫수가? 원담 아녀도 자연 통이 핫구나예?(원담도 잇긴 있었습니까? 원담 아니어도 자연 통이 많았군요?)

105007 #1 원담 헌 거는 기자 머흘만 짹 이신 디 평온하게 무슨 여 엇이 머흘만 이신 디 중간에 담 헨 딱 영 쌓아놔선게.(원담 한 거는 그저 돌무더기만 짹 있는데 평온하게 무슨 여 없이 돌무더기만 있는 데 중간에 담 해서 딱 이렇게 쌓아놨던 데.)

105007 @ 으, 거기도 멜 들고 허잖아요?(으, 거기도 멀치 들고 하잖아요?)

105007 #1 그 안에 멜 들곡 고기도 들어왓당.(그 안에 멀치 들고 고기도 들어왔다.)

105007 #2 거기는 숭어 ㅋ튼 거 많이 들어. 원담으로.(거기는 숭어 같은 거 많이 들어. 원담으로.)

113) '갯놉통'은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 '갯놉' 지경에 있는 바위로 둘러싸인 웅덩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114) '물통여'는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의 여 이름 가운데 하나다.

115) '성코지'는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의 곳 이름의 하나다.

116) '저늘레통'은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 '저늘래' 지경에 있는 바위로 둘러싸인 웅덩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105007 #1 송어 막 뛰여.(송어 막 뛰어.)

105007 #2 큰 고기덜토 마 들고 원담 안에는.(큰 고기들도 마 들고 원담 안에 는.)

105007 @ 원담에?(원담에?)

105007 #1 들어왔당 나가지 못허민 가두와지민 사름덜이 잡아다근에 먹고.(들어 왔다가 나가지 못하면 가둬지면 사람들이 잡아다가 먹고.)

105007 @ 요즘도 그런 거 있수가?(요즘도 그런 거 있습니까?)

105007 #1 이젠 엊어.(이젠 없어.)

105007 @ 송어원이여 뭐여 이런 식으로?(송어원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105007 #1 멜수룩도 엊어. 멜도.(멸치 떼도 없어. 멸치도.)

105007 @ 멜 수룩이 엊구나, 이젠예?(멸치 떼가 없구나, 이젠요?)

105007 #1 멜 원 안 들어. 옛날엔 허꼬만 허민 “멜 들었덴” 막 허는디.(멸치 전 혀 안 들어. 옛날엔 조금만 하면 “멸치 들었다” 막 하는데.)

105007 @ 으, 삼춘 아까 말 중에 호랑쟁이렌 헨계마는 호랑쟁인 뭐우과?(으, 삼 촌 아까 말 중에 ‘호랑쟁이’라고 하더니만 ‘호랑쟁이’는 뭡니까?)

105007 #1 호랑쟁이 돌 이렇게 골 긋어진 거. 그 골 긋어지면서 파진 거게.(‘호 랑쟁이’ 돌 이렇게 골 그어진 거. 그 골 그어지면서 파있는 거지.)

105007 @ 으음, 건 호랑쟁이렌 혜예?(으음, 건 ‘호랑쟁이’라고 해요?)

105007 #1 이것이 만약에 빌레, 돌이면 이치룩 파져서 인치룩. 인치룩 파진 디 이런 디 그메기도 있고 생챙이¹¹⁷⁾도 잇곡 멜 들 때는 이런 호랑쟁이에 멜이 혜영케 거 하민 우린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무신 족바지에 그런 거 엇이난 강 그런 거 그 빌레에.(이것이 만약에 너럭바위, 돌이면 이처럼 파져서 이처럼. 이처럼 파진 데 이 런 데 개울타리고등도 있고 ‘생챙이’도 있고 멸치 들 때는 이런 ‘호랑쟁이’에 멸치가 하얗게 거 많으면 우린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뜰채에 그런 거 없으니까 가서 그런 거 그 너럭바위에.)

105007 @ 예.(예.)

105007 #1 그 빌레에 그 호랑쟁이에 거 이신 거 그건 거 영 쫓엉 와근에.(그 너 럭바위에 그 ‘호랑쟁이’에 거 있는 거 그건 거 이렇게 주워서 와서.)

105008 @ 경 혜영은에 이제 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원 뭐 보수 이런 거는 모 르키여예?(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뭐 보수 이런 거는 모르겠 네요?)

105008 #2 어.(어.)

105008 @ 그거는 엇이고. 계난 멜은 아까 이제 통에 든 거 말고 후리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했수가? 멜 후리 이런 거?(그거는 없고. 그러니까 멸치는 아까 이제 통에 든 거 말고 후리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했습니까? 멸치 후리 이런 거?)

105008 #1 옛날에는 했어.(옛날에는 했어.)

117) ‘생챙이’는 새끼 소라를 표선면 표선리에서 가리키는 말이다.

105008 @ 음, 어디서?(음, 어디서?)

105008 #1 옛날에는 우리 백사장에서 우리 하르버지네가 멜 헤신디 옛날에는 멜 그거 저 거세기 걸름하젠.(옛날에는 우리 백사장에서 우리 할아버지네가 멸치 했는데 옛날에는 멸치 그거 저 거시기 거름하려고.)

105007 @ 음.(음.)

105007 #1 뱃듸 그거 허영 보리 같고 무시거 하젠 거름이 비료 그런 거 없으니까 그 멜 헤근에 뱃듸 만약에 널어나민 뱃도 걸고 그 멜도 만약에 곱게시리 말라진 거는 헤다근에 또 먹기도 허곡 경 헤난.(밭에 그거 해서 보리 같고 무엇 하려고 거름이 비료 그런 거 없으니까 그 멸치 해서 밭에 만약에 널어나면 뱃도 걸고 그 멸치도 만약에 곰게끔 마른 건 해다가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

105007 @ 음.(음.)

105007 #1 우리, 우리 하르버지네가 이제 그 삼 형제가 이제 그 백사장에 구물 놔근에 멜배 두 개 헨에 그 구물에 헤근에 멜 거련 거 헤나난 우리 오빠 그때 아프 난에 선양굿¹¹⁸⁾ 하렌 헨. (웃음).(우리, 우리 할아버지네가 이제 그 삼 형제가 이제 그 백사장에 그물 놔서 ‘멸치배’ 두 개 해서 그 그물에 해서 멸치 떠서 거 해나니까 우리 오빠 그때 아프니까 ‘선양굿’ 하라 해서. (웃음).)

105007 @ 음.(음.)

105007 #2 그거 멜 잡아부난.(그거 멸치 잡아버리니까.)

105007 #1 멜 잡안에 그때에 이제 구신 그 바당 구신 선양엔 헌 구신 그거 헨에 아판에 헨에 굿하렌 헨에 우리 굿도 헤낫어.(멸치 잡아서 그때에 이제 귀신 그 바다 귀신 선양이라고 한 귀신 그거 해서 아파서 해서 굿하라고 해서 우리 굿도 했었어.)

105007 #2 그때부터 멜 그때부턴 치와볏수게예.(그때부터 멸치 그때부턴 치워버렸습니다.)

105007 #1 우리 할아버지네가 이젠 저 거시기 다 돌아가셔부난에.(우리 할아버지네가 이젠 저 거시기 다 돌아가셔버리니까.)

105009 @ 예, 예. 그땐 멜후림 햇지예?(예, 예. 그땐 멸치후림 했지요?)

105009 #1 그때는 멜 후리, 우리 하르버지네만 햇덴 거 우리 또 우리 집안에 역사.(그때는 멸치 후리, 우리 할아버지네만 했던 거 우리 또 우리 집안의 역사.)

105009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5009 #1 역사 그거 들은 말로 곤는 거주게.(역사 그거 들은 말로 말하는 거지.)

105010 @ 계난 배 두 개 멜 정도로 영 허면 얼마나 크게 헤실 거라예? 거고 삼춘, 케기 나끄레도 가롭데가?(그러니까 배 두 개 멜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크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삼춘, 고기 낚으러도 가롭디까?)

105010 #2 예.(예.)

118) ‘선양굿’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 ‘선양’을 위하는굿을 말한다.

105010 #1 궤기 나끄레.(고기 낚으러.)

105010 @ 어떤 식으로 행은에 갑니까? 궤기 나끄레.(어떤 식으로 해서 갑니까?
고기 낚으러.)

105010 #2 고망우력¹¹⁹⁾, 고망우력엔 헌 거.(‘고망우력’, ‘고망우력’이라 한 거.)

105010 @ 음.(음.)

105010 #2 물 이렇게 싸면은 이 그 구멍에다 이렇게 놔서 뭐하는 거 고망우력
이라고.(물 이렇게 써면 이 그 구멍에다 이렇게 놔서 뭐하는 거 ‘고망우력’이라고.)

105010 #1 대막댕이에.(대막대기에.)

105010 @ 예.(예.)

105010 #1 대막뎅이에 그 노끈.(대막대기에 그 노끈.)

105010 @ 으.(으.)

105010 #1 노끈 정술.(노끈 낚싯줄.)

105010 #2 그땐 정술도 엇이.(그땐 낚싯줄도 없이.)

105010 #1 정술도 엇이 노끈에 헨 가. 노끈에 헤여근에 무신 낚시 그 이제.(낚싯
줄도 없이 노끈에 하고 가. 노끈에 해서 무슨 낚시 그 이제.)

105010 #2 낚시가 얼마나 귀했는지.(낚시가 얼마나 귀했는지.)

105010 @ 예.(예.)

105010 #2 그 여기서는 요즘 낚시 하니까 딱 오면은 낚시 탁탁 짤라버려* 고기
에 낚시가 그걸 다 빼서 이젠.(그 여기서는 요즘 낚시 하니까 딱 오면 낚시 탁탁
짤라버려* 고기에 낚시가 그걸 다 빼서 이젠.)

105010 #1 꽂아근에.(꽂아서.)

105010 @ 음.(음.)

105010 #2 경 혜난.(그렇게 했었어.)

105010 #1 경 혜영 고망에 강 데면은.(그렇게 해서 구멍에 가서 대면.)

105010 @ 으.(으.)

105010 #1 그 고기.(그 고기.)

105010 #2 어랭이도 물고 고망우력 북바리 ㅋ뜬 것도 물고.(어랭놀래기도 물고
'고망우력' 붉바리 같은 것도 물고.)

105010 #1 그땐 북바리 막 그땐 많이 잊어낫어. 이젠 씨가 전.(그땐 붉바리 매우
그땐 많이 있었었어. 이젠 씨가 졌어.)

105010 #2 완전히 씨가 전.(완전히 씨가 졌어.)

105010 @ 계난 고망우력이렌 헌 거는 그 고망에서 나끄는 우력이난 고망우력이
구나예?(그러니까 ‘고망우력’이라고 한 거는 그 구멍에서 낚는 우력이니까 ‘고망우
력’이군요?)

105010 #2 어어.(어어.)

105010 @ 궤기 이름이 고망우력이 아니고.(고기 이름이 ‘고망우력’이 아니고.)

119) ‘고망우력’은 우력의 일종이다. 바위틈에 사는 우력이어서 붙은 명칭이다.

105010 #2 아 고망우력이라고 해서 시커멓하여.(아 ‘고망우력’이라고 해서 새까매.)

105010 @ 아, 고망우력이라는 것도 잊어마씨?(아, ‘고망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105010 #1 으 그건 고망에만 사는 거.(으 그건 구멍에만 사는 거.)

105010 @ 으으, 우력이.(으으, 우력이.)

105010 #2 우력하면은 좀 붉은 기가 있고, 검평우력.(우력하면 좀 붉은 기가 있고, 촘뱅이.)

105010 @ 검평우력도 있고.(촘뱅이도 있고.)

105010 #2 그런 거. 어랭이 코셍이.(그런 거. 어랭놀래기 고생놀래기.)

105010 @ 음.(음.)

105010 #2 다 잊었는데 이젠 하나도 없어. 이젠 어랭이도 나끄젠 허민 배 탕 나가서.(다 있었는데 이젠 하나도 없어. 이젠 어랭놀래기도 낚으려고 하면 배 타고 나가서.)

105010 @ 아, 이 여기서?(아, 이 여기서?)

105010 #2 여기서 끄드셔는 엇어.(여기서 갯가에서는 없어.)

105011 @ 엇어마씨, 이제는. 게믄 예전에 낙싯대를 아까 대막뎅이를 뭐렌 불렀수가?(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예전에 낚싯대를 아까 대막대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105011 #2 춤대.(‘춤대’.)

105011 @ 첨대예? 첨대하고 그 첨대 낚싯줄하고 낚시 어떤 식으로 행은에 거를 구핸 거우파?(낚싯대요? 낚싯대하고 그 낚싯대 낚싯줄하고 낚시 어떤 식으로 해서 거를 구한 겁니까?)

105011 #2 아니 그때 노끈, 노끈. 요즘은 정술로 해서 허는데, 낙시도 팔곡.(아니 그때 노끈, 노끈. 요즘은 낚싯줄로 해서 하는데, 낚시도 팔고.)

105011 @ 예.(예.)

105011 #2 뭐 코셍이낚시 뭐 검평우력낙시 저 잊는데, 그거 낙시 사다가 그 저 노끈으로 빼져근앵에 경 혜근에 뽕돌.(뭐 어랭놀래기낚시 뭐 촘뱅이낚시 저 있는데, 그거 낚시 사다가 그 저 노끈으로 빼어서 그렇게 해서 뽕돌.)

105011 @ 예.(예.)

105011 #2 뽕돌, 납. 그거 혜영 이녁대로 만들엉 경 혜영 으.(봉돌, 납. 그거 해서 이녁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으.)

105011 #1 이껍은 돌 일렁은에 그.(미끼는 돌 일으켜서 그.)

105011 #2 물주뎅이.(갯지렁이.)

105011 #1 물주뎅이 파근에.(갯지렁이 파서.)

105011 @ 음.(음.)

105011 #2 물주뎅이.(갯지렁이.)

105011 #1 물주뎅이 광을 허던가.(갯지렁이 파서 하든가.)

105011 #2 경 허고 새우, 새우 거려근엥에 족바지로.(그렇게 하고 새우, 새우 떠서 뜰채로.)

105011 @ 아, 여기도 새우?(아, 여기도 새우?)

105011 #2 족바지로 요런 통에 보민 새우덜 막 이시난에 족바지에 놓 자리젓 혼나 영 놓곡 행 놔두면은.(뜰채로 요런 통에 보면 새우들 막 있으니까 뜰채에 놔서 자리젓 하나 이렇게 놓고 해서 놔두면.)

105011 @ 예.(예.)

105011 #1 냄새낭.(냄새나서.)

105011 #1 막 냄새 나서 몰려오면 들르면은 그.(아주 냄새 나서 몰려오면 들면 그.)

105011 @ 어어. 물주뎅이로 헤민예? 이거 갯지렁이 아니라예? 물주뎅이?(어어. 갯지렁이로 하면요? 이거 갯지렁이 아닌가요? ‘물주뎅이’?)

105011 #2 경 허곡 급허면은 저 무, 게들레기 뜻양.(그렇게 하고 급하면 저 무, 소라게 마아서.)

105011 #1 게들레기 뜻양.(소라게 마아서.)

105011 #2 게들레기 뜻양은에 거 깨여서 허고.(소라게 마아서 거 깨어서 하고.)

105011 @ 삼춘도 이거 허례 갓다완?(삼춘도 이거 하러 다녀왔어요?)

105011 #1 아니, 그거 니껍 하례는 안, 우리 오빠가 가근에 그때는 코셍이하고 어랭이하고 그 코생이 거 낚시구덕이 잇주게.(아니, 그거 미끼 하러는 안, 우리 오빠가 가서 그때는 고생놀래기하고 어랭놀래기하고 그 고생놀래기 거 낚시바구니가 있지.)

105011 @ 예.(예.)

105011 #1 구덕 요만한 걸로 반씩 헤당은에 나끄는 추미로 나끔만 허주, 그 장만은 절대 아녕 우리 오빠가.(바구니 요만한 걸로 반씩 해다가 낚는 추미로 낚음만 하지, 그 장만은 절대 안해서 우리 오빠가.)

105011 @ 예, 예.(예, 예.)

105011 #1 앗다당 내불민 장만은 나가이.(갖다가 내버리면 장만은 내가.)

105011 #2 거 장만함이 잘도 성가셔.(거 장만함이 잘도 성가셔.)

105011 #1 코셍이 어랭이가 다 요만씩 한 거라 놓난 하나하나 다 하젠 하민 사스미도 헤영 먹는디, 그 옛날엔 그거 헤영 소콤헤근에.(고생놀래기 어랭놀래기가 다 요만씩 한 거여 놓으니까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사시미도 해서 먹는데, 그 옛날엔 그거 해서 소금해서.)

105011 #2 음, 물류왕.(음, 말려서.)

105011 #1 그걸.(그걸.)

105011 @ 물류왕.(말려서.)

105011 #1 요만은 한 무시것에 다 시청 헤영 대막댕이 막 높은 거 왕대.(요만큼

한 무엇에 다 씻어서 해서 대막대기 막 높은 거 왕대.)

105011 @ 음.(음.)

105011 #1 왕대 헤근에 노끗헤근에 그 영 영영 영 그 도리께¹²⁰⁾에 그거 헤근에 막.(왕대 해서 노끈해서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도르래에 그거 해서 막.)

105011 @ 올령.(올려서.)

105011 #1 올려근에 그 끈리도 못 올라가게시리 행근에 말쾅은에 그거 혜영 구민.(올려서 그 파리도 못 올라가게끔 해서 말려서 그거 해서 구우면.)

105011 #2 잘도 맛 좋아 코시롱.(잘도 맛 좋아 고소.)

105011 #1 구민 코스롱. 고사리.(구우면 고소. 고사리.)

105011 @ 어.(어.)

105011 #1 고사리 그 촐 벌 때에 고사리덜 서꺼져근에 하면은 고사리는 소가 안 먹주게.(고사리 그 꿀 벌 때에 고사리를 섞어져서 하면 고사리는 소가 안 먹지.)

105011 @ 예.(예.)

105011 #1 게믄 그런 걸로 숨아나근에 그 불치에 그거 구면은.(그러면 그런 걸로 때어나서 그 재에 그거 구우면.)

105011 #2 그렇게 맛 좋아.(그렇게 맛 좋아.)

105011 @ 아아, 그러면은.(아아, 그러면.)

105011 #1 코시통헤여.(고소해.)

105011 @ 그거 배캉만 이제 물리는 거라. 소금 안 혜영?(그거 배따서만 이제 말리는 거야. 소금 안 해서?)

105011 #1 소금 혜영.(소금 해서.)

105011 #2 아쓱 혜영.(살짝 해서.)

105011 @ 아아.(아아.)

105011 #1 그거 큰 반찬.(그거 큰 반찬.)

105012 @ 음, 여기 우리 저쪽에는 그렇게는 안 했던 거 같은데예? 그 다음에 작살로 삼춘 저기 물질도 해시난에?(음, 여기 우리 저쪽에는 그렇게는 안 했던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작살로 삼춘 저기 물질도 했으니까?)

105012 #1 무신거?(무엇?)

105012 @ 소살, 소살 가정은에 켜기도 쏘아봤지예?(작살, 작살 가져서 고기도 쏘아봤지요?)

105012 #1 으.(으.)

105012 @ 어떤, 무신 고기덜 쏘읍디가?(어떤, 무슨 고기들 쏘읍니까?)

105012 #1 그때는 벤자리.(그때는 벤자리.)

105012 @ 음.(음.)

105012 #1 벤자리엔 한 고기는 바당에 영 저 회여가당 보면은 여가, 여엔 현 건

120) 여기에서 ‘도리께’는 ‘도르래’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높은 동산이주게. 바다 속도.(벤자리라고 한 고기는 바다에 이렇게 저 헤엄쳐가다가 보면 여가, 여라고 한 건 높은 동산이지. 바다 속도.)

105012 @ 바다 소곱에.(바다 속에.)

105012 #1 동산인디, 동산 뻥하게 이신 디 가운데 모살통이 있어. 모살통, 모살통. 그 모살통에 바글바글 옛날에는 그 벤자리가. 게민 소살이 영 허영 늘리왕은에 숨비영¹²¹⁾ 동산으로 영 허영 곱양 가근에 고기 그 발허여근에 착하게 쏘아근에 하면 그 옛날에는 하도 고기가 벤자리가 바글바글하니까 허난 어떤 맨 두 개도 쏘아근에 와져.(동산인데, 동산 뻥하게 있는 데 가운데 ‘모래통’이 있어. ‘모래통’, ‘모래통’. 그 ‘모래통’에 바글바글 옛날에는 그 벤자리가. 그러면 작살이 이렇게 해서 늘려서 ‘숨비여서’ 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숨어서 가서 고기 그 발해서 착하게 쏘아서 하면 그 옛날에는 하도 고기가 벤자리가 바글바글하니까 하니깐 어떤 맨 두 개도 쏘아서 와져.)

105012 @ 혼 번 딱 헤신디 으.(한 번 딱 했는데 으.)

105012 #1 맞아근에 두 개도 퀘엉 나 올라오고.(맞아서 두 개도 퀘어서 나 올라오고.)

105012 #2 그 옛날에는 상군덜은?(그 옛날에는 상군들은?)

105012 @ 예.(예.)

105012 #2 비께, 비께.(두툼상어, 두툼상어.)

105012 @ 비께.(두툼상어.)

105012 #1 비께보고 이디선 무시 건엔?(두툼상어보고 여기선 무슨 거라고?)

105012 @ 상어, 무신 수염상어여.(상어, 무슨 수염상어다.)

105012 #2 비께 이따만 거 행은에.(두툼상어 이따만 거 해서.)

105012 #1 다 쏘앙 나와.(다 쏘아서 나와.)

105012 #2 상군들 다 쏘앙 나와.(상군들 다 쏘아서 나와.)

105012 @ 상군들은예? 게믄 삼춘예, 아까 모살통 헷잖우과예, 그 여 이신 디 그려면 거기는 모살이 있어? 아니면은?(상군들은요? 그러면 삼촌요, 아까 ‘모래통’ 했잖습니까, 그 여 있는 데 그러면 거기는 모래가 있어? 아니면?)

105012 #1 아래 모살.(아래 모래.)

105012 @ 아, 모살 있어.(아, 모래 있어.)

105012 #1 쯤 이상허여. 바당도 가보민. 그 여가 동산 있는 가운데 통이 신 디는 모살이라, 다.(참 이상해. 바다도 가보면. 그 여가 동산 있는 가운데 통이 있는 데는 모래야, 다.)

105012 @ 음. 통 이시믄?(음. 통 있으면?)

105012 #1 게민 그런 딘 저 무시거 가오리.(그러면 그런 텐 저 무엇 가오리.)

105012 @ 예.(예.)

105012 #2 가오리.(가오리.)

121) ‘숨비영’은 물 속으로 들어가서의 의미다.

105012 #1 가오리도 그 모살 속에 모살 속에 영 잇이민 기냥 우론 몰란.(가오리도 그 모래 속에 모래 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위로는 몰랐어.)

105012 @ 예.(예.)

105012 #1 눈, 눈이 보여.(눈, 눈이 보여.)

105012 @ 아아.(아아.)

105012 #1 까망허게.(까맣게.)

105012 @ 아아.(아아.)

105012 #1 가오리처럼 이 모살로 원이 다 기려져근에 눈이 보이는 거라. 게민 그거 저거 가오리로구나 헤여근에 강 쏘아근에 나오곡.(가오리처럼 이 모래로 원이 다 그려져서 눈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 저거 가오리로구나 해서 가서 쏘아서 나오고.)

105012 @ 삼춘은 다니멍 어떤 걸 젤 하영 쏘은 거라마씨?(삼촌은 다니면서 어떤 걸 젤 많이 쏜 거예요?)

105012 #1 벤저리 주로. 그때는 벤자리가 많이 나고, 북바리도 북바리는 그 모살통 같은 데 엊어근에 여에, 감태 막 이신디 영 허면은 바당 속에 호랑벵이는 인치룩 널르주게. 널른디 그 이치룩 이런 디 누웡 잇어, 북바리는.(벤자리 주로. 그때는 벤자리가 많이 나고, 붉바리도 붉바리는 그 ‘모래통’ 같은 데 없어서 여에, 감태 막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다 속의 ‘호랑벵이’는 이처럼 너르지. 너른데 그 이처럼 이런 데 누워 있어, 붉바리는.)

105012 @ 북바리는?(붉바리는?)

105012 # 어떤 북바리는 뭐 바람 부는 냥 물결 가는 냥 이레저레 이레저레 영 영 허명 히어 다니는 것도 잇곡.(어떤 붉바리는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헤어 다니는 것도 있고.)

105012 @ 음.(음.)

105012 #1 것 말고 북바리는 여에만.(것 말고 붉바리는 여에만.)

105013 @ 예, 이 동네도 궤깃배들 하낫수가? 옛날.(예, 이 동네도 고깃배들 많았습니까? 옛날.)

105013 #1 하낫주. 다 고기.(많았지. 다 고기.)

105013 @ 아아, 게난 궤깃배덜은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배들 잇잖습니까예? 여기서?(아아, 그러니까 고깃배들은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배들 있잖습니까? 여기서?)

105013 #1 아니, 종류에 따랑 배 잇지 아녀고 배 하나 가정 갈치도 나끄고.(아니, 종류에 따라서 배 있지 않고 배 하나 가져서 갈치도 낚고.)

105013 #2 갈치도 나끄곡 자리도 거리곡. 경 혜난.(갈치도 낚고 자리도 뜨고. 그렇게 했었어.)

105013 #1 자리도 거리고. 배 하나.(자리도 뜨고. 배 하나.)

105013 @ 이 동네도 옥돔도 한?(이 동네도 옥돔도 많아?)

105013 #1 옥돔, 옥 그 당시는 옥돔 이신 디끄장 배는 못 가.(옥돔, 옥 그 당시는 옥돔 있는 데까지 배는 못 가.)

105013 @ 아아.(아아.)

105013 #1 그 옥돔은 완전 멀리 가야 옥돔 잊주.(그 옥돔은 완전 멀리 가야 옥돔 있지.)

105013 #2 이어도 그 근방에 가야.(이어도 그 근방에 가야.)

105014 @ 글로 가야. 그 다음에예 우리 줌녀예, 여긴 줌녀 힙니까 줌수힙니까?
(그리로 가야. 그 다음에요 우리 잠녀요, 여긴 ‘줌녀’ 합니까 ‘줌수’합니까?)

105014 #1 줌수.(‘줌수’.)

105014 @ 옛날에 줌수예? 줌수들이 바다에 강 숨병은에 행오는 해산물은 어떤 거 있어?(옛날에 ‘줌수’요? ‘줌수’들이 바다에 가서 ‘숨벼서’ 해서오는 해산물은 어떤 거 있어?)

105014 #1 그 겨울에는 주로 해삼 같은 거. 해삼 많이 해삼 많이 잡곡. 고동 그런 거 주로.(그 겨울에는 주로 해삼 같은 거. 해삼 많이 해삼 많이 잡고. 소라 그런 거 주로.)

105014 #2 점복.(전복.)

105014 #1 그 옛날에는 그 속곳만 입어근에 물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얼마 못 사니까 조금씩 잡양 와서.(그 옛날에는 그 속곳만 입어서 물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얼마 못 사니까 조금씩 잡아 와서.)

105014 @ 음.(음.)

105014 #1 이제는 고무옷 입어근에 하루 종일 사니까, 흐루 혼 번벳기 안 드는 디. 옛날은 세 번씩 네 번씩 들어가. 불 추와근에 또 흐꼼 몸 그거 언 기가 좀 엇어 지민 또 속곳 입영 또 들어가곡 경 허멍 하니까 추워부난에 베랑 저 수입은 못 올려.(이제는 고무옷 입어서 하루 종일 사니까, 하루 한 번밖에 안 드는데. 옛날은 세 번씩 네 번씩 들어가. 불 죄어서 또 조금 몸 그거 언 기가 좀 없어지면 또 속곳 입어서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추워버리니까 별로 저 수입은 못 올려.)

105014 @ 음.(음.)

105014 #1 여름에는 이제 뜨실 때는 헤도. 겨울에는.(여름에는 이제 따뜻할 때는 해도. 겨울에는.)

105014 @ 그 해녀들 불 초는 디 거긴 뭐렌 굴아?(그 해녀들 불 죄는 데 거긴 뭐라고 말해?)

105014 #1 불턱¹²²⁾.(‘불턱’.)

105014 @ 여기는 불턱예? 그 다음에 메역헐 때하고 이제 소라나 이런 거 잡을 때는 그 메역무레 이렇게 허잖아예? 그 고동 잡을 때는 무신 거 힙니까?(여기는 ‘불턱’요? 그 다음에 미역할 때하고 이제 소라나 이런 거 잡을 때는 그 ‘미역무레’ 이

122) ‘불턱’은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해 간 땔감으로 불을 지켜서 죄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등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을 말한다.

렇게 하잖아요? 그 소라 잡을 때는 무슨 거 합니까?)

105014 #1 헛무레¹²³⁾.('헛무레'.)

105014 @ 헛무레, 어.('헛무레', 어.)

105014 #1 그 미역은 미역은 물에 들면은 미역은 궐하지 안 하주게. 미역은 그냥 돌 우로 영 영 우로 다 볼 수 있어근에 우로 가근에 확확 헤근에 나오는 거고. 이 소라 전복 같은 거는 돌 밑에.(그 미역은 미역은 물에 들면 미역은 궐하지 안 하지. 미역은 그냥 돌 위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다 볼 수 있어서 위로 가서 확확 해서 나오는 거고. 이 소라 전복 같은 거는 돌 밑에.)

105014 @ 예.(예.)

105014 #1 그런 디 있으니까 우로 보아근에 들어강 해오는 거 보단 그 수입 잡아내는 것이 얼마 못 잡아내니까 헛물에. 헛, 빈차도 온다 허는 식이라. 이 헛물에는.(그런 데 있으니까 위로 봐서 들어가서 해오는 거 보다는 그 수입 잡아내는 것이 얼마 못 잡아내니까 '헛무레'. 헛, 빈째도 온다 하는 식이야. 이 '헛무레'는.)

105014 @ 음.(음.)

105014 #1 경 허고 저 미역은 그거 우의서 보는 거난 뭐 미역 직통 가서 미역 확확 헤영 오는 거난 그거는 하영 할 수가 이신디 이거는 안 보이는 디 물속에 가근에 그걸 찾아근에 행 잡아 오기 때문에.(그렇게 하고 저 미역은 그거 위에서 보는 거니까 뭐 미역 직통 가서 미역 확확 해서 오는 거니까 그거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데 물속에 가서 그걸 찾아서 해서 잡아 오기 때문에.)

105014 @ 맞수다.(맞습니다.)

105014 #2 그 물숨¹²⁴⁾도 무신것고 겨울쯤은 열면은 물숨도 쫄라근에 깊은 디도 못 가.(그 '물숨'도 무엇이니 겨울쯤은 추우면 '물숨'도 짊어서 깊은 데도 못 가.)

105015 @ 맞수다. 그 메역헐 때는 뭘 가정 잡니까?(맞습니다. 그 미역할 때는 뭘 가져서 잡니까?)

105015 #1 호미허고 망사리.(낫하고 망사리.)

105015 @ 그때 호미는 다른 말 불르는 이름 엊어마씨?(그때 낫은 다른 말 부르는 이름 없어요?)

105015 #1 비호미¹²⁵⁾.('비호미'.)

105015 @ 비호미, 아까는 메호미햇어예?('비호미', 아까는 '메호미'했어요?)

105015 #2 음.(음.)

105015 #1 메호미¹²⁶⁾. 비호미. 그 비호미엔 헌 건 바다에 가정 뎅기는 거.('메호미'. '비호미'. 그 '비호미'라고 한 건 바다에 가져서 다니는 거.)

105015 @ 음.(음.)

105015 #1 듬북하레 메역하레.(듬북하러 미역하러.)

123) '헛무레'는 잡녀들이 바다에 들어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

124) '물숨'은 잡녀들이 물에 들어 해산물을 캐는 동안에 참는 숨을 가리키는 말이다.

125) '비호미'는 잡녀들이 미역 따위를 벨 때 들고 다니는 낫을 말한다.

126) '메호미'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낫 비슷한 물건이다.

- 105015 @ 예, 메호미는 이제 밧듸 촐 비는?(예, ‘메호미’는 이제 밭에 꿀 베는?)
 105015 #1 나무.(나무.)
- 105015 @ 나무허는 거예? 아.(나무하는 거요? 아.)
- 105015 #1 촐 비는 거는 호미.(꿀 베는 거는 낫.)
- 105015 @ 촐 비는 건 호미하고 그 다음에 낫¹²⁷⁾하고.(꿀 베는 건 낫하고 그 다음에 ‘장낫’하고.)
- 105015 #2 낫.(낫.)
- 105015 #1 낫으로 후리는 거.(낫으로 후리는 거.)
- 105015 @ 낫은 후리는 거니까.(낫은 후리는 거니까.)
- 105015 #1 남자들 후리는 거.(남자들 후리는 거.)
- 105015 @ 보리 빌 때는 저기 호미로 하고예.(보리 벨 때는 저기 낫으로 하고요.)
- 105015 #2 호미.(낫.)
- 105015 @ 비호미는 메역 즈물 때.(‘비호미’는 미역 캘 때.)
- 105015 #1 메역. 그거 바다에.(미역. 그거 바다에.)
- 105015 @ 예, 예, 예. 그 다음에 어, 이 줌수들 물질허젠허면 필요한 도구? 삼촌.(예, 예, 예. 그 다음에 어, 이 잠수들 물질하려고 하면 필요한 도구? 삼촌.)
- 105015 #1 어디 무시거 하젠 허민?(어디 무엇 하려고 하면?)
- 105015 @ 물질허젠허나 아니면 혓무레 허젠허나 허면 줌수덜?(물질하려고? 미역하려고 하나 아니면 혓무레¹²⁸⁾ 하려고 하나 하면 잠수들?)
- 105015 #2 줌수덜.(잠수들.)
- 105015 #1 ‘혓무레’ 할 때는 굴게기 가지고.(혓무레 할 때는 호미 가지고.)
- 105015 @ 굴게기 가지고.(호미 가지고.)
- 105015 #1 비창.(비창.)
- 105015 @ 비창.(비창.)
- 105015 #1 비창은 이 두에 영 해여근에 차근에 가근에 점복 봐지민 영 껴냉 점복 떼는 거. 비창 가지곡 굴게기 가지고.(비창은 이 뒤에 이렇게 해서 차서 가서 전복 보이면 이렇게 꺼내서 전복 따내는 거. 비창 가지고 호미 가지고.)
- 105015 @ 예.(예.)
- 105015 #1 거 테왁도 망사리는 기본이고.(거 테왁도 망사리는 기본이고.)
- 105015 @ 예, 그 다음 쪼꼴락헌?(예, 그 다음 자그마한?)
- 105015 #1 그 조례기¹²⁹⁾.(그 ‘조례기’.)
- 105015 @ 조례기도 아상가고예?(‘조례기’도 가져가고요?)

127) 여기에서 ‘낫’은 기다란 자루가 달린 큰 낫을 가리킨다. 자루가 길어서 꿀 따위를 벨 때 서서 베야 한다. ‘낫’을 제주에서는 ‘호미’라고 한다.

128)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 전복 등을 캐는 작업.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혓될 수도 있으므로 ‘혓물’이라고 함.

129) ‘조례기’는 작은 망사리를 말한다. 주로 전복이나 문어 따위를 넣을 때 사용한다.

105015 #1 조례기, 조례긴 가져강 점복 ㅋ튼 거 잡으면 조례기 속에 놔야주 소라하고 같이 놓면은 소라 그 딱살로 그 점복 그 살.(‘조례기’, ‘조례긴’ 가져가서 전복 같은 거 잡으면 ‘조례기’ 속에 넣어야지 소라하고 같이 넣으면 소라 그 껌데기로 그 전복 그 살.)

105015 @ 예, 예.(예, 예.)

105015 #1 끊어질 수가 있으믄 끊어져 분 거는 반값도 안 가주게. 기스¹³⁰⁾ 낫덴 해근에.(끊어질 수가 있으면 끊어져 버린 거는 반값도 안 가지. 상처 났다고 해서.)

105015 @ 으음. 경허난 오분제기나 저기 전복은 작은 망사리에 넣는 게 그거구나예?(으음. 그렇게 하니까 오분자기나 저기 전복은 작은 망사리에 넣는 게 그거군요?)

105015 #1 조례기에 해삼도 잡아지면 조례기에 놓고. 그 해삼도 소라영 놓면은 소라영 소라가 힐 때마다 그 흥창흥창허민 그 해삼도 등아리에 그 껌데기.(‘조례기’에 해삼도 잡아지면 넣고. 그 해삼도 소라랑 넣으면 소라랑 소라가 헬 때마다 그 흥창흥창하면 그 해삼도 등때기에 그 껌데기.)

105015 @ 예.(예.)

105015 #1 긁어불면은 것도 상처 나니까 그 전복하고 거는 조례기에 놓고, 소라는 큰 망사리는 기자.(긁어버리면 것도 상처 나니까 그 전복하고 거는 ‘조례기’에 넣고, 소라는 큰 망사리는 그저.)

105015 @ 음, 삼춘, 여기 해삼을 다른 말로 불르는 일률은 엇어나수가?(음, 삼춘, 여기 해삼을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은 없었습니까?)

105015 #1 해삼 다른 말로 잊어난 거 닮기는 한다.(해삼 다른 말로 있었던 거 같기는 한데.)

105015 @ (웃음). 미, 미렌 안 헨?((웃음). ‘미’, ‘미;라고 안 했어요?’)

105015 #1 미엔 골아나신가, 미.(‘미’라고 말했었는가, ‘미’.)

105015 @ 아, 여기는 안 헨예? 아, 해슴 그냥.(아, 여기는 안 했어요? 아, 해삼 그냥.)

105015 #2 해슴, 해슴.(해삼, 해삼.)

105017 @ 해슴이렌 그냥 해예? 예전에 삼춘 이제 그 물옷 속곳 입을 때 하고. 고무옷 입영도 해낫지예?(해삼이라고 그냥 해요? 예전에 삼춘 이제 그 물옷 속곳 입을 때 하고. 고무옷 입어서도 했었지요?)

105017 #1 고무옷 입언에 ㅎ꼼 허단 치완벤.(고무옷 입어서 조금 하다가 치워버렸어.)

105017 @ 그 변천. 게난 옛날예 물옷이 어떤 식으로 변천됐는지 것 좀 간단히 게 골아 줘봅서?(그 변천. 그러니까 옛날요 물옷이 어떤 식으로 변천됐는지 것 좀 간단하게 말해 줘보십시오?)

105017 #1 옛날 그 속곳도 우리가 다 만들어나신디 다 잊어벼서. 영 재단을 못

130) ‘기스’는 ‘상처’라는 뜻의 일본어다.

허커라. 재단만 해 놓면은 만드는 거는 그거 만들어지겠는디.(옛날 그 속곳도 우리가 다 만들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전혀 재단을 못 하겠어. 재단만 해 놓으면 만드는 거는 그거 만들겠는데.)

105017 @ 음.(음.)

105017 #1 그 속옷이 잊어근에 속옷을 보면은 그걸 재단하면서 헤질 건디 그 속옷이 이제 해녀덜안티 이신가 엇인가 몰르커라.(그 속옷이 있어서 속옷을 보면 그 걸 재단하면서 해질 건데 그 속옷이 이제 해녀들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105017 #2 속곳에 특이한 것은 나가 그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것이 단추를 안 들아.(속곳에 특이한 것은 내가 그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것이 단추를 안 달아.)

105017 @ 아아.(아아.)

105017 #1 별모작.(별매듭.)

105017 @ 예.(예.)

105017 #2 별모작 이렇게 허면은 딴 사름이 이거 벗기질 못허여.(별매듭 이렇게 하면 다른 사름이 이거 벗기질 못해.)

105017 #1 (웃음).(웃음).

105017 @ 아아아.(아아아.)

105017 #2 본인이라야 벗겨지지.(본인이라야 벗겨지지.)

105017 #1 이거 클르지 잘 못허지.(이거 끄르지 잘 못하지.)

105017 @ 예, 그러니까 별모작이예?(예, 그러니까 별매듭이요?)

105017 #1 속곳을 영 입영 이거 여기 끈 헤영 여기 딱 졸라매민 일로 이디까지 난에 일로 이디까지난에 일로 하면 별모작 세 개 올로 하면 별모작 세 개 허민 으섯 갤 들아.(속곳을 이렇게 입어서 이거 여기 끈 해서 여기 딱 졸라매면 이리로 여기까지니까 이리로 여기까지니까 이리로 하면 별매듭 세 개 올로 하면 별매듭 세 개 하면 여섯 갤 달아.)

105017 @ 아.(아.)

105017 #1 여섯 개.(여섯 개.)

105017 @ 여섯 개?(여섯 개?)

105017 #1 게난 누게 남자덜 홀어멍안티 들엉 혜도 이거 클르지 못허영.(그러니까 남자들 홀어미한테 들어서 해도 이거 끄르지 못해서.)

105017 #2 속곳을 입으면은 강간을 못 해. 그리고 또 소변, 소변 볼 때도 자기가 허는 것이지 딴 사름은 클르질 못해. 옛날 그.(속곳을 입으면 강간을 못 해. 그리고 또 소변, 소변 볼 때도 자기가 하는 것이지 딴 사람은 끄르질 못해. 옛날 그.)

105017 @ 어른들이예?(어른들이요?)

105017 #2 어른들이 머리가 상당히 춤 대단허여.(어른들이 머리가 상당히 참 대단해.)

105017 #1 거 진짜 속곳 춤 그거는 히안진 거라. 우리가 나가 가만히 생각허민.(거 진짜 속곳 참 그거는 희한한 거야. 우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105017 #2 이것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디 가서 딱 베우면은.(이것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딱 보이면.)

105017 @ 음, 이 사회 문제가 안 일어날 건데. 맞수다. 맞수다.(음, 이 사회 문제가 안 일어날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105017 #1 아이, 진짜 속곳을 그 수소문해근에 그거를.(아니, 진짜 속곳을 그 수소문해서 그거를.)

105017 @ 한번 텐들어봅서.(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05017 #1 아니 아이덜안티 딸덜한티 가리켜줘도 우리 딸도 웃음만 할 거라. 음.(아니 아이들한테 딸들한테 가르쳐줘도 우리 딸도 웃음만 할 거라. 음.)

105017 #1 (웃음).(웃음).

105018 @ 그리고 삼춘, 여기에 톳.(그리고 삼춘, 여기에 톳.)

105018 #2 으, 툴.(으, 톳.)

105018 @ 툴. 툴 여기 하마씨?(톳. 톳 여기 많아요?)

105018 #1 툴 여기 하낫주. 툴을 막 그냥 막 촐눌만은 눌어, 혼 동에. 우리 사개동인디.(톳 여기 많았지. 톳을 막 그냥 막 꿀가리만큼 가려, 한 동에. 우리 사개동인데.)

105018 @ 예.(예.)

105018 #1 동상 동하 서상 서한다. 혼 동에 촐눌만씩 다 눌어나서. 바당도 다 이녁만씩이난.(동상 동하 서상 서한데. 한 동에 꿀가리만큼씩 다 쌓았었어. 바다도 다 이녁만큼씩이니까.)

105018 @ 아아.(아아.)

105018 #2 바당도 다 동상 동하 따로따로 이녁 바당.(바다도 다 동상 동하 따로 따로 이녁 바다.)

105018 @ 따로따로예. 아 경 해근에.(따로따로요. 아 그렇게 해서.)

105018 #1 경계가 다 잇어.(경계가 다 있어.)

105018 @ 그 툴 행은 주로 어떤 음식덜을 혜영 먹은 거라마씨?(그 톳 해서 주로 어떤 음식들을 해서 먹은 거예요?)

105018 #1 아이, 그 툴 음식은 이제 뭐 툴체¹³¹⁾.(아니, 그 톳 음식은 이제 뭐 톳나물.)

105018 @ 음.(음.)

105018 #1 툴밥¹³²⁾도 행 먹곡.(‘톳밥’도 해서 먹고.)

105018 @ 으.(으.)

105018 #1 툴 그자 그거 혼탁허민 웬장에 찍엉도 먹고 먹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 있어.(톳 그자 그거 무르면 된장에 찍어도 먹고 먹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 있어.)

131) ‘툴체’는 톳을 나물처럼 무친 음식을 말한다.

132) ‘툴밥’은 톳을 넣어서 지은 밥이다.

105019 @ 음, 우미 그튼 것도 이 바당에 나?(음, 우뭇가사리 같은 것도 이 바다에 나?)

105019 #1 으.(으.)

105019 @ 예.(예.)

105019 #1 우미, 바당에 강은에 그거 행은에 우미 빨강헌 거 이시면은 그거 다 이제 메여당.(우뭇가사리, 바다에 가서 그거 해서 우뭇가사리 빨간 거 있으면 그거 다 이제 매어다가.)

105019 @ 그건 메여당.(그건 매어다가.)

105019 #1 그건 메여다근에 뜯어당이 아니고 메여당.(그건 메어다가 뜯어다가가 아니고 매어다가.)

105019 @ 예.(예.)

105019 #1 그건 혜근에 뭐 옥상, 난 우리 집 경우에 옥상에 올려놓 거기 수도로 혜근에 이제 아침 훠면은 강 물 짹 줘.(그건 해서 뭐 옥상, 난 우리 집 경우에 옥상에 올려놔서 거기 수도로 해서 이제 아침 되면 가서 물 짹 줘.)

105019 @ 으.(으.)

105019 #1 그 이튿날 훠면은 또 강 물 줘.(그 이튿날 되면 또 가서 물 줘.)

105019 @ 음.(음.)

105019 #1 아마 열 번 정도 물 주면은 인치록 해양허여. 그 빨간 것이.(아마 열 번 정도 물 주면은 이처럼 하얘. 그 빨간 것이.)

105019 @ 경허면 그거를 뭐 현덴 헉니까?(그렇게 하면 그거를 뭐 한다고 합니까?)

105019 #1 우미.(우무.)

105019 #2 우미 행 먹어.(우무 해서 먹어.)

105019 #1 천추.(천초.)

105019 @ 계난 그거를 그 물로 계속 이렇게 주면서 헉하는 것을?(그러니까 그거를 그 물로 계속 이렇게 주면서 하는 것을?)

105019 #1 발래는 거.(바래는 거.)

105019 @ 아, 발래는 거렌 해예? 발래는 거 행 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물망? 물?(아, 바래는 거라고 한다고요? 바래는 거 해서 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모자반? 모자반?)

105019 #1 물망.(모자반.)

105019 @ 여기는 물망예? 물망 옛날 하영?(여기는 ‘물망’요? ‘물망’ 옛날 많이?)

105019 #1 아이, 옛날에 물망 하영 혜근에 물망 다 혜근에 장삿군덜 오민 풀곡 혜나신디. 이젠 물망이 하나도 엊어.(아니, 옛날에 모자반 많이 해서 모자반 다 해서 장사꾼들 오면 팔고 했었는데. 이젠 모자반이 하나도 없어.)

105019 @ 음.(음.)

105019 #1 사 개 동 다 씨겼어.(사 개 동 다 씨겼어.)

105019 @ 다 씨져부런. 물망도 종류가 으라 개 잇어나진 안 헨예?(다 씨져버렸어. 모자반도 종류가 여러 개 있었었지 안 했어요?)

105019 #1 물망도 막 맨지락한 물망 잇고. 저 어디 동쪽에 물망 이신디 이신 건 멘짝허지 안 협니까?(모자반도 막 미끈한 모자반 있고. 저 어디 동쪽에 모자반 있는데 있는 건 미끈하지 안 합니까?)

105019 #2 우도에서 허는 거.(우도에서 하는 거.)

105019 #1 그런 거는 무청 먹는 거벳피 안 뛰고.(그런 거는 무쳐서 먹는 거밖에 안 되고.)

105019 @ 음.(음.)

105019 #1 우리 여기는 물망에 뜬국물¹³³⁾.(우리 여기는 모자반에 돼지육수.)

105019 @ 음.(음.)

105019 #1 잔치 때.(잔치 때.)

105019 @ 뜬국물 혜영.(돼지육수 해서.)

105019 #1 뜬국물¹³⁴⁾ 끓이는 디 췄고. 우리 여기에 물망은.(국물 끓이는 데 최고. 우리 여기에 모자반은.)

105019 @ 으, 그 물망 이름은 무슨 물망이렌 혜여? 여기서는.(으, 그 모자반 이름은 무슨 모자반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105019 #1 아니 계난 그냥 물망하고. 물망보다 틀린 거는 쥐물망¹³⁵⁾엔 혜근에.(아니 그러니까 그냥 모자반하고. 모자반보다 다른 거는 ‘쥐모자반’이라고 해서.)

105019 @ 아, 쥐물망이렌 혜고. 춤물망 이렇게는 안 써마씨?(아, ‘쥐물망’이라고 하고. ‘춤물망’ 이렇게는 안 써요?)

105019 #1 쥐물망허곡.(‘쥐모자반’하고.)

105019 @ 그냥 물망하고.(그냥 모자반하고.)

105019 #1 쥐물망.(‘쥐모자반’.)

105019 @ 쥐물멍허고예? 쥐물망은 무청만 먹고. 추자도에서 하영 나는 거.(‘쥐모자반’하고요? ‘쥐모자반’은 무쳐서만 먹고. 추자도에서 많이 나는 거.)

105019 #1 그건 저 무청만 먹는 거.(그건 저 무쳐서만 먹는 거.)

105019 @ 예.(예.)

105019 #2 웬장에 찍엉 먹고.(된장에 찍어서 먹고.)

105019 @ 삼춘, 아까 이제 뜬국물이렌 혗찮아예? 그 뜬국물하고 요즘 봄국하고는 어떻 튼난 거우까?(삼춘, 아까 이제 ‘뜨국물’이라고 혗찮아요? 그 ‘뜨국물’하고 요즘 모자반국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105019 #1 뜬국물엔 헌 거는 옛날에 그 잔치 때 뛰지 다섯 머리고 육섯 머리고 잡안에 큰 그거 이제 그 가메에서 삶아내영.(‘뜨국물’이라고 한 거는 옛날에 그 잔

133) ‘뜨국물’은 돼지를 삶았던 육수를 말한다. 이 육수를 활용하여 예전에 잔치나 상가에서는 모자반 국을 끓여서 손님을 대접하였다.

134) 여기에서 ‘뜨국물’은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국을 가리키는 용어다.

135) ‘쥐물망’은 모자반의 일종이다. 공기주머니가 일반 모자반보다 작다.

치 때 돼지 다섯 마리고 여섯 마리고 잡아서 큰 그거 이제 그 가마에서 삶아내서.)

105019 @ 예.(예.)

105019 #1 막끗데 이제 수에.(마지막에 이제 순대.)

105019 @ 예.(예.)

105019 #1 수에엔 헌 거는 순대.(순대라고 한 거는 순대.)

105019 @ 음.(음.)

105019 #1 그 수에를 담아근에 모밀가루해근에 그 피.(그 순대를 담아서 메밀가루해서 그 피.)

105019 @ 음.(음.)

105019 #1 피허곡 막 혜연 이제 무슨 양념덜 해놔근에 그거 혜영 수에 담아근에 수에끄장 다 삶아난 그 물에 이제 그 물망을 놔근에 물망하고 촘느물 그 썹.(피하고 마구 해서 이제 무슨 양념들 해놔서 그거 해서 순대 담아서 순대까지 다 삶았던 그 물에 이제 그 모자반을 놔서 모자반하고 무잎 그 잎.)

105019 @ 음.(음.)

105019 #1 단지느물¹³⁶⁾ 썹 늠삐썹 그거하곡 서꺼근에 그 뜬국물허민 진짜로 그 국이야말로 잔치 때뺏고 이거는.(‘단지무’ 잎 무잎 그거하고 섞어서 그 ‘뜻국물’하면 진짜로 그 국이야말로 잔치 때밖에 이거는.)

105019 @ 헐 수 엇어?(헐 수 없어?)

105019 #1 못 먹는 거.(못 먹는 거.)

105019 @ 음.(음.)

105019 #1 잔치 때 아니면은 기냥 뛰지고기 사당은에 혜영 집의서 혜영 영 영끓여도 그 맛이 절대 안 나.(잔치 때 아니면 그냥 돼지고기 사다가 해서 집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끓여도 그 맛이 절대 안 나.)

105019 @ 음, 그 일름이 뭐라, 뭐렌 불러마씨? 여기서는.(음, 그 이름이 뭐라,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105019 #2 뜬국물.(‘뜻국물’.)

105019 #1 뜬국물.(‘뜻국물’.)

105019 @ 그냥 뜬국물, 뜬국물 허는 거라예? 게난 요즘 말은 뜬국이렌 헌 말은 여기서는 안 불렀던 이름 아니우꽈예?(그냥 ‘뜻국물’, ‘뜻국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은 ‘뜻국’이라고 한 말은 여기서는 안 불렀던 이름 아닙니까요?)

105019 @ 예. 여기선 안 불런?(예. 여기선 안 불렀어요?)

105019 #2 그때는.(그때는.)

105019 @ 요즘 뜬국허지만은.(요즘 ‘뜻국’하지만.)

105019 #1 뜬국은 요새 그냥 뭐 뛰지 다리라도 훈나 삶아낳 그 물에 기자 국끌영 뜬국이여 무시거여 해도 옛날은 그냥 뜬국물.(‘뜻국’은 요새 그냥 뭐 돼지 다리라도 하나 삶아놔서 그 물에 그저 국 끓여서 ‘뜻국’이다 무엇이다 해도 옛날은 그

136) ‘단지느물’은 무의 일종을 말한다. 무 모양이 단지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냥 ‘돗국물’.)

105019 @ 돗국물예? 아니 웨나혀면 여기는 뮤이렌은 안 허지 아님니까? 물망이 렌 허니까.(‘돗국물요’? 아니 왜냐면 여기는 ‘뮤’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물망’이라고 하니까.)

105019 #2 물망.(모자반.)

105019 @ 물망죽이렌?(‘물망죽’이라고?)

105019 #1 경 혜도 뮤국이엔 혜여.(그렇게 해도 ‘뮤국’이라고 해.)

105019 #2 뮤국이엔.(‘뮤국’이라고.)

105019 @ 경 혜도 뮤국엔 혜여. 거 이상한 거라. 뮤국도 옛날부터 잊어낫수가?
(그렇게 해도 ‘뮤국’이라고 해요. 거 이상한 거야. ‘뮤국’도 옛날부터 있었었습니까?)

105019 #1 잔치 때에 돗국물뺏기 안 먹어나신다.(잔치 때에 ‘돗국물’밖에 안 먹었었는데.)

105021 @ 아, 요즘예, 알았수다. 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하고 그 오분제기나. 오분제기는 짜무는 거 아니지예? 고등.(아, 요즘요, 알았습니다. 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하고 그 오분자기나. 오분자기는 캐는 거 아니지요? 소라.)

105021 #1 어떻 혜영?(어떻게 해서?)

105021 @ 저기 점복이나 구챙기.(저기 전복이나 소라.)

105021 #1 구챙기.(소라.)

105021 @ 건 어떤 식으로 아까 채취하는 거?(건 어떤 식으로 아까 채취하는 거?)

105021 #1 그건 뭐 그 고등 그 고등 종류는이 물속에 들어가면 감태가 막 있어 이.(그건 뭐 그 소라 그 소라 종류는 물속에 들어가면 감태가 마구 있어.)

105021 @ 음.(음.)

105021 #1 감태 영 혜영 겉으면은 영 기자 돌 우의 이렇게 잇고. 전복은 어떤 디 이런 디 엉덕, 그런 속에 이런 호랑쟁이. 그치록혜영 잇는 거 부명 잇는 거.(감태 이렇게 해서 겉으면 이렇게 그저 돌 위에 이렇게 있고. 전복은 어떤 데 이런 데 언덕, 그런 속에 이런 ‘호랑쟁이’. 그렇게 해서 있는 거 붙어서 있는 거.)

105021 @ 그 다음에 오분작은?(그 다음에 오분자기는?)

105021 #1 오분작은 ㄡ, ㄡ듸. 오분작은 면바당에 잇는 게 아니.(오분자기는 가, 가에. 오분자기는 면바다에 있는 게 아니.)

105021 @ 아아.(아아.)

105021 #2 ㄡ듸.(가에..)

105021 #1 ㄡ바당에.(갓바다에..)

105021 @ 아.(아.)

105021 #1 ㄡ바당에 돌에 보민 고망 잇잖아요.(갓바다에 돌에 보면 구멍 있잖아.)

105021 #2 이렇게 만지면서.(이렇게 만지면서.)

105021 #1 그런 디 다 부명 있는 거.(그런 데 다 붙어 있는 거.)

105021 @ 조개는 고망에 들어간덴예? 고망 소곱으로 들어가고. 전복은 이렇게 엉덕 밑에.(오분자기는 구멍에 들어간다고요?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전복은 이렇게 바위 밑에.)

105021 #1 엉덕 밑에. 때로는 막 오래된 늙은 점복은 이 여 우의 기냥 탁 부팅 이신 것도 있어.(언덕 밑에. 때로는 매우 오래된 늙은 전복은 이 여 위 그냥 탁 붙어 있는 것도 있어.)

105021 @ 부명. 늙은 것들은. 경 혜영 하고 아까 이제 꺼끄먹?(붙어서. 늙은 것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이제 ‘꺼끄먹’?)

105021 #1 꺼끄먹.(‘꺼끄먹’.)

105021 @ 꺼끄먹. 이 꺼끄먹은 제가 처음 들어봤수다. 이름을 처음 들어봤수다.(‘꺼끄먹’. 이 ‘꺼끄먹’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105021 #1 꺼끄먹은 그 전복 새끼.(‘꺼꾸먹’은 그 전복 새끼.)

105022 @ 으, 전복 새끼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테베? 터베?(으, 전복 새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테베’? ‘터베’?)

105022 #2 터베¹³⁷⁾.(‘터배’.)

105022 @ 터배?(떼배?)

105022 @ 터배 용도는 뭐우과?(때배 용도는 뭐니까?)

105022 #1 자리.(자리돔.)

105022 #2 자리 거리레.(자리돔 뜨러.)

105022 #1 자리 거리레 다니는 거. 터베는 나무토막 여껴가지고.(자리 뜨러 다니는 거. 폐배는 나무토막 엮어가지고.)

105022 #2 숙대당 혼 일고요딥 개 여껴가지고.(삼나무 한 일고여덟 개 엮어가지고.)

105022 @ 으음, 거는 자리 거릴 때만?(으음, 거는 자리 뜰 때만?)

105022 #1 자리 거릴 때. 그거는.(자리 뜰 때. 그거는.)

105022 @ 예.(예.)

105022 #1 바다 파도 쎌여도 건 안 훠고.(바다 파도 세도 건 안 되고.)

105022 @ 음.(음.)

105022 #1 자리도 잔잔해야 자리가 영 물결이 영 이시민 자리도 다 이런 엉덕에 다 들어가변에 못 거려. 계난 물결이 잔잔해근에 물도 아니 가고 할 때에 그 자리가 다 우터레 떠.(자리돔도 잔잔해야 자리돔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있으면 자리돔도 다 이런 언덕에 다 들어가버려서 못 떠. 그러니까 물결이 잔잔해서 물도 안 가고 할 때에 그 자리가 다 위로 떠.)

105022 @ 음.(음.)

105022 #1 올라근에 노는 거라. 경 할 때 그 터베가 강은에 그 자리 거릴 거.

137) ‘터배’는 폐배를 표선리에서 가리키는 말이다.

거리는 용도. 무신거.(올라서 노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빼배가 가서 그 자리 뜰 거. 뜨는 용도. 무엇.)

105022 @ 그러면 그 자리도 종류가 으라 개 잊어실 거 아니라예? 옛날에예. 불르는 이름은 엇엇수가?(그러면 그 자리도 종류가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닌가요? 옛날예요. 부르는 이름은 없었습니까?)

105022 #1 무시거 자리. 자리는 큰자리 족은자린가?(무엇 자리돔. 자리돔은 큰자리돔 작은 자리돔인가?)

105023 @ 자리, 음, 알았수다. 그 다음에 혹시 뜻베?(자리돔, 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뜻베?)

105023 #1 뜻, 뜻 돌아근에 그 뎅견. 옛날은 풍선덜 뜻 달안 안 다녔수가?(恚, 뜻 달아서 그 다녔어. 옛날은 풍선들 뜻 달아서 안 다녔습니까?)

105023 #2 뜻 달안 뎅견.(뜻 달아서 다녔어.)

105023 @ 풍선예?(풍선요?)

105023 #1 뜻름. 바람으로 영 가는 거.(바람. 바람으로 이렇게 가는 거.)

105023 @ 그 풍선힐 때 그 풍선 뜻 다는 거를 여기서 뭐렌 콘 지 알아지쿠파? 혹시.(그 풍선할 때 그 풍선 뜻 다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말한 지 알겠습니까? 혹시.)

105023 #1 뜻 달았젠퐁만 허난.(뜻 달았다고만 하니까.)

105023 @ 뜻 달았저. 초석 둘았저는 안 해? 그냥 뜻단배예? 풍선.(뜻 달았다. '초석' 달았다는 안 해? 그냥 뜻단배요? 풍선.)

105023 #1 풍선에 그 뜻 달양 광목 가져근에.(풍선에 그 뜻 달아서 광목 가져서.)

105023 @ 광목 혜영. 그것도 광목 허는 거. 삼춘 육짓 물질도 가반?(광목 해서. 그것도 광목 하는 거. 삼촌 육지 물질도 가봤어요?)

105023 #1 육지 물질은 안 가반.(육지 물질은 안 가봤어.)

105023 @ 안 가봄디가? 육지 물질 우리 사모님 강은에.(안 가봄디까? 육지 물질 우리 사모님 가서.)

105023 #1 (웃음).(웃음).

105023 #2 아, 경현디 육지 물질 가믄 나 물질허는 거 봤어?(아 그런데 육지 물질 가면 나 물질하는 거 봤어?)

105023 @ 여자 삼춘은 물질 언제까지 햇수가? 여기 왕도 혜실 거 아니예?(여자 삼촌은 물질 언제까지 했습니까? 여기 와서도 했을 거 아니예요?)

105023 #2 미역 허제 헌 텐 막 바지개영 막 준비혜영 가면은.(미역 허채 한다고 마구 바지개¹³⁸⁾랑 마구 준비해서 가면.)

105023 @ 예.(예.)

105023 #2 땀 사름들 들르는 것만 허지 우리 집의 사름¹³⁹⁾ 건 나 간단하게 들

138) '바지개'는 싸리나 대오리 따위로 만든 발채를 얹어 놓은 지게다.

러내영.(딴 사람들 드는 것만 하지 우리 집의 사람 건 나 간단하게 들어내서.)

105023 @ 물질 못했구나게. 웃음. 게믄 아,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사름을 뭐렌
해?(물질 못했군요. 웃음. 그러면 아,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

105023 #1 어떻게 가는 사름?(어떻게 가는 사람?)

105023 @ 왜냐, 그 매역 허제 헐 때는 다 이제 물질헐 거 아니우과예?(왜냐, 그
미역 허채 할 때는 다 이제 물질할 거 아닙니까?)

105023 #1 상군하고 중군.(상군하고 중군.)

105023 @ 상군 중군 이렇게 가잖아예? 그러면 이.(상군 중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105023 #1 돌파례.(돌팔이.)

105023 @ 끌어내고, 집에 날르는 사름 잇잖우과?(끌어내고, 집에 나르는 사람
있잖습니까?)

105023 #2 미역 마중.(미역 마중.)

105023 #1 마중, 마중.(마중, 마중.)

105023 @ 다시 한번?(다시 한번?)

105023 #1 마중.(마중.)

105023 @ 마중 감덴 해? 미역 마중엔 해에? 삼춘, 마지막으로 그 저기 물질하
는 잠수들 물질 젤 물질 잘 허는 사름 누계?(마중 간다고 해? 미역 마중이라고 해
요? 삼촌, 마지막으로 그 저기 물질하는 잠수들 물질 젤 물질 잘 하는 사람 누구?)

105023 #1 상군.(상군.)

105023 @ 상군.(상군.)

105023 #1 그 다음은 중군.(그 다음은 중군.)

105023 @ 중군.(중군.)

105023 #1 그다음 돌파리.(그다음 돌팔이.)

105023 @ 돌파리. 상군 중군 돌파리. 하군이라는 말은 안 써마씨?(돌팔이. 상군
중군 돌팔이. 하군이라는 말은 안 써요?)

105023 @ 그 할망들 따로 부르는 말은 없고.(그 할머니들 따로 부르는 말은 없
고.)

105023 #1 할망덜은 부르는 말은 없고 그자.(할머니들은 부르는 말은 없고 그
저.)

105023 #2 몽딱 할망들이 상군이라.(몽땅 할머니들이 상군이야.)

105023 @ 상군.(상군.)

105023 #1 나이 든 사름들이 물질 오래 하니까 하영 잡아.(나이 든 사람들이 물
질 오래 하니까 많이 잡아.)

105023 @ 잡고예? 상군보다 더 잘 허는 사름은?(잡고요? 상군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은?)

139) ‘우리 집의 사름’은 구술자 송봉휴 씨가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105023 #1 그자 상군.(그저 상군.)

105023 @ 그냥 상군. 상군 중군 돌파리로만 세 단계로 하는구나예?(그냥 상군. 상군 중군 돌팔이로만 세 단계로 하는군요?)

105023 #1 이디 어명¹⁴⁰⁾은 돌파리.(여기 어머니는 돌팔이.)

105023 @ 어. (웃음).(어. (웃음).)

105023 @ 경 허난 들어내지 못허연.(그렇게 하니까 들어내지 못했어.)

105023 #2 딴 사람 것 막 들려오당 우리 오민 건 난 간단하게 바지게에 놔서 오민 끗.(딴 사람 것 막 들어오다가 우리 오면 건 난 간단하게 바지게에 놓아서 오면 끗.)

105023 @ 끗.(끝.)

105023 #2 멧 번덜.(몇 번들.)

105023 #1 상군덜.(상군들.)

105023 @ 안 가지는 못혜영은에 이제 간.(안 가지는 못해서 이제 갔어.)

105023 #1 고무옷 입지 아녀곡 그 족영 매는 사름이 멧 배 고생했수다. 상군덜 보단.(고무옷 입지 않고 그 적게 매는 사람이 몇 배 고생했습니다. 상군들보단.)

105023 @ 맞아. 하영 허믄 기분이라도 좋을 건디.(맞아. 많이 하면 기분이라도 좋을 건데.)

105023 #2 미역 마줌¹⁴¹⁾ 허염젠 허민 막 저들어.(‘미역 마줌’한다고 하면 매우 걱정해.)

105023 @ 아, (웃음).(아, (웃음).)

105023 #2 경 허난에 이디 안 살안 서귀포로 가불엇주.(그렇게 하니까 여기 안 살아서 서귀포로 가버렸지.)

105023 @ 경햇구나예?(그렇게 했군요?)

105023 #1 서귀포 무신 그것에 갓어? 사업 따랑 갓주, 무신.(서귀포 무슨 그것에 갓어? 사업 따라서 갔지, 무슨.)

105023 @ 알았수다. 예, 영 혜영은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허쿠다에. 고맙수다.(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5023 #1 멧 시니? 다섯 시 웨시니? 두 시간 딱 햇구나.(몇 시니? 다섯 시 되었니? 두 시간 딱 햇구나.)

105023 @ 두 시간 안 햇수다. 1시간 38분. 여기 딱 기록.(두 시간 안 했습니다. 1시간 38분. 여기 딱 기록.)

140) 여기에서 ‘어명’은 구술자 송봉휴 씨의 아내를 구술자 고옥년 씨가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141) ‘미역 마줌’은 잠녀들이 물속에 들어 캐낸 미역을 남편 등의 남정네가 들고 오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는 행위를 말한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공부허쿠다예, 오늘은예 의생활, 식생활 이런 거 헐 거예? 옷감 종류예, 삼춘 어떤 거 잇수과? 옛날에.(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생활, 식생활 이런 거 할 거예요? 옷감 종류요, 삼춘 어떤 거 있나요? 옛날에.)

106001 #1 옛날에 우리 그때 그 두린 때는 옷감이 미녕하고 광목.(옛날에 우리 그때 그 어린 때는 옷감이 무명하고 광목.)

106001 @ 음.(음.)

106001 #1 미녕 광목 옥영목. 그런 거 그걸로 가정은에 주로 옷 행 입었어.(무명 광목 옥양목. 그런 거 그걸로 가져서 주로 옷 해서 입었어.)

106001 @ 맹지는 엊고?(명주는 없고?)

106001 #1 맹지는 해도 맹지옷은 죽을 때나.(명주는 해도 명주옷은 죽을 때나.)

106001 @ 음,(음.)

106001 #1 호상옷 할 때에 맹지옷 허고 또 종갓집 같은데 큰옷.(수의 할 때에 명주옷 하고 또 종갓집 같은데 큰옷.)

106001 @ 예.(예.)

106001 #1 제사 지낼 때 입는 그런 디 하주 뭐. 일할 때 그 맹지옷은 입엉 일할 수가 엊주게.(제사 지낼 때 입는 그런 데 많지 뭐. 일할 때 그 명주옷은 입어서 일할 수가 없지.)

106001 @ 예, 맞수다. 음, 경 해도 씨집갈 때도 맹지옷 해줬일 거고?(예, 맞습니다. 음, 그래도 시집갈 때도 명주옷 해줬을 거고?)

106001 #1 씨집갈 때는 뭐 맹지로 해근에 치마도 허고 영 끗동 들안에 혜신디 그것이 원 영 그때 그 옷 어디사 가신디 그때 입어난 것이 끼우지도 못허여.(시집갈 때는 뭐 명주로 해서 치마도 하고 이렇게 끗동 달아서 했는데 그것이 원 이렇게 그 때 그 옷 어데 갔는지 그때 입었던 것이 끼우지도 못해.)

106001 @ 너무 족양.(너무 작아서.)

106001 #1 족양.(작아서.)

106001 @ 맞아예?(맞아요?)

106001 #1 치마도 이만은 올라가고.(치마도 이만큼 올라가고.)

106001 @ 음.(음.)

106001 #1 경 허영 하난 네껴져벼신가 어떻 혜신가.(그렇게 해서 하나는 던져버렸는가 어떻게 했는가.)

명주

106002 @ 알았수다. 혹시 삼춘, 여기 맹지 허는 거 짜는 거 봐봤수가?(알았습니다. 혹시 삼춘, 여기 명주 하는 거 짜는 거 봐봤습니까?)

106002 #1 여기는 맹지 짜는 디가 엊어.(여기는 명주 짜는 데가 없어.)

106002 @ 요 남원은 가난 맹지를 짜낫덴 헨계마는예?(요 남원은 가니까 명주를 짬었다고 하더니만?)

106002 #1 옛날에.(옛날에.)

106002 @ 예.(예.)

106002 #1 몰라. 여기는 맹지 짜는 거 엊어. 육지서 들어와근에 다 사곡.(몰라. 여기는 명주 짜는 거 없어. 육지서 들어와서 다 사고.)

106002 @ 여기 누에치거나 이런 것도 엊어?(여기 누에치거나 이런 것도 없어?)

106002 #1 누에는 말만 들었지 표선이서 직접 누에치는 거는 안 봐봤어.(누에는 말만 들었지 표선에서 직접 누에치는 거는 안 봐봤어.)

106004 @ 아, 안 보고예? 게믄 삼춘 맹지로는 어떤 옷을 주로 만들어봐서마씨? 다시 한 번만예?(아, 안 보고요? 그러면 삼춘 명주로는 어떤 옷을 주로 만들어보셨어요? 다시 한 번만요?)

106004 #1 맹지는 그거, 맹지는 뭘로 맹지썰은 뭘로 혜신고? 그때에. 뭐 목화는 아니고.(명주는 그거, 명주는 무엇으로 명주실은 무엇으로 했던가? 그때에. 뭐 목화는 아니고.)

106006 @ 게난 누에고치, 누에치는 거.(그러니까 누에고치, 누에치는 거.)

106006 #1 누에, 누에 그걸로 헨에.(누에, 누에 그걸로 해서.)

106006 #2 우리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에서 누에 질러낫수게.(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에서 누에 길렀었어요.)

106006 #1 국민학교에서.(초등학교에서.)

106006 #2 으. 누에 그 뽕나무덜이 많이 있으니까.(으. 누에 그 뽕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106006 #1 음, 요 밧듸 뽕나무, 국민학교 옆에 텃밭 대신 밧 헨 무시거 하고 집도 짓어벼신디, 거기에 이제사 생각해보난 뽕나무가 그디 많이 있어낫어.(음, 요 밭에 뽕나무, 초등학교 옆에 텃밭 대신 밭 해서 무엇 하고 집도 지어벼렸는데, 거기에 이제야 생각해보니까 뽕나무가 거기 많이 있었었어.)

106006 #2 그래서 당번덜 우리 학생덜 당번덜 혜가지고 누에도 뽕나무 따당 주고 이렇게 당번해서 혜낫는데, 그 당시에는 누에 해서 우리가 뭘 뭘하는 것도 몰르고.(그래서 당번들 우리 학생들 당번들 해가지고 누에도 뽕나무 따다가 주고 이렇게 당번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누에 해서 우리가 뭣 뭣 하는 것도 모르고.)

106006 #1 그자 하렌 하난에 뽕썹 따당 주렌 혀난 그것만 헷주. 그거 가정 뭐가 하는지.(그저 하라고 하니까 뽕잎 따다 주라고 하니까 그것만 했지. 그거 가져서 뭐를 하는지.)

106006 #2 겐디 선생은 오라가지고 누에 크는 거 이거 다 체크하고 이렇게 허더라고.(그런데 선생은 와서 누에 크는 거 이거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106006 @ 음. 기지예?(음. 그렇지요?)

106006 #1 이제 생각해보난 이런 뽕남, 뽕껍데k 헤당 영 주면은 막 일로 쟁근즈
근 먹어난 거 그 생각이 남신게.(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런 뽕나무, 뽕잎들 해다가 이
렇게 주면 막 이리로 차근차근 먹었던 거 그 생각이 나고 있네.)

106006 @ 아, 뽕껍 먹어난 건예? 계난 이제.(아, 뽕잎 먹었던 건요? 그러니까
이제.)

106006 #2 일반 집에는 안 헤낫수다.(일반 집에는 안 했었습니다.)

무명

106007 @ 그건 안 하고 알았수다. 계믄 미녕일랑 빼불고예?(그건 안 하고 알았
습니다. 그러면 무명일랑 빼버리고요?)

106007 #1 미녕은 목화로 햇주게.(무명은 목화로 했지.)

106007 @ 목화로예? 미녕도 종류가 으라 개 잇수과?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녕
차낫지예? 삼촌네.(목화로요? 무명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
는 무명 깐었지요? 삼촌네.)

106007 #1 미녕옷은 뭐하느냐 하면 갈옷 같은 거.(무명옷은 뭐하느냐 하면 갈옷
같은 거.)

106007 @ 예.(예.)

106007 #1 갈옷 같은 거 헤여근에 감 들여근에 일할 때이 입는 거.(갈옷 같은
거 해서 감 들여서 일할 때 입는 거.)

106007 @ 음.(음.)

106007 #1 또 몸빼 같은 거. 거 헤근에 광목은 그보담 ㅎ꼼 고급으로.(또 몸빼
같은 거. 거 해서 광목은 그보다 조금 고급으로.)

106007 @ 고급으로, 음.(고급으로, 음.)

106010 #1 겐디 광목은 옷을 헤가지고 이 저 감 들이민 그 광목이 딕깍하니까
미녕 ㅋ치룩 훌랑훌랑허지 아녀고 딕깍하니까 다 껴꺼져. 감들영 벼짝허민.(그런데
광목은 옷을 해가지고 이 저 감 들이면 그 광목이 빽빽하니까 무명같이 보들보들하
지 않고 빽빽하니까 다 꺼어져. 감 들여서 뻣뻣하면.)

106010 @ 아아.(아아.)

106010 #1 영 껴꺼지는 때문에 주로 그 미녕으로는 아니 하고.(이렇게 꺼어지는
때문에 주로 그 무명으로는 안 하고.)

106010 @ 예.(예.)

106010 #1 이제 그 광목으로는 아니 허고 미녕으로만 이 감옷¹⁴²⁾ 헤난 거.(이제
그 광목으로는 아니 하고 무명으로만 이 ‘감옷’ 했던 거.)

106010 @ 삼촌, 그러면은 그 미녕도 종류가 아까 광목도 잇고 미녕이 잇고.(삼
촌, 그러면 그 무명도 종류가 아까 광목도 있고 무명이 있고.)

106010 #1 옥영목.(옥양목.)

142) ‘감옷’을 표선면 표선리에서 감물을 들인 옷을 일컫는 말이다.

106009 @ 옥영목 잇고. 무신 토목이여 생목이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봤마씨?(옥양 목 있고. 무슨 토목이다 생목이다 이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106009 #1 토목 그런 거는 그것에 다 속현 거 아니?(토목 그런 거는 그것에 다 속한 거 아니?)

106009 @ 삼촌이 들어본 건 아니고예? 직접 무명 차는 베틀 허는 거는 안 봅디가?(삼촌이 들어본 건 아니고요? 직접 무명 쪽는 베틀 하는 거는 안 봅디까?)

106009 #1 베틀 하는 거는 여기는 베틀 허는 거 엊었어.(베틀 하는 거는 여기는 베틀 하는 거 없었어.)

106012 @ 여기는 그것도 안 하고예? 홍세미녕이렌 허영 들어봄디가?(여기는 그것도 안 하고요? ‘홍세미녕’이라고 해서 들어봄디까?)

106012 #1 홍세미녕¹⁴³⁾, 그 막 얄룬 거 이신디이.(‘홍세미녕’, 그 막 얇은 거 있는데.)

106012 @ 예.(예.)

106012 #1 그 옥영목보단도 막 얇은 거 이신디 그런 거는 뭐 씨집갈 때 영 홍세에 그 함에 놓는 그런 용으로 그거는 이제 셋주. 겐디 그거는 조금 비싸고 뭐하니까 건 주로 잘 안 쓰고 우리 여기는 그자 광목하고 미녕.(그 옥양목보다도 아주 얇은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시집갈 때 이렇게 혼서에 그 함에 넣는 그런 용으로 그거는 이제 셋지. 그런데 그건 조금 비싸고 뭐하니까 건 주로 잘 안 쓰고 우리 여기는 그자 광목하고 무명.)

106012 @ 음.(음.)

106012 #1 그거 주로 셋어. 또 베옷, 여름에 베옷하고.(그거 주로 셋어. 또 베옷, 여름에 베옷하고.)

106012 @ 베옷하고예? 그 홍세미녕 용도는 뭐라마씨? 씨집갈 때.(베옷하고요? 그 ‘홍세미녕’ 용도는 뭐예요? 시집갈 때.)

106012 #1 홍세, 그 그거는 치마이.(혼서, 그 그거는 치마.)

106012 @ 예.(예.)

106012 #1 치마덜 혜근에 그 완전 곱게시리 그 나들이옷^ㅋ치록 그 치마를 헹입고.(치마들 해서 그 완전 곱게끔 그 나들이옷처럼 그 치마를 해서 입고.)

106012 @ 음.(음.)

106012 #1 그거는 아주 올이 막 잠지니까 혜영하고.(그것은 아주 올이 매우 가느니까 하얗고.)

106012 @ 음.(음.)

106012 #1 경 허니까 걸로 가져근에 적삼도 헹근에 어디 나들이 갈 때 입는 옷으로 그 막 고급으로.(그렇게 하니까 그것으로 가져서 적삼도 해서 어디 나들이 갈 때 입는 옷으로 그 아주 고급으로.)

106012 @ 게믄 홍세미녕에 담는 거는 남자 집의서 해주는 거?(그러면 ‘홍세미

143) ‘홍세미녕’은 결혼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함 속에 넣는 무명이다.

녕'에 담는 거는 남자 집에서 해주는 거?)

106012 #1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헤가는.(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해가는.)

106012 @ 헤가는 거예? 웃감으로예? 아아, 삼춘네도 멘네 농사 쪄낫수가?(해가는 거요? 웃감으로요? 아아, 삼춘네도 면화 농사 지었었나요?)

106012 #1 멘네 농사 쪄낫어.(면화 농사 지었었어.)

106012 @ 그 멘네 농사는 어떤 식으로 헤서 언제 어떻게 해서 수확하는 거?(그 면화 농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수확하는 거?)

106012 #1 멘네는 봄에 멘네씨를 뿌령 밧 갈앙 그거는 그자 씨만 뿌려근에 밧을 갈안게. 그 멘네는.(면화는 봄에 면화씨를 뿌려서 밭 같아서 그거는 그저 씨만 뿌려서 밭을 갈던데. 그 면화는.)

106012 @ 아아.(아아.)

106012 #1 우리 쟁다리못¹⁴⁴⁾엔 헌디 밧 혼 팔백 평짜리 이제 멘네를 갈아나신디.(우리 '쟁다리못'이라고 한 밭 한 팔백 평짜리 이제 면화를 갈아났는데.)

106012 @ 음.(음.)

106012 #1 그거 헤여근에 꽃 피영 그 꽃 피기 전에 영 할 때는 땅 우리 막 먹어낫어.(그거 해서 꽃 피어서 그 꽃 피기 전에 이렇게 할 때는 따서 우리 마구 먹었었어.)

106012 @ 먹는 그거는 뭐라마씨? 이름이.(먹는 그거는 뭐예요? 이름이.)

106012 #1 그거 어쨌든 간에 멘네 열매렌 헤근에 그치록 헤근에 막 따근에이 소게 뛰기 전에 따 먹어난 기억이 나고.(그거 어쨌든 간에 면화 열매라고 해서 그처럼 해서 막 따서 솜 되기 전에 따 먹었던 기억이 나고.)

106012 @ 음.(음.)

106012 #1 게영 그 하늬부름 영 허영 불어가가믄 그것이 커근에 탁 펴지민 헤영한 그 멘네가 나오면 그거 따다근에 이제 영 말류와근에 이거 영 영 나무.(그렇게 해서 그 하늬바람 이렇게 해서 불어가면 그것이 커서 탁 펴지면 하얀 그 면화가 나오면 그거 따다가 이제 이렇게 말려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무.)

106012 @ 예.(예.)

106012 #1 씨 발르는 나무. 그 기계.(씨 바르는 나무. 그 기계.)

106012 @ 예.(예.)

106012 #1 그거 가경 영 영 테믄 씨는 앞더레 빠지고 그거는 그 솜은 두으로 이렇게 나강 허민, 그거를 하영 헤여근에 이제 그 소게 테우는 집에 가근에 테와다근에 이불도 만들곡.(그거 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대면 씨는 앞으로 빠지고 그거는 그 솜은 뒤로 이렇게 나가서 하면, 그거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솜 타는 집에 가서 타다가 이불도 만들고.)

106012 @ 음.(음.)

106012 #1 그거 헤근에 그치록 테와다근에 이제 영 영 그 그것이.(그거 해서 그

144) '쟁다리못'은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처럼 타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그것이.)

106012 #2 썰 빠는 거.(실 뽑는 거.)

106012 #1 썰 빠는 거. 그거 영 영 헤근에 빼어근에 작하게 감아둬근에 그거 가정은에 세타도 짜곡.(실 뽑는 거.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서 작하게 감아두고 그거 가져서 스웨터도 짜고.)

106012 @ 음.(음.)

106012 #1 게썰 만들영.(털실 만들어서.)

106012 @ 으음.(으음.)

106012 #1 경현디 그것도 그 멘네도 아무 집이나 밧 엇인 사름은 못 갈아.(그런데 그것도 그 면화도 아무 집이나 밧 없는 사람은 못 갈아.)

106012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6012 #1 그 멘네는 기자 그냥 뭐 집에서 있어도 훠고 엊어도 훠고 하난 거 신경 써근에 막 갈젠도 안 하고.(그 면화는 그저 그냥 뭐 집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니까 거 신경 써서 마구 갈려고도 안 하고.)

106012 @ 음.(음.)

106012 #1 혜신디 우리 경우는 밧이 많으니까 그 멘네 갈아근에 혜영 우리 겨울에 걸로 혜영 양말도 짜근에 신고. 이제 세타도, 세타 짜면은 이런 디가이 영 늘어난 데로 입주. 요즘처럼 입을 때 늘어졌당 입고 나면 영 쫄어들지 안 허영 이디가 쳐지민 쳐지는 대로 그 멘네는 그거는 해서 그 세타를 찬 우리가 입어 봐도 그 치록 늘어지민 늘어진 낭?(했는데 우리 경우는 밧이 많으니까 그 면화 갈아서 해서 우리 겨울에 것으로 해서 양말도 짜서 신고. 이제 스웨터도, 스웨터 짜면 이런 데가 이렇게 늘어난 대로 입지. 요즘처럼 입을 때 늘어졌다가 입고 나면 이렇게 줄어들지 안 해서 여기가 쳐지면 쳐지는 대로 그 면화는 그거는 해서 그 스웨터를 짜서 우리가 입어 봐도 그처럼 늘어지면 늘어진 대로?)

106012 @ 늘어진 낭 그냥 있어양?(늘어진 대로 그냥 있어요?)

106012 #1 영 쫄아들지를 아녕 목화는?(이렇게 줄어들지를 않아서 목화는?)

106012 @ 아까 먹는 거를 여기서 멘넷드레 이런 말은 안 협니까?(아까 먹는 거를 여기서 목화다래 이런 말은 안 합니까?)

106012 #1 멘넷드렌 그런 거는 몰르고. 멘네밧듸 그거 타 먹으레 가겐 헤근에 강 그 영 오므라진 그것 허영 먹으민 맛잇어.(목화다래는 그런 거는 모르고. 면화밭에 그거 따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가서 그 이렇게 오므라진 그것 해서 먹으면 맛있어.)

106012 #2 새콤허게.(새콤하게.)

106012 #1 영 현 거 헤근에 타근에 계민 우리 어머니넨 그거 타 먹어불면은 그 목화 그것이 안 나온텐 허명 막 밧듸 막 못 가게 헤근에 해도 우린 몰르게 먹을 것이 그거 타 먹으레 그 밧될 간 거주.(이렇게 한 거 해서 따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네는 그거 따서 먹어버리면 그 목화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막 밧에 막 못 가게

해서 해도 우린 모르게 먹을 것이 그거 따 먹으려 그 뱉엘 간 거지.)

106012 @ 음.(음.)

106012 #1 쟁 강 그거 타근에 영 벨라근에 먹으면은 경 혜도 그거 맛이 있어. 들크름한 맛도 있고.(그래서 가서 그거 따서 이렇게 벌려서 먹으면 그렇게 해도 그거 맛이 있어. 달콤한 맛도 있고.)

106012 @ 예.(예.)

106012 #1 그거 타 먹으면은 맛이 있어.(그거 따 먹으면 맛이 있어.)

106012 @ 예.(예.)

106012 #1 타 먹으레 땡겨난.(따 먹으려 다녔었어.)

모시

106013 @ (웃음). 그 다음에 여기는 모시도 옷 행 입어마씨? 모시?((웃음)). 그 다음에 여기는 모시도 옷 해서 입어요? 모시?)

106013 #1 옷은 행 입어 봐도 여기서 모시는 생산하지 안 해. 여기는 사. 육지서 들여왕.(옷은 해서 입어 봐도 여기서 모시는 생산하지 안 해. 여기는 사. 육지서 들여와서.)

106014 @ 모시는 무신 옷 합니까?(모시는 무슨 옷 합니까?)

106014 #1 모시 가져근에 적삼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중의바지.(모시 가져서 적삼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중의바지.)

106014 @ 음.(음.)

106014 #1 그 이제 팔월 여름 때 제사 때에 그거 혜여근에 남자덜.(그 이제 팔월 여름 때 제사 때에 그거 해서 남자들.)

106014 @ 남자덜?(남자들?)

106014 #1 남자덜 중의바지 그거 허여근에 이디 영 쪽께. 그런 거 허영 입어근에 팔월 추석 때도 남자덜 그거 허영 그 저 후루메.(남자들 중의바지 그거 해서 여기 이렇게 조끼. 그런 거 해서 입어서 팔월 추석 때도 남자들 그거 해서 그 저 두루마기.)

106014 @ 예.(예.)

106014 #1 후루메 혜여근에 우의 혜영캐. 것도 아무 집의나 그거 못 입었어. 부자침.(두루마기 해서 위에 하얗게. 것도 아무 집에나 그거 못 입었어. 부잣집.)

106014 @ 음.(음.)

106014 #1 부잣집덜이나 모시 혜영캐 혜근에 삼대가 이제 하르방 아부지 뭐 그 손자 영 하민 삼대가 그거 혜영캐 거 입엉. 우리 집 경우는 하르버지 아부지 손자 영 허영 삼현 출령은에 그거 모시 후루메 입어근에 제사 지내난 거. 그 그런 생각 그것이 이제.(부잣집들이나 모시 하얗게 해서 삼대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뭐 그 손자 이렇게 하면 삼대가 그거 하얗게 거 입어서. 우리 집 경우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해서 삼현 차려서 그거 모시 두루마기 입어서 제사 지냈던 거. 그 그

런 생각 그것이 이제.)

106014 @ 게니까 삼춘넨 부자난 그렇게 헌 거지예?(그리니까 삼춘네는 부자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106014 #1 그런 거는 철저하게 제사 때 그 출리는 거는.(그런 거는 철저하게 제사 때 그 차리는 거는.)

106014 @ 철저핸예?(철저했지요?)

106014 #1 철저하게 그 겨울에는 이 멩지 해근에 탁 하게 이런 디 영 허영 그저 무신거 제사 지낼 때 입는 텁. 텁. 토풍엔 하느냐?(철저하게 그 겨울에는 이 명주 해서 탁 하게 이런 데 이렇게 해서 그 저 무엇 제사 지낼 때 입는 텁. 텁. 도포라고 하느냐?)

106014 @2 도복.(도포.)

106014 #2 도복.(도포.)

106014 #1 그거 입어근에 모자도 어떻게 이렇게 웬 거 요새 사극에 나올 때 그쓰는 그런 거 영 써근에 이제 제 지낸. 상도 젯상도 이치록 이제는 영 납작 젯상도 이렇게 높은 거 다리 이만은 노프게 혜영 알상 영 놓고. 거기 종이. 그 종이 영 깔아근에 허는 것도 제사 지내나면은 그 종이 다 물아근에 거기에 다 같이 보관햇당은에 종이 폐와근에. 종이 폐와근에 허는 집도 벨로 엇어낫어.(그거 입어서 모자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요새 사극에 나올 때 그 쓰는 그런 거 이렇게 써서 이제 제지냈어. 상도 제상도 이처럼 이제는 이렇게 납작 제상도 이렇게 높은 거 다리 이만큼 높게 해서 아랫상 이렇게 놓고. 거기 종이. 그 종이 이렇게 깔아서 하는 것도 제사 지내나면 그 종이 다 말아서 거기에 다 같이 보관했다가 종이 퍼서. 종이 퍼서하는 집도 별로 없었었어.)

106014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6014 #1 종이도 그 당시 어렵주게.(종이도 그 당시 어렵지.)

106014 @ 맞수다.(맞습니다.)

106014 #1 우리 그 내가 그 어릴 때 친정에 영 허영 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아부지가 어디 템기당 그런 거를 막 이 잘 제사 때 쓰는 거. 그런 거를 잘 해근에 사오곡. 이 떡 같은 것도 하는 거는 뭐 저 뜯 집덜은 강 보민 아무 거나 허는디 우리 놋그릇으로만 짹 하게 이만은허게 영현 거 친떡 우의 영 놔근에 우의 또 그 솔벤 젤벤.(우리 그 내가 그 어릴 때 친정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디 다니다가 그런 거를 아주 잘 제사 때 쓰는 거. 그런 것을 잘 해서 사오고. 이 떡 같은 것도 하는 거는 뭐 저 뜯 집들은 가서 보면 아무 거나 하는데 우리 놋그릇으로만 짹 하게 이만큼하게 이렇게 한 거 시루떡 위에 이렇게 놔서 위에 또 그 솔편 젤편.)

106014 @ 음.(음.)

106014 #1 이 송편 같은 거는 못하게 하고.(이 송편 같은 거는 못하게 하고.)

106014 @ 예.(예.)

106014 #1 솔벤 절벤 옛날식으로. 또 요만은 헤근에 그 이름이 뭐라낫저마는 경하고 네개방장한 거 그거 행은에 아래 친떡 놓고 솔벤 절벤 놓 거 젤 우의 놓곡.(솔편 절편 옛날식으로. 또 요만큼 해서 그 이름이 뭐였다만 그렇게 하고 네모반듯한 거 그거 해서 아래 시루떡 놓고 솔편 절편 놓아서 거 젤 위에 놓고.)

106014 @ 중계 약궤?(중계 약과?)

106014 #1 중궤 약궤. 그거 이만은 노프게 헤근에 경 허영 지내고. 그 놋그릇 일본 놈덜 다 문딱 썰어가변 맹텅이에 헨 다 담안 놔두난. 맹텅이로 맷 개사 아져 가벼신지 몰라.(중계 약과. 그거 이만큼 높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내고. 그 놋그릇 일본 놈들 다 몽땅 쓸어가버려서 망태기에 해서 다 담아서 놔두니까. 망태기로 몇 개나 가져가버렸는지 몰라.)

삼

106017 @ 예, 그 다음에 이제 삼, 아까 삼으로 만든 옷은 베옷?(예, 그 다음에 이제 삼, 아까 삼으로 만든 옷은 베옷?)

106017 #1 삼으로 만드는 건 베옷.(삼으로 만드는 건 베옷.)

106017 @ 베로는 어떤 옷 만들아?(베로는 어떤 옷 만들어?)

106017 #1 베로는.(베로는.)

106017 #2 여름용.(여름용.)

106017 #1 여름에 적, 남자덜은 그 남자도 적삼 이디 앞의 보겟도 두 개 지갑인가 그거 영 둘곡 헤근에 남자덜토 헤영 입고 어떤 집들은 스나이덜 그 중의만 입영 데니명 베겟듸로 굴메로 그 물건 다 봐져도. (웃음). 다 보여도 그자 여상으로 햇주. 이제 같으민 대개나 웃주만은 그때는 무신 뺀스여 무신거 그런 거?(여름에 적, 남자들은 그 남자도 적삼 여기 앞에 주머니도 두 개 지갑인가 그거 이렇게 달고 해서 남자들도 해서 입고 어떤 집들은 사내들 그 중의만 입어서 다니면서 바깥으로 그림자로 그 물건 다 봐져도. (웃음). 다 보여도 그저 예사로 했지. 이제 같으면 대개나 웃지만 그때는 무슨 팬티여 무엇 그런 거?)

106017 @ 없고. 그냥 중의 혼나만 입영은에.(없고. 그냥 중의 하나만 입어서.)

106017 #1 베중의 하나만 입으면은 앞으로는 베중이민 영 오그령 허리띠를 영매는디 두으론 다 보이주게. 두으론 다 보여. 앞으로 오그려지니까 안 보이는데.(베중의 하나만 입으면 앞으로면 베중의면 이렇게 오그려서 허리띠를 이렇게 매는데 뒤틴 다 보이지. 뒤틴 다 보여. 앞으로 오그려지니까 안 보이는데.)

106017 @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106017 #1 그런 생각덜도 여자덜토 베 헤근에 몸빼.(그런 생각들도 여자들도 베해서 몸빼.)

106017 @ 음.(음.)

106017 #1 여자덜은 몸빼 멘들앙 저번에 말했주마는 속곳.(여자들은 몸빼 만들어서 저번에 말했지만 속곳.)

도구

106019 @ 삼춘, 아까 씨 영하는 거. 건 그 이름 무신거마씨?(삼춘, 아까 씨 이렇게 하는 거. 건 그 이름 무엇이에요?)

106019 #1 그 이름이 뭔고? 그거.(그 이름이 뭔고? 그거.)

106019 @ 뭐 씨블르는물레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뭐 씨아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까?)

106019 #1 물레엔 헤신가 어쨌든 간에?(물레라고 했는가 어쨌든 간에?)

106021 @ 그 다음에 베를 그거는 안 들어보고?(다음에 베틀 그건 안 들어보고?)

106021 #1 베를 그거는 뭐.(베틀 그거는 뭐.)

106021 #2 베 짜는 건디.(베 짜는 건데.)

106021 #1 베 짜는 건디 그거는 기자 영 허영 소문만, 귀 소문만 들었주 우리가 직접 그런 거는 헤보지 아녀고.(베 짜는 건데 그거는 그저 이렇게 해서 소문만, 귀 소문만 들었지. 우리가 직접 그런 거는 해보지 안하고.)

106021 #2 표선리 엇엇어.(표선리 없었어.)

106021 @ 표선리 엇엇어예?(표선리 없었다고요?)

106021 #1 우리 두린 때도 보민 베나 미녕 ㅋ뜬 것도 장사하는 나 많은 어른덜 육지 가근 그런 거 사근에 입었주. 직접.(우리 어린 때도 보면 베나 무명 같은 것도 장사하는 나이 많은 어른들 육지 가서 그런 거 사서 입었지. 직접.)

106021 #2 군데군데 포목집덜 잇어.(군데군데 포목점들 있어.)

106021 @ 아, 어릴 때도예. 이 표선은 옛날부터 잘 살았네예?(아, 어릴 때도요. 이 표선은 옛날부터 잘 살았네요?)

106021 #1 표선이 그치록.(표선리 그처럼.)

106021 #2 장서덜을 막 혜난.(장사들을 막 했었어.)

106021 #1 표선인 폭도도 엊고.(표선린 폭도도 없고.)

106021 #2 저 장사하는 점방 보는 사람들이 직접 부산 이제 나가서 해여 오랑. 호야, 호야.(저 장사하는 점방 보는 사람들이 직접 부산 이제 나가서 해 와서. 호야, 호야.)

106021 @ 예, 예.(예, 예.)

106021 #2 이런 것도 말여 혼 트럭씩 사당은에 놔뒀당 풀고.(이런 것도 말이야 한 트럭씩 사다가 놔뒀다 팔고.)

바느질

106022 @ 계도 삼춘, 바농질은 헤실 거 아니라예?(그래도 삼춘, 바느질은 했을 거 아닌가요?)

106022 #1 우리 바농질 막 했주.(우리 바느질 막 했지.)

106022 @ 어, 바농질 허젠 허민 필요헌 도구들은 어떤 거 잇수과?(어, 바느질 하려고 하면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6022 #1 아, 도구는 바농질 하젠 허민 뭐 가위 잇어야 돼고, 또 바늘이 있어야 돼고 썰이 있어야 돼는 거 아니?(아, 도구는 바느질 하려고 하면 뭐 가위 있어야 되고, 또 바늘이 있어야 되고 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106022 @ 으.(으.)

106022 #1 흙은 썰, 좀진 썰, 검은 썰, 빨간 썰 썰은 다양하게 그 당시에도 색깔은 있었어. 뭐 흰옷 허젠 허민 흰썰로 허곡, 빨간 건 허젠 허민 빨간썰로 허고.(굵은 실, 가는 실, 검은 실, 빨간 실 실은 다양하게 그 당시에도 색깔은 있었어. 뭐 흰옷 하려고 하면 흰 실로 하고, 빨간 건 하려고 하면 빨간 실로 하고.)

106022 @ 으.(으.)

106022 #1 그치록 헤근에. 겨영 우리 나 딸 성제주마는 두릴 때 그 한복 같은 거 다 만들어근에 입져근에 학교 보내곡 다 헤낫어.(그처럼 해서. 그래서 우리 나 딸 형제지만 어릴 때 그 한복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입혀서 학교 보내고 다 했었어.)

106022 @ 삼춘이예? 음.(삼촌이요? 음.)

106022 #1 대충 다 이제 돈 드는 거니까 이발도 집에서 나가 다 이발해근에 보내고. 이발소에 강 이발 안 해봤어. 뚫덜.(대충 다 이제 돈 드는 거니까 이발도 집에서 내가 다 이발해서 보내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 안 해봤어. 딸들.)

106022 @ 뚫덜예? 집의서 직접 다 해부런. 팔방미인이라나신게.(딸들요? 집에서 직접 다 해버렸어. 팔방미인이었는데.)

106022 #1 그때는 그치록 허영 허고.(그때는 그처럼 해서 하고.)

106022 @ 예.(예.)

106022 #1 이 미싱 하나만 이시면은.(이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106022 @ 예.(예.)

106022 #1 다 바느질 입지명 다 허곡. 사젠 하민 돈이니까.(다 바느질 입히면서 다 하고. 사려고 하면 돈이니까.)

106022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6022 #1 큰옷 다 짤라근에 족계 헤영 줄여근에 입히고 그치록 허명.(큰옷 다 잘라서 작게 해서 줄여서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106023 @ 그 바농질 방법도 으라 가지 잇일 거 아니라예?(그 바느질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닌가요?)

106023 #1 데침하고.(박음질하고.)

106023 @ 데침.(박음질.)

106023 #1 데침이엔 헌 거는 미싱으로 한 거처럼 그거 줍는 건 데침. 그냥 뭐 수왕수왕하는 거 하고.(박음질이라고 한 것은 재봉틀로 한 것처럼 그거 기우는 건 박음질. 그냥 뭐 '수왕수왕'하는 거 하고.)

106023 @ 예.(예.)

106023 #1 시끄는 거. 널른넓른하게 시꺼근에 또 그 이제 그보단 쪽계시리 영 헤근에 시, 저 졸르게시리 하는 거 영 이치룩 이치룩 하는 거고.(징그는 거. 널른 널른하게 징거서 또 그 이제 그보단 작게끔 이렇게 해서 시, 저 짧게끔 하는 거 이렇게 이처럼 이처럼 하는 거고.)

106023 #2 감추는 건 바농질.(감치는 건 바느질.)

106023 #1 감추는 건 요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두 군데 영 영 허멍 감추멍 이제.(감치는 건 요거 천이고 이거 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감치면서 이제.)

106023 @ 감추는 거고?(감치는 거고?)

106023 #1 시끄는 거이 젤 빠르고 그 다음은 감추는 것이 빠르고 테침이 젤 미싱처럼.(징그는 거 젤 빠르고 그 다음은 감치는 것이 빠르고 박음질이 젤 재봉틀처럼.)

106023 @ 음.(음.)

106023 #1 미싱.(재봉틀.)

106023 @ 그 다음에 듬섬듬성 주는 거? 이불 같은 거?(그 다음에 듬섬듬성 깁는 거? 이불 같은 거?)

106023 #1 시끄는 거.(징그는 거.)

106023 @ 거가 시끄는 거? 호는 건 엇입니까? 호는 거는 뭐렌 해?(것이 징그는 거? 호는 건 없습니까? 호는 건 뭐라고 해?)

106023 #1 호는 것이 지금 보난 ㅎ꼼 시끄는 것보단 좀질게 하는 거.(호는 것이 지금 보니까 조금 징그는 것보단 가늘게 하는 거.)

106023 @ 아, 그게 호는 거예, 예?(아, 그게 호는 거요, 예?)

옷 종류

106024 @ 남자옷 종류는 어떤 거 있어낫수가?(남자옷 종류는 어떤 거 있었었습니까?)

106024 #1 그 옛날에 남잔, 남자 일하는 사람은 그 미녕, 미녕 헤근에 이제 점뱅이 멘들곡 우의 적삼 멘들앙 감 들여근에 그거를 입어근에 주로 농군덜이 일허곡. 놀 때고 기자 옷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 입영 놀곡. 또 감옷 입어나민 딴 옷 입지 못허여.(그 옛날에 남잔, 남자 일하는 사람은 그 무명, 무명 해서 이제 잠방이 만들고 위에 적삼 만들어서 감 들여서 그것을 입어서 주로 농군들이 일하고. 놀 때고 그저 옷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 입어서 놀고. 또 ‘감옷’ 입어나면 딴 옷 입지 못해.)

106024 @ 음, 건 무사?(음, 건 왜?)

06024 #1 축축허영. 감옷은 입으면은 피부에 감옷 다도 스락鬟 씨원한 기가 잇는디 딴 건 입으민 막 칙칙한 기가 나니까 집의서 놀아도 감옷. 베. 부자침들은 베로 헤근에 다 저 남편덜 그 적삼이나 이제 그 ㅎ꼼 잘 사는 집들은 영 반바지.(축축

해서. ‘감옷’은 입으면 피부에 ‘감옷’ 닿아도 사락해서 시원한 기가 있는데 딴 건 입으면 아주 칙칙한 기가 나니까 집에서 놀아도 ‘감옷’. 베. 부잣집들은 베로 해서 다 저 남편들 그 적삼이나 이제 그 조금 잘 사는 집들은 이렇게 반바지.)

106024 @ 음.(음.)

106024 #1 이, 바지라도 기자 무슨 똑 바지 이제 바지처럼 가다 내우지 아녕 바지처럼 쫄르게.(이, 바지라도 그저 무슨 똑 바지 이제 바지처럼 모양 내지 안 해서 바지처럼 짧게.)

106024 @ 예.(예.)

106024 #1 경 헤근에 감들영 입어근에 집의서 놀명 입어근에 허고.(그렇게 해서 감 들여서 입어서 집에서 놀면서 입어서 하고.)

106024 @ 정월 맹질 때는 남자들 무신 옷 입언?(정월 명절 때는 남자들 무슨 옷 입었어요?)

106024 #1 정월 맹질 때는 게메 그 우리 경우에는 그 도폭 그런 거 입어근에 제 쏘곱에 뭐.(정월 명절 때는 글쎄 그 우리 경우에는 그 도포 그런 거 입어서 제 속에 뭐.)

106024 #2 후루메 입엉 허주. 겨울 후루메.(두루마기 입어서 하지. 겨울 두루마기.)

106024 #1 저 무신, 중의 바지 그거 이제 광목으로 한 거 쏘곱에 입엉.(저 무슨, 중의 바지 그거 이제 광목으로 한 거 속에 입어서.)

106024 @ 음.(음.)

106024 #1 또 완전히 저 그 부자첩 아니면은 그자 영 후루메 입어근에 경 허곡. 부자첩은 도폭 그거 입곡 모자 이런 거 쓰곡.(또 완전히 저 그 부잣집 아니면은 그저 이렇게 두루마기 입어서 그렇게 하고. 부잣집은 도포 거 입고 모자 이런 거 쓰고.)

106024 @ 모자를 유건이렌 힙니까?(모자를 유건이라고 합니까?)

106024 #1 유건인가 무시건가 옛날 우리 하르버지네 이제 사진도 막 있어.(유건인가 무엇인가 옛날 우리 할아버지네 이제 사진도 막 있어.)

106024 @ 아, 집에? 옛날 사진.(아, 집에? 옛날 사진.)

106024 #1 정동화리에 영 불살랑놔근에 그디 통대 영 정동화리에 딱 허게 영 허영 짚어근에 그런 사진덜.(청동화로에 이렇게 불살라서 거기 담뱃대 이렇게 청동화로에 딱 하게 이렇게 해서 짚어서 그런 사진들.)

106024 @ 하르버지 사진 있어예?(할아버지 사진 있어요?)

106024 #1 큰 고 지스 족은 고 지스 비석 다 잇주마는. 우리 옛날 하르버지네 옛날 베슬.(큰 고 지사 작은 고 지사 비석 다 있지만. 우리 옛날 할아버지네 옛날 베슬.)

106024 @ 음, 알았수다.(음, 알았습니다.)

106024 #1 증조부.(증조부.)

106025 @ 그 사진 옛날 결혼할 때 사진이랑 다 보쿠다. 그 다음엔예? 여자 옷은 어떤 거 남자 옷은 그런 거 있고?(그 사진 옛날 결혼할 때 사진이랑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여자 옷은 어떤 거 남자 옷은 그런 거 있고?)

106025 #1 여자 옷은 영 헤근에 요만은 막 길게도 안 하고 요 정도 헤근에 그 여자 옷은 주로 집의서는 몸뻬.(여자 옷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아주 길게도 안 하고 요 정도 해서 그 여자 옷은 주로 집에서는 몸뻬.)

106025 @ 예.(예.)

106025 #1 미녕 가져근에 몸뻬나 광목 가정 몸뻬 그거 헤근에 그자 입곡. 또 감들영 입고, 검은 물 주로.(무명 가져서 몸뻬나 광목 가져서 몸뻬 그거 해서 그저 입고. 또 감들여서 입고, 검은 물 주로.)

106025 @ 아아.(아아.)

106025 #1 주로 검은 물 들여근에 검은 그 봄뻬를 입어. 계난 벼문 타카부텐.(주로 검은 물 들여서 검은 그 봄뻬를 입어. 그러니까 더러움 탈까봐서.)

106025 #2 외출용으로 통치마라고 잊어나지 아녔수가? 통치마.(외출용으로 통치마라고 있었었지 않습니까? 통치마.)

106025 #1 통치마. 그거는 저 옥영목, 옥영목 그거 좀질게 혜진 흐꼼 굽닭헌 거주. 그땐 그 시절에.(통치마. 그거는 저 옥양목, 옥양목 그거 가늘게 해진 조금 고운거지. 그땐 그 시절에.)

106025 @ 예.(예.)

106025 #1 그거 가져근에 통치메 요만은 길게 헤근에 주름 헤근에 어깨 다 어깨에 영 돌아근에 입어근에 하고. 위에는 적삼 입고, 적삼.(그거 가져서 통치마 요만큼 길게 해서 주름 해서 어깨 다 어깨에 이렇게 달아서 입어서 하고. 위에는 적삼 입고, 적삼.)

106025 @ 음, 우의는 적삼 입고예, 삼춘 그리고 막 이 통이 몸뻬보다 큰 거 있엇잖아애?(음, 위에는 적삼 입고요, 삼춘 그리고 막 이 통이 몸뻬보다 큰 거 있었잖아요?)

106025 #1 중의, 중의.(중의, 중의.)

106025 @ 중의? 굴중의¹⁴⁵⁾ 이런 거?(중의? ‘굴중의’ 이런 거?)

106025 #1 그것가 굴중의.(그것이 ‘굴중의’.)

106025 @ 여자는 굴중의렌 허는데 남자는 굴중의렌 안 허지 안협니까예?(여자는 ‘굴중의’라고 하는데 남자는 ‘굴중의’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요?)

106025 #1 남잔 것 그 점뱅이 바지.(남잔 것 그 잠방이 바지.)

106025 @ 바지. 으, 여자는 바진 안 입어?(바지. 으, 여자는 바진 안 입어?)

106025 #1 몸뻬.(몸뻬.)

106025 @ 몸뻬예? 굴중의 입엉 치마 입는 거우까?(몸뻬요? ‘굴중의’ 입어서 치마 입는 겁니까?)

145) ‘굴중의’는 허리 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여자들이 입는 바지다.

106025 #1 굴중의는 입을 때는 치마 안 입곡. 굴중기는이 이디가 이만이 넓어. 인치룩 인치룩 접어근에 다님 치, 다님 딱 즐라메근에 경 헤근에 저 여자덜은 경 허곡. 또 ㅎ꼼 그것이 넘언 신식 뛰난 몸뻬.(‘굴중의’는 입을 때는 치마 안 입고. ‘굴중의’는 여기가 이만큼 넓어. 이처럼 이처럼 접어서 대님 치, 대님 딱 잘라매서 그 렇게 해서 저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또 조금 그것이 넘어서 신식 되니까 몸뻬.)

106025 @ 음.(음.)

106025 #1 이디 고무도 들고 우의도 고무 둘양 몸뻬 입을 때는 ㅎ꼼 멋질 때 라.(여기 고무도 달고 위에도 고무 달아서 몸뻬 입을 때는 조금 멋질 때야.)

106025 #2 일본시대.(일본시대.)

106025 #1 굴중기 입을 때난.(‘굴중의’ 입을 때니까.)

106025 #2 옛날에 일본 시대 봄에서 그 몸뻬들 입어서 일 허렌 허니까 막 거부해 낫어.(옛날에 일본시대 봄에서 그 몸뻬들 입어서 일 하라고 하니까 아주 거부했었어.)

106025 @ 예.(예.)

106025 #2 그런 거 알지예?(그런 거 알지요?)

106025 @ 예, 예.(예, 예.)

106025 #2 거부허연 안 허니까 별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입어보니까 팬찮으니까 그 다음부터 짹.(거부해서 안 하니까 별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입어보니까 팬찮으니까 그 다음부터 짹.)

106025 @ 요즘도 몸뻬덜 다 입영은에예?(요즘도 몸뻬들 다 입어서요?)

106025 #1 요새는 집의서 만들지 아님주마는 다 시장에 가면은 오천 원씩. 오천 원씩 그 헤근에 집에덜 주로 입어. 막 요새 붉은색 푸린색 막 그 한 것덜. 옛날에는 딱 그런 거는 전연 없고 단색. 흰 거 아니민 갈 몸뻬 검은 몸뻬 그거.(요새는 집에서 만들지 않고 있지만 다 시장에 가면 오천 원씩. 오천 원씩 그 해서 집에서들 주로 입어. 아주 요새 붉은색 파란색 아주 그 한 것들. 옛날에는 딱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단색. 흰 거 아니면 갈 몸뻬 검은 몸뻬 그거.)

106025 @ 기다예? 아이들 옷들은 특이한 거 있었수가?(그러네요? 아이들 옷들은 특이한 거 있었습니까?)

106025 #1 아이덜 옷은 옛날에 우리 아이덜 클 때에 헤근에 키울 때, 우리도 저 그, 그 시절이나 우리 아이덜 국민학교 때나 마찬가지주.(아이들 옷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 클 때에 해서 키울 때, 우리도 저 그, 그 시절이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나 마찬가지지.)

106025 #2 쪼끔 달라져서, 쪼끔.(조금 달라졌어, 조금.)

106025 #1 쪼끔 달라견. 저고리, 겨울에는 저고리 행 입지곡.(조금 달라졌어. 저고리, 겨울에는 저고리 해서 입히고.)

106025 @ 음.(음.)

(중략)

106026 @ 경행 이제 하고. 그 아이들 옷 헐 때 얘기 태어나면 입지는 옷 잇지

예?(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아이들 옷 할 때 아기 태어나면 입히는 옷 있지요?)

106026 #1 그거 저 거세기. 암만 겨울에라도 얘기옷은 베로 헤근에 저고리.(그거 저 거시기. 아무리 겨울에라도 아기옷은 베로 해서 저고리.)

106026 @ 음.(음.)

106026 #1 이제 봇옷이엔 헤근에.(이제 배내옷이라고 해서.)

106026 @ 봇옷.(배내옷.)

106026 #1 봇옷이엔 헤근에 베로 헤근에 얘기덜 냉중에 커도 등도 근지럽도 아녜고 이제 몸에 무슨 그런 피부병 엊넨 헤근에 베 가정은에 그 저 저고리 멘들아근에 이만은 뜨게 헨에 그거 헤근에 입정.(배내옷이라고 해서 베로 해서 아기들 나중에 커도 등도 근지럽지도 안하고 이제 몸에 무슨 그런 피부병 없다고 해서 베 가져서 그 저 저고리 만들어서 이만큼 뜨게 해서 그거 해서 입혀서.)

106026 @ 음, 그게 봇옷.(음, 그게 배내옷.)

106026 #1 그것이 봇옷.(그것이 배내옷.)

106026 @ 봇옷 입져나면 얘기들도 치메저고리허영 입지고?(배내옷 입져나면 아기들도 치마저고리해서 입하고?)

106026 #1 치메저고리 입지곡. 그 소나이덜은 어른 쓰봉그치록 다 만들명 입지고. 우리 아덜도 다 나가 자켓도 짱 입지곡 독고리 그 썰로 행 게썰 다 사다근에 막 밤 열두 시 혼 짜근에 입히곡 상 입지곡.(치마저고리 입하고. 그 사내들은 어른 바지처럼 다 만들면서 입하고. 우리 아들도 다 내가 자켓도 짜서 입하고 스웨터 그 실로 해서 텔실 다 사다가 막 밤 열두 시 한 짜서 입하고 사서 입하고.)

106026 @ 그 다음에 얘기도 커 가면 영 강알도 터진 옷도 입지고 허지 아닙니까?(그 다음에 아기도 커 가면 이렇게 밑 터진 옷도 입하고 하지 안합니까요?)

106026 #1 강알터진옷 입겼주게.(개구멍바지 입혔지.)

106026 @ 그건 무신 옷이엔 허여? 옛날은?(그건 무슨 옷이라고 해요? 옛날은?)

106026 #1 그건 무신거렌 혜신고. 얘기덜 입질 때에. 아, 오줌 똥 그거 옷에 싸카부텐 앗이민 앗이민 똥허고 오줌허고 베꼈듸레 나오게시리 영 저 거세기 그거 혜연 터지게 입져나신디 그 옷 이름 알아지쿠파?(그건 무엇이라고 했는가. 아기들 입힐 때에. 아, 오줌 똥 그거 옷에 쌀까봐서 앓으면 똥하고 오줌하고 바깥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저 거시기 그거 해서 터지게 입혔었는데 그 옷 이름 알겠습니까?)

106026 #2 (웃음).(웃음)

106026 @ (웃음).(웃음)

106026 @2 다른 디 가민 그냥 강알터진옷 협니다.(다른 데 가면 그냥 개구멍바지 합니다.)

106026 #1 터진, 강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터진, 밑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106026 @ 경 허영 허는 거예?(그렇게 해서 하는 거요?)

106026 #1 그, 그 옷을 주로 입져낫어. 얘기 때는. 누게 그 삿바도 없고 무시거 허난에 저 밤의 쯤은 이만은하게 나 경우는 이만은허게시리 미녕헤근에 그 이제 뚜

더기.(그, 그 옷을 주로 입혔었어. 아기 때는. 누구 그 기저귀도 없고 무엇 하니까 저 밤에 쫌은 이만큼하게 내 경우는 이만큼하게끔 무명해서 그 이제 포대기.)

106026 @ 예, 예 예.(예, 예 예.)

106026 #1 뚜데기 그거 만들엉 그디 얘기 늑정 이쪽 거 오그령 놋당 그거 물르 게시리 직접 안 닿게시리 혜영 그치룩허멍 혜근에 헷당 뒷날은 그냥 널엉 물류왕 헐 때도 잇곡 빨 때도 잇곡.(포대기 그거 만들어서 거기 아기 눕혀서 이쪽 거 오그려서 놬다가 그거 마르게끔 직접 안 닿게끔 해서 그렇게 하면서 해서 했다가 뒷날은 그냥 널어서 말려서 할 때도 있고 빨 때도 있고.)

106026 @ 예, 바쁘난예, 예?(예, 바쁘니까요, 예?)

106026 #1 똥 싸면은 그거 빨주마는 똥이나 안 쌀 할 때엔 기냥 그거 오줌 막 젖인 것도 그냥 널어근에 그냥 말류왕은에 그럭저럭 허멍. 그자 그 시절엔 그런 식으로 헨에.(똥 싸면 그거 빨지만 똥이나 안 쌀 할 때엔 그냥 그거 오줌 아주 젖은 것도 그냥 널어서 그냥 말려서 그럭저럭 하면서. 그저 그 시절엔 그런 식으로 해서.)

106027 @ 맞수다. 다 경 살았주게. 계난 삼춘, 옷 만드는 과정 하나만 해보게 예? 만약에 이제 저고리를 만든다, 저고리 한번 물라봅서. 물르는 것부터 어떤 순서로 해서 저고리를 만드는지?(맞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삼춘, 옷 만드는 과정 하나만 해보게요? 만약에 이제 저고리를 만든다, 저고리 한번 말라보십시오. 마르는 것부터 어떤 순서로 해서 저고리를 만드는지?)

106027 #1 그거 저고리 종이 이시믄 나가. 이거 하나 영 혜영.(그거 저고리 종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106027 @ 찢이카?(찢을까?)

106027 #1 찢이면은, 이것이 얘기 이제 옷이엔 하면은 이거 영 혜근에 앞판 뒤판 아니?(찢으면, 이것이 아기 이제 옷이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앞판 뒤판 아니?)

106027 @ 예.(예.)

106027 #1 앞판 뒤판이민 요거 이렇게 오그려근에 하면은 이제 앞에는 흙꼼 길게 영 혜근에 허곡 뒤에는 흙꼼 짤르게. 앞에는 길게 험시닌 하면은 영 사면은 얘기가 흙꼼 앞더레 영 하민 앞뒤를 맞추젠 하면은 앞에 쪼꼼 길계를 하는 거라.(앞판 뒤판이면 요거 이렇게 오그려서 하면 이제 앞에는 조금 길게 이렇게 해서 하고 뒤에는 조금 짧게. 앞에는 길게 하고 있니 하면은 이렇게 서면 아기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앞뒤를 맞추려고 하면 앞에 조금 길게 하는 거야.)

106027 @ 음.(음.)

106027 #1 길게 혜근에 이거 가위 이시면 이거 나 다 만들 건디 이렇게 혜근에 이거 앞판은 요렇게 혜근에 영 혜근에 딱 하게 영 끊곡. 이건 앞의 이거 영.(길게 해서 이거 가위 있으면 이거 나 다 만들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거 앞판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하게 이렇게 끊고. 이건 앞에 이거 이렇게.)

106027 @ 목 허는 디는 무신거렌 헙니까?(목 하는 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06027 #1 이거 기자 목 돌람짼 하는 거주게.(이거 그저 목 도른다고 하는 거지.)

106027 @ 목 돌르고.(목 도르고.)

106027 #1 영 돌라근에 앞으로 이거 영 끊은 거는 앞섭.(이렇게 돌라서 앞으로 이거 이렇게 끊은 거는 앞셨.)

106027 @ 앞섭.(앞셨.)

106027 #1 단추 두는 디.(단추 다는 데.)

106027 @ 어.(어.)

106027 #1 단추 두는 디 두이는, 두이는 그자 이디 이디 딱 이레까지 닿지 아녀 게시리 쪼끔 이렇게만.(단추 다는 데 뒤는, 뒤는 그저 여기 여기 딱 이리로까지 닿지 않게끔 조금 이렇게만.)

106027 @ 등그스름하게.(등그스름하게.)

106027 #1 동그스름하게 끊어근에 허꼭 기지 이시면은 율로 요레 헤근에 율로 요레는 소매 부章程.(동그스름하게 끊어서 하고 천 있으면 요리로 요리로 해서 요리로는 소매 붙여서.)

106027 @ 소매 부章程.(소매 붙여서.)

106027 #1 일로 이레 소매까지 쥐부는 거라이. 마지막에는 오그려근에 박아놔근 은예.(일로 이리로 소매까지 기워버리는 거야. 마지막에는 오그려서 박아놔서.)

106027 @ 예.(예.)

106027 #1 그축룩 멘들앙 단추고망 만들앙 옛날은 단추 엇일 땐 벌무작.(그처럼 만들어서 단춧구멍 만들어서 옛날은 단추 없을 땐 벌매듭.)

106027 @ 예. 벌무작.(예. 벌매듭.)

106027 #1 벌무작 그거 허영.(벌매듭 그거 해서.)

106027 @ 벌무작.(벌매듭.)

106027 #1 옛날엔 단추도 어려와낫주게.(옛날엔 단추도 어려웠었지.)

106027 @ 예.(예.)

106027 #1 그거.(그거.)

106027 @ 이렇게 웬찮아예? 옛날은?(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은?)

106027 #1 게민 이 두이도 흐꼼.(그러면 이 뒤도 조금.)

106028 @ 이렇게 웬찮아예? 영 허믄. 삼촌, 여기는 이름이 무신거라마씨?(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삼촌, 여기는 이름이 뭐예요?)

106028 #1 앞섭, 앞섭,(앞셨, 앞셨,)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소매. 소미.(소매. 소매.)

106028 @ 제주도 말로 소미? 여기는 이렇게 해갖고예?(제주도 말로 ‘소미’ 여기는 이렇게 해갖고요?)

106028 #1 이건 앞섭.(이건 앞섶.)

106028 @ 이게 앞섭.(이게 앞섶.)

106028 #1 요긴 목, 목 돌람짼 그때 영 헨에.(요긴 목, 목 도른다고 그때 이렇게 해서.)

106028 @ 목 돌람쩌. 그 다음에 이 앞섭 말고 여기 판 힙니까? 앞판 힙니까?
이몸?(목 도른다. 그 다음에 이 앞섶 말고 여기 판 합니까? 앞판 합니까? ‘의몸’?)

106028 #1 기자 앞판이주. 뒤에는 뒤판.(그저 앞판이지. 뒤에는 뒤판.)

106028 @ 뒤에는 뒤판. 예, 이렇게 하고. 이 끗부분은?(뒤에는 뒤판. 예, 이렇게
하고. 이 끗부분은?)

106028 #1 끗동.(끝동.)

106028 @ 이거는 끗동. 요디를 뭐렌 힙니까? 여기를.(이거는 끗동. 여기를 뭐라
고 합니까? 여기를.)

106028 #1 거기, 거기는 저깽이.(거기, 거기는 겨드랑이.)

106028 #2 저깽이, 저깽이.(겨드랑이, 겨드랑이.)

106028 @ 여기는 저깽이. 저깽이렌 허는 거라예? 예, 알았수다.(여기는 겨드랑
이. 겨드랑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106028 #1 몰르커라.(모르겠어.)

106028 @ 그 다음에 바지 혹시 이렇게 하면 이실 거 아니우꽈예? 남자 바지 이
렇게 생기꼭. 남자 바지 이름 명칭도 알아지쿠꽈?(그 다음에 바지 혹시 이렇게 하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 바지 이렇게 생기고. 남자 바지 이름 명칭도 알겠습니까?)

106028 #1 정뱅이.(잠방이.)

106028 @ 정뱅이다 하면 이 부분은 뭐렌 힙니까? 여기는.(잠방이다 하면 이 부
분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106028 #1 그 부분은 무시거엔 굽아낫저마는 우의.(그 부분은 무엇이라고 말했
었다만 위에.)

106028 @ 그 다음 이런 거는 뭐렌 혜? 이런.(그 다음 이런 거는 뭐라고 해? 이
런.)

106028 #1 그디는 이제 그, 그 밑에는 남자 것덜.(거기는 이제 그, 그 밑에는 남
자 것들.)

106028 @ 음.(음.)

106028 #1 정뱅이, 정뱅이는 알아지는디 그 아래 것덜은 그.(잠방이, 잠방이는
알아지는데 그 아래 것들은 그.)

106028 @ 모르커라예?(모르겠다고요?)

106028 #1 가달엔 혼나신가. 어쨌든 간에.(다리라고 했었는가. 어쨌든 간에.)

106028 @ 그냥 가달. 가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건 여자 치마는 이렇
게 생기잖아예? 여긴 뭐우꽈?(그냥 다리. 다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건 여
자 치마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긴 뛵니까?)

106028 #1 허리. 이것도 허리.(허리. 이것도 허리.)

106028 @ 허리 맞수다. 허리 영 허면 허리 무끄는 끈이 잇일 거 아니라예? 이건 뭐렌 해?(허리 맞습니다. 허리 이렇게 하면 허리 끓는 끈이 있을 거 아닌가요? 이건 뭐라고 해?)

106028 #1 끈. 끈. 저 거시기. 끈이엔 안 허곡.(끈. 끈. 저 거시기. 끈이라고 안하고.)

106028 @ 허릿곰?(허리 고름?)

106028 #1 곰, 곰.(고름, 고름.)

106028 @ 으, 무슨 곰?(으, 무슨 고름?)

106028 #2 허릿곰.(허리 고름.)

106028 #1 허리띠엔 헤근에 그냥 곰이엔 헤낫어.(허리띠라 해서 그냥 고름이라고 했었어.)

106028 @ 허리띠예? 허리띠. 이 부분을 이런 디?(허리띠요? 허리띠. 이 부분을 이런 데?)

106028 #1 이거는 치마폭이주게.(이거는 치마폭이지.)

106028 @ 치마폭?(치마폭?)

106028 #1 여기 영허여근에 여기 기냥 민짝 헤근에 치마가 뛸는 게 아니고 여기 영 영 깃어근에 주름.(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매끈 해서 치마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주름.)

106028 @ 이거 주름.(이거 주름.)

106028 #1 주름 헤근에 허리 돌아근에 헤근에 영 헤근에 벌무작을 둘던가 경아녕 허리띠로 졸라매던가. 이거 그냥 여자덜은 그때에는 이치룩 헤근에 저 어깨마리.(주름 해서 허리 달아서 해서 이렇게 해서 벌매듭을 달든가 그렇게 안 해서 허리띠로 졸라매든가. 이거 그냥 여자들은 그때에는 이처럼 해서 저 어깨끈.)

106028 @ 예, 어깨마리.(예, 어깨끈.)

106028 #1 어깨마리 헨에 어깨마리에 요거 부찌근에 기냥 입어근에 이런 앞의 벌무작 영 헨 들앙 입어낫어.(어깨끈 해서 어깨끈에 요거 붙여서 그냥 입어서 이런 앞에 벌매듭 이렇게 해서 달아서 입었었어.)

106028 @ 벌무작 헨예?(벌매듭 해서요?)

106028 @2 치메깍은 어디우파?(치맛자락은 어딥니까?)

106028 #1 으?(으?)

106028 @2 치메깍?(치맛자락?)

106028 #1 치메깍 이디.(치맛자락 여기.)

106028 @ 여기는 치메깍. 그 다음에 이제 보선 같은 경우?(여기는 치맛자락. 그 다음에 이제 버선 같은 경우?)

106028 #1 보선.(버선.)

106028 @ 이렇게 뛰잖아예?(이렇게 되잖아요?)

106028 #1 으.(으.)

106028 @ 계믄 보선 허면 여기는 뭐렌 해? 입구는?(그러면 버선 하면 여기는 뭐라고 해? 입구는?)

106028 #1 입구는 보선목.(입구는 버선목.)

106028 @ 보선목.(버선목.)

106028 #1 이건 볼.(이건 볼.)

106028 @ 어디? 보선볼.(어디? 버선볼.)

106028 #1 여긴 뒤치기.(여긴 뒤축.)

106028 @ 이거는 뒤치기. 그 다음에 여기 영 허영 바농으로 주지 아님니까예?
이 아랜 뭐렌 해?(이거는 뒤축.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바늘로 입지 안합니까?
이 아래는 뭐라고 해?)

106028 #1 그 그디 그자 볼엔 해. 볼.(그 거기 그저 볼이라고 해. 볼.)

106028 @ 볼.(볼.)

106028 #1 보선코챙이.(버선코.)

106028 @ 이건 보선코챙이. 그 다음에 우리 버선 신으면 이렇게 웬착 오른쪽
구별허전 이렇게 있어예? 이건 뭐렌 협니까?(이건 버선코. 그 다음에 우리 버선 신
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구별하려고 이렇게 있지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계난에 이 보선은 이거 저 웨보선이 아니주게.(그러니까 이 버선은
이거 저 홀버선이 아니지.)

106028 @ 예.(예.)

106028 #1 겹을 하는디 겹 할 때에 오른쪽에 거는 이디 썰밥이 오른쪽드로 오
게시리 만들고 웬쪽 거는 웬쪽더래 가게시리 헤근에 그 썰밥 보명 이제 그거 오른
쪽인지 웬쪽인지 헤근에 신는 거라.(겹을 하는데 겹 할 때에 오른쪽에 거는 여기 실
밥이 오른쪽으로 오게끔 만들고 왼쪽 거는 왼쪽으로 가게끔 해서 그 실밥 보면서
이제 그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해서 신는 거야.)

106028 @ 계난 그 부분을 이름을 뭐렌 해?(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름을 뭐라고
해?)

106028 #1 계난 이디가 무시거엔 굽아낫저마는.(그러니까 여기가 무엇이라고 말
했었다만.)

106028 @ 삼춘, 수눅?(삼춘, 수눅?)

106028 #1 수눅인가. 무신거엔 굽아낫어.(수눅인가. 무엇이라고 말했었어.)

106029 @ 근기는 혜신디 잊어불언예? 단추 종류는 어떤 거 있었수가?(말하기는
했는데 잊어버렸지요? 단추 종류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106029 #1 옛날에 단추가 어려왓주게. 단추가 요새 그때 단추는 그 소라 껍데기
헤근에 단추 만드니까 그 와이샤쓰 단추.(옛날에 단추가 어려웠지. 단추가 요새 그
때 단추는 그 소라 껍데기 해서 단추 만드니까 그 와이셔츠 단추.)

106029 @ 예.(예.)

106029 #1 그런 거는 있어도 이제 그 기냥 요새그찌 넣어지는 단추는 볼 수가 있어.(그런 거는 있어도 이제 그 그냥 요새같이 넣어지는 단추는 볼 수가 없어.)

106029 #2 단추는 이 저 제주시보다 표선이가 훨씬 먼저 발달 단추공장 있어.(단추는 이 저 제주시보다 표선리가 훨씬 먼저 발달 단추공장 있어서.)

106029 #1 단추공장 있어난. 소라 껌데기 고망 베롱허게 그거 단추 헤근에.(단추공장 있었어. 소라 껌데기 구멍 반하게 그거 단추 해서.)

106029 #2 그 전에는 이런 디 아까 말헌 거 무신거?(그 전에는 이런 데 아까 말한 거 무엇?)

106029 @ 벌무작.(벌매듭.)

106029 #2 그걸로 하다가 단추공장이 생기니까 다 단추로.(그걸로 하다가 단추공장이 생기니까 다 단추로.)

106029 #1 게난 그거 소라 껌데기 가정 기계로 행은에 흐꼼 영 크게 요만은 뚫랑 하면은 그런 디 이런 디도 영 들아근에 저 이제 단춧구멍.(그러니까 그거 소라 껌데기 가져서 기계로 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요만큼 뚫어서 하면 그런 데 이렇게 달아서 저 이제 단춧구멍.)

106029 @ 예.(예.)

106029 #1 단춧구멍 만들영은에 막 쌀밥 늘어지지 아녀게 못양.(단춧구멍 만들어서 막 실밥 늘어지지 않게 맷어서.)

106029 @ 음.(음.)

106029 #1 경 헤근에 단추로 하고. 경 아녀민 코걸이.(그렇게 해서 단추로 하고. 그렇게 안하면 고리.)

106029 @ 예.(예.)

106029 #1 영 헤근에 이례 기지를 끊어근에 기지를 끊어근에 양쪽으로 헤근에 이치록 다 오그려근에 영 껌쳐근에 다 맹침. 그 이제 감추왕.(이렇게 해서 이리 천을 끊어서 천을 끊어서 양쪽으로 해서 이처럼 다 오그려서 이렇게 껌쳐서 다 땀침. 그 이제 감쳐서.)

106029 @ 예.(예.)

106029 #1 감추와근에 그거 헤근에 걸로 고리를 만들어근에 치마래 부찌근에 그 이젠 혼쪽엔 단추 부치곡 혼 쪽엔 고리 부치곡 헤근에 균치록 헤근에.(감쳐서 그 거 해서 그것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치마에 붙여서 그 이젠 한쪽엔 단추 붙이고 한쪽엔 고리 붙이고 해서 그처럼 해서.)

106029 @ 게난 단추 전의는 전부 벌무작.(그러니까 단추 전에는 전부 벌매듭.)

106029 #1 벌무작.(벌매듭.)

106029 @ 음, 벌무작예?(음, 벌매듭요?)

106029 #2 나 어릴 때지만 나 우린 애월이난 고향이.(나 어릴 때지만 나 우린 애월이니까 고향이.)

106029 @ 예.(예.)

106029 #2 경 헤연 이리 넘어왔는데 하르버지네 할머니네 보민 단추란 것이 엇어서. 단추공장이 잇언에.(그렇게 해서 이리 넘어왔는데 할아버지네 할머니네 보면 단추란 것이 없었어. 단추공장이 있어서.)

106029 #1 벌무작 다.(벌매듭 다.)

106029 @ 예.(예.)

106029 #1 그때는 이 하르방덜토 다 벌무작.(그때는 이 할아버지들도 다 벌매듭.)

106029 #2 벌무작.(벌매듭.)

106029 #1 적삼에.(적삼에.)

106029 @ 적삼에예?(적삼에요?)

106029 #1 다 벌무작 헤나신디 그 우리 경우는 일본 사름이 완에 그 단추, 단추공장.(다 벌매듭 했었는데 그 우리 경우는 일본 사람이 와서 그 단추, 단추공장.)

106029 @ 음.(음.)

106029 #1 단총공장 헤난에 그 소라, 소라덜 그 소라 이제.(단총공장 하니까 그 소라, 소라들 그 소라 이제.)

106029 #2 통조림공장.(통조림공장.)

106029 #1 통조림공장에 가근에 소라 껍데기 그거 단총공장에서 거 사다가 어쨌든 지네끼린 풀고 사고 헤실 테주.(통조림공장에 가서 소라 껍데기 그거 단총공장에서 거 사다가 어쨌든 자기들끼린 팔고 사고 했을 테지.)

106029 @ 게니까.(그러니까.)

106029 #1 그거 헤다근에 그거 영 헤영 빈찍빈찍한 거는 베겼듸례 허곡 그 더 들더들헌 건 안트레 가게 헤영 거 이제 동글락동글락허게 뜰르는 그거 ㅋ정 쪽 헤연 우리 구경 간 보난 큰 건 큰 더레 헨 하고 족은 건 족은 더레 또 양쪽으로 그 가운데.(그거 해다가 그거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한 거는 바깥으로 하고 그 두틀두틀한 건 안으로 가게 해서 거 이제 동글동글하게 뜰는 그거 가져서 쪽 해서 우리 구경 가서 보니까 큰 건 큰 데로 해서 하고 작은 건 작은 데로 또 양쪽으로 그 가운데.)

106029 @ 예.(예.)

106029 #1 고냥고 쪼꼴락허게 바농 닮은 걸로 썩 허게 뜰란에 그 하는 거 이제 그 일본 사름덜이 우리 이던 한국 사름덜이 아니고.(구멍 조그맣게 바늘 같은 걸로 썩 하게 뚫어서 그 하는 거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여긴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106029 @ 예.(예.)

106029 #2 게난 제주시는 몰라도 서귀포도 단추공장이 엇엇낫는데, 표선리는.(그러니까 제주시는 몰라도 서귀포도 단추공장이 없었었는데, 표선리는.)

106029 @ 표선이 빨리 시장도 형성이 됐고예?(표선이 빨리 시장도 형성이 되고요?)

106029 #2 통조림공장도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통조림공장도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106029 #1 통조림공장. 통조림공장에서 전복하고 이제 그 소라를 받으니까 이제 그 껌데기 헤근에 단춧구멍, 이제 단추를 만들젠 허난 이 표선이레 완에 단추공장을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져.(통조림공장. 통조림공장에서 전복하고 이제 그 소라를 받으니까 이제 그 껌데기 해서 단춧구멍, 이제 단추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표선리로 와서 단추공장을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져.)

106029 #2 경 허고 또 하나는 우물. 두루박통 전에는 봉천수 먹고 기자 영 가두와서 물 나는 디 막 초신 신은차 질어오곡 햇는데 여기는 그 공장이 생김으로써.(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물. 두레박통 전에는 봉천수 먹고 그저 이렇게 가둬서 물 나는 데 딱 짚신 신은째 길어오고 했는데 여기는 그 공장이 생김으로써.)

106029 #1 물통.(물통.)

106029 #2 물을 허게 웨니까 말이야, 이런 지하 판에 경행에 올리멍 먹언. 여기 그런 것도 서귀포 우리 어린 때 강 보면은 춤 서귀포는 물이 많이 나니까 통 만들어서 먹고 했는데 이딘 전부 두레박으로.(물을 하게 되니까 말이야, 이런 지하 파서 그렇게 해서 올리면서 먹었어. 여기 그런 것도 서귀포 우리 어린 때 가서 보면 참 서귀포는 물이 많이 나니까 통 만들어서 먹고 했는데 여긴 전부 두레박으로.)

106029 #1 드레박 먹기 전에는 드레박도 우리 그 시절에는 드레박도 어려완에 드레박 무시거 드레박 그 만들 것이 있어사주. 게난 일본 사름덜이 통 영 한 거 그 양철 닮은 걸로 행근에 그것에 웬장 같은 거 행 왕 이디 왕 하민 이것이 드레박, 이것이 드레박이민 나무.(드레박 먹기 전에는 두레박도 우리 그 시절에는 두레박도 어려워서 두레박 무엇 두레박 그 만들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통 이렇게 한 거 그 양철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에 된장 같은 거 해 와서 여기 와서 하면 이것이 두레박, 이것이 두레박이면 나무.)

106029 @ 예.(예.)

106029 #1 요만한 나무 양쪽으로 쇠못, 쇠목 이거 여기 끈 돌아근에 그치록. 이것도 아무나 드레박 빌레 막 다니곡 햇어. 게민 빌려주는 사름은 잊고 안 빌려주는 사름은 안 빌려줘.(요만한 나무 양쪽으로 쇠못, 쇠못 이거 여기 끈 달아서 그처럼. 이것도 아무나 두레박 빌리러 막 다니고 했어.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있고 안 빌려주는 사람은 안 빌려줘.)

106029 @ 음.(음.)

106029 #1 것도 무사냐 허민 노끗 때문에. 노끗이 산듸씩 그거 헤근에 던드렁마께 헤근에 그거 던드렁 놔근에 그 마께로 막 혜영 북삭하게 피와근에 해서 그 노끗을 꼬아지기 때문에 그거 아정 아무나 스나이 엇인 집은 그 노끗 잘 꼬지 못하주게.(것도 왜냐하면 노끈 때문에. 노끈이 밭벗짚 그거 해서 ‘던드렁방망이’ 해서 그거 ‘던드렁’ 놔서 그 방망이로 막 해서 보각하게 피워서 해서 그 노끈을 꼬아지기 때문에 그거 가져서 아무나 사내 없는 집은 그 노끈 잘 꼬지 못하지.)

106029 @ 예, 예.(예, 예.)

106029 #1 계난 그거 가경 노끗 하는 때문. 이 노끗 끓어진덴. 노끗 끓어진덴 안 빌려줘 자기네만 쓰민 오래 쓸 거니까 아니 빌려준 거.(그러니까 그거 가져서 노끈 하는 때문. 이 노끈 끓어진다고. 노끈 끓어진다고 안 빌려줘서 자기네만 쓰면 오래 쓸 거니까 아니 빌려준 거.)

106029 @ 예, 예.(예, 예.)

106029 #1 그런 것이 있어낫어.(그런 것이 있었었어.)

재단과 염색

106030 @ 삼춘, 그리고 옛날 미녕 강 상 오면 그냥 바로 옷을 못 만들지 아닙니까예? 옷 만들겠 허면 그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했수가?(삼춘, 그리고 옛날 무명 가서 사서 오면 그냥 바로 옷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옷 만들려고 하면 그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6030 #1 그냥 우린 미녕 사오민 그냥 옷 만들었어.(그냥 우린 무명 사오면 그냥 옷 만들었어.)

106030 @ 그냥 만들어. 벳에 발리거나.(그냥 만들어. 별에 바래거나.)

106030 #2 이거 허는 거.(이거 하는 거.)

106030 #1 다듬이질 허는 거는 맹지. 또 광목 것도 풀헤여근에 거 막 반들반들 허게 다듬는 게 아니고 다리미 해근에 그거 다려야 그 꾸굴꾸굴한 거를 폐와질 건디. 다리미 엇인 집덜은 그걸로 저 마께로 두드려근에 풀헤영 하면은 마께로 두드령 그 오골오골한 거 다 폐와지게시리. 경 해영 저 해낫어. 그 맹지그치록 막 힘들게 하지는 아녀고. 그자 그 폐와질 정도로만 두드려근에.(다듬이질 하는 거는 명주. 또 광목 것도 풀해서 거 아주 반들반들하게 다듬는 게 아니고 다리미 해서 그거 다려야 그 구깃구깃한 것을 폐질 건데. 다리미 없는 집들은 그걸로 저 방망이로 두들겨서 풀해서 하면 방망이로 두들겨서 그 꼬깃꼬깃한 거 다 폐지게끔. 그렇게 해서 저 했었어. 그 명주처럼 아주 힘들게 하지는 않고. 그저 그 폐질 정도로만 두들겨서.)

106030 @ 계믄 맹지 손질하는 거 굽아춥서? 맹지는 어떤 식으로 손질하는 거.(그러면 명주 손질하는 거 말해주십시오? 명주는 어떤 식으로 손질하는 거.)

106030 #1 맹지는 맹지 해근에 맹지는 이 광목하고 맹지보단 맹지는 풀을 뛰게 하주게.(명주는 명주 해서 명주는 이 광목하고 명주보다는 명주는 풀을 되게 하지.)

106030 @ 예.(예.)

106030 #1 얍게 하면은 맹지에는 그 풀이 안 사.(얇게 하면 명주에는 그 풀이 안 서.)

106030 @ 음.(음.)

106030 #1 계난 풀을 뛰게 행 능경은에 영 접찔앙 접진 거를, 접진 맹지를 도고리에 놔근에 영 영 영 영 쭈물러. 골고로 풀이.(그러니까 풀을 되게 해서 입혀서 이

렇게 짜서 짠 것을, 짠 명주를 함지박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골고루 풀이.)

106030 @ 가게.(가게.)

106030 #1 가게. 영 영 허영 쭈물러 놔근에 탁하게 너무 세게 하면은 맹지가 흔
쪽으로 그 쪽이 미어지기 때문에 술술 털어근에 줄에 영 영 널어근에 반쯤 물라가
면은 그 이제 홍대.(가게.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놔서 탁하게 너무 세게 하면 명주
가 한쪽으로 그 실이 미어지기 때문에 살살 떨여서 줄에 이렇게 이렇게 널어서 반
쯤 말라가면 그 이제 홍두깨.)

106030 @ 응. 홍짓대.(응. 홍두깨.)

106030 #1 홍대에 감아근에 그 양쪽으로 헤근에 이제 영 허영 이것이 홍대엔
허민 요쪽 사름은 이쪽 심곡 이쪽 사름은 이쪽 심곡 양쪽으로 심어근에 영 돌리멍
그거 이제 저 마께로 두드리는 거라.(홍두깨에 감아서 그 양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
게 해서 이것이 홍두깨라 하면 요쪽 사람은 이쪽 잡고 이쪽 사람은 이쪽 잡고 양쪽
으로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거 이제 저 방망이로 두들기는 거야.)

106030 @ 홍대에 감아근에.(홍두깨에 감아서.)

106030 #1 경 하면은 이치룩 오그려놔근에 이거를 두드려근에 이제 맹지 폐와
지게 하면은 이 그릇이 나기 때문에.(그렇게 하면 이처럼 오그려놔서 이거들 두들겨
서 이제 명주 폐지게 하면 이 금이 나기 때문에.)

106030 @ 아아.(아아.)

106030 #1 그릇 나기 때문에 나무 홍대에 가면은 뻥뻥허게시리 이치룩 물아놔
근에 이치룩 두드리면은 이런 저 오그라진 그것이 엇이 딱 일직선으로 짹. 알고 보
면 옛날 사름들이 머리 영리해서 그런 거 다.(금이 나기 때문에 나무 홍두깨에 가면
뻥뻥하게끔 이처럼 말아놔서 이처럼 두들기면 이런 저 오그라진 그것이 없이 딱
일직선으로 짹. 알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머리 영리해서 그런 거 다.)

106030 @ 요즘 잘 다리지도 아녕 입는디?(요즘 잘 다리지도 안 해서 입는데?)

106030 #1 요새는 다리는 옷은 잘 헤 입지도 아녀신디.(요새는 다리는 옷은 잘
해 입지도 않았는데.)

106030 @ 삼춘, 염색 하영 헷지예? 옛날에. 염색은 무신 염색 해봄디가?(삼춘,
염색 많이 했지요? 옛날에. 염색은 무슨 염색 해봄디까?)

106030 #1 우리는 저 기자 주로 이제 옛날엔 농사 그 할 때도 감옷 집의서 놀
때도 감옷이난 감옷하고 꺼문 물.(우리는 저 그저 주로 이제 옛날엔 농사 그 할 때
도 갈옷 집에서 놀 때도 갈옷이니까 갈옷하고 검정 물.)

106030 @ 계문예? 감옷은 언제?(그러면요? 갈옷은 언제?)

106030 #1 가을에.(가을에.)

106031 @ 어, 그 과정 한번 물아줍서. 감옷 염색 혼번 헤봄서?(어, 그 과정 한
번 말해주십시오. 갈옷 염색 한번 해보십시오?)

106031 #1 감옷은, 감나무에서 토종감이라 뛰여. 그 단감은 감이 들여지지 안

허여?(갈웃은, 감나무에서 토종감이라야 돼. 그 단감은 감이 들여지지 않아?)

106031 @ 토종감은 이름이 뭐?(토종감은 이름이 뭐?)

106031 #1 토종, 토종. 풋감¹⁴⁶⁾.(토종, 토종. ‘풋감’.)

106031 @ 음.(음.)

106031 #2 풋감.(‘풋감’.)

106031 #1 풋감 요만씩 한 거.(‘풋감’ 요만씩 한 거.)

106031 @ 예.(예.)

106031 #1 그거를 이제 가을 뛰면은 이만이 클 거 아니? 크면은 그거 다 따근에 경 헤근에 그거를 이제 방에혹에서 다 뺏아.(그것을 이제 가을 되면 이만큼 클 거 아니? 크면 그거 다 따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방아학에서 다 빼아.)

106031 @ 음.(음.)

106031 #1 좀질게시리 문딱 이제 뺏아근에 방에혹에서, 돌방에혹이. 돌로 방에혹이 이신디 거기에서 나무 그 거시기 그 방에 그 뺏는 그 무시거라. 그것이 아 이름 무신거여마는. 그 그걸로 막.(자잘하게끔 몽땅 이제 빼아서 방아학에서, 돌방아학이. 돌로 방아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무 그 거시기 그 방아에 그 빼는 그 무엇이야. 그것이 아 이름 무엇이다만. 그 그걸로 마구.)

106031 @2 방앳귀.(방앗공이.)

106031 #1 방앳귀. 그걸로 헤근에 막 좀질게 뺏아근에 그거를 이제 물 쪼금 넣이.(방앗공이). 그걸로 해서 아주 가늘게 빼아서 그것을 이제 물 조금 넣어서.)

106031 @ 음.(음.)

106031 #1 그냥 물 아니 놓 감으로만 막 허민 너무 뛰영 그 옷이 영 꺼꺼지는 때문에 물 쪼끔 놔근에 그 이제 도고리리레 그 감을 헤근에 그 미녕이나 그 광목이나 감 들이기 전에 물 적져근에.(그냥 물 아니 넣어서 감으로만 마구 하면 너무 되어서 그 옷이 영 꺼꺼지는 때문에 물 조금 넣어서 그 이제 함지박으로 그 감을 해서 그 무명이나 그 광목이나 감 들이기 전에 물 적셔서.)

106031 @ 예.(예.)

106031 #1 물 적져근에 짜근에 탁탁 텔엉 그 감물을 막 들이는 거라. 감물 들이면은 그 감물 처음 들일 때는 감 색깔찌찌 ㅎ꼼 푸리롱, 푸린 색깔 나는디 벳데 조찝 짹하게시리 마당에 끌아놓 마당에 찍 널어놓민 그것이 밤의도 널엉 내불민 이슬에 발고 또 아침이는 물 적경근에 널고 낮의 물 적경 널곡 여러 번 헤가민 빨간 색깔.(물 적셔서 짜서 탁탁 떨어서 그 감물을 마구 들이는 거야. 감물 들이면 그 감물 처음 들일 때는 감 색깔같이 조금 푸르스름, 푸른 색깔 나는디 별에 조짚 짹하게끔 마당에 깔아놓아서 마당에 찍 널어놓으면 그것이 밤에도 널어서 내버리면 이슬에 바래고 또 아침에는 물 적셔서 널고 낮에 물 적셔서 널고 여러 번 해가면 빨간 색깔.)

106031 @ 음.(음.)

146) ‘풋감’은 제주도 토종감의 일종이다. 갈웃에 물을 들일 때 사용한다.

106031 #1 빨간 색깔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 감옷이. 경 허민 그거 허영 완전히 이제 그거는 그 광목, 그 옥영목 같은 거 얇은 거는 기지에 물, 그 감옷을 들여근에 옷을 만들지마는 이제 그 뚜꺼운 미녕 같은 거는 감 들여근에 옷 만들젠 옷을 만들 젠 허민 썰밥이 너미 뚜꺼와근에 미싱에 그 넘어가지를 아녀.(빨간 색깔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갈옷이. 그렇게 하면 그거 해서 완전히 이제 그거는 그 광목, 그 옥양 목 같은 거 얇은 거는 천에 물, 그 갈옷을 들여서 옷을 만들지만 이제 그 두꺼운 무명 같은 것은 감 들여서 옷 만들려고 옷을 만들려고 하면 실밥이 너무 두꺼워서 재봉틀에 그 넘어가지를 않아.)

106031 @ 예, 예.(예, 예.)

106031 #1 계난에 옷을 만들어근에 감물 들이는 것도 잇곡, 기지가 얇은 거는 기지로 이제 감 들여근에 그거는 이제 썰밥이 뚜껍지 아녀니까 이제 광목으로 기자. 옥영목 그때. 옥영목은 폭이 이만은 널르곡 미녕은 폭이 요만이벳고 안 허주 게.(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서 감물 들이는 것도 있고, 천이 얇은 거는 천으로 이제 감 들여서 그것은 이제 실밥이 두껍지 않으니까 이제 광목으로 그저. 옥양목 그때. 옥양목은 폭이 이만큼 넓고 무명은 폭이 요만큼밖에 안 하지.)

106031 @ 아아.(아아.)

106031 #1 경 허난 미녕은 하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정뱅이 중의를 만들젠 정뱅이를 만들젠 허민 앞이 혼나 두이 하나 두 폭.(그렇게 하니까 무명은 하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잠방이 중의를 만들려고 잠방이를 만들려고 하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폭.)

106031 @ 음, 음.(음, 음.)

106031 #1 두 폭으로 하고 광목은 영 오그려근에 두 폭 셈 쳐근에 말령 허고.(두 폭으로 하고 광목은 이렇게 오그려서 두 폭 셈 쳐서 말려서 하고.)

106031 @ 계난 만드는 것도 옷감에 따랑 뜯난 거예?(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옷감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106031 #1 음, 옷감에 따랑, 미녕은 경 아녀도 뚜꺼운 뚜꺼운디 감끄장 들여놓 면은 감 들영 감 영 말리민 것이 딴딴해져. 게민 미싱으로 만들젠 허민 미싱씰 딱 딱 끊어지멍 넘어가질 아녀. 주어지질 아녀.(음, 옷감에 따라서, 무명은 그렇게 안 해도 두꺼운 두꺼운데 감까지 들여놓으면 감 들여서 감 이렇게 말리면 그것이 딴딴 해져. 그러면 재봉틀로 만들려고 하면 재봉실 딱딱 끊어지면서 넘어가질 않아. 기워 지질 않아.)

106031 @ 예예.(예예.)

106031 #1 경하는 때문에 그 감 들이지 아녀근에 옷 만들어 놋근에 들이는 기지.(그렇게 하는 때문에 그 감 들이지 않아서 옷 만들어 놓아서 들이는 거지.)

106031 @ 음.(음.)

106031 #1 또 기자 기자로 이제 물 들여놋근에 지금 이제 테레비 나온 거 물들 이는 거 다 옥영목 아니민 광목 그거. 이만큼 넓은 거.(또 그저 천으로 이제 물 들

여놓아서 지금 이제 텔레비전 나온 거 물들이는 거 다 옥양목 아니면 광목 그거.
이만큼 넓은 거.)

106031 @ 음.(음.)

106031 #1 미녕은 폭이 요만큼 벗기 안 하주게.(무명은 폭이 요만큼밖에 안 하지
.)

신발

106032 @ 알았수다. 이젠 신발. (웃음).(알았습니다. 이젠 신발. (웃음).)

106032 #1 신발 우리, (웃음). 우리 때는 이제 뭐 조리¹⁴⁷⁾, 초신, 게다¹⁴⁸⁾. (웃
음).(신발 우리, (웃음). 우리 때는 이제 뭐 ‘조리’, 짚신, ‘게다’. (웃음).)

106032 #2 게난 우리가 저 국민학교 이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그러니까 우리가
저 국민학교 이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106032 @ 예.(예.)

106032 #2 일학년 때부터 조리 이녁대로 삼으라고 해서.(일학년 때부터 ‘조리’
이녁대로 삼으라고 해서.)

106032 @ 예.(예.)

106032 #2 경 혜연 삼아서 다녀낫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게다. 비온 날에.(그렇게
해서 삼아서 다녔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게다’. 비온 날에.)

106032 @ 예.(예.)

106032 #2 비온 날에 게다 신영 허다가 눈 온 날 쯤에 게다 허영 허민 밑에 눈
이 쌓여 넘어정 발목도 다치곡.(비온 날에 ‘게다’ 신어서 하다가 눈 온 날 쯤에 ‘게
다’ 해서 하면 밑에 눈이 쌓여서 넘어져서 발목도 다치고.)

106032 #2 초신은 부모덜이 해주니까 허곡. 조리는 이녁대로 삼고.(짚신은 부모
들이 해주니까 하고. ‘조리’는 이녁대로 삼고.)

106032 @ 그 옛날 비 올 때 어른덜은 무신 신 신었수가?(그 옛날 비 올 때 어
른들은 무슨 신 신었습니까?)

106032 #2 남신. 남신.(나막신. 나막신.)

106032 #1 나막신. 나막신.(나막신. 나막신.)

106032 #2 남신. 남신이라고.(나막신. 나막신이라고.)

106032 @ 음.(음.)

106032 #1 남으로 만든 신 나막신엔 혜낫주. 그때.(나무로 만든 신 나막신이라고
했었지. 그때.)

106032 #2 그디 표선리 가시리.(거기 표선리 가시리.)

106032 #1 남신, 남신.(나막신, 나막신.)

106032 #2 가시리 사름인디 그 하르방인 표선리 오랑 남신쟁이. 남신 신 광은에

147) ‘조리(ぞうり)’는 짚·대나무 껍질 등을 샌들 모양으로 엮은 일본식 신발을 말한다.

148) ‘게다(げた)’는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막신을 말한다.

프는 사름이 잇어낫수다.(가시리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는 표선리 와서 ‘나막신장이’. 나막신 신 파서 파는 사람이 있었었습니다.)

106032 @ 음. 남신쟁이렌 헹예? 아아.(음. ‘나막신장이’라고 해서요? 아아.)

106032 #2 남신쟁이. ** 아방이 남신쟁이.(‘나막신장이’). ** 아버지가 ‘나막신장이’.)

106032 #1 경 혜나신가.(그렇게 했었는가.)

106032 #2 그 하르방 뺑 영 대면은 그래도 영 뭐냐 솟으로 그렁은에 만들민 틀림없이 맞추왕.(그 할아버지 봐서 이렇게 대면 그래도 이렇게 뭐냐 솟으로 그려서 만들면 틀림없이 맞춰서.)

106032 #1 솟으로 그땐 솟.(솔으로 그땐 솟.)

106032 #1 솟으로 만들주. 무신 ** 연필 그런 것도 그.(솔으로 만들지. 무슨 ** 연필 그런 것도 그.)

106032 #2 그 남신 처음 신으민예, 하루만 신으민 뒤치기 다 벗겨져벼.(그 나막신 처음 신으면요, 하루만 신으면 뒤축 다 벗겨져벼려.)

106032 @ 음.(음.)

106032 #2 막 경 이디 아프곡. 경허는데도 비온 날에 거 신으민.(아주 그렇게 여기 아프고 그러는데도 비온 날에 거 신으면.)

106032 @ 예, 경 허고 삼춘도 신어보고?(예, 그렇게 하고 삼춘도 신어보고?)

106032 #2 신어보고.(신어보고.)

106033 @ 아, 가죽신은 여기는 안 신읍니까?(아, 가죽신은 여기는 안 신습니까?)

106033 #1 가죽신은 신어보진 아녔어.(가죽신은 신어보지는 않았어.)

106033 @ 가죽신은 안 신어반예?(가죽신은 안 신어봤다고요?)

106033 #2 그 하르방은 족제비 잡아근에 겨울에는 이녁 신 영 만들엉. 털은 안 트레 들어가게 허고.(그 할아버지는 족제비 잡아서 겨울에는 이녁 신 이렇게 만들어서. 털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106033 @ 어어.(어어.)

106033 #2 경 허영 멋쟁이 하르방인디 경혜낫는데 우리는 안 신어보고?(그렇게 해서 멋쟁이 할아버진데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안 신어보고?)

106034 @ 음, 안 신어보고예, 나막신 그 파는 거, 남신 파는 거 어떤 식으로 파난 거 기억남수가?(음, 안 신어보고요, 나막신 그 파는 거, 나막신 파는 거 어떤 식으로 팔던 거 기억나나요?)

106034 #2 아, 그거 파는 기계가 이렇게 웬 것이 이거 **인데 안네, 그 안네 거 이렇게 다 파네더라고. 굉장히 어려와.(아, 그거 파는 기계가 이렇게 된 것이 이거 **인데 안에, 그 안에 거 이렇게 다 파내더라고. 굉장히 어려워.)

106034 #1 손으로.(손으로.)

106034 #2 손으로.(손으로.)

106034 #1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끌 닦은 걸로 헤근에 영 영영 막 틈아내는 거라.(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끌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야.)

106034 @2 ㅋ쉐.(호비칼)

106034 #2 음, 그걸로 해서 안에서 틈아나고 벗겼던 것은 코챙이 이렇게 만들어.(음, 그걸로 해서 안에서 뜯었었고 바깥에는 것은 코 이렇게 만들어.)

106034 @ 남신 코챙이예? 아.(나막신 코요? 아.)

106034 #2 그거 만들엉 허면 멋있어나신데 요샌 신 잇엇으면 그거.(그거 만들어서 하면 멋있었는데 요샌 신 있었으면 그거.)

106035 @ 아, 혹시 초신도 직접 삼아봅디가?(아, 혹시 짚신도 직접 삼아봤습니까?)

106035 #1 삼아봤주 우리.(삼아봤지. 우리.)

106035 #2 초신.(짚신.)

106035 #1 초신, 어둑어지만 우린 나가 커온 땐 스나이나 마찬가지라낫어. 그 산듸씩 헤근에 그 노 꼬아근에 허리에 졸라매여근에 또 이레 이제 초신 그 멘드는 또 끈 이디서 졸라메영 영 헤근에 그 아마 노끗이 석 줄인가 넉 줄 헤근에 그것에 막 여끄명 짜근에 저레 강 썩 잡아뎅경 호로쌍은에 어떻게 헤영 멘들아난 거.(짚신, 어두워지면 우린 내가 커올 땐 사내나 마찬가지였었어. 그 밭벗짚 해서 그 노 꼬아서 허리에 졸라매서 또 이리 이제 짚신 그 만드는 또 끈 여기서 졸라매서 이렇게 해서 그 아마 노끈이 석 줄인가 넉 줄 해서 그것에 막 엮으면서 짜서 저리 가서 썩 잡아당겨서 조여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던 거.)

106035 #2 초신, 초신 초신 허는 굵은 그것은 일로 허고, 초신 그 깨는 그것은 거 무신거. 무신거에 허느니, 무신거?(짚신, 짚신 짚신 하는 굵은 그것은 일로 하고, 짚신 그 깨는 그것은 거 무엇.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엇?)

106035 #1 송곳?(송곳?)

106035 #2 어웩, 어웩 무시거 즘질이 만들엉 그레 만들엉 퀘어서 홀트는 거주게.(억새, 억새 무엇 자잘하게 만들어서 그리로 만들어서 퀘어서 홀는 거지.)

106035 @2 미마씨? 미?(‘미’요? ‘미’?)

106035 @1 미빼챙이?(억새꽃?)

106035 #1 미빼챙이.(억새꽃.)

106035 #2 그걸로 해서 그걸 꼬양. 여러 개 쭉 허게 해놓고 굵은 것에 퀘어가지고 호로싸근에 만들었는데 걸 만들엉 신어서 우리가 학교 갔다 비 오면은 초신이 젓으카부덴 맨발로 오란, 초신은. (웃음).(그걸로 해서 그걸 꼬아서. 여러 개 쭉 허게 해놓고 굵은 것에 퀘어가지고 조여서 만들었는데 걸 만들어서 신어서 우리가 학교 갔다 비 오면 짚신이 젓을까봐서 맨발로 왔어, 짚신은. (웃음).)

106035 #1 초신은 이런 디 허리띠 옆의 졸라매든가 어떻 하든가 헤영은에 와나고.(짚신은 이런 데 허리띠 옆에 졸라매든가 어렵게 하든가 해서 왔었고.)

106035 #2 그렇게 헤낫어. 초신도 우리가 무신 잘 만들어집니까?(그렇게 했었어. 짚신도 우리가 무슨 잘 만들어집니까?)

106035 #1 에, 흐루벳고 못 신어. 초신 멘들민.(에, 하루밖에 못 신어. 짚신 만들면.)

106035 @ 아, (웃음).(아, (웃음).)

106035 #2 국민학교 경헌데 솜씨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계시고 허면은 그 잘 만들엉 신엉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국민학교 그런데 솜씨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계시고 하면 그 잘 만들어서 신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

106035 #1 곱닥허게.(곱게.)

106036 @ 초신도 그 종류에 따랑 이름이 이신가마씨?(짚신도 그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가요?)

106036 #1 초신이엔만 허난 몰라.(짚신이라고만 하니까 몰라.)

106036 @ 어, 그런 건 엿고예? 알았수다.(어, 그런 건 없고요? 알았습니다.)

106036 #1 조리허고 초신, 남신, 기자 그런 거.(‘조리’하고 짚신, 나막신, 그저 그런 거.)

106036 #2 게다.(‘게다’.)

106036 @ 게다.(‘게다’.)

106036 #2 게다는 저 일본놈덜이 현 거.(‘게다’는 저 일본놈들이 한 거.)

모자 등

106037 @ 예, 예, 예. 모자는 어떤 게 있어신고, 옛날은예? 검질멜 때도 모자 쓰고.(예, 예, 예. 모자는 어떤 게 있었는가, 옛날은요? 김멜 때도 모자 쓰고.)

106037 #1 옛날에는 모자가 어떻 허연 있어시냐 보리, 보리 젤 꿃쟁이에 그 빠근에.(옛날에는 모자가 어떻게 해서 있었는가 보리, 보리 젤 끄트머리에 그것 뽑아서.)

106037 @ 예.(예.)

106037 #1 빵 그걸로 혼 세 갠가 네 갠가 헤근에 거 막 짜근에 영 영영 여꺼근에 그치록 하명 헤근에 뱅뱅 돌아가명 그 주명 영 행 올라가근에 헤영 이런 디 영 그것도 우리 만들어나신디.(뽑아서 그걸로 한 세 갠가 네 갠가 해서 그거 마구 짜서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그처럼 하면서 해서 뱅뱅 돌아가면서 그거 기우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해서 이런 데 이렇게 그것도 우리 만들었었는데.)

106037 #2 밀짚모자라고.(밀짚모자라고.)

106037 #1 인척 저치록. 저거, 저거, 저거 여꺼근에.(일찍 저처럼. 저거, 저거, 저거 엮어서.)

106037 @ 예, 이거 이름 뭐우과?(예, 이거 이름 뭡니까?)

106037 #2 폐랭이, 폐랭이.(폐랭이, 폐랭이.)

106037 #1 폐랭이.(폐랭이.)

106037 @ 페랭이를 직접 헤갖고애?(페랭이를 직접 해갖고요?)

106037 #1 만든덴 헉는 건 다 만들언.(만든다고 하는 건 다 만들었어.)

106037 #2 게난 우리는 저 여끄는 거 이렇게 해 놓면은 형이나 아버지가 건 영 만들어주고.(그러니까 우리는 저 엮는 거 이렇게 해 놓으면 형이나 아버지가 건 이렇게 만들어주고.)

10603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여름에는 이런 거. 밧듸 검질맬 때는 무신거 쟁 헤서마씨?(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여름에는 이런 거. 밭에 김맬 때는 무엇 써서 했었어요?)

106038 #1 검질맬 때는 저 페랭이. 저 페랭이도 아무나 못 만들어. 경 허난 페랭이 엇이면은 밧듸 강 고사리.(김맬 때는 저 페랭이. 저 페랭이도 아무나 못 만들어. 그렇게 하니까 페랭이 없으면 밭에 가서 고사리.)

106038 @1 예.(예.)

106038 #1 고사리 휘어진 거 그거 꺼꺼근에 테가리 머리 우의 올려놔근에 수건 쟁.(고사리 휘어진 거 그거 꺾어서 대가리 머리 위에 올려놔서 수건 써서.)

106038 @ 예.(예.)

106038 #1 수건 써근에 하곡. 그때는 옷 같은 것도 막 그 비 맞았다가 또 뭐 벳나민 말랐다가 비 맞았다가 하믄 쉰내가 보통 나지 아녀. 경 허민 그 쉬프리델 앗앙 등여리에 막 물 거 아니. 옷 하나 입어신디. 게민 그 고사리.(수건 써서 하고. 그때는 옷 같은 것도 마구 그 비 맞았다가 또 뭐 별 나면 말랐다가 비 맞았다가 하면 쉰내가 보통 나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 쉬파리들 앓아서 등때기에 마구 물 거 아니. 옷 하나 입었는데. 그러면 그 고사리.)

106038 @ 예.(예.)

106038 #1 고사리 꺼꺼근에 이 두으로 이레 찔렁.(고사리 꺾어서 이 뒤로 이리 찔러서.)

106038 @ 예.(예.)

106038 #1 옷 소곱되레 찔르민 옷 사이가 널르니까 그 파리가 물지 못하게.(옷 속으로 찌르면 옷 사이가 너르니까 그 파리가 물지 못하게.)

106038 @ 아.(아.)

106038 #1 경 헨에 우리 어머니네가 우리 어머니가 그거 고사리 영 영 헤다근에 이레 찔러주고 인치룩 허고.(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네가 우리 어머니가 그거 고사리 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이리로 찔러주고 이처럼 하고.)

106038 @ 음, 삿갓 ㅋ튼 거는 여기는 안 써봤수가?(음, 삿갓 같은 거는 여기는 안 써봤습니까?)

106038 #1 갓, 그런 건.(갓, 그런 건.)

106038 @ 삿갓. 갓 같은 것도 안 하고.(삿갓. 갓 같은 것도 안 하고.)

106038 #1 갓은 거 육지 사름덜이나 그거 썬 다녔주, 여기 사름덜은.(갓은 거 육지 사람들이나 그거 써서 다녔지, 여기 사람들은.)

106039 @ 겨울에는 혹시 사냥할 때나 어른들 그런 모자 쓰는 모자는 안 봐줫마씨?(겨울에는 혹시 사냥할 때나 어른들 그런 모자 쓰는 모자는 안 봐봤어요?)

106039 #2 이렇게 텔로 만든 거.(이렇게 텔로 만든 거.)

106039 @ 으.(으.)

106039 #1 아까 남신 족제비영 고네이영 잡은 거 그거 했어, 그거 했어.(아까 나막신 족제비하고 고양이하고 잡은 거 그거 했어, 그거 했어.)

106039 #1 **. 것도 이름 있어낫어.(**. 것도 이름 있었었어.)

106039 @ 이름 있어낫지예?(이름 있었었지요?)

106039 @2 가죽감티?(가죽감투?)

106039 #1 보꼬보시.(‘보꼬보시’.)

106039 #1 보꼬보시엔 헤나신가. 그치록 헤근에 만들언에.(‘보꼬보시’라고 했었는가. 그처럼 해서 만들어서.)

106039 #2 거 쓰면은 상당히 뜻아.(거 쓰면 상당히 따듯해.)

106044 @ 예, 옛날 비올 때예? 비올 때는?(예, 옛날 비올 때요? 비올 때는?)

106044 #2 우장, 우장.(우장, 우장.)

106044 @ 우장, 우장 허면 우장 우의는 뭐 써낫수가? 머리에는.(우장, 우장 하면 우장 위에는 뭐 썼었습니까? 머리에는.)

106044 #1 머리에 무시거 쓸 거 있어? 페랭이.(머리에 무엇 쓸 거 있어? 페랭이.)

106044 @ 그냥 페랭이 썬예? 샷갓 같은 건?(그냥 페랭이 썼어요? 샷갓 같은 건?)

106044 #1 갓 같은 건 여긴 엇어.(갓 같은 건 여긴 없어.)

106044 @ 우장은 긴 것도 잊고 쳄른 것도 이십니까?(우장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까?)

106044 #1 그 어른 것도 잊고 아이 것도 이신디. 그 어른 거 아이 거 다 해주는 건, 하르버지들이 그런 거를 만드는데 하르버지 엇인 집은 그것도 엇어.(그 어른 것도 있고 아이 것도 있는데. 그 어른 거 아이 거 다 해주는 건,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를 만드는데 할아버지 없는 집은 그것도 없어.)

106044 #2 보통 사면은 우장을 이까지 오도록.(보통 사면 우장을 이까지 오도록.)

106044 @ 무릎까지예?(무릎까지요?)

106044 #2 밑에까지 오도록은 아녀.(밑에까지 오도록 않아.)

106044 @ 무릎까지. 우장은 뭘로 만듭니까?(무릎까지. 우장은 뭐로 만듭니까?)

106044 #1 새.(띠.)

106044 @ 새 행은에?(띠 해서?)

106044 #1 새 행은에 안네는 것도 히안지게 만들어. 안네는 그 비가 영 영 내려가는 그것이 아니고, 이 굽 그런 거는 어떻게 안트레 오게시리, 안트레 오게시리 하

면서 비 내려가는 건 밖으로 나가게 하명 그.(띠 해서 안에는 그것도 희한지게 만들어. 안에는 그 비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것이 아니고, 이 밑 그런 거는 어떻게 안으로 오게끔, 안으로 오게끔 하면서 비 내려가는 건 밖으로 나가게 하면서 그.)

106044 @ 음.(음.)

106044 #1 요령껏 그 짠 거 보민 비가 맞으면은 그 누람지를 다 물이 알러에 떨어지주. 옷 소곱디렌.(요령껏 그 짠 거 보면 비가 맞으면 그 이영을 다 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옷 속으로는.)

106044 #2 옷 소곱엔 절대 안 떨어젼.(옷 속엔 절대 안 떨어졌어.)

106044 #1 몸소곱으로 안 들어오게 히안하게시리 그 옛날 어른덜 거 짠 거 보민.(몸속으로 안 들어오게 희한하게끔 그 옛날 어른들 그거 짠 거 보면.)

106044 @ 이 동네 거 짜는 사름 엇인가마씨?(이 동네 거 짜는 사람 없는가요?)

106044 #1 이제 엊어.(이제 없어.)

106044 #2 저 웃토산¹⁴⁹⁾에 가민 이실 거라.(저 '웃토산'에 가면 있을 거야.)

106044 @ 웃토산에?('웃토산'에?)

106044 #1 웃드르서는.(윗동네서는.)

106044 #2 웃토산에 혼 사름 잇수다. 혼 구십 난 사름.('웃토산'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구십 된 사람.)

106044 @ 아, 알았수다. 삼촌 잡깐만예? 이제.(아, 알았습니다. 삼촌 잡깐만요? 이제.)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예, 지난번도 잠깐은 했지마는? 밥 종류는 어떤 거 있수가?(밥 종류요, 지난번도 잠깐은 했지만? 밥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7001 #1 옛날에.(옛날에.)

107001 @ 예.(예.)

107001 #1 보리쌀.(보리쌀.)

107001 #2 조밥.(조밥.)

107001 #1 하이튼 헛꼼 부잣집의는 보리밥에 좁쌀 그 이제 겨울에 먹당은에 이제 양식이 남을 정도로 그런 집에는 보리는 주로 이제 봄에 보리 장만해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이제 조 날 때끄장 먹는 거 아니?(하여튼 조금 부잣집에는 보리밥에 좁쌀 그 이제 겨울에 먹다가 이제 양식이 남을 정도로 그런 집에는 보리는 주로 이

149) '웃토산'은 위쪽의 토산리를 말한다. 토산리는 '웃토산'과 '알토산'으로 나뉘는데, 웃토산은 산간 방면의 토산리를 가리킨다.

제 봄에 보리 장만해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이제 조 날 때까지 먹는 거 아니?)

107001 @ 예.(예.)

107001 #1 보린?(보린?)

107001 @ 예.(예.)

107001 #1 경 허면은 부자집덜은 보리밥에도 족썰을 서경 먹고.(그렇게 하면은 부잣집들은 보리밥에도 족쌀을 섞어서 먹고.)

107001 @ 예.(예.)

107001 #1 경 아녀근에 흐꼼 가난한 집덜은 보리철에는 보리만 놓 혜영 먹곡.
(그렇게 않고 조금 가난한 집들은 보리철에는 보리만 놔서 해서 먹고.)

107001 @ 음.(음.)

107001 #1 또 조철에는 조만 놓, 족쌀만 놓 행 먹고. 또 그 이제 족쌀 이제 얼마 하영 엇인 사름덜은 이제 고구마, 이제 감자.(또 조철에는 조만 넣어서, 족쌀만 넣어서 해서 먹고. 또 그 이제 족쌀 이제 얼마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고구마, 이제 고구마.)

107001 @ 예.(예.)

107001 #1 감자 놔근에 족썰은 쪼꼼씩 놔근에 그 밥을 행 먹고.(고구마 넣어서 족쌀은 조금씩 넣어서 그 밥을 해서 먹고.)

107001 @ 그거는 무신 밥?(그거는 무슨 밥?)

107001 #1 게난 감자밥.(그러니까 고구마밥.)

107002 @1 예, 알았수다. 하나씩? 그러면 쌀을, 아니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은 뭐라마씨?(예, 알았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쌀을, 아니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은 뭐예요?)

107002 #1 밥을 지어서 족쌀.(밥을 지어서 족쌀.)

107002 @ 예.(예.)

107002 #1 보리쌀.(보리쌀.)

107002 @ 예.(예.)

107002 #1 뭐 밀 같은 것도 밥은 다 뛰여.(뭐 밀 같은 것도 밥은 다 돼.)

107002 @ 예.(예.)

107002 #1 뜨 멀쌀도 밥도 뛰고.(메밀쌀도 밥도 되고.)

107002 @ 뜨 멀도 뛰고.(메밀도 되고.)

107002 #1 산뒤.(밭벼.)

107002 @ 산뒤.(밭벼.)

107002 #1 피도 밥 되고.(피도 밥 되고.)

107002 @ 피도 뛰고예?(피도 되고요?)

107002 #1 곡식으로는 밥하젠 허민 밥하고 죽허젠 허민 죽하고.(곡식으로는 밥 하려고 하면 밥하고 죽하려고 하면 죽하고.)

107003 @ 예, 맞수다. 보리밥은 어떻 헤는 거우과?(예, 맞습니다. 보리밥은 어떻

게 하는 겁니까?)

107003 #1 보리밥은 어떻 허느닌 허민 그 보리, 보리를.(보리밥은 어떻게 하는가하면 그 보리, 보리를.)

107003 @ 예.(예.)

107003 #1 이제 그 옛날에는 보리 이제 물고랑에 가근에 그 소나 말이나 영 메여근에 이제 보리를 물 적져근에 그 이제 ㅋ례에 이제 놔근에 이제 소를 영 사름으로 몰명. 사름으론 하면은 너무 지치니까.(이제 그 옛날에는 보리 이제 연자매에 가서 그 소나 말이나 이렇게 매어서 이제 보리를 물 적셔서 그 이제 맷돌에 이제 놔서 이제 소를 이렇게 사람으로 몰면서. 사람으로 하면 너무 지치니까.)

107003 @ 예.(예.)

107003 #1 소나 말이나 영 메여근에 거 뻥뻥 돌아가명 혜영 비치락으로 밖에나온 거 안티레 썰어 놓명 경 허영은에 이제 굴양.(소나 말이나 이렇게 매어서 거뻥뻥 돌아가면서 해서 빗자루로 밖에 나온 거 안으로 쓸어 놓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서.)

107003 @ 음.(음.)

107003 #1 굴양은에 그거를 말류와근에 말류왕 또 또 불려불면은 굽아진 체는밖으로 나가꼭 이제 그기 부뜬 거 그냥 있는 거 아니.(갈아서 그거를 말려서 말려서 또 또 불려버리면 갈아진 겨는 밖으로 나가고 이제 거기 붙은 거 그냥 있는 거 아니.)

107003 @ 예.(예.)

107003 #1 게믄 두불 ㅋ는 거라이.(그러면 두별 가는 거야.)

107003 @ 예.(예.)

107003 #1 그런 식으로. 두불 굽아근에 혜영 말류와근에 이제 불려베둬근에 그보리쌀만 놔근에 밥을 하젠 하면은 밥이 잘 안 돼니까 옛날 어른덜토 머리를 써근에 정ㅋ례.(그런 식으로. 두별 갈아서 해서 말려서 이제 불려버리고서 그 보리쌀만 넣어서 밥을 하려고 하면 밥이 잘 안 되니까 옛날 어른들도 머리를 써서 풀맷돌.)

107003 @ 예.(예.)

107003 #1 그 보리쌀을 그거를 정ㅋ례에서 혜영 굽아근에 그 벌르는 거라.(그보리쌀을 그것을 풀맷돌에서 해서 갈아서 그 짜개는 거야.)

107003 @ 예.(예.)

107003 #1 보리쌀을 벌러근에 이제 그거 계난 그 벌른덴 허는 말은 거핀텐 하주 거핀텐.(보리쌀을 짜개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짜畋다고 하는 말은 거피한다고 하지. 거피한다고.)

107003 @ 거핀텐.(거피한다고.)

107003 #1 거피여근에 그거 혜여근에 밥허여근에 경 하면은 밥이 이제 틈자면은 밥이 잘 돼고.(거피해서 그거 해서 밥해서 그렇게 하면 밥이 이제 뜰들이면 밥이 잘 되고.)

107003 @ 음.(음.)

107003 #1 그자 통보리 그 그거 보리로만 허젠 허민 밥이 살락허영 잘 뛰지 안 허니까, 거피여근에 경 허곡. 또 그 통보리로 헤근에 하는 거는 좁쌀 이신 사름덜은 좁쌀 서끄면은.(그자 통보리 그 그거 보리로만 하려고 하면 밥이 꺼끌꺼끌해서 잘 되지 안 하니까, 거피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통보리로 해서 하는 거는 좁쌀 있는 사람들은 좁쌀 섞으면.)

107003 @ 예.(예.)

107003 #1 밥이 이제 잘 뛰고.(밥이 이제 잘 되고.)

107003 @ 음.(음.)

107003 #1 그보다 흐꼼 부자첩덜은 산듸.(그보다 조금 부잣집들은 밭벼.)

107003 @ 예.(예.)

107003 #1 산듸해여근에 서꺼근에 반지기밥¹⁵⁰⁾이엔 헤근에.(밭벼 해서 섞어서 ‘반지기밥’이라고 해서.)

107003 @ 음.(음.)

107003 #1 보리 반 그 산듸쓸 반 헤근에 하면은 밥 반지기.(보리 반 밭벼쌀 반 해서 하면 밥 ‘반지기’.)

107003 @ 음.(음.)

107003 #1 그치룩 해여근에 헨 먹곡. 그치룩.(그처럼 해서 해서 먹고. 그처럼.)

107004 @ 삼춘, 게든 보리하고 조하고 반씩 서끈 거는 무신 밥?(삼춘, 그러면 보리하고 조하고 반씩 섞은 것은 무슨 밥?)

107004 #1 게난 기자 그건 기자 밥이엔 헤낫주. 반씩 서끈 거.(그러니까 그저 그 건 밥이라고 했었지. 반씩 섞은 거.)

107004 @ 게난 반지기밥은?(그러니까 ‘반지기밥’은?)

107004 #1 산듸.(밭벼.)

107004 @ 산듸 서끈 것만 반지기 햇수가?(밭벼 섞은 것만 ‘반지기’ 했습니까?)

107004 #1 산듸하고 보리하고 서끄듣가 좁쌀하고 산듸하고 서끄듣가 경 헤영 반지기밥. 반지기밥이엔 헌 거는 흐꼼 고급스럽게 이제 그 하는 밥을 반지기밥이라고.(밭벼하고 보리하고 섞듣가 좁쌀하고 밭벼하고 섞듣가 그렇게 해서 ‘반지기밥’. ‘반지기밥’이라고 한 거는 조금 고급스럽게 이제 그 하는 밥을 ‘반지기밥’이라고.)

107004 @ 아까, 삼춘 정그레엔 굴안게마는 정그레는 어떤 걸 정그렌엔 헤는 거 마씨?(아까, 삼춘 풀랫돌라고 말하더니만 ‘정그레’는 어떤 걸 ‘정그렌’라고 하는 거예요?)

107004 #1 정그레 저.(‘정그레’ 저.)

107004 #2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

107004 #1 저기 그 이제 그레 밖에 이제 보리쓸 영 그는 거는 그레.(저기 그 이

150) ‘반지기밥’은 두 가지 쌀을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보리쌀과 좁쌀, 보리쌀과 쌀 등을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을 ‘반지기밥’이라고 한다.

제 맷돌 밖에 이제 보리쌀 이렇게 가는 거는 맷돌.)

107004 #2 ㅋ례.(맷돌.)

107004 #2 정ㅋ례엔 헌 건 이 ㅋ례 요만은 한 것에서 이제 요 가운데 요만은이 고망 뜰라근에,(풀맷돌이라 한 건 이 맷돌 요만큼 한 것에서 이제 요 가운데 요만큼 구멍 뚫어서.)

107004 @ 음.(음.)

107004 #1 이 윗에도 고망 뜰라근에 ㅋ례즈룩을 이제 고망 뜰른 디래 남으로. 그거를 영 찔러근에 둘리가 영 영 영 ㅋ는 거라이. 굴명 그 우의 곡식 놓은 거 그 거 알리레 내려가게 고망이 뜰라진 데레 쪼끔씩 쪼끔씩 영 영 들이치멍 영 영 허영 둘리가 ㅋ는 거라.(이 옆에도 구멍 뚫어서 맷손을 구멍 뚫은 데로 나무로. 그거를 이렇게 찔러서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갈면서 그 위에 곡식 놓은 거 그거 아래로 내려가게 구멍이 뚫어진 데로 조끔씩 조끔씩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이 가는 거야.)

107004 @ 계난 이런 ㅋ례짝 두 개 우알로 두 개 헌 걸 정ㅋ례렌 허는 거예?(그러니까 이런 맷돌짝 두 개 위아래로 두 개 한 걸 풀맷돌이라고 하는 거요?)

107004 #1 그 아래 아래 아래 ㅋ례착에 아래 있는 거는 젤 가운데 요만은허게 헤영은에 그 저 ㅋ례 우의 ㅋ례가 벗어지지 안 하게시리 나무로 영 헤영.(그 아래 아래 맷돌짝에 아래 있는 거는 젤 가운데 요만큼하게 해서 그 저 맷돌 위에 맷돌이 벗어지지 않게끔 나무로 이렇게 해서.)

107004 #2 나무로.(나무로.)

107004 #1 하고, 우의 건 젤 가운데 가운데 그것이 맞게시리 여자 남자하고 그거는 똑 ㅋ튼 거.(웃음).(하고, 위에 것은 제일 가운데 가운데 그것이 맞게끔 여자 남자하고 그것은 똑 같은 거.(웃음).)

107004 @ 여자 남자?(여자 남자?)

107004 #1 그레 맞게시리 헤여근에 헤야만이 영 영 영 굽아도 ㅋ례착이 벗어지지 아녀근에 그 거기에서만 잘 굽아진 거.(그리로 맞게끔 해서 해야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아도 맷돌짝이 벗어지지 않아서 그거 거기에서만 잘 같아진 거.)

107004 @ 정ㅋ례잖아예? 물 놓은에 허멍은에 ㅋ는 거 잇지 아녀우과? 그건 무슨 ㅋ례우과?(풀맷돌이잖아요? 물 넣어서 하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맷돌입니까?)

107004 #2 물그랑.(연자매.)

107004 @ 큰 거 말고 죽은 거?(큰 거 말고 작은 거?)

107004 #1 그것도 ㅋ례렌 헤여.(그것도 맷돌이라고 해.)

107004 #2 그걸로.(그걸로.)

107005 @ 둘 다 다 정ㅋ례 식으로예? 그 다음에 이제 흰밥예, 쌀로만 지은 밥을 여기선 뭐렌 헙니까?(둘 다 다 풀맷돌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흰밥요, 쌀로만 지은 밥을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107005 #1 곤밥.(흰밥.)

107005 @ 곤밥.(흰밥.)

107005 #2 곤밥.(흰밥.)

107005 @ 곤밥은 어떤 식으로 지었수가?(흰밥은 어떤 식으로 지었습니까?)

107005 #1 곤밥은 요새 우리가 밥하는 그런 식으로 헤여.(흰밥은 요새 우리가 밥하는 그런 식으로 해.)

107005 @ 주로 어떤 때 먹어? 곤밥은?(주로 어떤 때 먹어? 흰밥은?)

107005 #1 곤밥은 제사 때.(흰밥은 제사 때.)

107005 @ 음.(음.)

107005 #1 제사 때 맹길 때뺏기 못 먹어. 그 옛날에는 누개네 집의 잔치 했던 허면은 새각시 상에 산듸쓸 헤근에 밥허영 영 올리민 그 밥도 다 언주와 먹엇던 허난.(제사 때 명절 때밖에 못 먹어. 그 옛날에는 누구네 집에 잔치 한다고 하면 새색시 상에 뱉벼쌀 해서 밥해서 이렇게 올리면 그 밥도 다 그러모아서 먹었다고 하니까.)

107005 #2 구경하는 아이덜 가면은.(구경하는 아이들 가면.)

107005 #1 구경덜 허명 그 새각시 그런 고기 밥도 다 손으로 접아당 먹언.(구경들 하면서 그 새색시 그런 고기 밥도 다 손으로 접어다가 먹었어.)

107005 #2 밥도 새각시 방에 거 설르게 훼면은 그 밥도 해당 그디 앗인 대반이.(밥도 새색시 방에 거 치우게 되면 그 밥도 해다가 거기 앗은 대반이.)

107005 #1 혼 수까락씩, 골고로 혼 수까락씩 갈라주민 그거 먹언.(한 숟가락씩, 골고루 한 숟가락씩 나눠주면 그거 먹었어.)

107005 #2 손 내밀민 그거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얻어먹어나난.(손 내밀면 그거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얻어먹어나니깐.)

107005 #1 득세기 숲앙 그거 허영 그디 헤영 올리고, 아이고, 옛날엔.(달걀 삶아서 그거 해서 거기 해서 올리고, 아이고, 옛날엔.)

107006 @ 맞수다. 조밥은 어떤 식으로 험니까?(맞습니다. 조밥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7006 #1 조밥은 저 족쓸밥은 물만 놔근에 삭삭 끓이면은 끓인디 족쓸 놔근에 행 끓여근에.(조밥은 저 조밥은 물만 넣어서 삭삭 끓으면 끓은데 족쌀 넣어서 해서 끓여서.)

107006 #2 조밥은 막 간단하게 해겼어.(조밥은 아주 간단하게 해겼어.)

107006 #1 끓이면은 헤근에 불 꺼근에 잇당 보민 틈자근에 조밥 훼.(끓으면 해서 불 꺼서 있다가 보면 뜸들이면 조밥 돼.)

107006 @ 음, 족쓸만도 냉은에 조밥도 헤영 먹어수과?(음, 족쌀만도 넣어서 조밥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06 #1 조밥.(조밥.)

107006 @ 어어.(어어.)

107006 #2 흐린조팝은 쯤 맛있었어.(차조밥은 참 맛있었어.)

107006 #1 흐린조팝 모인조팝.(차조밥 메조밥.)

107006 @ 음.(음.)

107006 #1 흐린 거는 그 꺼먼 좁쌀 그거 흐린 거, 모인조는 그거 노랑, 색깔이 노랑하면서 막 계싹¹⁵¹⁾해주게, 그거는 살락혜연.(차진 것은 그 까만 좁쌀 그거 차진 거, 메조는 그거 노랑, 색깔이 노랑하면서 막 ‘계싹’하지, 그거는 까끌까끌해서.)

107006 @ 건 살락하고예?(그건 까끌까끌하고요?)

107006 #1 으.(으.)

107007 @ 풋밥은?(팥밥은?)

107007 #1 풋, 풋은 풋만은 밥 저 안 뛰고, 풋하고 보리쌀하고 숟아근에 이제 그거 놓곡 해근에.(팥, 팥은 팥만은 밥 저 안 되고, 팥하고 보리쌀하고 숟아서 이제 그거 넣고 해서.)

107007 #2 그건 주로 잔치 때.(그건 주로 잔치 때.)

107007 @ 아, 풋밥은 잔치 때?(아, 팥밥은 잔치 때?)

107007 #2 잔치 때.(잔치 때.)

107007 #1 풋밥, 풋도 그땐 막 귀해영.(팥밥, 팥도 그땐 아주 귀해서.)

107007 #2 보리 해서.(보리 해서.)

107007 #1 숟앙.(삶아서.)

107007 #2 좁쌀 조금 놓곡 이만큼 거려주민 풀풀하게 맛잇는지.(좁쌀 조금 넣고 이만큼 떠주면 풀풀하게 맛잇는지.)

107007 @ 음, 이제도 맛 좋을 거 닮아예?(음, 이제도 맛 좋을 거 같아요?)

107007 #2 아, 이제 이제 그런 거 엊어.(아, 이제 이제 그런 거 없어.)

107007 #1 그런 밥 혜영 자리젓에 먹으민 얼마나 맛이신지. 이제 경 혜근에 자리젓에 먹어도 내려가지 아낼 거우다. (웃음).(그런 밥 해서 자리젓에 먹으면 얼마나 맛잇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자리젓에 먹어도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웃음).)

107008 @ 피밥도 직접 혜봄디가?(피밥도 직접 해봄디까?)

107008 #1 피밥. 우리 그 큰고모님이 저 신풍리 씨집을 갔어. 그때는 이제 집안집안끼리 이제는 경 하주마는 부자는 부자끼리 영 혜근에 알앙덜 허고 허난 우리 큰고모가 이제 그 서귀포 간 그 송침.(피밥. 우리 그 큰고모님이 저 신풍리 시집을 갔어. 그때는 이제 집안집안끼리 이제는 그렇게 하지만 부자는 부자끼리 이렇게 해서 알아서들 하고 하니까 우리 큰고모가 이제 그 서귀포 간 송침.)

107008 #2 어어.(어어.)

107008 #1 그 송침이 씨집을 간 거라. 신풍리.(그 송침에 시집을 간 거야. 신풍리.)

107008 #2 태만이 족은 **.(태만이 작은 **.)

107008 #1 그디 헨에.(거기 해서.)

151) ‘계싹’은 풀기가 없이 물기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107008 #2 *** 그 집안, 그 집안.(*** 그 집안, 그 집안.)

107008 #1 아, 게믄 그 신풍리에서는 피를 경 하영 갈아근에, 우리 큰고모가 그 때는 이제 뭐 차도 엊고 무시거도 엊고 헐 때난, 마차로 해근에 우리 집의 그 친정 예.(아, 그러면 그 신풍리에서는 피를 그렇게 많이 갈아서, 우리 큰고모가 그때는 이제 뭐 차도 없고 무엇도 없고 할 때니까, 마차로 해서 우리 집에 그 친정예.)

107008 @ 예.(예.)

107008 #1 친정에 이제 피허곡 산뒤 그런 거 그 웃뜨르는 그런 것이 막 하영 농사를 지니까. 그거 허여근에 시깽 온 거 보민 피쓸도양 혜양허여, 이치록.(친정에 이제 피하고 밭벼 그런 거 그 윗마을은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 거 해서 실어 온 거 보면 펑쌀도요 하얘, 이처럼.)

107008 @ 음.(음.)

107008 #1 좁쌀 똑 좁쌀, 똑 좁쌀이라. 견디 밥은 허민 계싹이라.(좁쌀 꼭 좁쌀, 꼭 좁쌀이야. 그런데 밥은 하면 ‘계싹’이야.)

107008 @ 음.(음.)

107008 #2 계싹.(‘계싹’.)

107008 #1 풀풀 아녕.(풀풀 안 해서.)

107008 #2 이 동네에서예, 이 동네에서 그 땔이 말을 안 들어가면은 저 드리 손당에 씨집보내肯 영 허는데 드리 손당이 어딘 줄 알지예?(이 동네에세요, 이 동네에서 그 땔이 말을 안 들어가면 저 교래 송당에 시집보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교래 송당이 어딘 줄 알지요?)

107008 @ 예, 예.(예, 예.)

107008 #2 그다가 땔 농사는 피뺏고 안 훠여마씀. 땅이 굽어가지고.(거기가 땔 농사는 피밖에 안 돼요. 땅이 굽어가지고.)

107008 @ 음.(음.)

107008 #2 그래서 그런 디 씨집보내肯 혜난 거우다. 견디 그디서도 우리 그 친족이 있어가지고 피 그걸 가져왕 먹어보니까 먹을 때는 곤밥그치 하양현 게 말여. 먹질 못허여, 살락해여.(그래서 그런 데 시집보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그 친족이 있어가지고 피 그걸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먹을 때는 흰밥같이 하얀 게 말야. 먹질 못해, 꺼끌꺼끌해.)

107008 #1 쌀 보기에는 엔간히 곱닥현디 밥은 허난 완전, 그 피쓸이 혼나로 세 어질 정도로 살락 하는 거 아니.(쌀 보기에는 엔간히 고운데 밥은 하니까 완전, 펑쌀이 하나로 세어질 정도로 까끌까끌 하는 거 아니.)

107008 @1 음.(음.)

107008 #1 경 허민.(그렇게 하면.)

107008 @2 밥해도마씨?(밥해도요?)

107008 #2 밥알이.(밥알이.)

107008 #1 쌀이 고운데 그치록. 우리 그 큰고모 이시난 거 피쓸 그거 확실히게

알암주.(쌀이 고운데 그처럼. 우리 그 큰고모 있으니까 거 펑쌀 그거 확실하게 알고 있지.)

107008 @ 예.(예.)

107008 #1 우리 여기는 피 안 같아.(우리 여기는 피 안 같아.)

107008 @ 예, 예.(예, 예.)

107008 @2 계난 피쓸인 경우 피는 아홉 번을 굽어야.(그러니까 펑쌀인 경우 피는 아홉 번을 같아야.)

107008 #1 몰르쿠다. 우리 만약에 산디 간 디 피 하나씩 서꺼지면은 그 피는 다 메어부려.(모르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밭벼 간 데 하나씩 섞어지면 그 피는 다 매어버렸어.)

107008 #2 다 메여부려.(다 매어버려.)

107008 #1 산듸가 다 피면은 피도 피니까 다 그 문딱 하나 엇이 다 피는 메여. 산듸더래 서꺼지카부텐.(밭벼가 다 피면 피도 피니까 다 그 몽땅 하나 없이 다 피는 배어. 밭벼로 섞어질까봐서.)

107009 @ 음, 감저밥은 어떻 허는 거우과?(음, 고구마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09 #1 감저는 이 감저 이제 벗겨근에.(고구마는 이 고구마 이제 벗겨서.)

107009 @ 예.(예.)

107009 #1 요만씩 썰엉.(요만씩 썰어서.)

107009 @ 예.(예.)

107009 #1 반착만이 썰엉 솟듸 넣은에 완전 그 감저가 다 익으면은 좁쌀을 놓는 거라.(반쪽만큼 썰어서 솥에 넣어서 완전 그 고구마가 다 익으면 좁쌀을 넣는 거야.)

107009 @ 아아, 감저 다 익으면?(아아, 고구마 다 익으면?)

107009 #1 감저, 감자 익지 아낼 때 좁쌀 낫당은 감자가 익지 아녕 밥 못 먹어.(고구마, 고구마 익지 않을 때 좁쌀 넣었다가 고구마가 익지 않아서 밥 못 먹어.)

107009 @ 아.(아.)

107009 #1 좁쌀은 빨리 풀어지고 젠젠허니까.(좁쌀은 빨리 풀어지고 자잘하니까.)

107009 @ 예, 예.(예, 예.)

107009 #1 감저는 그 빨리 익지를 아녀주게. 계난 감자 냐근에 저 막 끓이면은 감제 영 혜근에 밥자로나 국자로나 영 혜근에 영 접아왕은에 이제 물싹하게 하면 그때 좁쌀을 우티레 삭하게 냐근에 혜영 끓여근에 흐꼼 있다근에 막 그거 서꺼근에 이제 그 밥자로.(고구마는 그 빨리 익지를 않지. 그러니까 고구마 넣어서 저 마구 끓이면 고구마 이렇게 해서 주걱으로나 국자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봐서 이제 말랑하게 하면 그때 좁쌀을 위로 삭하게 냐서 끓여서 조금 있다가 마구 그거 섞어서 이제 그 주걱으로.)

107009 @ 예.(예.)

107009 #1 서끄는 거라.(섞는 거야.)

107009 @ 예.(예.)

107009 #1 이제 밥 웨면은 그 밥 젓듯이 경 하면은 좁쌀허곡 감자하고 막 어우러져근에 경 헤근에 그 밥이 웨는디, 우린 우리 경우는 그때에 보리쌀에 좁쌀에 밥 허영 감제밥 바꾸레 텽겨낫어. 감저밥이 맛 좋앙.(이제 밥 되면 그 밥 젓듯이 그렇게 하면 좁쌀하고 고구마하고 막 어우러져서 그렇게 해서 그 밥이 되는데, 우린 우리 경우는 그때에 보리쌀에 좁쌀에 밥해서 고구마밥 바꾸려 다녔었어. 고구마밥이 맛 좋아서.)

107009 @ 아아.(아아.)

107009 #1 그 엇인 집의 감저밥이 그렇게 맛 좋은 거라. 게민 우린 그 밥헤근에 그거 아경 그 그 집의 바꾸레, 밥 바꾸레 갓다온 기억이 나고.(그 없는 집에 고구마밥이 그렇게 맛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린 그 밥해서 그거 가져서 그 그 집에 바꾸려, 밥 바꾸려 다녀온 기억이 나고.)

107009 @ 음.(음.)

107011 #1 또 딴 집의덜은 막 이제는 톤탑 그치룩 막 헤영 하는디. 그 옛날에는 톤탑 하면은 아주 못사는 집만 톤탑 행 먹으니까 우린 막 그 톤탑이 맛있어근에.(또 딴 집들은 아주 이제는 톱밥 그처럼 막 해서 하는데. 그 옛날에는 톱밥 하면 아주 못사는 집만 톱밥 해서 먹으니까 우린 아주 그 톱밥이 맛있어서.)

107011 @ 음.(음.)

107011 #1 그 보리쌀에 좁쌀에 그 나룩쌀에 영 헤근에 한 밥 가져근에 톤탑, 톱밥 바꾸레 그 바꽈당은에 먹어나고.(그 보리쌀에 좁쌀에 그 볍쌀에 이렇게 해서 한 밥 가져서 톤탑, 톱밥 바꾸려 그 바꿔다가 먹었었고.)

107011 #2 게난 그 저 그 당시는 못사는 집의는 감자가 안 들어갈 때 엇이 식 때. 점심에는 감저 청 점심 떼고.(그러니까 그 저 그 당시는 못사는 집에는 고구마가 안 들어갈 때 없이 밥 때. 점심에는 고구마 쪘서 점심 때우고.)

107011 @ 예.(예.)

107011 #2 아침에 좁쌀 조금 놓곡 감자 놔가지고 밥하곡.(아침에 좁쌀 조금 넣고 고구마 넣어서 밥하고.)

107011 @ 예.(예.)

107011 #2 저녁 때 그렇게 허고, 그렇게 허니까 감자가 뇌니까 어린아이덜 잇는 디 냉중에 좁쌀은 하나도 엊고 감자만 남는 거라.(저녁 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구마가 뇌니까 어린아이들 있는 데 나중에 좁쌀은 하나도 없고 고구마만 남는 거야.)

107011 #1 감자만 다 둉그령 내부는 거라.(고구마만 다 굴려서 내버리는 거야.)

107011 @ 삼촌네는 밥만 먹으니까 그걸 먹고 싶어근에 간 거고?(삼촌네는 밥만 먹으니까 그걸 먹고 싶어서 간 거고?)

107011 #2 톳밥 이야기 하는데, 그 한해 막 가을고 농사가 원 안 돼서 헐 때.(톳밥 이야기 하는데, 그 한해 아주 가을고 농사가 전혀 안 돼서 할 때.)

107011 @ 예.(예.)

107011 #2 그때 자 좁쌀도 없지 톳 해다근에 톳밥을 하는데 흔히 요즘 사름덜 보는 것은, 보리 저 보리나 좁쌀에다 톳을 일부 서꺼가지고 하는 것이 톳밥인 줄 아는데.(그때 자 좁쌀도 없지 톳 해다가 톳밥을 하는데 흔히 요즘 사람들 보는 것은, 보리 저 보리나 좁쌀에다 톳을 일부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톳밥인 줄 아는데.)

107011 @ 예.(예.)

107011 #2 좁쌀은 요만큰 놓고 톳만 이만이 놓고 하는데 완전히 톳만 먹는 거.
(좁쌀은 요만큼 넣고 톳만 이만큼 넣고 하는데 완전히 톳만 먹는 거.)

107011 @ 음.(음.)

107011 #1 요즘 톳밥은 별미로 해서.(요즘 톳밥은 별미로 해서.)

107011 @ 예, 예.(예, 예.)

107011 #2 그 우리 회장은 경 곤는데, 그 톳이 이만큼 있으민 좁쌀은 몇 방울만 있는 거라.(그 우리 회장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톳이 이만큼 있으면 좁쌀은 몇 방울만 있는 거야.)

107011 @ 음. 음.(음. 음.)

107011 #2 그런 거 먹으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넘길 때도 많이 있어.(그런 거 먹으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넘길 때도 많이 있어.)

107011 #1 우리 그, 우리 어린 때는 그 감자뺏데기.(우리 그, 우리 어린 때는 그 절간고구마.)

107011 @ 예.(예.)

107011 #1 감자뺏데기도 혜근에 어떻 날씨가 좋양 곱게 물르민 하주마는 널어놓민 비 오곡 들여놔근에 비 여라 날 오민 경 혀영 곰팡이 막 편 거.(절간고구마도 해서 어떻게 날씨가 좋아서 곰팡이 마르면 하지만 널어놓으면 비 오고 들여놔서 비여러 날 오면 그렇게 해서 곰팡이 마구 편 거.)

107011 @ 예.(예.)

107011 #1 그런 거 혜근에 말류와근에 그거 방에혹에 그거 뺏아근에 체로 영치명 혀영 그거 가져근에 돌레떡도 만들어근에 먹고. 그거 가져근에 범벅.(그런 거 해서 말려서 그거 방아확에 그거 빽아서 체로 이렇게 치면서 해서 그거 가져서 도래떡도 만들어서 먹고. 그거 가져서 범벅.)

107011 @ 예, 예.(예, 예.)

107011 #1 감자 놓 범벅도 헹 먹곡 경도 하는 집도 있어낫어.(고구마 넣어서 범벅도 해서 먹고 그렇게도 하는 집도 있었었어.)

107010 @ 그것도 엊그제라예? 예, 늄삐 냉도 밥합니까?(그것도 엊그제지요? 예, 무 넣어서도 밥합니까?)

107010 #2 어, 늄삐로도.(어, 무로도.)

107010 #1 늄빼 놓 밥 허주. 옛날은 늄빼도 귀했어. 우잣 엇고 뭐하는 사름은 늄빼도 엇엉 옛날에 그 가시리끄장 풀느물 캐어당 풀느물에 무수.(무 넣어서 밥 하지. 옛날은 무도 귀했어. 텃밭 없고 뭐하는 사람은 무도 없어서 옛날에 가시리까지 풋나물 캐어다가 풋나물에 무.)

107010 @ 예.(예.)

107010 #1 요만씩 헌 것에 그거 혜당 캐여당은에 무수차 그 막 쁨앙.(요만씩 한 것에 그거 해다가 캐다가 무째 그 마구 삶아서.)

107010 @ 예.(예.)

107010 #1 경 혜근에 그 무수에 어떻 어떻 혜영 그거 밥행 먹는 집 보고. 우린 그런 밥은 우리 먹어보지 아녀난에. 우리 앞집이 지*이네. 지*이네가 그렇게 가난해 영 얘기덜은 하고 가난하고 밧도 엇고. 옛날엔 놈의 밧 반작하면은 밧 임제는 만약에 보리 다섯 단이민 넉 단은 밧 임제 가져가고 농사진 사름은 혼 단 아져가곡 허난 없는 사람은 만날 가난하는 거라. 이신 사름덜은 그치록 혜근에 밧 잇엉 반작만 줘도 먹엉 사는디.(그렇게 해서 그 무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거 밥해서 먹는 집도. 우린 그런 밥은 우리 먹어보지 않으니까. 우리 앞집에 지*이네. 지*이네가 그렇게 가난해서 아기들은 많고 가난하고 밧도 없고. 옛날엔 남의 밧 병작하면 밧 임자는 만약에 보리 다섯 단이면 넉 단은 밧 임자 가져가고 농사지은 사람은 한 단 가져가고 하니까 없는 사람은 만날 가난하는 거야. 있는 사람들은 그처럼 해서 밧 있어서 병작만 줘도 먹어서 사는데.)

107010 @ 음.(음.)

107010 #1 이제는 그추룩 하면은 누개가 놈의 일 가민 旱루 오만 원 육만 원 벌엉 오민 쌀도 수십 키로 사곡. 반찬 값도 나오곡 허는디.(이제는 그처럼 하면은 누가 남의 일 가면 하루 오만 원 육만 원 벌어서 오면 쌀도 사십 킬로 사고. 반찬 값도 나오고 하는데.)

107010 #2 (웃음).(웃음.)

107010 @ (웃음).(웃음.)

107010 #1 옛날에 뛰약세기로 저 좁쌀 旱나 아져당 먹으민 일 旱루씩 허고.(옛날에 식되로 저 좁쌀 하나 가져다가 먹으면 일 하루씩 하고.)

107010 @ 맞아예?(맞아요?)

107010 #1 옛날은 그추룩 하난 못 사는 사름은 그렇게 그, 그거를 벗어나지 못 혜영. 그런 식으로만. 젠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민 못사는 집은 얘기만 처남신디사.(옛날은 그처럼 하니까 못사는 사람은 그렇게 그,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못사는 집은 아기만 처 넣고 있는 지야.)

107010 @ (웃음).(웃음.)

107010 #1 아니.(아니.)

107010 #2 말이 있지 아녀우과? 요즘도 그런지 몰라도. 육지에 그 철로 이신디, 철로 이신 디가 얘기덜이 젤 만허여.(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지 몰라

도. 육지에 그 철로 있는 데, 철로 있는 데가 아기들이 젤 많아.)

107010 @ 아.(아.)

107010 #2 철로 넘어가당 끼익히민 즘자당 깨어나민 (웃음) 그런 말이 있어. 철로길에가 얘기.(철로 넘어가다가 끼익하면 잠자다가 깨어나면 (웃음) 그런 말이 있어. 철로길에 아기.)

107012 @ 삼춘, 폐밥도 허는 거 봐봅디가? 폐밥.(삼춘, 폐밥도 하는 거 봐봅디까?)

107012 #1 폐, 폐는이, 폐로 밥 한 거는 안 보고. 못 잊지 아녀우과?(폐, 폐는, 폐로 밥 한 것은 안 보고. 무릇 있지 않습니까?)

107012 #2 뜻.(무릇.)

107012 @ 뜻으로?(무릇으로?)

107012 #1 못하고 폐하고 ㅋ찌 놔근에 숭년 때에 그거 헤근에 숲양 난 밥 아정 폐, 폐밥을 바꾸레 가근에 바꽈당은에 먹으민 목이 경 아프는 거라.(무릇하고 폐하고 같이 넣어서 흉년 때에 삶아서 난 밥 가져서 폐, 폐밥을 바꾸려 가서 바꿔다가 먹으면 목이 그렇게 아픈 거야.)

107012 @ 음.(음.)

107012 #1 그 못하고 폐하고 허민.(그 무릇하고 폐하고 하면.)

107012 #2 폐 저 폐하고 못하고 두 끼 먹으면은 목이 다 날라나는 거 같아. 그렇게 독한 거라.(폐 저 폐하고 무릇하고 두 끼 먹으면 목이 다 날라나는 거 같아. 그렇게 독한 거야.)

107012 #1 목이 경 아파.(목이 그렇게 아파.)

107012 @ 경 헤도 쌀 현 거를 바꽝 먹으래 간.(그렇게 해도 쌀 한 거를 바꿔서 먹으러 갔어.)

107012 #1 바꽝 먹으면은 우리 어머닌 막 못하게 헤도, 놈덜 그거 영 허영 먹으민 막 그 벨미로 먹구장 헤근에 바꽈당 먹어.(바꿔서 먹으면 우리 어머닌 막 못하게 해도, 남들 그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그 별미로 먹고자 해서 바꿔다가 먹어.)

107012 #2 못하고 폐 숲계 뛰면은 ㅎ를밤 ㅎ를을 숲아야 웹니다게.(무릇하고 폐 숲계 되면 하룻밤 하루를 삶아야 됩니다.)

107012 @ 아아.(아아.)

107012 #2 그렇게 오래 숲아야 뛰고. 거기다가 저 뭘 놓느냐 느챙이. 모멀느챙이 살짝 허게 허면은 먹음직스러운데, 먹을 때 들큼헌데 두 끼 이상 먹어 가면 목이 막 아파.(그렇게 오래 삶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뭘 놓느냐 나깨. 메밀나깨 살짝 하게 하면 먹음직스러운데, 먹을 때 달콤한데 두 끼 이상 먹어 가면 목이 많이 아파.)

107012 @ 음.(음.)

107012 #2 그걸로도 때 살고.(그것으로도 때 살고.)

107012 #1 그걸로도 때 살고 막끗데라 가난 그 저 뜻은 못 먹고. 폐만.(그것으로

도 때 살고 마지막에 가니까 그거 저 무릇은 못 먹고. 패만.)

107012 @ 아.(아.)

107012 #1 패만 영 영 골란 먹어난 거 생각이 나.(패만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먹었던 거 생각이 나.)

107012 @ 음.(음.)

107012 #2 당시에는 뜻이, 뜻이 밧데 뭐 미삭¹⁵²⁾. 이젠 뜻이 흔나도 없어.(당시에는 무릇이, 무릇이 밭에 뭐 ‘미삭’. 이젠 무릇이 하나도 없어.)

107012 @ 안 보여예?(안 보인다고요?)

107012 #2 제초제 때문에 그런 거 닮아.(제초제 때문에 그런 거 같아.)

107012 #1 뜻이 하나도 엊어. 미약. 밧듸 강 밧 갈앙 비 와나민 강 보민 뜻이 해똑해똑하게 막 저 그 고랑에 막 잇는디 이젠 뜻 흔나도 안 보여.(무릇이 하나도 없어. 미약. 밭에 가서 밭 갈아서 비 와나면 가서 보면 무릇이 히똑히똑하게 마구 저 그 고랑에 막 있는데 이젠 무릇 하나도 안 보여.)

107012 #2 흔나도 안 보여.(하나도 안 보여.)

107013 @ 음, 맞아예. 이젠 국은 주로 어떤 국덜 행 먹었수가?(음, 맞아요. 이젠 국은 주로 어떤 국들 해서 먹었습니까?)

107013 #1 뭐, 우리, 우리 경우는 국 기자, 옛날에는 웬장도.(뭐, 우리, 우리 경우는 국 그저, 옛날에는 된장도.)

107013 @ 예.(예.)

107013 #1 하여튼 간에 열 말씩 드는 항으로 두 개 세 개 했어. 우리 어머니네 그 콩 흐르 종일 숱앙.(하여튼 간에 열 말씩 드는 항아리로 두 개 세 개 했어. 우리 어머니네 그 콩 하루 종일 삶아서.)

107013 @ 예.(예.)

107013 #1 그땐 명청하게시리 무사덜 방에에서만 다 뿐 앙.(그땐 명청하게끔 왜 들 방아에서만 다 뿐아서.)

107013 @ (웃음.)((웃음.))

107013 #1 방에에서 혜여근에 그거 반쯤 그 콩이 뿌서지면은 그 이제 방엣귀를 들르지 못할 정도로 찐득찐득하는디도 거 하명 그 메주허영. 이젠 그냥 내벼도 그냥 다 트는 걸. 이만한 맹탱이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콩쪽 영 혼 도리 놓곡.(방아에서 해서 그거 반쯤 콩이 부서지면 그 이제 방앗공이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찐득찐득하는데도 거 하면서 그 메주해서. 이제 그냥 내벼려도 그냥 다 뜨는 걸. 이만한 망태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콩짚 이렇게 한 도리 놓고.)

107013 @ 음.(음.)

107013 #1 그 메주 만든 거 이제 콩쪽 우의 냥 콩쪽 영 놔놔에 또 메주 놓곡. 게난 그거는 부떠불카부덴 그 중간 중간 콩찌을 놓은 거라. 이제 생각해 보민. 계연 그런 맹탱이로 세 개 정도 혜근에.(메주 만든 거 콩짚 위에 놔서 콩짚 이렇게 놔놓

152) ‘미삭’은 ‘아주 많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고 또 메주 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붙어버릴까봐서 그 중간 중간 콩짚을 놓은 거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망태기로 세 개 정도 해서.)

107013 @ 음.(음.)

107013 #1 경 헤근에 그 동지션들 그 막 추울 때 뛰민 거 다 혜영 베갯듸레. 게
영 짖아 가민 내널엉 이젠 돌아만 내벼도 물르는 거 내널엇당 어둑어 가민 다 맹탱
이 담으명 들여놓곡. 그런 항으로 장, 장 헤근에 그장을 이제 다 웬장국 게나제
나.(그렇게 해서 그 동지션달 그 아주 추울 때 되면 거 다 해서 바깥으로. 그래서
밝아 가면 내널어서 이젠 달아만 내벼려도 마르는 거 내널었다가 어두워 가면 이젠
망태기 들여놓고. 그런 항아리로 장, 장 해서 그장을 이제 다 된장국 그러나저러
나.)

107013 @ 예, 웬장국예?(예, 된장국요?)

107013 #1 웬장국. 웬장도 엇엉은에 웬장, 웬장도 빌레 오는 사름도 잇곡. 웬장
하영 일이 많으니까. 일 와근에 일 왕 잘 해주면은 우리 어머닌 고맙게 생각허영
쌀도 좀 주곡. 장도 주곡. 우잣에 누물 늡빼 뭐 단지님빼 쇠뿔님빼 우잣이 흔 백 평
이상 뛰난에 거기에 다 갈아놓민 막 동네 우리 동네에 다 우잣 엇인 사름. 계숙이
네도 밧 그 우잣 하난 늡빼 그 아니 나는디 그 아래 창배네 집도 우리 집의만 다
완 거 빌어당 먹어지민 왕 일덜 해주곡.(된장국. 된장도 없어서 된장, 된장도 빌리
러 오는 사람도 있고. 된장 많이 일이 많으니까. 일 와서 일 와서 잘 해주면 우리
어머닌 고맙게 생각해서 쌀도 좀 주고. 장도 주고. 텁발에 배추 무 뭐 ‘단지무’ ‘쇠
뿔무’ 텁발이 한 백 평 이상 되니까 거기에 다 갈아놓으면 동네 아주 우리 동네에
다 텁발 없는 사람. 계숙이네도 밧 그 텁발 많으니까 무 그 아니 나는데 그 아래
창배네 집도 우리 집에만 다 와서 거 빌려다가 먹어지면 와서 일들 해주고.)

107013 @ 음.(음.)

107013 #1 경 헤연 그 누물에 기자 웬장 무신 메레치가 잇이카 무시거 잇이카
웬장에 기자 누물혜영 국 끌리고 무수허영 국 끌리곡 그 무수썹 숨아근에 웬장에
찍엉 먹고. 그 그것이 반찬, 주로.(그렇게 해서 그 배추에 그저 된장 무슨 멸치가
있을까 무엇 있을까 된장에 그저 배추해서 국 끓이고 무해서 국 끓이고 그 끗일 삶
아서 된장에 찍어서 먹고. 그 그것이 반찬, 주로.)

107013 @ 경 헤도 맛 좋아예?(그렇게 해도 맛 좋지요?)

107013 #1 겐디 우리는 맛사 잊어신디 무신것사 잊어신디. 겐디 이제 젤 생각나
는 게 그 잔치. 그 잔칫집이 그 저 단지님빼¹⁵³⁾ 그 썹 시커멍한 썹 이만씩 솔진 그
런 거 혜여당.(그런데 우리는 맛이야 있었는지 무엇이야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젤
생각나는 게 그 잔치. 그 잔칫집에 그 저 ‘단지무’ 그 일 시커면 일 이만씩 살찐 그
런 거 해다가.)

107013 #2 뜻국물에.(돼지육수에.)

107013 #1 이제 물망에.(이제 모자반에.)

153) ‘단지님빼’는 무 모양이 단지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107013 @ 으.(으.)

107013 #1 물망도 우리 여기 지경에 우리 마을에 물망에 둑국물에 낄려사주 저디 어디 구좌 어디레 그거는 물망은 민작해근에 안 훠여. 어울리질 안허여. 너미 민작허영.(모자반도 우리 여기 지경에 우리 마을에 모자반에 돼지육수에 끓여야지 저기 어디 구좌 어디에 그거는 모자반은 미끈해서 안 돼. 어울리질 않아. 너무 미끈해서.)

107013 @ 예.(예.)

107013 #1 우리 여기는 물망이 거치니까 둑국물에 흐꼼만 끓여도 그것이 민작하는 거라, 막 잘 익엉.(우리 여기는 모자반이 거치니까 돼지육수에 조금만 끓여도 그것이 미끈하는 거야, 아주 잘 익어서.)

107013 @ 예.(예.)

107013 #1 우리 여기는 물망이 거치니까 흐끔 하민 둑국물에 그런 거. 잔칫집이 그때는 얘기덜 쳐 낭 무사 잔치집의서덜 다 해놓난. 일주일씩 잔치집의 강 먹엇 젠 허난.(우리 여기는 모자반이 거치니까 조금 하면 돼지육수에 그런 거. 잔칫집에 그때는 아기들 쳐 넣어서 왜 잔칫집에서들 다 해놓으니까. 일주일씩 잔칫집에 가서 먹었다고 하니까.)

107013 @2 그것이 무슨 국이우과?(그것이 무슨 국입니까?)

107013 #1 둑국물¹⁵⁴⁾(모자반국.)

107014 @ 여기는 봄쿡 아녜고 둑국물.(여기는 ‘봄국’ 아니고 ‘ধুকুল’.)

107014 @ 우도도 가니까 둑국물 이렇게 허더라고예? 그 다음 삼춘, 누물쿡 헐 때, 누물쿡은 어떤 식으로 끓이는 거?(우도도 가니까 ‘ধুকুল’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삼춘, 배춧국 할 때, 배춧국은 어떤 식으로 끓이는 거?)

107014 #1 누물 저 훈장 이제는 훈장도 걸르는디 그 전에는 그땐 훈장 거려다 넣 끓이민 그자 뭐 누물 놔근에 행 영 맛 뽕 싱거우민 간장.(배추 저 된장 이제는 된장도 거르는데 그 전에는 그땐 된장 떠다가 넣어서 그저 뭐 배추 넣어서 해서 이렇게 맛 봐서 싱거우면 간장.)

107014 @ 예.(예.)

107014 #1 간장도 그 훈장 그치룩 허젠 허민 간장도 많이 이실 거 아니?(간장도 그 된장 그처럼 하려고 하면 간장도 많이 있을 거 아니?)

107014 @ 음.(음.)

107014 #1 간장도 냉 간허곡 소금 냉 간 안 허여. 간장 냉 간 허여.(간장도 간장 넣어서 간하고 소금 넣어서 간 안 해. 간장 넣어서 간 해.)

107014 @1 여기는 간장이렌 헙니까? 장물이엔 헙니까?(여기는 간장이라고 합니까? ‘장물’이라고 합니까?)

107014 #1 장물.(‘장물’.)

154) ‘ধুকুল’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모자반과 무 일 등을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봄쿡’, 또는 ‘물망쿡’이라고 한다. 표준어로 바꾸면 ‘모자반국’ 정도에 해당한다.

107015 @ 장물, 제주도 말로?(‘장물’, 제주도 말로?)

107015 #2 장물.(간장.)

107015 @ 그 다음에 콩누물예, 콩누물 헙니까? 콩주름 헙니까? 여기는.(그 다음에 콩나물요, 콩나물 합니까? 콩기름 합니까? 여기는.)

107015 #1 콩누물.(콩나물.)

107015 @ 콩누물도 국 햇수가?(콩나물도 국 했습니까?)

107015 #2 아 제사 지내젠 허민 일주일 간 키워야 헐 거 아니?(아 제사 지내려고 하면 일주일 간 키워야 할 거 아니?)

107015 #1 콩 혜영 물에 담갓당 완전 그것이 이제 불면은 그거 이제 소쿠리 놔근에 물 꽉 빼주와근에 시리.(콩 해서 물에 담갔다가 완전 그것이 이제 불면 그거 이제 소쿠리 놓아서 물 꽉 빼서 시루.)

107015 @ 예.(예.)

107015 #1 옛날 시리에 시리 영 영 고망 이신디 베 험벽이나 딱하게 깔아놔근에 그 우의 콩 넣.(옛날 시루에 시루 이렇게 이렇게 구멍 있는데 베 형겼이나 딱하게 깔아놓아서 그 위에 콩 넣어서.)

107015 @ 음.(음.)

107015 #1 이만한 장탱이에 이, 이것이 장탱이면은 이 나무를 양쪽으로 인치룩 놔낳은에 그 우의 시리를 놓는 거라.(이만한 장태에 이, 이것이 장태면 이 나무를 양쪽으로 이처럼 놔놔서 그 위에 시루를 놓는 거야.)

107015 #1 시리러레 물 영 혀영 주면은 장탱이래 물이 빠질 거 아니?(시루로 물 이렇게 해서 주면 장태에 물이 빠질 거 아니?)

107015 @ 음.(음.)

107015 #1 그치룩 하명 하면은 그 그때 콩이 나근에 콩. 그 콩만 우터레 영 혀영 꽉 올라오민(그처럼 하면서 하면 그 그때 콩이 나서 콩. 그 콩만 위로 이렇게 해서 꽉 올라오면.)

107015 @ 음.(음.)

107015 #1 옛날에는 우리, 우리 친정 경우는 제사가 열두 번, 열두 번 제사하난에 동짓선들 두 달 동안에 혼 일고으답 번 제사하니까 그 조칩을 정제.(옛날에는 우리, 우리 친정 경우는 제사가 열두 번, 열두 번 제사하니까 동지선달 두 달 동안에 한 일고여덟 번 제사하니까 그 조짚을 부엌.)

107015 @ 음.(음.)

107015 #1 정제 집이 혼 칸이민 옛날엔 무사 집도 경사 짓어신디. 방 하나뺏고 안 허여. 집 혼나에 방 하나. 방 하나에서 반착 끊엉 고꽝.(부엌 집이 한 칸이면 옛날엔 왜 집도 그렇게야 지었는지. 방 하나밖에 안 해. 집 하나에 방 하나. 방 하나에서 반쪽 끊어서 고꽝.)

107015 @ 음.(음.)

107015 #1 그 다음은 마리 그 다음은 정제. 정제에 조칩 혼쪽에 이제 조칩 끌아

놔근에 그 이제 제사해 먹어난 그릇 거 메칠 이시민 또 제사할 거니까 그 우의 다
어평 놋다근에 또 제사 때 그냥 허영 쓰곡 경 혜낫어.(그 다음은 마루 그 다음은 부
엌. 부엌에 조짚 한쪽에 이제 조짚 깔아놔서 그 이제 제사해 먹었던 그릇 거 며칠
있으면 제사할 거니까 그 위에 다 엎어서 놋다가 또 제사 때 그냥 해서 쓰고 그렇
게 했었어.)

107015 @ 웃음.(웃음.)

107015 #2 콩나물은 제사 메칠 전부터 놋근에 키왕.(콩나물은 제사 며칠 전부터
놓아서 키워서.)

107015 #1 제사.(제사.)

107015 #2 일반으로 먹젠은 안 하고.(일반으로 먹으려고는 안 하고.)

107015 #1 우리, 우리 집 경우는 겨울 내낭 그 콩누물이 있어야 돼여.(우리, 우
리 집 경우는 겨울 내내 그 콩나물이 있어야 돼.)

107015 @ 음, 열두 번 허젠히면은?(음, 열두 번 하려고 하면?)

107015 #1 그치록 콩누물 있어도 밥 먹을 때 데우청 무청 먹거나는 안 하고 제
스 때만.(그처럼 콩나물 있어도 밥 먹을 때 데쳐서 무쳐서 먹지는 안 하고 제사 때
만.)

107016 @ 예, 늄삐도 국 허여마씨?(예, 무도 국 해요?)

107016 #1 으음?(으음?)

107016 @ 늄삐국?(못국?)

107016 #1 늄삐국.(못국.)

107016 #2 훈장국 허민 이제도 맛잇는디 뭐.(된장국 하면 이제도 맛있는데 뭐.)

107016 #1 늄삐국 훈장국 허민 맛사 있어신디 엊어신디 저 국엔 허난 먹어신
디.(못국 된장국 하면 맛이야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국이라고 하니까 먹었는데.)

107016 @ 음.(음.)

107016 #1 이제, 이제는 그 이제 경 행 먹젠히면 아이구, 경 허멍 헌디 옛날엔
무사 돼지고기 헨 무수만 냉 국 끌려도 그르 냉 그 국 끓리민 그치록 맛있을 수 없
는디 돼지고기 국 끓일 말 허민 에이그 경 허멍.(이제, 이제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옛날엔 왜 돼지고기 해서 무만 넣어
서 국 끓여도 가루 넣어서 그 국 끓이면 그처럼 맛있을 수 없는데 돼지고기 국 끓
일 말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107016 #2 나도 이제 옛날 거 생각하면 우리 애 엄마안티 돼지고기 냉 국 허렌
해도 안 해.(나도 이제 옛날 거 생각하면 우리 아이 엄마한테 돼지고기 냉 국 하라
고 해도 안 해.)

107016 @ 안 해?(안 해?)

107016 #2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107016 #1 돼지고기 냉 죽도 쟁 먹어낫어. 산듸쏠 냉.(돼지고기 넣어서 죽도 쟁
서 먹었었어. 밭벼쌀 넣어서.)

107017 @ 산듸쓸 넣예? 맞아예. 콩국은 하영 행 먹었지예?(밭벼쌀 넣어서요? 맞아요. 콩국은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17 #1 옛날에는 콩 무슨 기겟방, 이젠 기겟방에 강 행 하면은 해신디. 콩당가근에 물에 불콰근에.(옛날에는 콩 무슨 방앗간, 이젠 방앗간에 가서 해서 하면했는데. 콩 담가서 물에 불려서.)

107017 #2 ㅋ레로 굽어낫지양?(맷돌로 갈았었지요?)

107017 #1 ㅋ레로 방에에서 뺏는, 뺏는 것이 쉬와. ㅋ는 거는 혼 방을 두 방을 넣 영 허는디, 방에혹엔 둘리 서이 세콜방에로 막 찍으면은 혼 십 분 이십 분이민 콩 두 관뒈 그거 한 거는 굽주게. 그 굳 거그치록 문작허게 뺏아지만 그거 헤근에 이제는 뭐 쓸 놔근에 이제 죽.(맷돌로 방아에서 빻는, 빻는 것이 쉬워. 가는 거는 한 알 두 알 놓아서 이렇게 하는데, 방아화엔 둘이 셋이 '세콜방에'로 막 찍으면 한 십 분 이십 분이면 콩 두 관되 한 거는 갈지. 그 간 거처럼 미끈하게 빻아지면 그 거 해서 이제는 뭐 쌀 넣어서 이제 죽.)

107017 @ 음.(음.)

107017 #1 콩죽을 췄도 콩국을 끓이나 콩죽을 쑤나 해도 이제 그 콩국도 무수 놔근에 완전 무수가 다 익은 디 콩ㅋ르 놔근에 반죽헤근에 우터레 삭허게시리 그 무수 넣 익은 국더레 영 허영 비와놔근에 소금.(콩죽을 췄도 콩국을 끓이나 콩죽을 쑤나 해도 이제 그 콩국도 무 넣어서 완전 무가 다 익은 데 콩가루 넣어서 반죽해서 위로 삭하게끔 그 무 넣어서 익은 국으로 이렇게 해서 부어넣어서 소금.)

107017 @ 으.(으.)

107017 #1 소금을 그 우터레 영 놓면은 케어올르면은 그것이 이거 콩국이 짹 뒤집어지멍 케어.(소금을 그 위로 이렇게 넣으면 끓어오르면 그것이 이거 콩국이 짹 뒤집어지면서 끓어.)

107017 @ 아아.(아아.)

107017 #1 짹 혼쪽으로 올라오멍 그치록 아무 탈도 엇어. 익엇져 설엇져도 안 허고 영 끌영 혼불 돌면은 이것이 국이 다 웠 거라.(짬 한쪽으로 올라오면서 그처럼 아무 탈도 없어. 익었다 설었다도 안 하고 이렇게 끓여서 초벌 돌면 이것이 국이 다 된 거야.)

107017 @ 아아.(아아.)

107017 #1 경 헤근에 이거 하면은 이거 젓으믄 안 드여. 앞으로만 영 거리멍 먹어야 그 콩가루가 두부. 두부처럼 우의가 이만은 뚜끼로 딱 허게시리 그 헤영케 거더꺼정 잊이면은 그거 젓어불민 거 다 그 물 드게시리 가르륵할 건디 국 거령은에 우의 거 영 허영 두 숟가락 쯤 우에 트우민 진짜 콩국이 두부 그 헤근에 끓인 것처럼하고. 콩국도 잘 끌여야 드여. 딱 그거 한창 끓여불민 안 드여. 콩국 콩가루 헤근에 놔 놓은 다음.(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 이거 저으면 안 돼. 앞으로만 이렇게 뜨면서 먹어야 그 콩가루가 두부. 두부처럼 위가 이만한 두께로 딱 하게끔 그 하얗게 거 덮어져서 있으면 그거 저어버리면 거 다 그 물 되게끔 '가르륵'할 건데 국 떠서

위에 거 이렇게 해서 두 숟가락 쯤 위에 띄우면 진짜 콩국이 두부 그 해서 끓인 것처럼. 콩국도 잘 끓여야 되어. 막 그거 한창 끓여버리면 안 돼. 콩국 콩가루 해서 놓은 다음.)

107017 @ 짹 뒤집엉?(짬 뒤집어서?)

107017 #1 소금도, 소금도 돌소금. 훑은소금.(소금도, 소금도 돌소금. 굵은소금.)

107017 @ 음.(음.)

107017 #1 돌소금을 우터래 짹 하게 그거 이 정도 하면은 국 이제 짜고 싱거운 거를 잘 자기가 판단해근에 영 놔근에 하면 국이 우깍 쿠영 혼 번 짹 자기대로 뒤집어챙 할 때 불 끄면은 우에 완전 두부라.(돌소금을 위로 짹 하게 그거 이 정도 하면 국 이제 짜고 싱거운 것을 잘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넣어서 하면 국이 우꾼 끓어서 한번 짹 자기대로 뒤집어져서 할 때 불 끄면 위에 완전 두부야.)

107017 @ 으.(으.)

107017 #1 두부. 젓어불민 안 끓여.(두부. 저어버리면 안 돼.)

107017 @ 아아.(아아.)

107017 #1 앞으로 주근주근 거리멍 그 우의 두부 훈 거는 국그릇 하나에 그자 두 병뎅이 세 병뎅이 정도로 그 우의 혜 놓면은 완전 그 두부국처럼.(앞으로 차근차근 뜨면서 그 위에 두부 된 거는 국그릇 하나에 그저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정도로 그 위에 해 놓으면 완전 그 두붓국처럼.)

107017 @ 음.(음.)

107017 #1 앗다놓면은 먹엄직스럽게시리 그 막 끓일 때 젓어불면은 가르륵해근에 안 끓여, 그거.(갖다놓으면 먹음직스럽게끔 그 아주 끓을 때 저어버리면 주루룩 해서 안 돼, 그거.)

107018 @ 예, 예, 예. 재미진 거 하난 베왓다. 호박잎국도 하영 먹어서예, 옛날 예?(예, 예, 예. 재미진 거 하난 베웠다. 호박잎국도 많이 먹었지요? 옛날요.)

107018 #1 호박입국. 호박입은 호박입을 틈아근에 옛날엔 호박입이 베렝이 엇어나신디, 이젠 호박입에도 다 베렝이 잇어.(호박잎국. 호박잎은 호박잎을 따서 옛날엔 호박잎이 벌레가 없었었는데, 이젠 호박잎에도 벌레 있어.)

107018 @ 아.(아.)

107018 #1 호박입 부드러운 거로만 틈아다근에 앞뒤로 다 이제 이제 보명 껌데기 벗겨, 잘 벗겨지잖아. 경 벗겨근에 혜영 그 호박이파리는 인정사정엇이 막 부비멍 시쳐야 끓여.(호박잎 부드러운 거로만 따다가 앞뒤로 다 이제 이제 보면서 껌데기 벗겨서, 잘 벗겨지잖아. 그렇게 벗겨서 해서 그 호박이파리는 인정사정없이 막 비비면서 췄어야 돼.)

107018 @ 아, 인정사정엇이.(아, 인정사정없이.)

107018 #1 새파란 물이 막 나오는 정도로.(새파란 물이 막 나오는 정도로.)

107018 @1 아, 경 허는 거우꽈?(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107018 #1 경 혜영은에 막 문대경 그치룩 혜근에 물 끓어 가면은 콩 그, 춤 호

박이파리 놓 뒤 불 영 헤근에 두 불 끓이면은 가루 그거 반죽한 거 우틔레 놔근에 혜영 소금 놓 하고. 요새 다시다도 요새 다시다 국 맛이 그렇게 좋고. 그 호박이파리를 어떻게 이제 그 시치느냐에 따라서 그 호박입국¹⁵⁵⁾이 맛이 틀려.(그렇게 해서 막 짓이겨서 물 끓으면 그처럼 해서 물 끓어 가면 콩 그, 참 호박이파리 넣어서 두 어 벌 이렇게 해서 두벌 끓으면 가루 그 반죽한 거 위로 넣어서 해서 소금 넣어서 하고. 요새 다시다도 요새 다시다 국 맛이 그렇게 좋고. 그 호박이파리를 어떻게 이제 그 셋느냐에 따라서 그 호박잎국이 맛이 달라.)

107018 @ 아아.(아아.)

107018 #1 호박이파리를 졸바로 잘 문짝하게 아니 뺄앗당은 꺼끄렁하고 호박이파리를 생각 엇이 부벼근에 국을 끌여야만이 그 호박이파리국¹⁵⁶⁾이 완전 민작허곡 저 호박 가을 냄새가. 가을에, 가을에부떠. 계난 우리 아덜이 이제 서울 사는디, 가을 끓여면은 나영 살멍 콩, 그런 국을 많이 호박이파리국 바다에 가민 넓페.(호박이파리를 제대로 잘 반드시 아니 뺄았다가는 껴끌꺼끌하고 호박이파리를 생각 없이 비벼서 국을 끓여야만 그 호박이파리국이 완전 반드시 저 호박 가을 냄새가. 가을에, 가을에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 사는데, 가을 되면 나랑 살면서 도 콩, 그런 국을 많이 ‘호박이파리국’ 바다에 가면 넓페.)

107018 @ 예.(예.)

107018 #1 넓페엔 헌 거 알아겸서?(넓페라고 한 거 알겠어?)

107018 @ 예.(예.)

107023 #1 에 국 끌여근에 먹어나니까 그 넓페에 국 혜영 보내줄 수 엇수과? 호박이파리에 호박입국 혜영 보내줄 수 엇수가? 허면은 호박입국 혜근에 다 그 저 비니루에 그 하얀 일회용 그것에 다 담당 혜영은에 냉동혜근에.(에 국 끓여서 먹었으니까 그 넓페에 국 해서 보내줄 수 없습니까? 호박이파리에 호박잎국 해서 보내줄 수 없습니까? 하면 호박잎국 해서 다 그 저 비닐에 그 하얀 일회용 그것에 다 담아서 해서 냉동해서.)

107023 @ 경 행 보냄수가?(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107023 #1 경 혜영 아덜안티 다 보내곡, 넓페도 혜당 국 끓영은에 냉동혜근에 보내곡 경.(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다 보내고, 넓페도 해다가 국 끓여서 냉동해서 보내고 그렇게.)

107023 @ 넓페국 끓여봅서?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넓페.(넓페국 끓여보십시오?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23 #1 넓페, 넓페국이 맛잇주게. 넓페 바당에 강 보민 납작납작한 거. 페, 페는 웬디 영 납작납작한 것이 있어이. 그런 것만 넓페 트명에 그건 영 영 있어. 게믄 그거 영 영 혜다근에 그거는 숫기 전에 막 바당에서 영 홈텡이에 놔근에 막 망겨근에 그것이 흐꼼 풀죽게시리 링경, 그 넓페도 영 보기에는 깨끗한 거 닮아도 비

155) ‘호박잎국’은 호박잎에 가루를 함께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156) 제보자 고옥년은 ‘호박잎국’을 달리 ‘호박이파리국’이라고도 하였다.

비면은 거 다 막 굿인물이 막 나와.(넓페, 넓페국이 맛있지. 넓페 바다에 가서 보면 납작납작한 거. 페, 페는 팬데 이렇게 납작납작한 것이 있어. 그런 것만 넓페 틈에 그건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그거는 삶기 전에 막 바다에서 이렇게 흠에 놔서 막 뭉개서 그것이 조금 풀죽게끔 뭉개서, 넓페도 이렇게 보기에는 깨끗한 거 같아도 비비면 거 다 아주 구정물이 막 나와.)

107023 @ 음 음.(음 음.)

107023 #1 그디 바다에.(거기 바다에.)

107023 @ 계속 잇는 거난예? 예.(계속 있는 거니까요? 예.)

107023 #1 으, 그 굿인물 나왕 그 판씩 짖어근에 이제 물 어느 정도 놔근에 숟는 거라.(으, 그 구정물 나와서 그 깨끗이 씻어서 이제 물 어느 정도 놔서 삶는 거야.)

107023 @ 음.(음.)

107023 #1 넓페만 냉.(넓페만 넣어서.)

107023 @ 아, 넓페만 냉 숟는구나.(아, 넓페만 넣어서 삶는구나.)

107023 #1 넓페만 냉 삶아근에 서너 불 켜여근에 그냥 불 껏다근에 혼 삼십 분잇당 가보민 넓페가 문작허게.(넓페만 넣어서 삶아서 서너 별 끓어서 그냥 불 껏다가 한 삼십 분 있다가 가보면 넓페가 반드시.)

107023 @ 음, 숟아정?(음, 삶아져서?)

107023 # 끓여정 잇는 거라. 숟양. 숟아정 이신 거라. 경 허면은 옛날에는 그 넓페를 이제는 넓페 씨가 이젠 오염뒈고 뭐 하니까 얼마 안 나근에 저 국 끓일 것도 그 어렵는디, 옛날엔 그것이 오염 없고 하니까 막 너풀너풀해영 허민 그거 두말떼기¹⁵⁷⁾로 하나 숟양 그거 허영 막 밥도 비병 먹고 문작허난.(끓여져 있는 거야. 삶아서. 삶아져서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 넓페를 이제는 넓페 씨가 이젠 오염되고 뭐 하니까 얼마 안 나서 국 끓일 것도 그 어렵는데, 옛날에 그것이 오염 없고 하니까 아주 너풀너풀해서 하면 그거 ‘두말떼기’로 하나 삶아서 그거 해서 막 밥도 비벼서 먹고 반드시우니까.)

107023 #2 동네 다 나누고.(동네 다 나누고.)

107023 #1 반찬으로 막 맛있어. 간장 쪼끔 놓고 그 넓페 놓곡 허영 밥 막 부벼먹고 옛날에 경 헤신디. 그 넓페를 문작하게 숟아근에 요만한 그것에 맞게끔. 너무 하영 놓지 말양 적당하게 놔근에 끓이면은 뭐 다시다 쪼꼼 놓고, 무멀가루 그거 영 반죽허영 살하게 우터레 냉. 그거는 넓페국은 저어도 훼고. 경 헤근에 드릇마늘.(반찬으로 아주 맛있어. 간장 조금 넣고 그 넓페 넣고 해서 밥 막 비벼먹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 넓페를 반드시 삶아서 요만한 그것에 맞게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하게 넣어서 끓으면 뭐 다시다 조금 넣고, 메밀가루 그거 이렇게 반죽해서 살하게 위로 넣어서. 그거는 넓페국은 저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달래.)

107023 @ 예. 달래.(예, 달래.)

157) ‘두말떼기’는 두 말어치의 쌀이 드는 술을 말한다.

107023 #1 그거 썰어근에 놔근에 행 먹으면은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엇어.(그거 썰어서 놔서 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107023 @ 넙꽤, 드릇마농 냉예? 어어.(넙꽤, 달래 넣어서요? 어어.)

107023 #1 드릇마늘 놔야만 맛잇어.(달래 놔야만 맛있어.)

107023 @ 간은 계믄 뭘로 헤마씨?(간은 그러면 뭐로 해요?)

107023 #1 간은 계난 그 넙폐가 바당 거난 짜주게.(간은 그러니까 그 넙폐가 바다 거니까 짜지.)

107023 @ 예.(예.)

107023 #1 짜난에 쪼끔 소금 쪼끔만 놔도 간이 트여.(짜니까 조금 소금 조금만 놔도 간이 되어.)

107023 @ 아아.(아아.)

107023 #1 거는 간장으로 간허민 맛엇어. 거는 바당에 그 소금 그것이 있기 때문에.(거는 간장으로 간하면 맛없어. 거는 바다에 구 소금 그것이 있기 때문에.)

107023 @ 음.(음.)

107023 #1 소금으로 영 허영 간하면은 그 맞좌근에.(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간하면 그 맞춰서.)

107020 @ 헌덴 현 말은 들었수다마는 그치록 허영은에 현 건 또 안 먹어봤네 이. 그 다음에 여기는 생선이 납니까?(한다고 한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처럼 해서 한 거는 또 안 먹어봤네. 그 다음에 여기는 옥돔이 납니까?)

107020 #1 생선.(옥돔.)

107020 @ 옥돔을 이 동네서는 무신거렌 불릅니까?(옥돔을 이 동네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07020 #1 솔레기.(‘솔레기’.)

107020 @ 솔레기. 솔레기국은 언제 허영 먹어?(옥돔. 옥돔국은 언제 해서 먹어?)

107020 #1 솔레기국은 가을에서부터 이때까지.(옥돔국은 가을에서부터 이때까지.)

107020 @ 이때.(이때.)

107020 #2 지금 이후로는 솔레국이 맛이 엇어. 건 겨울에. 늦은가을부터 한겨울 그 때가 젤 맛잇을 때고.(지금 이후로는 옥돔국이 맛이 없어. 건 겨울에. 늦가을부터 한겨울 그 때가 젤 맛잇을 때고.)

107020 #2 이제부터는 문독내¹⁵⁸⁾ 나가지고.(이제부터는 ‘문독내’ 나가지고.)

107020 @ 문독내?(‘문독내’?)

107020 #2 식당에 가더라고 솔레기국덜 안 먹어.(식당에 가더라고 옥돔국들 안 먹어.)

107020 #1 이제부떠는 안 먹어.(이제부터는 안 먹어.)

158) ‘문독내’는 여름철, 옥돔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를 말한다.

107020 @ 솔레기국은 어떤 식으로 허여?(옥돔국은 어떤 식으로 해?)

107020 #1 솔레기국은 간단히여. 솔레기국은 뭐 주로 누물은 안 허고 무수하고 미역. 무수하고 미역인디 물 식을 때 놓면은 솔레기가 다 잘 헤싸지기 때문에 물 끓여근에 솔레기 놔근에 이제 끓이면은 한 번 끓이민 솔레기도 다 익주게. 토막토막 행은에 하니까. 경 혜난 다음에 무수 익으면은 뭐 그 파여 그런 거 안 놔도 기자 간만 행 먹어도. 다시다 옛날에는 다시다 엇이 그냥 햇주마는 요즘에는 다시다 쪽끔 놔야주, 경 아녀민.(옥돔국은 간단해. 옥돔국은 뭐 주로 배추는 안 하고 무하고 미역. 무하고 미역인데 물 식을 때 놓으면 옥돔이 다 잘 물러지기 때문에 물 끓여서 옥돔 넣어서 이제 끓으면 한 번 끓으면 옥돔도 다 익지. 토막토막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무 익으면 뭐 그 파다 그런 거 안 놔도 그저 간만 해서 먹어도. 다시다 옛날에는 다시다 없이 그냥 했지만 요즘에는 다시다 조금 놔야지, 그렇게 않으면.)

107020 #2 옛날부터 그 저 솔레기국은 주로 제사 때 쟁국으로.(옛날부터 그 저 옥돔국은 주로 제사 때 쟁으로.)

107020 @ 쟁국으로 음?(쟁으로 음?)

107020 #2 쟁국 허면 무수 놔근에 허면 맛있어.(쟁 하면 무 넣어서 하면 맛있어.)

107020 #1 옛날에 솔레기도 하영 안 낫주게. 풍선 혜근에 그 뜻 돌아근에 솔레기란 그거는 기쁜 바당에만 하기 때문에 완전 멀리 가사 솔레기를 잡양 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기예보도 엇고 무시것도 엇이난 갓당 태풍 불영 배 사람 죽어근에 배도 흔적 없고 사람도 흔적 엇일 때가 천지만지고.(옛날에 옥돔도 많이 안 났지. 풍선 해서 그 뜻 달아서 옥돔이란 그거는 깊은 바다에만 하기 때문에 완전 멀리 가야 옥돔을 잡아서 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기예보도 없고 무엇도 없으니까 갔다가 태풍 불어서 배 사람 죽어서 배도 흔적 없고 사람도 흔적 없을 때가 천지만지고.)

107021 @ 음.(음.)

107021 #1 하니까 솔레기를 귀혜근에 잘 안 헤와신디. 이제는 뭐 무슨 일기예보 있고 뭐 배 그거 기계, 그거로 하니까 뭐 그날 아침에 가근에 그 먼 디라도 가근에 혜근에 저녁 때 뛰믄 다 들어오니까.(하니까 옥돔을 귀해서 잘 안 해왔는데. 이제는 뭐 무슨 일기예보 있고 뭐 배 그거 기계, 그거로 하니까 뭐 그날 아침에 가서 그 먼 데라도 가서 해서 저녁 때 되면 다 들어오니까.)

107021 @ 음, 경 혜근에 솔레기국 이제 허고. 메역국은 메역만 낭도 국 혜마씨?(음, 그렇게 해서 옥돔국 이제 하고. 미역국은 미역만 넣어서도 국 해요?)

107021 #1 메역만 낭도 국 허주. 메역하고 참기름 놔근에 영 영 영 뾰끄다근에 어느 정도 보까지걸랑 물 놔근에 혜영 뭐 끓여지면 간혜근에.(미역만 넣어서도 국 하지. 미역하고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볶다가 어느 정도 볶아지거든 물 넣어서 해서 뭐 끓여지면 간해서.)

107021 @ 간은 무신거?(간은 무엇?)

107021 #1 뭐 그 미역국은 간장 놔야주게. 조선간장.(뭐 그 미역국은 간장 놔야지. 조선간장.)

107021 @ 아, 메역국은 조선간장 놓는 거구나. 계난 국 종류에 따라서 간하는 게 트나다예? 음.(아, 미역국은 조선간장 넣는 거구나. 그러니까 국 종류에 따라서 간하는 게 다르네요? 음.)

107021 #1 바다에 거 그런 거 허영 할 때는 소금 넣고.(바다에 거 그런 거 해서 할 때는 소금 넣어서 간하고.)

107022 @ 음, 냉국들도 하영 행 먹어서예? 옛날은예. 냉국은 뭘로 협니까?(음, 냉국들도 많이 해서 먹었지요? 옛날은요. 냉국은 뭐로 합니까?)

107022 #1 냉국엔 현 거는 누물하고 미역뺏고 안 끓여.(냉국이라고 한 거는 배추하고 미역밖에 안 되어.)

107022 @ 아아.(아아.)

107022 #1 누물은 그자 그자 누물 그냥.(배추는 그저 그저 배추 그냥.)

107022 #2 웨, 웨. 웨냉국.(외, 외. 외냉국.)

107022 #1 웨냉국. 오이로는 냉국 안 협디다양? 오이로는 아녀고 웨.(외냉국. 오이로는 냉국 안 합디다? 오이로는 않고 외.)

107022 @ 웨.(외.)

107022 #2 물웨.(물외.)

107022 #1 물웨해근에 웬장. 이제는 웬장도 다 걸러근에 하는디 옛날은 그대로 웬장 먹어야 건강한텐 허멍 웬장 병뎅이도 그냥 먹으렌 막.(물외해서 된장. 이제는 된장도 다 걸러서 하는데 옛날은 그대로 된장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면서 된장 덩어리도 그냥 먹으라고 막.)

107022 #2 물웨 막 심어서 그 저 원두막 짓영 허는 하르방 보고 무신거엔 굽아 낫지마는.(물외 막 심어서 그 저 원두막 지어서 하는 할아버지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었다만.)

107022 #1 건 옛날 그 우리 표선리 천도, 천도 하르방이.(건 옛날 그 우리 표선리 천도, 천도 할아버지가.)

107022 #2 천도 하르방.(천도 할아버지.)

107022 #1 천도 하르방이 그.(천도 할아버지가 그.)

107022 #2 그 원두막 이름이 무신거여마는.(그 원두막 이름이 무엇이다만.)

107022 #1 원두막에 살멍.(원두막에 살면서.)

107022 @ 하르방 불르는 이름도 잊어나수가?(할아버지 부르는 이름도 있었습니까?)

107022 #1 천두 하르방.(천두 할아버지.)

107022 #2 이름이 천둔데.(이름이 천둔데.)

107022 #1 보리 아경강 바꽈오곡.(보리 가져가서 바꿔오고.)

107022 #2 보리 아경가곡 돈 아경가곡 허면은 그것에 맞춰서 스뭇 구덕으로 숨

빡 하나씩 다 주고.(보리 가져가고 돈 가져가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사뭇 바구니로 가득 하나씩 다 주고.)

107023 @ 음, 경 허영은에 물웨냉국 허는데, 냉국 헐 때 뭐 저기 초도 놔?(음, 그렇게 해서 물외냉국 하는데, 냉국 할 때 뭐 저기 초도 놔?)

107023 #1 으, 냉국 헐 때는 초 놔야 뤄. 식초.(으, 냉국 할 때는 초 넣어야 뤄. 식초.)

107023 @ 식초를.(식초를.)

107023 #1 경혜사 씨원허여.(그렇게 해야 시원해.)

107023 @ 음.(음.)

107023 #1 누물도.(배추도.)

107023 @ 예.(예.)

107023 #1 삶아, 숟아근에 숟은 누물 썰어넣 냉국 허고, 것도 된장 행 해도 식초 놔야 뤄고 간장 행 해도 식초 놔야 뤄여.(삶아서, 삶아서 삶은 배추 썰어넣어서 냉국 하고, 것도 된장 해서 해도 식초 놔야 되고 간장 해서 해도 식초 놔야 되어.)

107023 @ 톨로도 냉국 안 헙니까?(톳으로도 냉국 안 합니까?)

107023 #1 톨은 톨만 무청.(톳은 톳만 무쳐서.)

107023 #2 톨국엔은 안 허곡 톨채¹⁵⁹⁾, 톨채.(톳국이라고는 안 하고 ‘톨채’, ‘톨채’.)

107023 #1 톨채 ㅎ꼼 컬컬하게 뭐 새콤달콤하게 배, 배도 썰어 놓곡 오이도 썰어 놓곡 경 행 건 뭐. 그렇게 하면은 완전 뭐?(‘톨채’ 조금 컬컬하게 뭐 새콤달콤하게 배, 배도 썰어 넣고 오이도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건 뭐. 그렇게 하면 완전 뭐?)

107023 #2 톨국이엔은 안 굳고 톨채.(‘톳국’이라고는 안 말하고 ‘톨채’.)

107023 @ 톨채 아(‘톨채’ 아.)

107023 #2 톨채 국물 등당허민 들이싸면은 그것이 국이 뤄는 거난에.(‘톨채’ 국물 흥건하면 들이켜면 그것이 국이 되는 거니까.)

107023 @ 그걸 톨채렌 혜예? 계난 톨만 무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국물도 놔.(그걸 ‘톨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톳만 무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국물도 놔.)

107023 #1 어느 정도.(어느 정도.)

107023 @ 예.(예.)

107023 #1 짐박짐박허게시리 국거치룩은 아니고 ㅎ꼼 짐박짐박허게 큰일 때 톨채 하는디 국은 국대로 허곡 톨채는 그 요만한 것에 뜻로 영 혜근에 반찬으로 놓는디 ㅎ꼼 물 짐박짐박 물 말르게 말고.(자박자박하게끔 국같이 아니고 조금 자박자박하게 큰일 때 ‘톨채’ 하는데 국은 국대로 하고 ‘톨채’는 그 요만한 것에 따로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놓는데 조금 물 자박자박 물 마르게 말고.)

107023 @ 음.(음.)

159) ‘톨채’는 톳을 물기가 있게 해서 된장 따위로 무친 음식을 말한다.

107023 #1 짐꽉짐꽉하게 놔근에 국물도 거령 먹을 수 있고 톳도 거령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자박자박하게 놔서 국물도 떠서 먹을 수 있고 톳도 떠서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107023 @2 거기는 물 하영 놓민 틀냉국 아니마씨?(거기는 물 많이 넣으면 ‘톳냉국’ 아니예요?)

107023 @ 여기는 아니.(여기는 아니.)

107023 #1 게나제나 물 하영 놔도 틀채.(그러나저러나 물 많이 넣어도 ‘틀채’.)

107023 @ 계난 제주도는 넓어양? 시에는 틀채렌 말 안 허거든.(그러니까 제주도는 넓지요? 시에는 ‘틀채’라는 말 안 하거든.)

107023 #1 무시건엔 글아?(무엇이라고 말해?)

107023 @ 틀무침허고 틀냉국.(‘톳무침’하고 ‘톳냉국’.)

107023 #1 틀채만 혜여.(‘틀채’만 해.)

107023 @ 여기는 틀채예?(여기는 ‘틀채’요?)

107023 #1 틀 혜영 냉국 혜영 먹는 거는 냉국 틀 혜영 냉국 행 먹게는 안 혜여. 틀 무청 먹게. 틀 혜영 먹게 영 혜영 허주.(톳 해서 냉국 해서 먹는 거는 냉국 톳 해서 냉국 해서 먹게는 안 해. 톳 무쳐서 먹자. 톳 해서 먹자 이렇게 해서 하지.)

107023 @ 삼춘, 여기 성계를 이 여기선 뭐렌 글아?(삼춘, 여기 성계를 이 여기선 뭐라고 말해?)

107023 #1 여기도 성계.(여기도 성계.)

107023 @ 귀?(‘귀’?)

107023 #1 귀, 귀.(‘귀’, 성계.)

107023 #2 귀, 솜,(성계, 말뚱성계,)

107023 #1 그 까근에 열매 잇인 거는 성계엔 허고 까지 아녕 막 잇일 땐 귀.(그 까서 여물 있는 거는 성계라고 하고 까지 않고 막 있을 땐 ‘귀’.)

107023 @ 알은 성계렌 허고.(알은 성계라고 하고.)

107023 #1 알은 성계엔 허곡 까지 아녕 귀 가시가 부떠 잇인 거는 귀. 그거보다 족게 혜근에 요만씩 요만씩 가시 찍깍하게 현 건 솜.(알은 성계라고 하고 까지 않아서 ‘귀’ 가시가 붙어 있는 거는 ‘귀’. 그거보다 적게 해서 요만씩 요만씩 가시 빽빽하게 한 건 말뚱성계.)

107023 @ 으 솜. 그걸로는 국 안 합니까?(으 말뚱성계. 그거로는 국 안 합니까?)

107023 #1 거 국 허민 맛잇주.(거 국 하면 맛있지.)

107023 #2 저베기도 행 먹곡.(수제비도 해서 먹고.)

107023 @ 거 넝 저베기도 혜영 먹어마씨? 건 어떤 식으로 행 먹는 거라?(거 넝 어서 수제비 해서 먹어요? 건 어떤 식으로 해서 먹는 거라?)

107023 #1 저베기는 그거 혜근에 뭐 하이튼 간에 밀끄르 혜영 저베기 그거 밀 어근에 영 영 끊어 놓는 것도 잇고, 뭐 반죽혜근에 물 끊이민 그자 그레 넝 숟가락

으로 다 저베기만씩 짓아근에 행 다 헤지민 성게. 그거 영 헤근에 그것에 따랑 국자로 하나 놔근에 젓을 때 잊고 반 넣 젓을 때 잊고. 경 허민 거 성게.(수제비는 그거 해서 하여튼 간에 밀가루 해서 수제비 그거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끓어 놓는 것도 있고, 뭐 반죽해서 물 끓으면 그저 그리로 넣어서 숟가락으로 다 수제비만큼씩 쪼아서 해서 다 풀어지면 성게. 그거 이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국자로 하나 놔서 저을 때 있고 반 넣어서 저을 때 있고. 그렇게 하면 거 성게.)

107023 @ 아, 그러면 물 해갖고 끓영은에 다 익을 때 성게를 놓는 거라예?(아, 그러면 물 해갖고 끓어서 다 익을 때 성게를 넣는 거라고요?)

107023 #1 응.(응.)

107023 @ 먼저 끓영 허는 거 아니? 아, 우리 집에는 음식을 잘못 험신개개.(먼저 끓여서 하는 거 아니? 아, 우리 집에는 음식을 잘못 하고 있는데.)

107023 #1 성게, 성게 모녀 놔근에 끓이면은 이 성게가 솟바위¹⁶⁰⁾에 다 묻어벼근에 그디 얼마 엇어.(성게, 성게 먼저 놔서 끓이면 이 성게가 솥 가장자리에 다 묻어버려서 거기 얼마 없어.)

107023 @ 아, 우리 집에 경 헤마씨.(아, 우리 집에 그렇게 해요.)

107023 #1 경 허난에 성게는 완전 다 헤놓은 다음에 젤 막끗데 놔근에 혼번 짹끓이면 성게는.(그렇게 하니까 성게는 완전 다 해놓은 다음에 젤 마지막에 넣어서 한번 짹 끓으면 성게는.)

107023 #2 토실토실헌 게.(토실토실헌 게.)

107023 @ 게믄 우리 집에 토실토실헌 적이 엇어. 암만 하영 놔도예 성게가 어디 가신지 몰라.(그러면 우리 집에 토실토실헌 적이 없어. 암만 많이 넣어도요 성게가 어디 갔는지 몰라.)

107023 #1 솟바위에 다 부떠베근에.(솥 가장자리에 다 붙어버려서.)

107023 @ 아, 기구나. 거꿀로 강. 우리 어머니한테 글아줘야 훨 판이구나.(아, 그렇구나. 거꾸로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말해줘야 할 판이구나.)

107023 #1 젤 막끗데 넣 젓으면이 성기 냄새 솜 냄새가 시원한 맛이 나.(젤 마지막에 넣어서 저으면 성게 냄새 말뚱성게 냄새가 시원한 맛이 나.)

107023 @ 보멀? 여기 ㅋ메기?(‘보멀’? 여기 ‘ㅋ메기’?)

107023 #1 보말.(고등.)

107023 @ 보말. ㅋ메기예? ㅋ메기국도 해?(고등. ‘ㅋ메기’요? 고등국도 해?).

107023 #1 춤 ㅋ메기.(개울타리고등.)

107023 @ 춤 ㅋ메기? 건 어떤 식으로 헛니까? 춤 ㅋ메기?(개울타리고등.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울타리고등?)

107023 #1 그거는 보말 춤 ㅋ메기는 막 쓰고.(그거는 고등 개울타리고등은 아주 쓰고.)

107023 @ 으.(으.)

160) ‘솟바위’는 솥의 운두 위쪽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107023 #1 거 바둑¹⁶¹⁾이 딴딴한 거.(거 ‘바둑’이 딴딴한 거.)

107023 #2 그거 문두데기.(그거 눈알고등.)

107023 #1 문두닥지.(눈알고등.)

107023 @ 문두닥지. 지난번에 생각 안 난 거예?(눈알고등. 지난번에 생각 안 난 거요?)

107023 #2 문두닥지. 나 간 노인덜안티 물어보난 문두닥지엔 글안게.(눈알고등. 나 가서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문두닥지’라고 말하던데.)

107023 @ 웃음.(웃음.)

107023 #2 나보다 우의 할머니안티 물으난 거 문두닥지 아냐 쁔길래.(나보다 위에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거 ‘문두닥지 아냐’ 말하기에.)

107023 #2 건 써.(건 써.)

107023 @ 써?(써?)

107023 #1 그거하고 마타살하고는 국 끓여 먹지 아녜고 주로 국 끓이는 디 보말하고 춤^ㅋ메기 그거 허영 국 끓이는디 그 ^ㅋ메기는.(그거하고 두드려고등하고는 국 끓여서 먹지 않고 주로 국 끓이는 데 고등하고 개울타리고등 그거 해서 국 끓이는데 그 고등은.)

107023 @ 으.(으.)

107023 #1 미역을 놔근에 끓인덴 하면 미역하고 ^ㅋ메기하고 막 손으로 문질러 근에.(미역을 놔서 끓인다고 하면 미역하고 고등하고 막 손으로 문질러서.)

107023 @ 예.(예.)

107023 #1 그 보말 그거 똥이 다 헤싸져야 그 국물이 나.(그 고등 그거 똥이 다 으깨져야 그 국물이 나.)

107023 @ 아.(아.)

107023 #1 그냥 놓 오골오골 그자 잇엉은.(그냥 넣어서 오골오골 그저 있어서 는.)

107023 @ 안 웨는 거?(안 되는 거?)

107023 #1 맛이 없어.(맛이 없어.)

107023 @ 음, 메역이랑 ^ㅋ치 놓예?(음, 미역이랑 같이 넣어서요?)

107023 #1 경도 하곡. 우리 어머니네 영 허는 거 보면, 보말만 놔근에 막 꿔여 근에 이제 물 놔근에 영 영 일어근에.(그렇게도 하고. 우리 어머니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고등만 넣어서 막 주물러서 이제 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

107023 @ 음.(음.)

107023 #1 그 보말, 보말 그 모래덜이.(그 고등, 고등 그 모래들이.)

107023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23 #1 모래덜 먹으니까 그 막 꿔여근에 창지에 모래 없애기 위해서 막 끓 영 이제 걸 꿔여근에 물 놔근에 영 영 영 일영 하면은 모살이.(모래들 먹으니까 그

161) 여기에서 ‘바둑’은 고등의 뚜껑을 제보자가 일컫는 말이다.

막 주물러서 창자에 모래 없애기 위해서 막 끓여서 이제 걸 주물러서 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 하면 모래가.)

107023 @ 음.(음.)

107023 #1 모살은 그거 무거우니까 나오지 아녕 그것만 일어근에 이젠 우리말로 일영 경 혜근에 그거 가경 미역 냉 국 끓령. 이젠 물 냉 경 혜근에 그거 그 보말 주로 미역으로.(모래가 그거 무거우니까 나오지 않고 그것만 일어서 이젠 우리말로 일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 가져서 미역 넣어서 국 끓여서. 이젠 물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 그 고등 주로 미역으로.)

107023 @ 주로 미역으로예? 삼춘, 혹시 가시리도 국 끓령 먹어낫수가?(주로 미역으로요? 삼춘, 혹시 풀가사리도 국 끓여서 먹었었습니까?)

107023 #1 옛날에 가시리 국 끓령 먹어낫주게. 가시리가 국 끓리민 풀풀허게 맛은 잊어.(옛날에 풀가사리도 국 끓여서 먹었었지. 풀가사리가 국 끓이면 풀풀하게 맛은 있어.)

107023 @ 음, 것도 뭘로 간장 뿐장?(음, 것도 뭐로 간장 된장?)

107023 #1 가시리 경우는 소금으로 해도 됨도.(풀가사리 경우는 소금으로 해도 되어도.)

107023 #2 가시리는 주로 도배하는데 써낫지양?(풀가사리는 주로 도배하는데 썼었지요?)

107023 #1 풀, 풀.(풀, 풀.)

107023 @ 국도. 푸레도 여기 나?(국도. 파래도 여기 나?)

107023 #1 푸레도 나. 푸레 나도 푸레도 먹을 걸로 해당 먹지 아녀.(파래도 나. 파래 나도 파래도 먹을 걸로 해다가 먹지 않아.)

107023 @ 푸랫국 여기는 안 행 먹어낫수가?(파랫국 여기는 안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23 #1 김델 허영 사당 먹어도. 바당에 푸레 시퍼렇게 잊어도 거 안 해와.(김들 해서 사다가 먹어도. 바다에 파래 시퍼렇게 있어도 거 안 해와.)

107023 @ 아아, 옛날에도 음.(아아, 옛날에도 음.)

107023 #1 그거는 해당근에 옛날에 밀그르 웃고 무시거 할 때 말렸당 풀 쬐근에 방 불를 때 풀, 풀 사용으로.(그거는 해다가 옛날에 밀가루 없고 무엇 할 때 말렸다가 풀 쬐서 방 바를 때 풀, 풀 사용으로.)

107023 @ 푸레도?(파래도?)

107023 #1 푸레 가시리하고 것그란 가시새¹⁶²⁾엔 허주게.(파래 풀가사리하고 것 보고는 ‘가시새’라고 하지.)

107023 @ 예.(예.)

107023 #1 푸레 거.(파래 거.)

107023 @ 가시새가. 푸레도 촘푸레도 잊고 기냥 개퍼래 큰 것도 잊잖아예? 가

162) ‘가시새’는 바다풀의 일종이다. 풀가사리 일종이다.

시새가 어떤 거가 가시새우과? ('가시새'가. 파래도 '참파래'도 있고 그냥 '개파래' 큰 것도 있잖아요? '가시새'가 어떤 것이 '가시새'입니까?)

107023 #1 가시새엔 헌 건이 그 이제 가시리 닮으면서 흐끔 같은 색깔인디 영 포기지듯한 그 색깔은 그 같은 색깔인디 포기지듯해근에 흐끔 더박더박하고. ('가시새'라고 한 건이 그 이제 풀가사리 닮으면서 조금 같은 색깔인데 이렇게 '포기지듯한' 그 색깔은 그 같은 색깔인데 포기지듯해서 조금 다박다박하고.)

107023 @ 음.(음.)

107023 #1 가시새는 막 그 돌에 딱 부떠근에 요 정도밖에 안 크주게. ('가시새'는 막 그 돌에 딱 붙어서 요 정도밖에 안 크지.)

107023 @ 음.(음.)

107023 #1 하나 웨로.(하나 외로.)

107023 @ 으음.(으음.)

107023 #1 가시새는. ('가시새'는.)

107023 @ 조짝허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구나. 발 멧 개 행은에 돌에 부명은에.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구나. 발 몇 개 해서 돌에 붙어서.)

107023 #1 돌에 부떠근에.(돌에 붙어서.)

107023 @ 것도 가시리 종류라예?(것도 풀가사리 종류지요?)

107023 #1 계난 가시새, 가시새 종류는 이제 요만씩 크는디 가지가 영 영 돋으명 요 정도 크곡.(그러니까 '가시새', '가시새' 종류는 이제 요만씩 크는데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돋으면서 요 정도 크고.)

107023 @ 음.(음.)

107023 #1 젠디 건 매기도 좋아.(그런데 건 매기도 좋아.)

107023 @ 예.(예.)

107023 #1 경 헌디 것도 풀용으로 쓰곡. 가시리도 가시리는 요만씩 헤근에 돌에 딱 부명 완전 그거 매지 못혜연 꺼끄먹 껍데기 가견에 간 박박 긁어낫어.(그렇게 하는데 것도 풀용으로 쓰고. 풀가사리도 풀가사리는 요만씩 해서 돌에 딱 붙어서 완전 그거 매지 못해서 전복 새끼 껍데기 가져서 가서 박박 긁었었어.)

107023 @ 음.(음.)

107023 #1 돌에.(돌에.)

107023 @ 걸로 풀 허는 거예? 가시새.(걸로 풀 하는 거요? '가시새'.)

107023 #1 건 풀.(건 풀.)

107023 @ 여기 물훼는 주로 아까 이제 냉국 말고 물훼예, 물훼는 어떤 거 놓행 먹어?(여기 물회는 주로 아까 이제 냉국 말고 물회요, 물회는 어떤 거 놓 해서 먹어?)

107023 #2 옛날에 물훼는 비께. 비께.(옛날에 물회는 두텁상어. 두텁상어.)

107023 @ 비께. 어.(두텁상어. 어.)

107023 #2 요즘은 고등어다 뭐 먹었는데 그때는 안 먹었어. 비께나 상어나.(요즘

은 고등어다 뭐 먹었는데 그때는 안 먹었어. 두툼상어나 상어나.)

107023 @ 비께는 우리 표준어로 뭐우과?('비께'는 우리 표준어로 뽑니까?)

107023 #1 비께. 그자 비께엔 헤낫어. 비께.(두툼상어. 그저 두툼상어라고만 했었어. 두툼상어.)

107023 #2 그때가 비께고 이제 표준어는 상어. 뿐상어라고 하는가. 입이 이렇게 크고. 건데 굉장히 순혜여.(그때가 두툼상어고 이제 표준어는 상어. 뿐상어라고 하는가. 입이 이렇게 크고. 그런데 굉장히 순해.)

107023 @ 음.(음.)

107023 #1 해녀덜도 다 쏘앙 나고.(해녀들도 다 쏘아서 나고.)

107023 @ 요즘 상어가 잘 안 잡혀예? 그거는.(요즘 상어가 잘 안 잡히지요? 그거는.)

107023 #2 이젠 비께는 씨전.(이젠 두툼상어는 씨졌어.)

죽류

107024 @ 삼춘, 그거는 그 국이고 죽 같은 거는 어떤 거 헤마씨? 죽?(삼춘, 그거는 그 국이고 죽 같은 거는 어떤 거 해요? 죽?)

107024 #1 죽은 뭐?(죽은 뭐?)

107024 #2 바닷고기 냉 죽 쑤는 거?(바닷고기 넣어서 죽 쑤는 거?)

107024 @ 아니, 그냥 일반 죽의 종류?(아니, 그냥 일반 죽의 종류?)

107024 #1 죽에 종류 팟죽.(죽의 종류 팟죽.)

107024 @ 예.(예.)

107024 #1 팟죽, 콩죽.(팥죽, 콩죽.)

107024 #2 콩죽.(콩죽.)

107024 @ 예.(예.)

107024 #2 모멸죽.(메밀죽.)

107024 #1 모멸꼴로 죽 췄 먹고. 쌀로 냉 죽 췄 먹을 수가 있주.(메밀쌀로 죽 췄 먹고. 쌀로 넣어서 죽 췄 먹을 수가 있지.)

107024 #2 쌀로 논 거 흰죽.(쌀로 논 거 흰죽.)

107024 @ 흰죽 협니까? 곤죽 협니까?(흰죽 합니까? '곤죽' 합니까?)

107024 #2 곤죽.('곤죽').

107025 @ 곤죽 한번 췄봄서? 곤죽은 어떤 식으로 쑤는 거우과?(흰죽 한번 췄보십시오? 흰죽은 어떤 식으로 쑤는 겁니까?)

107025 #1 곤죽 그거 쌀 시쳐근에 담강 냇당은에 기냥 그냥 곤 시치멍 하면은 끓이는디 오래 걸려.(흰죽 그거 쌀 셋어서 담가서 놔뒀다가 그냥 곤 셋으면서 하면 끓이는디 오래 걸려.)

107025 @ 음.(음.)

107025 #1 게난 쌀 짓져근에 당강 냇당 하면은 혼 두서너 불만 이렇게 궤면은

풀풀하게 죽이 뛰는디.(그러니까 쌀 씻어서 담갔다가 놔뒀다가 하면 한 두서너 별만 이렇게 끓으면 풀풀하게 죽이 되는데.)

107025 @ 음.(음)

107025 #1 그냥 곧 싯지명 하면은 쪼락쪼락 하명 쌀이 잘 제게 풀어지질 아녀.
(그냥 곧 씻으면서 하면 ‘쪼락쪼락’ 하면서 쌀이 잘 재우 풀어지질 않아.)

107025 @ 음.(음.)

107025 #1 경허기 때문에 거 담갓당은에 쑤곡. 모물쓸은 모물죽은 물 넣 싹싹
끓여근에 모물쓸 놔근에 그자 흔 번 끓이면 그거는 죽 뛰여.(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
담갔다가 쑤고. 메밀쌀은 메밀쌀죽은 물 넣어서 싹싹 끓여서 메밀쌀 넣어서 그저
한 번 끓으면 그거는 죽 되어.)

107025 @ 아아.(아아.)

107025 #1 모물쓸은 그것이 영 우리가 기냥 모물쓸로 먹어봐도 그거는 막 비삭
약해여. 쌀처럼 딱딱하지 안 허영.(메밀쌀은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메밀쌀로
먹어봐도 그거는 바삭 약해. 쌀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107025 @ 예, 예.(예, 예.)

107025 #1 연허영 경 하니까 죽 쑤는 것도 완전.(연해서 그렇게 하니까 죽 쑤는
것도 완전.)

107025 @ 쉬우컨계예?(쉽겠는데요?)

107025 #1 그거 허영 허면 죽 풀풀허게시리 이제 그 모물죽은 간 안 행 그냥
먹어.(그거 해서 하면 죽 풀풀하게끔 이제 그 메밀쌀죽은 간 안 해서 그냥 먹어.)

107025 @ 안, 간 안 해갖고?(안, 간 안 해갖고?)

107025 #1 간 안 허영 간장 놓 죽 먹곡 간장 영 찍엉 먹고.(간 안 해서 간장 넣
어서 죽 먹고 간장 이렇게 찍어서 먹고.)

107026 @ 모멀죽예? 그 다음에 좁쌀로도 죽 헷수가?(메밀죽요? 그 다음에 좁쌀
로도 죽 했습니까?)

107026 #2 조축.(조죽.)

107026 #1 조축.(조죽.)

107026 @ 조축. 그 조축은 어떤 식으로 해?(조죽. 그 조죽은 어떤 식으로 해?)

107026 #1 조축은 물 끓여근에 그거는 당그지 아냈당 그자 놔근에 끓영 것도
그거 조축도 간 안 허영 먹엉은에 간장 영 먹곡 해여.(조죽은 물 끓여서 그거는 담
그지 않았다가 그저 놔서 끓여서 것도 그거 조축도 간 안 해서 먹어서 간장 이렇게
먹고 해.)

107026 @ 음, 조축 쑤는 것도 흐린좁쌀 허고 모힌좁쌀 허면 뭘로 해? 조축 할
때는?(음, 조죽 쑤는 것도 차좁쌀 하고 메좁쌀 하면 뭐로 해? 조죽 할 때는?)

107026 #1 죽 쑤는 조로 헤근에 조축은 저 흐린쌀로는 안 쑤.(죽 쑤는 조로 해
서 조죽은 저 차좁쌀로는 안 쑤.)

107026 @ 음.(음.)

107026 #1 그자 모힌쓸로만 쬐.(그저 메좁쌀로만 쬐.)

107028 @ 모힌쓸로만예. 그 다음에 콩죽도 옛날 어른들 하영 헤영 먹은 거 끌아?(메좁쌀로만요. 그 다음에 콩죽도 옛날 어른들 많이 해서 먹은 거 같아?)

107028 #1 콩죽 인칙이 말헐 때 콩 뿐양.(콩죽 일찍 말할 때 콩 뿐아서.)

107028 @ 예.(예.)

107028 #1 경 허영 콩죽에는 쌀 얼마 안 들어가.(그렇게 해서 콩죽에는 쌀 얼마 안 들어가.)

107028 @ 아아.(아아.)

107028 #1 콩이 풀풀허고 하니까.(콩이 풀풀하고 하니까.)

107028 @ 예.(예.)

107028 #1 쌀 조꼼 놓곡 끓이면 풀풀. 경 헤근에 우리는 콩죽에 미역 놔근에.(쌀 조금 넣고 끓이면 풀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콩죽에 미역 넣어서.)

107028 @ 음.(음.)

107028 #1 미역 놔근에 쑤면은 그렇게 맛있어. 콩죽에 미역 넣.(미역 넣어서 쑤면 그렇게 맛있어. 콩죽에 미역 넣어서.)

107028 @ 누물이 아니고.(배추가 아니고.)

107028 #1 아니, 미역, 미역.(아니, 미역, 미역.)

107027 @ 미역 놔야 뛰는 거. 아 경 허고 이제 풋죽?(미역 놔야 되는 거. 아 그렇게 하고 이제 팔죽?)

107027 #1 풋죽은 팟 삶아근에 옛날에는 팟 삶아근에 꾸듯 말듯 헤근에.(팔죽은 팔 삶아서 옛날에는 팔 삶아서 이기듯 말듯 해서.)

107027 @ 음.(음.)

107027 #1 헤근에 뭐 쌀 놔근에 거 쌀 풀어질 때 까장 젓으멍 쟁 눌지 아녀게 젓으멍 남죽으로 젓으면 췄근에 풀풀하게 췄지만 소금 놔근에 간 허영 풋죽은 딴 거 안 허영 소금 넣 간만 해도 풋죽은 맛있어.(해서 뭐 쌀 넣어서 거 쌀 풀어질 때 까지 저으면서 췄서 눌지 않게 저으면서 죽젓개로 저으면 췄서 풀풀하게 췄지면 소금 넣어서 간 해서 팔죽은 딴 거 안 해서 소금 넣어서 간만 해도 팔죽은 맛있어.)

107027 @ 삼촌, 풋죽 헐 때도 그 쓸을예, 산듸쓸 말양은에 좁쌀도 넣은에 힙니까?(삼촌, 팔죽 할 때도 그 쌀을요, 밭벼쌀 말고 좁쌀도 넣어서 합니까?)

107027 #1 좁쌀도 넣 허곡 아무 거 놔도 보리쌀로도 만도 뛰여.(좁쌀도 넣어서 하고 아무 거 놔도 보리쌀로도 만도 되어.)

107027 @ 아, 풋죽은? 아 상관없구나예? 보리쌀이든 상관없구나예? 좁쌀 넣은에 풋죽 하영 행 먹엇던 허더라고마씨.(아, 팔죽은? 아 상관없군요? 보리쌀이든 상관없군요? 좁쌀 넣어서 팔죽 많이 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107027 #1 좁쌀, 이제는.(좁쌀, 이제는.)

107027 #2 곤쓸이 산듸하고 곤쓸이 막 어려워놓난 옛날은 좁쌀 놓곡.(흰쌀이 밭벼하고 흰쌀이 아주 어려워놓으니까 옛날은 좁쌀 넣고.)

107027 #1 계난 그때는 풋 숨양 영 꾸영 죽 헷주마는 이제는 풋 숨양 문딱 다
마네기 잘리에 담양.(그러니까 그때는 팔 삶아서 이렇게 이겨서 죽 했지만 이제는
팔 삶아서 몽땅 양파 자루에 담아서.)

107027 @ 예.(예.)

107027 #1 꾸멍 그냥 문딱 헤근에 영 영 영 허멍 꾸곡 꾸곡 하면은.(이기면서
그냥 몽땅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기고 이기고 하면.)

107027 @ 예.(예.)

107027 #1 풋 껌데기만 그 잘리 속에 있고, 여물은 짹 빼져근에 경 혜영 그 국
물에, 가만이 이제 풋 걸러근에. 그 경 허영 걸른덴 허주. 걸러근에 놔두면은 혼두
시간 잇당 보면은 알멩이는 짹 가라앉고 우의 국물만 남아.(팔 껌데기만 그 자루 속
에 있고, 여물은 짹 빼져서 그렇게 해서 그 국물에, 가만히 이제 팔 걸러서. 그 그
렇게 해서 거른다고 하지. 걸러서 놔두면 한두 시간 있다가 보면 알멩이는 짹 가라
앉고 위에 국물만 남아.)

107027 @ 아.(아.)

107027 #1 그 물만 말깡혜영 시민 그 물을 우리 건 우리 절에서 죽 쑤는 방법
인디, 그 물을 이제 비와놔근에 처음에는 풋죽 쓸 때 물.(그 물만 말끔해서 있으면
그 물을 우리 건 절에서 죽 쑤는 방법인데, 그 물을 이제 부어놓아서 처음에는 팔
죽 쓸 때 물.)

107027 @ 예.(예.)

107027 #1 그냥 맹물을 넣은에 혼 솟 이만은 솟으로 하나 쌈텐 하면은 그 솟으
로 한 사분지 일 정도 물 놔근에 물 짹싹 끊이면은 이제 그 풋 우엣 물.(그냥 맹물
을 넣어서 한 솥 이만한 솥으로 하나 쌈다고 하면 그 솥으로 한 사분지 일 정도
물 넣어서 물 짹싹 끊으면 이제 그 팔 위에 물.)

107027 @ 음.(음.)

107027 #1 거 뜰라근에 거 놔근에 막 끊이면은 쌀을 놓는 거라. 쌀 당강 놋단
거 쌀 놔근에 어느 정도 풀어지면, 풀어지면은 그 젤 막끗데 깔아앉인 그 풋, 그 풋
밑에 거 그거를 헤근에 놔근에 쑤는 거라. 계난 그 그 걸른 밑에 것이 그것이 솟
밀¹⁶³⁾에 잘 눌어.(거 따라서 거 넣어서 막 끊이면 쌀을 넣는 거야. 쌀 담가서 놋던
거 쌀 넣어서 어느 정도 풀어지면, 풀어지면 그 젤 마지막에 깔아앉은 그 팔, 그 팔
밑에 거 그거를 해서 넣어서 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거른 밑에 것이 그것이 ‘솥
밀’에 잘 눌어.)

107027 @ 아아.(아아.)

107027 #1 잘 눌기 때문에 그거는 젤 막끗데 놓아근에 헤근에 젓는 거. 그거는
잘 알아야 돼여.(잘 눌기 때문에 그거는 젤 마지막에 넣어서 해서 젓는 거. 그거는
잘 알아야 되어.)

107027 @ 게니까. 과학적이라예?(그러니까. 과학적이네요?)

163) ‘솟밀’은 솥 안의 바닥을 말한다.

107027 #2 표선이는예, 그 실습하는 날이 잇수다게.(표선리는요, 그 실습하는 날이 있습니다.)

107027 @ 아.(아.)

107027 #1 요새도 초파일날.(요새도 초파일날.)

107027 @ 예.(예.)

107027 #1 초파일날 절에 오면은 다 해서 신도덜 표선리민덜안테 다 혼 사발씩 줍니다. 여긴?(초파일날 절에 오면 다 해서 신도들 표선리민들한테 다 한 사발씩 줍니다. 여긴?)

107027 @ 절에서가 여기 전부 다 줘?(절에서가 여기 전부 다 줘?)

107027 #1 아, 나이 든 사름.(아, 나이 든 사람.)

107027 @ 어느 절에 경 햄수가?(어느 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7027 #1 관통사.(관통사.)

107027 @ 관통사.(관통사.)

107027 #2 초파일날.(초파일날.)

107027 @ 예.(예.)

107027 #1 낼 초파일이믄 오널.(낼 초파일이면 전날.)

107027 @ 전날. 초파일 전날.(전날. 초파일 전날.)

107027 #1 아니우다게. 초파일이우파? 동지주. (웃음).(아닙니다. 초파일입니까? 동지지. (웃음).)

107027 #2 동짓날 끽죽 먹는다고 해서 동짓날.(동짓날 끽죽 먹는다고 해서 동짓날.)

107027 #1 동짓날, 동짓날. 내일 동지면 오늘. 초파일날 등 싸는 날인데.(동짓날, 동짓날. 내일 동지면 오늘. 초파일날 등 켜는 날인데.)

107027 @ 그러면 관통사에서 표선 어른들안테 그런.(그리면 관통사에서 표선 어른들한테 그런.)

107027 #1 어르신덜안티.(어르신들한테.)

107027 #2 다 통에.(다 통에.)

107027 #1 일회용 그릇에 요런 것에 헤근에 깍두기이 영 놓곡 헤근에 다 어르신덜안티만 다.(일회용 그릇에 요런 것에 해서 깍두기 이렇게 놓고 해서 다 어르신들한테만 다.)

107027 @ 여기 사름도 하니까 괭장히 하영 췄야겠는데.(여기 사람도 많으니까 괭장히 많이 췄야겠는데.)

107027 #1 표선면 다 가시리까지.(표선면 다 가시리까지.)

107027 #2 가시리까지.(가시리까지.)

107027 @ 잊어불지 말양은에.(잊어버리지 말아서.)

107027 #2 동짓날 기억햇당 혼번 옵서.(동짓날 기억했다가 한번 오십시오.)

107027 #1 그때 신도덜은 막 속암서.(그때 신도들은 아주 수고하고 있어.)

107027 @ 그러니까.(그러니까.)

107027 #1 매해.(매해.)

107027 #2 거기다가 쌀로 해서 뭐, 뭐, 뭐.(거기다가 쌀로 해서 뭐, 뭐, 뭐.)

107027 #1 새알, 새알.(새알, 새알.)

107027 #2 새알 그런 거 다 들이치고.(새알 그런 거 다 집어넣고.)

107027 @ 예.(예.)

107027 #2 그렇게 맛있게 해서.(그렇게 맛있게 해서.)

107027 @1 아까 관통사에서 쑤는 방식이우파?(아까 관통사에서 쑤는 방식입니까?)

107027 #1 아니, 관통사에서 이건 어른덜안티 테우는 건 그냥 쭈물러근에 풋 걸
르지 안 허영 그냥 허여. 걸렁 한다는 거 흐꼼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만든 음식이
라. 그거 헤근에 그 이제 찹쌀을.(아니, 관통사에서 이건 어른들한테 나눠주는 건
그냥 주물러서 팔 거르지 안 해서 그냥 해. 걸러서 한다는 거 조금 고급스럽게, 고
급스럽게 만든 음식이야. 그거 해서 그 이제 찹쌀을.)

107027 @ 예.(예.)

107027 #1 찹쌀 굽마다근에 그 찹쌀 반죽할 때는 이거 조심 아녀면은 파산하기
오 분 전이라.(찹쌀 갈아다가 그 찹쌀 반죽할 때는 이거 조심 않으면 파산하기 오
분 전이야.)

107027 @ 예.(예.)

107027 #1 거 찹쌀을 갈아다근에 반죽할 때는 물 짹짜 끓이면은 가루에 놓명
흔 번에 물 냉은 안 드여.(찹쌀을 갈아다가 반죽할 때는 물 짹짜 끓으면 가루에 놓
으면서 한 번에 물 넣어서는 안 되어.)

107027 @ 예.(예.)

107027 #1 물 쪼끔 놋근에 이거 영 영 헤근에 그 이제 저 남죽이나 밥주걱이나
헹 영 영 젓어근에 물 얼마 안 들주게. 이거는. 저 찹쌀은 물에 담갔다가 굽여온 거
라부난에.(물 조금 넣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저 죽젓개나 밥주걱이
나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물 얼마 안 들지. 이거는. 저 찹쌀은 물에 담갔다가
갈아온 거여 버리니까.)

107027 @ 예, 예, 예.(예, 예, 예.)

107027 #1 게난 물 끓인 물 놋근에 쪼끔씩 놋야주, 출락하게 놋당은 그것이 죽
뒈면 감당 못허여. 가루 흔 푸대 놋도.(그러니까 물 끓인 물 넣어서 조금씩 놋야지,
'출락'¹⁶⁴⁾하게 넣었다가 그것이 죽 되면 감당 못해. 가루 한 부대 놋도.)

107027 #1 안 드여.(안 되어.)

107027 @ 안 드여.(안 되어.)

107027 #1 안 드여. 거 히안지메. 쪼끔씩 놋근에 그 이제 반죽을 만들어근에 그
거 떼명 새알 다 만들어근에 헤영 풋죽 얼추 췄져갈 때 새알 놓면은 팟죽이 다 췄

164) '출락'은 갑자기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문 그 새알이 다 우의 다 떠.(안 되어. 거 희한져. 조금씩 넣어서 그 이제 반죽을 만들어서 그거 떼면서 새알 다 만들어서 해서 팥죽 얼추 쑤져갈 때 새알 놓으면 팥죽이 다 쑤지면 그 새알이 다 위에 다 떠.)

107027 @ 음.(음.)

107027 #1 까라앉인 거 하나 엇이. 다 뜨면은 이거 죽 다 웃던 헤근에 경 허곡. 우리 이디는 관통사에 다니고 우리 연화사.(가라앉은 거 하나 없이. 다 뜨면 이거 죽 다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는 관통사에 다니고 우리 연화사.)

107027 #2 연화사.(연화사.)

107027 #1 우리 연화사에서는 그렇게 노인덜안티 경끄장 할 재정은 안 뛰고.(우리 연화사에서는 그렇게 노인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재정은 안 되고.)

107027 @ 음.(음.)

107027 #1 절 안에서 먹는 거는 그렇게 헤근에 부처님안티 이제 올리곡 이제.(절 안에서 먹는 거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이제 올리고 이제.)

(중략)

107031 @ 알았수다. 그 다음에 삼춘, 지난번도 이제 얘기현 거 닮다만은 득죽. 아 녹두죽.(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춘, 지난번도 얘기한 거 같다면 닮죽. 녹두죽.)

107031 #1 녹주죽. 녹두는 걸르지 아녕 기냥.(녹두죽. 녹두는 거르지 않고 그냥.)

107031 @ 음.(음.)

107031 #1 이때나 저때나 뭐 숟아가지고 기자 그자 기자 국자로라도 영 영 영 누르멍은에 쭈물쭈물 그 녹두는 그 막 쭈물르는 게 그 맛이 아니고 녹딘 젠젠하니까 풋 반착 만씩벗기 안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막 문지대기젠히지도 아녀고 기자 풋 그 녹두 그대로 있어도 그 녹두 맛이 나니까 그건 그 풋죽 쑤는 식으로 쑤. 쭈물리지 아녀는 거 뿐이주.(이때나 저때나 뭐 숟아가지고 그저 그저 국자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놀러서 쭈물쭈물 그 녹두는 그 막 주무르는 게 맛이 아니고 녹둔 자잘하니까 팥 반쪽 만씩밖에 안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주 문대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팥 그 녹두 그대로 있어도 그 녹두 맛이 나니까 그건 그 팥죽 쑤는 식으로 쑤. 주무르지 않는 거 뿐이지.)

107031 @ 옛날은 득 득죽이 젤 큰 죽 아니라낫수가예?(옛날은 닮 닮죽이 젤 큰 죽 아니었었습니까?)

107031 #1 닮죽.(닮죽.)

107031 @ 예, 언제 해 먹었수가? 득죽은.(예, 언제 해 먹었습니까? 닮죽은.)

107031 #1 아이 득죽.(아니 닮죽.)

107031 #2 유월달에.(유월달에.)

107031 #1 유월 쭈무날에 득 잡아먹는 거. 그때끄장 우리 어머니네 득 잡앙 먹을 거난 겸질 빨리 메렌 허멍 막 혜영은에 집에서 다 키운 닮.(유월 스무날에 닮 잡아먹는 거.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네 닮 잡아서 먹을 거니까 김 빨리 매라고 하면서 막 해서 집에서 다 키운 닮.)

107031 @ 예, 예.(예, 예.)

107031 #1 키운 우린 집원 다섯 머리 으섯 머리 잡아낳은에 잘도 푸지게 먹언.
그때가, 그때가 춤.(키운 우린 집에는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잡아놓아서 잘도 푸지게
먹었어. 그때가, 그때가 참.)

107031 #2 유월 스무날 득 잡아먹는 날.(유월 스무날 닉 잡아먹는 날.)

107031 @ 예.(예.)

107031 #1 일 년에 그 정해진 날.(일 년에 그 정해진 날.)

107031 @ 예, 그날은 꼭 먹어야 돼여예?(예, 그날은 꼭 먹어야 된다고요?)

107031 #1 게여사 그날은 더위 먹은 것도 다 없어지곡.(그래야 그날은 더위 먹
은 것도 다 없어지고.)

107031 @ 음.(음.)

107031 #1 앞으로 더위도 안 먹넨 혜여근에 유월 스무날. 이제는 말복이여 중복
이여.(앞으로 더위도 안 먹는다고 해서 유월 스무날. 이제는 말복이다 중복이다.)

107031 #2 복날이엔 혀영 일 년에 세 번.(복날이라고 해서 일 년에 세 번.)

107031 @ 일 년에 세 번예?(일 년에 세 번요?)

107031 #2 초복 중복 말복.(초복 중복 말복.)

107031 #1 경 혀영 근치룩덜 식당에덜 삼계탕 먹으래 옛날덜 집의서.(그렇게 해
서 그렇게들 식당에들 삼계탕 먹으러 옛날들 집에서.)

107031 @ 유월 스무날은 안 먹엄신가마씨? 이젠?(유월 스무날은 안 먹고 있는
가요? 이젠?)

107031 #1 몰라. 옛날 할망덜. 우리도 옛날 할망이주마는 우리도.(몰라. 옛날 할
머니들. 우리도 옛날 할머니지만 우리도.)

107031 #2 요새는 안 먹어.(요새는 안 먹어.)

107031 #1 집의서 하는 것도 귀차녕 안 먹어. 형제간들이영 가근에 먹엉 오주.
(집에서 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먹어. 형제간들이랑 가서 먹어서 오지.)

107032 @ 그냥 먹엉 치왕. 예. 알았수다. 그 다음에 국죽?(그냥 먹어서 치워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갱죽?)

107032 #1 국수.(국수.)

107032 @ 국죽, 국죽?(갱죽, 갱죽?)

107032 #1 국죽?(갱죽?)

107032 @ 으. 그 누물 냉은에 허는 걸 국죽이렌 안합니까? 여긴?(으. 그 배추
넣어서 하는 걸 갱죽이라고 안합니까? 여긴?)

107032 #1 아니 식은밥이라도 무시거 그 놔근에 혀영 끓영 누물 영 영 무지러
놔근에 끓여근에 하면은 기자 경 혜근에 먹엇주. 옛날에 그 쌀 엇일 때 이젠 그런
죽 췁 안 먹어.(아니 찬밥이라도 무엇 그 놔서 해서 끓여서 배추 이렇게 이렇게 잘
라서 넣어서 끓여서 하면 그저 그렇게 해서 먹었지. 옛날에 그 쌀 없을 때 이젠 그
런 죽 췁서 안 먹어.)

107032 @ 계난 그 죽 일름이 뭐라마씨?(그러니까 그 죽 이름이 뭐예요?)

107032 #1 계난에.(그러니까.)

107032 #2 국죽이엔 말은 들었는데 그 당시에 국죽은 보리밥 헤먹어서 놔두면은 조금 쉬면은 쉰다리¹⁶⁵⁾ 해서 먹었고.(갱죽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당시에 갱죽은 보리밥 해 먹어서 놔두면 조금 쉬면 ‘쉰다리’ 해서 먹었고.)

107032 @ 예.(예.)

107032 #2 쉰다리 헐 정도가 아니면 싯어근에 그 누물이영 낳은에 ㅋ찌 쑤면은 그게 국죽 국죽 했던 거 같애.(‘쉰다리’ 할 정도가 아니면 씻어서 그 배추랑 넣어서 같이 쑤면 그게 갱죽 갱죽 했던 거 같아.)

107032 @ 예, 밥 먹단 거 싯엉예?(예, 밥 먹던 거 씻어서요?)

107032 #1 싯엉.(씻어서.)

107032 #2 바로 먹젠 허니까 순내 나고.(바로 먹으려고 하니까 순내 나고.)

107032 @ 예.(예.)

107032 #2 쉰다리 허젠 허난 너무 안 쇠엿고 이렇게 버리긴 아깝곡 해서 싯어됭 낳어. 바로 끌려서 국이영 ㅋ찌 누물이영 끓린 것이 국죽 국죽 헤난 것 닮아.(‘쉰다리’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쇠엿고 이렇게 버리긴 아깝고 해서 씻어두고 놋어. 바로 끓여서 국이랑 같이 배추랑 끓인 것이 갱죽 갱죽 했던 것 같아.)

107032 @ 그 국죽 헐 때 간은 헤마씨?(그 갱죽 할 때 간은 해요?)

107032 #1 간 하주게.(간 하지.)

107032 #2 국인데 간 안 허민.(국인데 간 안 하면.)

107032 @ 웬장 낳은에 헤는 거?(된장 넣어서 하는 거?)

107032 #1 웬장 아니 간장.(된장 아니 간장.)

107032 #2 간장.(간장.)

107032 @ 간장 낳은에?(간장 넣어서?)

107032 #1 옛날은 이제 답지 아녕 간장도 막 맛잇엇어. 그 옛날 간장.(옛날은 이제 같지 않아서 간장도 아주 맛있었어. 그 옛날 간장.)

107033 @ 예, 그 꿩으로도 죽 해 먹었수가?(예, 그 꿩으로도 죽 해 먹었습니까?)

107033 #1 꿩으로 꿩 꿩탕. 꿩 그거 꿩도 그 꿩을 이제는 뭐 꿩 그거 쉽게시리 하주마는 옛날에 꿩을 무신 허주마는 옛날에 꿩이.(꿩으로 꿩 꿩탕. 꿩 그거 꿩도 그 꿩을 이제는 뭐 꿩 그거 쉽게끔 하지만 옛날에 꿩을 무슨 하지만 옛날에 꿩이.)

107033 #2 잘 아냈어.(잘 않았어.)

107033 #1 우리 아버지는 그 통조림공장에 다니난 통조림공장에 그 사장이 일본 사름이난 일본 사람들이영 그 소총.(우리 아버지는 그 통조림공장에 다니니까 통조림공장에 그 사장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그 소총.)

107033 @ 예.(예.)

165)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다.

107033 #1 그거 잘 아경 그 꿩 쏘으레 잘 다녔게. 계난 우리 아버지도 그 삼마 안티 이제 그거 소총 그거 헨에 그 개 들곡 혜근에 강 혀민 후루 주물양 영 혀민 꿩 혼나 아니민 두 개. 경 혜여근에 왕 그치록 혀영 집의서 먹어나고.(그거 잘 가져서 그 꿩 쏘러 잘 다니던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삼마’한테 이제 그거 소총 그거 해서 그 개 데리고 해서 가서 하면 하루 저물어서 이렇게 하면 꿩 하나 아니면 두 개. 그처럼 해서 와서 집에서 먹었었고.)

107033 @ 결로도 죽 혜영은에?(결로도 죽 해서?)

107033 #1 그것도 죽은 몰라도 꿩탕엔 국은 무수 영 굵직굵직허게 썰어 놓곡 혀영 다 끊여지민 그르 강 영 냥은에 경 혜영 국은 혜나도 죽은?(그것도 죽은 몰라도 꿩탕이라고 국은 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 넣고 해서 다 끊여지면 가루 가서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국은 했었어도 죽은?)

107033 @2 옛은 안 혜수가?(옛은 안 했습니까?)

107033 #1 옛은 혜낫수다.(옛은 했었습니까?)

107033 #2 여기서는 그 총 그런 것보단도 코 냥.(여기서는 그 총 그런 것보다도 올가미 놓아서.)

107033 @ 코, 꿩코 냥예?(올가미, ‘꿩코’ 놓아서요?)

107033 #2 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헌 디 코 놔근에 잡으면은 것이 그렇게 잡기가 힘들고 혜낫주마는. 꿩엿¹⁶⁶⁾덜은 행 먹는 거 봤어.(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한 데 올가민 놓아서 잡으면 것이 그렇게 잡기가 힘들고 했었지만. ‘꿩엿’들은 해서 먹는 거 봤어.)

107033 @ 음, 꿩엿 겨울에.(음, ‘꿩엿’ 겨울에.)

107033 #2 꿩엿 혀면은 혼 머리 혀면은 혼 겨울 기자 쪼꼼씩 쪼꼼씩 별미로 혀영.(꿩엿 하면 한 마리 하면 한 겨울 그저 조금씩 조금씩 별미로 해서.)

107033 #1 아이고, 옛날이 우리 집의 그 단지 어디 가신고? 이제 그 그거 있어 시민 돈을 얼마 갈 단지. 요만, 요만은 한 단지 요만하고 굽은 요만은 하고 배는 이만은 혜근에 요만은 한 거 막 혜영현 것에 퍼렁현 걸로 막 꽂 기려진.(아이고, 옛날 우리 집에 그 단지 어디 갔을까? 이제 그 그거 있었으면 돈을 얼마 갈 단지. 요만, 요만큼 한 단지 요만하고 굽은 요만큼 하고 배는 이만큼 해서 요만큼 한 거 막 하얀 것에 퍼런 걸로 막 꽂 그려진.)

107033 #2 도자긴데.(도자긴데.)

107033 #1 그거 그것이 우리 샷하르방 아저당 옛 바꽝 먹어벼신가. 그것에 혜근에 꿩엿을 혜근에 우리 오빠만 이제 주게 우리 어머니가 우린 못 먹게 헹. 그 쿠우의.(그거 그것이 우리 둘째할아버지 가져다가 옛 바꿔서 먹어버렸는가. 그것에 해서 ‘꿩엿’을 해서 우리 오빠만 이제 주게 우리 어머니가 우린 못 먹게 해서. 그 쿠위에.)

107033 @ 으.(으.)

166) ‘꿩엿’은 꿩고기를 넣어서 고운 옛을 말한다. 제주 향토 음식의 한 가지다.

107033 #1 궤 우의 놓는 거라. 경 허민 버른은 경 잘 혜난. 옛날은 의자 그런 것도 엇이난 사름 굽으면 그 우의 올라가근에 그거 혜근에.(궤 위에 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장난은 그렇게 잘 했었어. 옛날은 의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사람 굽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거 해서.)

107033 @ 맞아예.(맞아요.)

107033 #1 그거 헨 들려내영 영 혜영 보민 꿩엿 우의 고기 삐쭉삐쭉 나오민 그 거 혜영 막 먹어낭 그 우터래 올려놔불곡 혜난 그 생각이 나.(그거 해서 들어내서 이렇게 보면 ‘꿩엿’ 위에 고기 삐쭉삐쭉 나오면 그거 해서 마구 먹어서 그 위로 올려놔버리고 했던 그 생각이 나.)

107033 @ 애, 몰르게 이제.(애, 모르게 이제.)

107033 #1 어머니네 일허래 가불민.(어머니네 일하러 가버리면.)

107033 #2 꿩엿은 보통 사름은 혜 먹지 못하는 거고.(‘꿩엿’은 보통 사람은 해 먹지 못하는 거고.)

107033 @ 음.(음.)

107033 #1 것도 여간 아니. 그 꿩엿 하는 과정이 나 이제 가만히 혜 보민 우린 거 못함직 혜여. 골.(것도 여간 아니. 그 ‘꿩엿’ 하는 과정이 나 이제 가만히 해 보면 우린 못할 것 같아. 엿기름.)

107033 @ 예.(예.)

107033 #1 골, 주뎅이보리 그거 이제 물에 커근에 이제 둥갓다근에 그거 풀어지면은 그거 물 빠주와근에 어디 맹뎅이에 놔근에 짹을 틔우는 거라이.(엿기름, 맥주 보리 그거 이제 물에 잠가서 이제 담갔다가 그거 풀어지면 그거 물 빼서 어디 망태 기에 놔서 짹을 틔우는 거야.)

107033 @ 예.(예.)

107033 #1 거 짹 막 나면은 그거를 널엉.(거 짹 막 나면 그거를 널어서.)

107033 @ 음.(음.)

107033 #1 그거 널어근에 이제 막 몰르면은 정꼬례에 영 골면은 그것이 골이라이. 골.(그거 널어서 이제 아주 마르면 맷돌에 이렇게 갈면 그것이 엿기름이야. 엿기름.)

107033 @ 음, 음.(음, 음.)

107033 #1 골이고. 보리 막 보리차 혜근에 거피는 것보단 흐꼼 훑개 혜근에 그거를 영 영 영 뼙 만들어근에 틔우면은 그건 누룩.(엿기름이고. 보리 막 보리째 해서 거피하는 것보단 조금 굽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뼙 만들어 뼙우면 그건 누룩.)

107033 @ 예.(예.)

107033 #1 경 행 그 누룩, 누룩을 막 뺏아근에 혜영 그 골에 서꺼근에 혜영 영 놔두민 그것이 이제 바글바글 웨 거 아니.(그렇게 해서 그 누룩, 누룩을 막 뺏어서 해서 그 엿기름에 섞어서 해서 이렇게 놔두면 그것이 이제 바글바글 웨 거 아니.)

107033 @ 음.(음.)

107033 #1 궤면은 그 흐린좁쌀 헤근에 오메기역 헤근에 그거 헤영 그 물하고 그거 그거 영 골하고 무신거 그 누룩하고 셔꺼진 그 물 그거 헤근에 벼무려근에 그 물 내와근에 그거하곡 헨. 그거 헨에 막 두말떼기에 낸 흐룻밤 흐루 딸리는 거라.(괴면 그 차좁쌀 해서 ‘오메기역’ 해서 그거 해서 그 물하고 그거 그려 이렇게 엿기름하고 무엇 그 누룩하고 섞어진 그 물 그거 해서 벼무려서 그 물 내와서 그거하고 했어. 그거 해서 막 ‘두말떼기’에 놓아서 하룻밤 하루 고는 거야.)

107033 @ 음.(음.)

107033 #1 딸령 얼추 딸려지면은 그 꿩고기.(고아서 얼추 고아지면 그 꿩고기.)

107033 @ 예.(예.)

107033 #1 그 꿩고기 막 삶안 찢인 거. 찢인 거 헨에 옛에 낸에 혼 시간쯤 딸련 그거 하난 그것이 꿩엿, 꿩엿 헨에 경 헤연 막 하난에 요만한 그런 단지로 두 개도 안 훈게.(그 꿩고기 폭 삶아서 찢은 거. 찢은 거 해서 옛에 넣어서 한 시간쯤 달여서 그거 하니까 그것이 ‘꿩엿’, ‘꿩엿’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많으니까 요만한 그런 단지로 두 개도 안 되던데.)

107033 @ 음, 두말떼기 해도예?(음, ‘두말떼기’ 해도요?)

107033 #1 두말떼기 해도.(‘두말떼기’ 해도.)

107033 @ 계난 얼마나 그거를 딸령 헤여시믄?(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고아서 했으면?)

107033 #1 계난 나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거 못할 거 같애.(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거 못할 거 같아.)

107033 @ 그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네?(그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네?)

107033 #1 ** 앗앙 아이고.(** 앗아서 아이고.)

107033 @ (웃음).((웃음).)

107033 #1 옛날 어른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네 그 제사 다 허곡 거 허영 살젠 허난 고생께나 햇주.(옛날 어른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네 그 제사 다 하고 거 해서 살려고 하니까 고생께나 했지.)

107033 @ 그추마씨.(그렇지요.)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요즘처럼 돈도 있는 때도 아니고예? 삼촌, 범벅덜도 못사는 사름덜은 범벅 하영 헤먹었어예?(요즘처럼 돈도 있는 때도 아니고요? 삼촌, 범벅들도 못사는 사람들은 범벅 많이 헤먹었지요?)

107034 #1 잘사는 사름덜도 범벅은 막 헤 먹엇어.(잘사는 사람들도 범벅은 막 해 먹었어.)

107034 @ 무사?(왜?)

107034 #1 범벅 별미로개.(범벅 별미로.)

107034 @ 아, 별미로.(아, 별미로.)

107034 #1 감저.(고구마.)

107034 @ 으.(으.)

107034 #1 감저 해근에 이제 벗경.(고구마 해서 이제 벗겨서.)

107034 @ 예.(예.)

107034 #1 이거 요거 요거민 두 개 세 개 헤지게 썰어근에 솟되 놔근에 불 숨으민 그거 봄근에 그거 감자가 다 익어시면은.(이거 요거 요거면 두 개 세 개 하게 썰어서 솥에 놔서 불 때면 그거 봄서 그거 고구마가 다 익었으면.)

107034 @ 예.(예.)

107034 #1 ㅋ르를 그 우터레 놓는 거라.(가루를 그 위로 넣는 거야.)

107034 @ 음.(음.)

107034 #1 게믄 ㅋ를 그 우의 놔근에 불 숨아가민 발탁발탁하는 소리 혜영 ㅎ꼼 그 소리가 줄어. 꺻다근에.(그러면 가루 그 위에 놔서 불 때가면 발탁발탁하는 소리 소리 해서 조금 그 소리가 줄어. 꺻다가.)

107034 @ 예.(예.)

107034 #1 영 열아근에 막 남죽으로 그냥 거 젓젠 허민 얼마나 힘들카부덴.(이렇게 열어서 막 죽젓개로 그냥 거 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봐.)

107034 @ 아아.(아아.)

107034 #1 그거 혜여 냉 ㅋ르 아니 ㅋ르 안 보일 정도로 막 젓젠 허민.(그거 해서 놔서 가루 아니 가루 안 보일 정도로 막 저으려고 하면.)

107034 @ 음.(음.)

107034 #1 혜당 보민 혜똑혜똑 ㅋ르 나오곡 하민 그 ㅋ르가 그 ㅋ르 하면은 쎈 ㅋ르난에 잘 안 됐젠 헐 거난 ㅋ르 안 보일 정도로 막 젓어놓민 경 혜영 범벅.(하다가 보면 희똑희똑 가루 나오고 하면 그 가루가 그 가루 하면 센 가루니까 잘 안 됐다고 할 거니까 가루 안 보일 정도로 마구 저어놓으면 그렇게 해서 범벅.)

107034 @ 그게 범벅?(그게 범벅?)

107034 #1 으.(으.)

107034 @ 게민 범벅은 주로 뭐 냉은에 허는 거우과? 범벅에는.(그러면 범벅은 주로 뭐 넣어서 하는 겁니까? 범벅에는.)

107034 #1 감저 냉 하곡 무수 냉 허곡 그거.(고구마 놔서 하고 무 놔서 하고 그거.)

107034 #2 무수 냉 허곡.(무 넣어서 하고.)

107034 #1 그거.(그거.)

107034 @ 뭐 여기는 저베기?(뭐 여기는 수제비?)

107034 #1 저베기?(수제비?)

107035 @ 저베기는 무슨 저베기 혜영 먹은 거우과?(수제비는 무슨 수제비 해서 먹은 겁니까?)

107035 #1 저베기는 아무 그르라도 헤근에 반죽행 영 영 끓어 놔근에 해도. 밀, 옛날에는 밀 옛날 토종 밀 그거 혜영 굽아근에 정그레에 굽양 그거 헤근에 반죽해 근에 물 끓여 가민 손으로 영 영 영 끓어놔근에.(수제비는 아무 가루라도 해서 반죽해서 이렇게 이렇게 끓어 놔서 해도. 밀, 옛날에는 밀 옛날 토종 밀 그거 해서 같아서 맷돌에 같아서 그거 해서 반죽해서 물 끓여 가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끓어놔서.)

107035 #2 젤 간단히 행 먹는 거 모물초베기.(젤 간단히 해서 먹는 거 메밀수제비.)

107035 @ 모멸초베기 아.(메밀수제비 아.)

107035 #1 모멸초베기 얘기 낳나민 거 먹는 거.(메밀수제비 아기 낳아나면 먹는 거.)

107035 @ 예.(예.)

107035 #1 그거는 물 짹짜 끓으민 모물그르에 그 끓이는 물 놔근에 수까락으로 영 영 반죽하면은 그거 반죽행 다 웨민 끓으는 물러레 문딱 다 그레 비와놔근에 국자로 닥닥닥 쪽는 거라. 쪽으민 그것이 저 저베기만씩 다 끓어지주게. 궁등조배기¹⁶⁷⁾(그거는 물 짹짜 끓으면 메밀가루에 그 끓는 물 넣어서 수저로 이렇게 반죽하면 그거 반죽해서 다 되면 끓는 물에 몽땅 다 그리로 부어놓아서 국자로 닥닥닥 쪼는 거야. 쪼면 그것이 저 수제비만큼씩 다 끓어지지. ‘궁등수제비’.)

107035 @ 그게 궁등조배기? 궁등조배기는 그냥.(그게 ‘궁등수제비’? ‘궁등수제비’는 그냥.)

107035 @2 통채로 놓는 거.(통째로 넣는 거.)

107035 @ 영 혀영 비와 놓?(이렇게 해서 부어 놓아서?)

107035 #1 다 숟가락으로 끓는 거라. 끓당 보면은 끓일 거 아니.

107035 @ 예.

107035 #1 반죽할 때부터 끓인 물 놓니까 벌써 다 익은 거. 흔 불만 끓이면은 소금 넣 간 헤근에 궁등조배기.(다 숟가락으로 끓는 거야. 끓다 보면 끓을 거 아니. 반죽할 때부터 끓는 물 넣으니까 벌써 다 익은 거. 한 벌만 끓이면 소금 놔서 간 해서 ‘궁등수제비’.)

107035 @ 무사 궁등조배기엔 혜신고예? 삼촌.(왜 ‘궁등수제비’라고 했을까요? 삼촌.)

107035 #1 계난 그자 그르 그자 혼 번에 그거 혜연에 하난에 궁동이엔 헌 것이 그것도 무신 의미가 이신 말이라.(그러니까 그저 가루 그저 한 번에 해서 하니까 ‘궁동’이라고 한 것이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야.)

107035 @ 계난 그 막 크덴 혀멍예? 그렇게 혀면은?(그러니까 그 아주 크다고 하면셔요? 그렇게 하면?)

167) ‘궁등조배기’는 메밀가루 따위를 끓게 반죽한 후에 한꺼번에 끓는 물에 넣어서 수저로 닥닥 두들기면서 짤라서 만든 수제비를 말한다.

107035 #1 음 크주게. 경 혜영 이만한 것도 있고 뿐시례기도 지고. 이만한 것도 다 익어. 선 건 엇어. 끓인 물로 반죽허난.(음 크지. 그렇게 해서 이만한 것도 있고 부스러기도 지고. 이만한 것도 다 익어. 선 건 없어. 끓인 물로 반죽하니까.)

107035 @2 메밀그르로 헌 거우파?(메밀가루로 한 겁니까?)

107035 #1 건 메밀그르로만.(건 메밀가루로만.)

107035 #2 묵멸초베기.(메밀수제비.)

107035 @ 밀가루는 안 웨고마씨?(밀가루는 안 되고요?)

107035 #1 밀가루로 궁동즈베기 헌 적 엊어. 옛날에 그.(밀가루로 ‘궁동수제비’ 한 적 없어. 옛날에 그.)

107035 #2 피 삭넨.(피 삭는다고.)

107035 #1 묵물, 묵물. 그거 피 삭넨 혜근에 얘기 낳민 곧 궁동즈베기 해당 얘기여명안티 앗다 주구개. 먹으렌.(메밀, 메밀. 그거 피 삭는다고 해서 아기 낳으면 곧 ‘궁동수제비’ 해다가 아기엄마한테 갖다 주고. 먹으라고.)

107035 @ 음음.(음음.)

107035 #1 그 다음부턴 미역국 혜근에 해주곡.(그 다음부턴 미역국 해서 해주고.)

107035 @ 게믄 그 다음 삼춘, 궁동즈베기 할 때는 그냥 뭐 미역을 놓거나 놔빼 이런 것도 안 놓는 거?(그러면 그 다음 삼춘, ‘궁동수제비’ 할 때는 그냥 뭐 미역을 넣거나 무 이런 것도 안 놓는 거?)

107035 #1 아무 것도 안 놓.(아무 것도 안 넣어서.)

107035 @ 일반 저베기 할 때는?(일반 수제비 할 때는?)

107035 #1 일반 저베기 할 땐 그 밀 같은 거.(일반 수제비 할 때는 그 밀 같은 거.)

107035 @ 으.(으.)

107035 #1 저 거세기 이제 그뜨민 밀그르.(저 거시기 이제 같으면 밀가루.)

107035 @ 으.(으.)

107035 #1 그런 거 반죽혜근에 물 끓여놓민 그자 영 영 손으로 반죽해놓은 거 영 손에 심영 닐류멍 영 영 허영 끓여 놓는 거라이. 끓여 놓은에 그디 무시거 건데 기 놓구정 허민 놓곡 말구정 허민 말곡.(그런 거 반죽해서 물 끓여놓으면 그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반죽해놓은 거 이렇게 손에 잡아서 늘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끓여 놓는 거야. 끓여 넣어서 거기 무엇 건더기 넣고자 하면 넣고 말고자 하면 말고.)

107035 @ 아, 놓지 안하고.(아, 넣지 않고.)

107035 #1 늄물이라도 무시거 아무거라도 이녁 놓고 싶은 대로 놔근에 행 먹을 수 잇곡. 묵물 그 궁중즈베기는 무시거 안 낸 기자.(배추라도 무엇 아무거라도 이녁 넣고 싶은 대로 놔서 해서 먹을 수 있고. 메밀 그 ‘궁중수제비’는 무엇 안 놔서 그 저.)

107035 @ 안 놓예? 궁둥즈베기. 저쪽 구좌 가니까 궁둥즈베기이란 말 처음 들여신디 여기 왕은에 또 들엄신게. 여기 완 또 들엄신게. 딱 두 번 들엄수다. 궁둥즈베기.(안 놔서요? ‘궁둥수제비’. 저쪽 구좌 가니까 ‘궁둥수제비’란 말 처음 들었는데 여기 와서 또 듣고 있네. 여기 와서 또 듣고 있는데. 딱 두 번 듣고 있습니다. ‘궁둥수제비’.)

107035 #1 궁둥즈베기.(‘궁둥수제비’.)

107036 @ 그 다음에 칼국수도 했어예? 옛날 무멸칼국수.(그 다음에 칼국수도 했지요? 옛날 메밀칼국수.)

107036 #1 으.(으.)

107036 @ 그건 어떤 식으로 헤여마씨?(그건 어떤 식으로 해요?)

107036 #1 무멸칼국수는 어떻든 간에 끓인물 이만한 돈배. 그런 거에 놔근에 병.(메밀칼국수는 어떻든 간에 끓는물 이만한 도마. 그런 거에 놔서 병.)

107036 @ 음.(음.)

107036 #1 병 가경 막 그거 이제 미는 거라.(병 가져서 막 그거 이제 미는 거야.)

107036 @ 예.

107036 #1 돈배에 놔근에 막 이제 얇게시리. 이치록 이제 이런 식으로 영 영 밀영 밀면은 이거를 이제 영 토막토막 인치록 다 끓는 거라.(도마에 놔서 막 이제 얇게끔. 이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밀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토막토막 이처럼 다 끓는 거야.)

107036 @ 예.(예.)

107036 #1 인치록 크게. 즈근즈근 놔근에 영 영 썰면은 그것이 다 국수처럼 다 썰어. 막 그늘개 하젠 허민 그늘개 썰곡.(이처럼 크게. 차근차근 놔서 이렇게 이렇게 썰면 그것이 다 국수처럼 다 썰어. 아주 가늘개 하려고 하면 가늘개 썰고.)

107036 @ 음.(음.)

107036 #1 보통 하젠 허면 보통으로 썰곡. 물 끓으면은 그것더래 영 영 영 영 헤근에 영 영 골골로 험치 다락 놓면은 범벅지니까.(보통 하려고 하면 보통으로 썰고. 물 끓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한꺼번에 더럭 넣으면 범벅되니까.)

107036 @ 예.(예.)

107036 #1 부령. 골고로 영 영 놔근에 그거 할 때는 불도 와랑와랑 숨아야 돼여. 불 쎈 불이라야.(붙어서.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놔서 그거 할 때는 불도 ‘와랑와랑’ 때야 돼. 불 쎈 불이어야.)

107036 @ 쎈 불이라야.(쎈 불이어야.)

107036 #1 미지근하면은 것이 다 부뜨니까.(미지근하면 것이 다 불으니까.)

107036 @ 예.(예.)

107036 #1 불이 쟤여야. 그 완전 익으면은 안 부뜨는디, 익도 설지도 안헐 때

부뜨주게. 경 허난 거 빨리 익게시리 불 와랑와랑 놔근에 젓어. 닭, 닭죽 헐 때는 뭐 닭으로 헤근에 국수 할 때는 닭 국물 끓이다가 그렇게 해서 놓곡.(불이 세어야. 그 완전 익으면 안 붙는데, 익도 설지도 안할 때 붙지. 그렇게 하니까 거 빨리 익게끔 불 ‘와랑와랑’ 놔서 저어. 닭, 닭죽 할 때는 뭐 닭으로 해서 국수 할 때는 닭 육수 끓이다가 그렇게 해서 넣고.)

107036 @ 음.(음.)

107036 #1 놔난 다음에 닭고기 영 영 찢어논 거 놓곡 허영 경 허영 헤근에 간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 다 그런 식으로라.(놔난 다음에 닭고기 이렇게 이렇게 찢어놓은 거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서 간하면 그것이 이제 뭐 다 그런 식으로야.)

107036 @ 모 물 칼국수예?(메밀칼국수요?)

107036 #1 저 메밀이나.(저 메밀이나.)

107036 @ 메밀이나.(메밀이나.)

107036 #1 메밀은 그거는 이 풀이 좋아서.(메밀은 그거는 이 풀이 좋아서.)

107036 @ 예.(예.)

107036 #1 뭐 물 헉끔 미지근하게만 데워도 반죽이 됨는디 모 물 그르는 물 뜨거워야 됨여.(뭐 물 조금 미지근하게 데워도 반죽이 되는데 메밀가루는 물 뜨거워야 돼.)

107036 @ 아 모 물 그르는예, 게믄 모 물 칼국수는 언제 먹어마씨? 주로.(아 메밀가루는요, 그러면 메밀칼국수는 언제 먹어요? 주로.)

107036 #1 모 물 칼국수는 뭐 주로 뭐 겨울에. 그 겨울에 그거 집의서 그냥 뭐 이녁네 이녁 식구 먹전 그치록 번거롭게 하지 아녀주게. 거 반죽하곡 이거 밀곡 하민이래 그르로 헤영하곡.(메밀칼국수는 뭐 주로 뭐 겨울에. 겨울에 그거 집에서 그냥 뭐 이녁네 이녁 식구 먹으려고 그처럼 번거롭게 하지 않지. 거 반죽하고 이거 밀고 하면 이리로 가루로 하얗고.)

107036 @ 예.(예.)

107036 #1 사람이 여간 아니. 그거 무시거 하니까 뭐 무슨 우리 올히 총회할 때 그 헨에 저.(사람이 여간 아니. 그거 무엇 하니까 뭐 무슨 우리 올해 총회할 때 해서 저.)

107036 #2 특별한 소님이 올 때.(특별한 손님이 올 때.)

107036 @ 아.(아.)

107036 #2 특별한 소님이 올 때.(특별한 손님이 올 때.)

107036 @ 아.(아.)

107036 #1 특별한 날.(특별한 날.)

107036 #2 특별한 날.(특별한 날.)

107036 #1 모 물 이제. ‘모 물국수 할 거여. 오라.’ 경 하주게. 귀하게. 귀하지도 아년 건디 만드는 과정이.(메밀 이제. ‘메밀국수 할 거다. 오라.’ 그렇게 하지. 귀하게. 귀하지도 않은 건데 만드는 과정이.)

107036 @ 맞아예?(맞아요?)

107036 #1 복잡하니까 잘 아녕 먹주게. 계난 특별하게시리 뭐 총회나 이런 사름 하영 올 때는 영 할 때는 특별하게 그런 거 영 헤근에 행 먹곡.(복잡하니까 잘 안 해서 먹지. 그러니까 특별하게끔 뭐 총회나 이런 사람 많이 올 때는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하게 그런 거 이렇게 해서 해서 먹고.)

107036 @ 계난 올해 총회할 때 삼촌이 모를국수행은에.(그러니까 올해 총회할 때 삼촌이 메밀국수해서.)

107036 #1 닭은 없고 꿩. 꿩 대신 닭.(닭은 없고 꿩. 꿩 대신 닭.)

107036 #2 꿩 대신 닭.(꿩 대신 닭.)

107036 @ 원래는 꿩으로 하영 먹어서예?(원래는 꿩으로 많이 먹었지요?)

107036 #1 꿩 대신 닭 헨에 닭 열 마리 헤단 모물그르 서 말인가.(꿩 대신 닭 해서 닭 열 마리 해다가 메밀가루 서 말인가.)

107036 @ 아.(아.)

107036 #1 웬간이 푸지게.(엔간히 푸지게.)

107036 @ 서 말 정도하면 열만큼 했다라는 말이야.(서 말 정도하면 얼마큼 했다는 말이야.)

107036 #1 먹구정현 냥 먹으니까.(먹고자한 대로 먹으니까.)

107036 @ 다른 지역에는 강 보니까 이 모물칼국수 행예 제에도 이렇게 올리고 경 혁디다.(다른 지역에는 가서 보니까 이 메밀칼국수 해서요 제에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합디다.)

107036 #1 제에?(제에?)

107036 @2 맹질하기 전에마씨?(명절하기 전에요?)

107036 #1 맹질하기 전에. 이디는 모멸국수 헤근에 올리지 안 허영 사람이 죽어 근에 죽엉 숨이 떨어질 때 모물쓸 가져근에 죽 췄근에 원미.(명절하기 전에. 여기는 메밀국수 해서 올리지 안 해서 사람이 죽어서 죽어서 숨이 떨어질 때 메밀쌀 가져서 죽 췄서 원미.)

107036 @ 음.(음.)

107036 #1 원미엔 행 죽 올리곡. 또 사름 죽엉 절로 헤영 왈챈 허민 원미 쟁 놔두라. 영 헤근에 모물쌀 헤영 죽 췄근에 했다근에.(원미라고 해서 죽 올리고. 또 사람 죽어서 저리로 해서 오고 있다고 하면 원미 췄서 놔둬라. 이렇게 해서 메밀쌀 해서 죽 췄서 했다가.)

107036 #2 뭐엔 허는고.(뭐라고 하는고.)

107036 #1 캐우리고.(흘뿌리라고.)

107036 @ 캐우리고예? 지금도 그런 식으로 혁니까?(흘뿌리라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107036 #1 지금도 경 허주.(지금도 그렇게 하지.)

107036 @ 아아.(아아.)

107036 #1 영장 곧 하면은 풋죽 쟁 먹곡.(장례 곧 하면 팔죽 쬐서 먹고.)

107036 @ 예.

107036 #1 그 상에는 원미 쬐근에 올려.(그 상에는 원미 쬐서 올려.)

107036 @ 그것도 뒤에도 다 잇수다. 잠깐 쉬쿠다. 너미 하영 헤부난 미안해여.
(그것도 뒤에도 다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미안해서.)

107036 #1 그만 허주, 오늘랑.(그만 하지, 오늘은.)

107036 @ 그만허카마씨?(그만할까요?)

김치

107037 @ 이제는예, 지난번에 범벅까지 얘길 해신디 오늘은 짐치.(이제는요, 지난번에 범벅까지 얘길 했는데 오늘은 김치.)

107037 #1 김치.(김치.)

107037 @ 여기 김치를 여기서 뭐렌 헙니까.(여기 김치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07037 #1 그냥 짐치.(그냥 김치.)

107037 @ 그냥 짐치. 김치 헙니까? 짐치હング니까? 짐끼 헙니까?(그냥 김치. 김치 합니까? ‘짐치’ 합니까? ‘짐끼’ 합니까?)

107037 #1 그냥 여기 김치.(그냥 여기 김치.)

107037 @ 그 김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신고예?(그 김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가요?)

107037 #1 옛날?(옛날?)

107037 @ 예.(예.)

107037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7037 @ 으.(으.)

107037 #1 저 우리 두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쯤인가 그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네 우리 우잣이 막 너르니까. 거기 누풀 누풀 옛날 씨도 좋지 아년 때 허는 거 허난 퍼데기¹⁶⁸⁾주게.(저 우리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쯤인가 그때 보면 우리 어머니네 우리 텃밭이 매우 너르니까. 거기 배추 배추 옛날 씨도 좋지 않은 때 하는 거 하니까 ‘퍼데기’지.)

107037 @ 예, 예.(예, 예.)

107037 #1 퍼데기 그 김치 헤근에 그거 캐영 이제 바당 그땐 소금이 귀하니까.(‘퍼데기’ 그 김치 해서 그거 캐서 이제 바다 그땐 소금이 귀하니까.)

107037 @ 음.(음.)

107037 #1 바당에 강은에 짠물 질어당.(바다에 가서 짠물 길어다가.)

107037 @ 예.(예.)

107037 #1 그것에 소금 쪼금 타근에 절여근에 절영 싯지는 것도 바당에 경강

168) ‘퍼데기’는 속이 차지 않는 배추를 말한다.

싯정 왕은에 김치를 담그는디 그 옛날에는 멜덜 막 그 바당에 잘 올르난 멜 그때
해당은에 멜젓 햇당 그거 하고 집에 고치.(그것에 소금 조금 타서 절여서 절여서 쟇
는 것도 바다에 젓가서 쟇어서 와서 김치를 담그는데 그 옛날에는 멸치들 막 그 바
다에 잘 오르니까 멸치 그때 했다가 멸치젓 했다가 그거 하고 집에 고추.)

107037 @ 예.(예.)

107037 #1 이젠 고추엔 허주마는 그땐 고치 고치 햇주게. 고치이.(이젠 고추라
고 하지만 그땐 ‘고치’ ‘고치’ 했지. ‘고치’.)

107037 @ 예.(예.)

107037 #1 고치 그거 파랑현 거 그 반은 익고 반은 선 것도 오래 놔두면은 혜
영허게 바라근에 막 하는 거. 우리 어머니네 보면 그거 말료근에 보깡.(고추 그거
파란 거 그 반은 익고 반은 선 것도 오래 놔두면 하얗게 바래서 막 하는 거. 우리
어머니네 보면 그거 말려서 볶아서.)

107037 @ 예.(예.)

107037 #1 솟두껑에 영 헤근에 솟두껑 그거 보까근에 방에에 빛양 입 막 막양
은에 방에에 빛아근에.(솔뚜껑에 이렇게 해서 솔뚜껑 그거 볶아서 방아에 빻아서 입
막 막아서 방아에 빻아서.)

107037 @ 음.(음.)

107037 #1 그거 혜영 멜젓 혜영 옛날 집에 담아논 멜젓 딸령 그것에 퀘 놓곡.
집에 농사진 거 퀘 놓곡. 옛날에는 미원 엇이난.(그거 해서 멸치젓 해서 옛날 집에
담가놓은 멸치젓 달여서 그것에 참깨 넣고. 집에 농사지은 거 참깨 넣고. 옛날에는
미원 없으니까.)

107037 @ 음.(음.)

107037 #1 퀘하고 고치만 놔근에 기자 혜영 벼무령.(참깨하고 고추만 놔서 그저
해서 벼무려서.)

107037 @ 그 짐치를 무신 짐치해마씨?(그 김치를 무슨 김치해요?)

107037 #1 기자 기냥 김치, 김치 허멍 혜신디 뭐 벨다르게시리 뭐 딴 김치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엇인디.(그저 그냥 김치, 김치 하면서 했는데 뭐 별다르게끔 뭐 딴
김치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107037 @ 아, 그냥 페데기누물 행은에 이제 그냥 짐치?(아, 그냥 ‘페데기배추’
해서 이제 그냥 김치?)

107037 #1 옛날은 배추도 씨가 나쁘니까 속이 안 앗아. 암만 걸러도 그거 둋가
레 그거 혜당 막 걸놔도 씹만 새파랑현 씹만 이만씩 허주. 이 혜양한 속은 앗질 아
녀. 경 혜도 캐면은 이만이 허여. 페데기.(옛날은 배추도 씨가 나쁘니까 속이 안 앗
아. 암만 걸러도 그거 돋지거름 그거 해다가 막 걸러도 일만 새파란 일만 이만큼씩
하지. 이 하얀 속은 앗질 않아. 그렇게 해도 캐면 이만큼 해. ‘페데기’.)

107037 @ 그 누물로만 짐치를 헌 거라마씨?(그 배추로만 김치를 헌 거라고요?)

107037 #1 음.(음.)

107037 @ 춤느물 이런 거는 안하고.(무 일 이런 거는 안하고.)

107037 #1 춤느물은 이제.(무 일은 이제.)

107037 #2 늄삐김치.(무김치.)

107037 #1 늄삐김치엔 햇주. 늄삐 그거 혜영케 벼무령 그자 경 혀영 허고.(무김치라고 했지. 무 그거 하얗게 벼무려서 그저 그렇게 해서 하고.)

107039 @ 요즘 열무짐치 허지 않습니까예?(요즘 열무김치 하지 않습니까요?)

107039 #1 으.(으..)

107039 @ 그런 것도 옛날도 혜신가마씨?(그런 것도 옛날에 했는가요?)

107039 #1 옛날은 열무짐치엔 하지 아녕 무수 그 썹 끓어근에. 그거 혜근에 그땐 김치명 말명 소금물에 담가근에 경 했다근에 겨울 뒤면은.(옛날은 열무김치라고 하지 않아서 무 그 일 끓어다가. 그거 해서 그땐 김치며 말며 소금물에 담가서 그렇게 했다가 겨울 되면.)

107039 @ 으.(으..)

107039 #1 감자. 그땐 감자가. 이 고구마이. 이제 그뜨민. 감자가 주로 양식으로 그때 먹을 때는 우리는 경 안 햇주마는 딴 집덜 보면 감자를 두말떼기¹⁶⁹⁾로 두말떼기로 하나.(고구마. 그땐 고구마가. 이 고구마. 이제 같으면. 고구마가 주로 양식으로 그때 먹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만 딴 집들 보면 고구마를 ‘두말떼기’로 ‘두말떼기’로 하나.)

107039 @ 음.(음..)

107039 #1 숲양.(삶아서..)

107039 @ 예.(예..)

107039 #1 쭤. 그거 혜근에 뭐 낭푼 그런 것이 아니고 차롱.(쪄서. 그거 해서 뭐 양푼 그런 것이 아니고 채롱.)

107039 @ 예.(예..)

107039 #1 이런 차롱으로 내여당 놓. 그 차롱으로 소빡 감자 하나 내여당 놓 무수 이파리 소금물에 담갓당 거 그거 하명 그 감자 다 먹어낫어.(이런 채롱으로 내어다가 놔서. 그 채롱으로 가득 고구마 하나 내어다가 놔서 무 이파리 소금물에 담갔다가 거 그거 하면서 그 고구마 다 먹었었어.)

107039 @ 그 무수 이파리 해갖고 소금물에 둉근 거는 뭐렌 불련마씨? 그때는.(그 무 이파리 해갖고 소금물에 담근 거는 뭐라고 불렸어요? 그때는.)

107039 #1 그자 소금물에 담갓텐만 혜영 그거 김치. 춤느물짐치¹⁷⁰⁾ 가정오라, 가져오라.(그저 소금물에 담갔다고만 해서 ‘춤느물김치’ 가져오라, 가져오라.)

107039 @ 춤느물짐치 그 말이 필요헌 거.(‘춤느물짐치’ 그 말이 필요한 거.)

107039 #1 춤느물김치 가져오라고. 거 배추짐치는 그거 좋은 김치로 생각해연감저 먹을 때는 그 그 김치를 안 먹고.(‘춤느물김치’ 가져오라고. 거 배추김치는 생

169) ‘두말떼기’는 쌀 두 말 어치 드는 솔을 말한다.

170) ‘춤느물짐치’는 열무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각해서 고구마 먹을 때는 그 그 김치를 안 먹고.)

107039 @ 예.(예.)

107039 #1 그 춤느물짐치 먹고. 저 밥 같은 거 기자 영 허영 소님이나 오곡 허면은 그거 배추짐치 혜연 그거 혜연 먹꼭.(그 ‘춤느물짐치’ 먹고. 저 밥 같은 거 그저 이렇게 해서 손님이나 오고 하면 그거 배추김치 해서 그거 해서 먹고.)

107040 @ 그 다음 물짐치도 햇수가?(그 다음 물김치도 했습니까?)

107040 #1 그 옛날에는 물김치 다 출리명 해 먹지 못했주.(그 옛날에는 물김치 다 차리면서 해 먹지 못했지.)

107040 @ 옛날에.(옛날에.)

107040 #1 이 중간쯤 웨난에 물김치여 무시거여 혜연 먹어신디.(이 중간쯤 되니까 물김치다 무엇이다 해서 먹었는데.)

107041 @ 옛날 동지짐치도.(옛날 동지김치도.)

107041 #1 여긴 동지짐치¹⁷¹⁾ 안 뭔게. 우리 혜보난.(여긴 ‘동지짐치’ 안 되던데. 우리 혜보니까.)

107041 @ 무산고예?(뭘까요?)

107041 #1 소금물 헨에 그거 혜연 당가노난 갓 쓰멍 기후가 막 춥지 안 하니까 안 웨연 웨연. 안 웨연. 갓.(소금물 해서 그거 해서 담가놓으니까 골마지 쓰면서 기후가 아주 춥지 안 하니까 안 됐어, 안 됐어. 골마지.)

107041 #1 그 국물이 말깡해야 웨는디 갓 우에 곰팡이 짹 피연에 안 웨연. 우리 그때 우리 어머니네 허여보단 따시 안 헨게.(그 국물이 말끔해야 되는데 골마지 위에 곰팡이 짹 피어서 안 됐어. 우리 그때 우리 어머니네 해보다가 다시 안 하던데.)

107041 @ 동지짐치예, 삼춘네도 허여보지 아녀고?(‘동지김치’요, 삼춘네도 해보지지 안하고?)

107041 #1 여기가 웨지 안 허여 그 김치가.(여기가 되지 안 해. 그 김치가.)

107041 @ 그것도 지역에 따랑 트나다예?(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네요?)

107041 #1 육지는 나도 부산도 살아보고 혜신디. 육지는 소금물 혜영은에 그거 혜영 담강 놔두면은 국물이 말깡하고 무수 꺼내당은에 썰어근에 그 물 그거 담가논 물 겨울에 쯤은 거기 상강이 얼음 그거 영 하민 그거 얼음이영 그 물이영 떠다 놓아 그거 영 영 썰어놔근에 혜영 그 국물에 그 무수에 경 혜영 먹으니까 씨원헨 좋아신디.(육지는 나도 부산도 살아보고 했는데. 육지는 소금물 해서 그거 해서 담가서 놔두면 국물이 말끔하고 무 꺼내다가 썰어서 그 물 그거 담가놓은 물 겨울에 쯤은 거기 상강이 얼음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거 얼음이랑 그 물이랑 떠다 놓아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썰어놔서 해서 그 국물에 그 무에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시원해서 좋았는데.)

107041 @ 음.(음.)

171) ‘동지짐치’는 배추나 무 동으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구술자는 ‘동지짐치’를 ‘동치미’로 받아들였다. ‘동지짐치’를 표선리에서는 ‘동김치’라고 하였다.

107041 #1 그 육지 부산 살 때 나가 경 해난 이디 완에 하니까 안 뛰연.(그 육지 부산 살 때 내가 그렇게 해나니까 여기 와서 하니까 안 되었어.)

107041 @ 음, 건 동치미고 삼촌. 그 웨 배추, 배추 햇당 나중에 올라온 꽃 피전 하면 봄에 올라오잖아예?(음, 건 동치미고. 삼촌. 그 외 배추, 배추 했다가 나중에 올라온 꽃 피려고 하면 봄에 올라오잖아요?)

107041 #1 동김치.(‘동김치’.)

107041 @ 아, 여기서는 동김치협니까?(아, 여기서는 ‘동김치’합니까?)

107041 #1 동김치.(동김치.)

107041 @ 그거를 동지. 우리 시에서는 동지김치 하는데 동침치.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우과?(그거를 동지. 우리 시에서는 ‘동지김치’ 하는데 ‘동김치’.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41 #1 건 동 올라온 거 딱딱 껴꺼근에 양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건 동 올라온 거 딱딱 꺾어서 양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107041 @ 똑같이 하는데.(똑같이 하는데.)

107041 #1 무수라부난 안 뛰는 모양. 무수 통차 놓는 거 아니? 동침치. 요만씩 한 거 적당한 걸로만 골라가지고 경 헌디 우의 막 갓 쟁 곰 피연.(무여버리니까 안 되는 모양. 통째 놓는 거 아니? ‘동김치’. 요만씩 한 거 적당한 걸로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위에 막 골마지 써서 곰팡이 피었어.)

107041 @ 곰 피연. 맞수다.(곰팡이 피어서. 맞습니다.)

107041 #2 무수 통채로 고고김치¹⁷²⁾. 조체 놔서 말이지 묻었다 말여. 여기서 고고김치 모르지예?(무 통째로 ‘고고김치’. 조겨 놔서 말이지 묻었다가 말야. 여기서 ‘고고김치’ 모르지요?)

107041 @ 예, 예.(예, 예.)

107041 #2 여기서 말하는 다팽.(여기서 말하는 단무지.

107041 #1 다팽, 다팽.(단무지, 단무지.)

107041 @ 여기서 어떤 식으로 현 거라마씨?(여기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107041 #2 조체. 조체. 조체에 소금에 해서 오래 놔두면은 발갛게 물들면.(조겨, 조겨. 조겨에 소금에 해서 오래 놔두면 발갛게 물들면.)

107041 #1 조, 조, 색깔 나주게. 그 다팽이.(조, 조, 색깔 나지. 그 단무지가.)

107041 @ 으.(으.)

107041 #1 경 해근에 꺼내근에.(그렇게 해서 꺼내서.)

107041 #2 것보고 여기서 고고침치. 고고침치.(것보고 여기서 ‘고고김치’ ‘고고김치’.)

107041 @ 고고침치렌 혜예?(‘고고김치’라고 한다고요?)

107041 @2 고고.(고고.)

172) ‘고고김치’는 표선리에서 ‘단무지’를 이르는 말이다. 조겨에 소금을 뿐린 무를 넣어서 익혀서 먹는 음식이다.

107041 @ 고고김치. 어.(‘고고김치’. 어.)

107041 #2 그래서 부산 가서 잇을 때 저 짜장면 집에 가서 인제 허는데 그 다꽝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가 고고김치 더 가져오세요? 허니까 못 알아먹언.(그래서 부산 가서 있을 때 짜장면 집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 단무지가 나오니까 우리 친구가 ‘고고김치’ 더 가져오세요? 하니까 못 알아먹었어.)

107041 #1 웃음.(웃음.)

107041 #2 나가 해석해줘낫어.(내가 해석해줬었어.)

107041 #1 웃음.(웃음.)

107041 @ 아, 옛날부터 조침이.(아, 옛날부터 조짚이.)

107041 #1 조침이 아니. 조체. 조를 갈아근에 하면은 쌀은 쌀 대로 체는 체. 체를 가정 소금에 버물여근에 그것도 같이 버무령. 버무령.(조짚이 아니. 조겨. 조를 갈아서 하면 쌀은 쌀 대로 겨는 겨. 겨를 가져서 소금에 버무려서 그것도 같이 버무려서. 버무려서.)

107041 #2 둔어 놔두면은.(둔어 놔두면.)

107041 #1 둔엉 놔두면은 색이 좁쌀 색깔.(둔어서 놔두면 색이 좁쌀 색깔.)

107041 @ 예. 이 고고김치엔 헌 말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수다.(예. 이 ‘고고김치’라고 한 말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107041 @2 처음.(처음.)

107041 #1 그것도 아무 집이나 안 혀영 정신 출령 사는 집이나 헨 먹엇주. 그냥은 김치랑 마랑 훈장도 엇언에 훈장 다 빌레 다니고. 훈장.(그것도 아무 집이나 안 해서 정신 차려서 사는 집이나 해서 먹었지. 그냥은 김치랑 마랑 된장도 없어서 된장 다 빌려 다니고. 된장.)

107041 @ 맞수다.(맞습니다.)

107041 #1 옛날은 하루 일 해찧 훈장 혼 사발. 혼 사발 빌어단 먹엇어.(옛날은 하루 일 해줘서 된장 한 사발. 된장 한 사발 빌려다가 먹었어.)

107042 @ 계문 이쪽에가 늄빼를 하영 갈았수가?(그러면 이쪽이 무를 많이 갈았습니까?)

107042 #1 늄빼. 이제 영 우잣 이신 디는 늄빼 갈안 먹엉 신디 밧 엇인 우잣 엇인 사름들은 가시리 쪽에 가민 풀김치. 풀김치가 아니고.(무. 이제 이렇게 텃밭 있는 데는 무 같아서 먹어서 있는데 밭 없는 텃밭 없는 사람들은 가시리 쪽에 가면 ‘풀김치’. ‘풀김치’가 아니고.)

107042 #1 그 풀느물. 풀느물 하면은 무수가 무수차 다 캐여다근에 그거 가져근에 이제 소금물에 담갓당은에 경 혀영 먹고.(그 풋나물. 풋나물 하면서 무가 무째다 캐다가 그거 가져서 이제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렇게 해서 먹고.)

107042 @ 음.(음.)

107042 #2 여긴 늄빼가 두 가지렌 허는데. 단지 늄빼¹⁷³⁾라고 허고.(여기 무가 두

173) ‘단지 늄빼’는 무의 일종으로, 단지 모양으로 생긴 무를 말한다.

가지라고 하는데. ‘단지무’라고 하고.)

107042 @ 예, 예. 쉐뿔님빼 하고.(예, 예. ‘쇠뿔무’.)

107042 #1 쉐뿔님빼¹⁷⁴⁾.(‘쇠뿔무’.)

107042 #2 기다란 거 놈빼. 땅속에 들어간 건 단지님빼.(기다란 거 무. 땅속에 들어간 건 ‘단지무’.)

107042 #2 단지님빼.(‘단지무’.)

107042 @ 고고김치는 어떤 걸로?(‘고고김치’는 어떤 걸로?)

107043 @ 그 다음 삼촌, 여기 파김치도 험니까?(그 다음, 삼촌 여기 파김치도 합니까?)

107043 #1 그 당시는 파지덜 막 유행. 다 집집마다 다 행 먹었어.(그 당시는 파김치들 아주 유행. 다 집집마다 다 해서 먹었어.)

107043 @ 근데 무사 다른 거는 짐치 허는디 파김치엔 안 허영 파지렌 험신고 예?(근데 왜 다른 거는 김치 하는데 파김치라고 안 해서 ‘파지’라고 하고 있을까요?)

107043 #1 파로 하니까 파지엔 험실 테주. 글자 하나 빼여불면은 곤기도 쉽고 시간도 절약돼고.(파로 하니까 파지라고 하고 있을 테지. 글자 하나 빼버리면 말하기도 쉽고 시간도 절약되고.)

107043 @ 그것도 똑그찌 김치허는 양념으로 허는 거지예?(그것도 똑같이 김치하는 양념으로 하는 거지요?)

107043 #1 것도 김치 양념으로 다 허는 거.(것도 김치 양념으로 다 하는 거.)

107044 @ 옛날 여기는 달래를 이 동넨 뭐렌 험니까?(옛날 여기는 달래를 이 동넨 뭐라고 합니까?)

107044 #1 저.(저.)

107044 #2 꿩마농.(‘꿩마농’.)

107044 #1 드릇마농.(달래.)

107044 #2 꿩마농.(달래.)

107044 #1 꿩마농엔도 허고 드릇마늘이렌도 허곡.(‘꿩마농’이라고도 하고 ‘드릇마늘’이라고도 하고.)

107044 @ 꿩마농 헤갖고도 짐치 헤난마씨?(달래 해갖고도 김치 했었어요?)

107044 #1 꿩마농은 헤근에 강 캐여당. 드르에 나강은에 거 문딱 캐영은에 뱃디 농사 아년디 보리 안 갈곡 헌 디 가근에 거 캐여근에 조근조근해영 주지¹⁷⁵⁾ 만들엉이.(달래는 해서 가서 캐어다가. 들에 나가서 거 몽땅 캐서 밭에 농사 않은데 보리 안 같고 한 테 가서 거 캐서 차근차근해서 ‘주지’ 만들어서.)

107044 @ 예.(예.)

107044 #1 저 소라껍데기처럼 이렇게 영 허영 영 만들엉은에 소금물에 그냥 담

174) ‘쉐뿔님빼’는 무의 일종으로, 쇠의 뿔 모양으로 생긴 무를 말한다.

175) ‘주지’는 기다란 것을 한 테 그러모아 매듭을 지은 것을 말한다.

강.(저 소라껍데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소금물에 그냥 담가서.)

107044 @ 예.(예.)

107044 #1 담강 돌 지들낳 낫다근에 그 우터레 소금물 올라오게끔 돌 지들낳당 은에 그거 주지. 영 주지처럼 물았던 허영 주지 주지 혜낫주게. 그거 ㅎ나씩 꺼내당 먹어.(담가서 돌 지질렀다가 놔둬서 그 위로 소금물 올라오게끔 돌 지질렀다가 그거 ‘주지’. 이렇게 ‘주지’처럼 말았다고 해서 ‘주지’, ‘주지’ 했었지. 그거 하나씩 꺼내다가 먹어.)

107044 @ 그거는 무신거렌 혜여? 그 이름은.(그거는 무엇이라고 해? 그 이름은.)

107044 #1 그 이름은 그자 드릇마늘 그거 저.(그 이름은 그저 달래 그거 저.)

107044 #2 마늘지, 마늘지.(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107044 #1 마늘지 가정 오렌 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혜여근에 그 그자.(마늘장아찌 가져오라고 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그자.)

107045 @ 여기는 갓을 뭐렌 협니까?(여기는 갓을 뭐라 합니까?)

107045 #1 갓. 머리에 쓰는 갓?(머리에 쓰는 갓?)

107045 @ 아니, 김치 허는 갓.(아니, 김치 하는 갓.)

107045 #2 김치 갓김치.(김치 갓김치.)

107045 #1 아, 갓김치.(아, 갓김치.)

107045 #2 것보고 뭐렌 혘다마는.(것보고 뭐라고 한다만.)

107045 #1 그 당시 때는 갓김치 햇어?(그 당시 때는 갓김치 했어.)

107045 #2 막 독현 거 이십니까.(아주 독한 거 있습니다.)

107045 #1 거세기. 무신, 아이고.(거시기. 무슨, 아이고.)

107045 #2 칼진 안 하고 드르에 나는 거 캐여당.(칼진 안 하고 들에 나는 거 캐여다가.)

107045 #1 갯느물.(갓.)

107045 #2 갯느물.(갓.)

107045 #1 갯느물짐치엔 혜근에 막끗데덜은 갓김치엔 그자 그런 대로들 굽앗 주.(갓김치라고 해서 마지막에들은 갓김치라고 그저 그런 대로들 말했지.)

107045 #2 돌산에서 전라도 그디서 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갓김치렌 말은 엿엇어.(돌산에서 전라도 거기서 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갓김치라는 말은 없었어.)

107045 @ 없었주마씨. 우리 같은 경우는 갯느물짐치예?(없었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갓느물짐치’요?)

107045 #1 갯느물짐치.(갓김치.)

107046 @ 예, 예. 새우리짐치도 햇지예?(예, 예. 부추김치도 했지요?)

107046 #1 새우리.(부추.)

107046 @ 새우리짐치는 어느 철에 허는 거우파?(부추김치는 어느 철에 하는 겁니까?)

107046 #1 새우리짐치는 여름철이주게 그거는 봄 나근에 가을까진디 겨울에는 사라졌 엇이니까 김치명 말멍 그거 혜영 비영 데우청은에 그자 혜영 영 그때는 게도 간장, 조선간장.(부추김치는 여름철이지. 그거는 봄 되어서 가을까진데 겨울에는 사라져서 없으니까 김치며 말며 그거 해서 베어서 데쳐서 그저 해서 이렇게 그때는 그래도 간장, 조선간장.)

107046 @ 예.(예.)

107046 #1 그거 놓곡 기자 고쳤으르 깻으르 냉은에 무청도 먹곡. 하영 갈지 아녕 이녁 집의 대충 영 이녁 집의 먹을 만씩만 갈앙 허면은 자리물훼 하는 물훼 하는 디 틀채 하는 디.(그거 놓고 그저 고춧가루 깻소금 넣어서 무쳐서도 먹고. 많이 갈지 않아서 이녁 집에 대충 이렇게 이녁 집에 먹을 만씩만 갈아서 하면 ‘자리물회’ 하는 물회 하는 데 ‘틀채’ 하는 데.)

107046 #2 냉국.(냉국.)

107046 #1 냉국덜 하는디 그 새우리는 꼭 들어가야 돼여.(냉국들 하는데 그 부추는 꼭 들어가야 되어.)

107046 @ 경 해야 맛이 구수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배추김치 담그는 거 말해줬고예?(그렇게 해야 맛이 구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배추김치 담그는 거 말해줬고요?)

107047 @ 늄삐짐치 담글 때 그 순서?(무김치 담글 때 그 순서?)

107047 #1 늄삐김치도 늄삐를 해서 겨울에 하니까 줄게 썰지 아녕은에 주먹 이만씩 막(무김치도 무를 해서 겨울에 하니까 잘게 썰지 않고 주먹 이만큼씩 막.)

107047 @ 이만씩.(이만씩.)

107047 @ 주먹 만씩.(주먹 만씩.)

107047 #1 썰어근에 그거 김치 하는 양념 그냥 그거 버무려근에 담아근에 뭐 그거 돌 지둘왕 그 바당에 가민 돌 곱닥곱닥한 거 봐지민 다 봉강오주게.(썰어서 그거 김치 하는 양념 그냥 그거 버무려서 담아서 뭐 그거 돌 지질러서 그 바다에 가면 돌 곱닥곱닥한 거 봐지면 다 주워오지.)

107047 @ 예.(예.)

107047 #1 자리젓 할 때 지둘르고 멜젓할 때 지둘르고 그 우터레 물이 안 올라오면은 그 우의 거는 변하니까.(자리젓 할 때 지지르고 멸치젓 할 때 지지르로 그 위로 물이 안 올라오면 그 위에 거는 변하니까.)

107047 #1 물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돌로 지둘르는 거라.(물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돌로 지지르는 거야.)

107047 #2 늄삐짐치를 배추김치 헐 때 중간에 흐나씩 놓디다.(무짐치를 배추김치 할 때 중간에 하나씩 놓디다.)

107047 #1 그 저 무신거.(그 저 무엇.)

107047 @ 건 뭐우과?(건 립니까?)

107047 #1 배추 혼 도리 놔낳은에 그거는 양념 따로 아니 행 헤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배추김치 영 헤 냥 그 우의 무수 기냥.(배추 한 도리 놔놔서 그거는 양념 따로 아니 해서 해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배추김치 이렇게 해 놓아서 그 위에 무 그냥.)

107047 @ 예.(예.)

107047 #1 무수 기냥 썰어근에 그냥 간 안 허영.(무 그냥 썰어서 그냥 간 안 해서.)

107047 #2 이만큼씩 썰엉.(이만큼씩 썰어서.)

107047 @ 아아.(아아.)

107047 #1 훅개 썰어근에 그냥 그거 놔근에 우의 김치 영 영 하면은 배추김치에 양념이 무수에 들어가근에 그렇게 씨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 그 옛날엔 지금은 경 행 먹어도 맛엇일 거우다.(굵게 썰어서 그냥 그거 놔서 위에 김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배추김치에 양념이 무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 그 옛날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먹어도 맛없을 겁니다.)

107047 @ 웃음. 옛날에는.(웃음. 옛날에는.)

107047 #2 아아.(아아.)

107047 #1 입이 틀려부니까 옛날에는 맛잇어나신디 그거 꺼냉 그냥 막 영 허영 끊으명 먹곡 경 아녀민 영 썰어근에 먹기도 하고 경 헤근에.(입이 달라버리니까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그거 꺼내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끊으면서 먹고 그렇게 안하면 이렇게 썰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07047 @ 경 헤근에 이제.(그렇게 해서 이제.)

107047 #1 김치 그것도 사는 집덜이나 다 촉례 출려근에 햇주.(김치 그것도 사는 집들이나 다 차례 차려서 했지.)

107047 @ 맞수다.(맞습니다.)

107047 #1 경 아년 디 그냥 무신 짐치. 그냥 닥치는 냥 기자 바당에 강 톤클도 기자 헤다근에 반찬헤근에 먹곡. 무시거 특별하게시리 경 막 밥만 갑자 놔근에 조밥만 해도 반찬 엇이 밥 먹어신디.(그렇게 않은 데 그냥 무슨 김치. 그냥 닥치는 대로 그저 바다에 가서 톳도 그저 해다가 반찬해서 먹고. 무엇 특별하게끔 그렇게 막 밥만 고구마 놔서 조밥만 해도 반찬 없이 밥 먹었는데.)

젓갈

107048 @ 맞수다. 이제는 젓갈, 젓갈은 여기에서는 어떤 젓갈 어떤 젓갈 해서 먹어신고예?(맞습니다. 이제는 젓갈, 젓갈은 여기에서는 어떤 젓갈 어떤 젓갈 해서 먹었는가요?)

107048 #1 여기는 그때는 저 뭐 벨 반찬이 없으니까 자리철 나면은. 그땐 옛날엔 술춘¹⁷⁶⁾ 영현 것이 잊어낫어.(여기는 그때는 저 뭐 벨 반찬이 없으니까 자리돔

176) ‘술춘’은 술은 담는 항아리를 말한다. ‘술춘’의 ‘춘’은 한자이 ‘준(樽)’에서 온 말이다.

철 나면은. 그땐 옛날엔 ‘술준’ 이렇게 한 거 있었었어.)

107048 @ 술춘예.(‘술준’.)

107048 #1 술춘.(‘술준’.)

107048 @ 으.(으.)

107048 #1 그 술춘 헤근에 그 단지덜이 없으니까 그 술춘은 요만은뺏고 안 하주게.(그 ‘술준’ 해서 그 단지들이 없으니까 그 ‘술춘’은 요만큼밖에 안 하지.)

107048 @ 으, 입구가예?(으, 입구예요?)

107048 #1 술 들어가곡 나올 정도로만 헌디, 그걸 뻥하게 요만큼 널르게 만들엉.(술 들어가고 나올 정도로만 하는데, 그걸 뻥하게 요만큼 너르게 만들어서.)

107048 @ 음.(음.)

107048 #1 경 헤근에 거기에 이제 그 그때 옛날에는 자리.(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그때 옛날에는 자리돔.)

107048 @ 예.(예.)

107048 #1 자리젓이 젤이 큰 반찬.(자리젓이 젤 큰 반찬.)

107048 @ 음.(음.)

107048 #1 거 쪼끔 산덴 하는 집의나 자리젓 하주. 경 아년 집은 자리젓도 못 행 먹어.(거 조금 산다고 하는 집에나 자리젓 많이. 그렇게 않은 집은 자리젓도 못 해서 먹어.)

107048 @ 음.(음.)

107048 #1 자리젓 헨에 그 술춘으로 보면은 우리 집의는 두 개씩. 사람, 인부를 빌어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치록 헤근에 혜영 이제 돌 지둘왕 무신거 영 우의 무시거 대나무껍덜인가 그런 거 어떻든 간에 우의 놔근에 돌 지둘왕근에 놔두면 국물이 영 올라왕 허믄 자리젓 잘 익으면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없어.(자리젓 해서 그 ‘술준’으로 보면 우리 집에는 두 개씩. 사람, 인부를 빌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처럼 해서 해서 이제 돌 지질러서 무엇 이렇게 위에 무엇 맷잎들인가 그런 거 어떻든 간에 위에 놔서 돌 지질러서 놔두면 국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리젓 잘 익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107048 @ 예.(예.)

107048 #1 옛날 어른덜 담은 자리젓 자리젓이 맛있어.(옛날 어른들 담근 자리젓, 자리젓이 맛있어.)

107048 @ 음.(음.)

107048 #1 지금.(지금.)

107048 #2 게난 식구들 많은 데는예.(그러니까 식구들 많은 데는요.)

107048 @ 예.(예.)

107048 #2 밥 먹을 때 그 어멍이 ㅎ나씩 배급해줘.(밥 먹을 때 그 어머니가 하나씩 배급해줘.)

107048 @ 음. 웃음.(음. 웃음.)

107048 #1 자리젓 ほ나민 밥 ほ 긴 먹엇주게.(자리젓 하나면 밥 한 끼는 먹었지.)

107048 #2 ほ나씩 배급해 Zheng 더 이상 못 먹고.(하나씩 배급해줘서 더 이상 못 먹고.)

107048 @ 더 이상 못 먹게. 웃음.(더 이상 못 먹게. 웃음.)

107048 #1 두 개 세 개 막 먹챙 그때 그거 욕심으로 막 먹젠 허곡. 저 멜을 멜 것 잇는디 멜은 이제 저디 그때는 지금 닮지 아녕 ほ꼼만 물끼 훠민 물 깊으게 들어왔당 나가불민 통에.(두 개 세 개 막 먹으려고 그때 그거 욕심으로 막 먹으려고 하고. 저 멀치를 멀치것 있는데 멀치는 이제 저기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아서 조금만 물때 되면 물 깊게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통에.)

107048 @ 예.(예.)

107048 #1 멜덜 미쳐 못 나간 거. 그런 것덜 막 강 뭐 대체니 이만한 차롱이니 무시거 아경강 영 영 거령 거 돈 쟁 사지 아녕 경 해근에.(멀치를 미쳐 못 나간 거. 그런 것들 막 가서 뭐 대체니 이만한 채롱이니 무엇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떠서 거 돈 줘서 사지 않고 그렇게 해서.)

107048 #2 경 헌디양 표선이가 그 당시에 꿩장히 인심이 좋았다는 것이.(그렇게 했는데요 표선리가 그 당시에 꿩장히 인심이 좋았다는 것이.)

107048 @ 예.(예.)

107048 #2 바다에 갯돕¹⁷⁷⁾이란 데가 잇수다개, 통.(바다에 ‘갯돕’이란 데가 있습니다, 통.)

107048 @ 예, 갯돕.(예, ‘갯돕’.)

107048 #2 어, 갯돕이란 그 통에 멜이 잘 들어.(어, ‘갯돕’이란 그 통에 멀치가 잘 들어.)

107048 @ 갯돕.(‘갯돕’.)

107048 #2 멜이 들었다가 물 싸면 멜이 잇으면은 발견한 사람이 자기만 잡젠 허지 아녕 막 돌아오랑 ‘멜 들었저’ ‘멜 들었저’ 다 가서 멜 잡으라고. 경 해연 まち 간 경 잡았지. 이녁 혼자 잡젠 안 햇수다.(멀치가 들었다가 물 써면 멀치가 있으면 발견한 사람이 자기만 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막 달려와서 ‘멸치 들었다’ ‘멸치 들었다’ 다 가서 멀치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그렇게 잡았지. 이녁 혼자 잡으려고 안 했습니다.)

107048@ 예.(예.)

107048#2 옛날 풍습이 계난 딴 마을보다 특이한 게 그거라.(옛날 풍습이 그러니까 딴 마을보다 특이한 게 그거야.)

107048@ 예. 딴 동네도예 그치록 현덴.(예. 딴 동네도요 그처럼 한다고.)

107048#2 갯돕이렌 그디.(‘갯돕’이라고 거기.)

107048@ 갯돕.(‘갯돕’.)

177) ‘갯돕’은 표선리의 지명 이름이다.

107048 #1 게고 저 우리 두린 때 보민 반치.(그리고 저 우리 어릴 때 보면 파초.)

107048 @ 예.(예.)

107048 #1 반치엔 헌 거 알아쳐?(파초라고 한 거 알겠어?)

10704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48 #1 바나나 그 낭 닮은 반치.(바나나 그 나무 같은 파초.)

107048 @ 예.(예.)

107048 #1 반치 해근에 그 썹 다 끈어뒹 몸땡이만이.(파초 해서 그 일 다 끊어 두고 몸땡이만.)

107048 @ 예.(예.)

107048 #1 그 딱딱 잘라근에, 짤라근에 혜영 간장에.(그 딱딱 잘라서, 잘라서 해서 간장에.)

107048 @ 예.(예.)

107048 #1 간장에 담가근에 놔두면 영 영 찢으멍 우리 막. 뿔리 같은 경우는 영 영 영 혜근에 막 먹고. 그 남뎅이, 남뎅이는 영 영 찢으멍 우리 막 밥 먹어낫어. 그 거 반치지.(간장에 담가서 놔두면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서 우리 마구. 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먹고. 그 줄기, 줄기는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서 우리 막 밥 먹었었어. 그거 파초장아찌.)

107051 @ 반치지. 아아 반치지도 있고예? 그 다음에 혹시 알게미젓도 햇수가?
(파초장아찌. 아아 파초장아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감젓도 했습니까?)

107051 #1 알게미젓 그때에 그 알게미.(아감젓 그때에 그 아가미.)

107051 @ 음.(음.)

107051 #1 그때는 뭐 고기가 경 하영 나지 아녀니까 알게미 그 창지젓게.(그때는 뭐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아가미. 그 창자젓.)

107051 #2 아, 창난젓 지금 말허민.(아, 창난젓 지금 말하면.)

107051 #1 그런 건디 그런 거는 벨로.(그런 건데 그런 거는 별로.)

107051 @2 갈치.(갈치.)

107051 #1 갈치.(갈치.)

107051 @2 아구셍이도 하고.(아가미도 하고.)

107051 #2 그것도 협니다.(그것도 합니다.)

107051 @ 음.(음.)

107051 #1 그 옛날에는 풍선 가져근에 그 갈치를 나끄레 가민 갈칠 경 하영 나까겼어.(그 옛날에는 풍선 가져서 그 갈치를 낚으려 가면 갈칠 그렇게 많이 낚아졌어.)

107051 @ 계난.(그러니까.)

107051 #1 뭐 배 나갓당 일기예보도 엇고 할 때난에 뭐 풍랑 와근에 베차 다 엎어경 사람도 하나도 배도 하나도 엇이 흔적 엇이 엇어져불곡. 경 혜영 그치룩 면

바당에 가야 하영 나끄는데 그자 와근에 그자.(뭐 배 나갔다가 일기예보도 없고 할 때니까 뭐 풍랑 와서 배째 다 엎어져서 사람도 하나도 배도 하나도 없이 흔적 없이 없어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처럼 먼바다에 가야 많이 낚는데 그저 와서 그저.)

107051 #2 풀 건 엿고.(풀 건 없고.)

107051 #1 풀 거, 풀 거 하고 이녁 방상에덜 영 혜영 나누엉 먹고.(풀 거, 풀 거 하고 이녁 친족들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먹고.)

107052 @ 그 정도예? 삼춘, 여기는 경이를 쟁이렌 협니까?(그 정도요? 삼춘, 여기는 계를 ‘쟁이’라고 합니까?)

107052 @ 계.(계.)

107052 #1 쟁이?(계?)

107052 @ 예, 쟁이.(예, 계.)

107052 #1 무시거 아까?(무엇 아까?)

107052 #2 경이.(계.)

107052 @ 경이 시에는 경이렌 굴아.(계 제주시에는 ‘경이’라고 말해.)

107052 #2 북군엔 경이.(북군엔 ‘경이’.)

107052 #1 쟁이.(계.)

107052 @ 쟁이로도 젓 했지예?(‘쟁이’로도 젓 했지요?)

107052 #1 쟁이젓 하주게.(계젓 하지.)

107052 @ 예, 간장에. 거는 어떤 식으로?(예, 간장에. 거는 어떤 식으로?)

107052 #1 쟁이젓도 그 간장에 담강.(계젓은 그 간장에 담가서.)

107052 @ 간장에.(간장에.)

107052 #1 으.(으.)

107052 @ 거는 어떤 쟁이로 허는 거우과? 쟁이젓은.(거는 어떤 계로 하는 겁니까?)

107052 #1 째끌락헌 쟁이. 옛날엔 큰 쟁이가 엇이난. 돌 일려근에 잡으민 준준 준 현 거 하루 정도 물에 담강은에.(작은 계. 옛날엔 큰 계가 없으니까. 돌 돌 일으켜서 잡으면 잔잔한 거 하루 정도 물에 담가서.)

107052 #1 우리 할머니네 곳는 거 보민 오줌 싸베야 오줌 싸베야 한덴 혀멍. 쟁 혀영 하루 쯤 담갓당은에 그거 혜근에 그 단지에 놔근에 간장 그 우티레 영 비왕. 경 혀면은.(우리 할머니네 말하는 거 보면 오줌 싸버려야 오줌 싸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 쯤 담갔다가 그거 해서 그 단지에 놔서 간장 그 위로 이렇게 부어서.)

107052 @ 음.(음.)

107052 #2 똥쟁이¹⁷⁸⁾로 다 혀여.(‘똥쟁이’로 다 해.)

107052 @ 똥쟁이. 여기서는.(‘똥쟁이’). 여기서는.)

107052 #2 막 우에 올라오는 거 그것이 젤 맛잇고.(아주 위에 올라오는 거 그것

178) ‘똥쟁이’는 계의 일종이다.

이 젤 맛있고.)

107053 @ 아, 경 헙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젓 허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우과?(아,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젓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107053 #1 자리젓은?(자리젓은?)

107053 @ 비율을?(비율은?)

107053 #1 비율은 그때 비율 출리멍 헷어.(비율은 그때 비율 차리면서 했어.)

107053 #2 짐작 삼양.(짐작 삼아서.)

107053 #1 그런 식으로 헷어. 옛날 어른덜 짐작 삼양 자리 혼 말이믄 소금 혼 관뒈 놓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나도 웬장은 담아근에 먹는다.(그런 식으로 했어. 옛날 어른들 짐작 삼아서 자리돔 한 말이면 소금 한 관되 놔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나도 된장은 담가서 먹는데.)

107053 @ 예.(예.)

107053 #1 소금이 그 콩 두 관뒈 숨으민 소금 혼 관뒈. 골찍하게 혼 관뒈. 그건 딱 비율이 그거는 있언 난 이제까지 웬장 상 먹어보지 아냈어.(소금이 그 콩 두 관되 삶으면 한 관되. 끓게 한 관되. 그건 딱 비율이 그거는 있어서 난 이제까지 된장 사서 먹어보지 않았어.)

107053 @ 이따 웬장 허는 것도 이시난예.(이따 된장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107053 #1 매해 웬장 콩 삶양 웬장허영 아덜한티도 보내곡 땔덜토 땔덜은 왕 가정갈 때 땔덜 웬장 공짜 가져가민 아덜, 아덜 못 산덴 혜근에 돈 다 받아근에 땔덜은 주곡. 웃음.(매해 된장 콩 삶아서 된장해서 아들한테도 보내고 땔들도 땔들은 와서 가져갈 때 땔들 된장 공짜 가져가면 아들, 아들 못 산다고 해서 돈 다 받아서 땔들은 주고.)

107053 @ 땔안티 잘 헙서게.(딸한테 잘 하세요.)

107053 #1 웃음.(웃음.)

107054 @ 삼춘, 옛날에 출례, 출례 헙여예? 어른들. 출례가 뭐우과?(삼춘, 옛날에 ‘출례’, ‘출례’ 했지요? ‘출례’가 뭐우과?)

107054 #2 출례¹⁷⁹⁾ 것갈 국물을 출례, 출례 헌 거 아니?('출례' 것갈 국물을 ‘출례’, ‘출례’ 한 거 아니?)

107054 #1 출례, 출례엔 헌 건 것갈. 것국물.('출례', '출례'라고 한 건 것갈.)

107054 #2 것갈 국물.(것갈 국물.)

107054 @ 것국물?(것국물?)

107054 #1 것국물 혜여근에. 반찬엔 하는 말이주게. 출례엔 하는 말은.(것국물 해서. 반찬이라고 하는 말이지. ‘출례’라고 하는 말은.)

107054 @ 주로 이제 것갈 국물 혜갖고 출례엔 혜갖고.(주로 이제 것갈 국물 해갖고 ‘출례’라고 해갖고.)

179) ‘출례’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자리젓, 멸치젓 따위의 반찬을 제주에서 일컫는 말이다.

107054 #1 출례, 출례 이디 아져오라. 짙지롱하게시리.(‘출례’, ‘출례’ 여기 가져와라. 짙짤하게끔.)

107054 @ 그 출례는 어떤 식으로 혜영 먹는 거라마씨?(그 ‘출례’는 어떤 식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107054 #1 그 출례엔 하는 거는 뭐 자리젓 국물도 뛰곡 멜젓 국물도 뛰고 그런 거.(그 ‘출례’라고 하는 거는 뭐 자리젓 국물도 되고 멀치젓 국물도 되고 그런 거.)

107054 @ 음, 그런 거.(음, 그런 거.)

107054 #2 다 앗아분 거. 냉중에 그 출례벳과 엇이난 그것에 밥 먹을 수벳과 엇이난.(다 가져버린 거. 나중에 그 ‘출례’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밥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107054 @ 음.(음.)

107054 #1 먼저 먹은 사름 흐나씩 들러부니까.(먼저 먹은 사람 하나씩 들어버리니까.)

장아찌와 회

107055 @ 들러부니까. 남은 게 출례구나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반치지도 했잖아요?(들러버리니까. 남은 게 ‘출례’구나.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파초장아찌도 했잖아요?)

107055 #1 예.(예.)

107055 @ 지 멘들엉 먹었던 거는 뭘로 지 멘들엉 먹었수가? 반치허고 지?(장아찌 만들어서 먹었던 거는 뭘로 지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파초하고 장아찌?)

107055 #1 무신거?(무엇?)

107055 @ 지.(장아찌.)

107055 #1 지, 지는 그 이제?(장아찌, 장아찌는 그 이제?)

107055 @ 요즘 하영 먹는 거.(요즘 많이 먹는 거.)

107055 #1 우리가 볼 때는 반치지벳기 엇인 거 닮아.(우리가 볼 때는 파초장아찌밖에 없는 거 같아.)

107055 @ 무사, 마농지도 있고.(왜, 마늘장아찌도 있고.)

107055 #1 마농 저것에 콥데산이 가져근에 그 지. 그런 거 으.(마늘 저것에 마늘 가져서 그 장아찌. 그런 거 으.)

107055 @ 으.(아.)

107055 #1 그것, 그것도 밧듸 우잣 이신 사름이나 허주 엇인 사름은 마농지도 못 담양 먹었어.(그것, 그것도 밭에 텷밭 있는 사람이나 하지 없는 사람은 마늘장아찌도 못 담가서 먹었어.)

107055 @ 유지는 안 혜마씨?(들깨장아찌는 안 해요?)

107055 #1 유지.(깻잎장아찌.)

107055 #2 유지.(깻잎장아찌.)

107055 @ 유, 유, 깻잎?(들깨, 들깨, 깻잎?)

107055 #1 아, 그때 깻잎덜 허영 담양 먹을 중도 몰란 누게 담양 먹엇어? 안 담양 먹고. 이 마농지도.(아, 그때 깻잎들 해서 담가서 먹을 줄도 몰라서 누구 담가서 먹었어? 안 담아서 먹고. 이 마늘장아찌도.)

107055 @ 예.(예.)

107055 #1 저 부잣집의덜 영 우잣 이신 사름덜은 마농지 담양 먹고 경 아년 사름은 들에 가근에 그거 꿩마늘.(저 부잣집에들 이렇게 텃밭 있는 사람들 마늘장아찌 담가서 먹고 그렇게 않은 사람들은 들에 가서 그거 달래.)

107055 @ 예.(예.)

107055 #1 그거 캐여당은에 그거 조지 만들어근에 경 혜영 먹곡 햇어.(그거 캐어다가 그거 ‘조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먹고 했어.)

107055 @ 여기 양웨는 집집마다 잊엇잖아예? 옛날에.(여기 양하는 집집마다 잊잖아요?)

107055 #1 양웨는 초가집 그 초가집 밑에.(양하는 초가집 그 초가집 밑에.)

107055 @ 예.(예.)

107055 #1 이렇게 숙전¹⁸⁰⁾ 박아근에. 요만은 노프계시리 혜근에 거기 양웨 뿔리 계영 싱경 놔두면은 그 양에가 막 집집마다 그 양에는 막 잊어낫어.(이렇게 ‘숙전’ 박아서. 요만하게 높게끔 해서 거기 양하 뿌리 그래서 심어서 놔두면 그 양하가 막 집집마다 그 양하는 막 있었었어.)

107055 @ 아, 그걸도 헤도 지도 혜영 먹엇지예?(아, 그걸로 해서 장아찌도 해서 먹었지요?)

107055 #1 그땐 그거 가정 지 혜영 먹을 줄 몰랐주.(그땐 그거 가져서 장아찌 해서 먹을 줄 몰랐지.)

107055 #2 양웨입 혜근에 숲아근에 밥 쌍 먹엇주.(양하일 해서 삶아서 밥 짜서 먹었지.)

107055 @ 숲아근에예 아?(삶아서요?)

107055 #1 생차도, 생차도 허곡 데우청은에 싸 먹곡 또 이제 팔월 맹질 때 뤄가면 그 밑으로 빨간 거 양엣근¹⁸¹⁾.(생째도, 생째도 하고 데우쳐서 싸 먹고 또 이제 팔월 명절 때 되가면 그 밑으로 빨간 거 ‘양엣근’.)

107055 @ 양엣근.(‘양엣근’.)

107055 #1 으, 양엣근 그거 하면은 그거 혜근에 혜영 맹질 때 그거 혜영 채소도 만들엉.(으, ‘양엣근’ 그거 하면 그거 해서 명절 때 그거 해서 채소도 만들어서.)

107055 #2 채소도.(채소도.)

107055 #1 상에도 올리곡.(상에도.)

107055 @ 으, 그 채소는 어떤 식으로 만든 거라?(으, 그 채소는 어떤 식으로 만

180) ‘숙전’은 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 땅이 파지지 않도록 박아놓은 돌을 말한다. ‘숙전 박다’처럼 쓰인다.

181) ‘양엣근’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꽃이삭이다.

듣 거야?)

107055 #1 그거 헤영 삶아근에 영 영 영 찢어놔근에 통차 말곡 찢어놔근에 그 때 뭐 조선간장 간장 놓곡 기름 놓곡 경 헤근에 거 무쳐근에.(그거 해서 삶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찢어놔서 통째 말고 찢어놔서 그때 뭐 조선간장 간장 넣고 기름 넣고 그렇게 해서 거 무쳐서.)

107055 @ 음, 경 허영 제사에 올린 거라예? 혹시 여기 물망으로도 지 담읍니까?(음, 그렇게 해서 제사에 올린 거군요? 혹시 여기 모자반으로도 장아찌 담급니까?)

107055 #1 물망은 지 안 담아.(모자반은 장아찌 안 담가.)

107055 @ 안 담아예?(안 담가요?)

107055 #1 물망은 물망국¹⁸²⁾. 잔치할 때 물망국 그거 헤먹곡. 또 물망 그거 물리왓당은에 물에 당갓당은에 그거 헤근에 무청 먹곡.(모자반은 ‘물망국’. 잔치할 때 ‘물망국’ 그거 해먹고. 또 모자반 그거 말렸다가 물에 담갔다가 그거 해서 무쳐서 먹고.)

107055 @ 으음.(으음.)

107055 #1 그 그치룩 햇주. 거 옛날에.(그 그처럼 했지. 거.)

107055 @ 장에 담곡 이런 건 엊어?(장에 담그고 이런 건 없어?)

107055 #1 그치룩 안 헤여. 그자.(그처럼 안 해. 그저.)

107055 #2 물망이예, 요새 나오는 물망하고 표선리서 나오는 물망이 틀려낫수다
게.(모자반이요, 요새 나오는 모자반하고 표선리서 나오는 모자반은 달랐었습니다.)

107055 #1 아아.(아아.)

107055 #2 아니 요새 나오는 건 민작허는데.(아니 요새 나오는 건 문문하는데.)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2 여기는 뜻국물에 놔서 오래 딸리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엊어.(여기는
돼지육수에 놔서 오래 달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107055 #1 뭉칼뭉칼헌 게 그.(만질만질한 게.)

107055 #2 요새 물망은 우리 안 맞아.(요새 모자반은 우리 안 맞아.)

107055 #1 민작헤여근에.(문문해서.)

107055 @ 너무 민작헤영예?(너무 만질만질해서요?)

107055 #1 옛날 물망은 흐꼼 거칠게시리 하난 그거 허영 뜻국물에 하면은 단지
늠삐씹 그 시커멍한 썹.(옛날 모자반은 조금 거칠게끔 하니까 그거 해서 돼지육수에
하면 단지무 일 그 시커면 일.)

107055 @ 예.(예.)

107055 #1 그 썹하고 서꺼근에 뜻국물 그 잔치 때 맷 가메 끌이민 동네방네 다
와근에 먹곡. 아니 온 아인 뭐 혼 사발 드라 두 사발 드라 허멍 경 빌엉.(그 일하고
섞어서 돼지육수 그 잔치 때 몇 가마 끓이면 동네방네 다 와서 먹고. 안 온 아인

182) ‘물망국’은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국이다.

한 사발 달라 두 사발 달라.)

107055 #2 우리 나이에는 이제 물망국 끌린 건 좋지를 아녀. 민작허연.(우리 나 이에는.)

107055 @ 음 민작허영예?(음 문문해셔요?)

107055 #2 그 생각만 납니다. 옛날 생각.(그 생각만 납니다. 옛날 생각.)

107055 @2 계난 방울이 컷수가?(그러니까 알이 컸습니까?)

107055 #2 방울¹⁸³⁾ 톡톡 씹는 맛도 나곡.(알 톡톡 씹는 맛도 나고.)

107055 #1 방울 요만씩 요만씩.(알 요만씩 요만씩.)

107055 #2 거 혜영 씹어 가민 탁탁 터치는 그런 맛도 나고.(거 해서 씹어 가면 탁탁 터지는 그런 맛도 나고.)

107055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5 #1 겐이 이젠 이디 그거 씨져벤.(그래서 이젠 여기 그거 씨져버렸어.)

107055 #2 씨져변 양어장덜 허명.(씨져버려서 양어장을 하면서.)

107055 @ 춤물망 아니라예?('참모자반' 아닌가요?)

107055 #1 그 계난 그거는 씨져불고. 어디 저디 어디 어느 쪽더레 김녕 쪽더레 그런 디덜 그거는 잇인 모냥이라. 경 허영근에 잔치 때 그거 혜영 뜬국물에 끓리민 그거 허영 허민 민작허영 맛이 엊어.(그 그러니까 그거는 씨져버리고. 어디 저디 어디 어느 쪽으로 김녕 쪽으로 그런 데들 그거는 있는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잔치 때 그거 해서 폐지육수에 끓이면 그거 해서 하면 문문해서 맛이 없어.)

107056 @ 민작허영예. 삼춘, 요즘 집에서 마농지 담암수광? 어떤 식으로 담감수과?(문문해셔요. 삼촌, 요즘 집에서 마늘장아찌 담그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감그고 있습니까?)

107056 #1 요새는 마농지 우리도 여기 마늘지 잇주마는 마늘지 쪽끔 주결랑 가 경강 먹어보절다?(요새는 마늘장아찌 우리도 여기 마늘장아찌 있지만 마늘장아찌 조금 주거든 가져가서 먹어보려고?)

107056 @ 예, 알았수다.(예, 알았습니다.)

107056 #1 아니, 마늘, 마늘은 이제 만약에 요만씩 무끈 것이.(아니, 마늘, 마늘은 이제 요만씩 뚫은 것이.)

107056 @ 예.(예.)

107056 #1 이 다섯 단, 다섯 단. 다섯 단 거 다 다듬양은에 이제 짖져근에 그냥 썰영 다라에 놔근에 이제 간장 사 대 일 비율로이.(이 다섯 단, 다섯 단. 다섯 단 거 다 다듬어서 이제 쟇어서 그냥 썰어서 대야에 놔서 이제 간장 사 대 일 비율로.)

107056 @ 음, 사 대 일 비율이민 뭐가 사고 이.(사 대 일 비율이면 뭐가 사고.)

107056 #1 하여튼 마농이 사면은.(하여튼 마늘지가 사면.)

107056 @ 예.(예.)

107056 #1 거기에 놓는 거는 이라. 그거 이제 넉 단이민 간장 뛰 혼 뛰. 그거

183) 여기에서 '방울'은 모자반의 공기주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흔 뛰 넉 단 한 일고으덥 단 여남은 단 가까이 뛰면은 두 뛰이.(거기에 넣는 거야.
그거 이제 넉 단이면 간장 뛰 한 되. 그거 흔 뛰 넉 단 한 일고여덟 단 여남은 단
가까이 되면 두 되.)

107056 @ 음.(음.)

107056 #1 두 뛰 해근에 놓곡 설탕 일 킬로 놓곡 저 현미식초 그거 혼나 놓곡.
(두 되 해서 넣고 설탕 일 킬로 넣고 저 현미식초 그거 혼나 넣고.)

107056 @ 아.(아.)

107056 #1 경 경 헤근에 딱 우리 마늘 주걸랑 가져강 먹어봐봐. 나가 다 만든
거.(그렇게 그렇게 해서 딱 우리 마늘 주거든 가져다가 먹어봐봐. 내가 다 만든 거.)

107056 @ 입에 침이 고연. 우리 마농장아찌 못 만들었는데. 경 헤근에 허민
딱.(입에 침이 고였어. 우리 마늘장아찌 못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딱.)

107056 #1 갓도 하나 안 쟁.(골마지도 하나 안 써서.)

107056 @ 그걸 여기서는 마농지.(그걸 여기서는 마늘장아찌)

107056 #1 마농지.(마늘장아찌.)

107056 @ 예. 삼춘 여기?(예. 삼춘 여기?)

107056 #1 콥데산이지.(마늘장아찌.)

107056 @ 콥데산이지. 옛날에도 콥데산이지렌 헤낫수가? 아, 아 콥데산이지예.
마늘장아찌. 옛날에도 ‘콥데산이지’라고 했었습니까? 아, 아 ‘콥데산이지’요.)

107057 @ 그 옛날은 훠 같은 거는 어떤 걸로 주로 먹어신고마씨? 무슨 훠?(그
옛날은 회 같은 거는 어떤 걸로 주로 먹었는가요. 무슨 회?)

107057 #1 자리훠.(자리회.)

107057 @ 자리훠.(자리회.)

107057 #1 자리훠 같은 거 허고 그때는 뭐.(자리회 같은 거 하고 그때는.)

107057 #2 비께, 비께.(두툼상어, 두툼상어.)

107057 #1 비께 같은 거.(두툼상어 같은 거.)

107057 @ 비께 음.(두툼상어 음.)

107057 #2 상어.(상어.)

107057 @ 비께허고 상어허곤 어떻게.(두툼상어하고 상어하곤 어떻게.)

107057 #1 비슷한 거 아니우과?(비슷한 거 아닙니까?)

107057 #2 틀려. 틀려.(달라. 달라.)

107057 @ 틀려예? 아.(다르다고요? 아.)

107057 #2 요즘은 무슨 상어 무슨 상어 나오는데 그땐 비께엔 현 것은.(요즘은
무슨 상어 무슨 상어 나오는데 그땐 두툼상어라고 한 것은.)

107057 @ 예.(예.)

107057 #2 이 가죽 벗겨서 들아매서 혼 점씩 짤라 먹어 가면은 그 살이 일주일
동안 뛰어.(이 가죽 벗겨서 달아매서 한 점씩 짤라 먹어 가면 그 살이 일주일 동안
뛰어.)

107057 @ 아.(아.)

107057 #1 들아매둠서 짤라 먹어.(달아매두고서 잘라 먹어.)

107057 #2 이 생 가시만 안 거드려불면은 살아.(이 생 가시만 안 건드려버리면 살아.)

107057 @ 예.(예.)

107057 #1 그럼 일주일간 들아매서 혼 점씩 끊어먹는 거.(그럼 일주일간 달아매서 한 점씩 끊어먹는 거.)

107057 @ 아아.(아아.)

107057 #1 변허지를 안 허는 거고.(변하지를 안 하는 거고.)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상어는 금방 변허고.(상어는 금방 변하고.)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죽었다 하면은 금방 변허기 시작하고. 계난 차이가 상어훼보다 비께 훼가 배 이상 비쌉니다.(죽었다 하면 금방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상어 회보다 두툼상어회가 배 이상 비쌉니다.)

107057 #1 계난에 그 속담이 속담이 있는 거라.(그러니까 그 속담이 속담이 있는 거야.)

107057 @ 예.(예.)

107057 #1 이 애기가 부모안테 와근에 돈 드렌 이번이 마지막엔 행 돈 드렌 행 가져강 또 다음에 또 왕 돈 드렌 하곡 경 하면은 비께 들아메영 끊어 먹는 식으로.(웃음). 비께 들아메영, 들아메여근 끊어먹는 식으로.(이 애기가 부모한테 와서 돈 달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해서 돈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또 다음에 또 와서 돈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두툼상어 달아매서 끊어 먹는 식으로. (웃음). 두툼상어 달아매서, 달아매서 끊어먹는 식으로.)

107057 #2 끊어먹는 식으로 돈 틈아감텐.(끊어먹는 식으로 돈 뜯어간다고.)

107057 #1 자꾸 왕 돈 틈아감텐 하는 식으로 굳주게.(자꾸 와서 돈 뜯어가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지.)

107057 @ 이 말도 처음 들엄네. 비께를 들아메영. 계난 여기가 비께가 하영 나낫수가? 이 바당에.(이 말도 처음 듣고 있네. 두툼상어를 달아매서. 그러니까 여기가 두툼상어가 많이 났었습니까?)

107057 #2 많이 나낫어.(많이 났었어.)

107057 #1 해녀덜토 막 쏘아나고.(해녀들도 막 쏘았었고.)

107057 #2 해녀덜토 그 비께가 막 순해가지고.(해녀들도 그 두툼상어가 매우 순해가지고.)

107057 @ 예.(예.)

107057 #2 딱 허게 쏘아서 말이지 이렇게 안아서 일어날 정도로 크니까.(딱 하게 쏘아서 말이지 이렇게 안아서 일어날 정도로 크니까.)

107057 @ 으음 요즘은 비께도 씨션예?(으음 요즘은 두텁상어도 씨겼지요?)

107057 #2 이제는 완전히 씨겼어.(이제는 완전히 씨겼어.)

107057 #1 씨겼어.(씨겼어.)

107057 @ 씨션예?(씨겼다고요?)

107057 #1 북바리도 씨지고.(붉바리도 씨지고.)

107057 @ 북바리도 씨져볼곡. 으음.(붉바리도 씨져버리고. 으음.)

107057 #2 게난 우리는 항상, 우리 우에 사름덜은 비께를 생각을 항상 해여.(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사람들은 두텁상어를 생각을 항상 해.)

107057 @ 어른들은 비께렌은 곤는디, 그게 도대체 어떤 궤기인지는 모르쿠다.
(어른들은 두텁상어라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7057 #2 입이 이렇게 크고.(입이 이렇게 크고.)

107057 @ 아 입이 크고.(아 입이 크고.)

107057 #2 입이 이렇게 커 두에는.(입이 이렇게 커 뒤에는.)

107057 #1 상어, 상어 식으로 영 훈 거라. 가죽이 상어하고 완전 틀려.(상어, 상어 식으로 이렇게 된 거야. 가죽이 상어하고 완전 달라.)

107057 #2 가죽 벗겨서 물렸다가 도께 그 매는 거라.(가죽 벗겨서 말렸다가 도리깨 그 매는 거야.)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그렇게 강한 거.(그렇게 강한 거.)

107057 #1 도께 그 마당질허는 도께.(도리께 그 마당질하는 도리깨.)

107057 @ 예.(예.)

107057 #2 그리고 학생덜.(그리고 학생들.)

107057 @ 예.(예.)

107057 #2 학생덜 그거 요만큼 혜영 나 가정강은에.(학생들 그거 요만큼 해서 나 가져가서.)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연필.(연필.)

107057 #1 연필 빼빼¹⁸⁴⁾, 빼빼. 이제 그트민 빼빼 그런 용으로도 사용하고.(연필. 사포. 사포. 이제 같으면 사포 그런 용으로도 사용하고.)

107057 #2 그런 용으로도 사용하고.(그런 용으로도 사용하고.)

107057 #1 그 비께 가죽.(그 두텁상어 가죽.)

107057 #2 질겨낫어.(질겼었어.)

107057 @ 비께 가죽 완전 유용하게 써시켜예?(두텁상어 가죽 완전 유용하게 썼겠네요?)

107057 #1 비께 가죽이 그 빼빼 그치록 사슬사슬해주게.(두텁상어 가죽이 그 사

184) ‘빼빼’는 물체의 겉면을 갈아 부드럽게 하거나 녹을 문질러 닦는 데에 쓰는 천이나 종이를 말한다.

포 같이 두툴두툴하지.)

107057 @ 으음.(으음.)

107057 #1 경 허민 연필도 그것에 그 비께가죽에 그 저 그 비께가죽해근에 빼빼그치룩 영 영 밀리고. 이런 상도 더러우면.(그렇게 하면 연필도 그것에 그 두툼상어에 그 저 두툼상어 가죽해서 사포처럼 이렇게 이렇게 밀리고. 이런 상도 더러우면.)

107057 #2 비께 장소하는 사름 비께 벗겨가면은 친현 사름안테나 주지, 비께 가죽을.(두툼상어 장사하는 사람 두툼상어 벗겨가면 친한 사람한테나 주지, 두툼상어 가죽을.)

107057 @2 도께 어디 써마씨?(도리깨 어디 써요?)

107057 #1 도께 도께 영 해영 탁 하면은.(도리깨 도리깨 이렇게 해서 탁 하면.)

107057 @ 틀레 영 해여근에.(도리깨장부 이렇게 해서.)

107057 #1 이 땅에 강은에 이 맞는 그 부분에 이제 그거는 낭께기 세 개 네 개 해근에 영 여꺼근에 그거 하곡 이제 손에 심은 건 호나곡.(이 땅에 가서 이 맞는 그 부분에 이제 그거는 나뭇가지 세 개 네 개 해서 이렇게 엮어서 그거 하고 이제 손에 잡는 건 하나고.)

107057 @ 음.(음.)

107057 #1 두드리는 건 하이튼 네 갠가 해여근에(두들기는 건 하여튼 네 갠가 해서.)

107057 @ 서너 가달?(서너 가닥?)

107057 #1 여꺼근에.(엮어서.)

107057 @2 세 가닥.(세 가닥.)

107057 #1 세 갠가 여껴근에 하민 여끼는 그 용도 가죽이.(세 갠가 엮어서 하면 엮는 그 용도 가죽이.)

107057 #2 노 꼬아근앵에 헌 것은.(노 꼬아서 한 것은.)

107057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57 #2 흐루만 지나민 완전히 박살나는데 이거는 멧 년 간다니까. 멧 년.(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박살나는데 이거는 몇 년 간다니까. 몇 년.)

107057 @ 여기 이렇게 저기 얹어매는 거 아니라마씨? 이런 식으로 뷔면, 여기는 틀레 잇고.(여기 이렇게 저기 얹어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는 도리깨꼭지 있고.)

107057 #1 게 여기 이거 이거 이것이 비께 가죽으로.(여기 이거 이거 이것이 두툼상어 가죽으로.)

107057 @ 아 비께 가죽으로 이제 메민예.(아 두툼상어 가죽으로.)

107057 #1 게민 비께 가죽 끊어지질 아녀여.(그러면 두툼상어 가죽 끊어지지 않아.)

107057 #2 상어가죽 ㅋ튼 건 안 뷔고.(상어가죽 같은 건 안 되고.)

107057 @ 상어가죽은 어떤 식으로 뛰마씨?(상어가죽은 어떤 식으로 돼요?)

107057 #2 아 그건 약해서 안 뛰고.(아 그건 약해서 안 되고.)

107057 @ 약행 안 뛰고.(약해서 안 되고.)

107057 #1 그건 약행 건 벼려부는 거고.(그건 약해서 건 벼려버리는 거고.)

107057 @ 예에, 입도 크고예? 게민 비께훼하고 자리훼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서는 먹었던 건 어떤 거?(예에, 입도 크고요? 그러면 두툼상어회하고 자리회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서는 먹었던 건 어떤 거?)

107057 #1 그 잇잖아.(그 있잖아.)

107057 #2 도랭이훼라고 헤. 도랭이.(팽이상어회라고 해. 팽이상어.)

107057 @ 도랭이훼?(팽이상어회.)

107057 #2 예.(예.)

107057 @ 도랭이.(팽이상어회?)

107057 #2 으, 도랭이는 비께와 비슷한 건데 이 머리가 좀 둥그렁한 건데.(으, 팽이상어회는 두툼상어와 비슷한 건데 이 머리가 좀 둉근 건데.)

107057 @ 예.(예.)

107057 #2 그것도 상어훼보다는 낫아.(그것도 상어회보다는 나아.)

107057 @ 도랭이훼가.(팽이상어회가.)

107057 #2 예, 건 벗기지 못하니까 물에 끌령 토렴¹⁸⁵⁾해영.(예, 건 벗기지 못하니까 물에 끓여서 토렴해서.)

107057 @ 토렴해영.(토렴해서.)

107057 #2 토렴해영 막 긁어내영.(토렴해서 막 긁어내어서.)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먹는 식이 다 틀립니다.(먹는 식이 다 다릅니다.)

107057 @ 예. 계단 토렴이렌 헌 게 물에 끌리, 물 뜨거운 물 놓는 거를 토렴이렌 허는 거우까?(예. 그러니까 토렴이라고 한 게 물에 끓이, 물 뜨거운 물 넣는 거를 토렴이라고 하는 겁니까?)

107057 #1 꽉꽉 끓는 디 놔근에.(꽉꽉 끓는 데 넣어서.)

107057 #2 놔서 건져내는 거.(놔서 건져내는 거.)

107057 #1 혼불 짹하게 우왁¹⁸⁶⁾하게 끓어올르민 건져내부는 거.(한벌 짹하게 '우왁'하게 끓어오르면 건져내부는 거.)

107057 @ 그걸 토렴이렌 헤여?(그걸 토렴이라고 해요?)

107057 #1 요새 ㅋ트민 사부사부라.(요새 같으면 샤브샤브야.)

107057 #2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면은 그 그 껍질은 남고.(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면 그그 껍질은 남고.)

107057 @ 예.(예.)

185) '토렴'은 뜨거운 물을 넣어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6) '우왁'은 구술자가 물이 펄펄 끓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107057 #2 그 우의 왕상헌 것이 짹 벗어져. 게민 껌질차 먹는 거. 도렝이.(그 위에 왕상한 것이 짹 벗겨져. 그러면 껌질째 먹는 거. 두툼상어.)

107057 @ 도렝이는 껌질차 먹어예? 아 그러면 도렝이는 이제 토렴을 해서 먹고.(팽이상어는 껌질째 먹어요? 아 그러면 팽이상어는 이제 토렴을 해서 먹고.)

107057 #2 으.(으.)

107057 @ 웨 해삼도 토렴헌덴 허지 안 협니까예?(왜 해삼도 토렴한다고 하지 안 합니까?)

107057 #1 해삼도 토렴.(해삼도 토렴.)

107057 @ 게난 혜삼, 그건 해삼토렴이렌 허는데. 게믄 그럼 토렴해서 먹는 건 어떤 거 있수가?(그러니까 해삼, 그건 해삼토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럼 토렴해서 먹는 건 어떤 거 있습니까?)

107057 #1 토렴해서 먹는 건 도렝이하고 ** 고기.(토렴해서 먹는 건 팽이상어하고 ** 고기.)

107057 #2 땐 거?(땐 거?)

107057 #1 도렝이. 땐 거는 토렴허지 아녀.(팽이상어. 땐 거는 토렴하지 않아.)

107057 @ 음.(음.)

107057 #1 무시거 고기 같은 거 요새 사브사브해근에 그거는 뭐 아무 고기라도 해근에그 사브사브 행 먹는 거 건 뭐.(샤브샤브해서 그것은 아무 고기라도 해서 샤브샤브.)

107057 #2 요새는 아무 바닷고기는 다 횟감으로 먹는데, 그때는 그거 이웨에는 먹는 것이 엇어.(요새는 아무 바닷고기는 다 횟감으로 먹는데, 그때는 그거 이외에는 먹는 것이 없어.)

107057 #1 훠로 먹는 줄을 몰라.(회로 먹는 줄을 몰라.)

107057 #2 고등어도 먹을 줄도 몰르고. 고등어도 숯양 먹고.(고등어도 먹을 줄 모르고. 고등어도 삶아서 먹고.)

107057 @ 그렇지.(그렇지.)

107057 #1 고등어도 잘못 먹으민 막 병난텐 허명 그것도 잘 안 먹고 생차 먹으렌 헷당은 큰일 나주.(고등어도 잘못 먹으면 막 병난다고 하면서 그것도 잘 안 먹고 생째 먹으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지.)

107057 @ 예.(예.)

107057 #1 요즘은 고등어훠 그 회가 그렇게 맛잇는다.(요즘은 고등어회가 그 회가 그렇게 맛있는데.)

107058 @ 예, 맞수다. 우리 그 우럭조림 같은 경우는 어느 계절에 먹는 거우과? 여기 우럭조림 허지예?(예, 맞습니다. 우리 그 우럭조림 같은 경우는 어느 계절에 먹는 겁니까? 여기 우럭조림 하지요?)

107058 #1 우럭, 우럭 옛날엔 우럭 기자 지져근에. 조림엔 안 행은에 지정.(우럭, 우럭 옛날엔 우럭 그저 지져서. 조림이라고 안 해서.)

107058 #2 지경.(지져서.)

107058 @ 지경은에?(지져서?)

107058 #1 지경 그자. 우력은 하면 지경 먹는 거주. 옛날에는 바당에 가면은.(지져서 그자. 우력은 하면 지져서 먹는 거지. 옛날에는 바다에 가면.)

107058 @ 예.(예.)

107058 #1 폐우력¹⁸⁷⁾.('폐우력.)

107058 @ 예.(예.)

107058 #1 폐우력 새카망.('폐우력' 시꺼매.)

107058 #1 폐우력엔 현 거는 영 호랑쟁이에 잇는디 폐 나는 디.('폐우력'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호랑쟁이'에 있는데 폐 나는 데.)

107058 @ 예.(예.)

107058 #1 폐 나는 디 젤 우에 폐 나는 디 그 호랑쟁이에 그 우력이 신디 폐우력은 거명허여. 색깔이.(폐 나는 데 젤 위에 폐 나는 데 그 '호랑쟁이' 그 우력이 있는데 '폐우력'은 겸여. 색깔이.)

107058@ 음.(음.)

107058# 폐우력.('폐우력'.)

107058 @ 그거를 하영 지경 먹엇구나예?(그거를 많이 지져서 먹었군요?)

107058 #1 그거 혜영 그런 것덜은 그 우력이 가시가 쎄주게.(그거 해서 그런 것들은 그 우력이 가시가 쎄지.)

107058 @ 예. 예.(예. 예.)

107058 #1 경 혜부난에 지경은에 먹는 것도 어른이나 함이나 하카 몰라. 아이덜 먹당 가시 걸리카부텐 폐싸근에 소금햇당은에 옛날엔 대막뎅이 큰 거 행 놔근에 노끗 행 혜근에 막 그 푸리 아니 올라가게끔.(그렇게 해버리니가 지져서 먹는 것도 어른이나 함면 할까 몰라. 아이들 먹다가 가시 걸릴까봐 배따서 소금했다가 옛날엔 대막대기 큰 거 해서 놔서 노끈 해서 해서 막 그 푸리 아니 올라가게끔.)

107058#2 푸리 안 올라가게.(파리 안 올라가게.)

107058#1 저 우터레 올려근에 물리와근에 구웡 그 이제 소 먹어난 자골이나 고사리도 소 안 먹주게.(저 위로 올려서 말려서 구워서 그 이제 소 먹었던 차풀이나 고사리도 소 안 먹지.)

107058 @ 예.(예.)

107058 #1 그런 거 ㅋ튼 거 다 소가 어떻 그런 거 잘 굽려내카부텐. 먹을 때.(그런 거 같은 거 소가 어떻게 그런 거 잘 가려낼까봐. 먹을 때.)

107058 @ 음.(음.)

107058 #1 그거 가정은에 불, 불 슴으면은 불이 앙강허여.(그거 가져서 불, 불 때면 불이 에푸수수해.)

107058 @ 으.(으.)

187) '폐우력'은 우력의 한 가지다. '폐'라는 식물이 나는 곳에서 서식하여 붙은 명칭이다.

107058 #1 게믄 적쉐예.(그러면 석쇠예.)

107058 @ 예.(예.)

107058 #1 그거 영 놔근에 그디 영 혜영 ㅎ꼼 탕 냥은 불 꺼져부니까 비슷하게 시리 그 구어근에 코셍이 어랭이도(그거 이렇게 놔서 거기 이렇게 해서 조금 타서 봐서는 불 꺼져버리니까 비슷하게끔 그 구워서 고생놀래기 어랭놀래기도.)

107058 @ 예.(예.)

107058 #1 그치록 구워근에 시들라근에 구웡 먹어사 코스롱허영 맛있어.(그처럼 구워서 시들려서 구워서 먹어야 고소해서 맛있어.)

107058 @ 그거는 어느 계절에 먹는 거우과?(그거는 어느 계절에 먹는 겁니까?)

107058 #1 여름이라. 여름에라.(여름이야. 여름에야.)

107058 @ 여름에 아아.(여름에 아아.)

107058 #1 옛날엔 옛날에는 통에도 코셍이 어랭이 잊어난디 이젠 코셍이 어랭이가 씨가 졌어.(옛날엔 옛날에는 통에도 고생놀래기 어랭놀래기 있었는데 이젠 고생놀래기 어랭놀래기가 씨가 졌어.)

107058 @ 삼춘, 봄에 먹는 그 반찬 종류는 보통 어떤 거 잇수가? 이 봄철.(삼춘, 봄에 먹는 그 반찬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이 봄철.)

107058 #1 봄철에는 반찬 그 옛날에는 기자 바당에 그때는 톤.(봄철에는 그 옛날에는 그저 바다에 그때는 톤.)

107058 @ 예.(예.)

107058 #1 바당에 거 주로 해다근에 혜영 먹엇주게. 넓페.(바다에 거 주로 해다가 먹었지. 넓페.)

107058 @ 예.(예.)

107058 #1 넓페 해다근에 넓페국 끓영 먹곡 또 물망 해다근에 데평 먹곡.(넓페 해다가 넓페국 끓여서 먹고 또 모자반 해다가 데쳐서 먹고.)

107058 @ 으.(으.)

107058 #1 이젠 그 봄 나가면은 그 육지서는 무수도 막 둑었다근에 봄 나가, 봄 됐도록 먹는다.(이젠 그 봄 나가면 그 육지서는 무도 막 둑었다가 봄 나가, 봄 되도록 먹는데.)

107058 @ 음.(음.)

107058 #1 그땐 우리 이디 사름덜은 이 생각을 못하니까 그거를 밟되서 그 겨울에 막 눈 오곡 이제 무수는 겨울 텐데 근에 봄이 나도 굽지를 안 하는다.(그땐 우리 여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하니까 그거를 밟에서 그 겨울에 막 눈 오고 이제 무는 겨울 되어서 봄이 나도 굽지 안하는 데.)

107058 @ 예.(예.)

107058 #1 옛날 무수는 그 눈 와근에 무시거 혜나믄.(옛날 무는 그 눈 와서 무엇 혜나면.)

107058 @ 다 굽아부려.(다 굽아버려.)

107058 #1 다 짓양 소개그치록 부각허영 먹지 못허여.(다 곱아서 솜처럼 보각해서 먹지 못해.)

107058 @ 으.(으.)

107058 #1 그때는 뱃데 우갓에 나는 거 가져근에.(그때는 밭에 텷밭에 나는 거 가져서.)

107058 @ 못 먹고.(못 먹고.)

107058 #1 먹을 수가 엇고. 바당에.(먹을 수가 없고. 바다에.)

107058 @ 음.(음.)

107058 #1 톨. 그때는 톨이 막 성하곡. 또 물망 같은 거.(톳. 그때는 톳이 아주 성하고. 또 모자반 같은 거.)

107058 @ 예.(예.)

107058 #1 넓폐 같은 거 또 미역, 미역 주로.(넓폐 같은 거 또 미역, 미역 주로.)

107058 @ 미역 주로예? 아.(미역 주로요? 아.)

107058 #1 미역 행 미역채 해영 먹곡. 미역 가정 국 끌령 먹곡. 기자 것도 그 미역도 미역이 깝이, 깝이 너무 미역 값 잘 가면은 미역은 에껴근에 풀양 돈 사젠 안 먹곡. 그자 물망 그뜬 거 돈 그자 못 사는 거. 그런 거.(미역 해서 미역채 해서 먹고. 미역 가져서 국 끓여서 먹고. 그저 것도 그 미역도 미역이 깝이, 깝이 너무 미역 값 잘 가면 미역은 아껴서 팔아서 돈 벌려고 안 먹고. 그저 모자반 같은 거 돈 그저 못 버는 거. 그런 거.)

107058 @ 웃음.(웃음.)

107058 #1 넓폐 그튼 거.(넓폐 같은 거.)

107058 @ 봄에는 주로 바당에 풀로 먹었다예? 여름은 아까.(봄에는 주로 바다에 풀로 먹었네요? 여름은 아까.)

107058 #1 여름에도 봄이나 그자 바당에 결로 여름 때는 그자 우갓에 영 헤근에.(여름에도 봄이나 그자 바다에 결로 여름 때는 그자 텷밭에 이렇게 해서.)

107058 #2 우갓에 헌 거 콩입, 콩입.(텃밭에 한 거 콩입, 콩잎.)

107058 @ 콩입.(콩잎.)

107058 #1 콩입덜 옛날에는 콩입. 집의 콩 같았수가? 그.(콩잎들 옛날에는 콩잎. 집에 콩 같았습니까? 그)

107058 #2 아 드르애.(아 들애.)

107058 #1 출구덕¹⁸⁸⁾ 아져근에 드르에 콩입 퉁으레 가낫주. 퉁으레 갓당 밧임제 만낭 다울리민 들아나지 못허민 구덕 왕 빼가불곡.(‘출구덕’ 가져서 들에 콩잎 따려 갔었지. 따려 갔다가 밭 임자 만나서 쫓으면 달아나지 못하면 바구니 와서 빼가버리고.)

107058 @ 님의 밧듸 강 막 퉁양 와? 물웨도 옛날 같앙 먹엇수가?(남의 밭에 가

188) ‘출구덕’는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서 막 따서 와? 물외도 옛날 같아서 먹었습니까?)

107058 #1 물웨 그때는 물웨도 사름덜이 명청한 거라. 집에 영 쪼끔 갈면 이제 얼마든지 먹는 거를 뜯 그 물웨도 보리나.(물웨 그때는 물외도 사람들이 명청한 거야. 집에 이렇게 조금 갈면 이제 얼마든지 먹는 거를 꼭 그 물외도 보리나.)

107058 @ 예.(예.)

107058#2 아경강.(가져가서.)

107058 #1 조나 바꽈근에 와근에 먹곡.(조나 바꿔서 와서 먹고.)

107058 #2 계난 이디 천두 천두하르방이라고 해서 거 매해마다 원두막 해서 물웨 같아서 허면은 그 하르방넨 밧도 엇곡 허니까 저 밧 빌어근에 허면은 쌀.(그러니까 여기 천두 천두할아버지라고 해서 매해마다 원두막 해서 물웨 같아서 하면 그 할아버지넨 밧도 없고 하니까 저 밧 빌려서 하면 쌀.)

107058 #1 보리.(보리.)

107058 #2 보리 조 이런 거 아져가서 바꽈다 먹으면은.(보리 조 이런 거 가져가서 바꿔다 먹으면.)

107058 #1 그던 양석허곡.(거긴 양식하고.)

107058 #1 먹으민 겨울 나곡.(먹으면 겨울 나고.)

107058 @ 힘들지 안하게 혜신계예?(힘들지 않게 했는데요?)

107058 #2 웨 줍서 허면은 그것에 주곡.(외 주십시오 하면 그것에 주고.)

107058 #1 난, 나 커울 땐 그 원두막에 막 그 더운 때 씨원한 뿌름 불민 줌들어 불민 저 혼쪽으로 강 도둑질 혜근에. (웃음).(난, 나 커울 땐 그 원두막에 아주 그 더운 때 시원한 바람 불면 잠 들어버리면 저 한쪽으로 가서 도둑질 해서. (웃음).)

107058 @ 하르방 거기서 줌들 때만 베렸구나 이제.(할아버지 거기서 잠들 때만 보았구나 이제.)

107058 #1 그 웨도 그렇게 맛있어신디 지금은 원 그 맛이 엊어.(그 외도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맛이 없어.)

107058 @ 예.(예.)

107058 #1 그 웨 그튼 건 먹을 걸로 생각도 안 허는디.(그 외 같은 건 먹을 걸로 생각도 안 하는데.)

107058 @ 맞수다. 가을에는 어떤 음식 주로 먹었수가?(맞습니다. 가을에는 어떤 음식 주로 먹었습니까?)

107058 #1 가을에는 뭐 마농지 같은 거여 가을뒈여가민 뭐 우갓에 배추여 뭐 무수여 뭐 그때는 먹을 것이 이제 많이 잊주게.(가을에는 뭐 마늘장아찌 같은 거다 가을 되어가면 텁밭에 배추다 뭐 무다 그때는 먹을 것이 이제 많이 있지.)

107058 @ 가을에가 먹을 게 핫구나예?(가을에가 먹을 게 많았군요?)

107058 #1 가을 뒤민은 그거. 이제 무수덜토 가을끄장은 팬찮고 가을 지난 겨울 지나민 다 짓아부는 때문에 먹을 거 엊어.(가을 되면 그거. 이제 무들도 가을까진 팬찮고 가을 지난서 겨울 지난면 다 곱아버리는 때문에 먹을 거 없어.)

107058 @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성권 하지 안허커라예?(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성귀는 많지 않겠네요?)

107058 #1 겨울에 누물 ㅋ튼 거 햇당은에 퉁아다근에 누물덜토 동 사불곡. 무시 거. 옛날 씨가 씨가 나빠 놓니까 기자 그 시절 ㅎ꼼 넘어가면 다 동 사곡 무수도 다 ㅋ아불곡 허멍게.(겨울에 나물 같은 거 했다가 뜯어다가 나물들도 동 서버리고. 무엇. 옛날 씨가 씨가 나빠 놓으니까 그저 그 시절 조금 넘어가면 다 동 서고 무도 다 곱아버리고 하면서.)

107058 @ 계문 겨울에는 이 자리것이나 멜첫이나 짐치 ㅋ튼 거?(그러면 겨울에는 이 자리것이나 멀치것이나 김치 같은 거?)

107058 #1 반치지.(파초장아찌.)

107058 @ 반치지.(파초장아찌.)

107058 #1 반치지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파초장아찌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107058 @ 어어, 건 한 번도 먹어본 드레가 엊수다.(어어, 건 한 번도 먹어본 차례가 없습니다.)

107058 #2 반치지는 저게 저 바나나 종류우다.(파초장아찌는 저게 저 바나나 종릅니다.)

107058 #1 이제 보민 반치랍디가?(이제 보면 파초입디까?)

107058 #2 열대지방에서 오라서 이 근방에서 벳기 반치가 엊어낫수다.(열대지방에서 와서 이 근방에서밖에 파초가 없었습니다.)

107058 #1 경 혜신가.(그렇게 했는가.)

107058 @ 서귀포도 가난 잇입디다.(서귀포도 가니까 있습니다.)

107058 #2 서귀포로 이쪽. 성산포로 가도 엊고. 표선끄지.(서귀포로 이쪽. 성산포로 가도 없고. 표선까지.)

107058 #1 우리 우잣에는 이만은 살진 거가 멧 개씩 막 잇엉.(우리 텃밭에는 이만한 살찐 것이 몇 개씩 막 있어서.)

107058 #2 짤라불민 또 나곡 짤라불민 또 나곡 허는 거.(잘라버리면 또 나고 잘라버리면 또 나고 하는 거.)

107058 #1 계영 우리 어머니네 그땐 뎅기당 오줌 ㅋ루우민 우잣에라도 올레라도 뎅기당 그냥 싸부는 거 아니.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경 허민 반치 저끗듸 강 오줌 싸지 말렌 반치 둘아나분덴 허멍 막. 웃음.(그래서 우리 어머니네 그땐 다니다가 오줌 마려우면 텃밭에라도 오래라도 다니다가 그냥 싸버리는 거 아니.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그렇게 하면 파초 곁에 가서 오줌 싸지 말라고 파초 달아나버린다고 하면서 막. 웃음.)

107058 @ 아아.(아아.)

107058 #1 오줌 싸민 반치가 엊어져부는 생이라.(오줌 싸면 파초가 없어져버리는 모양이야.)

107058 #2 그 반치도 지금 ㅋ찌 하우스 같이 더평 놔두면은 열매가 열 건데.(그

파초도 지금같이 하우스 같이 덮어서 놔두면 열매가 열 건데.)

107058 #1 열 수도 있어난디.(열 수도 있었는데.)

장 담그기

107059 @ 맞아예, 삼춘 이제까지 장 담감텐 허는데, 장은 언제 담급니까?(맞아요, 삼춘 이제까지 장 담그고 있다고 하는데,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1 장은 이제 음력으로 흔 동짓들 훠면은 너미 일찍 저 시월달이나 언제 그럴 때 메주 하면은 저 파리.(장은 이제 음력으로 한 동짓달 되면 너무 일찍 저 시월달이나 언제 그럴 때 메주 하면 저 파리.)

107059 @ 음.(음.)

107059 #1 막 추워근에 파리가 엎어져벼야주 파리 이실 때 하면 메주 해영 놔두면은 그 메주 냄새가 나니까 떠가면 파리덜 왕은에 쇠 싸부는 때문에 동짓들 훠근에 추우면은 저 콩 삶아근에.(매우 추워서 파리가 없어져버려야지 파리 있을 때 하면 메주 해서 놔두면 그 메주 냄새가 나니까 떠가면 파리들 와서 알 싸버리는 때문에 동짓달 돼서 추우면 저 콩 삶아서.)

107059 @ 음.(음.)

107059 #1 콩 삶아근에 잘리에 담아근에 밟앙.(콩 삶아서 자루에 담아서 밟아서.)

107061 @ 으.(으.)

107061 #1 막 거 쉬와. 옛날엔 막 방에 탁 빛으민 방에가 나오지 아녀근에 막 손듯 그 어깨가 다 무시거 혜신디.(아주 쉬워. 옛날엔 막 방아 탁 빛으면 방아가 나오지 않아서 아주 사뭇 그 어깨가 다 뛰 했는데.)

107061 @ 음.(음.)

107061 #1 이제는 뛰 잘리에 담아근에 저 장화 굽닥하게시리 혜근에 장화로 아래 비니루 짹 깔아근에 그 우의 놔근에 마리에서 불르민 뛰 콩 두 말은 한 건 삼십분도 아녕 다 발라져.(이제는 뛰 자루에 담아서 저 장화 굽게끔 해서 장화로 아래 비닐 짹 깔아서 그 위에 놔서 마루에서 밟으면 뛰 콩 두 말은 한 건 삼십분도 않아서 다 밟아져.

107061 @ 음.(음.)

107061 #1 게메 콩씩 행 놋다근에.(글쎄 콩짚 해서 놋다가.)

107061 @ 예.(예.)

107061 #1 콩씩 행 놋다근에 그거 혜근에 그 다 밟아지면은 다 꺼냉 다라레 다비와놔근에 이치룩 메주 만들어근에.(콩짚 해서 놋다가 그거 해서 그 다 밟아지면 다 꺼내서 대야에 다 부어놓아서 이처럼 메주 만들어서.)

107061 @ 음.(음.)

107061 #1 그 이제는 뛰 고무다라 큰 것에 옛날은 맹뎅이에 혜신디.(그 이제는 뛰 고무대야 큰 것에 옛날은 망태기에 했는데.)

107061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1 #1 고무다라 큰 것에 영 놓고 콩씩 부뜨지 아녀게 놓는 거 콩씩은. 경 헤영 영 놓곡 영 봄근에 일주일 넘어가가믄 북삭하게 헤영현 솜 닮은 그 곰팽이가 막 피어올 때.(고무대야 큰 것에 이렇게 넣고 콩짚 붙지 않게 놓는 거 콩짚.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봄서 일주일 넘어가면 보각하게 하얀 솜 같은 그 곰팡이가 막 피어올 때.)

107061 @ 음.(음.)

107061 #1 그거 그때 헤근에 소금 낳 그 장 담아부는 거.(그거 그때 해서 소금 넣어서 그 장 담가버리는 거.)

107061 @ 음.(음.)

107061 #1 장 거 콩 삶을 때에.(장 거 콩 삶을 때에.)

107061 @ 예.(예.)

107061 #1 이제 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콩물.(이제 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콩물.)

107061 @ 예.(예.)

107061 #1 콩물을 메주 꿀 때 콩물을 놋근에 뀌젠 하면 그 동안에 콩물 간수를 해야 하는디.(콩물을 메주 이길 때 콩물을 놋서 이기려고 하면 그 동안에 콩물 간수를 해야 하는데.)

107061 @ 음.(음.)

107061 #1 만약에 이제 콩 이제 그 콩이 혼 말이민 소금이 그 두 관ಡ 들어가는 거 아니?(만약에 이제 콩이 이제 그 콩이 한 말이면 소금이 그 두 관되 들어가는 거 아니?)

107061 @ 예.(예.)

107061 #1 계민은 두 관ಡ를 이제 따로 헤 놋근에 그 두 관ಡ에서 콩물러레 완전 짜게.(그러면 두 관되를 이제 따로 해 놓아서 그 두 관되에서 콩물로 완전 짜게.)

107061 @ 예.(예.)

107061 #1 변하지 아녀게 그렇게 헷당 놋다근에 콩 장 만들 때는 그 콩물도 놓곡 그디 놓단 나머지 소금도 놓곡.(변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가 놋다가 콩 장 만들 때는 그 콩물도 넣고 거기 넣던 나머지 소금도 넣고.)

107061 @ 음.(음.)

107061 #1 경 헤근에 골고루 잘 뀌어근에 저 항에, 우리 딴 사름덜은 고무통이 여 무시거여 헤도 난 항에. 항에 담아근에 그자 우의 소금 짹 뿌려근에 내불민 봄나가면은 그거.(그렇게 해서 골고루 잘 이겨서 저 항에, 우리 딴 사람들은 고무통이 다 무엇이다 해도 난 항아리에. 항아리에 담아서 그저 위에 소금 짹 뿌려서 내버리면 봄 되어가면 그거.)

107061 @ 삼춘네 훈장 막 맛 좋으쿠다. 웨냐 하면 콩물을 다른 데는 콩물을 그

렇게 간수하지 아녕.(삼촌네 된장 아주 맛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콩물을 다른 데는 콩물을 그렇게 간수하지 않아서.)

107061 #1 그냥 비와불어. 우리 동네서 우리 동네 사름덜은 나.(그냥 부어버려. 우리 동네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

107061 @ 예.(예.)

107061 #1 나가 근치록 이제 하렌 다 가르쳐주니까 다 그렇게 해.(내가 그렇게 이제 하라고 다 가르쳐주니까 다 그렇게 해.)

107061 #1 콩물이 그거 제라한 건디.(콩물이 그거 제대로 된 건데.)

107061 @ 그러니까마씨.(그러니까요.)

107061 #1 검은콩 검은콩 쯤 삶아놔근에 그 콩물 소쿠리 영 헤근에 건져놔근에 밑에를 밑에 다라를 영 바툐근에 영 그 콩물 나온 거 헤근에 사발에 영 떠근에 설탕 쪼끔 행 먹어봐. 굉장히 맛이시메.(검은콩 검은콩 쯤 삶아놔서 그 콩물 소쿠리 이렇게 해서 건져놔서 밑에를 밑에 대야를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그 콩물 나온 거 해서 사발에 이렇게 떠서 설탕 조금 해서 먹어봐, 굉장히 맛있어.)

107061 @ 음음, 맞수다. 게니까 웨냐하면 콩물을 간수해근에 헐 사름 경 엊주마씨.(음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콩물을 간수해서 할 사람 그렇게 없지요.)

107061 #1 게난 그 콩도 그걸 그거 알아야 뛰여. 콩 혼 말 숟을 경우에 소금이 두 관ಡ 들어가는 거라이. 소금 두 관ಡ를 헤다 넣 그 두 관데에서 콩물러레 놓는 거라.(그러니까 그 콩도 그걸 알아야 뛰. 콩 한 말 삶을 경우에 소금이 두 관되 들어가는 거야. 소금 두 관되를 해다 넣어서 두 관되에서 콩물로 넣는 거라.)

107061 @ 음 두 관ಡ를.(음 두 관되를.)

107061 #1 두 관ಡ에서 이제 두 관ಡ 말고 그 소금을 이제 콩물러레 딴 소금을 헤다 놔근에 그 콩을 그거 놓곡 소금 그거 다 놓고 허민 짜근에.(두 관되에서 이제 두 관되 말고 그 소금을 이제 콩물로 딴 소금을 해다가 놔서 그 콩을 그거 넣고 소금 그거 다 넣고 하면 짜서.)

107061 @ 으으으음.(으으으음.)

107061 #1 먹지 못하니까 두 관ಡ를 헤 놔근에 그 두 관ಡ에서 그 콩물러레 놔근에 헤엿당 그 장 담을 때는 그 콩들도 놓곡 남은 소금도 놓곡 헤근에 골고루 영 헤근에 저 꾸여근에 영 항에 딱 담아근에 골고루 누르떻 소금 우의 짹싹 영 주둥이 딱 무꺼근에 고무줄로 딱 즐라매영 내불민 계믄 뭐 더껑 내불민 봄 나가사 열아근에.(먹지 못하니까 두 관되를 해 놓아서 그 두 관되에서 그 콩물로 놔서 했다가 저 이겨서 그 장 담글 때는 그 콩들도 넣고 남은 소금도 넣고 해서 골고루 이렇게 해서 저 이겨서 이렇게 항아리에 딱 담아서 골고루 눌러서 소금 위에 짹싹 이렇게 주둥이 딱 묶어서 고무줄로 딱 즐라매서 내버리면 그러면 뭐 덮어서 내버리면 봄 되가야 열어서.)

107061 @ 게난 그거 헐 때는 그게 삼춘네 어머니가 허던 방식?(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삼춘네 어머니가 하던 방식?)

107061 #1 으, 우리 어머니네 허는 방식이주. 겐디 우리 어머니네 할 때는 콩물을 네껴뱉어.(으, 우리 어머니네 하는 방식이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네 할 때는 콩물을 다 던져버렸어.)

107061 @ 음.(음.)

107061 #1 콩물을 다 네껴베신디 나가 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난 이 콩물을.(콩물을 다 던져버렸는데 내가 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콩물을.)

107061 @ 음.(음.)

107061 #1 이거 내꺼뻥은에 안 텔 건디 네꺼베는 거 닳안, 콩물을 아까 곧는 식으로.(이거 던져버리면 안 될 건데 던져보라눈 거 같아서, 콩물을 아까 말한 식으로.)

107061 @ 딱 저장을 현 거네예?(딱 저장을 한 거네요?)

107061 #1 우리 큰딸도 이제 오십둘인데.(우리 큰딸도 이제 오십둘인데.)

107061 @ 음.(음.)

107061 #1 저 올해부턴 작년에 장 안 담았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앗단 먹어신디 나도 나이 팔십 넘어가고 하난 장 담는 거 그런 거 다 베와근에 느대로 하렌 가르쳐주난 올힌 지대로 다 담았어, 장.(저 올해부턴 작년에 장 안 담아서 올해 장 담가서 익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가져다가 먹었는데 나도 나이 팔십 넘어가고 하니까 장 담그는 거 그런 거 다 배워서 너대로 하라고 가르쳐주니까 올핸 저대로 담았어, 장.)

107061 @2 그 장 먹어봄디가?(그 장 먹어봄디까?)

107061 #1 아니 계난 우리 뜰레가. 나사 우리 집이 담는 거난 먹주마는 큰딸은 올히 그치록혜연 닳안. 나 곧는 대로 혜연에 하영 허지 말양 우선 콩 두 관뒈 조금 이제 더 이제 내년에는 혼 말 영 혜근에 허고 잘 훠민 하영 허곡.(아니. 그러니까 그리 땔네가. 나야 우리 집에 담그는 거니까 먹지만 큰딸은 올해 그처럼 해서 담갔어. 나 말하는 대로 해서 많이 하지 말고 우선 콩 두 관되 조금 이제 더 이제 내년에는 한 말 이렇게 해서 하고 잘 되면 많이 하고.)

107061 @ 예.(예.)

107061 #1 내년에 혼꺼번에 하영 하젠 허민 잘못한덴 허명.(내년에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잘못한다고 하면서.)

107060 @ 그 장도 종류가 으라 개 잇지예? 장 종류는 어떤 거 어떤 거 있수가?(그 장도 종류가 여러 개 있지요? 장 종류는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107060 #1 장, 장 종류는 아까 곧는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여기, 여기주. 육지는 여러 가지가 이신디 우리 여기 식은 이제 그렇게 혜근에 메주 그거 허영 곰생이 탁 그거 이제 곰피어 오면은 그거 곰피어 온 것도 딱 열아홉은에 일주일 훠가면은 그 영 이제 그 잘 트계시리 우의 더꺼 놓는 거 잇어. 무슨 얇은 담요나 무시거 더껑 놔둔 거. 한 육일쯤 훠 가민 열아봐. 열아보면은 그거 훤히 알아져. 이것이 이거 메주민 이 정도 그 곰, 곰이 피어와.(장 장 종류는 아까 말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여기, 여기지. 육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 식은 그렇게 해서 메주 그거 해서 곰팡이 턱 그거 이제 곰피어 오면 곰피어 온 것도 딱 열어봐서 일주일 돼가면 그 이렇게 이제 그 잘 뜨게끔 위에 덮어서 놓는 거 있어. 무슨 맵은 담요나 무엇 덮어 놔둔 거. 한 육일쯤 되어 가면 열어봐. 열어보면 그거 훤히 알아져. 이것이 무엇 메주면 이 정도 그 곰, 곰팡이가 피어와.)

107060 @ 음.(음.)

107060 #1 해양한 거. 그거 하루쯤만 늦으면은 것이 완전 시커멍해벼.(하얀 거. 그거 하루쯤만 늦으면 그것이 완전 새까매벼려.)

107060 @ 아아.(아아.)

107060 #1 그것이 젤 중요한 거라. 시커멍허민 그거는 못 먹는 거.(그것이 젤 중요한 거야. 시커며면 그거는 못 먹는 거.)

107060 @ 썩어부는 거라예?(썩어버리는 거네요?)

107060 #1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 하니까 요새 자꾸 암 균이 잇고 무시거하고 경 하니까 이제 혜영케 혜영 혀영 북삭하게 올라올 때 그때 혜근에 콩물 장 혀영 하고. 또 그 웨에 또 장 그거는 직접적으로 장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빼는 거는.(그렇게 하니까 암 균이 있고 무엇 그렇게 하니까 하얗게 하얘서 보각하게 올라올 때 콩물 장 해서 하고. 또 그 외에 장 그거는 직접적으로 장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장 뽑는 건.)

107060 @ 음.(음.)

107060 #1 이제 메주를 해서 이제 영 영 영 딱딱하게 혜근에 영 혜영 열양 보면은 그거는 완전 그 곰팡이가 피어오르지 아녀도 히뜩히뜩허게시리 그 뜯 것만 닮으면은 그때부터 말류우는 거라이.(이제 메주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어서 보면 그거는 완전 그 곰팡이가 피어오르지 않아도 히뜩히뜩하게끔 뜯 것만 같으면 그때부터 말리는 거야.)

107060 @ 음.(음.)

107060 #1 벗겼되 내낳 말리왕 어두어 가민 들여놨당 또 이제 날씨 좋양 베꼈되 내놨다 들여놨다 허멍 말리왕 것도 한 보름동안은 경 해야 뛰여. 경 혜근에 한 이월달 이월달 뛰면은 음력으로 한 이월달 뛰민 그거 이제 물 뜻뜻하게시리 데와근에 그 메주를 다라에 다 놔근에 막 수세미를 깨끗이 쟁여근에 항아리에 놔근에 이제 혼 말일 경우에 옛날 옛날 같으면 혼 말에 물이 얼마 들어가냐 허민이 허베기로 하나.(바깥에 놓아서 말려서 어두워 가면 들여놨다가 또 이제 날씨 좋아서 바깥에 내놨다 들여놨다 하면서 말려서 것도 보름동안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 이월 이월 되면 음력으로 한 이월 되면 그거 이제 물 따뜻하게끔 데워서 그 메주를 다 대야에 놔서 다 놔서 막 수세미를 씻어서 씻어서 항아리에 놔서 이제 한 말일 경우에 옛날 옛날 같으면 한 말에 물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허벅’으로 하나.)

107060 @ 음.(예, 예.)

107060 #1 옛날 허베기.(옛날 허벅.)

107060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0 #1 그거로 흥나. 두 말일 경우엔 두 개. 그치록 혜근에 놔근에 이제 그 항 그 광목으로 혜근에 무껑 놋다근에 경 혜영 거기 뭐 숯도 뭐 영 허영 피우곡 고 치도 놓고 퇴왕 그레 간장 그거는 간장 빼는 거.(그거로 하나. 두 말일 경우엔 두 개. 그처럼 해서 놔서 이제 그 항아리 그 광목으로 해서 뚫어서 놔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 숯도 뭐 이렇게 해서 피우고 고추도 넣고 띄워서 그리로 간장 그거는 간장 뽑는 거.)

107061 @ 음, 계난 간장 빼는 거는 장 품양은에 언제 적에 빼?(음, 간장 뽑는 거는 장 담가서 언제 뽑아?)

107061 # 삼월달.(삼월달.)

107060 @ 삼월에.(삼월에.)

107060 #1 삼월이 뛰면은.(삼월이 되면.)

107061 @ 동짓들에 메주 숨앙?(동짓달에 메주 삶아서?)

107061 #1 삼월이 메주하곡 간장하곡 따로이. 그거 메주만 영 영 영 건져내벼워 근에 간장은 이제 그 즘진 소코리 놔근에 간장 놀 단지러레 간장 주시를 다 찌꺼기 들어가지 아녀게 경 혜근에 딱 허영 거는 거 간장이고. 그 메준 그거는 그 저 무시 거 보리 같은 뭐 혜근에 거 띄운 것이 있어, 누룩.(삼월에 메주하고 간장하고 따로. 그거 메주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건져내버렸다가 간장은 이제 그 자잘한 소쿠리 놔서 간장 넣을 단지로 간장 찌꺼기를 다 찌꺼기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딱 해서 거 간장이고. 그 메준 그거는 그 저 무엇 보리 같은 뭐 해서 거 띄운 것이 있어, 누룩.)

107061 @ 음.(음.)

107061 #1 누룩혜영 서껑은에.(누룩해서 섞어서.)

107061 @ 음.(음.)

107061 #1 소곰 이제 적당하게 놓곡 행 그거는 혜근에 놔두면은 것도 그런대로 맛있고.(소금 이제 적당하게 넣고 해서 그거는 해서 놔두면 것도 그런대로 맛있고.)

107061 @ 게민 웬장 꿤 때도 누룩을 ㅋ치 놓은에 뀌는 거?(그러면 된장 이길 때도 누룩 놔서 이기는 거?)

107061 #1 웬장 꿤 땐 누룩을 놔근에 허면은 처음에는 그 색깔이 이런 색깔 뛰 민 뛰는디 누룩 놓은 거는 간장 떠다근에 그거 먹당 놔두민 간장이 그 웬장이 시커 명허여.(된장 이길 땐 누룩을 놔서 하면 처음에는 그 색깔이 이런 색깔 되면 되는데 누룩 놓은 거는 간장 떠다가 그거 먹다가 놔두면 간장이 그 된장이 시커때.)

107061 @ 아아. 누룩 놓은 거는.(아아. 누룩 놓은 거는.)

107061 #1 웬장이.(된장이.)

107061 @ 누룩 놓는 건 무신거에 놓는 거우파?(누룩 넣는 건 무엇에 놓는 겁니까?)

107061 #1 그거 장물 빼난 그 누룩 거세기 메주에 누룩을 넣 하는 건 그거는

주로 이제 웬장국 끓여먹을 때.(그거 간장 뽑았던 그 누룩 거시기 메주에 누룩을 넣어서 하는 건 그거는 주로 이제 된장국 끓여먹을 때.)

107061 @ 아아 웬장국 끓영 먹는 거?(아아 된장국 끓여서 먹는 거?)

107061 #1 그때 그때 영 해근에 거려놔근에 물 그 쪼끔 놔근에 조루.(그때 그때 이렇게 해서 떠 놓아서 물 그 조금 놔서 조리.)

107061 @ 음.(음.)

107061 # 조루러레 영 해근에 영 걸러내근에 웬장 끓여먹는 거는 그 장으로 하곡.(조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러내어서 된장 끓여먹는 거는 그 장으로 하고.)

107061 @ 음.(음.)

107061 #1 또 이제 누룩 놓지 아년 장은 그거는 누룩 놓지 아년 거는 뜰 때 이 색깔이면은 그 떠다 논 거 다 먹을 때까지 이 색깔이 변하지 아녀는데 그 누룩 논 거는 처음에는 완전 새빨강하게 그 빛깔이 좋았다가 그 먹다가 듯날쯤 먹젠 보면은 맛은 변한 것이 아닌디 색깔이 변허여.(또 이제 누룩 넣지 않은 장은 그거는 누룩 놓지 않은 거는 뜰 때 이 색깔이면은 그 떠다 놓은 거 다 먹을 때까지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 그 누룩 넣은 거는 처음에는 완전 새빨갛게 그 빛깔이 좋았다가 그 먹다가 뒷날쯤 먹으려고 보면 맛은 변한 것이 아닌데 색깔이 변해.)

107061 @ 음.(음.)

107061 #1 경 하니까. 경 하니까 그 웬장은 가정 뭐 주로 웬장찌개라든지 뭐 웬장국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냉국행 먹을 때 그치록 그때 직접 직접 먹는 먹는 거 먹는 국 할 때는 그 웬장을 쓰고 누룩 놓지 아년 웬장은 누물을 삶양 먹을 때 하던가 무신거 그런 거 틀도 삶아근에 그냥 웬장에 찍엉 먹고 할 때는 그 웬장으로 먹고.(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된장은 가져서 뭐 주로 된장찌개라든지 뭐 된장국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냉국해서 먹을 때 그처럼 그때 직접 직접 먹는 먹는 거 먹는 국 할 때는 그 된장을 쓰고 누룩 넣지 않은 된장은 나물을 삶아서 먹을 때 하든가 무엇 그런 거 틀도 삶아서 그냥 된장에 찍어서 먹고 할 때는 그 된장으로 먹고.)

107061 @ 게믄 삼촌 그 누룩 서끈 거랑 누룩 안 서끈 거랑 웬장 이름을 트나게 부르진 안 협니까?(그러면 삼촌 그 누룩 섞은 거랑 누룩 안 섞은 거랑 된장 이름을 다르게 부르진 안 합니까?)

107061 #1 트나게 부르지 아녀고 기자 웬장하고 간짱 빼뒹 헌 건 이녁 생각대로만 이거는 누룩 서끈 웬장이다 생각해근에 그거는 경 이름은 틀리지 안허여.(다르게 부르는 않고 그저 된장하고 간장 빼두고 한 건 이녁 생각대로만 이건 누룩 섞은 된장이다 생각해서 그거는 그렇게 이름은 다르지 않아.)

107061 @ 간장은 여기에서 뭐렌 협니까?(간장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107061 #1 장물.(‘장물’.)

107061 @ 그냥 장물. 웃음. 고추, 고치장도 혜낫수가?(그냥 간장. 웃음. 고추, 고추장도 했었습니까?)

107061 #1 고치장 그 옛날에는 우리 여기가 고칠 경 고치장 허게 고칠 갈질 아낸게. 고치게 그거 하젠 허믄 고쳤가루 사야 훠는디 그거 사근에 만드는 집덜은 만들엉 먹곡.(고추장 그 옛날에는 우리 여기가 고출 그렇게 고추장 하게 고추를 갈질 않던데. 고추 그거 하려고 하면 고춧가루 사야 되는데 그거 사서 만드는 집들은 들어서 먹고.)

107061 @ 경 하영은 안 햇어예?(그렇게 많이는 안 했다고요?)

107061 #1 요만한 단지로 흐나씩. 그거를 하면은 막 귀하게 애껴근에 그 고치장. 이제는 뭐 너러진 게 고치장인디.(요만한 단지로 하나씩. 그거를 하면 아주 귀하게 아껴서 그 고추. 이제는 뭐 널어진 게 고추장인데.)

107063 @ 맞수다. 그리고 삼춘, 그 장 담을 때에 뭐뭐 허지 말라. 장은 또 지네 본명일 이시민 안 담고 허잖아예? 그거 굽아줍서.(맞습니다. 그리고 삼춘, 그 장 담을 때에 뭐뭐 하지 말라. 장은 또 저네 본명일 있으면 안 담그고 하잖아요? 그거 말해주십시오.)

107063 #1 안 담아.(안 담가.)

107063 @ 장은 어느제 담고 어느 날 해야 좋고, 메주 숷은 때나 장 담는 거는 언제 헤마씨?(장은 언제 담그고 어느 날 해야 좋고, 메주 숷은 때나 장 담그는 거는 언제 해요?)

107063 #1 저 닭날 뭐 개날 뱠날 같은 때 사름날 그런 날에는 담지 말곡.(저 닭날 뭐 개날 뱠날 같은 때 범날 그런 날에는 담그지 말고.)

107063 @ 음.(음.)

107063 #1 장 담는 거 콩 숷는 것도 그거.(장 담그는 거 콩 숷는 것도 그거.)

107063 #1 영 봄근에 낸은 물날이난에 장 담으라.(이렇게 봄서 낸을 말날이니까 장 담가라.)

107063 @ 으.(으.)

107063 #1 다 경 굽아. 어느 날 개날이난 장 담으라 경 허곡. 뱠날 용날 사름날¹⁸⁹⁾ 그런 날덜은 장 그거 안 담아.(다 그렇게 말해. 어느 날 개날이니까 장 담가라 그렇게 하고. 뱠날 용날 범날 그런 날들은 장 그거 안 담가.)

107063 @ 안 담아예? 예. 계난 장 담을 때 뭐 다른 금기사항은 엊어마씨? 그런 거 말고는?(안 담근다고요? 예. 그러니까 장 담을 때 뭐 다른 금기사항은 없어요? 그런 거 말고는?)

107063 #1 부정헐 때 안 하고.(부정할 때 안 하고.)

107063 @ 부정할 때는 안 하고예?(부정할 때는 안 하고요?)

107063 #1 집안에 뭐 상이 나거나 뭐 하면은 여자들은 또 자기 여자들 뭐.(집안에 뭐 상이 나거나 뭐 하면은 여자들은 또 자기 여자들 뭐.)

107063 @ 몸 궂엉 안 하고.(몸 궂어서 안 하고.)

189) ‘사름날’은 12지지 가운데 ‘인날(寅-)'에 해당하는 날이다. ‘범날’을 가리킨다.

떡류

107064 @ 안 허고. 알았수다. 그리고 이제는 떡예? 떡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 이 동네. 떡 식게떡?(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떡요? 떡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이 동네. 떡 제사떡?)

107064 #1 그 옛날 식게떡 우리는 어명해시냐 하면 그때는 저 요새 쌀이 아니고 그땐 요샛 쌀은 이딧끄장 뭐 사오지도 못해주만은 산듸쌀.(그 옛날 제사떡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저 요새 쌀이 아니고 그땐 요새 쌀은 여기까지 뭐 사오지도 못하지만 밭벼쌀.)

107064 @ 예, 예. 산듸쌀.(예, 예. 밭벼쌀.)

107064 #1 산듸쌀 헤근에 헤영 커근에 뜻아근에 시리떡도 다 집의서 만들었주. (밭벼쌀 해서 잠가서 마서 시루떡도 다 집에서 만들었지.)

107064 @ 예.(예.)

107064 #1 시리. 이제 우리 집의 그 시리가 잇인디.(시루. 이제 우리 집에 그 시루가 있는데.)

107064 @ 아, 기우과? 나중에 사진 하나 찍어야켜.(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107064 #1 시리 옥상에 놔두난에 이시카 모르켜.(시루 옥상에 놔두니까 있을까 모르겠다.)

107064 @ 웃음.(웃음.)

107064 #1 옛날에 옥상에 놔두난 이신가 엇인가 모르켜. 늘 부난야 집의 시난 광팡 하는 소리가 난. 그 늘 다 불언에 옥상에 가보난 상이 지네 항이 지네끼리 등 글어가명 지네끼리 부닥치멍 다 깨져분 거라.(옛날에 옥상에 놔두니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태풍 부니까 집에 있으니까 광팡 하는 소리가 났어. 그 태풍 다 불어서 옥상에 가보니까 상이 저네 항이 저들끼리 굴러가면서 저네끼리 부딪치면서 다 깨져버린 거야.)

107064 @ 아아.(아아.)

107064 #1 시리도 잇인가 엇인가 모르켜.(시루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107064 @ 음.(음.)

107064 #1 그 시리, 시리에서 그 옛날은 기겟방 그런 거 엇이니까 집의서 다 주로 허여근에 시리떡 할 때에 무신 정체 엇인 말 굽으민 떡 잘 안 익엄젠 허멍 아이 덜 오지 못하게 막 헤근에 이제 허고. 주로 저 솔벤 절벤.(그 시루, 시루에서 그 옛날은 방앗간 그런 거 없으니까 집에서 다 주로 해서 시리떡 할 때에 무슨 정처 없는 말 말하면 떡 잘 안 익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 오지 못하게 막 해서 이제 하고. 주로 저 솔편 절편.)

107064 @ 예, 솔벤 절벤.(예, 솔편 절편.)

107064 #1 약궤.(약과.)

107064 @ 예.(예.)

107064 #1 아이고, 중궤 약궤.(아이고, 중궤 약과.)

107064 @ 예, 중궤 약궤.(예, 중궤 약과.)

107064 #1 중궤 약궤엔 헌 건 중궤엔 헌 건 영 긴 거고 영 허영 긴 거고 약궤
엔 헌 거 네개방장헌 거.(중궤 약과라고 한 건 중궤라고 한 것 이렇게 긴 거고 이렇게
해서 긴 거고 약과라 한 거 네모반듯한 거.)

107064 @ 예. 네개방장헌 건 약궤 그 다음에 중궤.(예. 네모반듯한 건 약과 그
다음에 중궤.)

107064 #1 솔벤 절변.(솔편 절편.)

107064 @ 예 네 가지?(예, 네 가지.)

107064 #1 솔벤 절변 경 허곡 기름떡.(솔편 절편 그렇게 하고 기름떡.)

107064 @ 지름떡.(기름떡.)

107064 @2 그것이 웃기우파?(그것이 웃기떡입니까?)

107064 #1 양.(예.)

107064 @2 맨 우의 놓는 거.(맨 위에 놓는 거.)

107064 #1 맨 우에 놓는 거 기름떡.(맨 위에 놓는 거 기름떡.)

107065 @ 여기는 우찍이렌 말은 안 해마씨?(여기는 ‘우찍’이라는 말은 안 해
요?)

107065 #1 그것이 그거 닮아. 젤 우에. 그거 그 저 시리, 시리 그 이제 그 시리
떡을 젤 밑에 놓.(그것이 그거 같아. 젤 위에. 그거 저 시루, 시루 그 이제 그 시루
떡을 젤 밑에 놔서.)

107065 @ 예, 맷 빗 놉니까?(예, 몇 켜 놉니까?)

107065 #1 정반, 정반을 영 영한 거 수랑헌 거주계.(챙반, 챙반을 이렇게 이렇게
한 거 기름한 거지.)

107065 @ 예.(예.)

107065 #1 게민 두 빗 놓. 그 아래는 젤 아래는 솔벤 놔근에.(그러면 두 켜 놔
서. 그 아래는 젤 아래는 솔편 놔서.)

107065 @ 예.(예.)

107065 #1 솔벤 이렇게 한 거. 그거 놔놓 그거 혼 드리 놔놓은에 절벤 놓는 거
라이.(솔편 이렇게 한 거. 그거 놔서서 이렇게 한 도리 놔놔서 절편 놓는 거야.)

107065 @ 예.(예.)

107065 #1 절벤 놓은 다음에는 중궤 약궤이. 그거 놔난 젤 우의는 우지시. 우지
시.(절편 놓은 다음에는 중궤 약과. 그거 놔난 젤 위에는 웃기떡. 웃기떡.)

107065 @ 우지시.(웃기떡.)

107065 #1 기름떡이 아니고 우지시.(기름떡이 아니고 웃기떡.)

107065 @ 우지시.(웃기떡.)

107065 #1 그거 젤 우의 놓는 거.(그거 젤 위에 놓는 거.)

107065 @ 경 허면은 식게 뛰는 거?(그렇게 하면 제사 되는 거?)

107065 #1 그거.(그거.)

107065 @ 아, 계믄 중궤 약궤를 그치 하나에 저 쟁반에 놓는구나예?(아, 그러면 중계 약과를 같이 하나에 저 쟁반에 놓는군요?)

107065 #1 집집마다 다 경. 어떤 집의 가면은 따로 올리는 집도 있어.(집집마다 다 그렇게. 어떤 집에 가면 따로 올리는 집도 있어.)

107065 @ 어쨌든 삼춘네는 그냥 허는 거 아니예?(어쨌든 삼춘네는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107065 #1 요만은 한 그 쟁반이 따로 있어.(요만큼 한 그 쟁반이 따로 있어.)

107065 @ 예.(예.)

107065 #1 계민 이제 저 시리떡 두 줄 놔근에 그 우의 솔벤 놓고 절벤 놓고 중궤 약궤 우지시.(그러면 이제 저 시루떡 두 줄 놔서 그 위에 솔편 놓고 절편 놓고 중계 약과 웃기떡.)

107066 @ 으, 다섯 층으로 이렇게 허는구나예. 경 허고 삼춘, 여기는 송편은 안 만들아?(으, 다섯 층으로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게 하고 삼춘, 여기는 송편은 안 만들어?)

107066 #1 송편은 그 솔벤 절벤 그거 혜난 그.(송편은 그 솔편 절편 그거 했었어.)

107066 @ 이후에?(이후에?)

107066 #1 이후에 그 솔벤이란 저 송편이라는 건 나왔주.(이후에 그 솔편이란 저 송편이라는 거 나왔지.)

107066 @ 아아, 이건 나중에 나온 거라예?(아아, 이건 나중에 나온 거라고요?)

107066 #1 솔벤 절벤 그거 다음에 이 송편이라는 건 나왔어.(솔편 절편 그거 다음에 이 송편이라는 건 나왔어.)

107067 @ 음, 여기는 정기떡은 식게에 안 올렸수가?(음, 여기는 ‘정기떡’은 제사에 안 올렸습니까?)

107067 #1 정기떡¹⁹⁰⁾은 저 영 보면은 그때에는 옛날에 보면 놈의 집덜은 저 이 정기 혜근에 상에도 올리는디 우리 집인 정기떡 혜영 상에는 안 올련게.(‘정기떡’은 저 이렇게 보면 그때에는 옛날에 보면 남의 집들은 저 이 ‘정기’ 해서 상에도 올리는데. 우리 집에는 ‘정기떡’ 해서 상에는 안 올리던데.)

107067 #2 먹을 걸로, 먹을 걸로.(먹을 걸로, 먹을 걸로.)

107067 @ 먹을 걸로만.(먹을 걸로만.)

107067 #1 영 제사 먹으레 오민 그땐 열두 시 다 돼가사 제사 지내난에 정기떡 덜 혜영 상엔 안 올련게.(이렇게 제사 먹으러 오면 그땐 열두 시 다 돼가야 제사 지니니까 ‘정기떡’들 해서 상엔 안 올리던데.)

107067 #1 그동안에 정기떡덜 지정은에 오민 먹고. 또 만뒤¹⁹¹⁾.(그동안에 ‘정기

190) ‘정기떡’은 메밀가루를 얇게 지져서 안에 무채를 넣은 후에 말아서 만든 음식이다. 지경에 따라서 ‘빙떡’, ‘빈떡’, ‘영빈’, ‘멍석떡’ 따위로 부른다.

191) ‘만뒤’는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서 쪘낸 후에 다시 팥고물을 무친 떡을

떡'들 지져서 오면 먹고. 또 만두.)

107067 @ 만뒤?(만두?)

107067 #1 만뒤 그거 이제 모멸가루 헤근에 막 영 밀어근에.(만두 그거 이제 메밀가루 해서 막 이렇게 밀어서.)

107067 @ 예.(예.)

107067 #1 사발로 본 떠근에 경 헤근에 거기에 양꼬 쉬 놔근에. 뭐 앗은베기콩 그때는 앗인베기 콩 그뜬 거 우잣에 신 거 그거 숟아근에 그거 뜻아근에 그런 거 놓고 계영 영 영 영 숟아내영.(사발로 본 모양 떠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팔소 소 놔서. 뭐 강낭콩 그때는 강낭콩 콩 같은 거 텁밭에 있는 거 그거 삶아서 그거 빵아서 그런 거 넣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삶아내서.)

107067 @ 예.(예.)

107067 #1 숟아내여근에 또 이 다라레 놔근에 앗은베기 풋이나 또 앗은베기 또 막 미청. 경 헤근에 그런 거는 상에 잘 올리지 아녀고 다 먹는 종류로만.(삶아내어서 또 이 대야에 놔서 강낭콩 팔이나 강낭콩 또 마구 묻혀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상에 잘 올리지 않고 다 먹는 종류로만.)

107067 @ 누나먹을 걸로만예?(나눠먹을 걸로만요?)

107067 #1 제사 때 저 방상 사름덜 다 오면은 그 그거하고 또 골감취, 골감취 헷당 그 감취에 그 정기에 만두에 경 헤근에 그거는 그 그거 그렇게 귀, 귀곶좌근에 먹는 집이.(제사 때 저 친척 사람들 다 오면 그 그거하고 또 감주, 감주 했다가 그 감주에 ‘정기’에 만두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 거 그렇게 귀, 갖춰서 먹는 집이.)

107067 @ 베랑 엇어.(별로 별어.)

107067 #1 멧 집 안 웨여.(몇 집 안 돼.)

107067 @ 삼춘, 게민 삼춘네 집에서는 상에 올리는 거는 전부 산듸쓸로 해?(삼춘, 그러면 삼춘네 집에서는 상에 올리는 거는 전부 밭벼쌀로 해?)

107067 @ 그 중궤 약궤도 전부?(그 중계 약과도 전부?)

107067 #1 중궤 약궤도 다 곤쓸로.(중계 약과도 다 흰쌀로.)

107067 @ 다 곤쓸로 다 혜연예?(다 흰쌀로 다 해서요?)

107067 #1 게고 저 모멸쓸로 헤근에 올라가는 거는 저 둑(그리고 저 메밀쌀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저 둑.)

107067 @ 둑.(득.)

107067 #1 둑, 둑 청득¹⁹²⁾.(득, 둑, ‘청득’.)

107067 @ 예.(예.)

107067 @ 청득.(‘청득’.)

107067 #1 청득엔 현 건 모멸쓸 곱닥허시리 그 검은 거 하나 엇이 깨끗한 거

말한다.

192) ‘청득’은 메밀쌀을 물에 불린 후에 앙금을 낸 후 만든 둑을 말한다.

혜근에 뜻뜻한 물에 담갓당. 담갓당은에 이 광목혜근에 저 잘리 이거 영 혜근에 것도 이름 이신디 잊어벗져. 하도 오래난. 그것에 담아근에 쭈물쭈물하게시리 막 혜영하면은 물이 나와.(청묵이라고 한 건 메밀쌀 곱게끔 그 검은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거 해서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담갔다가 이 광목해서 저 자루 이거 이렇게 해서 것도 이름 있는데 잊어버렸어. 하도 오래니까. 그것에 담아서 쭈물쭈물하게끔 막 하면 물이 나와.)

107067 @2 놀려.(주물러.)

107067 #1 껌데기만 남고 그 속은이 다 빼진 거라.(껌데기만 남고 그 속은 다 빼진 거야.)

107067 @ 아아.

107067 #1 경 혜근에 혜영 그 물을 쑤는 거라.(그렇게 해서 해서 그 물을 쑤는 거야.)

107067 @ 예.(예.)

107067 #1 쓸 때에 그 잘못, 잘못 췄당은 다 놀어뻥 하나도 엇어. 계난 게나제나 그 묵 다 될 때까지.(쓸 때에 그 잘못, 잘못 췄다가 다 놀어버려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저러나 그 묵 다 될 때까지.)

107067 @ 젓어.(저어.)

107067 #1 막 젓는 거라. 그 남죽 가정. 경 혜근에 다 췄지면은 이제 그때에는 도고리에 영 놔근에 이제 도고리에 다 비와놔근에 손에 물 적져근에 딱딱딱딱 혜영멘짝 혜영허게시리 혜영현 청묵. 그거는 그렇게 한 거는 청묵이고 그냥 모물을 헤근에 가루, 그냥 모물을 그냥 정각례에서(막 젓는 거야. 그 죽젓게 가져서. 그렇게 해서 다 췄지면은 이제 그때에는 함지박에 이렇게 놔서 이제 함지박에 다 부어넣어서 손에 물 적셔서 딱딱딱딱 해서 미끈 하얗게끔 하얀 ‘청묵’. 그거는 그렇게 한 거는 ‘청묵’이고 그냥 메밀쌀 해서 가루, 그냥 메밀쌀 그냥 맷돌에서.)

107067 @ 예.(예.)

107067 #1 정각례에서 갈아근에 그 굽아낸 그 가루로 혜근에 묵 쑨 거는 그냥 묵.(맷돌에서 갈아서 그 갈아낸 그 가루로 해서 묵 쑨 거는 그냥 묵.)

107067 @ 그냥 묵.(그냥 묵.)

107067 #1 그 잘리에 영 영 혜근에 그 모물을 혜근에 그 물 빼영 한 거는 청묵.(그 자루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메밀쌀 해서 그 물 빼서 한 거는 ‘청묵’.)

107068 @ 청묵. 청묵하고 이제 묵이고. 그리고 삼춘 여기는 상웨떡도 멘들아? (청묵. ‘청묵’하고 이제 묵이고. 그리고 삼춘 여기는 상화떡도 만들어?)

107068 #1 상웨떡 저 그때는 그 밀. 상웨떡은 밀.(상화떡 저 그때는 그 밀. 상화떡은 밀.)

107068 @ 밀.(밀.)

107068 #1 밀 혜근에 이제 것도 각례 막 굽앙.(밀 해서 이제 것도 맷돌 막 갈아서.)

107068 @ 예.(예.)

107068 #1 이제 그는체로 다 이제 쳐근에 그는체로 쳐근에 그 체 우의 거는 또 두불 굴고 하명 헤근에 그거 가져근에 뭐 지금 지금 쉽게 말허민 막걸리.(이제 가는 체로 다 이제 쳐서 가는체로 쳐서 그 체 위에 거는 또 두별 같고 하면서 해서 그거 가져서 뭐 지금 쉽게 말하면 막걸리.)

107068 @ 예.(예.)

107068 #1 막걸리처럼 그거 한 걸로 반죽해영은에 거 놔두면은 멧 시간 잇이민 그것이 부각하게 그 반죽이 올라와.(막걸리처럼 그거 한 걸로 반죽해서 거 놔두면 몇 시간 있으면 그것이 부각하게 그 반죽이 올라와.)

107068 @ 음.(음.)

107068 #1 그때 헤근에 헤근에 영 솟의 영 아래 고살 영 놀근에 그 우의 베로 만든 포이.(그때 해서 솔에 해서 이렇게 솔에 이렇게 아래 경그레 이렇게 놔서 그 위에 베로 만든 보.)

107068 @ 예.(예.)

107068 #1 깔아놔근에 그 우의 그 떡을 놀근에 알로 불 숨으면은 완전 그 옛날 할망덜 어느 정도 검질 멧 단 숨으면은 숨으면은 이제 다 됐다는 거 입력 해놓 그만 숨아. 계영 두껑 율양 보면 완전 이만은 부각하게시리 그 상웨떡 그거.(깔아놔서 그 위에 떡을 놔서 아래로 불 때면 완전 그 옛날 할머니들 어느 정도 검불 몇 단 때면 때면 이제 다 됐다는 거 입력 해놓아서 그만 때. 그래서 뚜껑 열어서 보면 완전 이만한 부각하게끔 그 상화떡 그거.)

107068 @ 예, 삼춘 상웨떡 헬 때 뭐 끌양은에 헷어마씨? 베?(예, 삼춘 상화떡 할 때 뭐 깔아서 했어요?)

107068 #1 베 이거.(베 이거.)

107068 @ 동글락현 거.(둥그런 거.)

107068 #1 솟 동글락현 거면 낭께기(솔 둉그런 거면 나뭇가지.)

107068 @ 으.(으.)

107068 #1 낭께기 뭐 저 깨끗한 거 대나무나 무시거 영 영 상자리 그치록 놓는 거라. 중간으로.(나뭇가지 뭐 저 깨끗한 거 대나무나 무엇 이렇게 이렇게 상자리 것처럼 놓는 거야. 중간으로.)

107068 @ 으.(으.)

107068 #1 딱 부뜨개 말아근에. 이것이 솟이민 이것이 솟이면은 요만쯤이 요 밑에는 물. 이거 이만은 놀근에 이 우터레 이것에 영 허영 솟이면은 요 우터레 그, 그거 이제 그 대막댕이나 그 츄근多层次하게시리 딱하게 놀낳은에 베 그 포를 딱 끌아근에 그 우터레.(딱 불게 말고. 이것이 솔이면 이것이 솔이면 요만쯤에 요 밑에는 물. 이거 이만큼 놔서 이 위로 이것에 이렇게 해서 솔이면 요 위로 그, 그거 이제 대막대기나 그 차근차근하게끔 딱하게 놀놔서 베 그 보를 딱 깔아서 그 위로.)

107068 @ 그때 놓는 대막댕이 이렇게 놓잖아예, 그거를 뭐렌 해? 여기서.(그때

놓는 그거를 대막대기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해? 여기서.)

107068 #2 상자리, 상자리.(상자리, 상자리.)

107068 #1 아니 사름이 올라가는 건 상자린디.(아니 사람이 올라가는 건 상자린데.)

107068 @ 아까 고수월엔 현 건 뭐?(아까 ‘고수월’엔 한 건 뭐?)

107068 #1 고살¹⁹³⁾.(‘고살’.)

107068 @2 고살. 아까 굴앗수다, 훠장님이.(‘고살’ 아까 말했습니다, 회장님.)

107068 @ 낭 츄근츄근허게 놓는 게 고살이고.(나무 차근차근하게 놓는 게 ‘고살’이고.)

107068 #1 낭 츄근츄근 인치룩 놓는 거라. 인추룩 공간 일로 이레 츄근츄근 꼬장 놓는 거라. 이 밑에는 물.(나무 차근차근 이처럼 놓는 거야. 이처럼 공간 일로 이리로 차근차근 깔아 놓는 거야. 이 밑에는.)

107068 @ 게믄 이렇게 헤근에 만들아정 잇수가? 그 고소월이.(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고소월’이.)

107068 #1 거는 만들어 놓는 집도 잇주마는 그때그때.(거는 만들어 놓는 집도 있지만 그때그때.)

107068 @ 낭으로 혜영 물 잊고 놓는 거잖아요?(나무로 해서 물 있고 놓는 거잖아요?)

107068 #2 솟이 이렇게 웨니까. 여기에 맞춰서 짤르명 요렇게.(솔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르면서 요렇게.)

107068 #1 짤르명.(자르면서.)

107068 #2 그 우터레 포 끌앙.(그 위로 보 깔아서.)

107068 #2 포 끌앙 물은 끓어서 짐으로만 익게.(보 깔아서 물은 끓어서 짐으로 만 익게.)

107068 @ 이 만들어진 거는 고소월 안 혜영.(이 만들어진 거는 ‘고소월’ 안 해서.)

107068 #1 판데기 판데기.(판때기 판때기.)

107068 @ 판데기 굴잖아요?(판때기 말하잖아요?)

107068 #1 판데기 솟에 맞게시리 남자덜이나 좀상헌 어른덜 하르방덜 아방덜 그 이신 딘 그것에 맞좌근에 딱하게 만들어나신디.(판때기 솟에 맞게끔 남자들이나 세심한 어른들 할아버지를 아버지들 그 있는 데는 그것에 맞춰서 딱하게 만들었는데.)

107068 @ 그 이름은 뭐우과?(그 이름은 뭐니까?)

107068 #1 판데기.(판때기.)

107068 @ 판데기 말고 다른 이름 이신디.(판때기 말고 다른 이름 있는데.)

193) ‘고살’은 떡 따위를 찌기 위하여 솔 안에 나뭇가지 등을 깔아 경그레처럼 만들어 놓은 도구를 말한다.

107068 #1 아 무신거여마는. 고살. 것도 무신 이름이 잇어나신디.(아 무엇이다만. ‘고살’. 것도 무슨 이름이 있었었는데. ‘고살’. 것도 무슨 이름이 있었었는데.)

107068 @ 음.(음.)

107068 #1 하도 오래부난에.(하도 오래버리니까.)

107068 @ 나중에 틀내봄서. 이거 구분해 갖고 우리 시에서는 거 징이렌 허거든 예?(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이거 구분해 갖고 우리 시에서는 거 ‘징’이라고 하거든요?)

107068 #1 무시거?(무엇?)

107068 @ 징, 징, 떡징. 여기는 떡징 안 하고 다른 말이 잇었는데 내가 틀내지 못허네.(경그레, 경그레, 경그레. 여기는 ‘떡징’ 안 하고 다른 말이 있었는데 대내 생각하지 못하네.)

107068 #1 떡징¹⁹⁴⁾이 아니라.(‘떡징’이 아니야.)

107068 @ 나중에 가근에.(나중에 가서.)

107068 #2 오늘 가거든 할망덜안티 들어봐 봄서.(오늘 가거든 할머니들한테 들어봐 보십시오.)

107068 #1 나 들어봐야켜.(나 들어봐야겠다.)

107067 @ 그 다음에 삼춘 빙떡 지질 땐 어떻 지겼수가?(그 다음에 삼춘 빙떡 지질 땐 어떻게 지겼습니까?)

107067 #1 빙떡 지질 때는 그 옛날에는 후라이팬도 엇고 아무 것도 엇이난에 이렇게 솟. 돌 놓고 두에 돌 놓꼭 이제 막아불민 안 웨여. 공기 통하게 영 놓고 영 놓민 이디 솟두껑.(빙떡 지질 때는 그 옛날에는 프라이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솥. 돌 놓고 뒤에 돌 놓고 이제 막아버리면 안 돼. 공기 통하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솥뚜껑.)

107067 @ 음.(음.)

107067 #1 솟뚜껑 영 해근에 가르싸놔근에 그디 앗경.(솔뚜껑 이렇게 해서 뒤집어놔서 거기 앗혀서.)

107067 @ 예.(예.)

107067 #2 솟 앗지듯 앗경 알로 이제 불 숨으멍 그 우의서 이제 그 정기떡¹⁹⁵⁾을 짓는다. 정기떡을 짓는다.(솥 앗히듯 앗혀서 아래로 이제 불 때면서 그 위에서 이제 ‘정기떡’을 지지는데. ‘정기떡’을 지지는데.)

107067 #2 기름 불르멍. 무수.(기름 바르면서. 무.)

107067 @ 예.(예.)

107067 #1 정기떡을 지지는데 요만한 이제 사라에 이제 참기름.(정기떡을 지지는데 요만한 이제 사라에 이제 참기름.)

107067 @ 으.(으.)

194) ‘떡징’은 표준어 ‘경그레’에 해당하는 말이다.

195) ‘정기떡’은 메밀가루를 얇게 반죽하여 얇게 지진 후에 무채 등을 넣어서 말아서 만든 음식이다. 지역에 따라서 ‘빙떡’, ‘빈떡’, ‘영빈’, ‘명석떡’, ‘정기’ 등이라고 한다.

107067 #1 옛날에는 참기름뺏기 안 셋주게.(옛날에는 참기름밖에 안 셨지.)

107067 @ 아아.(아아.)

107067 #1 꿰 그 농사진 거. 거 혜근에 무수.(참깨 그 농사지은 거. 거 해서 무.)

107067 @ 예.(예.)

107067 #1 무수 이제 이만은 동그랑하게 이만큼 길게시리 끊어근에 그 접시에 놔둠서 정기 하나 지경 혜나민 그 무수 가져근에 영 영 혜근에 기름 발랑 놔근에 기름 발랑 접시에 놔근에 정기 혜영 그 반죽 혜당 놔근에.(무 이제 이만큼 동그랑게 이만큼 길게끔 끊어서 그 접시에 놔두고서 ‘정기’ 하나 지져서 해나면 그 무 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기름 발라서 놔서 기름 발라서 놔서 ‘정기’ 해서 그 반죽 해다 놔서)

107067 @ 계믄 삼촌네는 그 춤지름을 혗갖고 정기를 지진 거라?(그러면 삼촌네는 그 참기름을 해갖고 ‘정기’를 지진 거야?)

107067 #1 춤지름. 옛날에는 기름이 없으니까 춤지름뺏기 엊주게.(참기름. 옛날에는 기름이 없으니까 참기름밖에 없지.)

107067 @2 뛰지기름 안 했수가?(돼지기름 안 했습니까?)

107067 @ 뜯지름은 안 했수가?(돼지기름은 안 했습니까?)

107067 #2 뜯지름에 혜낫어. 도새기 잡으면 그거 드렌 주렌 혜영.(돼지기름에 했었어 돼지 잡으면 그거 달라고 주라고 해서.)

107067 #1 뜯지름덜은 몰라.(돼지기름들은 몰라.)

107067 #2 경도 혜낫어.(그렇게도 했었어.)

107067 @ 삼촌네는 뜯지름을 안 쓴 모양이구나.(삼촌네는 돼지기름은 안 쓴 모양이구나.)

107067 #1 난 그거 안 봐낫어.(난 그거 안 봤었어.)

107067 @ 역시 부잣집은.(역시 부잣집은.)

107067 #2 겐디 요새 빙떡 요만큼 헌 것보다 이만큼 허민 요새 거 세 개, 세 개라야 거 하나.(그런데 요새 빙떡 요만큼 한 것보다 이만큼 하면 요새 거 세 개, 세 개라야 거 하나.)

107067 #1 아이고, 옛날 빙떡 하나민 요새 세 개라.(아이고, 옛날 빙떡 하나면 요새 세 개야.)

107067 @ 음.(음.)

107067 #2 엄청 컷어.(엄청 컷어.)

107067 #1 옛날에는 빙떡이 차롱 옆영은에 다 뛰면은 착하게 차롱더래 놔근에 그레 이제 저 쉬.(옛날에는 빙떡이 채롱 옆어서 다 되면 착하게 채롱으로 놔서 그리로 이제 저 소.)

107067 @ 예.(예.)

107067 #1 그거 놔근에 영 영 영 말면은 이만은 하주게. 이만은 하고.(거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면 이만큼 하지. 이만큼 하고.)

107067 #2 솟뚜껑.(솔뚜껑.)

107067 #1 요새는 뭐라 요만은 허영 요만씩.(요새는 뭐야 요만큼 해서 요만씩.)

107067 @2 이만씩 이만씩.(이만씩 이만씩.)

107067 @ 아, 옛날은 경 커낫수가? 계믄 그 안네는 뭐 놔?(아, 옛날은 그렇게 컸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뭐 놔?)

107067 #1 계난 그 안네 무수. 무수는 그때나 마찬가지고. 흐꼼 부잣집들은 그 앗인베기콩.(그러니까 그 안에 무. 무는 그때나 마찬가지고. 조금 부잣집들은 강낭콩.)

107067 @ 예.(예.)

107067 #1 앗은베기콩 두불콩.(강낭콩, 강낭콩.)

107067 @ 앗인베기콩이 두불콩이우과? 아아 웬냐면.(‘앗인베기콩’이 강낭콩입니까? 아아 왜냐면.)

107067 #1 앗은베기 콩 이 이상 크질 안 허여. 그 콩이 이제 열아근에 허면은. 장마 때는 그 콩이 이 땅에 요만은벗기 안 허니까 다 열아근에 허민 땅에 다 박아 쳐. 땅에 박아진 건 다 나.(강낭콩 콩 이 이상 크질 않아. 그 콩이 이제 열어서 하면. 장마 때는 그 콩이 이 땅에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다 열어서 하면 땅에 다 쓰러져. 땅에 다 쓰러진 건 다 나.)

107067 @ 맞아예?(맞아요?)

107067 #2 옛날은 그거는 다 나.(옛날은 그거는 다 나.)

107067 @ 맞아예.(맞아요.)

107067 #1 흐꼼만 벗 나민 두불콩 타근에 저 혼 주제¹⁹⁶⁾만 물리면은 나지는 안 하니까 옛날엔 그 콩 그거 나는 통에 우리 죽, 죽만 죽만 먹어. 거 아까우난 그거 죽 췄근에 냉장고가 있수가? 뭐가 있수가? 익혀근에 먹어부는 거벗기.(조금만 별 나면 강낭콩 따서 저 한 ‘주제’만 말리면 나지는 안 하니까 옛날엔 그 콩 그거 나는 통에 우리 죽, 죽만 죽만 먹어. 거 아까우니까 그거 죽 췄서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익혀서 먹어버리는 거밖에.)

107070 @ 앗은베기콩으로 죽을 쟁 먹은 거라예?(강낭콩으로 죽을 췄서 먹은 거네요.)

107070 #1 앗은베기콩 죽 췄민 막 맛잇주게. 풋보다도 막 맛잇어.(강낭콩 죽 췄면 매우 맛있지, 팔보다도 매우 맛있어.)

107070 @ 맞아. 밥 그거 허민 맛 좋잖아예. 삼춘 아까 제사떡 아니우과? 식게떡 예. 상 때도 똑같은 그 떡?(맞아. 밥 그거 하면 맛 좋잖아요. 삼춘 아까 제사떡 아닙니까? 제사떡요. 상 때도 똑같은 그 떡?)

107070 #1 상 날 때. 상 날 때도 그 떡. 그 상 날 때도 그거주게.(상 날 때. 그 상 날 때도 그 떡. 그 상 날 때도 그거지.)

196) ‘주제’는 비나 바람, 별 따위가 한번 몰아 지나감을 뜻하는 말이다.

107070 @ 그거예? 다른 건 더 허거나 이젠 더 허진 안 하고예? 여기도 조개솔
벤¹⁹⁷⁾ 그튼 것도 멘들었수가?(그거요? 다른 건 더 하거나 이제 더 하진 안 하고요.
여기도 ‘조개솔벤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까?’)

107070 #1 돌레떡엔 헌 건 잊어낫어. 돌레떡.(도래떡이라 한 건 있었었어.)

107070 @ 돌레떡. 그건 어떤 떡?(도래떡 그건 어떤 떡?)

107070 #1 돌레떡 그냥 앙꼬도 안 놓고 동글락하게시리 그자 영 허영. 옛날은
영장이 나면은 이제 그 필역 필역¹⁹⁸⁾엔 한 것도 돌레떡으로 줘낫어.(도래떡 그냥
소도 안 넣고 동그랗게끔 그저 이렇게 해서. 옛날은 장사가 나면 이제 그 ‘필역’ ‘필
역’이라고 한 것도 도래떡으로 줬었어.)

107070 @ 예.(예.)

107070 #1 돌레떡도 이만은하게 만들아근에 혼나 아니민 두 개씩 줘낫어.(도래
떡도 이만큼하게 만들어서 하나 아니면 두 개씩 줬었어.)

107070 @ 음.(음.)

107070 #1 이 동창네도. 그때 옛날에 장밧듸 가면은 모를돌레 피력햇젠허명.
(이 동창네도. 그때 옛날에 장지에 가면 ‘메밀도래’ ‘필역’했다고 하면서.)

107070 #2 계난예 이 영장을 산 위에다 높은 산 위에다 허게 훠면은 밑에 돌도
운반해야 훠고 허면은 힘드니까 그거 혼 짐 돌 경 갓다오면은 돌레떡 혼나에 술 혼
잔. 돌 짐 경 갓다오면 돌레떡 혼나에 술 혼 잔.(그러니까 이 송장을 산 위에다 높
은 산 위에다 하게 되면 밑에 돌도 운반해야 되고 하면 힘드니까 그거 한 짐 돌 쳐
서 다녀오면 도래떡 하나에 술 한 잔. 돌 짐 쳐서 다녀오면 도래떡 하나에 술 한
잔.)

107070 @ 아 혼번 갓다오면은.(아 한번 다녀오면.)

107070 #2 그거 막 갓다오면 베고팟텐 허명 돌레떡 혼나에 술 혼 잔. 술도 모음
대로 먹도록 주지 아녔어. 잔도 이만큼 헌 컵으로?(그거 막 다녀오면 배고팠다고 하
면서 도래떡 하나에 술 한 잔. 술도 마음대로 먹도록 주지 않았어. 잔도 이만큼 한
컵으로?)

107070 @2 고뿌로예.(컵으로요?)

107070 #1 옛날에 고뿌로 혼나에 돈 얼마씩 혜낫주게.(옛날에 컵으로 하나에 돈
얼마씩 했었지.)

107070 @ 아 사먹는 것도예? 맞아.(아 사먹는 것도요? 맞아.)

107070 @2 계난 그 당에 갈 때 영 동글락 돌레떡 만이 헌 건 뭐렌 큵니까?(그
러니까 그 당에 갈 때 이렇게 둥근 도래떡 만큼 한 건 뭐라고 합니까?)

107076 @ 당에는 갈 때는 무신 떡 가져간마씨?(당에는 갈 때는 무슨 떡 가져갔
어요?)

107076 #1 어디 당에 갈 때.(어디 당에 갈 때.)

197) ‘조개솔벤’은 쌀가루 따위를 익반죽 하여 안에 팥소 등을 조개 모양으로 만든 떡을 말한다.

198) ‘필역’은 장사 날 때 장지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떡이나 물품을 말한다.

107070 @ 당에 갈 때. 본향에 갈 때?(당에 갈 때. 본향에 갈 때?)

107070 @2 본향에 갈 때.(본향에 갈 때.)

107070 #1 본향에 갈 때 그것도 돌례떡인데. 거 이름 잇일 거라. 이제 생각해보민.(본향에 갈 때 그것도 도래떡인데. 거 이름 있을 거야. 이제 생각해보면.)

107070 @ 음 계난에. 그 다음에.(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7070 @2 모멸돌례예.(메밀도래요.)

107070 @ 설귀.(백설기.)

107070 #1 무물로벳기 돌렌 안 허주게.메밀로밖에 도래는 안 하지. 밭

107070 @ 모멸쏠로벳기예.(메밀쌀로밖에요.)

107070 #1 산뒤쏠이나 그런 결론 안 하고 무물로만.(밭벼쌀이나 그런 결로 안하고 메밀로만.)

107071 @ 무멸로만 삼춘, 여기는 설기떡이렌도 허여. 친떡.(메밀로만 삼춘, 여기는 백설기라고도 해. 시루떡.)

107071 #1 친떡.(시루떡.)

107071 @ 친떡을 여기선 뭐렌 험니까?(시루떡을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107071 #1 기자 이 친떡엔 허지 아녀나신가?(그저 이 시루떡이라고 하지 않았었는가?)

107071 #2 좁쌀로 허민 조친떡,(좁쌀로 하면 ‘조시루떡’,)

107071 @ 그 다음에 산듸쏠로?(그 다음에 밭벼쌀로?)

107071 #2 곤떡.(흰떡.)

107071 #1 곤떡.(흰떡.)

107071 @ 친떡도 곤떡이렌 글아?(시루떡도 흰떡이라고 말해?)

107071 #2 으.(으.)

107071 #1 어쨌든 간에 친떡도 친떡이엔 허주마는 산뒤쏠로 한 거는 다 곤떡이엔.(어쨌든 간에 시루떡도 시루떡이라고 하지만 밭벼쌀로 한 건 다 흰떡이라고.)

107072 @ 갖당웁서. 남자 삼촌만. 여기 혹시 인절미렌 헌 떡도.(다녀오세요. 남자 삼촌만. 여기 혹시 인절미라고 한 떡도.)

107072 #2 예, 인절민.(예, 인절민.)

107072 @ 여기 혹시 인절미엔 헌 떡도 만들았수가? 인절민 어떤 떡이우과?(여기 혹시 인절미라고 한 떡도 만들었습니까? 인절미는 어떤 떡입니까?)

107072 #1 인절미가 이렇게 반달 웠 거 아니?(인절미가 이렇게 반달 된 거 아니?)

107072 #1 게민 인절미 반달?(그러면 인절미 반달?)

107072 @ 네모난 거. 반달은 솔변.(네모난 거. 반달은 솔편.)

107072 #1 절벤, 절벤.(절편, 절편.)

107072 #2 절변.(절편.)

107072 #1 네모난 거는 삼각형 아닌가?(네모난 거는 삼각형 아닌가?)

107072 @ 아니, 네모난 거는 인절미. 이렇게 영 웬 거는 솔변.(아니, 네모난 거는 인절미. 인절리 이렇게 된 거는 솔편.)

107072 #1 솔벤 절벤.(솔편 절편.)

107072 @ 절변은 똥글락헌 거.(절편은 둉근 거.)

107072 #1 중계 약궤.(중계 약과.)

107072 @ 중웬 긴 거.(중겐 긴 거.)

107072 #1 그 젤 우의는 우지시.(그 젤 위는 웃기떡.)

107072 @ 우지시.(웃기떡.)

107072 #1 우지시.(웃기떡.)

107072 @ 약간 지역마다 트나네예. 여기는 설귀떡이렌 말은 안 해?(약간 지역마다 다르네요. 여기는 백설기라는 말은 안 해?)

107072 @ ㅎ꼼 쉬쿠다.(조금 쉬겠습니다.)

107072 @2 쉬자.(쉬자.)

107072 @ 삼춘 막 벼천.(삼촌 매우 부쳐서.)

107073 @ 그 다음엔예 삼촌 인절미렌 헌 건 안 들어봤수가? (중략) 그냥 지나 가쿠다.(중략)(그 다음에는요 삼촌 인절미라고 한 건 안 들어봤습니까? (중략)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중략))

107073 @ 절변이나 솔변 만들땐 허민 어떤 식으로 만들아마씨? 옛날에.(절편이나 솔편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옛날에.)

107073 #1 그 절벤 솔벤. 계난 나가 그 생각하기로는 솔입을 놓 찌니까 솔벤이 엔 혜신가.(절편 솔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론 솔잎을 놔서 찌니까 솔편 했는가.)

107073 #2 만드는 기구가 잇지 아녀. 문딱 찍어내는.(만드는 기구가 있지 않아. 몽땅 찍어내는.)

107073 #1 찍어내는 췄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거 잇어.(찍어내는 쇠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거 있어.)

107073 @ 예.(예.)

107073 #1 절벤은 또 나무로 헨에 또 솔벤은 췄로 삼각형 영 헤근에 인치룩 동 그랑허게 신 거고이.(절편은 또 나무로 해서 또 솔편은 쇠로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처럼 동그랗게 있는 거고.)

107073 @ 예, 예.(예, 예.)

107073 #1 절벤은 동그랑한 건디 거 막 꽂 이렇게 이렇게 기려진 그 나무 가경 은에 딱 찍어내는 거.(절편은 동그란 건데 거 막 꽂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그 나무 가져서 딱 찍어내는 거.)

107073 @ 어.(어.)

107073 #1 그거.(그거.)

107073 @ 삼춘이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보진 안 헨?(삼촌이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보진 안 했어요?)

107073 #1 아니, 우리 거 다 만든 거.(아니, 우리 다 만든 거.)

107073 @ 어떤 식으로 만들었수가?(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107073 #1 그치록 만든 거.(그처럼 만든 거.)

107073 @ 그르 굴아왕, 그 순서를 굴아줍서?(가루 갈아와서, 그 순서를 말해주십시오?)

107073 #1 그르 굴아왕은에 그 그르를 뜨신물 놔근에 이레 막 반죽엔 허민 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막 거세기 딴딴하게이.(가루 갈아와서 그 가루를 더운물 이리로 막 반죽이라고 하면 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거시기 단단하게.)

107073 @ 예.(예.)

107073 #1 그 반죽을 만들엉은에이.(그 반죽을 만들어서.)

107073 #1 그것을 말허는 건가. 동글락허게 다 만들엉.(그거를 말하는 건가. 동그랗게 다 만들어서.)

107073 @ 예.(예.)

107073 #1 요만큼하게시리. 너무 뚜껍게 말양. 경 물 썩썩 끓이믄 그거를 놔근에 그거 다 익으면은 이제 그거를 건경 다라에 놔근에 걸 뀌여근에 또 반죽을 만드는 거라.(요만큼하게끔 너무 두껍게 말고. 그렇게 물 썩썩 끓이면 그거를 놔서 그거에 그거 다 익으면 이제 그거를 건져서 대야에 놔서 걸 이겨셔 또 반죽을 만드는 거야.)

107073 @ 으음.(음.)

107073 #1 반죽 만들어근에 그거 이제 돔베에.(반죽 만들어서 그거 이제 도마에.)

107073 @으.(으.)

107073 #1 돔베에 이제 영 요만씩 끓어 넣은에 영 영 영 미는 그 저 뭐가 있어.(도마에 이제 이렇게 요만씩 끓어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는 그 저 뭐가 있어.)

107073 @ 밀대로?(밀대로?)

107073 #1 밀대로 영 영 밀어근에 그거 밀어놔근에 그거는 얇게 밀지 아녕 흐꼼 뚜껍게이 뚜껍게 밀어놔근에 뿐으로 다 떠내는 거라.(밀대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그거 밀어놔서 그거는 얇게 밀지 않아서 조금 두껍게 두껍게 밀어놔서 본으로 다 떠내는 거야.)

107073 @ 으으. 경 혜영 뿐으로 땡. 절벤은 뿐으로 두 개로 헷수가? 하나로만 꽃으로 헷수가?(으으. 그렇게 해서 본으로 떠서. 절편은 본으로 두 개로 했습니까? 하나로만 꽃으로 했습니까?)

107073 #1 절벤은 그 얇게 행 두 개로 포개낳 그거로 딱 찍어내엉.(절편은 그 얇게 해서 두 개로 포개놔서 그걸로 딱 찍어내서.)

107075 @ 동글락허게예, 아아 알았수다. 아까 웃지시는 어떤 식으로 텐들어마씨?(동그랗게요, 아아 알았습니다. 아까 웃기떡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107075 #1 우지시는.(웃기떡은.)

107075 @ 으.(으.)

107075 # 그거 저 젤 우의 놓는 거.(그거 저 젤 위에 놓는 거.)

107075 @2 예.(예.)

107075 #1 젤 우의 놓는 거 동글락한 그것도 동글락하게 만든 거라. 것도 다 뿐이 있어. 뿐이.(젤 위에 놓는 거 동그란 그것도 동그랗게 만든 거야. 것도 다 본이 있어. 본이.)

107075 @ 음.(음.)

107075 #1 바위에 토닥토닥토닥하게시리 양철 닳은 거로 만들어진 거 그걸로 헤근에 아까그치 영 영 떠내영.(가장자리에 토닥토닥토닥하게끔 양철 같은 거로 만들어진 거 그걸로 해서 아까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떠내서.)

107075 @ 음, 별도로 지름에 지지거나 영은 안해마씨?(음, 별도로 기름에 지지거나 이렇게는 않아요?)

107075 #1 계난 그거를 가져근에 기름에 지지는디 지지는 집 안 지지는 집 해.(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서 기름에 지지는데 지지는 집 안 지지는 집 해.)

107075 @ 예, 삼춘네는 그대로 뿐으로 명 우지지 안 허여예?(예, 삼춘네는 그대로 본으로 떠서 웃기떡 안 한다고요?)

107075 #1 우리 어머니넨 영 곧는 거 보난 지지민 기름이 기름이 아져다니는 디도 궂고 판 떡더레도 기름 가고 우리 어머니네는 뿐 떠근에 지지지 아녕 그냥.(우리 어머니넨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지면 기름이 기름이 가져다니는 데도 궂고 다른 떡으로도 기름 가고 우리 어머니네는 본 떠서 지지지 않아서 그냥.)

107076 @ 그냥양, 알았수다. 알았수다. 삼춘도 당에 뎅겨빤마씨?(그냥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삼촌도 당에 다녀봤어요?)

107076 #1 본향에 다녀낫주게. 이천년, 이천년까지 뎅년 안 다녔던 허난.(본향에 다녔었지. 이천년, 이천년까지 다녀서 안 다녔다고 하니까.)

107076 @ 이천년. 오래 다녔네. 본향에 가져갈 때는 뭐 뭐 가정 가마씨?(이천년. 오래 다녔네. 본향에 가져갈 때는 뭐 뭐 가져서 가요?)

107076 #1 본향에 가져갈 때는 팔찌¹⁹⁹⁾엔 헤근에.(본향에 가져갈 때는 ‘팔찌’라고 해서.)

107076 @ 으.(으.)

107076 #1 팔찌엔 한 거는 비단이나 비단 양단.(팔찌라고 한 거는 비단이나 비단 양단.)

107076 @ 예.(예.)

107076 #1 그거는 이만은 넓주게.(그거는 이만큼 넓지.)

107076 @ 으.(으.)

107076 #1 기지가 딱허영 혼 발. 혼 발 웨개 혜영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시라

199) ‘팔찌’는 당에 다닐 때 신양민들이 신을 위해 갖고 가는 천을 말한다.

목.(천이 딱해서 한 발. 한 발 되게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흰 무명천.)

107076 @ 예.(예.)

107076 #1 시라목 이제 헤근에 이제 혼 발씩 헤근에 뭐 다섯 식구든 다섯 개 헤근에 다 가족의 이름 쓰곡이.(흰 무명천 이제 해서 한 발씩 해서 뭐 다섯 식구면 다섯 개 해서 다 가족의 이름 쓰고.)

107076 @ 으.(으.)

107076 #1 혼나에 혼나씩.(하나에 하나씩.)

107076 @ 시령목에?(흰 무명천에?)

107076 #1 또 그 종이.(또 그 종이.)

107076 @ 예.(예.)

107076 #1 그 저 창오지 닮은 그 종이.(그 저 창호지 같은 그 종이.)

107076 @ 백지 으.(백지 으.)

107076 #1 또 그거 헤근에 또 지전. 지전이엔 해.(또 그거 해서 또 지전. 지전이라고 해.)

107076 @ 지전.(지전)

107076 @ 으, 지전.(으, 지전.)

107076 #1 것도 딱딱 헤근에 앞으로 혼 번 두으로 혼 번 혼 헤근에 요만은 하게시리 다 이제 접어근에 이 정도 될 거 아니?(것도 딱딱 해서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해서 요만큼 하게끔 다 이제 접어서 이 정도 될 거 아니?)

107076 @ 예.(예.)

107076 #1 그 지전이.(그 지전이.)

107076 @ 으.(으.)

107076 #1 경 하면 그거 가정은에 가위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지전 말르는 그 생각대로 행 다 끊는 거라. 끊어근에 영 폐우면은 본향 같은 데 강 돈이렌 제승돈²⁰⁰⁾이렌 헤근에 고망 베롱베롱²⁰¹⁾하게시리 만든 그거 경 끊어근에 폐우면은 그런 짓이 뛰는 거. 그거 그거 헤놓곡 뭐 제숙 굽곡.(그렇게 하면 그거 가져서 가위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지전 마르는 그 생각대로 다 끊는 거야. 끊어서 이렇게 퍼면 본향 같은 데 가서 돈이라고 ‘제승돈’이라고 구멍 ‘베롱베롱’하게끔 만든 그거 그렇게 끊어서 퍼면 그런 것이 되는 거. 그거 그거 해놓고 뭐 제수 굽고.)

107076 @ 음.(음.)

107076 #1 국은 안 허여.(국은 안 해.)

107076 @ 음.(음.)

107076 #1 국은 안 허고 쟁은 안 허고 기자 메만 헤근에 이제 본향²⁰²⁾ 세 그릇.(국은 안 하고 쟁은 안 하고 그저 메만 해서 이제 본향 세 그릇.)

200) ‘제승돈’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갖고 갈 때 가지고 가는 돈이다. ‘제승’은 저승을 제주어식으로 표현한 말로, 지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201) ‘베롱베롱’은 구멍이 난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202) ‘본향’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 또는 신당을 말한다.

107076 @ 으.(으.)

107076 #1 세 그릇 이제 하고 제속도 세 개 굽곡. 득새기 세 개 근치록 헤근에 뭐 막 잘 그거 생각해영 허는 사름덜은 보민 썰도 가정가곡 무시거 가져가곡 경 헤근에 그 지전하고 시라목하고 따시 그거.(세 그릇 이제 하고 제속도 세 개 굽고. 달걀 세 그처럼 해서 뭐 아주 잘 그거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은 보면 실도 가져가고 무엇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전하고 훤 무명천하고 다시 그거.)

107076 @ 팔찌?(‘팔찌’?)

107076 #1 팔찐가 팔찌는 그자 공동으로 이제 이름 그 하나에 가족 이름 쓰고. 경 헤근에 그거 지전하곡 그 저 무시거 시라목 그거 헤근에 허곡 또 무시거 혼 가진가 잇일 거라. 그거 영 헤근에 혼 사름에 하나씩. 혼 사름 하나씩 하게 그거를 혼 사름안테 가게시리 우의 매듭짓는 거라이.(‘팔찌’인가 ‘팔찌’는 그저 공동으로 이제 이름 그 하나에 가족 이름 쓰고. 그렇게 해서 그거 지전하고 그 저 무엇 훤 무명천 그거 해서 하고 그 저 무엇 한 가진가 있을 거야. 그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 하나씩. 한 사람 하나씩 하게 그거를 한 사람한테 가게끔 위에 매듭짓는 거야.)

107076 @ 음.(음.)

107076 #1 다 영 헤근에 거기에 이제 아덜, 아덜이믄 아덜. 그거는 아덜 거는 놔둬뒹 혼나 허영 뜰 거 족은아덜 거, 족은뜰 거.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제 허곡 쌀 또 낭푼으로 혼나나 이제 사발로 혼나나 경 헤근에 그 그 가정가면은 그 쌀 가정 영 접아근에 영 헤근에 세영은에 좋으켜 굽으켜 경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아들, 아들이면 아들. 그거는 아들 거는 놔둬두고 하나 해서 딸 거 작은아들 거, 작은딸 거.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제 하고 쌀 또 양푼으로 혼나나 이제 사발로 혼나나 그렇게 해서 그 가져가면 그 쌀 가져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서 세어서 좋겠다 굽겠다 그렇게 하는 거.)

107076 @2 제비쓸로.(‘제비쌀’로.)

107076 #1 그 쌀 가정가근에 경 헤근에.(그 쌀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107076 @ 결 제비쓸엔 헤마씨?(결 ‘제비쌀’이라 해요?)

107076 #1 제비쓸²⁰³⁾이주계. 영 제비²⁰⁴⁾ 뽑는 거난 영 헤근에 영 봄근에 으답 방울 허민은 짹 맞게 오난 좋겐 허곡 짹 틀리게 오믄 굽이肯 허곡 혹 들러 데껴뒹 허민 굽이난에 또 인정 결렌 허민 또 돈 그레 또 놓곡 그추룩 허명.(‘제비쌀’이지. 이렇게 ‘제비’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봄에서 여덟 알 하면 짹 맞게 오니까 좋겠다고 하고 짹 다르게 오면 굽겠다고 하고 혹 들어서 던져둬서 하면 굽으니까 또 인정 걸라고 하면 또 돈 그리로 또 놓고 그처럼 하면서.)

107076 @ 떡은 안 멘들앙마씨? 거기 갈 때?(떡은 안 만들어요. 거기 갈 때?)

107076 #1 떡은 안 만들아.(떡은 안 만들어.)

107076 @ 그 제숙은 제숙은 무슨 걸로 권마씨?(그 제수는 제수는 무슨 걸로 구

203) ‘제비쓸’은 굽을 할 때 쌀을 집어던져서 손에 잡힌 쌀알의 수효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204) ‘제비’는 굽을 할 때 쌀을 집어던져서 손에 잡힌 쌀알의 수효로 점을 치는 일을 말한다.

웠어요?)

107076 #1 제숙은 뭐, 저 아무 거나양 우력 우력이라도 뛰고 솔래기라도 뛰고. 고기는 뭐 차별 엇이 아무 고기라도 뛰고.(제수는 뭐, 저 아무 거나요 우력 우력이 라도 되고 옥돔이라도 되고. 고기는 뭐 차별 없이 아무 고기라도 되고.)

107076 @ 아무 거라도 허고?(아무 거라도 하고.)

107076 #1 사과, 사과 세 개.(사과, 사과 세 개.)

107076 @ 으.(으.)

107076 #1 그디 본향에 신이 세 분이니까 다 하나씩 혜영 세 개씩.(거기 본향에 신이 세 분이니까 다 하나씩 해서 세 개씩.)

107076 @ 아 신이 세 분이구나. 삼촌이 뎅겼던 이름이 당 이름이 뭐우과?(아 신이 세 분이구나. 삼촌이 다녔던 이름이 당 이름이 뭡니까?)

107076 @ 당 이름이 뭐우과?(당 이름이 뭡니까?)

107076 #2 저바당²⁰⁵⁾.('저바당').

107076 #1 저바당인가.('저바당'인가.)

107076 #2 당 잇는 근처 이 이름이 저바당.(당 있는 근처 이 이름이 '저바당').

107076 @ 아, 저바당본향?(아, 저바당본향?)

107076 #2 저바당본향.(저바당본향.)

107076 @ 저바당본향.(저바당본향.)

107076 #2 저바당표선리본향²⁰⁶⁾.('저바당표선리본향').

107076 @ 아아 이름 여기 계믄 표선리본향당이구나예? 거기가예. 저바당표선리 본향.(아아 이름 여기 그러면 표선리본향당이군요? 거기까요. '저바당표선리본향').

107076 #1 이디 표선리 사름 제주시 씨집가근에 제주시 살아도 여기 똑 본향 이디 와. 그 누게네 ** 각시네.(여기 표선리 사람 제주시 시집가서 제주시 살아도 여기 똑 본향 여기 와. 그 누구네 ** 각시네.)

107076 #2 우리도 서귀포에서 운수업 할 때도 이디 혼 들에 혼번 오란에.(우리 도 서귀포에서 운수업 할 때도 여기 한 달에 한 번 와서.)

107076 @ 계난 그 본향이 지켜주난 잘 됐수께. 그 본향은 언제 가마씨? 보통은. (그러니까 그 본향이 지켜주니까 잘 됐습니다. 그 본향은 언제 가요? 보통은.)

107076 #1 정월달에.(정월달에.)

107076 @ 정월에. 정월 메칠 메칠?(정월에. 정월 며칠 며칠?)

107076 #1 어쨌든간에 정월달 뛰면은 저 메칠 날 가느냐 삼일날 칠일날 가주께. 음력으로.(어쨌든간에 정월 되면 저 며칠 날 가느냐 삼일 칠일 가지.)

107076 @ 여기선 아아.(여기선 아아.)

107076 #1 삼일날 가는 사름 칠일날 가는 사름 선네선네 막.(삼일날 가는 사람 칠일날 가는 사람 천천히 막.)

205) '저바당'은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 이름이다.

206) '저바당표선리본향'은 표선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당을 말한다. '저바당'에 있어서 '저바당표선리본향'이라고 한다.

107076 #2 영장 나거나 하면은 또 미루어지고.(장사 나거나 하면 또 미루어지고.)

107076 #1 본향에 가젠 혀민 뛰지고기도 안 먹곡 막계 정성 헤근에 경 혀영
가.(본향에 가려고 하면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아주 정성 해서 그렇게 해서 가.)

107076 @2 마을제 지내기 전에 갑니까? 지낸 후에 갑니까?(마을제 지내기 전에
갑니까? 지낸 후에 갑니까?)

107076 #1 마을제 지내난 다음에 갑니다. 본향은 마을제가.(마을제 지내난 다음
에 갑니다. 마을제가.)

107076 #2 제일 우선.(제일 우선.)

107076 #1 우의니까.(위니까.)

107076 @ 으음. 마을제는 그러면은 포제식으로 혀는 거구나예?(으음. 마을제는
그러면 포제식으로 하는 거군요?)

107076 #2 포제, 포제.(포제, 포제.)

107076 @ 포제하고, 게믄 그 본향에는 남자덜은 안 갑니까?(포제하고. 그러면
남자들은 안 갑니까?)

107076 #1 본향에 남자덜도 가구정헌 사름은.(본향에 남자들도 가고자한 사람
은.)

107076 @ 베겼되만 잇엇수가?(바깥에만 있었습니까?)

107076 #2 베꼈되 강 잇엇어. 서귀포에서 준비행 오랑 그디 들어갈 때는 부인만
가고 나 차에서만 기다려.(바깥에 가서 있었어. 서귀포에서 준비해서 와서 거기 들
어갈 때는 부인만 가고 나 차에서만 기다려.)

107076 @ 게믄 심방이 뜨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있어.(그러면 심방이 따라가
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있어.)

107076 #1 본향 메인심방²⁰⁷⁾이.(본향 ‘메인심방’이.)

107076 #2 메인심방이.(메인심방이.)

107076 @ 항상 삼일이나 칠일은?(항상 삼일이나 칠일은?)

107076 #1 그 심방이 그 심방이 메야해 해요. 본향 멘 심방이.(그 심방이 그 심
방이 매야해. 해요. 본향 맨 심방이.)

107076 @ 그 심방 이제도 잇수과?(그 심방 이제도 있습니까?)

107076 #2 아 자꾸 바짜지니까. 이제도 잇어.(아 자꾸 바꿔지니까. 이제도 있
어.)

107076 #1 이제도 잇긴 잇일 거라.(이제도 있긴 있을 거야.)

107076 @ 이제 메인심방은 누개우과?(이제 ‘메인심방’은 누굽니까?)

107076 #2 어디 신풍리 사름이렌.(어디 신풍리 사람이라고.)

107076 #1 본향 안 하니까.(본향 안 하니까.)

107076 @ 원래 여기 사름이 아니?(원래 여긴 사람이 아니?)

207) ‘메인심방’은 당을 책임진 심방을 말한다.

107076 #1 처음에는 신*선이 어멍 아방네 그딜로부터.(처음에는 신*선이 어머니 어버지네 거기로부터.)

107076 #2 길* 어머니 허단.(길* 어머니 하다가.)

107076 #1 허 보살하고 무시거 하단은에 죽어불민 딴 사람 하곡.(허 보살하고 무엇 하다가 죽어버리면 딴 사람 하고.)

107076 @ 아직 이 동네는 심방이 엊어마씨? 표선리는.(아직 이 동네는 심방이 없어요?)

107076 #1 이 동네 심방도 혜낫주마는 죽어부난.(이 동네 심방도 했었지만 죽어버리니까.)

107076 @ 음.(음.)

107076 #2 후계가 엊어.(후계가 없어.)

107076 #1 신기생이 성도 혜나고.(신기생 형도 했었고.)

107076 #2 신풍리 사름이 오란.(신풍리 사람이 와서.)

107076 @ 삼춘 집의서 궂해 봄디가?(삼춘, 집에서 궂해 봄디까?)

107076 #1 아 우린 집에서 나 세대는 궂 안 혜봐신디 우리 어머니네는 궂 막 하여튼 간에 일 년에 흔 번씩 궂 해실 거라. 큰궁허명 *근이네 그 돈을 얼마나 썰 어간.(아 우린 집에서 나 세대는 궂 안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네는 궂 막 하여튼 간에 일 년에 한 번씩 궂 했을 거야. 큰궁하면서 *근이네 그 돈을 얼마나 쓸어갔어.)

107076 #2 저 나 어린 때부터 그 궂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아프니까 병원도 옷고.(저 나 어린 때부터 그 궂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아프니까 병원도 없고.)

107076 @ 예.(예.)

107076 #2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던 모양이라. 그렇게 아파도 궂 해줍서 허면은 궂 허곡. 궂도 일주일을 대 세완에.(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던 모양이야. 그렇게 아파도 궂 해주십시오 하면 궂하고. 궂도 일주일을 대 세워서.)

107076 #1 큰궁, 큰궁.(큰궁, 큰궁.)

107076 #1 경 혜연 허는데, 마지막쯤 뛰 가니까 말야. 아버지가 속상혜연 베꼈되 강 술 먹는다 심방이 *근이.(그렇게 해서 하는데, 마지막쯤 되어 가니까 말야. 아버지가 속상해서 바깥에 가서 술 먹는데 심방이 *근이.)

107076 #1 으.(으.)

107076 #2 심방이 어디 갔느냐고 이거 이거 마지막 허는데 말이지 오랑 인정도 결고.(심방이 어디 갔느냐고 이거 이거 마지막 하는데 말이지 와서 인정도 결고.)

107076 #1 인정 안 걸엄텐.(인정 안 걸고 있다고.)

107076 #2 막 뭐엔 나보고 어머니가 가보니까 막 아버지 끗남시난 강 촛양오렌. 가난 어머니가 끗남시난 오렌 험수텐 허난. 술은 이만큼 먹곡 헌디.(막 뭐라고 나보고 어머니가 가보니까 막 아버지 끝나고 있으니까 가서 찾아오라고. 가니까 어머니가 끝나고 있으니까 오라고 한다고 하니까. 술은 이만큼 먹고 한데.)

107076 #2 가난 어머니가 막 준소리를 허고 심방은 와당와당 해가난 아버진 그 상 출린 거 왕창 썰어불곡 굿도 해산했는데.(가니까 어머니가 아주 잔소리를 하고 심방은 와당와당 해가니까 아버진 그 상 차린 거 왕창 썰어버리고 굿도 해산했는데.)

107076 @ 웃음.(웃음.)

107076 #2 왕창 썰어부니까 심방도 어디 간 줄 모르고 다 해산했는데 그 다음부터 십년동안 혼 번도 아니 안 팫어.(왕창 썰어버리니까 심방도 어디 간 줄 모르고 다 해산했는데 그 다음부터 십년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

107076 @ 웃음, 굿은 굿은 그 아버지가 혜신계.(웃음. 굿은 굿은 그 아버지가 했는데.)

107076 #2 아버지가 해벤에. 귀신이 놀랜 도망가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아파낫는데.(아버지가 해버려서.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107076 @ 어.(어.)

107076 #2 그 후로는 춤 심방도 아니 완. 경 헨 허니까 아버지는 술자리에서 혼 번씩 심방 굽은디 혼 번씩 굿을 큰굿을 혼 번씩 혜야 훈데 허멍.(그 후로는 참 심방도 아니 왔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버지는 술자리에서 한 번씩 말하는데 한 번씩 굿을 큰굿을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면서.)

107076 @2 심방 웨는 책 있어예? 그 책 보다 보면 뭐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또 점궤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또 굿. 그러니까 굿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뭐 하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다 잊어마씨?(심방 되는 책 있어요? 그 책 보다 보면 뭐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또 점궤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또 굿. 게니까 굿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뭐 하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다 있어요?)

107077 @ 옛날에 다 그런 거 있으니까. 게믄 굿힐 때 어떤 떡 햇던 거 생각남 수과?(옛날에 다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굿할 때 어떤 떡 했던 거 생각납니까?)

107077 #1 남자난 몰르주. 굿할 땐 주로 돌레떡.(남자니까 모르지. 굿할 땐 주로 도래떡.)

107077 @ 집에서도 돌레떡 혜예?(집에서도 도래떡 해요?)

107077 #1 굿할 때는 뜨물쓸 안 헤근에 산듸쓸로.(굿할 때는 메밀쌀 안 해서 밟벼쌀로.)

107077 @ 산듸쓸로.(밟벼쌀로.)

107077 #1 곤쓸로 혜영 돌레떡 소금 안 놓.(흰쌀로 해서 도래떡 소금 안 놔서.)

107077 @2 보시떡²⁰⁸⁾은 안 헵니까?('보시떡'은 안 합니까?)

107077 #1 보시떡엔 현 게 못 봐나신다.(도래떡이라고 한 거 못 봤었는데.)

107077 #2 사발에 놔근에 혜놓 끗나면 그디 꽁아근에.(사발에 놔서 해놓아서 끗나면 거기 꽁아서.)

208) '보시떡'은 보시기에 쌀가루 따위를 넣어서 쪘낸 떡을 말한다.

107077 @ 제숙?(제수.)

107077 #1 저 거세기. 그거 사발에 놓 쪘낸 거. 그 그런 거는 봐난 거 많아.(저 거시기. 그거 사발에 놔서 쪘낸 거. 그 그런 건 봤던 거 같아.)

107077 #2 거기서 마지막 끗나면 배 ㅋ뜬 거 만들양 그디 놓 띄와부는 거 어릴 때 기억.(거기서 마지막 끗나면 배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놔서 띄워버리는 거 어릴 때 기억.)

107077 @ 예.(예.)

107077 #1 바당에 강.(바다에 가서.)

107077 @ 바당에 강 영 혜영 하곡.(바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고.)

107077 #1 공양미 무신 삼백 석에 무시거 시꺼근에 배 띄왑젠 막.(공양미 무슨 삼백 석에 무엇 실어서 배 띄우고 있다고 막.)

107077 #2 다 끗난 다음에 이런 디 골총 이신 디서 돈 멧 십 원인가 천 원짜리 쯤 놔근엥에 영 놓면은 우리 다 봉가당 사먹곡.(다 끗난 다음에 이런 데 고총 있는 데서 돈 몇 십 원인가 천 원짜리쯤 놔서 이렇게 놓으면 우리 다 주워다가 사먹고.)

107077 @ 맞아. 우리 어릴 때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동네 이런 디 보면 과일이 영 돈이영 벼려진 것덜 난 봉가보지 아녔수다.(맞아. 우리 어릴 때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동네 이런 데 보면 과일이랑 돈이랑 벼려진 것들 난 주워보지 않았습니다.)

107077 #1 경 허민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 봉강 먹으민 귀신 들린텐 허멍.(그렇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 주워서 먹으면 귀신 들린다고 하면서.)

107077 @ 그거 있어도 저는 안 쫓어봐신디.(그거 있어도 저는 안 주어봤는데.)

소와 고물

107079 @ 그 다음에 삼춘 아까예, 쉬 안에 놓거나 밖에 쉬 쓰는 거는 어떤 걸로 주로 햇수가? 쉬허는 거는?(그 다음에 삼촌 아까요, 소 안에 놓거나 밖에 소 쓰는 거는 어떤 걸로 주로 했습니까? 쉬 하는 거는?)

107079 #1 계난 팟 아니민 두불콩인디.(그러니까 팔 아니면 강낭콩인데.)

107079 @ 예. 주로 그거?(예. 주로 그거?)

107079 #1 으.(으.)

107079 @ 그냥 뭐 그 깨 같은 건 안 써?(그냥 뭐 그 참깨 같은 건 안 써?)

107079 #1 궤. 궤는 안 놔.(참깨. 함께는 안 놔.)

107079 @ 안 쓰고.(안 쓰고.)

107079 #1 팟이나 앉은배기콩.(팥이나 강낭콩.)

107080 @ 그 다음에 조침떡 같은 거 헐 때는 어떻 헙니까?(그 다음에 ‘조시루 떡’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7080 #1 그것도 그 팟으로 다 저 새 놓는 거라.(그것도 그 팥으로 다 저 새에 놓는 거야.)

107080 @ 팟으로예?(팥으로요?)

107080 #1 으, 팟이나 두불콩이나.(으, 팥이나 강낭콩으로.)

107080 @ 그것도 다 저기 쉬렌 헙니까?(그것도 다 저기 고물이라고 합니까?)

107080 #1 쉬.(고물.)

107080 @ 쉬.(고물.)

107080 #1 그거 혜근에 것도 숲아근에 물 빠지와근에 적당히 너미 밀싹허게 익으민 그거 다 익으민 혼듸 죽 웨영 하기 때문에 것덜 근치록 아녀개시리 맞추왕 숲양 물 빠져근에 방에에 뻣양.(그거 해서 것도 삶아서 물 빼서 적당히 너무 무르게 익으면 그거 다 익으면 함께 죽 되어서 하기 때문에 것들 그처럼 않게끔 맞춰서 삶아서 물 빠져서 방아에 빽아서.)

107080 @ 음.(음.)

107080 #1 콩덜. 풋도 뻣아야뒈고.(콩들. 팥도 다 빽아야 되고.)

107080 @ 풋도 뻣아야 뛰고예?(팥도 빽아야 되고요?)

107080 #1 동풋으로 못하니까 다 뻣양은에.(통팥으로 못하니까 다 빽아서.)

107081 @ 떡 할 때 아이덜 얼러뎅기지²⁰⁹⁾ 말렌 헷잖아예? 그 떡에 얹힌 속담이라든가 금기사항. 어떻 허민 뭐 헉다.(떡 할 때 아이들 어울려서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떡에 얹힌 속담이라든가 금기사항. 어떻게 하면 뭐 한다.)

107081 #1 그 이제 떡 칠 때는 시리떡 칠 때는 거기에서 이상하게시리 부정한 말을 곤거나 무시거 하면은 떡이 혼착은 떡 안 익어근에 그치록 시리떡이 숨통을 기차난 생각.(그 이제 떡 찔 때는 시루떡 찔 때는 거기에서 이상하게끔 부정한 말을 말하거나 무엇 하면 떡이 한쪽은 떡 안 익어서 그처럼 시루떡이 숨통을 끊었던 생각.)

107081 @ 음.(음.)

107081 #1 아이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시리떡 영 허여가민 그디 왕 말도 하영 곤지 못허게 하곡 똑 떡 찌는 사름만 찌게 하고 경 헉는 거 보니까.(아이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시루떡 이렇게 해가면 거기 와서 말도 많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떡 찌는 사람만 찌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107081 @ 떡 찌게 헉고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든 떡은 뭐 아이덜 안 먹는다 이런 말은 엊어마씨?(떡 찌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은 뭐 아이들 안 먹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107081 #1 아이덜 안 먹는다.(아이들 안 먹는다.)

107081 @2 막떡.(막떡.)

107081 @ 건.(건.)

107081 #1 막떡²¹⁰⁾이나 똥떡²¹¹⁾. 똥통에 빠져나민 아이덜은 안 주고 어른덜만

209) ‘얼러뎅기지’는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다니지’라는 의미다.

210) ‘막떡’은 마지막에 만든 떡을 말한다.

211) ‘똥떡’은 돼지우리에서 자빠지거나 흔들렸던 사람의 좋지 않은 운을 나누기 위하여 만든 떡을 말한다. 떡을 만들어서 백 사람한테 나눠주면 나쁜 운이 사라진다는 속설이 있다.

먹으렌.(‘막떡’이나 ‘똥떡’. 똥통에 빠져나면 아이들은 안 주고 어른들만 먹으라고.)

107081 #2 똥떡이라고 잇엇주.(‘똥떡’이라고 있었지.)

107081 #1 똥통에 가근에 뛰지 키울 때 잘못 돌 디디거나 흥글랑허민게 똥통더 래 자빠경 허민 이제 오래 못 산덴 이제 그거 일 년뺏고 못 산덴 혜근에 똥떡을 멘 들앙 백 사름안티 이제 떡을 백 사름안티 떡을 다 이제 줘근에 먹게 해야 그 운을 백 사름안티 다 갈라 가볼면은 이제 아무 탈 엇넨 혜근에 그 똥떡 길레 사근에 넘 어가는 사름. 애기덜은 안 줘. 어른, 어른덜안티만 아이덜은 안 주곡. 경 혜근에 똥떡 혜근에 줘 것도 호나씩뺏고 안 주주게.(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키울 때 잘못 돌 디디거나 혼들하면 돼지우리로 자빠져서 하면 이제 오래 못 산다고 이제 그거 일 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똥떡’을 만들어서 백 사람한테 이제 떡을 백 사람한테 떡을 다 이제 줘서 먹게 해야 그 운을 백 사람한테 다 갈라 가벼리면 이제 아무 탈 없다고 해서 그 ‘똥떡’ 길에 서서 넘어가는 사람. 아기들은 안 줘. 어른, 어른들한테만. 아이들은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똥떡’ 해서 것도 하나씩밖에 안 주지.)

107081 @ 백 사름안티 줘얄 텔 거니까. 그런 거를 직접 봐난마씨?(백 사람한테 줘얄 될 거니까. 그런 것을 직접 봤었어요?)

107081 #1 그거 그거 그치룩 다 하는 거. 동네서.(그거 그거 그처럼 다 하는 거. 동네서.)

107081 #2 디딜팡에 똥 싸거나 아무튼 그 뛰지 길르는 똥통에서 넘어졌다 허문 똥떡을 허여.(부출돌에 똥 싸거나 아무튼 그 돼지 기르는 똥통에서 넘어졌다 하면 ‘똥떡’을 해.)

107081 @ 다 아는 거니까예. 아아.(다 아는 거니까요. 아아.)

107081 #1 일 년도 못 산덴 핸에 똥떡을 멘들앙 백 개 멘들앙 백 사름안티 줘야 백 사름안티(일 년도 못 산다 해서 ‘똥떡’을 만들어서 백 개 만들어서 백 사람한테 줘야 백 사람한테.)

107081 #2 분산췌영.(분산되어서.)

107081 #1 운이 다 갈려젼근에 맹 질게 산 텐 혀영 질레 상 가는 사름 오는 사름 다 테와쥔.(운이 다 갈려져서 명 길게 산다고 해서 길에 서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나눠줬어.)

107081 @ 계믄 그거 안 먹肯 허문 어떻 혜?(그러면 그거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107081 #1 더 드렌 행 먹주. 하나 더 드렌 혀난 안 줬주.(더 달라고 해서 먹지.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안 줬지.)

107081 @2 (웃음).((웃음).)

107081 @ 거 나쁜 운니까 안 받아가肯.(거 나쁜 운이니까 안 받아가겠다고.)

107081 #1 아니, 그거를 그 어른덜이나 알주게.(아니, 그거를 그 어른들이나 알지.)

107081 @ 으.(으.)

107081 #2 중산 식으로 영 잘 모르주게. 하나 더 드렌 해도 안 줬주.(중산(?) 식으로 잘 모르지. 하나 더 달라 해도 안 줬지.)

107081 @ 으, 기구나예.(으, 그렇군요.)

107081 @2 아, 우습다.(아, 우습다.)

별식

107082 @ 삼춘, 이젠예 별식인데 옛날 수에털 하영 담아서예?(삼춘, 이젠요 별식인데 옛날 순대들 많이 담았지요?)

107082 #1 수에.(순대.)

107082 @ 순대.(순대.)

107082 #1 순대 잔칫집마다 다 담았주게. 건.(순대 잔칫집마다 다 담았지.)

107082 @ 삼춘도 수에 잘 담읍니까?(삼춘도 순대 잘 담습니까?)

107082 #1 아 그때덜은 잔칫집이서.(아 그때들은 잔칫집에서.)

107082 @ 건 어떤 식으로 담습니까?(건 어떤 식으로 담습니까?)

107082 #1 거, 뛰지 베설. 혹은베설 판칙하게시리 스뭇 시쳐근에 옛날은 판칙하게 잘 안 시쳐도 잘만 먹었어.(아 거, 돼지 창자. 큰창자 깨끗하게 사뭇 씻어서 옛날은 깨끗하게 잘 안 씻어도 잘만 먹었어.)

107082 @ 웃음.(웃음.)

107082 # 경 혀영 시져근에 그 뭇물그르.(그렇게 씻어서 그 메밀가루.)

107082 @ 예.(예.)

107082 # 뭇물그르에 뛰지 잡을 때 피.(메밀가루에 돼지 잡을 때 피.)

107082 @ 으.(으.)

107082 #1 피 거기 하고 그 무시거 저 메역귀²¹²⁾ 그튼 거 막 그런 거 다 짚아 놓곡이.(피 거기 하고 그 무엇 저 ‘미역귀’ 같은 거 그런 거 다 쪼아 넣고.)

107082 @ 음.

107082 #1 짚아 놓곡 뭐 파도 놓고 거기에 양념 같은 거 뭐 무시거 뭐 쌀 헤근에 나룩꼴헤영 밥헤영도 그레 놓곡 헤근에 헤여근에 그 베설더레 담아.(쪼아 넣고 뭐 파도 넣고 거기에 양념 같은 거 뭐 무엇 뭐 쌀 해서 볍쌀해서 밥해서도 그리로 넣고 해서 그 창자에 담아.)

107082 @ 으.(으.)

107082 #1 빵빵 담으민 터정 안 훠여. 홀랑홀랑하게 담아사 거 쌀이 익어 가민 빵빵헐 거니까. 그것에 잘 맞추와근에 것도 담아야주 그 하영 담아불민 터져근에 아무 것도 엇어. 그 대신에 뜯국물은 맛잇어.(빵빵 담으면 터져서 안 돼. 홀랑홀랑하게 담아야 거 쌀이 익어 가면 빵빵헐 거니까. 그것에 잘 맞춰서 것도 담아야지. 그 많이 담아버리면 터져서 아무것도 없어. 그 대신에 돼지육수는 맛있어.)

212) ‘메역귀’는 돼지의 작은창자 양옆에 붙은 부위를 말한다. 모양이 미역귀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107082 @ 그렇지. 안에 거 나오니까.(그렇지. 안에 거 나오니까.)

107082 #1 경 헤근에 허영 그거는 잔칫날에 하나씩.(그렇게 해서 그거는 잔칫날에 하나씩.)

107082 #1 어떤 집은 가문잔치²¹³⁾에 다 먹엉 치와부리. 가문잔치에 준베설.(어떤 집은 ‘가문잔치’에 다 먹어서 치워버려. ‘가문잔치’에 작은창자.)

107082 @ 예.(예.)

107082 #1 준베설은 베설대로 숨아근에 그 순대 이제 순대 이제 반에 안 놓젠 하면은 가문잔칫날 먹고 반에 놓젠 허민 안 먹주게.(작은창자는 창자대로 삶아서 그 순대 이제 순대 이제 반에 안 놓으려고 하면 ‘가문잔칫날’ 먹고 반에 놓으려고 하면 안 먹지.)

107082 #2 순대코벳기 안 남아.(‘순대코’밖에 안 남아.)

107082 #1 그 준베설 요만씩 놓곡 이치룩 ㅋ는베설 이만씩 놓고.(이 작은창자 요만씩 놓고 이처럼 작은창자 이만씩 넣고.)

107082 #2 가문반²¹⁴⁾이라고 해서.(‘가문반’이라고 해서.)

107082 #1 가문반이렌 헤영 세 캔가 네 캔가 요만씩 현 거 놓민 그거 먹으려 저녁 때 오늘 저녁에 가문에서만 먹는 반.(‘가문반’이라고 해서 세 캔가 네 캔가 요만씩 한 거 놓으면 그거 먹으려 저녁 때 오늘 저녁에 가문에서만 먹는 반기.)

107082 @ 음.(음.)

107082 #1 계믄 그거 그거 먹으레. 이젠 줘도 이젠 먹지 안허여. 준베설 숨은 것덜.(그러면 그거 그거 먹으려. 이젠 줘도 이젠 먹지 않아. 작은창자 삶은 것들.)

107082 @ 담지 아녀고예?(담지 않고요?)

107082 #1 담진 안허여.(담진 않아.)

107082 @ 계믄 가문반에는 뭐 뭐 놔마씨?(그러면 ‘가문반’에는 뭐 뭐 놔요?)

107082 #1 아 계난 그거.(아 그러니까 그거.)

107082 @ 준베설 놓곡.(작은창자 놓고.)

107082 #1 베설 그거 놓곡게. 그 순대 혼나 놓곡 무시거 베설.(창자 그거 놓고. 그 순대 하나 놓고 무엇 창자.)

107082 #2 북베기 ㅋ튼 거.(허파 같은 거.)

107082 @ 으.(으.)

107082 #1 북베기, 북베기.(허파, 허파.)

107082 #2 북베기.(허파.)

107082 #1 간, 간.(간, 간.)

107082 #2 지례 그런 거 다 골고루.(지라 그런 거 다 골고루.)

107082 #1 그런 거는 소님덜안티 못 놓는 거 가문에서만 그런 거 다 먹어.(그런

213)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말한다.

214) ‘가문반’은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단한 잔치 때 친척들에게 대접하는 고기 반기를 말한다. 주로 작은창자 따위의 허드레 고기를 내놓는다.

거는 손님들한테 못 놓는 거 가문에서만 그런 거 다 먹어.)

107082 #2 가문반이란 것이 내일 인자 소님부터 받을 거니까 낼은 친족덜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헤달라 이렇게 의논하는 거.(‘가문반’란 것이 내일 이제 손님부터 받을 거니까 낼은 친족들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의논하는 거.)

107082 @ 음.(음.)

107082 #2 가문반으로 해서 그거 주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의논하는 거.(‘가문반’으로 해서 그거 주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의논하는 거.)

107082 @ 잔치 전날 가문덜이 모영 역할 분담시키겠 하는 거구나게.(잔치 전날 가문들이 모여서 역할 분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107082 #1 이제 그거 겨울에도 눈 이만이 묻을 때도 그거 먹젠 잔칫집의 다 가낫덴 허난.(이제 그거 겨울에도 눈 이만큼 묻을 때도 그거 먹으려고 잔칫집에 다 갔었다고 하니까.)

107082 #2 아이들꼬장 다 데령.(아이들까지 다 데려서.)

107082 #1 아이덜꼬장 다 데령.(아이들까지 다 데려서.)

107082 @ 게믄 그땐 밥은 어떤 밥해여마씨?(그러면 그때 밥은 어떤 밥해요?)

107082 #1 밥은 보리쌀하고 풋하고 숯아근에 그 나록쌀은 혼 방울썩 들게시리 행은에 거 숯양 허민 이제 다라에 무시거에, 무시거 뭐냐 아이스박스에 뭐 그레 비니루 그거 영 곱탁현 거 놔근에 경 허영 허는디. 옛날엔 잔치 때나 그럴 때 밥 푸는 건 다 무조건 맹텡이에.(밥은 보리쌀하고 팔하고 삶아서 그 볍쌀은 한 알씩 들게끔 해서 거 삶아서 하면 이제 대야에 무엇에, 무엇 뭐냐 아이스박스에 뭐 그리로 비닐 그거 이렇게 고운 거 놔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옛날엔 잔치 때나 그럴 때 밥 푸는 건 다 무조건 망태기애.)

107082 @ 맹텡이에예?(망태기요?)

107082 #1 맹텡이. 맹텡이가 무시거 끌지 아녀고 더프지 아녀도 빨리 식지도 안 하곡 하니까 맹텡이에 다 햇어.(망태기. 망태기가 무엇 깔지 않고 덮지 않아도 빨리 식지도 않고 하니까 망태기에 다 했어.)

107082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82 #1 맹텡이에 그 맹텡이에 티덜 하났거든. 밥에 티 영 있어도 누게 티 있詹 안 허메. 다 쫓어불명 경 하려니.(망태기에 그 망태기에 티를 많았거든. 밥에 티 이렇게 있어도 누구 티 있다고 안 해. 다 주워버리면서 그렇게 하려니.)

107082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7082 #1 경 헤근에.(그렇게 해서.)

107083 @ 삼춘, 둠비도 직접 멘들아반마씨?(삼춘, 두부도 직접 만들어봤어요?)

107083 #1 무시거?(무엇?)

107083 @ 둠비, 두부.(‘둠비’, 두부.)

107083 #1 우리 이디선 두부 아녀. 두부 만드는 게 그렇게. 두부 우리는 멘들아낫어.(우리 여기선 두부 안 해. 두부 만드는 게 그렇게. 두부 우리는 만들었었어.)

107083 @ 으.(으.)

107083 #1 두부 콩 컷다근에 다 ㅋ래에 ㅋ난게. 글아근에 그거 헤근에 이제 그 췄근에.(두부 콩 잠갔다가 다 맷돌에 가니까. 같아서 그거 해서 이제 그 췄서.)

107083 @ 예.(예.)

107083 #1 췄근에 잘리에 담아근에 헤여근에 막 누르떠근에 그 물 밑으로 빠진 그것이 열리면은 두분디.(髫서 자루에 담아서 해서 막 눌러서 그 물 밑으로 빠진 그것이 열리면 두분데.)

107083 @ 음.(음.)

107083 #1 거 말이 쉽주, 그거 하젠을 헤봐봐.(거 말이 쉽지. 그거 하려고 해봐봐.)

107083 @ 음, 잔치할 때는 둠비를 헤얄 거 아니우과?(음, 잔치할 때는 두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7083 #2 북군에는 반에다가 두부 혼나 놓던데 이렌 안 놔.(북군에는 반기에도 가 두부 하나 놓던데 이리로는 안 놔.)

107083 #1 이레 안 놔.(이리는 안 놔.)

107083 @1 여기를 두부를 안 놔예?(여기 두부를 안 놔요?)

107083 @2 저기 북군인 경우는예, 도새기 석 점 수에 하나 둠비 하나.(저기 북군 경우는요, 돼지고기 석 점에 순대 하나 두부 하나.)

107083 #2 이던 안 놋어. 나도 모판²¹⁵⁾ 그디.(여긴 안 놋어. 나도 ‘복안’ 거기.)

107083 @ 거긴 둠비허느라고.(거긴 두부하느라고.)

107083 #2 그디 가면은 그것이 맛이 잇었는데 이던 그런 거 안 해.(가면 그것이 맛이 있었는데 여긴 안 해.)

107083 @ 여긴 둠비를 그렇게 안 하는구나예? 여긴 잔치 때 반을 줄 때에 뭐 뭐 놔 반?(여긴 두불 그렇게 안 하는군요? 여긴 잔치 때 반기 줄 때 뭐 뭐 놔 반기?)

107083 #1 돼지고기.(돼지고기.)

107083 #2 고기 석 점에.(고기 석 점에.)

107083 # 순대 혼나.(순대 하나.)

107083 @ 게민 그게 끗.(그러면 그게 끗.)

107083 #1 경 허난 옛날에 얘기 들아근에 저 잔치밭²¹⁶⁾의 영 가면은 얘기가 아기가 가죽을 먹으면은 이제 연치카부텐 저 아방이 그 아덜 반에 그 고기를 영 헤근에 가죽 영 떼어 가민 “아버지 술도 하영 부떠벰젠허멍. 가죽에 술 하영 부떠 아방안티 먹어벳젠허멍 그만큼 그 고기가 귀햇던 거라.(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아기 데려서 저 ‘잔치밭’에 이렇게 가면 아기가 아기가 가죽을 먹으면 이제 체할까봐서 저 아버지가 그 아들 반기에 그 고기를 이렇게 해서 가죽 이렇게 떼어 가면 “아버

215) ‘모판’은 제주목 관아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예전 제주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216) ‘잔치밭’은 잔칫집을 표선리에서 일컫는 말이다.

지 살도 많이 불어버리고 있다”고 하면서. 가죽에 살 많이 불어. 아버지한테 먹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만큼 고기가 귀했던 거야.)

107086 @ 으, 계난 가죽 먹어주는데 술도 먹엄텐 아덜이 타박을 헌 거라예? 아까 이제 메밀묵 허고 청묵 허는 거는 허고, 개역은 어떻 햇수가?(으, 그러니까 가죽 먹어주는데 살도 먹고 있다고 아들이 타박을 한 거네요? 아까 이제 메밀묵 하고 청묵 하는 거는 하고, 미숫가루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86 #1 옛날에는 개역.(옛날에는 미숫가루.)

107086 #2 개역은 간식으로.(미숫가루는 간식으로.)

107086 #1 개역 솟되서 그 보리.(미숫가루 솥에서 그 보리.)

107086 @ 음.(음.)

107086 #1 보리도 줄우리보리 술우리보리 이신디 술우리 보리 그거 보까근에. 그거 보깡 그 ㅋ례에 굽아신가.(보리도 맥주보리 쌀보리 있는데 쌀보리 보리 그거 볶아서. 그거 볶아서 그 맷돌에 갈았는가.)

107086 #2 ㅋ례에 굽안.(맷돌에 갈았어.)

107086 #1 기겟방이 엇이난에.(방앗간이 없으니까)

107086 @ 음.(음.)

107086 #1 ㅋ례에 굽양은에 것도 해 먹는 집인 해 먹고 것도 못해 먹는 집원 못해 먹어.(맷돌에 갈아서 것도 해 먹는 집엔 해 먹고 것도 못해 먹는 집에는 못해 먹어.)

107086 #1 보리 그거 그것도 하젠 하민 어떤 집원 ㅋ례도 엊주게.(보리 그거 그것도 하려고 하면 어떤 집에는 맷돌도 없지.)

107086 @ 예, 예.(예, 예.)

107086 #1 ㅋ례도 엇어. 놈의 집이 ㅋ례 빌래 가곡 그 ㅋ례 이신 집의 와근에 굽아가곡 하는디.(맷돌도 없어. 남의 집에 맷돌 빌리러 가고 그 맷돌 있는 집에 와서 갈아가고 하는데.)

107086 @ 예.(예.)

107086 #1 것도 보끄는 거꼬장은 좋은디 굽아놔근에 체 즘진체로 다 청.(것도 볶는 거까는 좋은데 갈아놔서 체 가는체로 다 쳐서.)

107086 @ 음, 경 혜야 ㅋ르가 뛰는 거니까.(음, 그렇게 해야 가루가 되는 거니까.)

107086 #1 경 혜야 ㅋ르가 깨끗허곡 우의 궂은 건 다 우티래.(그렇게 해야 가루가 깨끗하고 위에 궂은 거 다 위로.)

107087 @ 삼춘, 요즘은 지짐이 아무 때도 혜영 먹엇주마는 옛날도 지짐이 지정 먹엇수가?(삼춘, 요즘은 지짐이 아무 때도 해서 먹었지만 옛날도 지짐이 지져서 먹었습니까?)

107087 #1 지짐이. 옛날에 지짐이 벨미로덜 호박. 우리 우잣덜 막 싱그난 호박 혜근에. 이제는 영 영 미는 걸로 햇주마는 그땐 칼로 다 즘질게 썰엉.(지짐이. 옛날

에 지짐이 별미로들 호박. 우리 텃밭들 막 심으니까 호박해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걸로 했지만 그땐 칼로 다 자잘하게 썰어서.)

107087 @ 으.(으.)

107087#1 썰어근에 그것도 해 먹젠 허민 여간 아니. 이제 그뜨민 뭐 확 강 밀그르 사당 허주마는 밀 헤근에 굽어야 그르도 잊어야 하지.(썰어서 그것도 해 먹으려고 하면 여간 아니. 이제 같으면 뭐 확 가서 밀가루 사다가 하지만 밀 해서 갈아야 가루도 있어야 하지.)

107087@ 음.(음.)

107087#1 게난 저 먹고 싶기는 해도 하는 게 너미 무시거 하곡. 거 그레 굴젠 허민 아이.(그러니까 먹고 싶기는 해도 하는 게 너무 무엇하고. 거 맷돌 갈려고 하면 아니.)

107087@ 웃음.(웃음.)

107087#1 무시거 요만씩 놔근에 영 영 굽민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할머니하고 영 영 굽민 그레 하나에 서이가 앗앙 그는디 안 보는 트멍에 숨부르왕은에²¹⁷⁾ 바락하게 담아 놔불민 그것이 그르 웨지 아녕 다 거피여경 나오민 그 웨약세기로 얼마사 머리 맞았신디 몰라. 솔박 다음 웨약세기.(무엇 요만씩 놔서 이렇게 갈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이렇게 갈면 맷돌 하나에 셋이 앉아서 가는데 안 보는 틈에 ‘지루해서’ 더력하게 담아 놔버리면 그것이 가루 되지 않아서 거피해서 나오면 그 식되로 얼마야 머리 맞았는지 몰라. ‘솔박’ 다음 식되.)

107087 @ 빨리 굴젠 헌디 안 굽아진 거?(빨리 갈려고 했는데 안 갈아진 거?)

107087 #1 아이고, 얼마나 지루헌지.(아이고, 얼마나 지루한지.)

107087 @ 지루협주게. 지.(지루합지요. 지.)

107087 #1 세 방울 네 방울만 들이치난 어떻 혈 거라게. 그 알러레. 안 보는 트멍에 그르 굽아지지 아녕 거피여경 나오민 웨약세기 앗앙 데가리 두드리곡. 막 울멍 굽아낫어.(세 알 네 알만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 아래로. 안 보는 틈에 가루 갈아지지 않아서 거피해서 나오면 식되 앉아서 대가리 두들기고. 막 울면서 갈았었어.)

107087 #2 아무튼 여자들은 춤 고생 많이 햇어.(아무튼 여자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

107087 #1 울멍 막.(울면서 막.)

107087 #2 남자한테 이거 돌리렌 안 헤시난.(남자한테 이거 돌리라고 안 했으니까.)

107087@ 게난마씨.(그러니까요.)

107087 #2 힘 있으니까 이거 돌리렌 허민 웨 건디.(힘 있으니까 이거 돌리라고 하면 될 건데.)

107087 #1 남자덜은 그거 하젠도 안 하고 시키젠도 안 허여.(남자들은 그거 하

217) ‘숨부르왕은에’는 기다리기가 지루해서의 의미다.

려고도 안 하고 시키려고도 안 해.)

107087 #1 여자만 여자만.(여자만 여자만.)

107087 @ 계난게 쉐로 못 나부난 여자로 낫수제?(그러니까 소로 못 나버리니까 여자로 났잖아요?)

107087 #1 계난 이 우리 제사 때에 그 둑을 쑤는디이.(그러니까 우리 제사 때에 그 둑을 쑤는데.)

107087 @ 예.(예.)

107087 #1 저 거세기 청묵 말고 그냥 둑 쑤는디. 둑도 이제 이만한 두말떼기로 큰반²¹⁸⁾을 헹 반죽행 쑤젠 허민 그렇게 힘들어.(저 거시기 ‘청묵’ 말고 그냥 둑 쑤는데. 둑도 이제 이만한 ‘두말떼기’로 ‘큰반’을 해서 반죽해서 쑤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

107087 @ 음.(음.)

107087 #1 어느 정도만 둑이 월 때는 저 쉽는디 둑이 얼추 다 월 때에는 딴딴 헛니까 젓젠히 허민 힘이 막 펭장히 들어. 먹을 것이 그만큼 엇어난 거주.(어느 정도만 둑이 월 때는 저 쉬운데 둑이 얼추 다 월 때는 단단하니까 저으려고 하면 힘이 매우 굉장히 들어. 먹을 것이 그만큼 없었던 거지.)

107087 #1 우리 어머니가 나한티 하는 말이 물 다섯 번 질어오면 물 다섯 번 질엉 오민 둑 젓어난 남죽 긁어먹으렌 주肯.(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물 다섯 번 길어오면 물 다섯 번 질어서 오면 둑 젓었던 죽젓개 긁어먹으라고 주겠다고.)

107087 @ 웃음.(웃음.)

107087 #1 경 그 남죽에 그 둑 젓었던 걸 먹젠히 우리 뎅가라물²¹⁹⁾ 질어난디 이름이 뎅가라통에 물 다섯 번 그 젓어난 남죽 주민 숟가락으로 긁엉 먹엉.(그래서 그 죽젓개에 그 둑 저었던 걸 먹으려고 우리 ‘뎅가라물’ 질었었는데 이름이 ‘뎅가라통’에 물 다섯 번 그 저었던 죽젓개 주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어서..)

107088 @ 경 허영 다섯 번을 지엉예? 삼촌, 오메기술도 해봄디가? 직접.(그렇게 해서 다섯 번을 지어서요? 삼촌, ‘오메기술’도 해봄디까? 직접.)

107088 #1 오메기술²²⁰⁾은 그냥 평상시 때는 아니 하고, 우리 집은 보면은 보리밭 뜻가래 뜻 할 때에 그 뜻가래 내곡 불리곡 그거 막 시꺼가곡 하젠히 하면은 그거 오메기²²¹⁾ 혜여근에 오메기술 저 이만은 항으로 하나 담아낳. 거 보리밭 하젠히 삼사일 걸리난 그때까지 먹을 거.(‘오메기술’은 그냥 평상시 때는 아니 하고, 우리 집은 보면 보리밭 돼지거름 밭 할 때에 그 돼지거름 내고 밟고 그거 막 실어가고 하려고 하면 그거 ‘오메기’ 해서 ‘오메기술’ 저 이만한 항아리로 하나 담가놔서. 거 보리밭 하려고 하면 삼사일 걸리니까 그때까지 먹을 거.)

107088 @ 음.(음.)

218) ‘큰반’은 제주에서 삼 분의 2 정도의 분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219) ‘뎅가라물’은 표선리 뎅가라 지역에 있는 물통 이름이다.

220) ‘오메기술’은 차좁쌀로 만든 떡을 누룩에 섞어서 발효시킨 술이다.

221) ‘오메기’는 차좁쌀가루로 등그렇게 만들어 물에 삶아낸 떡이다.

107088 #1 그거 혜영 좁쌀 물에 컷당은에 흐린좁쌀.(그거 해서 좁쌀 물에 잠갔다가 차좁쌀.)

107088 @ 흐린좁쌀로?(차좁쌀로?)

107088 #1 흐린좁쌀이야주. 흐린좁쌀 혜영 물에 컷당 그거 행은에 방에에 뿐 양. 기냥 거려당 하는 걸로 허면 허주마는 다 체로 청.(차좁쌀이지. 차좁쌀 해서 물에 잠갔다가 그거 해서 방아에 빽아서. 그냥 떠다가 하는 걸로 하면 하지만 다 체로 쳐서.)

107088 @ 쳐야 뛰고.(쳐야 되고.)

107088 #1 치명 우의 거는 또 뿐고 뿐아낳 우의 거는 근치록 혀영 그거 혜근에 반죽혜근에 다 오메기 멘드는 거라이.(치면서 위에 거는 또 빽고 빽아놔서 위게 거는 그처럼 해서 그거 해서 반죽해서 다 ‘오메기’ 만드는 거야.)

107088 @ 으 음.(음.)

107088 #1 계영 오메기술이 떡을 오메기 오무룩하게시리 이만씩하게시리 다 만들엉. 경 혜근에 그거를 다 삶는 거라.(그래서 ‘오메기술’이 떡을 ‘오메기’ 오목하게 끔 이만씩하게끔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삶는 거야.)

107088 @ 음.(음.)

107088 #1 삶아근에 그거를 이제 다 꾸영.(삶아서 그거를 이제 다 이겨서.)

107088 @ 예.(예.)

107088 #1 건져내근에 다 꿔여근에 누룩하고 막 서꺼근에.(건져내서 다 이겨서 누룩하고 마구 섞어서.)

107088 @ 음.(음.)

107088 #1 서꺼근에 물 어느 정도 혜근에 그 저 항에 담양 놔두민 거 부글부글 부글 막 케여, 케연개.(섞어서 물 어느 정도 해서 그 저 항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거 부글부글부글 막 괴어, 괴던데.)

107088 @ 음.(음.)

107088 #1 부글락부글락부글락 혀명 케면은 짹 걸러. 걸르민 그것이 막걸리라.(부글락부글락부글락 하면서 괴면 짹 걸러. 거르면 그것이 막걸리야.)

107088 @ 그게 막걸리, 그게 오메기술예?(그게 막걸리, 그게 ‘오메기술’요?)

(중략)

107088 #1 그게 오메기술. 오메기술 주렌 안 혀영 조껍데기술.(그게 ‘오메기술’. ‘오메기술’ 주라고 안 해서 조껍데기술.)

(중략)

107088 @ 겟은에 성읍리에서 오메기술 험전 삼춘 혜롭디가?(그렇게 해서 성읍리에서 오메기술 하고 있다고. 삼춘 해롭디까?)

107088 #1 좁쌀 오메기술은 비싸니까.(좁쌀 ‘오메기술’은 비싸니까.)

107088 @ 가짜로 만들어불엇구나.(가짜로 만들어버렸구나.)

107088 #1 성읍리가 성읍리 사름 잔치헐 때 반드시 오메기술 만들어.(성읍리가

성읍리 사람 잔치할 때 반드시 ‘오메기술’ 만들어.)

107088 @ 아 성읍리에서는예?(아 성읍리에서는요?)

107088 #2 팔 때는 진짜가 아니라.(팔 때는 진짜가 아니야.)

107088 @ 그렇게 하면 안 됨는데.(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07088 #1 민속촌에 우리 장사할 때 왕 조껍데기술 이제 드렌 허민 그거 헤근에 풀민 하여튼간에 천 원에치 상 풀민 천 원 남으난 곱 그디.(민속촌에 우리 장사 할 때 와서 조껍데기술 이제 달라고 하면 그거 해서 팔면 하여튼간에 천 원어치 사서 팔면 천 원 남으니까 곱 거기.)

107088 @ 민속촌에서도 삼춘 헤봄디가?(민속촌에서도 삼촌 해봄디까?)

107088 #1 민속촌 장시 맷 년 햇주. 아니 한 거 엇이 난 식육점만 안 헛어. 식육점 무사 안 헤신가 허민 그때에 다 할머니영 어머니네 다 돌아가셔불고 헨에 나가 헨 애기덜이영 나고 재산도 얼마 엇고 친정 재산은 하신디 나 이름으로 뭔 재산도 엇고 허난에 나 식육점도 하젠 헤낫수다게. 하젠 헤신디 우리 오빠가 못하게 헨에 못하게 그걸랑 하지 말렌. 아이덜 공부시킬 때 돈 엇이민 나가 대주쿠메 하지 말렌.(민속촌 장사 몇 년 했지. 아니 한 거 없이 난 식육점만 안 헛어. 식육점 왜 안 했는가 하면 그때에 다 할머니하고 어머니네 다 돌아가셔버리고 해서 내가 해서 아기들이랑 넣고 재산도 얼마 없고 친정 재산은 많은데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고 하니까 나 식육점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못하게 해서 그걸랑 하지 말라고. 아이들 공부시킬 때 돈 없으면 내가 대주겠으니 하지 말라고.)

107088 @ 웃음.(웃음.)

107088 #1 경 헨 안 헨. 경 안 헤시민 식육점 헤실 건디. 하지 말렌 헨 딴 장산다 원.(그렇게 해서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으면 식육점 했을 건데. 하지 말라고 해서 딴 장사는 다 원.)

107088 #2 베도 해낫지양?(배도 했었지요?)

107088 #1 베도 헤낫고.(배도 했었고.)

107088 @2 베도 부려봄디가?(배도 부려봤습니까?)

107088 @ 아아.(아아.)

107088 #1 배도 순풍호. 그때는 고기 하영 잡아오민 망신이라. 사가지 안 하니까.(배도 순풍호. 그때는 고기 많이 잡아오면 망신이야. 사가지 안 하니까.)

107088 @ 음.(음.)

107088 #1 이제 그 고기 이제는 일 키로에 얼마 헤신디 그때 일 관에 얼마 헤낫주게. 고기를 사젠 안 헨. 그 우리 배는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아와신디. 우리 배만 들어오민 우리 뱐 아니 맡으肯 하는 거라. 그.(이제 그 고기 이제는 일 킬로에 얼마 했는데 그때 일 관에 얼마 했었지. 고기를 사려고 안 했어. 그 우리 배는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아왔는데. 우리 배만 들어오면 우리 뱐 아니 맡겠다고 하는 거야. 그.)

107088 #2 상인들이. 너무 많이 잊어부난.(상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버리니까.)

- 107088 #1 중상인들이.(중상인들이.)
- 107088 @ 하도 문제네.(많아도 문제네.)
- 107088 #1 아 이백 관 잡안 왔자. 뭐 스백 관 잡아왔자. 어떤 때는 막 기도.(아, 이백 관 잡아서 왔다. 뭐 사백 관 잡아왔다. 어떤 때는 막 기(旗)도.)
- 107088 #2 만선기 둘앙.(만선기 달아서.)
- 107088 #1 만선기 둘아근에 오곡허명.(만선기 달아서 오고하면서.)
- 107088 @ 경 해도.(그렇게 해도.)
- 107088 #1 경 해도 이제 이제 그 고길 잡아시민 부자 뒤실 건디.(그렇게 해도 이제 이제 그 고길 잡았으면 부자 됐을 건데.)
- 107088 @ 삼춘, 이제도 부자 아니?(삼춘, 이제도 부자 아니?)
- 107088 #1 부자 무신거.(부자는 무슨.)
- 107089 @ 순다리는 여긴 순다리 헙니까? 순다리 헙니까?('순다리'는 여긴 '순다리' 헙니까? '순다리' 헙니까?)
- 107089 #1 순다리.(('순다리').)
- 107089 @ 순다리 건 어떻 만드는 거?('순다리' 건 어떻게 만드는 거?)
- 107089 #1 순다리 뭐 밥, 저 밥 그것에게 누룩 서꺼근에게 허근에 놔두민 물이 영 서껑 놔두민 보글보글 궤민 거 걸러내민 거 순다리²²²⁾.('순다린' 뭐 밥, 저 밥 그 것에 누룩 섞어서 해서 놔두면 물이랑 섞어서 놔두면 보글보글 괴면 거 걸러내면 거 '순다리').
- 107089 @ 음, 요즘도 순다리 헙 먹엄수가?(음, 요즘도 '순다리' 해서 먹고 있습니까?)
- 107089 #1 우리 이디 이디 오는 노인덜 밥 남으면 저 가정장 순다리 행 먹肯 헙 가정가. 난.(우리 여기 여기 오는 노인들 밥 남으면 저 가져가서 '순다리' 해서 먹겠다고 해서 가져가.)
- 107089 #2 우리는 자꾸 해 먹는데.(우리는 자꾸 해 먹는데.)
- 107089 @ 아아.(아아.)
- 107089 #1 자꾸 해 먹는 집덜은 자꾸 행 먹어. 좋주게.(자꾸 해 먹는 집들은 자꾸 해서 먹어. 좋지.)
- 107090 @ 누룩은 어떻 만드는 거우과?(누룩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 107090 #1 누룩은 저 어떻 만드느냐 하면은 웃음. 나가 혼 나가 낳은 지가 팔십 년 됐는데 다 아니 아니 헤난 거 아니 본 거 엇이 다 봐보난. 누룩 만드는 거는 주 넹이보리라야 뛰여.(누룩은 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웃음. 내가 한 내가 낳은 지가 팔십 년 됐는데 다 아니 아니 했던 거 아니 본 거 없이 다 봐보니까. 누룩 만드는 거는 맥주보리어야 돼.)
- 107090 @ 주-navbar.(맥주보리.)

222) '순다리'는 순 듯한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순다리'라고도 한다.

107090 #1 이제 뭐 딴 거 보리개역 같은 거는 미숫가루 같은 건 술우리로 하는 디 누룩만큼은 주뎅이보리로 하는 거라.(이제 뭐 딴 거 보리미숫가루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건 쌀보리로 하는데 누룩만큼은 맥주보리로 하는 거야.)

107090 @ 으음.(으음.)

107090 #1 주뎅이보리로 헤근에 그거를 이제 영 싯져근에 시경 물 그거 이제 빠주와근에 건물²²³⁾만 빠주와근에 영 허영 통에 담양 놔두민 짹이 뜨는 거라이.(맥주보리로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씻어서 씻어서 물 그거 이제 빼서 ‘건물’만 빼서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서 놔두면 짹이 트는 거야.)

107090 @ 으.(으.)

107090 #1 거 보리에 짹. 그 짹이 요만큼 다 떠. 짹이 박삭 뜨민 벳난 뒤 물랴근에 그거 거핀 것이 누룩이라.(거 보리에 짹. 그 짹이 요만큼 다 떠. 짹이 박삭 뜨면 볕난 데 말려서 그거 거피한 것이 누룩이야.)

107090 @ 골은 뭐?(엿기름은 뭐?)

107090 #1 골, 골은 그 주뎅이보리 가정은에 그거는 이제 골아근에 이젠 인치툭저 돌례떡그치 만들어근에 띄와근에 그는 걸 군 거는 그 골.(엿기름. 여엿기름은 그 맥주보리 가져서 그거는 이제 갈아서 이젠 이처럼 저 도래떡같이 만들어서 띄워서 가는 걸 간 거는 그 옛기름.)

107090 @ 삼춘, 거꾸로 그는 것 닮다.(삼춘, 거꾸로 말하는 것 같다.)

107090 #2 거꾸로 굽안.(거꾸로 말했어.)

107090 #1 어쨌든 간에.(어쨌든 간에.)

107090 #2 틔운 것이 누룩.(띄운 것이 누룩.)

107090 #1 누룩 골.(누룩 옛기름.)

107090 #2 거 짹 난 거 군 것은 골.(거 짹 난 거 간 것은 옛기름.)

107090 @ 계난 그 저기 틔운 거는 주뎅이보리 짹 틔운 게 아니라.(그러니까 그 저기 띄운 거는 맥주보리 짹 틔운 게 아니야.)

107090 #1 주뎅이보리 짹 틔운 거.(맥주보리 짹 틔운 거.)

107090 @ 쌀 현 순다리 헐 이렇게 동글락헌 거.(쌀 한 ‘순다리’ 할 이렇게 동그란 거.)

107090 #1 그거.(그거.)

107090 #2 그거 틔운 거. 틔운 거 놔뒀다가.(그거 띄운 거. 띄운 거 놔뒀다가.)

107090 @ 띄 이렇게 헤갓고.(띄 이렇게 해갓고.)

107090 #1 띄 저 영 영 저 거세기 지금 저 장에 강 보면은 동글락헌 것덜 팔주게. 그런 거 사당은에 그거 혜영 집에서 뜻아근에 그 이제 쌀 허고 서꺼근에 혜영衲당 걸르민 순다리 훼고.(띄 저 이렇게 이렇게 저 거시리 지금 저 장에 가서 보면 동그란 것들 팔지. 그런 거 사다가 그거 해서 집에서 빵아서 그 이제 쌀 하고 섞어서 해서 놔다가 거르면 ‘순다리’ 되고.)

223) ‘건물’은 대강의 물이라는 의미다.

107090 @ 계난 그 누룩 이렇게 똥글락하게 만들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고?(그러니까 누룩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고?)

107090 #1 그거는 그 저 보리.(그거는 그 저 보리.)

107090 @ 으.(으.)

107090 #1 술우리보리 것도 거피여근에 물 그자 그거는 아주 즘질게 거피영.(쌀보리 것도 거피해서 물 그저 그거는 아주 자잘하게 거피해서.)

107090 @ 으.(으.)

107090 #1 경 헤근에.(그렇게 해서.)

107090 @ 건 술우리보리?(건 쌀보리?)

107090 #1 즘질게 거피여근에 영 거세기 떡 만들어근에 떡와근에 건 떡와근에 가루 빵지 아녕 그건 떡와근에 기자 동글랑한 거 그냥 그대로 이제 풀레 다니고.(자잘하게 거피해서 이렇게 거시기 떡 만들어서 떡워서 건 떡워서 가루 빵지 않고 그저 떡워서 그저 동그란 거 그냥 그대로 이제 팔려 다니고.)

107090 @ 음.(음.)

107090 #1 그 골인가 헌 거는 짹 튼 거 다 굴아근에 ㅋ르로 만들어근에 그 장에 그 풀레 오는 거난 주뎅이보리로 허영.(그 옛기름인가 한 거는 짹 튼 거 다 같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장에 팔려 오는 거니까 맥주보리로 해서.)

107090 @ 건 주뎅이보리로 허는 거고.(건 맥주보리로 하는 거고.)

107090 #1 돌레 영 허영 헌 거는 술우리보리로 헌 거.(도래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쌀보리러 한 거.)

107091 @ 직접 옛도 만들어반마씨?(직접 옛도 만들어봤어요?)

107091 #1 옛도 나가 나는 옛 안 만들어 봄도 어머니네 옛 만드는 거 봄봤주께.(옛도 내가 나는 옛 안 만들어 봄도 어머니네 옛 만드는 거 봄봤지.)

107091 @ 건 어떤 식으로 만듭디가?(건 어떤 식으로 만듭디까?)

107091 #1 거는 오메기²²⁴⁾.(거는 ‘오메기’.)

107091 @ 으.(으.)

107091 #1 그 흐린좁쓸 가전에 그 이제 물 끓여근에 영 반죽해근에 오메기 그거 이제 삶아내어근에.(그 차좁쌀 가져서 그 이제 물 끓여서 이렇게 반죽해서 ‘오메기’ 그거 이제 삶아내서.)

107091 @ 으.(으.)

107091 #1 누룩하고 그거 물하곡 서꺼근에 저 놔두면은 그것이 케면은 그 물을 뜰라근에 그 물을 막 불 숨아근에.(누룩하고 그거 물하고 섞어서 저 놔두면 그것이 괴면 그 물을 따라서 그 물을 막 불 때서.)

107091 @ 으.(으.)

107091 #1 만약에 혼 솟 물이 혼 솟 훠면은 반 솟 텔 때까지 그 불 숨으멍 막풀어들게 만드는 거라이.(만약에 한 솥 물이 한 솥 되면 반 솥 될 때까지 그 불 때

224) ‘오메기’는 차좁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등그렇게 만든 떡이다. ‘오메기술’의 재료다.

면서 막 줄어들게 만드는 거야.)

107091 @ 으.(으.)

107091 #1 계민 그추룩 반 이상 내려간 한 것이 옛.(그러면 그처럼 반 이상 내려간 한 것이 옛.)

107091 @ 옛.(옛.)

107091 #1 그거 그만은 해 놔근에 닭 삶양은에 닭고기 영 영 찢어낳 거기 낳은 에 하면은 뭐 닭 무신 옛.(그거 그만하게 해 놓아서 닭 삶아서 닭고기 이렇게 이렇게 찢어놔서 거기 놔서 하면 뭐 닭 무슨 옛.)

107091 #2 닭엿.(‘닭엿’.)

107091 #1 닭엿인가.(‘닭엿’인가.)

107091 #2 꿩 놓면은 꿩엿.(꿩 넣으면 ‘꿩엿’.)

107091 #1 꿩 놓민 꿩엿엔 허곡.(꿩 넣으면 ‘꿩엿’이라고 하고.)

107091 @2 돼지고기 놓면은마씨?(돼지고기 넣으면요?)

107091 #1 돼지고기 ㅋ튼 거 논 것은 안 봤어.(돼지고기 같은 거 넣은 것은 안 봤어.)

107091 @ 아.(아.)

107091 #1 그것이 잊어시민 도자긴다. 요만은 그것도 잊어신디 요만은 헌 단지. 혜영현 거 퍼령 이제는 분명하게 무신 꽂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푸린 걸로 영 영 기려진 그런 것에 그 옛을 담아근에 우리 어머니네가 옛 이제 그 혜근에 그런 단지에 담양 켜 우의 놓는 거라.(그것이 있었으면 도자긴데. 요만한 그것도 있었는데 요만큼 한 단지. 하얀 거 퍼령 이제는 분명하게 무슨 꽂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푸린 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그런 것에 그 옛을 담아서 우리 어머니네가 옛 이제 그 해서 그런 단지에 담아서 켜 위에 놓는 거야.)

107091 @ 음.(음.)

107091 #1 시렁 혜근에 켜 우의 놓민. 아이고, 그거 우리, 우리 아버지 약 하젠 영 영 놓민 우리 오빠 나안티 굽으렌 혜근에 굽으민 그 우의 올라사근에 그 옛단지에 고기덜이 옛 우티레 올라오주게. 난 굽은만 허곡 옛도 안 주곡 우리 오빠만 다 먹언.(벽장 해서 켜 위에 놓으면. 아이고, 그거 우리, 우리 아버지 약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우리 오빠 나한테 굽으라고 해서 굽으면 그 위에 올라서서 그 옛단지에 고기들이 옛 위로 올라오지. 난 굽은만 하고 옛도 안 주고 우리 오빠만 다 먹었어.)

107091 @ 웃음. 계난 혼번 얻어먹지 못허연.(웃음).(웃음. 그러니까 한 번 얻어먹지 못했어.)(웃음).

107091 #1 오빠가 굽으민 나가 올라가근에 느랑은에 막끗데 먹곡 나 므녀 먹肯 허연 허민 오빠 먹어지민 들아나불민 미치지도 못하고 그런 말 굴으멍 배꼽 다 째 지게 웃이매.(오빠가 굽으면 내가 올라가서 너는 마지막에 먹고 나 먼저 먹겠다고 해서 하면 오빠 먹어지면 달아나버리면 미치지도 못하고 그런 말 말하면서 배꼽 다

찢어지게 웃어.)

기타

107092 @ 경 허니까, 그것 말고 이 마을에서 이 표선리에서만 하는 특별한 음식 같은 거 이시카마씨?(그렇게 하니까, 그것 말고 이 마을에서 표선리에서만 하는 특별한 음식 같은 거 있을까요?)

107092 #1 특별한 음식은 뭐 아 하여튼 간에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는 뭐냐 허민 그자 우리 노인당에서 와근에 전복죽 쭈 주는 거양. 전복죽 쭈는 것이 특별한, 특별한 음식이라. 젤 막 크게 생각해근에.(특별한 음식은 뭐 하여튼 간에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저 우리 노인당에서 와서 전복죽 쭈 주는 거요. 전복죽 쭈는 것이 특별한 음식이야. 젤 아주 크게 생각해서.)

107092 @ 음, 옛날도.(음, 옛날도.)

107092 #1 우리 노인정 혼 번 전복죽 쭈어근에 혼 번 맥이젠 허민 혼 칠십만 원 정도 들어. 전복 그거 하고.(우리 노인정 한 번 전복죽 쭈서 한 번 먹이려고 하면 한 칠십만 원 정도 들어. 전복 그거 하고.)

107092 @ 삼촌, 옛날에 물질도 해시난 집에서도 옛날 전복죽덜 헤실 거 아니라 예? 어떨 때 힘니까? 전복죽은.(삼촌, 옛날에 물질도 했으니까 집에서도 옛날 전복죽들 했을 거 아닌가요? 어떨 때 합니까?)

107092 #1 옛날에는 전복으로 죽 쟁 먹을 줄 몰라낫어.(옛날에는 전복죽 죽 쭈서 먹을 줄 몰랐었어.)

107092 #2 풀아.(팔아.)

107092 @ 뭐 행 먹어? 전복 하면?(뭐 해서 먹어? 전복 하면?)

107092 #1 전복 다 통조림공장에 다 풀고. 그 기스 영 허영 하면은 와근에 썰어근에 기자 이만은현 점복이라도 맷 점 뛰지 안 허여. 썰명.(전복 다 통조림공장에 다 팔고. 그 상처 이렇게 하면 와서 썰어서 그저 이만한 전복이라도 몇 점 되지 않아. 썰면서.)

107092 @ 으.(으.)

107092 #1 대으섯 점 혼 점씩 먹으민 끗나부는 거라.(대여섯 점 한 점씩 먹으면 끗나버리는 거야.)

107092 @ 음.(음.)

107092 #2 그치록 헤영 먹엉 치와벳주. 전복 가져근에 죽 쭈먹거나 경 허진 아녀.(그처럼 해서 먹어서 치워버렸지. 전복 가져서 죽 쭈먹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

107092 @ 그 계웃 가정은 뭐합니까?(그 ‘계웃’ 가져서는 뭐합니까?)

107092 #1 계웃²²⁵⁾도 다듬앙 혼 사름 먹엉 치와불곡.(‘계웃’도 다듬어서 한 사람 먹어서 치워버리고.)

107092 @ 계웃은 것 같은 건 아녀봄디가?(‘계웃’은 것 같은 건 안 해봄디까?)

225) ‘계웃’은 전복의 내장이다.

107092 #2 게웃은 통조림공장에서.(‘게웃’은 통조림공장에서.)

107092 #1 게웃 통조림공장에서 저 전복 숙보 헤근에 그 전복을 문딱 터근에 이제 물 퀘우는 물에 그거 끓이는 디 행 등가근에 건져근에 말리왕.(‘게웃’ 통조림 공장에서 저 전복 숙복 해서 그 전복을 몽땅 떠서 이제 물 끓이는 물에 그거 끓이는 데 담가서 건져서 말려서.)

107092 @ 음.(음.)

107092 #1 말리완에 그때는 삼마엔 헌 사름이 완 통조림공장 혜신디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 아니까 그디 이제 직원으로 핸에 혜신디 그때 아버지 그디 시난 우리 자주 그 통조림공장에 놀레가주게. 강 보면은 옛날에는 전복이 하나가 바로 이따위라. 이따위. 그런 전복덜 헤근에 막 행 문딱 저 거시기 물 끓여근에 그 다 전복 터근에 게웃 다 떼불영 물 끓영 거 혜영 일본더래 보내곡 막 허연게.(말려서 그때는 삼마라고 한 사람이 와서 통조림공장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 아니까 거기 이제 직원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아버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자주 통조림공장에 놀러 가지. 가서 보면 옛날에는 전복이 하나가 바로 이 따위라. 이 따위. 이따위. 그런 전복들 해서 저 거시기 물 끓여서 그 다 전복 떠서 ‘게웃’ 다 떼벼려서 물 끓여서 거해서 일본으로 보내고 막 하던데.)

107092 #2 그때는 게웃을 풀거난 안 햇어, 빌어단.(그때는 ‘게웃’을 팔거나 안 했어. 빌려다가.)

107092 #1 빌언 빌언.(빌려서 빌려서.)

107092 #1 우리는 게웃 먹으렌 허난 먹지 아녀낫어. 하도 오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핸에 느시게 혜연 먹어노난.(우리는 ‘게웃’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 않았었어. 하도 오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해서 물리게 먹어놓으니까.)

107092 @ 게웃것도 행 먹엇잖아예?(‘게웃것’도 해서 먹었잖아요?)

107092 #2 그때는 해방 후에니까 우리 친족 형님이 통조림공장을 햇으니까 게웃은 자꾸 빌어단 먹엇어. 것으로 헌 게 아니고 게웃으로 해당 기자 게웃으로도 먹곡 숲앙도 먹고 좀 소금하면은 젓이 듭고 경 행 먹어난.(그때는 해방 후에니까 우리 친족 형님이 통조림공장을 했으니까 ‘게웃’은 자꾸 빌려다가 먹었어. 것으로 한 게 아니고 ‘게웃’으로 해다가 그저 ‘게웃’으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좀 소금하면 젓같이 되고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

107092 @ 음.(음.)

107092 #2 풀젠은 안 햇어.(팔려고는 안 했어.)

107092 #1 우리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네는 그 게웃것²²⁶⁾ 먹은 거 생각남서. 무시거 접시에 새카망 뭐 한 거 영 혜영 아껴당 보민 우린 그 거명하덴 허멍 안 먹엇주께.(우리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네는 그 ‘게웃것’ 먹은 거 생각나고 있어. 무엇 접시에 새까만 뭐 한 거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보면 우린 그 검다고 하면서 안 먹었지.)

226) ‘게웃것’은 전복 내장으로 담근 젓을 말한다.

107092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7092 #1 거멍허텐 허멍 안 먹어신디 이제 생각해 보난 그것이 게웃젓인 거닮아.(거멓다고 하면서 안 먹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게웃젓’인 거 같아.)

107092 @ 게웃젓 헨에 먹는 거는 여기까지 끊내쿠다.(‘게웃젓’ 해서 먹는 거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107092 #1 몷 시간 됐어? 끊나주, 아이고.(몇 시간 됐어? 끝내지, 아이고.)

8. 주생활

구조

108001 @ 자 집을 지었던 경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자 집을 지었던 경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8001 #2 아니, 나 목수는 아니라도 주인으로.(아니 나 목수는 아니어도 주인으로 어.)

108001 @ 예.(예예.)

108001 #2 주인으로 여러 채 짓엇수다게. 아까 훠장 말햇다시피.(주인으로 여러 채 지었습니다. 아까 회장 말햇다시피.)

108001 @ 계난 집 지었던 경험 굽아줍서?(그러니까 집 지었던 경험 말해주십시오?)

108001 #2 결혼, 결혼해가지고 이제 분가를 허게 됤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터를 내주니까 당장에 좋게 지을 수는 없고. 요 서화리엔 현 디 잇수다게. 거기 가서 놈의 집 그 틀는 거 그걸 사다가. 그걸 사다가 나무도 보태가지고 나무 딱 그만큼만큼만 짓어낫수다. 그거 짓고. 또 밧거례. 밧거례엔 현 거 무시거 불치도 뭐 허곡 이렇게 허는 거 헤서.(결혼, 결혼해가지고 이제 분가를 하게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터를 내주니까 당장에 좋게 지을 수는 없고. 요 세화리라고 한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남의 집 뜯는 거 그걸 사다가. 그걸 사다가 나무도 보태가지고 나무 딱 그만큼만큼만 지었었습니다. 그것 짓고. 바깥채. 바깥채라고 한 거 무엇 채도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해서.)

108001 #1 불치, 불치 데미고.(재, 재 쌓고.)

108001 #2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나십주.(예, 그렇게 해서 살았습지요.)

108001 @ 그거 지었던 건 언제마씨?(그거 지었던 건 언제요?)

108001 #2 그것은 스물세 살 스물네 살.(그것은 스물세 살 스물네 살.)

108002 @ 스물네 살 때. 그때 지었던 집은 어떤 집 짓엇수가?(스물네 살 때. 그때 지었던 집은 어떤 집 지었습니까?)

108002 #2 초집, 초집. 초가집으로 지어서 또 혼 몷 년 십 몷 년쯤 지나가니까

지붕 개량하라고 해서. 그래서 쓰레트 면사무소에서 보조도 받고 해서 지붕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곤란한데 풀아십주. 것도 서귀포로 가볍수게.(초집, 초집. 초가집으로 지어서 또 한 몇 년 십 몇 년쯤 지나가니까 지붕 개량하라고 해서. 그래서 슬레이트 면사무소에서 보조도 받고 해서 지붕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곤란해서 팔았습죠. 것도 서귀포로 가버렸습니다.)

108002 #1 그거는 그거 그 훼장님네 그 시대는 그거 좀 나을 때 집이우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린 어릴 때에 놈의 집 막 그 못사는 사람. 그, 그런 집 지은 딸 가보민예, 집을 짓어가지고 방하고 방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영 칸 하나는 뭐 북데기 북데기 그 검질 막 끝아근에 혼쪽에, 혼쪽에는 밥해 먹고. 거기에서.(그거는 그거 그 회장님네 그 시대는 그거 좀 나을 때 집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린 어릴 때에 남의 집 막 그 못사는 사람. 그, 그런 집 지은 데 가보면요, 집을 짓어가지고 방하고 방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칸 하나는 뭐 북데기 북데기 그 검불 막 깔아서 한쪽에, 한쪽에는 밥해 먹고. 거기에서.)

108002 @ 음.(음.)

108002 #1 그자 방하고 그거라. 부엌 상방 그런 거 엇이 방 하나 북데기방²²⁷⁾. 그거 혜근에 거기에 불 숨앙 밥해 먹고. 그 이간 집 조그만하게 초가 조그마하게 짓어근에 불치막²²⁸⁾처럼 짓어근에 그 사는 사람덜토 우린 봐낫수다.(그저 방하고 그거야. 부엌 마루 그런 거 없이 방 하나 ‘북데기방’. 그거 해서 거기에 불 때서 밥 해 먹고. 그 이간 집 조그맣게 초가 조그마하게 짓어서 ‘불치막’처럼 짓어서 사는 사람들도 우린 봤었습니다.

108002 @ 음.(음.)

108002 #1 그 저 계영 영 강 보면은 저 방더래 들어가는 문도 혼나. 혼나만 혜 영 그 영 잡아댕겨근에 열아근에 들어가근에 영.(그 저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저 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 하나만 해서 그 이렇게 잡아당겨서 열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108002 @ 음.(음.)

108002 #1 경 헌디.(그렇게 하는데.)

108002 @ 으음. 그런 집은 무신 집 혜마씨?(으음. 그런 집은 무슨 집 해요?)

108002 #1 그, 그런 집은 뭐 저 불치막살이²²⁹⁾짓언 살았저. 그때 말로는.(그, 그런 집은 뭐 저 ‘불치막살이’같이 짓어서 살았다. 그때 말로는.)

108002 @ 으음.(으음.)

108002 @2 계난 막살이?(그러니까 오막살이?)

108002 #1 막살이, 막살이주게.(오막살이, 오막살이지.)

108002 @ 네, 알았수다.(네, 알았습니다.)

108002 #1 경 혜연 그 다음에 혼꼼 낫게 혜난에 이간막살이 혜근에 쪼꼼 낫은

227) ‘북데기방’은 북데기를 깔아서 방처럼 꾸민 공간을 이르는 말이다.

228) ‘불치막’은 집처럼 만들어 놓은 재를 넣는 공간을 말한다. ‘불치’는 표준어 ‘재’에 해당하는 말이다.

낫게시리 그것보단 이제 방 하나 마리 닮은 거 영 허고 부엌하고 영 헨에.(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낫게 해서 이간막살이 해서 조금 낫게 그것보단 이제 방 하나 마루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해서.)

108002 #2 난 짓을 뱀 삼칸, 삼칸.(난 지을 뱀 삼칸, 삼칸.)

108002 @ 예.(예.)

108002 #1 이 훠장님네 집 짓을 때는.(이 회장님네 집 지을 때는.)

108002 #1 훠장님네 집 짓을 그때는 방하고 마레끄장은 부뜨곡 그 부엌.(회장님네 집 지을 그때는 방하고 마루까지는 불고 그 부엌.)

108002 @ 예.(예.)

108002 #1 그치록 부엌도 흙땅에서. 흙땅에서 그자 영 덕 놔근에 거기서 이제 헤영. 그자 그 그냥 흙땅에 밥 거려 놓고 국 거려 놓곡 경 헤여근에 경 허영 먹엇주. 상 출리곡 무시거 허곡 그 시대는 경 안 햇수다.(그처럼 부엌도 ‘흙땅’에서. ‘흙땅’에서 그저 이렇게 봇돌 놔서 거기서 이제 해서. 그저 그 그냥 ‘흙땅’에 밥 떠 놓고 국 떠 놓곡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었지. 상 차리고 무엇 하고 그 시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108002 @ 예.(예.)

108002 #1 그 처음에 그 저 못살 때.(그 처음에 그 저 못살 때.)

108002 @ 예.(예.)

108002 #1 완전 못살 때에.(완전 못살 때에.)

108002 @ 맞아예. 계난 그 제주도에 계믄 집 종류는 어떤 집 종류들이 잇어나 수가? 삼춘네 살 때?(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그러면 집 종류는 어떤 집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삼춘네 살 때?)

108002 #1 계난 불치막살이하고 그 다음에 뭐 이간막살이.(그러니까 ‘불치막살이’하고 그 다음에 뭐 ‘이간막살이’.)

108002 #2 이간막살이 삼간막사리 있는데, 표선리에는예, 그 우리가 이제 자라서 나 집 짓을 때 보니까 애, 양철집이라고 양철.(‘이간막살이’ ‘삼간막살이’ 있는데, 표선리에는요, 그 우리가 이제 자라서 나 집 지을 때 보니까 애, 양철집이라고 양철.)

108002 @ 예, 예.(예, 예.)

108002 #2 양철집이 좀 잘사는 사름덜. 그런 사름덜은 어떤 사름이냐 하면은 일본 놈덜 망해서 가버리니까

108002 @ 음.(음.)

108002 #2 인자 그것을 이자 뭐라 하는가 불하는 아니고. 돈 내 가지고 일부 가지고 이녁 자기가 받아 가지고 그런 양철집이 잇엇고. 여기에 가장 잘 사는 송*식씨.(양철집이 참 잘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본 놈들 망해서 가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 하는가 불하는 아니고. 돈 내어 가지고 일부 내어 가지고 이녁 자기가 받아 가지고 그런 양철집이 있었고. 여기에 가장 잘 사는

송*식 씨.)

108002 @ 네.(예.)

108002 #2 많이 들었지예?(많이 들었지요?)

108002 @ 예, 예.(예, 예.)

108002 #2 그분들은 양철집을 해서 살았고. 그 나머지 우리들은 그자 그자.(그분들은 양철집을 해서 살았고. 그 나머지 우리들은 그저 그저.)

108002 #1 초가집.(초가집.)

108002 #2 집 짓젠 허민 삼간집. 경 아녀민 이칸 경 아녀민 맨 불치막살이 해서 살안. 불치막살이 제도가 만햇수다.(집 지으려고 하면 삼간집. 그렇게 않으면 이간 그렇게 않으면 맨 ‘불치막살이’ 해서 살았어. ‘불치막살이’ 제도가 많았습니다.)

108002 @ 음, 그러면 초집허고 양철집.(음, 그러면 초집하고 양철집.)

108002 #2 양철집 그거뿐.(양철집 그거뿐.)

108002 #1 그 다음은 쓰레트로 혜가지고.(그 다음은 슬레이트.)

108002 #2 쓰레트는 냉중에 나오고.(슬레이트는 나중에 나오고.)

108002 @ 지에집?(기와집?)

기와집.(기와집.)

108002 #2 기와집 잇엇어.(기와집 있었어.)

108002 #1 기와집도 멧 개. 우리 표선인 경우에는 알동네 진하네.(우리 표선인 경우에는 아랫동네 진하네.)

108002 #2 어.(어.)

108002 #1 그디 표선이서 그 집만 기와집. 기와를 하니까 그 집으로 다.(거기 표선에서 그 집만 기와집. 기와를 하니까 그 집으로 다.)

108002 @ 으.(으.)

108002 #2 으. 기와집 허민 거기 저 밑에.(으, 기와집 하면 거기 저 밑에.)

108002 @ 예.(예.)

108002 #2 그 사름은 배 선장도 혜나곡 육지를 자꾸 왕래허곡 하니까 기와집 짓언 살안. 기와집 허민 그 사름네 집.(그 사람은 배 선장도 했었고 육지를 자꾸 왕래하고 하니까 기와집 지어서 살았어. 기와집 하면 그 사람네 집.)

108002@ 음.(음.)

108002 @ 그러면은?(그러면?)

108002 #2 표선면 일대에서.(표선면 일대에서.)

108002 @ 그러면은 예전에 초집 짓을 때에는 흑집이우파? 돌집이우파?(그러면 초집 지을 때는 흙집입니까? 돌집입니까?)

108002 #2 돌 다아놓고 흑 불르는 거.(돌 쌓아놓고 흙 바르는 거.)

108002 @ 음.(음.)

108002 #1 돌로 다근에 흑도 흑 혜근에 그 집이 흑질하젠 하면은 동네 사름덜 다 나와근에 물 길어다주곡. 경 혜근에 말이나 소나 경 혜근에 그 보리찍, 보리찍이

하이튼 보리찍일 거라. 보리찍 막 그거 뿌리멍 막 소하고 말하곡 그거를 배합시키는 거라. 막 빨라근에.(돌로 쌓아서 흙도 흙 해서 그 집에 흙질 하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물 길어다주고. 그렇게 해서 말이나 소나 그렇게 해서 그 보릿짚, 보릿짚이 하여튼 보릿짚일 거야. 보릿짚 마구 그거 뿌리면서 마구 소하고 말하고 그거를 배합시키는 거야. 마구 밟아서.)

108002 @ 음.(음.)

108002 #1 영 서로서로 그 부뜨게시리.(이렇게 서로서로 그 불게끔.)

108002 @ 예.(예.)

108002 #1 경 헤근에 그거 가져근에 그 영 영 심영 착허영 손으로 작작 고망.
(그렇게 해서 그거 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작작 구멍.)

108002 @ 고망 막고.(구멍 막고.)

108002 #1 담 영 다 놔근에 그 고망더레 다 흑. 우리 거 두린 때에 그거 저 집 짓는 거 봄난 거주. 우리가 직접 짓은 거는 아니고.(담 이렇게 쌓아 놔서 구멍으로 흙. 우리 거 어린 때에 그런 저 집 짓는 거 봄던 거지. 우리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

108002 @2 우리 동네는예, ㅋ시락하고 그.(우리 동네는요, 까끄라기하고 그.)

108002#1 보리.(보리.)

108002 @2 보리낭 그거 작두로 쫄랑예.(보릿짚 그거 작두로 잘라서요.)

108002 #1 보리낭덜 작두로 끊엉은에 불랑. 말하고 소하곡 하명 허주. 사름으로 다 불르지 못허여. 그 흑이.(보릿대들 작두로 끊어서 밟아서. 말하고 소하고 하면서 하지. 사람으로 다 밟지 못해. 그 흑이.)

108002 @ 예.(예.)

108002 #1 그 딱 배합뒈게시리 힘이 없으니까. 게난 말하곡 그 소나 헤근에 허고 동네 사름덜 다 물 길어다주곡.(그 딱 배합되게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고 소나 해서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물 길어다주고)

108002 @ 네.(예.)

108002 #1 집 짓젠 허민.(집 지으려고 하면.)

108002 #2 집 짓는다고 허면은 목수, 목수는 품 줘서 허고 담 다는 건 품 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름덜이 다 나와서.(집 지으려고 하면 목수, 목수는 품 줘서 하고 담 쌓은 거 품 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108002 #1 부주로, 부주로.(부조로, 부조로.)

108002 #2 부주로.(부조로.)

108003 @ 예, 그러면 보통 집 하면 안거리가 있고.(예, 그러면 보통 집 하면 안채가 있고.)

108003 #1 음, 몽ㅋ레. 밧거레 몽ㅋ레.(엄, 결채. 바깥채 결채.)

108003 @ 아 밧거레가 있고?(아, 바깥채가 있고?)

108003 #1 몽ㅋ레.(결채.)

108003 @ 몽크레엔 협니까? 아.(곁채라고 합니까? 아.)

108003 #2 그 불치막살이 허고.(그 ‘불치막살이’ 하고.)

108003 #1 우리 웨가에 신천리 웨가에가 그 시절에 잘살았낫주게. 안거레는 막 좋게 짓고 몽커레는 그보다 적게 짓엉. 그 적게 짓은 디는 이제 정제 허고 그 저 밥허는 그런 식으로 헤근에 행 짓곡. 몽크레는 이문간²²⁹⁾.(우리 외가에 신천리 외가가 그 시절에 잘살았었지. 안채는 아주 좋게 짓고 곁채는 그보다 적게 지어서. 그 적게 지은 데는 이제 부엌 하고 그 저 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서 짓고. 곁채는 ‘이문간’.)

108003 @ 예.(예.)

108003 #1 이문간 하고 영 겹쳐근에 짓은 디는 몽크레엔 글안계 그때.(‘이문간’하고 이렇게 겹쳐서 지은 데는 곁채라고 말하던데 그때.)

108003 @ 몽크레에.(곁채에.)

108003 #2 무신거 가정오라 허영 몽크레 강 가져오라. 뭐 안거레 강 가져오라. 밧거레 강 가져오라 경 헤영.(무엇 가져와라 해서 곁채 가서 가져오라. 뭐 안채 가서 가져오라. 바깥채 가서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108003 @ 그러면 한 집에.(그러면 한 집에.)

108003 #1 미음 자 식으로 영 짓어.(미음자 식으로 이렇게 짓어.)

108003 @ 경 헤근에 세 채?(그렇게 해서 세 채?)

108003 #1 세 채. 막 부잣집은 뭐 네 채도 짓어 그.(세 채. 아주 부잣집은 뭐 네 채도 짓어 그.)

108003 @ 삼춘네 집은 멧 채?(삼춘네 집은 몇 채?)

108003 #1 부잣집엔 헤봐야 암만 집 커도 집 하나에 방은 하나뺏고 엊어.(부잣집이라고 해 봐야 암만 집 커도 집 하나에 방은 하나밖에 없어.)

108003 #2 웃음.(웃음.)

108003 #1 거 춤 이상허여. 방 하나뺏고 엊어. 암만 집이 커도. 방 하나 고팡 마리 정제.(거 참 이상해. 방 하나밖에 없어. 암만 집이 커도. 방 하나 고팡 마루 부엌.)

108003 @ 예예.(예예.)

108003 #1 그치룩이라. 방 두 칸이 엊어.(그처럼이야. 방 두 칸이 없어.)

108003 @2 족은구둘도 없고예?(작은방도 없고요?)

108003 #1 으, 밧거레도.(으, 바깥채도.)

108003 #2 밧거레.(바깥채.)

108003 #1 밧거레도 족게시리허멍 그 식 비슷하게 하고 몽크레엔 한 디는 완전 부잣집이. 부잣집 아니면은 그 이문간에 영 집을 지어지지 아녀주게. 이문간 문 문 저 대문 막 크게 행 들곡. 그 혼 쪽에 영 부찌근에 무신 불치도 이제 밥해난 불치 그거 막 하영 메와지민 그런 거 헤다근에 테미곡 허는 혼쪽에.(바깥채도 작게끔 하

229) ‘이문간’은 부속 채의 가운데에 덧붙여 달았던 문을 말한다.

면서 그 식 비슷하게 하고 결채라고 한 데는 완전 부잣집에. 부잣집 아니면 그 ‘이문간’에 이렇게 집을 지어지지 않지. 이문간 문 문 저 대문 아주 크게 해서 달고. 그 한 쪽에 이렇게 붙여서 무슨 재도 이제 밥했던 재 아주 많이 모아지면 그런 거 해다가 쌓아두고 하는 한 쪽에.)

108003 @ 음.(음.)

108003 #2 경 허곡.(그렇게 하고.)

108003 @2 혀간 비슷허게예.(혀간 비슷하게요.)

108003 #1 경 하곡 또 명석.(그렇게 하고 또 명석.)

108003 @ 음.(음.)

108003 #1 덕석, ㅋ래덕석²³⁰⁾ ㅋ튼 거 보관.(덕석, ‘맷돌덕석’ 같은 거 보관.)

108003 @ 예.(예.)

108003 #1 보관. 혼쪽에는 그런 거 보관하곡 뭐 맹탱이 같은 거 그런 거 뜻가례²³¹⁾ 같은 거 그런 거 보관하는 거 그거 영 혼쪽하고, 혼쪽은 대문. 경 헤여근에 그 부잣집은 그 대문이 꼭 있고. 대문 그 이제 그디 이신디 그 꼭 집을, 집을 영 있곡. 막 엇인 집은 기자 저 대문이고 무시거고 엇이 그자 그냥 막 안거래엔 헌 딘 흐꼼 낫게 하곡 몽ㅋ래끄장은 있어. 뱃거래.(보관. 한쪽에는 그런 거 보관하고 뭐 망태기 같은 거 그런 거 ‘뜻가례착’ 같은 거 그런 거 보관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한쪽하고, 한쪽은 대문. 그렇게 해서 그 부잣집은 대문이 꼭 있고. 대문 그 이제 거기 있는데 그 꼭 집을, 집을 이렇게 있고. 아주 얹는 집은 그저 저 대문이고 무엇이고 없이 그저 아주 안채라고 한 데는 조금 낫게 하고. 결채까지는 있어. 바깥채.)

108003 @ 뱃거리?(바깥채?)

108003 #1 뱃거래까지는 잇는디 몽커레는 엇어. 못사는 집은.(바깥채까지는 있는데 결채는 없어. 못사는 집은.)

108003 @ 게믄 쉐는 어디 맷수가?(그러면 소는 어디 맸습니까?)

108003 #1 쉐막이 따로 잇주. 쉐막이 따로.(외양간이 따로 있지. 외양간이 따로.)

108003 @ 아아, 게믄 안거리 뱃거리 말고?(아아, 그러면 안채 바깥채 말고?)

108003 #1 안거리에 안거리에 뱃거래에 영 혼 칸 부찌근에 쉐막도 ㅋ찌 부찌 잇어난 거 닮아.(안채에 안채에 바깥채에 이렇게 한 칸 붙여서 외양간도 같이 붙여서 있었던 거 같아.)

108003 #2 뱃거래.(바깥채.)

108003 @ 뱃거래예?(바깥채에?)

108003 #1 뱃거래에.(바깥채에.)

108004 @ 알았수다. 삼춘, 아까 삼간집 지었던 햇잖아예. 그 지었던 과정을 한번 골아줍서. 전체적으로 땅은 어떤 식으로 다 골랑은에 허고. 뭐 기둥은 어떻 세우

230) ‘ㅋ래덕석’은 맷돌을 갈 때 사용하는 덕석이다.

231) ‘뜻가례착’은 돼지거름을 담을 때 사용하는 벽을 말한다.

고 했던 거.(알았습니다. 삼촌, 아까 삼간집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었던 과정을 한 번 말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땅은 어떤 식으로 다 골라서 하고. 뭐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했던 거.)

108004 #2 그러니까 목수가.(그러니까 목수가.)

108004 @ 예.(예.)

108004 #2 땅을 골라서 목수가 이 노, 노끈으로 해가지고 짹하게 영 그려 놓니다. 이렇게 평.(땅을 골라서 목수가 이 노, 노끈으로 해가지고 짹하게 이렇게 그려 놓니다. 이렇게 퍼서.)

108004 @ 예.(예.)

108004 #2 이렇게 해놓면은 인자 해놔서 인자 이거 이거 완전히 다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석공들이 와서 담을 쌍주.(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해놓아서 이제 이거 이거 완전히 다져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석공들이 와서 담을 쌓지요.)

108004 @ 예.(예.)

108004 #2 담을 쪽하게 싸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곡 다 허는 거라.(담을 쪽하게 쌓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다 하는 거야.)

108004 @ 음.(음.)

108004 #2 음,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기둥 세우면은 담 싸놓은 데만큼 흙질을 해근엥에.(음,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기둥 세우면 담 싸놓은 데만큼 흙질을 해서.)

108004 @ 음.(음.)

108004 #2 게영 내중 흙질허곡. 저 허기 전에 말이지 지붕 다 씌와 놓은 다음에 흙질행은에 지붕 더프는 겁주. 그 더프면은. (그래서 나중에 흙질하고. 저 하기 전에 말이지 지붕 다 씌워 놓은 다음에 흙질해서 지붕 덮는 겁지요. 그 덮으면.)

108004 @ 음.(음.)

108004 #1 지붕에도 지붕도 그 왕대. 왕대 해근에 영 영 이제 서리를 이제 놔놔 근에 우로 그, 그 저 그디도 흙질했어. 그 청장도.(지붕에도 지붕도 그 왕대. 왕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까래를 이제 놔놓아서 위로 그, 그 저 거기도 흙질했어. 그 천장도.)

108004 #2 청장은 잘 사는 집을 잘 짓는 사름이 허고 우리는 기자.(천장은 잘 사는 집을 잘 짓는 사람이 하고 우리는 그저.)

108004 @ 음.(음.)

108004 #1 청장 흙질. 옛날에 우리 두린 때 두린 때명 말명 그냥 혼 열여섯 열일곱 살 때 검질메례 강 왕 지청 영 뉘시민 서리로 베미 막 지나. 베미 영혜영 지나가도 베미 지나감텐 글으멍 그냥 놓 잠자낫어.(천장 흙질. 옛날에 우리 어린 때 어린 때며 말며 그냥 한 열여섯 열일곱 살 때 김매러 다녀와서 이렇게 지쳐서 놋으면 서까래로 뱀이 막 지나. 뱀이 가도 뱀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냥 누워서 잡잤었어.)

108004 @ (웃음). 요즘 같은 날씨 낫일 건디.((웃음). 요즘 같으면 날씨 났을 건데.)

108004 #1 날씨 낫지게. 게고 옛날 집은이, 기둥, 기둥 세우기 전에 돌 이만은 한 거 해근에 밑에.(날씨 났지. 옛날 집은, 기둥 세우기 전에 돌 이만큼 한 거 해서 밑에.)

108004 @ 예.(예.)

108004 #1 그 돌기둥 요만은 헌 거 혜영 땅에 부뜨개 놔놓 그 우로 나무 영 헨 애.(그 돌기둥 요만큼 한 거 땅에 불게 놔놔서 그 위로 나무 이렇게 해서.)

108004 @ 계난 그 돌을 뭐렌 힙니까?(그 돌을 뭐라고 합니까?)

108004 #2 주춧돌, 주춧돌.(주춧돌, 주춧돌.)

108005 @ 주춧돌 으 경 해근에 이제 하고예. 그러면은 삼촌, 아까 주춧돌이 이 실 거고 기둥이 잇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담 혜영 주춧돌 앞에 행 기둥 세울 거 아니라예? 계믄 위에 올라가면 명칭들, 부분 명칭들은 기억남수과? 뭐 아까 서슬이여 서리여 허는 거?(주춧돌. 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러면 삼촌, 아까 주춧돌이 있을 거고 기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담 해서 주춧돌 앞에 해서 기둥 세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명칭들, 부분 명칭들은 기억납니까? 뭐 아까 빨비다 서까래다 하는 거?)

108005 #2 서리. 서리 잇고. 그 상량식 할 때 그것보고 무신 나무엔 현다마는. (서까래. 서까래 있고. 그 상량식 할 때 그것보고 무슨 나무라고 한다만.)

108005 #1 상므로, 상므로.(용마루, 용마루.)

108005 #2 상므로. 상므로 그거 놔가지고 상량식을 헉주게. 요만큼 넹겨뒀다가. 서리를 이렇게 다 해놓고, 양량식 할 것만 넹겨가지고 거기다가 상량엔 써근에 막 올려놓는 거주. 그 다음에 서리를 다 부찌.(용마루. 용마루 그거 놔가지고 상량식을 합지요. 이만큼 남겨뒀다가. 서까래를 이렇게 다 해놓고, 상량식 할 것만 남겨가지고 거기다가 상량이라고 써서 막 올려놓는 거지. 그 다음에 서까래를 다 붙여.)

108005 @ 계믄 서리는 이렇게 부찌 게 서리고.(그리면 서까래는 이렇게 불인 것이 서까래고.)

108005 #1 나무 가정은에 서리 영 혜놓고 가만히 영 혜영 생각해보민 그 저 왕대 그, 그런 거 가져근에 영 다 누람지.(나무 가져서 서까래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그 저 왕대 그, 그런 거 가져서 이렇게 다 이엉.)

108005 #2 여경 여경.(엮어서 엮어서.)

108005 #1 누람지처럼 여껴근에 청장에 장 그거 끌아놓 그 우의 흑. 그 저 끌안 더펴난 거 그 생각남신게.(이엉처럼 엮어서 천장에 가서 그거 깔아놔서 그 위에 흑. 그 저 깔아서 덮었던 거 그 생각나고 있네.)

108005 #2 우리는 그 가난했기 때문에 왕대로도 못하고 갈대, 갈대.(우리는 그 가난했기 때문에 왕대로도 못하고 갈대, 갈대.)

108005 @ 예.(예.)

108005 #2 갈대 그거 해서 여꺼가지고 놔서 거기다 흑을 놓면은 무거우니까 아예 흑은 없이 그대로.(갈대 그거 해서 엮어가지고 놔서 거기에다 흙을 놓으면 무거우니까 아예 흙은 없이 그대로.)

108006 @ 그러면 그 갈대로 헌 거는 뭐렌 글아마씨?(그러면 그 갈대로 한 거는 뭐라고 말해요?)

108006 #1 거는 무신거엔 글아나신고. 하, 어째튼 간에 그 서리하고.(거는 무엇이라고 말했었는가. 하, 어쨌든 간에 그 서까래하고.)

108006 #1 갈대나 저 왕대나 말이지 그 대로 여꺼가지고 올려놨는데.(갈대나 저 왕대나 말이지 그 대로 엮어가지고 올려놨었는데.)

108006 @ 그런 거는?(그런 거는?)

108006 #2 그 이름을 몰르겠네.(그 이름을 모르겠네.)

108006 @ 고대, 고댄 뭐우과?(고대, 고댄 뛵니까?)

108006 #1 고살. 하이튼 간에 고살엔 햇던가. 어떠튼 간에 그런 거 닮아 베여.
(‘고살’?). 하여튼 간에 ‘고살’(?)이라 했던가. 어떻든 간에 그런 거 같아 보여.)

108006 @ 어, 포는 뭐우과?(어, 보는 뛵니까?)

108006 #2 포?(보?)

108006 @ 으.(으.)

108006 #2 포.(포.)

108006 @ 예, 포랑 도리랑 잇일 거 아니라예?(예, 보랑 도리랑 있을 거 아닌가요?)

108006 #2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상므로 그 밑에 잇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데 놓는 거 보고 포라고 허주게. 거기다가 상므로가 이렇게 올라가서 서리를 그 밑에 영 닿는 데가 이거 포.(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용마루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데 놓는 거 보라 하지. 거기다가 용마루 이렇게 올라가서 서까래를 그 밑에 이렇게 닿는 데가 이거 보.)

108006 @ 음.(음.)

108006 #2 서리를. 이렇게 허는 것에 이걸 받쳐주는 것이 포.(서까래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받쳐주는 것이 보.)

108006 @ 서슬은?(발비는?)

108006 #2 서슬, 서슬은 밑에 그 저 뭐야 돌담까지 해놓고 그 우에 인자 대로 해서 엮어가지고 그 우에는 흑질허는 거 그게 서슬.(발비, 발비는 밑에 그 저 뭐야 돌담까지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대로 해서 엮어가지고 그 위에는 흑질하는 거 그게 발비.)

108006 #1 돌 요만은 쌓아 놓고 그 우터레는 그 저 대막댕인가 어떠튼 간에 영 영 헨에 그 글로 우터레는 그걸로.(돌 이만큼 쌓아놓고 그 위로는 그 저 대막대기인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로 위로는 그걸로.)

108006 #2 예, 서슬, 서슬.(예, 발비, 발비.)

108006 #1 서슬.(발비.)

108006 @ 서슬. 아까 그게 서슬?(아까 그게 발비?)

108006 #1 으, 그거 영 헤근에 놔놔근에 그거양 담 요만씩 허게 놔낳 이 칸에는 그걸로 다 헤근에 헤놔근에 그것에 흙질 다 허여. 흙 털어경 보면은 다 대막댕이 나와.(으, 그거 이렇게 해서 놔놔서 그거요 담 요만씩 하게 놔놔서 이 칸에는 그걸로 다 해서 해놔서 그것에 흙질 다 해. 흙 떨어져서 보면 다 대막대기 나와.)

108006 @ 음.(음.)

108006 #2 그러니까 돌담을 우에꺼지 쌓지를 못하니까.(그러니까 돌담을 위에까지 쌓지를 못하니까.)

108006 @ 예.

108006 #2 중간만 싸서.(중간만 쌓아서.)

108006 #1 그 우터레 서슬로 헤근에.(그 위로 발비로 해서.)

108006 #2 글로 서슬 우에 포까지는 다 흙질하는 거.(그리로 발비 위에 포까지는 다 흙질하는 거.)

108006 @ 그 벽체 같은 거는 뭐렌 헤난마씨?(그 벽체 같은 건 뭐라고 했었어요?)

108006 #1 벽체가 서슬 아니?(벽체가 발비 아니?)

108006 #2 벽체 이건 다 돌담이고 이 우로 간 거는 서슬 헌 거. 안네는 멘짝허게 여기다 도배하는 거.(벽체 이건 다 돌담이고 이 위로 간 거는 발비 한 거. 안에는 매끈하게 여기에다 도배하는 거.)

108006 @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니. 표준어는 원데.(이름이 생각 안 나니. 표준어는 원데.)

108006 #2 웨? 웨?(외? 외?)

108006 @ 웨렌 허영. 표준어는 원데 서슬이 아니고. 서슬은 지붕에 허는 거고.(표준어는 원데 서슬은 지붕에 하는 거고.)

108006 @2 계난 삼춘이 얘기하는 것이 웨야 웨. 왜냐하면 대로 여꺼근에.

108006 @ 옷갈이.

108006 #2 벽장 만들 때에.(삼촌이 얘기하는 외야 외. 벽장 만들 때에.)

108006 #1 벽장, 벽장. 벽장이주. 아니 그것이 여기까지 담을.(벽장이지. 아니 그것이 여기까지 담을.)

108006 @2 훠기 훠기 훠기.(외, 외, 외.)

108006 #1 담을 영 싸놓면은 일로 우터레는 멘짝현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나무로 헤놔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 그 저 거세기 여끈 그거 가져근에 서슬 그거 행 그레 어떻게산지 어떻 부쩡은에.(담을 이렇게 싸놓으면 일로 위로는 매끈한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나무로 헤놔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 저 거시기 엮은 그거 가져서 발비 그거 해서 어떻게인지 어떻게 붙여서.)

108006 @2 거기가 훠기. 웨는 훠기야.(거기가 외. 외는 ‘thonki’야.)

108006 @ 예.(예.)

108006 #2 웨. 웨라는 말은 이디선.(외. 외라는 말은 여기선.)

108006 @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거. 집이 어느 정도 일정한 돌 닿고 그 위에는 흙으로 올리는 거 아니라예?(이건 그거하고 다른 거. 집이 어느 정도 일정한 돌 쌓고 그 위에는 흙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요?)

108006 #1 그 저 그거 저 여겨근에 영 허영 딱하게 우의 영 허영 양쪽으로는.
(그 저 그거 저 엮어서 이렇게 해서 딱하게 위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는.)

108006 @2 흙 블랑예?(흙 빨라서요?)

108006 #1 저 흙 블른 게 아니고, 그것이 어쨌든 나무 세와가지고 그 나무에 어명 그걸 나무에 부껴근에 흙으로 헨 짹하게 안네는 멘짝허게시리 헤근에 빨르고 두에는 더들더들해도 기자 내불곡.(저 흙 바른 게 아니고, 그것이 어쨌든 나무 세워가지고 그 나무에 어떻게 그걸 나무에 붙여서 흙으로 해서 짹하게 안에는 매끈하게끔 해서 바르고 뒤에는 두틀두틀해도 그저 내버리고.)

108006 @ 음.(음.)

108006 @2 돌로 쌓아가지고 요기는 혹시 그 호미라든가 낫 같은 연장도 놔놨수가?(돌로 쌓아가지고 요기는 혹시 그 낫이라든가 낫 같은 연장도 놔었습니까?)

108006 #1 하이튼 영 그 나무 훔 멘들아 넣 그레 영 끼운 거 닮아.(하여튼 이렇게 그 나무 훔 만들어 놔서 그리로 이렇게 끼운 거 같아.)

108006 #2 경 헌디 구멍 뚫버가지고 아까그 말헌 거.(그렇게 하는데 구멍 뚫어 가지고 아까 이렇게 말한 거.)

108006 #1 흠베기. 흠을 이거민.(흠. 흠을 이거면.)

108006 @2 예.(예.)

108006 #2 돌담 이렇게 쌓아서 여기 요만큼 간격을 영 놔둬서 일로 영 서리 오라난 디 이던 공간이 생기거든. 그디다가 글게기 ㅋ튼 거 놓주게. 그런 디에.(돌담 이렇게 쌓아서 여기 요만큼 간격을 이렇게 놔둬서 이리로 이렇게 서까래 왔던 테여긴 공간이 생기거든. 거기다가 호미 같은 거 놓지. 그런 데에.)

108006 @ 그디 이름은 몰르쿠파? (웃음).(거기 이름은 모르겠습니까? (웃음).)

108006 #2 (웃음). 이렇게 물을 줄 알았으면 다 적영 놔둘 건데. 어릴 때.((웃음)). 이렇게 물을 줄 알았으면 다 적어서 놔둘 건데. 어릴 때.)

108007 @ 어릴 때예. 맞수다. 게 허게 훠면 이런 벽장도 여긴 시렁? 벽장을 뭐렌 헉니까?(어릴 때. 맞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벽장도 여긴 ‘시렁’? 벽장을 뭐라고 합니까?)

108007 #1 시렁, 시렁.(‘시렁’, ‘시렁’.)

108007 @ 웨 놓고 허는 디 시렁예? 시렁은 어떤 식으로 만든 거라마씨?(웨 놓고 하는 데 벽장요? 벽장은 어떤 식으로 만든 거예요?)

108007 #1 시렁은.(벽장은.)

108007 #2 시렁도 마찬가지 그 이렇게 나무 이렇게.(벽장도 마찬가지. 그 이렇

게 나무 이렇게.)

108007 #1 방, 이것이 영 영 방이면은 그 방 안쪽에 영 이것이 영 들어오곡 밖으로는 나가게시리 이거를 만들영 이 시렁 있는 쪽은 굴목²³²⁾이주게. 굴목.(방,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방이면 그 방 안쪽에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고 밖으로는 나가게끔 이거를 만들어서 이 벽장 있는 쪽은 ‘굴목’이지. ‘굴목’.)

108007 #2 굴목이라. 베꼈듸 굴목.(‘굴목’이야. 바깥에 ‘굴목’.)

108007 #1 저쪽으로 들어왕 보면은 굴목 시렁 베겼디레 영 나간 거. 켜 놓고 무신거 헌 거는 영 한 디는 밖으로 영 내낳은에 한 디는 그 저쪽으로 영 돌아가민 굴목이라. 굴목.(저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굴목’ 벽장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거. 켜 놓고 무슨 한 거는 이렇게 한 데는 밖으로 이렇게 내놔서 한 데는 그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굴목’이야. ‘굴목’.)

108007 @ 음.(음.)

108007 #1 계영 글로 행은에 굴목 때고 하는디 그거 행은에 시렁 글로 행 시렁, 시렁을 만드는 거라. 사렁엔 헌 거를.(그래서 그리로 해서 ‘굴목’ 때고 하는데 그거 해서 벽장 글리로 해서 벽장, 벽장을 만드는 거야. 벽장이라고 한 거를.)

108007 @ 음음.(음음.)

108007 #1 만들어근에 그디 혜근에 켜도 놓고 무신거 허민 저쪽으로 가민 굴목 엔 가면은 것이 특 튀어나니까 영 굽엉 가근에 굴목 살르곡 경.(만들어서 거기 해서 켜도 놓고 무엇 하면 저쪽으로 가면 ‘굴목’엔 가면 특 튀어나니까 이렇게 굽어서 가서 ‘굴목’ 사루고 그렇게.)

108007 @ 예, 계믄 삼춘네 아까 삼간집 지었을 때는 방이 몇 개라난마씨?(예, 그러면 삼춘네 아까 삼간집 지었을 때는 방이 몇 개였었어요?)

108007 #2 방 두 개.(방 두 개.)

108007 @ 방 두 개. 그러면 맨 큰방은 뭐렌 힙니까? 방을 뭐렌 헷수가? 여기서. 표선리에서는.(방 두 개. 그러면 맨 큰방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표선리에서는.)

108007 @2 구들.(‘구들’.)

108007 #1 구들이엔 헷주.(‘구들’.)

108007 #2 큰구들 족은구들.(큰방 작은방.)

108007 @ 계믄 큰구들 잇고 족은구들 잇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잇인 거는?(그러면 큰방 있고 작은방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108007 #2 가운데 무시거.(가운데 무엇.)

108007 #1 마리.(마루.)

108007 #2 상방, 상방.(대청, 대청.)

108007 @ 상방. 자 옛날에 집 구조를 한번 생각행예, 큰구들하고?(대청. 자 옛날에 집 구조를 한번 생각해서요, 큰방하고?)

232)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가리킨다.

108007 #2 큰구들 이렇게 여기 잇고 상방 잇고 족은구들 이신디.(큰방 이렇게 여기 있고 대청 있고 작은방 있는데.)

108007 @ 예.(예.)

108007 #2 요 이쪽으로는 저 정지.(요 이쪽으로는 저 부엌.)

108007 @2 정지.(부엌.)

108007 #2 정제.(부엌.)

108007 @ 정제 잇엇고 고팡은 어디우과?(부엌 있었고 고방은 어딥니까?)

108007 #2 고팡은.(고방은.)

108007 #1 큰방 이신 디 반착 영 갈랑.(큰방 있는 데 반쪽 이렇게 갈라서.)

108007 @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렁은 어디 놔?(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벽장은 어디 놔?)

108007 #2 시렁은 큰구들 잇는디 여기 여기 굴뚝 이렇게 짓는 디 만들어서 여기 궤 놓고.(벽장은 큰방 있는데 여기 여기 ‘굴뚝’ 이렇게 때는 데 만들어서 여기 궤 놓고.)

108007 @ 궤 놓곡. 마리에도 뭐?(궤 놓고, 마루에도 뭐?)

108007 @2 화로 같은 거?(화로나 같은 거?)

108007 @ 그 화리나 아니면 뭐 만듭니까?(화로나 아니면 뭐 만듭니까?)

108007 #2 계난 그거 화로가 옛날에 옛날 집은 다 화로가 잇엇어. 돌화로 이렇게 놔서 제사 먹을 때 그디서 적도 구웡 뭐 허고 했는데, 우리가 지을 때는 그런 건 엿었고.(그러니까 그거 화로가 옛날에 옛날 집은 화로가 있었어. 돌화로 이렇게 적도 놔서 제사 먹을 때 거기서 적도 구워서 뭐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을 때는 그런 건 없었고.)

108007 @ 그럼 제기 같은 거 놓는 디는 어디에 놔냔마씨? 마리에?(그럼 제기 같은 거 놓는 데는 어디에 놨었어요? 마루에?)

108007 #2 제기?(그릇?)

108007 @2 젯그릇.(제 그릇.)

108007 #1 아, 제기.(아, 제기.)

108007 #2 아아.(아아.)

108007 #1 제기는 우리는 저 큰 궤.(제기는 우리는 저 큰 궤.)

108007 @ 예.(예.)

108007 #1 궤해근에 궤 소곱에 제사 지내나면은 그 문딱해영 큰 놋그릇이난게. 놋그릇이난 깨끗허게 따까근에 안 놓민은 그 파란.(궤 해서 궤 속에 제사 지내나면 그 몽땅해서 큰 놋그릇이니까. 놋그릇이니까 깨끗하게 닦아서 안 놓으면 그 파란.)

108007 @ 예.(예.)

108007 #1 놋그릇에는 파란 그 녹이 쓸주게. 경 하카부덴 우리 어머니네 영 보민 완전 깨끗이 따깡 햇빛에 말swire에 그 궤 소곱에 그 낫다근에 또 꺼내근에.(놋그릇에는 파란 녹이 슬지. 그렇게 할까봐서 우리 어머니네 이렇게 보면 완전 깨끗이

닦아서 햇볕에 말려서 그 켜 속에 그 놨다가 또 꺼내서.)

108007 #2 우리는 젊곡 큰아들이 아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보니까, 어머니네 허는 그걸 제사하게 됐지만 며칠 전에 내놓 재로 혜영 다그곡 해서 놔뒀다가 제사 다 지내나면은 또 이런 구덕에 놔가지고 고팡에다 놔두던데. 놔둘 디가 없으니까.(우리는 젊고 큰아들이 아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보니까, 어머니네 하는 그걸 제사하게 되면 며칠 전에 내놔서 재로 해서 닦고 해서 놔뒀다가 제사 다 지내나면 또 이런 바구니에 놔가지고 고팡에다 놔두던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108007 @ 계난 마루에 뭐 어떤 장을 만들거나 이렇게는 안 합니까?(그러니까 마루에 어떤 장을 만들거나 이렇게는 안 합니까?)

108007 #1 우리 우리 친정집은 마루에 장 만들지 아년에 마루가 커낫어. 거 크난에 두주.(우리 을; 친정집은 마루에 장 만들지 않고 마루가 컸었어. 거 크니까 뒤주.)

108007 @ 음.(음.)

108007 #1 두주, 두주엔 헌 거 양쪽으로 이제 이거 이것이 영 혜근에 마루면은 요기는 저 두에.(뒤주, 뒤주라고 한 거 양쪽으로 이제 이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마루면 요기는 저 뒤에.)

108007 @ 예.(예.)

108007 #1 안튀레 영 가는 이제 문이 있고 그 양쪽에는 두주 두 개.(‘안튀’에 이렇게 가는 문이 있고 그 양쪽에는 뒤주 두 개.)

108007 @ 음.(음.)

108007 #1 그 두주 두 개가 하이튼 간에 우리 영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큰 거 두 개.(그 뒤주 두 개가 하여튼 간에 우리 이렇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큰 거 두 개.)

108007 @ 예.(예.)

108007 #2 그디 혜근에 그것에 곡식 같은 거 이제 두주에 담곡.(거기 해서 그것에 곡식 같은 거 이제 뒤주에 담고.)

108007 @ 음, 장을 뭐 장방 이런 거는 안 만들고.(음, 장을 뭐 ‘장방’ 이런 거는 안 만들고.)

108007 #1 어떤 집원 강 보민 영 행은에 그 저 부찌근에 만든 디덜토 있어. 문 열아근에 그디 하곡. 경 혜근에 정제는 보면은 이제 살례.(어떤 집엔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저 불여서 만든 데들도 있어. 문 열어서 거기 하고. 그렇게 해서 보면 부엌은 보면 이제 찬장.)

108007 @ 예, 예, 예.(예, 예, 예.)

108007 #1 살례, 살례를 이만은 막 큰큰헌 거 혜근에 한 세 칸, 네 칸 정도 이제 우에 다리가 이만은 행은에 일로 아래는 이제 뭐 칸이 이제 우티래부터 칸 만들어근에.(찬장, 찬장을 이만큼 매우 크나큰 거 해서 한 세 칸, 네 칸 정도 위에 다리가 이만큼 해서 일로 이리로는 이제 뭐 칸이 이제 위로부터 칸 만들어서.)

108007 @ 음.(음.)

108007 #1 세 칸 정도 헤근에.(세 칸 정도 해서.)

108007 @2 세 칸.(세 칸.)

108007 #1 국그릇 어프는 디 밥그릇 어프는 디, 뭐 보시 접시 뭐 경 허곡 경 우리 친정에는 그치록 헤낫어. 두주도 저 아무 집이나 그때 그 두주라는 것이 엊어낫 어.(국그릇 엎는 데 밥그릇 엎는 데, 보시기 접시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 친정에는 그처럼 했었어. 뒤주도 저 아무 집에나 그때 그 뒤주라는 것이 없었었어.)

108007 @ 맞수다.(맞습니다.)

108007 @2 물항은 어디 놋수가?(물독은 어디 놋습니까?)

108007 #1 물항은 이거 저 이것이 영 헤근에 정제면은 저 살례 이신 옆에 이제 물항.(물독은 이거 저 이것이 이렇게 해서 부엌이면 저 찬장 있는 옆에 이제 물독.)

108007 @ 음.(음.)

108007 #1 물항도 지세, 지세물항²³³⁾이렌 헤근에 허베기로 허벽으로 열두, 열두, 열두 번을 질어다 놔야 그 이제 항이 꽉 차는 이만한 항이라. 우리 어머니네 드르 카민 드르 카명 저 항으로 물 하나 숨빡 질어다 놓곡 뭐 명석 몇 개 끌아근에 뭐.(물독도 ‘지세’, ‘지세물항’이라고 해서 ‘허벽’으로 ‘허벽’으로 열두, 열두, 열두 번을 길어다 놔야 그 이제 독이 꽉 차는 이만한 항아리야. 우리 어머니네 들에 가면, 들에 가면서 저 독으로 물 하나 가득 길어다 놓고 뭐 명석 몇 개 깔아서 뭐.)

108007 #2 날레 널고²³⁴⁾.(‘날레’ 널고.)

108007 날레 널어근에 이제 어리니까 이젠 날레 들여놓지 못하니까 영 영 허영 더껑 놔두라. 더껑 놔두민 어머니네가 와근에 이제 밧듸서 와근에 다 맹텅이에 담아근에 큰 맹텅인 아래 그 다음은 그 다음 맹텅이 그 다음 맹텅이 일로 저만쪽에 꾼 장 이만이 맹텅이. 경 헤근에 곡식.(‘날레’ 널어서 이제 어리니까 이젠 ‘날레’ 들여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덮어서 놔두라. 덮어서 놔두면 어머니네가 와서 이제 볍에서 와서 다 망태기에 담아서 큰 망태긴 아래 그 다음은 그 다음 망태기 그 다음 망태기 일로 저쯤에까지 이만한 망태기. 그렇게 해서 곡식.)

108007 @ 음.(음.)

108007 #1 경 허영 헤나고, 경.(그렇게 해서 했었고, 그렇게.)

108007 @ 역시 삼촌네는 정말 부자라난 모양이야예?(역시 삼촌네는 정말 부자였던 모양이야?)

108007 #1 두주.(뒤주.)

108007 @ 음 두지 행은에 이제 하고. 알았수다. 뭐 이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엇 어마씨?(음, 뒤주해서 이제 하고. 알았습니다. 뭐 이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108007 #1 이불장은 엇고 기자. 이불이 무시거 있어. 켜 놓곡 켜 우의 이불 흐나.(이불장은 없고 그저. 이불이 무엇 있어. 켜 놓고 켜 위에 이불 하나.)

108007 @ 음. (웃음).(음. (웃음).)

233) ‘지세물항’은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물독이다.

234) ‘날레’는 볍을 죄기 위하여 명석 따위에 널어놓은 곡식을 말한다.

108007 #1 궤 우의 이불 흐나. 궤 우의 이불 놓주. 이불만 영 놀 이불이 엊어난 거 많아.(궤 위에 이불 하나. 궤 위에 이불 놓지. 이불만 이렇게 놀 이불이 없었던 거 같아.)

108007 @ 거난 이제 방이 두 개 만들잖아예? 두 개 만들면 하나는 삼춘 같은 경우는 이제 굴뚝에, 큰구들은 굴뚝으로 헤갖고 이제 하고. 죽은구들은 굴뚝 안 헤마씨?(그러니까 이제 방이 두 개 만들잖아요? 두 개 만들면 하나는 삼춘 같은 경우는 이제 ‘굴뚝’에, 큰방은 ‘굴뚝’으로 해갖고 하고. 작은방은 ‘굴뚝’ 안 해요?)

108007 #2 죽은구들은 밥 허는 디 밥해 나면 좀 뜻뜻허고.(작은방은 밥하는 데 밥해 나면 좀 따뜻하고.)

108007 @ 밥해 나면 뜻뜻허게 만들어진 거예. 알았수다. 그 마리에 그 삼춘네도 이제 아까 부섭 그거 놔놔? 화리? 돌화리?(밥해 나면 따뜻하게 만들어진 거요. 알았습니다. 그 마루에 그 삼춘네도 이제 아까 봉당 그거 놔놨어요? 화로? 돌화로?)

108007 #1 돌화리.(돌화로.)

108007 @ 어떤 식으로?(어떤 식으로?)

108007 #1 돌화리 이것이 마리 평지면은 돌화리는 요 정도 올라오게시리 헤근에이, 저 마리 가운데 흥꼼 뒷무뚱 부찌근에 그거를 만들어근에 헤여근에 거기에서 뭐 불 저 낭께기 헤근에 불 슴곡 그때는 그실곡 무신거 그런 거 엇곡 기자 불 슴양 뜻뜻하게시리 허영 거기서 허영 하고. 거기에 이제 제사 때는 적쉐.(돌화리 이것이 마루 평지면 돌화로는 요 정도 올라오게끔 해서, 저 마루 가운데 조금 뒷문앞 붙여서 그거를 만들어서 해서 거기에서 뭐 불 저 나뭇가지 해서 불 때고 그때는 그을리고 그런 거 없고 그저 불 때서 따뜻하게끔 해서 거기서 해서 하고. 거기에 이제 제사 때는 석쇠.)

108007 @ 음.(음.)

108007 #1 적쉐 영 놔근에 고기 궤근에 후라이판 그런 거 아니고 막바로 이제 그.(석쇠 이렇게 놔서 고기 구워서 프라이팬 그런 거 아니고 바로 이제 그.)

108007 @ 예 예.(예 예.)

108007 #1 이제 밖에서 막 제사 때는 나무 같은 거 막 헤나민 그 갈레죽으로 헤근에 불 담아당 그레 놔근에 적쉐를 이렇게 놔근에 거기서 고기. 이제 묵 같은 거 할 때는 꿩 꿀랑지 그런 거 헤근에 영 헤영 저 만든 거 참지름 그거 영 헤영 영 묵더레 불르멍 웨싸근에 굽곡 누웨쌍은에 굽곡 그때는 묵 쟁은에 묵을 고챙이에 궤영 적쉐에서 굽주게.(이제 밖에서 막 제사 때는 나무 같은 거 마구 해나면 그 가래로 해서 불 담아다가 그리로 놔서 석쇠를 이렇게 놔서 거기서 고기. 이제 묵 같은 거 할 때는 꿩 꿀지 해서 그런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참기름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묵으로 바르면서 뒤집어서 굽고 다시 뒤집어서 굽고 그때는 묵 쭉서 묵을 꼬챙이에 궤어서 석쇠에서 굽지.)

108007 @ 아아.(아아.)

108007 #1 경 헤근에 구우멍 이제 그 꿩 하이튼 꿀랑진가 무시거 행은에 그거

헹은에 그걸로 참기름 영 이제 적져근에 둑데레 영 영 불랑 뛰쌍 블르곡 누뛰쌍 블르곡 허멍 노리롱허게 구멍 영 꺼내고. 우리, 우리 친정에는 경 헤근에 청묵.(그렇게 해서 구우면 꿩 하여튼 꼬리인가 무엇 해서 그거 해서 그걸로 참기름 이렇게 이제 적셔서 둑으로 이렇게 이렇게 빨라서 뒤집어서 바르고 다시 뒤집어서 바르고 하면서 노르스름하게 구우면서 이렇게 꺼내고. 우리, 우리 친정에는 그렇게 해서 ‘청묵’.)

108007 @ 예.(예.)

108007 #1 그런 것도 허고 둑도 하곡 막 헤난 거.(그런 것도 하고 둑도 하고 막했던 거.)

108007 @ 요즘도 둑 헹은에 제사합니까?(요즘도 둑 해서 제사합니까?)

108007 #1 우린 이젠 간단하게. 모멀꼬르로 하긴 하는디이 기자 후라이팬에 기자 영 전 지지듯 지정은에 영 영 딱딱 끓어근에 하주. 우리 어머니네꼬치록 둑 지정 그치록 굽곡 청묵하고.(우린 이젠 간단하게. 메밀가루로 하긴 하는데 그저 프라이팬에 그저 이렇게 전 지지듯 지져서 딱딱 끓어서 하지. 우리 어머니네 같이 둑 지져서 그처럼 굽고 ‘청묵’하고.)

108007 #2 청묵 허젠 허민 여간 힘들지 아녔어.(‘청묵’ 하려고 하면 여간 힘들지 않았어.)

108007 #1 청묵은 모물쌀 그거 헤근에 당갓당은에 그거 막 흔탁허게 하면은 풀주머니.(‘청묵’은 메밀쌀 그거 해서 담갔다가 그거 막 풀풀하게 하면 풀주머니.)

108007 @ 예.(예.)

108007 #1 풀주머니 그것에 담양은에 다 빼는 거라. 주시만 남아. 그 안에는 보민. 경 헤근에 그 물을 쑤면은 그것이 청묵.(풀주머니 그것에 담아서 다 빼는 거야. 찌꺼기만 남아. 그 안에는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쑤면 그것이 ‘청묵’.)

108007 @ 아까 무슨 주머니?(아까 무슨 주머니?)

108007 #1 풀주머니.(풀주머니.)

108007 @ 풀주머니렌 혜?(풀주머니라고 해?)

108007 #1 베로 하면은 다 나와병 안 웹니다. 계난에 옥영목.(베로 하면 다 나와버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옥양목.)

108007 @ 예.(예.)

108007 #1 옥영목 즘진 거 가정은에 풀주머니를 이만인허게 만들어.(옥양목 가는 거 가져서 풀주머니를 이만큼하게 만들어.)

108007 @ 음.(음.)

108007 #1 만들어근에 그 쏘곱에서 담아근에 영 영 큰 도고리에 놔근에 영 영 헤가면은 그 이제 여물만 다 빼지곡. 껌데기는, 그 쏘곱에 이시면 빼진 물을 쑤면은 거 잘못 쑤당 다 놀어베근에 하난 게나제나 둑 다 텔 때까지 췄야 젓어야 뛰여.(만들어서 그 속에서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큰 함지박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그 이제 여물만 다 빼지고. 껌데기는, 그 속에 있으면 빼진 물을 쑤면 거 잘못 쑤다

가 다 놀어붙어버려서 하니까 그러나저러나 둑 다 될 때까지 췄어야 저어야 돼.)

108007 #2 젓어야.(저어야.)

108007 #1 젓엉은에 풀탁풀탁하게 그거 끊여지면은 헤여지면 요만은현 도고리. 도고리에 헤근에 비와근에 손에 물 적지멍 영 영 놀려근에 놔두면은 그것이 얼리면은 청묵. 청묵은 그거 그냥 둑보다 헤영하덴 허영은에 청묵이엔 하는 거주게. (저어서 풀탁풀탁하게 그거 끊여지면 해지면 요만한 함지박. 함지박에 해서 부어서 손에 물 적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놀려서 놔두면 그것이 얼리면 ‘청묵’. ‘청묵’은 그거 그냥 둑보다 하얗다고 해서 ‘청묵’이라고 하는 거지.)

108007 @ 예, 예, 예.(예, 예, 예.)

108007 #1 청묵. 기냥 둑은 ㅋ르로 카근에 경 헤근에 젓으멍 그거 헤근에 아까 쑤듯.(‘청묵’. 그냥 둑은 가루로 타서 그렇게 해서 저으면서 그거 해서 아까 쑤듯.)

108007 @ 음.(음.)

108007 #1 다 췄질 때까지 게나제가 젓어야 그것이 밑에 안 놀주. 경 아녀민 놀어베근에 안 뛰여. 그끄렁내 나고.(다 췄질 때까지 그나저나 저어야 그것이 밑에 안 눌지. 그렇게 않으면 놀어버려서 안 돼. 화독내 나고.)

108007 @2 그 화리를 뭐렌 헤마씨? 마리에 잇는 화리를?(그 화로를 뭐라고 해요? 마루에 있는 화로를?)

108007 #1 그 마리에 잇는 화리는 그때 무신거에 헤낫저마는.(그 마루에 있는 화로는 그때 무엇이라고 했었다만.)

108007 @2 부섭?(봉당?)

108007 #1 무신 석엔 헷저마는.(무슨 석이라 했다만.)

108007 @ 돌화리엔은 안 허고양?(돌화로라고는 안 하고요?)

108007 #1 돌화리에는 안 허고.(돌화로라고는 안 하고.)

108007 @ 봉덕불은 아니고?(‘봉덕불’은 아니고?)

108007 #1 들어나난 옛날 어른덜 살아시민 알 건디. 요샌 사름덜은 돌화리. 쉽게 말허민 돌화리엔 행 좋주.(들었었으니까 옛날 어른들 살았으면 알 건데. 요새 사람들은 돌화로. 쉽게 말하면 돌화로라고 해서 좋지.)

108008 @ 예, 마, 마리는 어떤 마리덜 깔아낫수가?(예, 마, 마루는 어떤 마루들 깔았었습니까?)

108008 #1 마리는.(마루는.)

108008 @ 으.(으.)

108008 #1 우리 집 경우는 그 마리널이 이만씩 한 거. 딱딱 이만씩 한 거 가져근에 이런 가운데 이만은 아니, 이만은 한 걸로 행 짹하게 해놓은 그 흄베기²³⁵⁾ 속에 그거를 다 영 영 지금 헤보난에 그, 그치록 헨 마리를 짹 논 거라.(우리 집 경우는 그 마룻널이 이만씩 한 거. 딱딱 가져서 한 거 가져서 이런 가운데 이만큼 아니, 이만큼 한 걸로 해서 짹하게 해놓은 그 ‘흄베기’ 속에 그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지

235) 여기에서 ‘흄베기’는 귀틀을 말하는 것이다.

금 해보니까 그, 그처럼 해서 마루를 짹 놓은 거야.)

108008 @ 으.(으.)

108008 #1 그때는 마리 나무도 가시낭.(그때는 마루 나무도 가시나무.)

108008 @ 가시낭.(가시나무.)

108008 #1 굴무기낭.(느티나무.)

108008 @ 굴무기허고.(느티나무.)

108008 #1 그런 낭 같은 거 헤근에 그 마리널 해 놓면은 마리가 다끌수록 막 기름 불른 거보다도 빈찍빈찍허매. 그런 거 헌 마리.(그런 나무 같은 거 해서 그 마룻널 해 놓으면 마루가 닦을수록 기름 바른 거보다도 반짝반짝해. 그런 거 한 마루.)

108008 @ 그런 마리.(그런 마루.)

108008 #1 이 훠장넨 그런 거 몰라.(이 희장넨 그런 거 몰라.)

108008 @ 예. 이 가시남 해갖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예. 이 가시나무 해갖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108008 #1 딱딱 이치록 헤근에 저 짹하게 놔놓고, 또 거 다 놔지믄 다음 또 이거, 이거 이거는 거 가운데 이제 홈베기.(딱딱 이처럼 해서 저 짹하게 놔놓고, 또 거 다 놔지면 다음 또 이거, 이거 이거는 거 가운데 이제 ‘홈베기’.)

108008 @2 도리가 잇어마씨.(도리가 있어요.)

108008 #1 홈베기 이거 해놓면은 이쪽에 이거 허여근에 다 놔지민 그 다음 요쪽으로 짹 놓고. 마리 전체.(‘홈베기’ 이거 해놓으면 이쪽에 이거 해서 다 놔지면 그 다음 요쪽으로 짹 놓고. 마루 전체.)

108008 @ 다 연결을 하는 거라예?(다 연결을 하는 거네요?)

108008 #1 다 연결허영. 경 행 이제 ㅋ치록 허지 안허여.(다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같이 하지 않아.)

108008 @ 난간에도 마리 놔낫수가?(난간에도 마루 놨었습니까?)

108008 #1 난간. 우리 집 경우는 난간.(난간. 우리 집 경우는 난간.)

108008 @ 음.(음.)

108008 #1 경 헤근에 그 대문 애염에 난간, 대문 밖으로 이제 마당더래 헤근에 그 난간이 이제 이 마당 이것이 마당이면 요만은 높으게 헤근에 대문하고 ㅋ찡하게 헤근에 쪽하게 난간이 잇어낫어.(그렇게 해서 그 대문 가장가리에 난간, 대문 밖으로 이제 마당으로 해서 그 난간이 이제 이 마당 이것이 마당이면 요만큼 높게 해서 대문하고 나란하게 해서 쪽하게 난간이 있었어.)

108008 @ 마리로 해갖고예?(마루로 해갖고요?)

108008 #1 그 나무 난간마리는 이치록헌 게 아니고 조금 긴 거.(그 나무 난간마루는 이처럼한 게 아니고 조금 긴 거.)

108008 @ 더 긴 걸로?(더 긴 걸로?)

108008 #1 더 길게 헤근에 딱 집이슬하고 딱 맞게끔 핸에, 것도 다 맞추멍 다

혜. 그때엔.(더 길게 해서 딱 처마하고 딱 맞게끔 해서, 것도 다 맞추면서 다 해. 그 때엔.)

108009 @ 집이슬하고예, 그 다음에 그 고팡은 다 집집마다 잇엇잖아예? 고팡은 어떤 식으로 생겨낫수가?(처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방은 다 집집마다 있었잖아요? 고방은 어떤 식으로 생겼었습니까?)

108009 #1 고팡은 우리 그 집에는 큰방 다음에 고팡이 집이 영 하면은 이 여기가 이제 창문 아니?(고방은 우리 그 집에는 큰방 다음에 고방이 집이 이렇게 하면이 여기가 이제 창문 아니?)

108009 @ 예.(예.)

108009 #1 창문, 이제 창문이면은 마당 쪽으로 창문. 이쪽으로 큰방이 이렇게 웨면은.(창문, 이제 창문이면 마당 쪽으로 창문. 이쪽으로 큰방이 이렇게 되면.)

108009 @ 큰구들.(큰방.)

108009 #1 그 다음에는 고팡.(그 다음에는 고방.)

108009 @ 음.(음.)

108009 #1 고팡 혜신디 경 혜근에 또 족은방은 이 아까 이디 어디엔 혜라마는. 족은방은 어디에 하냐 하믄 정제, 정제 하는 쪽으로 조금 끓어근에 족은방은 완전 큰방보다 완전 반 정도 족제 혜근에 그때는 정제에서 밥 먹고 정제에서 살림을 주로 이제 살기 때문에 정제 널르게 헨에 살례 놓고 물항 놓고 뭐 혼 쪽에는 제사 많이 할 때는 조칙 영 혼쪽에 끌아놔근에 그릇덜 다 시치명 어펫당은에 그레. 우리 친정에는 동지선들 나민 제사가 일고으답 번 웨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릇을 들여놓지 안 허영 조침 끌아놓 어평 놋당은에 한 삼일 잇이민 제사 그레 혜근에 제사 다 끊나면 그거 아까 불치로 이디 다깟젠 햇덴 헨계마는 이 불치로는 절대 안 웨여. 그 놋그릇. 저 거세기 이제 바당에 가면은.(고방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작은방은 이 아까 여기 어디라고 하더라만. 작은방은 어디에 하냐 하면 부엌, 부엌 하는 쪽으로 조금 끓어서 작은방은 완전 큰방보다 완전 반 정도 작게 해서 그때는 부엌에서 밥 먹고 부엌에서 살림을 주로 이제 살기 때문에 부엌은 너르게 해서 찬장 놓고 물독 놓고 뭐 한쪽에는 제사 많이 할 때는 조짚 이렇게 한쪽에 깔아놔서 그릇들 다 쟇으면서 엎었다가 그리로. 우리 친정에는 동지선달 되면 제사가 일고여덟 번 되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릇을 들여놓지 안 해서 조짚 깔아놔서 엎어서 놨다가 한 삼일 있으면 제사 그리로 해서 제사 다 끊나면 그거 아까 재로 여기 닦았다고 했다고 하더니만 이 재로는 절대 안 돼. 그 놋그릇. 저 거시기 이제 바다에 가면.)

108009 @ 모살.(모래.)

108009 #1 모살이 아니고. 요만씩한 돌 닮은 거.(모래가 아니고. 요만씩 돌 같은 거.)

108009 @2 속돌.(속돌.)

108009 #1 속돌, 속돌. 그거를 혜다근에 다 방에에 빛으멍 체로 그 ㅋ는체로 체로 ㅋ는체로 다 치멍 그 가루로 혜근에.(속돌, 속돌. 그거를 해다가 다 방아에 빛으

면 체로 그 가는체로 체로 가는체로 다 치면서 그 가루로 해서.)

108009 @ 아아.(아아.)

108009 #1 놋그릇을 따까낫어, 우리.(놋그릇을 닦았었어, 우리.)

108009 @ 아, 아.(아, 아.)

108009 #1 속돌.(속돌.)

108009 @ 속돌로에?(속돌로요?)

108009 #1 속돌 그거를 쫓아다근에 방에에서 뺏아. 그거를 완전 줌진체에서 그거를 쳐근에 그 가루가 훑으면은 놋그릇 깃어진텐 헤근에 아주 가루 가늘게 그거 쳐근에 그거를 헤근에 저 산디찍.(속돌 그거를 주어다가 방아에서 빻아. 그거를 완전 가는체에서 그거를 쳐서 그 가루가 굽으면 놋그릇 그어진다고 해서 아주 가늘게 그거 쳐서 그거를 해서 저 밭벗짚.)

108009 @ 음.(음.)

108009 #1 헤근에 산듸찍도 그냥 허면은 벼짝허영 안 웨니까 조금 이제 그.(해서 밭벗짚도 그냥 하면 뺏뺏해서 안 되니까 조금 이제 그.)

108009 #2 두드령.(두들겨서.)

108009 #1 ㅎ꼼 그 두드려근에 복삭허게 두드려근에 물 적정 아까 그 가루 헤여야 놋그릇 빈찍빈찍허게 따까지주.(조금 그 두드려서 폭신하게 두드려서 물 적셔서 아까 그 가루 해야 놋그릇 반짝반짝하게 닦아지지.)

108009 @ 음, 경 허고. 삼춘, 그 아까 고꽝인데, 고꽝에 이런 문 같은 것도 멘들잖아예?(음, 그렇게 하고. 삼춘, 그 아까 고방인데, 고방에 이런 문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108009 #1 고꽝에는 문 만들지 아녕 그때는 요만은 허게 그냥 뜰라만 놓주.(고방에는 문 만들지 안 해서 그때는 요만큼 하게 그냥 뚫어만 놓지.)

108009 @ 음.(음.)

108009 #1 뜰라근에 뜰라진 데로 헤근에 보면은 출단.(뚫어서 뚫어진 데로 해서 보면 꿀단.)

108009 @ 음.(음.)

108009 #1 출단이나 그런 거 해당 꽉 막양 내부는 거라. 고꽝에 들어가민 캄캄 허주게.(꿀단이나 그런 거 해다가 꽉 막아서 내버리는 거야. 고방에 들어가면 캄캄 하지.)

108009 @ 음.(음.)

108009 #1 거 다 뭐 가라수나 이제 ㅋ트믄 하주만은 옛날에는 출단 해당 이만 씩 현 거 두 뱗듸 뜰라놔근에.(거 다 뭐 유리나 이제 같으면 많지만 옛날에는 꿀단 해다가 이만씩 한 거 두 군데 뚫어놔서.)

108009 @ 그 이름은 뭐렌 글아?(그 이름은 뭐라고 말해?)

108009 #1 그, 그거 뭐엔 ㅋ느고?(그, 그거 뭐라고 말하는가.)

108009 @2 창곰?(창구멍?)

108009 #2 창곰.(창구멍.)

108009 #1 창곰, 창곰.(창구멍, 창구멍.)

108009 @ 삼춘네요 고팽에 식계를 허거나 허면 고팽에 제 올리거나 햇수가?(삼 촌네요 고방에 제사를 하거나 하면 고방에 제 올리거나 했습니까?)

108009 #1 우리는 올려낫어.(우리는 올렸었어.)

108009 @ 그거를 무신 제렌 해?(그것을 무슨 제라고 해?)

108009 #1 안칠성²³⁶⁾엔 혜근에.(‘안칠성’이라고 해서.)

108009 @ 음.(음.)

108009 #1 안칠성 밧칠성²³⁷⁾.(‘안칠성’ ‘바깥칠성’.)

108009 @ 음.(음.)

108009 #1 밖에 모시는 거는 저 뒤에 밖에 모시는 거는 안칠성 밧칠성 밖에 모 시는 것과.(밖에 모시는 거는 저 뒤에 밖에 모시는 것은 ‘안칠성’ ‘바깥칠성’ 밖에 모시는 것이.)

108009 @ (웃음).((웃음).)

108009 #1 것은 안칠성 밧칠성. 칠성엔. 안네는 안칠성엔. 우리 우리 친정에는 밖에도 칠성이 있고 안네도 그 저 혜근에 요만은헌 차롱에 문딱 거 혜놓은 거 골고로 앗당은에.(것은 ‘안칠성’ ‘바깥칠성’. 칠성이라고. 안에는 ‘안칠성’이라고. 우리 우리 친정에는 밖에도 칠성이 있고 안에도 그 저 해서 요만한 채롱에 몽땅 거 혜놓은 거 골고루 가져다가.)

108009 @ 그 안칠성 혜난 음식은 놈 안 준덴 허명에?(그 ‘안칠성’ 했던 음식은 남 안 준다고 하면서요?)

108009 #1 놈 주고. 하도 엇일 때는 다 주난 다 먹엇어.(남 주고. 하도 없을 때는 다 주니까 다 먹었어.)

108009 @ 어.(어.)

108009 #1 말이 안 준덴 말은 경 혜도.(말이 안 준다는 말은 그렇게 해도.)

108009 @ 그 밖에 밧칠성은 어떤 식으로 모셨수가?(그 밖에 ‘바깥칠성’은 어떤 식으로 모셨습니까?)

108009 #1 밖에는 이 나무가이, 만약에 나무가 이시면 우린 나무가 막 우거정 우에 집터가 한 사백 평 가까와부난 우의 면안튀²³⁸⁾에, 면안튀엔 하주게.(밖에는 이 나무가, 만약에 나무가 있으면 우린 나무가 매우 우거져서 위에 집터가 한 사백 평 가까워버리니까 위에 ‘면안튀’에, ‘면안튀’라고 하지.)

108009 @ 면안튀? 어.(‘면안튀’? 어.)

108009 #1 면안튀에 그 나무가 막 우거진 거 나무 밑에에 돌덜 요만씩 헌 거

236) ‘안칠성’은 집안에 모시는 칠성신을 말한다. 가족의 안녕을 도와주는 신으로, 주로 고방에 모신다.

237) ‘밧칠성’은 칠성신 중에 집 뒤에 모시는 신이다. 주로 집 뒤에 주저리를 덮어서 모신다.

238) ‘면안튀’는 ‘면+안튀’ 구성으로, 여기에서 ‘안튀’는 집 뒤를 가리킨다. 집 뒤가 멀어서 ‘면안튀’라고 한다.

혜근에 그거 모신 거 아무것도 아니라. 저.(‘먼안튀’에 그 나무가 매우 우거진 거 나무 밑에 돌들 요만씩 한 거 해서 그거 모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108009 #2 기와.(기와.)

108009 #1 기왓장 하나. 그디 두 개 혜근에 아래 흐나 우의 흐나 영 혜근에 그거를 영 모신 거 그거 밧칠성에 혜근에 건드렸당은 무신 눈 어둑엄저 뭐 헵저 그탈을, 그때에 탈 봄근에 혜나신다. 그거 혜근에 이추룩 돌, 돌 존존한 기왓장 그거 혜근에 그 기왓장에 물 안 들어가게 주지.(기왓장 하나. 거기 두 개 해서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모신 거 그거 ‘바깥칠성’이라 해서 건드렸다간 무슨 눈 어두워진다 뭐 하고 있다 그 탈을, 그때에 탈 봄해서 했었는데. 그거 해서 이처럼 돌, 돌 자잘한 기왓장 그거 해서 그 기왓장에 물 안 들어가게 주저리.)

108009 @ 예.(예.)

108009 #2 주지.(주저리.)

108009 @2 주챙이.(주저리.)

108009 #1 주지, 주챙이 여꺼근에 그레 더꺼근에 뻥뻥 돌아가멍 돌로 지둘라. 산뒤 같아 산뒤 처음 혜온 거 흐꼼 덜어당 우리 어머니네 보난 그레 갖당은에 올리고. 조 하면은 조 혼 줌 행은에 그레 올리고 경 헨개.(주저리, 주저리 엮어서 그리로 덮어서 뻥뻥 돌아가면서 돌로 지질러. 밭벼 같아 밭벼 처음 혜온 거 조금 덜어다가 우리 어머니네 보니까 그리로 갖다가 올리고. 조 하면 조 한 줌 해서 그리로 올리고 그렇게 하던데.)

108009 @ 계믄 그레 어디 기와에 올리는 거? 아니면 앞더래?(그러면 그리로 어디 기와에 올리는 거? 아니면 앞으로?)

108009 #1 그 우터래. 그 주지 그거 영 이신 우터래 가근에.(그 위로. 그 주저리 그거 이렇게 있는 위로 가서.)

108009 @ 주지 우의로.(주저리 위로.)

108009 #1 으.(으.)

108009 @ 여긴 밧칠성하면 여기 기와 잇잖아예?(여긴 ‘바깥칠성’하면 여기 기와 잇잖아요?)

108009 #1 이거 더끈 거이. 옆더래.(이거 덮은 거. 옆으로.)

108009 @ 이런 옆에. 이런 옆에 쪽끔 영 올리는 거라예? 올릴 때 그릇에 담아 올려?(이런 옆에. 이런 옆에 조금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요? 올릴 때 그릇에 담아서 올려?)

108009 #1 조차 그냥 앗다다근에.(조채 그냥 가져다가.)

108009 @ 무꺼진 거를?(묶어진 거를?)

108009 #1 무꺼진 거 몇 개. 혼 대여섯 개 영 혜당 올리고. 산에도 하면 그만큼 찍에 다 부뜬 냥. 떼지 말고.(묶어진 거 몇 개. 한 대여섯 개 해다가 올리고. 산에도 하면 그만큼 짚에 다 붙은 대로. 떼지 말고.)

108009 @ 비어온 걸 그대로.(베어온 걸 그대로.)

108009 #1 비어온 결 흔 좀 올리고. 해오는 곡식마다 그치록 가근에.(베어온 결 한 줌 올리고. 해오는 곡식마다 그처럼 가서.)

108009 @ 가장 처음에.(가장 처음에.)

108009 #1 처음에. 그거는 곡식을, 내년에도 곡식을 잘 뛰게 해줄센 헨 올리는 건지.(처음에. 그거는 곡식을, 내년에도 곡식을 잘 되게 해줄사고 해서 올리는 건지.)

108009 @ 그겁주게.(그겁지요.)

108009 #1 우리 어머니네 한 것을 본 것은 내용은 잘 몰르는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난 내년에도 농사를 잘 뛰게 헤드렌 헨 경 올리는 거고, 안네 고팡에 한 거는 자식들 건강하게 잘 헤드렌 경 행 헌 거 닮아 베여. 이제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난.(우리 어머니네 한 것을 본 것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도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고, 안에 고방에 한 거는 자식들 건강하게 잘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거 같아 보여. 이제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8009 @ 안에 곡식 헌 거는 올리지 아녀고? 제사.(안에 곡식 한 것은 올리지 않고?)

108009 #1 제사 때 출린 그것만.(제사 때 차린 그것만.)

108009 @ 특별하게 안칠성만을 위해 제 지내거나 허진 아녀마씨?(특별하게 ‘안칠성’만을 위해 제 지내거나 하진 않아요?)

108009 #1 제사 때. 맹질 때 그런 때만.(제사 때. 명절 때 그런 때만.)

108009 @ 예.(예.)

108009 #1 건 영 보면은 그것도 옛날부터 흐꼼 사는, 잘사는 집덜은 그런 식으로 다 허고. 기자 엇인 집덜은 거 하지도 아녀. 그런 거를.(건 이렇게 보면 그것도 옛날부터 조금 사는, 잘사는 집들은 그런 식으로 다 하고. 그저 없는 집들은 거 하지도 않아. 그런 거를.)

108012 @ 그러면 옛날은 집 지으면 문들은 어떤 식으로 둘곡 했수가? 문?(그러면 옛날은 집 지으면 문들은 어떤 식으로 달고 했습니까? 문?)

108012 #1 대문.(대문.)

108012 @ 대문?(대문?)

108012 #1 대문 뭐 그 널로 해가지고 대문 영 헤근에 상방으로 들어가는 디 대문. 거는 널로 영 허고. 또 고팡디래 들어가는 거는 뭐 영 헤근에 요새 집 짓어근에 안넷집 영 그거.(대문 뭐 그 널로 해가지고 대문 이렇게 해서 마루로 들어가는 데 대문. 거는 널로 이렇게 하고. 또 고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요새 집 짓어서 안집 이렇게 그거.)

108012 @ 창살 헤근에.(창살 해서.)

108012 #1 창살 네개방장하게 요만씩 허게.(창살 네모반듯하게 요만큼씩 하게.)

108012 @2 지계문.(지계문.)

108012 #1 요 우터레만 그치록 하게 한 문 두 개 헤근에.(요 위로만 그처럼 하게 한 문 두 개 해서.)

108012 #2 방 호나면은 바깥으로 나다니는 창문 잇고.(방 하나면 바깥으로 나다니는 창문 있고.)

108012 @ 예.(예.)

108012 #2 마루 있으면 마루로 드나드는 문이 잇고 문 두 개.(마루 있으면 마루로 드나드는 문이 있고 문 두 개.)

108012 @ 그러면은 밖으로 생긴 문이 이렇게 될 거 아니라예? 여기가 마당이면 이렇게 삼간집은 이렇게 될 거 아니예. 삼춘네 집은, 여기 이렇게 난간 있고 여기에 대문이 잇인 거 아니예?(그러면 밖으로 생긴 문이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여기가 마당이면 이렇게 삼간집은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삼춘네 집은, 여기 이렇게 난간 있고 여기에 대문 있는 거 아닌가요?)

108012 #2 예, 거기. 마루로 드나드는 거.(예, 거기. 마루로 드나드는 거.)

108012 @ 마루로 드나드는 거예? 이거는 큰구들이우과?(마루로 드나드는 거요? 이거는 큰방입니까?)

108012 #2 큰구들.(큰방.)

108012 @ 큰구들이면 또 문이 잇수가?(큰방이면 또 문이 있습니까?)

108012 #2 마루로 드나드는 거.(마루로 드나드는 거.)

108012 #1 저던 정제니까 정제.(저긴 부엌이니까 부엌.)

108012 #2 이건 요건 요렇게 헤서 요건.(이건 요건 요렇게 해서 요건.)

108012 @ 굴목.(‘굴목’.)

108012 #1 고팽.(고방.)

108012 #2 이거 시렁엔 허지.(이거 벽장이라고 하지.)

108012 @ 굴목 위로는 시렁이 잇을 거라예?('굴목' 위로는 벽장이 있을 거네요?)

108012 @ 이렇게 들어가는.(이렇게 들어가는.)

108012 #1 시렁엔 허지.(벽장이라고 하지.)

108012 @ 고팽은 어디?(고방은 어디?)

108012 #2 고팽은 이렇게 해서.(고방은 이렇게 해서.)

108012 @ 고팽이면은 문은 어디 듭니까?(고방이면 문은 어디 답니까?)

108012 #2 이렇게 헷어.(이렇게 했어.)

108010 @ 여기는 아까 그 문을 드는 거라예? 게믄 여기는 아까 정제?(여기는 아까 그 문을 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부엌?)

108010 #2 정제.(부엌.)

108010 @ 정제 허면 이렇게 짤라?(부엌 하면 이렇게 잘라?)

108010 #1 정제는 짤르지 아녕 그자, 너덩으로 헨에.(부엌은 자르지 않고 그저, '너덩'으로 해서.)

- 108010 #2 여기도 문 잇고.(여기도 문 있고.)
108010 @ 여기도 문 잇고예?(여기도 문 있고요?)
108010 #2 일로도 가고 고팡으로 가고.(이리로도 가고 고방으로 가고.)
108010 @ 솟은 어디?(솔은 어디?)
108010 #2 솟은 이렇게 앗지주. 이렇게.(솔은 이렇게 앗히지. 이렇게.)
108010 @ 이렇게.(이렇게.)
108010 #2 이거 우리 집 헤난 걸 곁는 거.(이거 우리 집 했던 걸 말하는 거.)
108010 @ 삼촌네.(삼촌네.)
108010 #2 저 뭐야.(저 뭐야.)
108010 @2 물항.(물독.)
108010 #2 물항은 요래.(물독은 요리로.)
108010 @ 요건 족은방인디.(요건 작은방인데.)
108010 #1 족은방 없이.(작은방 없이.)
108010 @ 삼촌네는 여기는 물항?(삼촌네는 여기는 물독?)
108010 @ 살례는?(찬장은?)
108010 #2 살례는 요만큼.(찬장은 요만큼.)
108010 #1 옛날에는 살례도.(옛날에는 찬장도.)
108010 @ 삼촌네는 방 혼나.(삼촌네는 방 하나.)
108010 #2 삼칸. 크게 이건 삼칸인데도 그렇고.(삼간. 크게 이건 삼간인데도 그렇고.)
108010 @ 정제, 예, 예, 예.(부엌 예, 예, 예.)
108010 #2 냉중에 짓은 거는 이건 이렇게 짤라서 족은방 해서 부엌.(나중에 짓은 거는 이건 이렇게 잘라서 작은방 해서 부엌.)
108010 #1 작은방은 족주게.(작은방은 작지.)
108010 @ 그러면 정제하면 솟 하면 이렇게 불치 나와얄 거 아니우파? 거기는 뭐렌 혜?(그러면 부엌하면 솔 하면 이렇게 재 나와야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라고 해?)
108010 #1 불치 그거 뭐.(재 그거 뭐.)
108010 #2 불치를, 불치를 이거 허면은 이 좀 싸여 가믄 담아당 불치막²³⁹⁾에 갖다놓주게.(재를, 재를 이거 하면 쌓여 가면 이 좀 쌓여 가면 담아다가 ‘불치막’에 갖다놓지.)
108010 #1 불치막에. 차가면 담아당 불치막에.(‘불치막’에. 차가면 담아다가 ‘불치막’에.)
108011 @ 불치막에예? 예, 예. 알았수다. 그 다음에 문 들젠 허면 밑에는 그 대문 한번 돌아봅서. 밑에는 뭐를 만들어 대문 들젠 허면?(‘불치막’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 달려고 하면 밑에는 그 대문 한번 달아보십시오. 밑에는 뭐를

239) ‘불치막’은 재를 쌓아두는 곳을 말한다.

만들어 대문 달려고 하면?)

108011 #2 지팡, 지팡.(문지방, 문지방.)

108011 #1 지팡에 고망 영 고망 뜰란에 그거 그 문 그 무신 도절귀?(문지방에 구멍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거 그 문 그 무슨 돌찌귀?)

108011 #2 예, 도절귀.(예, 돌찌귀.)

108011 @ 음.(음.)

108011 #1 그걸로 그거 헨에 고망더래 그거 만들언에 문더래 부젼에 그걸로 헨에.(그걸로 그거 해서 구멍으로 그거 만들어서 문으로 붙여서 그걸로 해서.)

108011 @ 도절귀 속에 문을 이렇게 헨 거라예? 계영 이걸 열아?(돌찌귀 속에 문을 이렇게 한 거네요? 그래서 이걸 열어?)

108011 #1 영, 영, 영. 앞으로 열었다 더꼈다 하는 거지. 영 하는 거 아니?(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열었다 덮었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108011 #2 문 두 개.(문 두 개.)

108011 @ 도절귀로 허는 거우파?(돌찌귀로 하는 겁니까?)

108011 #1 도절귀 지팡에 고망 뜰랑.(돌찌귀 문지방에 구멍 뚫어서.)

108011 @ 고망 뜰랑.(구멍 뚫어서.)

108011 #1 지팡에 고망 뜰라근에 나무 동글락현 거 대문더래 옆으로 부젼에 그 고망더래 그거 이제 디물양 우의도 그치룩 고망 뜰랑 경 허고.(문지방에 구멍 뚫어서 나무 동그란 거 대문으로 옆으로 붙여서 그 구멍으로 그거 이제 집어넣어서 위에도 구멍 그처럼 구멍 뚫어서 그렇게 하고.)

108011 @ 문 중그는 거 잇일 거 이건 뭐렌 혜여? 문 중그는 거.(문 잠그는 거 있을 거 이건 뭐라고 해요?)

108011 #1 문고리.(문고리.)

108011 @ 문고리하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문고리하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108011 #1 지팡.(문지방.)

108011 @ 여기 지팡이 이실 거 아니우파예? 지팡.(여기 문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문지방.)

108011 #2 지팡.(문지방.)

108011 @ 여기가 도절귀 해갖고. 낭으로?(여기가 돌찌귀 해갖고. 나무로?)

108011 #1 낭 지팡에 아예 구녕을 뚫러.(나무 문지방에 아예 구멍을 뚫어.)

108011 @ 구녕 이름은 뭐?(구멍 이름은 뭐?)

108011 #1 그건 몰라. 그 구녕 무신거.(그건 몰라. 그 구멍 무엇.)

108011 @ 구녕이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양쪽으로 훨 거 아니예? 계문.(구멍이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양쪽으로 될 거 아닌가요?)

108011 #1 지등에 문에, 문에 훈쪽으로 헨에 거기에 딱 들어가게끔 저 요만은 동글락허게 옆으로 영 부젼에 췌못으로 박아신가 혜근에 여기에 맞추와근에 혜영

여기에 딱하게 들어가게시리 우에도 그치룩헨에 열았다 더졌다.(기둥에 문에, 문에 한쪽으로 해서 거기에 딱 들어가게끔 저 요만한 동그랗게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쇠못으로 박았는가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해서 여기에 딱하게 들어가게끔 위에도 그처럼해서 열었다 덮었다.)

108011 @ 여기에 맞춘 거는 여기에 잇는 거우과?(여기에 맞춘 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까?)

108011 #1 그거는 나무를 나무 요만은 긴 거 요만은 긴 거 해근에 거 구녕에 맞게시리 동글락하게 영 혜연 만들어근에 그 문에 부젼.(그거는 나무를 나무 요만큼 긴 거 요만큼 긴 거 해서 그 구멍에 맞게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문에 붙여서.)

108011 @ 음.(음.)

108011 #1 부찌선계.(붙였던데.)

108011 @ 도절귀가?(돌찌귀가?)

108011 #1 들어가게.(들어가게.)

108011 #2 지팡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들어가도록 허는 걸 이 나무에 걸 저.(문지방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들어가도록 하는 걸 이 나무에 걸 저.)

108011 #1 만들엉 영 부찌서.(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108011 #2 넓은 걸 해서 이레 꽉아놔서 이것이 약해서 째여지카부덴 양철.(넓은 걸 해서 이리로 꽉아놔서 이것이 약해서 찢어질까봐서 양철.)

108011 @ 예.(예.)

108011 #2 양철로 이레 뻥겨당 못을 딱 박주게.(양철로 이리로 땅겨다가 못을 딱 박지.)

108011 @ 그게 도절귀이우과?(그게 돌찌귀입니까?)

108011 #2 으, 그거 그렇게 하고 우에는 힘이 안 가니까 밑에는 힘이 가고 우에는 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꽉곡.(으, 그거 위에는 그렇게 하고 위에는 힘이 안 가니까 밑에는 힘이 가고 위에는 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꽂고.)

108011 #1 그냥 꽉앙.(그냥 꽂아서.)

108011 #2 이거 쭉하게 올리면은 쑥 올라가서 놓면은 이 구멍에 닿게.(이거 쭉하게 올리면 쑥 올라가서 놓으면 이 구멍에 닿게.)

108011 @ 예, 예, 예. 어떤 건지 알아지쿠다. 그러면은 그 우에는 구멍들은 이름은 몰를고?(예, 예, 예.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구멍들은 이름은 모르고?)

108011 #1 지팡.(문지방.)

108011 #2 지팡 문구멍엔 허주, 무신거.(문지방 문구멍이라고 하지, 무엇.)

108011 @ 계난 지팡도 밑에도 잇고 우에도 잇고.(그러니까 문지방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108011 #2 우에 것도 잇고.(위에 것도 있고.)

108011 @ 밑에 것은 무엇이렌?(밑에 것은 무엇이라고?)

108011 #1 지팡.(문지방.)

108011 #2 우에지팡²⁴⁰⁾ 밑에지팡²⁴¹⁾.('위에지팡' '밑에지팡').)

108011 @ 알지팡 웃지팡.('알지팡' '웃지팡'.)

108011 #2 알지방²⁴²⁾ 웃지팡²⁴³⁾.('알지팡' '웃지팡'.)

108011 #1 지팡, 지팡, 지팡.(문지방, 문지방, 문지방.)

108011 @ 문대방은 뭐라?('문대방'은 뭐라?)

108011 #2 지팡에는 닿도록 지팡에 다 만들어놓는 거.(문지방에는 닿도록 문지방에 다 만들어놓는 거.)

108011 @ 여기는 지팡이렌 헌 거라예?(여기는 '지팡'이라 한 거네요?)

108011 #2 그래서 지팡에는 문이 닫으면은 우에 닫도록 지팡에 다 만들어놓는 거.(그래서 문지방에는 문이 닫으면 위에 닫도록 문지방에 다 만들어놓는 거.)

108011 @ 예, 예.(예, 예.)

108011 #2 밑에도 그렇게 우에도 그렇고.(밑에도 그렇게 위에도 그렇고.)

108011 @ 여기도 문입쟁이 이런 말도 씁니까?(여기도 문설주 이런 말도 씁니까?)

108011 #2 무시거.(무엇.)

108011 #1 거는 무시거 허는 말이라?(거는 무엇 하는 말이야?)

108011 @2 문틀.(문틀.)

108011 @ 이 동네 말은 아닌가 보네.(이 동네 말은 아닌가 보네.)

108011 @2 입쟁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르신이 말헌 이 지팡을 여기 놓을 겁주.(문설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르신이 말한 이 문지방을 여기 놓을 겁지요.)

108011 #1 여기에선 기둥에.(여기에선 기둥에.)

108011 @ 그런 건 안 쓰고예? 알았수다. 삼촌, 그리고 창문이든가 어떤 식으로 허고.(그런 건 안 쓰고요? 알았습니다. 삼촌, 그리고 창문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고.)

108011 #1 도절귀.(돌찌귀로.)

108012 @ 도절귀로. 옛날에는 다 도절귀로 단 거라예? 예. 그 다음에 창도 불라야 할 거 아니우과?(돌찌귀로. 옛날에는 다 돌찌귀로 단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창도 빨라야 할 거 아닙니까?)

108012 #1 으.(으.)

108012 @ 대문은 널로 훠어 잇주만은 그 방에서 나오는 창은 다 창이었잖아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헙니까?(대문은 널로 되어 있지만 그 방에서 나오는 창은 다 창이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240) '우에지팡'은 문 위에 덧대어 있는 문지방을 말한다.

241) '밑에지팡'은 문 아래에 덧대어 있는 문지방을 말한다.

242) '알지방'은 문 아래에 덧대어 있는 문지방이다.

243) '웃지팡'은 문 위에 덧대어 있는 문지방이다.

108012 #1 창오지로 블라.(창호지로 발라.)

108012 #2 창오지.(창호지.)

108012 @ 그거는 뭐렌 협니까? 그 문들은 무신 문이렌 협니까?(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 문들은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108012 #1 창문.(창문.)

108012 @ 그대로 창문에?(그대로 창문에?)

108012 #1 마리레 현 건 샛문, 창문.(마루로 한 건 샛문, 창문.)

108012 @ 샛문, 창문. 음 그 창은 어떤 식으로 발라난 거 굴아줍서? 옛날에.(샛문, 창문. 그 창은 어떤 식으로 발랐던 거 말해주십시오?)

108012 #1 옛날에 뭐 밀가루 엊일 때 우리 바당에 강은애.(옛날에 뭐 밀가루 없을 때 우리 바다에 가서.)

108012 #2 우미.(우뭇가사리.)

108012 #1 우미우파? ‘깨도리²⁴⁴⁾. (웃음).(우뭇가사리입니까? ‘깨고도리’. (웃음)

108012 @ 깨고도리.(‘깨고도리’.)

108012 #1 그거 메여다근에 그걸로 헤근에 씁으민 풀이 트는 거라.(그거 매다가 그걸로 해서 삶으면 풀이 되는 거야.)

108012 @ 음.(음.)

108012 #1 그걸로 헤근에 헤영 창오지에 블라근에 문더레 부伧. 문에 그것에 깨꼬도리가 은직은직한 것이 깨끗하게 안 보이주게. 그거 블라지난.(그걸로 해서 해서 창호지에 발라서 문으로 붙여서. 문에 그것에 ‘깨고도리’가 ‘은직은직한’ 것이 깨끗하게 안 보이지. 그거 발라지니까.)

108012 @ 음, 음. 그러면 깨고도리풀하고 가시리풀은 안 허고.(음, 음. 그러면 ‘깨고도리풀’하고 풀가사리풀은 안 하고.)

108012 #1 가시리는 돌에 영 헤근에 그거는 하젠 허난 오래난에 우리 갯고도리 물 바짝 써민 이제 그거 저 도박.(풀가사리는 돌에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하려고 하니까 오래니까 우리 ‘깨고도리’ 물 바짝 써면 이제 그거 저 도박.)

108012 @ 예.(예.)

108012 #1 그런 거 그뜬 거 허민 그런 거 메여단근에 말리왓당은에 그거 헤영 풀 쑤민 그거 헤영 어느 정도 녹아부런에 건데기가 경 막 지져분허게 하진 안 허여. 가시린, 이레 영 영 메젠허민 너미 젠젠헤부난에 저 그 점복 새끼.(그런 거 같은거 하면 그런 거 매다가 말렸다가 그거 해서 풀 쑤면 그거 해서 어느 정도 녹아버려서 건데기가 지져분하게 하진 않아. 풀가사린, 이리로 이렇게 이렇게 매려고 하면 너무 자잘해버리니까 저 그 전복 새끼.)

108012 @ 예.(예.)

108012 #1 껌데기 꺼끄먹²⁴⁵⁾ 껌데기 행은에 그걸로 박박박 긁어내 헤연.(껌데기

244) ‘깨고도리’는 바다풀의 한 가지다. 풀의 재료로 쓴다.

245) ‘꺼끄먹’은 전복 새끼를 표선리에서 부르는 말이다.

‘꺼끄먹’ 껍데기 해서 그걸로 박박박 긁어내서.)

108012 @ 요만씩.(요만씩.)

108012 @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보통 창은 보통 어느 철에 불라 마씨?(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보통 창은 보통 어느 철에 빨라요?)

108012 #1 가을에.(가을에.)

108012 #2 가을에.(가을에.)

108012 @ 아, 가을에 불라?(아, 가을에 빨라?)

108012 #1 옛날엔, 장마나, 장마가 그치록 심허영 장마 이젠 그치록 안개 안 끼 주마는 안개 끼민 여기 사름도 안 보일 정도로. 장마 넘어나민 창문이고 무시거고 온 집안이 곰팡이로.(옛날엔, 장마나, 장마가 그처럼 심해서 장마 이젠 그처럼 안개 안 끼지만 안개 끼면 여기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장마 넘어나면 창문이고 무엇이고 온 집안이 곰팡이로.)

108012 @ 음.(음.)

108012 #1 곰팡이로 살 수가 없어. 다 그런 것도.(곰팡이로 살 수가 없어. 다 그런 것도.)

108012 #2 하늬부름 날 때 잘 몰르고.(하늬바람 날 때 잘 마르고.)

108012 #1 하늬 나가면 문덜 불르곡 구들덜 방덜 다 도비허곡. 팔월 맹질 헤며 젠 허민 스뭇 조그만이 초상덜 올 거난에 판치릉하게 혜야 훈덴 허멍. 구둘 다 불르고 창 다, 창문덜 다 불르곡 그 제사 지낼 정뱅이 그 우의 적삼 그런 거. 어른덜 스나이어른덜 시민 두루막.(하늬 나가면 문들 바르고 구들 방들 다 도배하고. 팔월 명절 해먹으려고 하면 사뭇 조그맣게 조상들 올 거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방 다 바르고 창 다, 창문들 다 바르고 그 제사 지낼 잠방이 그 위에 적삼 그런 거. 어른들 사내 어른들 있으면 두루마기.)

108012 @ 예.(예.)

108012 #1 그거 다 헤근에 풀 헤근에 다 다려근에 스뭇 헤여근에 입엉 제 지내곡. 이제 그치록 아무거나 입엉 뎅기당 제 지냈어? 그때는 제 지낼 옷도 이제 아니 모시 헤근에 바짝하게시리 헤근에 다 풀 헤영 다려드렌 모시 두루막 헤여근에 짹 헤영허게 헤영 입곡 헨 그렇게 다 지내나곡. 난 옛날식으로 우리 아덜, 우리 아덜은 제 지낼 때 그 모시.(그거 다 해서 풀 해서 다 다려서 사뭇 해서 입어서 제 지내고. 이제같이 아무거나 입어서 다니다가 제 지냈어? 그때는 제 지낼 옷도 이제 아니 모시 해서 뻣뻣하게끔 해서 다 풀 해서 다려달라고 모시 두루마기 해서 짹 하얗게 해서 입고 해서 그렇게 다 지냈었고. 난 옛날식으로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제 지낼 때 그 모시.)

108012 @ 예.(예.)

108012 #1 모시 헤영은에 중의적삼하고 우의 저 후루메.(모시 해서 중의적삼하고 위에 저 두루마기.)

108012 @2 후루메.(두루마기.)

108012 #1 후루메.(두루마기.)

108012 @ 이제도예?(이제도요?)

108012 #1 이제도 팔월 맹질 때는 그거 꼭 입게 헤근에 제 지내곡.(이제도 팔월
명절 때는 그거 꼭 입게 해서 제 지내고.)

108012 @ 그러면은 창문은 일 년에 혼 번 블라마씨?(그러면 창문은 일 년에 한
번 빌라요?)

108012 #1 일 년에 혼 번.(일 년에 한 번.)

108012 @ 일 년에 혼 번씩 다.(일 년에 한 번씩 다.)

108012 #1 장마 지나나민 꼭 블라야 웨여. 그 냄새, 곰팡이 냄새고.(장마 지나나
면 꼭 빌라야 돼. 그 냄새, 곰팡이 냄새고.)

108012 #2 장마 넘어나민 문 닮질 안 허여. 다 곰생이 피영.(장마 넘어나면 문
같이 안 해. 다 곰팡이 피어서.)

108012 @ 아아.(아아.)

108012 #2 방바닥도 다.(방바닥도 다.)

108012 @ 방바닥도 다.(방바닥도 다.)

108012 #1 구둘도 옛날에 뭐 구들 무신 종이. 이제 그뜨민 비료 푸대 닮은 걸로
블라근에 저 무시거 유, 유치름.(방도 옛날에 뭐 구들 무슨 종이. 이제 같으면 비료
부대 같은 걸로 빌라서 거 무엇 들깨, 들기름.)

108012 @ 예.(예.)

108012 #1 유치름 헤근에 것도 ㅎ꼼 이신 집의 경 하고. 경 아년 집인 어녕부녕
허영 불랑 허민 옛날은 베록이여 무시거여.(들기름 해서 것도 조금 있는 집에 그렇
게 하고. 그렇게 않은 집에는 어영부영해서 빌라서 하면 옛날은 벼룩이다 무엇이
다.)

108012 #2 베록이여 빈대여.(벼룩이다 빈대다.)

108012 #1 물것이 조그만이 잊어낫어, 그치록 헤근에 막.(물것이 조그만큼 있었
었어. 그처럼 해서 아주.)

108012 @ 벽 같은 거 도비는 어떤 식으로 햇수가?(벽 같은 거 도배는 어떤 식
으로 했습니까?)

108012 # 도비는 그때 종이 사다근에 이녁대로 다 도비 헤짚주마는 그땐 이녁
대로 다. 이녁대로 다 불랏주.(도배는 그때 종이 사다가 이녁대로 다 도배 해짚지만
그땐 이녁대로 다. 이녁대로 다 발랐지.)

108012 #2 도비사가 엇엇어.(도배사가 없었어.)

108012 @ 도비도 일 년에 혼 번 허고.(도배도 일 년에 한 번 하고.)

108012 #1 일년에 혼 번 허여.(일 년에 한 번 해.)

108012 @ 이제는 뭐.(이제는 뭐.)

108012 #2 그땐 종이가 필필필 물 칠 헤온에 찰찰²⁴⁶⁾헤벼. 불르지 못허여.(그땐

246) ‘찰찰’은 액체 따위가 스며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종이가 필필필 물 칠 해서 ‘찰찰’해버려. 바르지 못해.)

108013 @ 경 허난 일 년에 혼 번 헌 거라예? 예, 알았수다. 그 다음에 혹시 옛날에 호령창²⁴⁷⁾ 들어봐수가?(그렇게 하니까 일 년에 한 번 한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옛날에 ‘호령창’ 들어봤습니까?)

108013 #1 고랑창엔 헌 말은 들어봐서.(고랑창이라고 한 말은 들어봤어.)

108013 @ 호령창 창문 이름인데 하르방덜 밖에 내다보는 창문?(‘호령창’ 창문 이름인데 할아버지들 밖에 내다보는 창문?)

108013 #2 건 내다보고 호령현덴 행은에 호령창인게.(건 내다보고 호령한다고 해서 ‘호령창’이네.)

108013 @ 계폐, 모르쿠다.(글쎄, 모르겠습니다.)

108013 @2 예.(예.)

108013 #2 하인덜 부를 때 말이지 “이례 오너라.” 이렇게 헌 거. 이던 그런 문은 엊어나신다.(하인들 부를 때 말이지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 거. 여긴 그런 문은 없었었는데.)

108013 @2 성읍 가면은 대문 두 개 잇어마씨. 대문이 두 개 해서 큰구들 쪽이 있는 것이 조금 족읍주게. 요놈이 호령창이라예. 요건 대문이고.(성읍 가면 대문 두 개 있어요. 대문이 두 개 해서 큰방 쪽에 있는 것이 조금 작읍죠. 요놈이 ‘호령창’이예요. 요건 대문이고.)

108014 @ 삼춘, 옛날 굴목 때젠 허민 어떤 식으로 땃수가?(삼춘, 옛날 ‘굴목’ 때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땃습니까?)

108014 #1 굴목은 하루 혼 번 때는디 어두워 가민 때는디 그 옛날에는 뭐.(‘굴목’은 하루 한 번 때는데 어두워 가면 때는데 그 옛날에는 뭐.)

108014 #2 물뚱.(말뚱.)

108014 #1 소하고 물하고 엇인 사름덜은 이제 드르에 가근에 솔이파리 솔잎.(소하고 말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들에 가서 솔잎 솔잎.)

108014 @ 예.(예.)

108014 #1 글챙이로 긁어당 굴목 때신디.(갈퀴로 긁어다가 ‘굴목’ 땃는데 .)

108014 @ 예.(예.)

108014 #1 우린 소 말덜 잇이난 그 이제 올레가 막 기니까 담 고망에 소똥 물똥 다 이제 착착 가을 때부터 그 겨울 나면은.(우린 소 말들 있으니까 그 이제 오래 가 아주 기니까 담 구멍에 소똥 말똥 다 이제 착착 가을 때부터 그 겨울 되면.)

108014 @ 예.(예.)

108014 #1 그 굴목 때젠 막 부찌근에 행 놔두민 바상이 물르민 그거 다 떼여내뒹 또 부찌곡 그치룩 행 굴목 살를 거 다 헷당 허는디, 그 소 말 엇인 사름덜은 드르에 강.(그 ‘굴목’ 때려고 막 붙여서 해서 놔두면 앙상하게 마르면 그거 다 떼어내

247) ‘호령창’은 마루로 들어가는 대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문 또는 작은 창이다. ‘호령창’ 옆에는 남자 주인만 앉을 수 있다.

어 두고 또 붙이고 그처럼 해서 ‘굴뚝’ 사를 거 다 했다가 하는데, 그 소 말 없는 사람들은 들에 가서.)

108014 #2 물뚱 줗이레 막 다녀.(말뚱 주우러 막 다녀.)

108014 #1 물뚱 줗으래 저 웃뜨르. 물뚱 줗엉 왕 말瞽고. 또 솔입 걷어오고.(말뚱 주우러 저 윗마을. 말뚱 주워 와서 말리고. 또 솔잎 걷어오고.)

108014 #2 경 허곡 부엌에 막 오래 영 검질 우의서 밥해나믄 문지락이 생기주께.(그렇게 하고 부엌에 막 오래 이렇게 검불 위에서 밥해나면 먼지가 생기지.)

108014 @ 예, 예.(예, 예.)

108014 #2 그거 긁어당 굴뚝 친으고.(그거 긁어다가 ‘굴뚝’ 때고.)

108014 @ 이런 ㅋ시락은 안 헤빘이마씨?(이런 까끄라기는 안 해봤어요?)

108014 #1 ㅋ스락도 그거 막 부자침이 보리 하영 간 집의가 ㅋ스락도 하고 그저 보리찍도 핫주. 놈으 품팔이 헤근에 하는 집은 ㅋ스락도 다 구경도 못허여. ㅋ스락 궂어도 쓸모 잇인디 쓰지도 못하곡.(까끄라기도 그거 아주 부잣집에 보리 많이 간 집에가 까끄라기도 많고 그 저 보릿짚도 많지. 남의 품팔이 해서 하는 집은 까끄라기도 다 구경도 못해. 까끄라기 궂어도 쓸모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108014 @ 경 헤근에 이제 산에 강 솔입 걷어당.(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 가서 솔잎 걷어다가.)

108014 #1 솔입 걷어당 떼고. 말뚱 옛날에는 이제 성냥도 엇엉.(솔잎 걷어다가 떼고. 말뚱 옛날에는 이제 성냥도 없어서.)

108014 @ 음.(음.)

108014 #1 성냥도 엇이면은 정제 영 헤근에 영 한쪽 저 동솟.(성냥도 없으면 부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 저 옹달술.)

108014 @ 예.(예.)

108014 #1 젤 족은 솟이 동솟.(젤 작은 솔이 옹달술.)

108014 @ 예, 동솟.(예, 옹달술.)

108014 #1 동솟 옆댕이에 ㅎ꼼 공간 잊어. 거기 이제 말뚱이나 소뚱이나 말른 거 잊이민 거기 불부찌근에 불부찌 불치 더껑 놔두면은 거기서 그 불이 부찌근에 제게 꺼지지 아녕 이시민 그거 가정은에 헤근에 저 저녁 때 그 불로 헤근에 불어근에 크게 만들어근에 밥행 먹곡. 저녁 때도 거 엇인 집은 놈의 집의 불 담으래 뎅겨 낫어. 불 빌레.(옹달술 옆댕이에 조금 공간 있어. 거기 이제 말뚱이나 소뚱이나 마른 거 있으면 거기 불붙여서 불붙여서 재 덮어서 놔두면 거기서 그 불이 붙어서 재우 꺼지지 않아서 있으면 그거 가져서 해서 저녁 때 그 불로 해서 불어서 크게 만들어서 밥해서 먹고. 저녁 때도 거 없는 집은 남의 집에 불 담으러 다녔었어. 불 빌리리.)

108014 #2 제일 그 여자덜이 입장 곤란한 것이 아침이 일어나면 불 꺼져불엇어. 성냥은 없지. 놈의 집이 불 빌레.(제일 그 여자들이 입장 곤란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불 꺼져버렸어. 성냥은 없지. 남의 집에 불 빌리라.)

108014 #1 불 담으레.(불 담으러.)

108014 @ 예.(예.)

108014 #1 여자가 놈이 집에 재수 엇이 불 담으레 아침이 가면은 욕하는 집이
잇고 사실이주게.(여자가 남의 집에 재수 없이 불 담으러 아침에 가면 욕하는 집이
있고 사실이지.)

108014 @ 욕하는 집 잇고.(욕하는 집 있고.)

108014 #2 남자가 가진 않을 거난 여자가.(남자가 가진 않을 거니까 여자가.)

108015 @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삼춘, 그리고 옛날에 집 앞에예 비 오거나
영 허면 앞에 뭐 풍체?(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삼춘, 그리고 옛날에 집 앞에요 비
오거나 이렇게 하면 앞에 뭐 차양?)

108015 #1 풍체.(차양.)

108015 @ 그거는 멧 개나 이렇게 저기를 혜난 거우과?(그거는 몇 개나 이렇게
저기를 했던 겁니까?)

108015 #1 풍체도, 그거 풍체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 있어.(차양도, 그거 차양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 있어.)

108015 @ 음.(음.)

108015 #1 호꼼 잘 사는 집들은 풍체 혜근에 이제 안거레, 안거레일 경우에 두
개.(조금 잘 사는 집들은 차양 해서 이제 안채, 안채일 경우에 두 개.)

108015 @ 예.(예.)

108015 #1 두 개 만들민 풍체작데기²⁴⁸⁾ 네 개.(두 개 만들면 ‘차양작대기’ 네
개.)

108015 @ 음.(음.)

108015 #1 호꼼 말 안 들으민 풍체작데기 빠근에 두드리레 뎅기믄 돌아나곡.(조
금 말 안 들으면 ‘차양작대기’ 뽑아서 두드리려 다니면 달아나고.)

108015 #2 풍체가 필요한 것이.(차양이 필요한 것이.)

108015 @ 예.(예.)

108015 #2 장마 때.(장마 때.)

108015 @ 예.(예.)

108015 #2 장마 때 창문 잇이민 비바람 불 때 풍체 짹 내려와불면은 그 창문에
비가 안 와. 그렇게 하고 또 날 좋은 날은 짹 올려불곡.(장마 때 창문 있으면 비바
람 불 때 차양 짹 내려버리면 그 창문에 비가 안 와. 그렇게 하고 또 날 좋은 날은
짬 올려버리고.)

108015 #1 올령 풍체작데기.(올려서 ‘차양작대기’.)

108015 #2 상당히 필요헌 건데 그걸 헐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사는 사름들이
많았어.(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걸 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108015 @ 음. 계난 그 올려분텐 헌 말은 그냥 우에?(음. 그러니까 그 올려버린

248) ‘풍체작데기’는 차양을 받치는 작대기를 말한다.

다고 한 말은 그냥 위에?)

108015 #2 쪽하게 풍체작데기를 지둘라불고.(쪽하게 ‘차양작대기’를 지질러버리고.)

108015 @ 예.(예.)

108015 #2 내려와불 맨 풍체작데기 내려와불곡.(내려버릴 맨 ‘차양작대기’ 내려버리고.)

108015 #1 비 오곡 무시거 허민 요새 무시것덜 행 만들었다근에 그 하는 거나 마찬가지주. 그 재료가 틀린 거 뿐이주.(비 오고 무엇 하면 요새 무엇들 해서 만들었다가 그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재료가 다른 거 뿐이지.)

108015 @ 예.(예.)

108015 #2 태풍이나 분다고 허면 거 내려와불주. 그러면은 창문에도 어떻 안 허고.(태풍이나 분다고 하면 거 내려버리지. 그러면 창문에도 어떻게 안 하고.)

108015 #1 날씨 좋으면은 짹 올려근에.(날씨 좋으면 짹 올려서.)

108015 #2 올리고.(올리고.)

108015 #1 풍체작데기로 영 받쳐놓면은 이제 헷빗도 가리와지곡.(‘차양작대기’로 이렇게 받쳐놓으면 이제 햇볕도 가려지고.)

108015 #2 게난 말 안 듣는 주식들은 풍체작데기로 맞는 거라. 풍체작데기로.(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식들은 ‘차양작대기’로 맞는 거야. ‘차양작대기’로.)

108015 #1 풍체작데기 확허게 빼여근에 이제 두드리젠 허민 막 터정 둘아나곡.(웃음).('차양작대기' 확하게 뽑아서 이제 두드리려고 하면 마구 터져 달아나고.(웃음).)

108015 @ 그렇게 해서 이제 풍체도 그냥 영 세우는 것도 있고 둘아매영 허는 것도 있습니까?(그렇게 해서 이제 차양도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고 달아매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108015 #2 둘아매서 영 허주.(달아매서 이렇게 하지.)

108015 #1 둘아매서 올리곡.(달아매서 올리고.)

108015 #2 풍체작데기 비온 날은 앗아불면은 영 내려오곡.(‘차양작대기’ 비온 날은 가져버리면 이렇게 내려오고.)

108016 @ 그 다음에는 물팡. 집집마다 물 질레 다니니까 물팡이 잊어서예?(그 다음에는 ‘물팡’. 집집마다 물 길러 다니니까 ‘물팡’이 있었지요?)

108016 #1 물팡²⁴⁹⁾.('물팡').

108016 @ 물팡은 어느 쪽에 보통 잊습니까?('물팡'은 어느 쪽에 보통 있습니까?)

108016 #1 그 물팡은 부엌디례 가는 맞은편이 물팡이 그 만들어졌지. 돌로 헤근에 딱허게 우의도 돌 이만은 한 거 헨에 옛날 어른덜 어디 강 봉가당 다.(그 ‘물팡’

249) ‘물팡’은 물을 길러 다니는 동이를 담은 ‘물구덕’을 올려놓는 대다. 보통 돌로 만들고, 부엌 앞 한쪽 구석에 만들어 세운다.

은 부엌으로 가는 맞은편에 ‘물팡’이 그 만들어졌지. 돌로 해서 딱하게 위에도 돌이만큼 한 거 해서 옛날 어른들 어디 가서 주워다가 다.)

108016 #2 거 다 만든 거 아니우과?(거 다 만든 거 아닙니까?)

108016 @ 넓작현 거예?(넓적한 거요?)

108016 #1 물 다 질어나민 그 우에 톡 부령 놋당은에 그디서 쪘근에.(물 다 길어나면 그 위로 톡 부려서 놨다가 거기서 쪘서.)

108016 @ 게믄 물구덕채 부령 놋둔 거라마씨?(그러면 ‘물구덕’째 부려서 놋둔 거예요?)

108016 #1 물구덕²⁵⁰⁾채 부령 놋당은에 또 이제 물 질레 가젠 허민 또 그냥 정가곡. 비 와 가면은 이제 물허베기만 들렁 알러네 놋뒹은에 물구덕은 안네 이제 들여놓고.(‘물구덕’째 부려 놨다가 또 이제 물 길러 가려고 하면 또 그냥 쪘서 가고. 비 와 가면 이제 ‘물허벽’만 들어서 아래로 놔둬서 ‘물구덕’은 안엔 이제 들여놓고.)

108016 @ 음.(음.)

108016 #1 비 맞양 삭아분덴 거 들여낳.(비 맞아서 삭아버린다고 거 들여놓아서.)

108016 @ 게믄 옛날에 물도 아이 때 질었던 거 허고 어른 허는 거 쓰는 거 허고 튼나잖아예? 아이덜 쓰는 거는?(그러면 옛날에 물도 아이 때 길었던 거 하고 어른 하는 거 쓰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아이들 쓰는 거는?)

108016 #1 대바지²⁵¹⁾, 대바지.(‘대바지’, ‘대바지’.)

108016 @ 대바지. 대바지에도 물구덕 잊어?(대바지. ‘대바지’도 ‘물구덕’ 있어?)

108016 #1 대바진 옛날 그 차롱. 차롱으로도 뛰여.(‘대바지’는 옛날 그 채롱. 채롱으로도 되어.)

108016 @ 아아.(아아.)

108016 #1 일부러 만들지 아녀도. 이만은 한 차롱. ㅎ꼼 통 지픈. 정기 하영 지정 놓는 그런 차롱 잊어. 고령착²⁵²⁾.(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이만큼 한 채롱. 조금 통 깊은. ‘정기’ 많이 지져서 놓는 그런 채롱 있어. ‘고령착’.)

108016 @ 고령착에 경 허영은에 이제 하고예? 그러면은예, 물구덕을 하면 밑에도 받치지 아닙니까예? 그건 뭐?(‘고령착’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러면요 ‘물구덕’을 하면 밑에도 받치지 않습니까? 그건 뭐?)

108016 #1 대막댕이 영 영 깨여근에 그거 해근에 받치는 것가 뭐여마는.(대막대기 이렇게 이렇게 깨서 해서 받치는 것이 뭐다만.)

108016 #2 여꺼가지고.(엮어가지고.)

108016 @ 예. 그 다음에 등에 젓지 말렌.(예. 그 다음에 등에 젓지 말라고.)

108016 #1 바드렝이.(받침대.)

250) ‘물구덕’은 물동이인 ‘허벽’을 넣고 지어 다니는 바구니를 말한다.

251) ‘대바지’는 작은 물동이를 말한다.

252) ‘고령착’은 작은 채롱의 일종이다. 지역에 따라서 ‘채롱’을 ‘고령착’이라고도 한다. 채롱은 뚜껑을 포함하여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착’은 뚜껑없이 한 쪽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108016 @ 등바드렝이 헤근에 예, 건 뭘로 만들아?(등 받침대 해서요, 건 뭐로 만들어?)

108016 #1 현옷 가정은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같아시민 수건 그런 걸로 하지만. 주로 버리는 거 어떻 어떻 이렇게 저 바늘로 해서 누벼서 여기 등받이. 등바뎅이.(현옷 가져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같았으면 수건 그런 걸로 하지만. 주로 버리는 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저 바늘로 해서 누벼서 여기 등받이. 등받이.)

108016 @ 등바뎅이.(등받이.)

108016 #1 어쨌든 그거 혜영 들아메영.(어쨌든 그거 해서 달아매서.)

108016 #2 물구덕에 들아메영.(‘물구덕’에 달아매서.)

108016 @ 물구덕에 들아메영.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삼촌은 대바지 벌렁은에 뭐.(‘물구덕’에 달아매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삼촌은 ‘대바지’ 깨서 뭐.)

108016 #1 메 쳐 맞아. 대바지 벌렁은에. 하이튼 대바지 어떻사 약한지 아니 흐꼬만 찌깍 해도 그냥 벌리져부는 거라.(매 쳐 맞아. ‘대바지’ 깨트려서. 하여튼 ‘대바지’ 어떻게나 약한지 아니 조금만 ‘찌깍’ 해도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108016 @ 어.(어.)

108016 #1 가민 매맞아지카부덴 올레 강 ㅋ만이 앗앙 아이고 들어가카 말카 허멍 대바지 옛날에 대바지하고 호야허고 따끄당은에.(가면 매맞을까봐서 오래 가서 가만히 앓아서 아이고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대바지’ 옛날에 ‘대바지’하고 등피하고 닦다가.)

108016 #2 호야가 젤 약해.(등피가 젤 약해.)

108016 #1 따끄당 호야 벌러병 또 매 맞곡.(닦다가 등피 깨버려서 또 매 맞고.)

108016 @ (웃음).((웃음).)

108016 #1 매 맞는 게 족아? 기름 상 오렌 허영 기름 상 오당 또 털어정 벌러 베근에 매 맞곡. 아이고, 요새 사름덜 그런 거 안 했나.(매 맞는 게 적어? 기름 사 오라고 해서 기름 사서 오다가 또 떨어져서 깨버려서 매 맞고. 아이고, 요새 사람들 그런 거 안 했어.)

108016 #2 기름은 요 공장에 벗기 안 풀아낫어양?(기름은 요 공장에 밖에 안 팔았었지요?)

108016 #1 술 공장에 가근에.(술 공장에 가서.)

108017 @ 아, 그 다음에 삼촌네는 집이 있으면 올레가 질어낫수가? 어떻 혜낫수가?(아, 그 다음에 삼촌네는 집이 있으면 오래가 길었었습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108017 #1 올레 막 길언. 올레가 길어부난에 하이튼 여름에 한 사십일 이상 밖에 겸질메영 겸질 밧듸 거 다 혜영 집의 들어오민 집의도 삼일은 메여사 트여. 메젠 허민 무사 베민 경 함광. 놀굽²⁵³⁾에 베미덜이 그만 이만은 한 거 이만은 헌 거

253) ‘놀굽’은 가리를 가려 놓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 놓은 바닥을 말한다.

잇어나고. 계난 옛날에 밧도 이디서 밧파니가 저 사거리 갈 만큼 파니가 길어부난에 막 겹질메멍 난 이 이후에 나가 어른이 훼영 살아도 밧도 엇곡, 집을 혜근에 살아도 올레도 엇인 디 그치록 한 디 살아, 그 생각만 하명 한디 이제 밧도 하나도 엇고 올레도 가게라부난 엇이난 원 딱 나 원, 원대로 훼난에 밧 엇인 것도.(오래 아주 길었어. 오래가 길어버리니까 하여튼 여름에 한 사십일 이상 밖에 김매서 김밭에 거 다 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에도 삼일은 매어야 돼. 매려고 하면 왜 뱀은 그렇게 많은지. ‘눌굽’에 뱀들이 그만 이만큼 한 거 이만큼 한 거 있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밭도 여기서 이랑이 저 사거리 갈 만큼 이랑이 길어버리니까 막 김매면서 난이 이후에 내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도 밭도 없고, 집을 해서 살아도 오래도 없는 데 그처럼 한 데 살아, 그 생각만 하면서 했는데 이제 밭도 하나도 없고 오래도 가게여버리니까 없으니까 전혀 딱 나 전혀, 원대로 되니까 밭 없는 것도.)

108017 #2 그 당시에 그 저 집 짓는 데는 풍수지리에 의해서.(그 당시에 그 저 집 짓는 데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108017 @ 예.(예.)

108017 #2 그래서 허면은 밧이 이렇게 잇으면은 똑 집을 이 가운데로 집을, 밧 가운데로 집을 짓도록.(그래서 하면 밧이 이렇게 있으면 똑 집을 이 가운데로 집을, 밭 가운데로 집을 짓도록.)

108017 #1 혼쪽에 짓지 아녕.(한쪽에 짓지 않고.)

108017 #2 그리고 길이 이거면 이 길 부째서 지으면 좋을 건디 반드시 이디 올래가 길어.(그리고 길이 이거면 길 붙여서 지으면 좋을 건데 반드시 오래가 길어.)

108017 @ 예.(예.)

108017 #1 풍수지리에 의해서 정시덜이 여기다 짓어야 허민 절대적으로 여기다 짓어야지 웎기지도 못해낫어.(풍수지리에 의해서 지관들이 여기다 지어야 하면 절대적으로 여기다 지어야지 웎기지도 못했었어.)

108017 @ 아아.(아아.)

108017 #2 그레 놓니까 올레 긴 집은 부잣집이라. 그 당시에.(그래 놓으니까 오래 긴 집은 부잣집이야. 그 당시에.)

108017 #1 옛날은 다 부잣집 올레 긴 집.(옛날은 다 부잣집 오래 긴 집.)

108017 #2 옴막허게 들어가야 훼곡.(옴쏙하게 들어가야 되고.)

108017 @ 그 올레 모냥은 어떤 식으로 훼낫수가?(그 오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됐었습니까?)

108017 #1 아니, 옛날에 올레 모냥은 올레 영 허난 우리 집 경우는 올레에 리아카도 못 들어갈 정도라. 돌멩이 이만씩 한 거 막 있어부난 사름 다니는 건 어떻 어명 다니는디. 이거는 곡식을 행 와근에 혜도 그 먼 길에 퍼근에 다 집더레 쳐 날라야 훼곡.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 돌멩이로.(아니, 옛날에 오래 모양은 오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 경우는 오래에 리아카도 못 들어갈 정도야. 돌멩이 이만씩 한 거 막 있어버리니까 사람 다니는 건 어떻게 어떻게 다니는데. 이거는 곡식을 해서 와

서 해도 그 먼 길에 퍼서 다 집으로 쳐 날라야 되고.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 돌멩이로.)

108017 @ 예.(예.)

108017 #1 이제 그뜨민 그 뿌슴이라도 허주마는 뿌술 수가 엇이난 그 옛날에 보리 태작하는 기계를 들어가젠 해도 기계를 못 들어강 벗끼디에서 보리 같은 것도 두드리명 고생해난부난에 그때에 검질메명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트명에 앗앙 검질매명 난 이 냉중에 어른 웨도 밧도 하나도 엇고 실질적으로 집을 살아도 올래도 하나 원 엇인 디 살아야주 허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멍 검질멘 거라. 경 현디 밧, 밧도 하나도 엇이난 원 미련 엇이 좋고. 집도 올레 엇이난에 원 딱 생각대로 원.(이제 같으면 그 부수기라도 하지만 부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보리 태작하는 기계를 들어가려고 해도 기계를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 보리 같은 것도 두드리면서 고생해버리니까 그때 김매면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틈에 앓아서 김매면서 난 이 나중에 어른 되어도 밭도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집을 살아도 오래도 하나 전혀 없는 데 살아야지 하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김맨 거라. 그렇게 했는데 밭, 밭도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미련 없이 좋고. 집도 오래 없으니까 딱 생각대로 전혀.)

108017 @ (웃음). 딱 원을 세워갖고 그 원이.((웃음). 딱 원을 세워갖고 그 원이.)

108017 #1 남 밧덜 얼마 잇저, 얼마 잇저 해도 나 처녀 때 밧이 한 이만 평 그 농사지명 혜나난 뭐 누게네 멧 천 평 잇저 해도 하나 부러운 것이 엇어.(남 밭들 얼마 있다, 얼마 있다 해도 나 처녀 때 밧이 이만 평 그 농사지으면서 했었으니까 뭐 누구네 몇 천 평 잇다 해도 하나 부러운 것이 없어.)

108017 @ 아.(아.)

108017 #1 아니 그것이 이시민 이녁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 엊어시민, 이제 원부립지 아녀. 누게네 밧 무신 만 평 잇저. 에에. 만 평이고 천 평이고 원.(아니 그것이 있으면 이녁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 없었으면, 이제 전혀 부립지 않아. 누구네 밭무슨 만 평 있다. 에에 만 평이고 천 평이고 원.)

108017 @ 계믄 올레도 먼올레엔도 힙니까? 먼올레?(그리면 오래도 ‘먼올레’라고 도 합니까? ‘먼올레’?)

108017 #1 먼올레²⁵⁴⁾.(‘먼올레’.)

108017 @ 건 먼올레예. 가까운 올레는?(건 ‘먼올레’요. 가까운 오래는?)

108017 #1 가까운 올레는 우린 몰라. 먼올레 올레가 혼 참을 해놓난에. 그 땅에 사백 평인데 안네 쑥 들어간에 집을 짓어놓난에 이제 우리 오빠네 그거 그만이 놔근에 그십 억 주肯 해도 안 풀암서.(가까운 오래 우린 몰라. ‘먼올레’ 오래가 한 참을 해놓으니까. 그 땅에 사백 평인데 안에 쑥 들어가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우리 오빠네 그거 가만히 놔서 그십 억 주겠다고 해도 안 팔고 있어.)

254) ‘먼올레’는 집에서 큰길까지 가는 긴 골목을 말한다.

108017 @ 그 올레가 그대로 잇수파? 그 집 잇어?(그 오래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 집 있어?)

108017 #1 집은 틀어 베된 집터만 있고. 집은 이층 크게 짓언에.(집은 뜯어 버
려두고 집터만 있고. 집은 이층 크게 지어서.)

108017 @ 올레는 그대로예? 사진 찍으려 가사켜.(오래는 그대로요? 사진 찍으
려 가야겠네.)

108017 #1 올레 그대로 이신 게 아니고 올레 그 옆에 땅 더 산에 올레를 이제
그 먼올레를 넓게 넓히며 영 다 터를 만들어분 거라.(오래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오래 그 옆에 땅 더 사서 오래를 이제 그 ‘먼올레’를 넓게 넓히면서 이렇게 다 터를
만들어버린 거야.)

108017 @ 음.(음.)

108017 #1 옛날에는 올레 길게 헌 거 영 허영 이거 길이면은 이 올레가 긴 거
는 이거는 저 우잣 만들어부난게.(옛날에는 오래 길게 한 거 이렇게 해서 이거 길이
면 오래가 긴 거는 이거는 저 텁발 만들어버리니까.)

108017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7 #1 일로 끊언 우잣 만들어부난 길어신디. 이젠 들어오는 디 요만은 헨에
좁아신디 그 이제 기겟방에 **에안티 땅을 산에 올레 큰 차 들어가게끔 만들면서
이거 이거 다 혼 너덩으로 옆에 담덜 다 앗아근에 밧 전체로.(이리로 끊어서 텁발
만들어버리니까 길었는데. 이젠 들어오는 데 요만큼 해서 좁았는데 그 이제 방앗간
에 **에한테 땅을 사서 오래 큰 차 들어가게 만들면서 이거 이거 다 한 ‘너덩’(?)으
로 옆에 담들 다 가져서 밧 전체로.)

108017 @ 밧 멘들아불언?(밭 만들어버렸어?)

108017 #1 게난 옛날 형태는 엇어.(그러니까 옛날 형태는 없어.)

108018 @ 옛날 형체는 잊어사는디. 그 다음에 문간채 이문간에?(옛날 형체는
있어야하는데. 그 다음에 문간채 ‘이문간’에?)

108018 #1 이문간.(‘이문간’.)

108018 @ 이문간은 어떤 식으로? 삼촌네는 이문간 잊어실 건디?(‘이문간’은 어
떤 식으로? 삼촌네는 ‘이문간’ 있었을 건데?)

108018 #1 우리, 우리 친정에는 이문간 이제 집 영 들어가는 디 그거 짓고. 이
문간에는 영 보난 나가 생각허기론 대문을 엇이 그자 이문간만 있고 이문간 절로
이래 짓어시민 요래 짓어시민 이제 그 장남.(우리, 우리 친정에는 ‘이문간’ 이제 집
이렇게 들어가는 데 그거 짓고. ‘이문간’에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대
문을 없이 그저 ‘이문간’만 있고 ‘이문간’ 저리로 이리로 지었으면 이제 그 일꾼.)

108018 @ 음. 장남.(음. 일꾼.)

108018 #1 장남 옛날에 사는 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은 소.(일꾼 옛날에 사는
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은 소.)

108018 @ 음.(음.)

108018 #1 소막. 쉐막. 그치록 헨에 우리 친정에 경 헤낫어.(외양간. 외양간 그처럼 해서 우리 친정에 그렇게 했었어.)

108018 @ 음.(음.)

108018 #1 소 보곡 말 보곡 하는 그때 그 시절에 말론 머슴이주. 장남.(소 보고 말 보고 하는 그때 그 시절에 말로는 머슴이지. 일꾼.)

108018 @ 예.(예.)

108018 #1 성이 김 씬디.(성이 김썬데.)

108018 @ 예.(예.)

108018 #1 김가 김가 김 서방, 김 서방 헤나신디. 그 김 서방이 각시도 엇고 애기도 엇고 헨에 우리 집의 쪽 살아신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부난 이젠 집도 흙꼼기울어지고 소 말덜 엇이 문딱 혜연 팔아버신디 어명 헨 허난에 우리 집을 나간에 살아신디 저디 당케²⁵⁵⁾레 가는 디 단추고망 뜰라난 그디 막살이 살안. 그디 살아낫어. 그디서 살단에 김 서방이 죽어신디 그 이제 민속촌 거기 헤난디 그 옛날에는 당투둑²⁵⁶⁾이엔 헤낫주계.(김가 김가 김 서방, 김 서방 했었는데. 그 김 서방이 각시도 없고 아기도 없고 해서 우리 집에 죽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버리니까 이젠 집도 조금 기울어지고 소 말들 없이 뚉땅 해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하니까 우리 집을 나가서 살았는데 저기 ‘당케’로 가는 데 단춧구멍 뚫었던 거기 오막살이 살았어. 거기서 살다가 김 서방이 죽었는데 그 이제 민속촌 거기 했었는데, 그 옛날에는 ‘당투둑’이라고 했었지.)

108018 @ 당투둑?(‘당투둑’?)

108018 #1 민속촌 짓은 디가 이름이 ‘당투둑’이라. 그 ‘당투둑’은이 마을 땅인지면 땅인지 뭐 군 땅인진 몰라도.(민속촌 지은 데가 이름이 ‘당투둑’이야. 그 ‘당투둑’은 마을 땅인지면 땅인지 뭐 군 땅인지는 몰라도.)

108018 #2 군유지.(군유지.)

108018 #1 그디 간에 이젠 묻어나신디 이제 민속촌 들어사명 그 김 서방 무덤이 어떻 뭔 줄 몰라.(거기 가서 이젠 묻었었는데 이제 민속촌 들어서면서 그 김 서방 무덤이 어떻게 된 줄 몰라.)

108018 #2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변.(굴착기로 다 밀어버렸어.)

108018 @ 주인이 엊어부난예?(주인이 없어버리니까요?)

108018 #1 경 허난에 그 김 서방이 이제 우리 오빠가 우리 어머니네 문딱 돌아가션에 문딱 화장헨에 이제 저디 저 어디 서울 옥천사 모셔단에 천도헤난에 그 옥천사는양 다 뿌리는 터가 잇언게.(그렇게 하니까 그 김 서방이 이제 우리 오빠가 우리 어머니네 뚉땅 돌아가셔서 뚉땅 화장해서 이제 저기 저 어디 서울 옥천사 모셔다가 천도하니까 옥천사는요 다 뿌리는 터가 있던데.)

108018 @ 음.(음.)

255) ‘당케’는 표선리 바닷가 동네의 지명 이름이다.

256) ‘당투둑’은 표선리 지명의 하나다. 표선민속촌이 있는 그 지명 이름이다.

108018 #1 그디 헨에 다 뿌려 헤연 그디서 천도식 할 때에 우리 오빠는 옛날에 저 무신, 그 우리 어머니네 우리 그 초상덜 다 헨에 천도식. 천, 천제를 지내신다. (거기 해서 다 뿌려서 거기서 천도식 할 때에 우리 오빠는 옛날에 저 무슨, 그 우리 어머니네 우리 조상들 다 해서 천도식. 천, 천제를 지냈는데.)

108018 @ 음.(음.)

108018 #1 천제를 지내신다 그때 돈으로 혼 이천오백만 원 들었덴. 우리 오빠 말이. 그 망인덜 옷도 다 하고 천도를 천날은 제 지내신다 마지막 날은 김 서방도 ㅋ치.(천제를 지냈는데 그때 돈으로 한 이천오백만 원 들었다고. 우리 오빠 말이. 그 망인들 옷도 다 하고 천 날은 제 지냈는데 마지막 날은 김 서방도 같이.)

108018 #2 ㅋ찌이.(같이.)

108018 #1 김 서방도 ㅋ치 얘기도 엇고 아무도 엇이 돌아가셔부난에 김 서방 찍세도 옷 다 해놓고 헨에 같이 제도 지냈젠 허멍. 그 서울에서 우리 오빠가 완 우리안티 곤는 말이 그때 제 지낼 때 말해시면, 우리 오빠 말하는 말이 만약에 제승에 현 그디가 이시면은 죽엉 강 보면은 김 서방도 아버지네영 다 ㅋ찌 살암실 거 엔.(김 서방도 같이 아기도 없고 아무도 없이 돌아가셔버리니까 김 서방 깃도 옷 다 해놓고 해서 같이 제도 지냈다고 하면서. 그 서울에서 우리 오빠가 와서 우리한테 말하는 말이 그때 제 지낼 때 말했으면, 우리 오빠 말하는 말이 저승이라 한 거기가 있으면 죽어서 가서 보면 김 서방도 아버지네랑 다 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108018 @ 그 제석천에예?(그 제석천에요?)

108018 #1 그치록 헨엔 그런 말 하젠 하난에 우리 오빠 그 김 서방도 말을 하젠 하난에.(그처럼 해서 그런 말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오빠 그 김 서방도 말을 하려고 하니까.)

108018 @ 음.(음.)

108018 #1 김 서방이 막 불쌍허덴 허멍 경 헤신디 건 모르주, 건 뭐 어떻.(김 서방 아주 불쌍하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건 모르지, 건 뭐 어떻게.)

108018 @2 큰오빠가 잘하신 거 같애예?

108018 @ 어쨌든 이제 그 주인도 없고 허난에 그냥 밀어붙였을 때 얼마나 억울해실 거라예? 그냥예?(어쨌든 이제 그 주인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밀어버려서 얼마나 억울했을 건가요? 그냥요?)

108018 #1 계난 이제 민속촌 하멍 뭐 어디 무덤덜 파당 헤신디 그냥 무쳐벼신디 그 우리 오빠가 그때에 그디 헤근에 민속촌 들어상 거 하는 줄 알아시민 와근에 어디레 옮겼이라도 놔둘 건디.(그러니까 이제 민속촌하면서 뭐 무덤들 파다가 했는데 그냥 묻혀버렸는지 그 우리 오빠가 그때에 거기 해서 민속촌 들어서서 거 하는 줄 알았으면 와서 어디로 옮겨서라도 놔둘 건데.)

108018 @2 계난 그 장남 살았던 방은 그 무신 방 헤마씨?(그러니까 그 일꾼 살았던 방은 그 무슨 방 해요?)

108018 #1 그 살았단 방은 원 방 이름은 무시거엔 헌지사 몰라, 원.(그 살았던

방은 원 방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몰라, 전혀.)

108018 @2 저 남군 쪽에 가면에 고랑케구들. 고랑케구들 들어봄디가?(저 남군 쪽에 가면 ‘고랑케구들’. ‘고랑케구들’ 들어봄디가?)

108018 #1 그런 말 안 들어반.(그런 말 안 들어봤어.)

108018 #2 고랑케구들. 구둘?(‘고랑케구들’. 방?)

108018 @2 고랑케구들.(‘고랑케구들’.)

108018 @2 예, 방이니까 구둘.(예, 방이니까 ‘구들’.)

108018 #2 고랑케구들²⁵⁷⁾.(‘고랑케구들’.)

108018 #1 난 들어보지 못하고.(난 들어보지 못하고.)

108019 @ 삼춘네는 쉐 하영 키우난 놀왓도 커실 거라예? 우잣듸 놀왓.(삼춘네는 소 많이 키우니까 ‘놀왓’도 컸을 거예요? 텃밭에 ‘놀왓’.)

108019 #1 그 놀왓²⁵⁸⁾ 그 이젠 집터가 한 사백 평 뛰난 그 놀 놀젠 허민 그 놀 누는 그 터는 이제 검질 영 허영 놀엉 놔두면은 땅에 하면 검질이 썩으카분덴 돌 헤근에 놀굽²⁵⁹⁾을 다 만들어 놓주게.(그 ‘놀왓’. 그 이젠 집터가 한 사백 평 되니까 그 가리 가리려고 하면 그 가리 가리는 그 터는 이제 검불 이렇게 가려서 놔두면 땅에 하면 검불이 썩을까봐서 돌 해서 ‘놀굽’을 다 만들어 놓지.)

108019 @ 예.(예.)

108019 #1 큰놀굽 족은놀굽 헤근에 그 돌로 헤근에 옛날에 그 옛날 어른덜 초 상덜 거 어떻사 그 돌사 허여당 만들어신디 경 허여근에 둉긋하게 그디 큰 놀터는 큰눌. 큰 출 놀고. 족은 놀터는 족게 놀고 헤신디. 그 놀터에 그 일 다 헤낭 검질메 레 그 집안에 검질메레 가민 그 놀터에가 다 베미라 베미.(‘큰놀굽’ ‘족은놀굽’ 해서 그 돌로 해서 옛날에 그 옛날 어른들 조상들 어떻게야 그 돌이야 해다가 만들었는 지 그렇게 해서 둉긋하게 거기 큰 가리터. 큰가리. 큰 꿀 가리고. 작은 가리터는 작게 가리고 했는데. 그 ‘놀터’에 그 일 다 해서 김매러 그 집안에 김매러 가면 그 가리터에 다 뱀이야 뱀.)

108019 @ (웃음).((웃음).)

108019 #1 이만은 한 베미 이만한 베미, 이만한 베미. 아이고 우리 득 키와신디 한번 큰닭이양 베미 이만은 현 걸 먹은 거라.(이만큼 한 뱀이 이만큼 한 뱀이, 이만한 뱀이. 아이고 우리 닭 키웠는데 한번 큰닭이요 뱀이 이만큼 한 걸 먹은 거야.)

108019 @ 아아.(아아.)

108019 #1 계난양 나 생각에는 그 득 소곱에 그 베미가 이제도 살아 있는 걸로 그 두린, 어린 때 생각에. 계난 혼 번 유월 쓰무날 득 잡아먹게 뛰니까 그 득을 이젠 잡게 웬 거라. 계난 나가 그 베미가 ㅋ자.(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닭 속에 그 뱀이 이제도 살아 있는 걸로 그 어린, 어린 때 생각에. 그러니까 한 번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게 되니까 그 닭을 이젠 잡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뱀이 아직

257) ‘고랑케구들’은 부엌 옆에 자그마하게 만들어놓은 작은 방을 말한다.

258) ‘놀왓’은 가리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놀’은 가리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259) ‘놀굽’은 가리를 가리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놓은 바닥을 말한다.

도.)

108019 #2 웃음.(웃음.)

108019 @ 그 닭 베속에 산 줄 알안에.(그 닭 뱃속에 산 줄 알아서.)

108019 #1 아이, 그 독 잡으민 그 베미가 어떻 또 헨. 그거 그 독 잡을 때 난 안 보肯 허멍 먹지도 안 허肯 허멍 아니, 독 다 잡아간디 베미가 나올 건디 안 나완 간 보난 베미가 엊어. 아, 그때 베미가 그 닭 먹어신디 베미 어디 가시닌 허난 계영 그때 우리 어머니네 다덜 베설 뿐뜨게 웃어난. 웃어난 거 생각나는데.(아니 그 닭 잡으면 그 뱀이 어떻게 또 해서. 그거 그 닭 잡을 때 난 안 보겠다고 하면서 먹지도 안 하겠다 하면서 아니, 닭 다 잡아갔는데 뱀이 나올 건데 안 나와서 가서 보니까 뱀이 없어. 아, 그때 뱀이 그 닭 먹었는데 뱀이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네 다들 창자 끊어질 듯 웃었었어. 웃었던 거 생각나는데.)

108019 @ 그 베미 나와얀디 안 나와갖고.(그 뱀이 나와야하는데 안 나와가지고.)

108019 #1 계난 그 베미덜이 지금 다 어디 가신다.(그러니까 그 뱀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108019 #2 베미가양 박정희 대통령 때 쥐잡기 운동 했수께.(뱀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쥐 잡기 운동 했습니다.)

108019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9 #2 쥐잡기.(쥐잡기.)

108019 @ 예, 예.(예, 예.)

108019 #2 알아집니까?(알아집니까?)

108019 @ 예.(예.)

108019 #1 쥐잡기 헤가지고 메칠 날 맷 시에 쥐약을 놓라. 혼 번 헤낫는데 딱 헤게 놓니까 쥐가 엄청나게 죽었어. 죽었는데 그 쥐들을 뱀덜이 다 먹은 거라.(쥐잡기 해가지고 며칠 날 몇 시에 쥐약을 놓아라. 한 번 했었는데 딱 하게 놓으니까 쥐가 엄청나게 죽었어. 죽었는데 그 쥐들을 뱀들이 다 먹은 거야.)

108019 @ 음.(음.)

108019 #1 그 제주도 뱀이양 그 당시 삼 분지 일이 다 죽었어.(그 제주도 뱀이요 그 당시 삼 분의 일이 다 죽었어.)

108019 @ 음.

108019 #2 지금 뱀이.(지금 뱀이.)

108019 @ 쥐들이 없으니까예?(쥐들이 없으니까요?)

108019 #2 아니, 쥐, 약 먹은 쥐를 먹어서 뱀이 다 죽었어.(아니, 쥐, 약 먹은 쥐를 먹어서 뱀이 다 죽었어.)

108019 @ 아아.(아아.)

108019 #2 계난 쥐잡기 운동을 잘 헌 거라마씨.(그러니까 쥐잡기 운동을 잘 한 거예요.)

108019 @ 그 다음에 삼춘, 그 놀았디서 놀아난 경험덜도 잊지예?(그 다음에 삼춘, ‘놀왓’에서 놀았던 경험들도 있지요?)

108019 #1 아이고, 그 놀았디서 득 헤근에 키완에 우잣 널르고 옛날에는 곡식 안 췄어. 그냥 내불민 베미도 쫓아 먹곡 이건 뭐 무신 게우리도 먹고 주뎅이도 먹고. 우잣 널르난 누물 갈꼭 허난. 누물에 약 엇이난 그 누물에 베렝이덜 조그만이 일엇어. 그런 거 틀어먹고 닭들이 다 틀어먹고 헤신디.(아이고, 그 ‘놀왓’에서 닭 해서 키워서 텃밭 너르고 옛날에는 곡식 안 췄어. 그냥 내버리면 뱀도 주워 먹고 이건 뭐 무슨 지렁이도 먹고 지네도 먹고. 텃밭 너르니까 배추 같고 하니까. 배추에 약 없으니까 그 배추에 벌레들 조그맣게 일었어. 그런 거 뜯어먹고 닭들이 다 뜯어 먹고 했는데.)

108019 #2 닭 곡식도 필요 엇고.(닭 곡식도 필요 없고.)

108019 #1 그런 거 다 틀어먹으명 닭덜이 다 살아신다. 아이그 그때 그 우리 두 린 때 생각허민. 우리 그 우잣, 계난 집도 베미도 많고 그런 것이 많으난이 족은 집의 사는 사름덜은 그런 거 안 봐도 됐주게.(그런 거 다 뜯어먹으면서 닭들이 다 살았는데. 아이고 그때 우리 어린 때 생각하면. 우리 그 텃밭, 그러니까 집도 뱀도 많고 그런 것이 많으니까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도 되지.)

108019 @ 예, 예.(예, 예.)

108019 #1 우린 물 질영, 물 질영근에 그 진진한 올레에 드레박에 물 질어가당 놀렌 적이 백 번도 더 있수다.(우린 물 길어서, 물 길어서 그 기나긴 오래에 두레박에 물 길어가다가 놀란 적이 백 번도 더 있습니다.)

108019 @ (웃음).((웃음).)

108019 #1 베미가 줄락²⁶⁰⁾허게 나왕 노래곡, 그자 한창 아무 생각 없이 가당 보민 베미가 옆으로 술술 감양 탁 만나근에 또 주침허명 노래곡 아이고.(뱀이 ‘줄락’하게 나와서 놀래고, 그저 한창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보면 뱀이 옆으로 술술 감아서 탁 만나서 또 주춤하면서 놀래고 아이고.)

108019 @ (웃음). 물 것도 아닌 데도.((웃음)). 물 것도 아닌 데도.)

108019 #1 경 혜연 그때엔 요샌 베미 문 사름이 흔나씩 있어도 그땐 베미 문 사름이 하나 엇어.(그렇게 해서 그때엔 요샌 뱀이 문 사람이 하나씩 있어도 그땐 뱀이 문 사람이 하나 없어.)

108019 #2 건드리지 안 허민 안 무난에.(건드리지 안 하면 안 무니까.)

108020 @ 예, 경 허고 삼춘, 옛날에는 집에 다 웨야지덜도 다 햇잖아예. 거는 어떤 식으로 키왓수가?(예, 그렇게 하고 삼춘, 옛날에는 집에 다 돼지들도 다 햇잖아요. 거는 어떤 식으로 키웠습니까?)

108020 #1 옛날에는 웨지 영 헤근에 이제 그 고팡 다음에 공터가 영 이시면 거 뜻통인디.(옛날에는 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팡 다음에 공터가 이렇게 있으면 거 돼지우린데.)

260) ‘줄락’은 갑자기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08020 @ 예.(예.)

108020 #1 뜬통 옛날엔 뛰지. 뛰지 헤근에 그 그때는 곡식덜 농사지엉 곡식 그 기겟방에 강 굽아난 껌데기 그 곡식.(돼지우리 옛날엔 돼지. 돼지 해서 그 그때는 곡식들 농사지어서 곡식 그 방앗간에 가서 갈았던 그 곡식.)

108020 #2 체.(겨.)

108020 #1 그 체들 가져근에 뛰지하고 그 감저 이제 그때는 감저가 많이 싱글 때, 고구마 많이 싱글 때난 그 뿐시래기 같은 것덜 맷 날 맷 날 메칠 쳐다근에 이 만은 데명 놔둠서 그거 헤근에 도새기 주명 새끼도 내우곡 경 헤근에.(그 겨들 가져서 돼지하고 그 고구마 이제 그때는 고구마가 많이 심을 때, 고구마 많이 심을 때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 몇 날 며칠 쳐다가 이만큼씩 쌓아서 놔두면서 그거 해서 돼지 주면서 새끼도 내우고 그렇게 해서.)

@ 음.(음.)

108020 #1 그때는 뜬통에 똥 싸.

108020 @ 음.(음.)

108020 #1 뜬통에 강 똥 싸신디 뜬통 영 헨 똥 싸는 디 다 만들잖아.(돼지우리에 가서 똥 쌌는데 돼지우리 이렇게 해서 똥 싸는 데 다 만들잖아.)

108020 @ 예.(예.)

108020 #1 디딜팡.(부춘돌.)

108020 @ 예.(예.)

108020 #1 그거 헤근에 경 만들당 똥 무심코 똥 싸다근에 도새기 탁탁 털어불민 쓰못.(그거 해서 그렇게 만들다가 똥 무심코 똥 싸다가 돼지 탁탁 떨어버리면 사못.)

108020 @ (웃음).((웃음).)

108020 #1 아, 그때덜은 ㅋ치 경 허영 살앙 어울령 영 영 살아도 냄새덜토 안나신가. 냄새 나덴 하는 사름도 엇고. 뜬통에 만약에이.(아, 그때들은 같이 그렇게 해서 살아서 어울려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냄새들도 안 났는가.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돼지우리에 만약에.)

108020 @ 예.(예.)

108020 #1 저 영 담 닿은 디 돌 ㅎ꼼 영 뾰족히게 나온 디 그디 다 또꼬망 씨는 거라. 그 돌에. 게믄 그 돌이 뺀찍뺀찍하는 하게 허영 해도 누게 똥 냄새 난덴 허는 사름도 엇고. 이 사름도 똥 싸나민 거기 따끄고 영 허영 그디 따까끈에 그디 영 허영 따까근에.(저 이렇게 담 쌓은 데 돌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데 거기 다 똥구멍 닦는 거야. 그 돌에. 그러면 그 돌이 반짝반짝하는 하게 해서 해도 누구 똥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똥 싸나면 거기 닦고 이렇게 해서 거기 닦아서 거기 이렇게 해서 닦아서.)

108020 @ 돌멩이로 따까마씨?(돌멩이로 닦아요?)

108020 #1 돌멩이 쪼짝히게 나온 디 그런 디 허영 따끄곡 막 헤여난.(돌멩이 뾰

족하게 나온 디 그런데 해서 닦고 마구 했었어.)

108020 @ 뭐 저기 보리낭으로 이렇게 따까보진 아녜고마씨?(뭐 저기 보릿짚으로 이렇게 닦아보진 않고요?)

108020 #1 보리낭으로도, 조착 같은 거 그런 거 허민 다끄지 못허여, 아파근에.(보릿짚으로도, 조짚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닦지 못해, 아파서.)

108020 #2 계난 출단을 그레 낳 놔둬. 출단.(그러니까 꿀단을 그리로 놔서 놔둬. 꿀단.)

108020 @ 아아.(아아.)

108020 #1 출단 놔두는 집도 잇고.(꿀단 놔두는 집도 잇고.)

108020 #2 그것이 문지락하니까. (웃음).(그것이 부드러우니까. (웃음).)

108020 #1 산듸씩 같은 것도 그디 앗다당 놔두곡.(밭볏짚 같은 것도 거기 갖다가 놔두고.)

108020 @ 계믄 그대로 돌멩이에 따깡.(그러면 그대로 돌멩이에 닦아서.)

108020 #2 돌멩이에 따깡 나와.(돌멩이에 닦아서 나와.)

108020 #1 아이덜. 어른은 그디 찍덜 놔두민 따끄는디.(아이들. 어른은 거기 짚들 놔두면 닦는데.)

108020 @ 돌멩이로 따깟텐 말은 처음 들었수다. (웃음).(돌멩이로 닦았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

108020 #1 돌멩이로 따까. 그 돌멩이 쪼赜한 거 이시민.(돌멩이로 닦아. 그 돌멩이 뾰족한 거 있으면.)

108020 @ 아, 경 허면 이제 도새기 사는 집은 무신거렌 혜여?(아, 그렇게 하면 돼지 사는 집은 무엇이라고 해요?)

108020 #1 그 도새기 사는 집?(그 돼지 사는 집?)

108020 @ 계난 둻통 말고 도새기 이제 새끼 낳고 허는 집이 이실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돼지우리 말고 돼지 이제 새끼 낳고 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8020 #2 둻통 안네.(돼지우리 안네.)

108020 @2 둻집.(‘돗집’.)

108020 #2 둻집²⁶¹⁾이지 무시거.(‘돗집’이지 무엇.)

108020 @ 둻집은 어떤 식으로 행은에?(‘돗집’은 어떤 식으로 해서?)

108020 #1 저 흐꼼 호랑깽이 낭께기 영 영 영 저 놓아근에 그 우터레 집, 집 만들듯 그 우의 새 헤근에 더꺼근에 만들어.(저 조금 ‘호랑깽이’(?) 나뭇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놓아서 그 위로 집, 집 만들듯 그 위에 띠 해서 덮어서 만들어.)

108020 @ 음.(음.)

108020 #1 경 허영 쏘곱에 뭐 오줌. 그디 도새기덜토 이녁네 집의 똥오줌은 절대 안 싸메.(그렇게 해서 속에 뭐 오줌. 거기 돼지들도 이녁네 집에 똥오줌은 절대 안 싸.)

261) ‘돗집’은 돼지가 잠을 자는 공간을 말한다.

108020 #2 안 싸.(안 싸.)

108020 #1 벳겼듸만 나왕 쌍.(바깥에만 나와서 싸서.)

108020 @ 어어.(어어.)

108020 #1 경 허민 그, 그디 잇당 막 추, 눈이나 오곡 추워직 하면은 이제 보리
찌이나 그런 찍 아경가근에 풀어주곡.(그렇게 하면 그, 거기 있다가 막 추, 눈이나
오고 추울 듯 하면 이제 보릿짚이나 그런 짚 가져가서 풀어주고.)

108020 @ 음.(음.)

108020 #1 경 하민.(그렇게 하면.)

108020 #2 풀어주곡. ㅂ内幕코지 쯤 저 뜻통 이시민은 베꼈으로.(풀어주고. 바람받
이 쯤 저 돼지우리 있으면 바깥으로.)

108020 #1 두로 강 막아주곡.(뒤로 가서 막아주고.)

108020 #2 영 막아주곡.(이렇게 막아주고.)

108020 #1 가땡이, 가땡이 ㅋ튼 거 틈어근에 두이로 강은에 영 허영 뭐로 얹엉
떨어지지 아녀계시리 혜주곡.(가마니, 가마니 같은 거 뜯어서 뒤로 가서 이렇게 해
서 뭐로 얹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고.)

108020 @ 그 다음에 그 보리낭 같은 거 영 허영은에 뜻통에 담잖아요? 건 뭐
햄텐 허여?(그 다음에 보릿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돼지우리에 담잖아요? 건 뭐 해
고 있다고 해?)

108020 #2 걸름 허젠.(거름 하려고.)

108020 #1 걸름 허젠힘 담는 거.(거름 하려고 담는 거.)

108020 @ 거 뭐 준텐 험니까? 도새기 짓 준텐 험니까?(거 뭐 준다고 합니까?
돼지 짓 준다고 합니까?)

108020 #2 도새기 짓 준텐 허여. 도새기. 도새기 것통에 짓 주는 거.(돼지 짓 준
다고 해. 돼지. 돼지 먹이통에 짓 주는 거.)

108020 @ 짓 주는 거예? 그 다음에 이 돼지를 막 키우당 보면 도새기 허당 보
면은 막 그 뜻통님영 오는 경우도 잊잖아요?(짓 주는 거요? 그 다음에 이 돼지
를 막 키우다가 보면 돼지 하다가 보면 막 그 ‘돼지우리님’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
잖아요?)

108020 #2 어.(어.)

108020 @ 어떤 때 넘영 와마씨?(어떤 때 넘어서 와요?)

108020 #2 그건 수톳 촛을 때.(그건 수퇘지 찾을 때.)

108020 @ 수톳 촛을 때.(수퇘지 찾을 때.)

108020 #1 수巡察나 암巡察나.(수커나 암커나.)

108020 #2 암컷이 수컷 촛을 때 그땐 막 막 코 문질르멍.(암컷이 수컷 찾을 때
그때 막 막 코 문지르면서.)

108020 #1 담 클어근에 담 클엉 나와난 도새기는 암만 성담ㅋ치록 싸놔도 담
클엉 나와.(담 허물어서 담 헐어서 나왔던 돼지는 암만 성담같이 싸놔도 담 헐어서

나와.)

108020 @ 음.(음.)

108020 #1 그 돼지덜.(그 돼지들.)

108020 #2 심웃궂은 도새기덜 잇어.(심술궂은 돼지들 있어.)

108020 #1 어떤 땐 막 무꺼근에 돌아매놔도 클렁 나와.(어떤 땐 막 둑어서 달아매놔도 끌러서 나와.)

108020 @ 막 가시담도 이렇게 만듭니까?(막 가시담도 이렇게 만듭니까?)

108020 #1 어떠튼 간에.(어떻든 간에.)

108020 #2 쌍담으로 다 해놔도 심웃궂은 건 이 주둥이로 다 클어. 얌전헌 건 그대로 그만이 있고.(겹담으로 다 해놔도 심술궂은 건 이 주둥이로 다 허물어. 얌전한 건 그대로 가만히 있고.)

108020 @ 예.(예.)

108020 #2 수듯 촛는 것도 암듯이 발정기가 올 때 그때 수듯 촛는 건데 얌전헌 건 웨기나 허지 담 클질 아녀. 경 아년 거는 막 이걸로.(수퇘지 찾는 것도 암퇘지가 발정기가 올 때 그때 수퇘지 찾는 건데 얌전한 건 외기나 하지 담 허물질 않아. 그렇게 않은 거는 막 이걸로.)

108020 @ 이 주둥이로 담을 이렇게 클어부는 거예.(이 주둥이로 담을 이렇게 헐어버리는 거.)

108020 #2 아이고, 보통 주둥이 아니.(아이고, 보통 주둥이 아니.)

108020 #1 비 오젠 허민 걸름 주둥이로 혜갈아근에 거름 냄새 나게 근치록.(비 오려고 하면 거름 주둥이로 혜집어서 거름 냄새 나게 그처럼.)

108020 @ 아, 비 올 때?(아, 비 올 때?)

108020 #1 비 오젠 햄젠헤 저 뭐 저 그 걸름 둋통 냄새 남쩌.(비 오려고 하고 있다고 저 뭐 그 거름 돼지우리 냄새 나고 있다.)

108020 #2 계난 그건 허민 이렇게 파가면은 이디선 게오리라고 허는데.(그러니까 그건 하면 이렇게 파가면 여기선 지령이라고 하는데.)

108020 @ 예.(예.)

108020 #2 지령이, 지령이.(지령이, 지령이.)

108020 @ 예, 예.(예, 예.)

108020 #2 그것이 나온 거 그걸 잡아먹젠헤. 비 올라고 허면은 그 지령이들이 꿈틀거리는 모양이지 아마. 그러니까 거 냄새 마탕 다 혜쌍.(그것이 나온 거 그걸 잡아먹으려고. 비 오려고 하면 그 지령이들이 꿈틀거리는 모양이지 아마. 그러니까 거 냄새 맡아서 다 혜집어.)

108020 @ 으음.(으음.)

108020 #2 그래서 그거 잡아먹고.(그래서 그거 잡아먹고.)

108020 #1 뜬토고리²⁶²⁾도 다 엎어분뗀 허난.(‘뚱토고리’도 다 엎어버린다고 하

262) ‘뚱토고리’는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하여 둘을 파서 만든 그릇이다.

니까.)

108020 @ 뜻도고리도 다 엊어부러마씨?('뜻도고리'도 다 엊어버려요?)

108020 #1 이녁 것 먹는 뜻토고리도 어페.(이녁 것 먹는 '돌토고리'도 엊어.)

108020 #2 그것도 다 어페.(그것도 다 엊어.)

108020 @ 것 잊어나도.(먹이 있었어도.)

108020 @2 거 일부러 돼지 새끼를 내울려고 하면 아까처럼 암토새기 발정기 오면 암톳을 수톳한테 몰아갑니까? 아니면?(거 일부러 돼지 새끼를 낳고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암퇘지 발정기 오면 암퇘지를 수퇘지한테 몰아갑니까? 아니면?)

108020 #2 수톳을 몰양 옵니다. 보통 여기서는.(수퇘지를 몰아서 옵니다. 보통 여기서는.)

108020 @2 수톳을. 걸 여기는 종장 놓다 힙니까?(수퇘지를. 걸 여기는 종장 놓다 합니까?)

108020 #2 아니, 수톳 놓례.(아니, 수퇘지 놓으려.)

108020 @2 아, 수톳 놓례.(아, 수퇘지 놓으려.)

108020 @ 우리도 수톳 놓례 감찌 이런 식.(우리도 수퇘지 놓으려 가고 있다 이런 식.)

108020 @ 암톳을 몰양 가는 거 아니라예?(암퇘지를 몰아서 가는 거 아닌가요?)

108020 #2 수돛을 몰아와.(수퇘지를 몰아와.)

108020 @ 수돛을 몰아와?(수퇘지를 몰아와?)

108020 #2 수돛이 조그마해. 수돛이 이디가 커가면은 불 냄새 나면은 불까버리거든. 까기 전에.(수퇘지가 조그마해. 수퇘지가 여기가 커가면 불 냄새 나면 불까버리거든. 까기 전에.)

108020 @ 아아.(아아.)

108020 #2 그 암톳 있는 뜯통에다.(그 암퇘지 있는 돼지우리에다.)

108020 #1 옛날엔 도새기 불깡도 술 혼 춘씩 먹어낫수다.(옛날엔 돼지 불까서도 술 한 준씩 먹었었습니다.)

108020 #2 (웃음).((웃음).)

108020 @2 우리 동네선 그걸 종장 놓다 힙주게, 종장 놓다.(우리 동네선 그걸 종장 놓다 하지요, 종장 놓다.)

108020 #2 이디선 수돛 놓례 감잰.(여기선 수퇘지 놓으려 가고 있다고.)

108021 @ 음, 그 다음에 아까 삼촌 아까 그 저기 변소에, 최근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훈 거 뭐마씨?(음, 그 다음에 아까 삼촌 아까 그 저기 변소요, 최근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되 거 뭐예요?)

108021 #2 디딜팡.(부춘돌.)

108021 @ 디딜팡.(부춘돌.)

108021 #1 으.(으.)

108021 @ 그거는 돌멩이로 뛰영 이신 거. 그 다음에 집도 엇어낫잖아예? 돌만

영 다아경 잇었지예? 게믄 사름덜 와 가면 어떤 식으로 해여?(그거는 돌멩이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집도 없었었잖아요? 돌만 이렇게 쌓아져서 있었지요? 그러면 사람들 와 가면 어떤 식으로 해?)

108021 #2 게믄 좀 으스륵헌 디다 짓는 거.(그러면 좀 으슥한 데다 짓는 거.)

108021 @ 인기척 헨에 나 여기 잇다 허영 헛기침도 영 혜 봇수가?(인기척 해서 나 여기 있다 해서 헛기침도 이렇게 해 봤습니까?)

108021 #1 경 혜실 거라.(그렇게 했을 거야.)

108021 @ 그 설사할 때는 베 아프거나 설사할 때는 똥 싸젠 허민 잘도 애먹어 예?(그 설사할 때는 베 아프거나 설사할 때는 똥 싸려고 하면 잘도 애먹지요?)

108021 #1 급혜근에 가근에 도새기는 사람 가가면 으레이 똥 먹젠 오주게. 그것도 생각 아녀곡게 설사허민게 강 하당 도새기 닥닥 털어불민 막 온몸에 다 똥 튀어근에 다 튀어근에 혜여도 거 왕 대충 기자 다끄멍 말멍 혜근에 혜여도 누게 똥냄새렌 남젠 하는 사름도 엿고. 그때는 다 냄새가 나놓난. 오만 거가 다 냄새 나노난 냄새를 못 느낀 모냥이라.(급해서 가서 돼지는 사람 가가면 으레 똥 먹으려고 오지. 그것도 생각 않고 설사하면 가서 하다가 돼지 닥닥 떨어버리면 막 온몸에 다 똥 튀어서 다 튀어서 해서 해도 거 와서 대충 그저 닦으면서 말며 해서 해도 누구 똥냄새라고 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다 냄새가 나놓으니까. 오만 거가 다 냄새 나놓으니까 냄새를 못 느낀 모양이야.)

108021 #2 젤 곤란했던 때가 육이오 동란 일어나가지고.(젤 곤란했던 때가 육이오 동란 일어나가지고.)

108021 @ 예.(예.)

108021 #2 피난민들이 다 여기. 육이오가 일어나기 전에 친일파들이 평양에서 숙청하게 됐니까 다 미리 여기 왔거든. 그 사름들은 잘사는 사람들이 이디 피난들 왔거든.(피난민들이 다 여기. 육이오가 일어나기 전에 친일파들이 평양에서 숙청하게 되니까 다 미리 여기 왔거든. 그 사름들은 잘사는 사람들이 여기 피난들 왔거든.)

108021 @ 음.(음.)

108021 #2 이 사름들이 놈의 밧거래 들어가곡 허는데 젤 변 보는 것이 젤 힘들어 가지고.(이 사람들이 남의 바깥채 들어가고 하는데 젤 변 보는 것이 젤 힘들어 가지고.)

108021 @ 음.(음.)

108021 #1 그래서 쯤 놈의 우영팟되도 가서 앓아서 봄불고 허니까 팽장히 말썽이 나낫지.(그래서 참 남의 텃밭에도 가서 앓아서 봄버리고 하니까 팽장히 말썽이 났었지.)

108021 @ 아아.(아아.)

108021 #2 뜬통에 그 앓아서 거드ליך허게 앓아서.(돼지우리에 그 앓아서 거드럭하게 앓아서.)

108021 #1 뭐지 때문에 겁나근에.(돼지 때문에 겁나서.)

108021 @ 아아.(아아.)

108021 #2 뭐지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돼지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108021 #1 우리야 도새기. 뭐 이제 뭐지 뭐지 하지만 옛날 도새기. 도새기 요만 헐 때부터 그치 뭐 똥 싸고 막 그찌 하난 거 크는 것도 혜영 허곡 허난 도새기 므스울 건 하나도 엇인디. 그 저 피난 온 사름덜이 되게 고통스러워낫어.(우리야 돼지. 뭐 이제 돼지 돼지 하지만 옛날 돼지. 돼지 요만할 때부터 같이 뭐 똥 싸고 막 같이 하니까 거 크는 것도 해서 하고 하니까 돼지 무서울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저 피난 온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러웠었어.)

108021 #2 고통스러워낫어.(고통스러웠었어.)

108021 @ 여기에 피난민들도 하영 왓구나예? 표선도예?(여기에 피난민들도 많이 왔군요? 표선도요?)

108021 #1 하영 완.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저 혼 가구씩 다 저 둘양 살렌 헨 우리도 밧거레 우리 할머니 살던 그디 할머니 안거레 어머니영 같이 저 자게 만들고. 그 밧거레 헨에 그 피난민덜 살려낫어.(많이 왔어.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저 한 가구씩 다 저 데려서 살라고 해서. 우리도 바깥채 우리 할머니 살던 거기 할머니 안채 어머니랑 같이 저 자게 만들고. 그 바깥채 해서 그 피난민들 살렸었어.)

108021 @ 음.(음.)

108021 #1 살단에 밥도 막 메이곡, 메이고 소못 배고광 혀민 쌀도 주곡 막 혀고 혜신디 가난에 편지 혼 장 엇어. 진짜로 잘해줄 필요가 엇어. 그런 결론 보면. 난 이거 무릎 수술 이거 할 때도 간병인 데려온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간병인 데려 헨 완 미깡 두 상자 보내줬수다. 저 그 저거세기. 무시거 집 주소 드렌 헨에 아전왓 단에.(살다가 밥도 막 먹이고, 먹이고 사못 배고파서 하면 쌀도 주고 막 하고 하는데 가니까 편지 한 장 없어. 진짜로 잘해줄 필요가 없어. 그런 결론 보면. 난 이거 무릎 수술 이거 할 때도 간병인 데려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간병인 데려서 해서 와서 밀감 두 상자 보내줬습니다. 저 그 거시기. 무엇 집 주소 달라고 해서 가져 왔다가.)

108021 @ 제주도 사람들이예? 진짜.(제주도 사람들이요? 진짜.)

108021 #1 경 헨 보내난에 그 나 그 저 무시거. 전화번호 적언 놔둔 거 혀단 보난 요번에 미깡은 받안 먹고 고맙덴 전할 길이 엇이난 우리 아덜안티, 아덜안티 전화 가서렌.(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그 나 그 저 무엇. 전화번호 적어서 놔둔 거 하다가 보니까 요번에 밀감은 받아서 먹고 고맙다고 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아들한테 전화 갔더라고.)

108021 @ 음.(음.)

108021 #1 영 영 헨에 어머니한티 고맙덴 나그라 전해드렌 우리 아덜 전화 와 선게. 경 혜사주. 어디 완 밥도 반 이상 먹고 혜신디 우리 옛날에 농사지렁 막 헨 경 혜도 그 곡식을 많이 하니까 사당 먹는 것이 아니니까 경 행 우리 할머니네 우

리 할머니네가, 할머니가 막 마음씨가 좋양 막 주곡 막 해난 거 닮은디 가난 끗.(이
렇게 이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나한테 전해달라고 우리 아들 전화 왔던데.
그렇게 해야지. 어디 와서 밥도 반 이상 먹고 했는데 우리 옛날에 농사지으면서 막
해서 그렇게 해도 그 곡식을 많이 하니까 사다가 먹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가, 할머니가 매우 마음씨가 좋아서 막 주곡 막 했던
거 같은데 가니까 끝.)

108021 @2 계난 그 오빠가 그 천도할 때에 그 장남까지도 다 헌 거 아니우과?
(그러니까 그 아까 오빠가 그 천도할 때에 그 일꾼까지도 다 한 거 아닙니까?)

108021 #1 예. (웃음). 장남. 이제 김 서방.(예. (웃음). 일꾼. 이제 김 서방.)

108021 @ 김 서방 음.(김 서방. 음.)

108021 #1 표선린 다 알아. 김 서방엔 허민.(표선린 다 알아. 김 서방이라고 하
면.)

108021 @ 예.(예.)

108021 #1 우리 집의 총각 때부떠 완에 그 혼 칠십 뛰도록 사난.(우리 집에 총
각 때부터 와서 그 한 칠십 되도록 사니까.)

108022 @ 아, 삼춘, 경 허고 옛날 그 혀간. 아까 이제 모커리.(아, 삼춘, 그렇게
하고 옛날 그 혀간. 아까 이제 결채.)

108022 #1 으.(으.)

108022 @ 그 혀간에 대행은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줍서. 아까 얘기?(그 혀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해주십시오. 아까 얘기?)

108022 @2 몽크레.(결채)

108022 #1 몽커레 혀간. 그 혀간 대충 보민이 이제 우리 그 김 서방 거 살아난
디도 거 잠자난 디도 혀간이나 마찬가지주.(결채 혀간. 그 혀간 대충 보면 이제 우
리 그 김 서방 거 살았던 데도 거 잠잤던 데도 혀간이나 마찬가지지.)

108022 @ 음.(음.)

108022 #1 저 영 혜근에 저 장남덜 영 영 혜영 사는 디털은 사는 방덜 보민 우
리 집 뿐이 아니고 딴 디도 강 보민 혀간에 방 닮게 꾸며놓 살게시리 기자 혜선계.
(저 이렇게 해서 일꾼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는 데들은 사는 방들 보면 우리 집
뿐만 아니고 딴 데도 가서 보면 혀간에 방 같게 꾸며놓아서 살게끔 그저 했던데.)

108022 @ 구들 놓거나 이런 식으론 안 허고예?(구들 놓거나 이런 식으론 안 하
고요?)

108022 #1 경 혜영 복데기. 그 산듸찌.(그렇게 해서 복대기. 그 밭볏짚.)

108022 @ 예.(예.)

108022 #1 산듸찌 복삭하게 끌 양근에 명석 끌고 경 혜근에 기자.(밭볏짚 폭신하
게 깔아서 명석 깔고 그렇게 해서 그저.)

108022 @ 음.(음.)

108022 #1 경 혜근에 살양 이불이명 말명 무신 옛날엔 그런 것도 엇이난에 경

혜근에. 게도 우리 집의 그 김 서방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통조림공장에. 일본 사름 덜 완에 통조림공장 허는디 일본말 딴 사름덜은 일본말 몰라부난에 그디 못 들어가 신디 우리 아버지는 일본말 잘 아난 그디 들어간 그디서 먹을 거 그때에 그 일본 사름덜 오바양 시퍼렁현 걸로 무시거 오바. 그때는 오바 오바 혜낫주. 그런 거 그 혜근에 그 일본 사름 그때 이름이 삼마라. 그 삼마엔 한 사름이 우리 아버지 입으 렌 앗다 주민 그 김 서방, 김 서방 저 거시기 입으렌 영 혜영 주민 그거 가져근에 밤의 더껑 자곡. 경 헨. 경 헌 거 닮아. 막 이불이렌 혜근에 무신 어디래 개어놓고 막 북삭하게 혜근에 더퍼근에 자거나 헌 건 봐 본 거 닮지 아녀.(그렇게 해서 살아서 이불이며 말며 무슨 옛날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집에 그 김 서방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통조림공장에. 일본 사람들 와서 통조림공장 하는데 일본말 딴 사람들은 일본말 몰라버리니까 거기 못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말 잘 아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거 그때에 그 일본 사람들 코트요 시 퍼런 걸로 무엇 코트. 그때는 ‘오바’ ‘오바’ 했었지. 그런 거 그 해서 그 일본 사람 그때 이름이 삼마야. 삼마라고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입으라고 가져다가 주면 그 김 서방, 김 서방 저 거시기 입으라고 이렇게 해서 주면 그거 가져서 밤에 덮어서 자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거 같아. 아주 이불이라고 해서 무슨 어디로 개어놓고 아주 폭신하게 덮어서 자거나 한 건 봐 본 거 같지 않아.)

108022 @ 그러면은 삼춘, 헛간에는 무신것들 주로 놓은 거?(그러면은 삼춘, 헛간에는 무엇들 주로 놓은 거?)

108022 #1 헛간에는 명석 덕석.(헛간에는 명석 덕석.)

108022 @ 음.(음.)

108022 #1 그자 무신 둇가례착²⁶³⁾, 맹뎅이 그런 것덜. 그 집의 그 농사 그거 져 근에 막 하민.(그저 무슨 ‘돗가례착’, 망태기 그런 것들. 그 집에 그 농사 그거 지어서 막 하면.)

108022 #2 농기구들.(농기구들.)

108022 #1 농기구 같은 거영. 그거 헛간에 그런 거. 명석이 우리 주로 곡식 다 물리젠 허민 명석이 스무 개 정도 우리 집인 잊어근에 하면. 명석 데민 그디가 보통 하영 츄치해연. 그거 덕석도 잊지. ㅋ레착²⁶⁴⁾도 ㅋ레 ㅋ치록 동골락현 거. ㅋ레 굴 때만 하는 동글락현 ㅋ레착도 잊고.(농기구 같은 거랑. 그거 헛간에 그런 거. 명석이 우리 주로 곡식 다 말리려고 하면 명석이 스무 개 정도 우리 집엔 있어서 하면. 명석 쌓은 거기가 보통 많이 차지했어. 그거 덕석도 있지. 맷방석도 맷돌처럼 동그란 거. 맷돌 갈 때만 하는 동그란 맷방석 있고.)

108022 @ 삼춘예, 명석 잊곡, 덕석 잊고.(삼촌요, 명석 있고, 덕석 있고.)

108022 #1 ㅋ레착 잊고.(맷방석 있고.)

108022 @ 덕석은 뭐?(덕석은 뭐?)

263) ‘돗가례착’은 돼지거름을 넣는 데 쓰는 멱을 말한다.

264) 여기에서 ‘ㅋ레착’은 맷방석을 가리키고 있다.

108022 #2 덕석은 명석보다 족은 거.(덕석은 명석보다 작은 거.)

108022 @ 아아,(아아.)

108022 #1 명석보다 족은 거.(명석보다 작은 거.)

108022 #2 뜻가례착도 잇고.(‘뜻가례착’도 있고.)

108022 #1 뜻가례착은.

108022 @ 그러면 명석은 큰 거?(그러면 명석은 큰 거?)

108022 #1 음.(음.)

108022 #1 덕석은 그보다 작은 거.(덕석은 그보다 작은 거.)

108022 @ 작은 거.(작은 거.)

108022 #1 그레착은 그레처럼 등글락한 거. 그레 글 때만 끌아근에 그레 그는 거?(맷방석은 맷돌처럼 등그런 거. 맷돌 갈 때만 깔아서 맷돌 가는 거?)

108022 @ 으, 그거는 무신거?(으, 그거는 무신거?)

108022 #1 그레착, 그레착.(맷방석, 맷방석.)

108023 @ 그레착. 으음, 동글락한 건 그레착이고예. 그 다음 삼춘 아까 쉐막. 쉐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수가?(맷방석. 으음, 동그란 건 맷방석이고요. 그 다음 삼춘 아까 외양간. 외양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08023 #1 쉐막은 기냥 저 민짝하게시리²⁶⁵⁾ 저 뭐 놓고 무시거 하게 아녀게 헤근에 이런 거 혼 칸 쉐 하는 디. 쉐 영 메는 거는 밖으로 헤근에 담이 영 이시민이 담하고 요 담하고 담구녕 이시민 담구녕으로 헤근에 노꽃 헤근에 영 혜영 일로 영 혜영 밧꽃으로 밖으로 혜영 안트레 강 졸라멩 그 코러래레 저 소도 메곡 경 헨계.(외양간은 그냥 저 ‘민짝하게끔’ 저 뭐 놓고 무엇 하게 않게 해서 이런 거 한 칸 소 하는 데. 소 이렇게 매는 거는 밖으로 해서 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담하고 요 담하고 담구멍 있으면 담구멍으로 해서 노끈 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밖으로 해서 안으로 가서 졸라매서 그 코로 저 소도 매고 그렇게 하던데.)

108023 @ 으음, 쉐막은? 계믄 출은 그 밑으로 주는 거예?(으음, 외양간은? 그러면 꽂은 그 밑으로 주는 거요?)

108023 #1 출은 앞더레, 쉐 앞더레 가근에 꾹꼿 그자 던경 내불민 지네덜이 막뚱기명 다 먹어.(꼴은 앞으로, 소 앞으로 가서 꾹꼿 그자 던져서 내버리면 저네들이 막 땅기면서 다 먹어.)

108023 @ 음.(음.)

108023 #1 입 똑 그 앞으레 안 해도 저끗디래만 던경 내벼도 먹어.(입 똑 앞으로 안 해도 곁으로만 던져서 내벼려도 먹어.)

108023 @ 쉐막 안에 메면 나무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허잖아예? 그 나무를 뭐렌 불르는 것이 잊어마씨? 여기서.(외양간 안에 매면 나무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나무를 뭐라고 부르는 이름 있어요? 여기서.)

108023 #1 우리는 그 남 엇이 기자 담에 그 코 멘들아 놓 그레 그자 쉐 졸라멩

265) ‘민짝하게끔’은 미끈하고 평평하게라는 의미다.

주. 그 남 같은 거.(우리는 그 나무 없이 그저 담에 그 고리 만들어서 놓아서 그리로 그저 소 졸라맸지. 그 나무 같은 거.)

108023 @ 아아.(아아.)

108023 #1 이제 그거 이제 텔레비 보면은 남 그거 그런 건 아니.(이제 그거 이제 텔레비전 보면 나무 그거 그런 건 아니.)

108023 @ 아아. 쉐막에 그냥.(아아. 외양간에 그냥.)

108023 #1 코.(고리.)

108023 @ ** 코 멘들앙예?(* 고리 만들어셔요?)

108023 #1 돌멩이로 해근에.(돌멩이로 해서.)

108023 @ 집밖에로 코 멘들앙 거기만 현 거.(집밖으로 고리 만들어서 거기만 한 거.)

108023 #1 고망 난 딜로 노끗 그거 안으로 강 졸라매영 그 코러러레 그 저 소.(구멍 난 딜로 노끈 그거 안으로 가서 졸라매서 그 코로 그 저 소.)

108023 @ 별도로.(별도로.)

108023 #1 경 허영, 경 혜근에 메여, 그레 졸라메영.(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매어, 그리로 졸라매서.)

108024 @ 그리고 이제 집마다 다 장독대가 있었잖아예? 여기는 장독대를 뭐 렌 혜낫수가? 이 동네서는.(그리고 이제 집마다 다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장독대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동네서는.)

108024 #1 장독대 옛날에 장독대엔 헨에 특별하게.(장독대 옛날에 장독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108024 #2 장 담은 거 놓는 디.(장 담근 거 놓는 데.)

108024 @ 장항들 놓는 디?(장독들 놓는 데?)

108024 #1 장항 햇자 육지↗치곡 장항 안 혜영 우리 집도 보면은.(장독 햇자 육지같이 장독 안 해서 우리 집도 보면.)

108024 @ 으.(으.)

108024 #1 항 혼 세 개.(항아리 한 세 개.)

108024 @ 음.(음.)

108024 #1 항 혼 세 개. 세 개 정도 큰 항. 그거는 간장허는 항 그 다음에 웬장. 그 다음에 무신 고치장이여 막상 해봐야 항이 서너 네 개였고 엊어. 육지↗치록 막이치록 허영 하지 안 허여.(항아리 한 세 개. 세 개 정도 큰 항아리. 그거는 간장하는 항아리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에 무슨 고추장이다 막상 해봐야 항아리가 서너 네 개밖에 없어. 육지처럼 막 이처럼 해서 하지 안 해.)

108024 @ 그 장항을 어디에 놔?(그 장독을 어디에 놔?)

108024 #1 그 거시기. 저 상방으로 영 들어가는 두에.(그 거세기. 저 마루로 이렇게 들어가는 뒤에.)

108024 @ 걸 혹시 장팡두에엔 힙니까? 장팡두?(걸 혹시 ‘장팡두에’라고 합니까?

장팡뒤?)

108024 #1 그자.(그저.)

108024 @ 안튀엔 허는 거?(‘안튀’라고 하는 거?)

108024 #1 안튀, 안튀.(‘안튀’, ‘안튀’.)

108024 @ 안튀 허민 장항만 놓는 디 뭐엔 해?(‘안튀’ 하면 장독만 놓는 데 뭐라고 해?)

108024 #1 장황만 있는 디 안튀에만 허주.(장독만 있는 데 ‘안튀’라고만 하지.)

108024 #2 안튀에 장독대.(‘안튀’에 장독대.)

108024 @ 장 거려 오라. 어디 강 장 거려 오렌 해?(장 떠 와라. 어디 가서 장떠오라고 해?)

108024 #1 장만 거려 오렌 허민 그디 으레이 강 어디 강 거려 오렌 무신 혜여?
(장만 떠 오라고 하면 거기 으레 가서 어디 가서 떠 오라고 무슨 해?)

108024 @ 장팡두에 강은에.(‘장팡두에’ 가서.)

108024 #1 먼안튀에. 장항 놓는 디는 뒷문 열면은.(‘먼안튀’에. 장독 놓는 데는 뒷문 열면.)

108024 @ 집 두에.(집 뒤에.)

108024 #1 집 두에 그디 그디 혜근에 장항 놓곡 또 처마 밑에는 반치 저 거세기 무시거니? 요새 뭐.(집 뒤에 거기 거기 해서 장독 놓고 또 처마 밑에는 파초 저거시기 무엇이니? 요새 뭐.)

108024 @ 양웨.(양하.)

108024 #1 양웨.(양하.)

108024 #2 양웨.(양하.)

108024 #1 양웨 영 혜영 숙전 영 박아근에 양에 양쪽으로 양에 덕깍허게 허영은에 그거 하고 그디 장항 잇고 그거는 영 혜여근에 그자 안튀에. 안튀, 먼안튀에는 흐꼼 멀찍이 돌아강은에 이시난 나무 막 우거지고 그 칠성.(양하 이렇게 ‘숙전’ 이렇게 박아서 양하 양쪽으로 양하 빽빽하게 해서 그거 하고 거기 장독 있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그저 ‘안튀’에, ‘안튀’, ‘먼안튀’에는 조금 멀찍이 돌아가서 있으니까 나무 매우 우거지고 그 칠성.)

108024 @ 거기는 먼안튀예. 계난 이제 안튀는 뭐든 집 뒤를 안튀렌 헌 거다예. 집 뒤를 안튀엔 허고. 그 다음은 삼촌, 양에 헐 때 숙전 박안 이치룩 했잖아예? 숙전이 뭐?(거기는 ‘먼안튀’예. 그러니까 이제 ‘안튀’는 뭐든 집 뒤를 ‘안튀’라고 한 거네요. 집 뒤를 ‘안튀’라고 하고. 그 다음은 삼촌, 양하 할 때 ‘숙전’ 박아서 이처럼 했잖아요? ‘숙전’이 뭐?)

108024 #1 이거 숙전이 무시거엔 허민 이것이 집이면은.(이거 숙전이 무엇이라 고 하면 이것이 집이면.)

108024 @ 예.(예.)

108024 #1 이것이 집이면은 요만 쪽이 담으로 영 혜근에 담으로 영 다놔근에

그 가운데 흑 다 담아놓는 거라.(이것이 집이면 요만 쪽이 담으로 이렇게 해서 담으로 이렇게 쌓아놔서 그 가운데 흑 다 담아놓는 거야.)

108024 @ 음.(음.)

108024 #1 흑. 그거 마당에 집이 땅 파전 집이 무너지카부텐 어떻든 경 혜놔근에 그 양웨 다 싱거.(흙. 그거 마당에 집이 땅 파져서 집이 무너질까봐서 어떻든 그렇게 해놓아서 그 양하 다 심어.)

108024 @ 아아.(아아.)

108024 #1 숙전 박아낳. 그것이 숙전 박아낳.(‘숙전’ 박아놓아서. 그것이 ‘숙전’ 박아놓아서.)

108024 @ 다른 데는 돌 안 하고 그 집 굽에 그 집지실 물에 이렇게 그냥 싱근거 닮은디.(다른 데는 돌 안 하고 그 집 굽에 그 처마 물에 이렇게 그냥 심은 거 같은데.)

108024 @2 잇돌.(댓돌.)

108024 #2 잇돌. 이디서는 숙전 박은텐 헌 게 뭐냐 하면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하고 기후가 장마 때는 여기 엄청 장마를 지거든.(잇돌. 여기서는 ‘숙전’ 박은다고 한 게 뭐냐 하면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하고 기후가 장마 때는 여기 엄청 장마를 지거든.)

108024 @ 예, 비 하영 오니까.(예, 비 많이 오니까.)

108024 #2 비가 하영 와서 물이 자꾸 떨어지면 흑이 다. 그러니까 숙전 박아서 여기다가 저 흑을 집어놔근에 혜영 놔두면은 양엣근을 심영 놔두면은 양에끈으로 다 보호가 돼서 그걸 먹고.(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자꾸 떨어지면 흑이 다. 그러니까 ‘숙전’ 박아서 여기다가 저 흑을 집어놔서 해서 놔두면 ‘양엣근’을 심어서 놔두면 ‘양엣근’으로다 보호가 돼서 그걸 먹고.)

108024 @ 이게 집 여기면 이렇게 돌을 박아서 흑을 담는 거 아니라예? 여기에 양에를 심영.(이게 집 여기면 이렇게 돌을 박아서 흑을 담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양하를 심어서.)

108024 #1 심영.(심어서.)

108024 @ 보통 집 두에?(보통 집 뒤에?)

108024 #1 집 두에. 바로 집이슬 맞추와근에 그 담 요만큼 쌓아근에 그 가운데 흑 막 담아놔근에 양에를 막 심는 거라.(집 뒤에. 바로 처마 맞춰서 그 담 요만큼 쌓아서 그 가운데 흑 막 담아놔서 양하를 막 심는 거야.)

108024 @ 아아.(아아.)

108024 #2 지簌물 떨어져도 흑 안 튀고.(처마 물 떨어져도 흑 안 튀고.)

108024 #1 경 혜도 양에도 잘 트여.(그렇게 해도 양하도 잘 되어서.)

108024 #2 잘 트는 모양이라.(잘 되는 모양이야.)

108024 #1 경 행 이신디 이제는 양에 가경 지도 담양 먹곡 양에를 다양하게 행먹는디 그때는 혜영 먹을 줄 몰랑 그냥 그 안에서 다 세영은에 내불고. 저 팔월 맹

질 때 그거 혜영 탕쉬²⁶⁶⁾ 혜영 탕쉬 혜영 먹은 거 생각나.(그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는 양하 가져서 장아찌도 담가서 먹고 양하를 다양하게 해서 먹는데 그때는 해서 먹을 줄 몰라서 그냥 그 안에서 다 쇠어서 내버리고. 저 팔월 명절 때 그거 해서 ‘탕쉬’ 해서 ‘탕쉬’ 해서 먹은 거 생각나.)

108024 @ 탕쉬예. 예. 팔월 맹질.(‘탕쉬’요. 예. 팔월 명절.)

108024 #2 향이 좋아, 양에.(향이 좋아, 양하.)

108024 #2 양에라는 것이 제주도 뱃기 엊일 거우다.(양하라는 것이 제주도밖에 없을 겁니다.)

108024 @ 일본도 잇인디.(일본도 있는데.)

108024 #2 일본이야 잇지마는 옛날 우리나라 육지는 엉어.(일본에야 있지만 옛날 우리나라 육지는 없어.)

108024 @ 잇긴 잇어예. 양하렌 제주도 사람들이 하영 먹고 나는 거 닮아예, 여기가.(있긴 있어요. 양하라고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먹고 나는 거 같아요, 여기가.)

108024 #1 계난 이제 그때는 집집마다 그 양에가 그 다 잇어나신디 이제는 다 집덜 다 이제 요새 식으로 다 짓어부난.(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집집마다 그 양하가 그 다 있었었는데 이제는 다 집들 다 이제 요새 식으로 다 지어버리니까.)

108024 #2 세멘으로 다 불라부난.(시멘트로 다 발라버리니까.)

108024 #1 다 세멘으로 짹짜 혜부난 흑 그디 혼 방울 흑 굵어낼 디도 엇이난에. 양에가 막 귀해근에 산에 양에 하례.(다 시멘트로 짹짜 해버리니까 흙 거기 한 알 흙 글어낼 데도 없으니까.)

108024 @2 오름에 좀 잇입디다.(오름에 좀 있습니다.)

108024 @ 예.(예.)

108024 #2 오름에. 오름에 잇인 거는 옛날에 그디 사람이 살았다는.(오름에. 오름에 있는 거는 옛날에 거기 사람이 살았다는.)

108024 @ 예, 예, 맞아예.(예, 예, 맞아요.)

108024 #1 따라비오름인가 어딘가.(따라비오름인가 어딘가.)

108024 @ 따라비오름. 웃음.(따라비오름. 웃음.)

108024 #1 그디 무신 벡 무신 가지 약 그 산에.(거기 무슨 벡 무슨 가지 약 그 산에.)

108024 @ 벡약이오름.(백약이오름.)

108024 #1 벡약, 벡약.(백약이오름.)

108024 #2 벡약이오름.(백약이오름.)

108024 #1 그런 디 강은에 우리 동생네 강 해와.(그런 데 가서 우리 동생네 가서 해와.)

108025 @ 집 안튀에 춤도 헨에 춤항도 혜낫수가?(집 ‘안튀’에 ‘춤’도 해서 ‘춤항’도 했었습니까?)

266) ‘탕쉬’는 제사 때 쓰는 나물이다. 고사리, 호박, 콩나물, 양하 따위로 만든다.

108025 #1 솜?(솜?)

108025 @2 물이 귀하니까.(물이 귀하니까.)

108025 #1 어어, 그거.(어어, 그거.)

108025 #2 낭으로.(나무로.)

108025 #1 그거이 낭 이만은 항 젤 살진 낭 큰 낭 그거 돔박낭 그거에 이제 그 새 헤근에 늄람지를 요만은하게 헤근에 그 낭에 딱 맞게 헤근에 그디 딱 가근에 무꺼근에 아래는 이제 딱 졸아지게 헤근에 딱 무꺼.(그거 나무 이만큰 항아리 젤 살진 나무 큰 나무 그거 동백나무 그거에 이제 그 띠 해서 이엉을 요만큼하게 해서 그 나무에 딱 맞게 해서 거기 딱 가서 묶어서 아래는 이제 딱 졸아지게 해서 딱 묶어.)

108025 @ 음.(음.)

108025 #1 경 헤근에 비 크게 오면은 그 밑에 가근에 항을 항을 받든가 허베기 장 받든가 허면 허베기 받양 슴빡하게 허영 넘으면은 들려당 비와됭 그거. 우리 우리는 그거를 주로.(그렇게 해서 비 크게 오면 그 밑에 가서 항아리를 항아리를 받든가 ‘허벽’ 가서 받든가 하면 ‘허벽’ 받아서 가득하게 해서 해서 넘으면 들어다가 부어두고 그거. 우리 우리는 그거를 주로.)

108025 @ 음.(음.)

108025 #1 우리는 그 물을 주로 그 물을 하영 받안 바로 그 안튀에.(우리는 그 물을 주로 그 물을 많이 받아서 바로 그 ‘안튀’에.)

108025 @ 으.(으.)

108025 #1 장덜 담곡 하는 안튀에 큰 돐박낭이. 옛날부터 돐박낭이 키운 건지 몰라도 그 낭 하나만 그디가 있어.(장덜 담그고 하는 ‘안튀’에 큰 동백나무가. 옛날부터 동백나무가 키운 건지 몰라도 그 나무가 하나만 거기에 있어.)

108025 @ 으음.(으음.)

108025 #1 거기에 헤근에 받아서는 촘물²⁶⁷⁾.(거기에 해서 받아서는 ‘촘물’.)

108025 #2 큰 낭.(큰 나무.)

108025 @ 촘물예.(‘촘물요.’)

108025 @ 촘물. 게믄 촘물 허는데 삼촌 아까 늄람지 허는 거 따른 데 성읍을 가난 머리 ** 새로 헤근에.(‘촘물’. 그러면 ‘촘물’하는데 삼촌 아까 이엉 하는 거 다른 데 성읍을 가니까 머리 ** 띠로 해서.)

108025 #1 게메, 새로 그. 늄람지 우에는 무끄고 아래는 머리그치 따근에 족게 시리 만들언에 그 무꺼놔근에 그디 그것이.(글쎄, 띠로 그. 이엉 위에는 묶고 아래는 머리같이 땅아서 작게끔 만들어서 그 묶어놔서 거기 그것이.)

108025 #2 성읍리서 있는 거나 이신 거나 이디나 마찬가지.(성읍리에서 있는 거나 있는 거나 여기나 마찬가지.)

108025 @ 경 헤근에.(그렇게 해서.)

267) ‘촘물’은 비가 올 때 ‘촘’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받은 물이다. ‘촘’은 띠를 머리 땅듯이 땅아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빗물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이다.

108025 #1 거기에 맞춰근에 그 저 나무에 졸라매여근에 그거. 주로 그 거기 물을 하영 먹고.(거기에 맞춰서 그 저 나무에 졸라매서 그거. 주로 그 거기 물을 많이 먹고.)

108025 @ 으음.(으음.)

108025 #1 그 물로. 그거 먹언.(그 물로. 그거 먹었어.)

108025 @ 으.(으.)

108025 #1 그 물로 먹고 그 물 비우면은 물 질례 안 가곡 완전.(그 물로 먹고 그 물 부으면 물 길러 안 가곡 완전.)

108025 @ 게믄 거기에 있는 허벽에다가 현덴 햇잖아예? 게민 그거 촘허벽?(그리면 거기에 있는 ‘허벽’에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촘허벽’?)

108025 #1 우리 물 질례 뎅기는 그 허벽 딱허게 맞게시리 것도 졸라매주게. 허베기 주동이레 그거 영 찔러근에 놔두민 그레 헤근에 받으민.(우리 물 길러 다니는 그 ‘허벽’ 딱하게 맞게끔 것도 졸라매지. ‘허벽’ 주동이로 그거 이렇게 찔러서 놔두면 그리로 해서 받으면.)

108025 @ 촘물이고 그거 촘이고 촘항 이런 말은 안 들어봤수가?('촘물'이고 그거 '촘'이고 '촘항' 이런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8025 #1 촘항은 아니. 우리 기자 그것에 ㅋ득으민 들러당 부엌에 이신 항에 왕 비와뒹 또 가근에 헤근에 한창 ㅋ득을 때 웨면은 강 보민 물이 넘엄시민 또 들러다강 강 빙고 해난 경 허명.(‘촘항’은 아니. 우리 그저 그것에 가득하면 들어다가 부엌에 있는 항아리에 와서 부어두고 또 가서 해서 한창 가득할 때 되면 가서 보면 물이 넘고 있으면 또 들어다가 가서 부으고 했었어. 그렇게 하면서.)

108025 @ 항에다가. 그렇게 받은 물은.(항아리에다가. 그렇게 받은 물은.)

108025 #1 먹어.(먹어.)

108025 @ 촘물.(‘촘물’.)

108025 #1 촘물.(‘촘물’.)

108025 @ 촘물예. 게난 촘물허는 디는 하지 안 허컨계.(‘촘물’요. 그러니까 ‘촘물’하는 데는 많지 안 하겠는데.)

108025 #1 낭이 엇인 디 엇주. 그레 물을 하영 받앙 그레 하영 받昂 내려오주. 쪽끌락한 낭에 물 받으민 얼마나 받을 거라? 큰낭. 그것도 큰나무가 있어야만.(나무가 없는 데 없지. 그리로 물을 많이 받아서 그리로 맣이 받아서 내려오지. 조그마한 나무에 물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거야? 큰 나무. 그것도 큰 나무가 있어야만.)

108025 #1 것도 아무 집이나 촘물도 엇어.(것도 아무 집이나 ‘촘물’도 없어.)

108025 @ 예. 삼촌네도 촘물 해난마씨?(예. 삼촌네도 ‘촘물’ 했었어요?)

108025 #2 아니 우린 나무가 엇이난 아니.(아니 우린 나무가 없으느까 아니.)

108025 @ 웃음.(웃음.)

108025 #1 저 초가집이난에 비 올 때 베꼈듸 빗물 해서 걸레 뺏고 경 헤낫주. 먹을 물은 안 허고.(저 초가집이난에 비 올 때 바깥에 빗물 해서 걸레 뺏고 그렇게

했었지. 먹을 물은 안 하고.)

108025 #1 그런, 그런 물은 받아근에 걸레나 뺏고 기자.(그런, 그런 물은 받아서 걸레나 뺏고 그저.)

108025 @ 집짓은물예?(처마 물요?)

108025 #1 허드렁물. 우린 그 나무에 현 물 헨 먹엇어.(허드레 물. 우린 그 나무에 한 물 해서 먹었어.)

108025 #2 바로 내리는 물이나 마찬가지난.(바로 내리는 물이나 마찬가지니까.)

108025 @ 알았수다. ㅎ꼼 쉬쿠다. 삼춘.(알았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삼춘.)

108025 #1 저 박카스 먹어.(저 박카스 먹어.)

108025 @ 예.(예.)

초가 지붕 이기

108026 @ 이젠예 옛날 그 초집 일어난 거 초집 일어난 거도 큰일이잖아예. 초집은 여기에서는 몇 년에 혼 번 일엇수가?(이젠히 옛날 그 초집 이었던 거 초집 이었던 거도 큰일이잖아요. 초집은 여기에서는 몇 년에 혼 번 이었습니까?)

108026 #1 일 년에 혼 번.(일 년에 한 번.)

108026 #2 일 년에 혼 번.(일 년에 한 번.)

108026 @ 역시 비 하영 오니까예.(역시 바 많이 오니까요.)

108026 #2 북군에는 일 년에 두 번.(북군에는 일 년에 두 번.)

108027 @ 그러면은 초집 일젠 해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 일 년에 혼 번이까. 그러면은 새하고 각단하고 이건 어떤 식으로 준비햇수가?(그러면은 초집 이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 일 년에 한 번이까. 그러면은 떠하고 ‘각단’하고 이건 어떤 식으로 준비했습니까?)

108027 #1 몰라. 딴 집덜은 해도 그 만 팽 잇이니까 새하고 각단²⁶⁸⁾은 이거는 뭐 저 방상 사름덜토 다 비어당 쓸 정도로 밧이 너르니까 행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엇이 혜당 우린 하고. 엊인 사름덜은 저 가시리 우의 성읍리 우의 같은 데 강은에 이런 설덕 같은 디 거 새덜 거 낭 이신 거 모두왕은에 ㅎ루 가근에 몇 단씩 해단 메칠을 그 혜여당은에 집 일고.(몰라. 딴 집들은 해도 그 만 평 있으니까 떠하고 ‘각단’은 이거는 뭐 저 친척 사람들도 다 베어다가 쓸 정도로 밧이 너르니까 해서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없이 해다가 우린 하고. 없는 사람들은 저 가시리 위에 성읍리 위에 같은 데 가서 이런 ‘설덕’ 같은 데 거 떠들 거 나서 있는 거 모아서 하루 가서 몇 단씩 해다가 며칠을 그 해다가 집 이고.)

108027 @ 음. 게믄 새 준비하는 건 어느 계절에 준비하는 거라마씨?(음. 그러면 떠 준비하는 건 어느 계절에 준비하는 거예요?)

108027 #1 가을에.(가을에.)

108027 #2 늦가을에.(늦가을에.)

268) ‘각단’은 짧은 떠를 말한다.

108027 @ 가을에.(가을에.)

108027 #1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거 혜당 봄에 다 일어.(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거 해다가 봄에 다 이어.)

108027 @ 집 이는 건 봄에 일어예. 게믄 그 각단이영 새랑 새영 혜영 놀엉 놋당 혀는구나.(집 이는 건 봄에 이어요. 그러면 그 ‘각단’이랑 떠랑 떠랑 해서 가려서 왔다가 하는구나.)

108027 #1 놀엉.(가려서.)

108027 #2 놀어근앵에 겨울에 줄 비영.(가려서 겨울에 줄 꼬아서.)

108028 @ 아, 겨울에는 줄 비는 거라예. 그 줄 비는 얘기 혜줍서.(아, 겨울에는 줄 꼬는 거네요. 그 줄 꼬는 얘기 해주십시오.)

108029 #1 호랭이²⁶⁹⁾. 그 이름이 호랭이인가. 웃음. 우리 옛날에 농기구들은 혀나난에 그런 거는 이름 잘 알아져. 호랭이. 호랭이는 두에서 남자가 영 영 영 영 줄이 노는 냥 이제 영 영 비는 거 아니?(‘호랭이’. 그 이름이 ‘호랭이’인가. 웃음. 우리 옛날에 농기구들은 했었으니까 그런 거는 이름 잘 알아져. ‘호랭이’. ‘호랭이’는 뒤에서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이 노는 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꼬는 거 아니?)

108029 @ 으.(으.)

108029 #1 비여근에 어느 만이 지붕 재영은에 표적 해 놓 그디²⁷⁰⁾장 가민, ‘그만 놉서.’ 혜근에 그레 고정웬 디레 놔근에. 이제 그거 줄을 다 세여근에 진줄²⁷¹⁾ 맷개 쪽른줄²⁷¹⁾ 맷 개. 경 혜영 세여근에 그 다 흐나씩 비여 간 거 다 막끗데 두 개를 이제 꼬을 거니까.(꼬아서 어느 만큼 지붕 재어서 표적 해 놓아서 거기까지 가면, ‘그만 놓으세요.’ 해서 그리로 고정된 데로 놔서. 이제 그거 줄을 다 세어서 ‘긴 줄’ 몇 개 ‘쪽른줄’ 몇 개. 그렇게 해서 세여어 그 다 하나씩 꼬아 간 거. 다 끝에 두 개를 이제 꼬아갈 거니까.

108029 @ 예.(예.)

108029 #2 그게 혜근에 세영 봄에 쓰무 개일 경우에 마흔 개라야 됨 거 아니?(그게 해서 세어 봄에 스무 개일 경우에 마흔 개라야 될 거 아니?)

108029 @ 예.(예.)

108029 #1 마흔 개 웨민 다 웨수덴 혜여근에 그거 두에서 그 호랭이 큰호랭이²⁷²⁾ 그거 혜영 딱하게 혜영 두에. 혼 사름이 돌리면은 두 사름은 영 영.(마흔 개 되면 다 됐습니다고 해서 그거 뒤에서 그 ‘호랭이’ ‘큰호랭이’ 그거 해서 딱하게 해서 뒤에. 한 사람이 돌리면 두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108029 #2 비고. 혼 사름은 여꺼강.(꼬고. 한 사람은 엮어가서.)

108029 #1 혼 사름은 영 여꺼.(한 사람은 이렇게 엮어.)

269) ‘호랭이’는 집줄을 꼬울 때 사용하는 도구다.

270) ‘진줄’은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기다란 줄을 말한다.

271) ‘쪽른줄’은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짧은 줄을 말한다.

272) ‘큰호랭이’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루를 말한다.

108029 @ 영 여꺼가는 거를 뭐렌 협니까?(이렇게 엮어가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108029 #1 그거 영 영 어울럼젠허주. 어울리는 거엔.(그거 이렇게 이렇게 어울린다고 하지. 어울리는 거라고.)

108029 @ 줄 어울리는 거.(줄 어울리는 거.)

108029 #2 그거 잘 해야 돼. 나 기술자라.(그거 잘 해야 돼. 나 기술자야.)

108029 @ 야, 삼촌은 줄 어울르는 기술자우과?(야, 삼촌은 줄 어우르는 기술자입니까?)

108029 #1 몰라.(몰라.)

108029 @2 맨손으로 햇수가?(맨손으로 했습니다?)

108029 #1 그땐 장갑도 엊이난 맨손으로 햇수게.(그땐 장갑도 없으니까 맨손으로 했습니다.)

108029 @2 기계 같은 거 가정은에.(기계 같은 거 가져서.)

108029 #1 계난 ㅎ꼼 ㅎ루 종일 허젠 허면은 아프면은 막댕이 요만은한 거 가정은에 새에 영 헤근에 영 박자 맞좌근에 빨리 가젠 말양 천천히 영 헹 가.(그러니까 조금 하루 종일 하려고 하면 아프면 막대기 요만한 거 가져서 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자 맞춰서 빨리 가려고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가.)

108029 #2 젠디 그걸로 허면은 또락또락하게 여꺼지질 아녀 손으로 해야.(그런데 그걸로 하면 또락또락하게 엮어지질 않아. 손으로 해야.)

108029 @ 아, 손으로 해야예. 그러면은 뒤에서 줄 어울릴 때 뒤에서 기계 이렇게 놔근에 허잖아예. 그걸 뭐엔 협니까?(아, 손으로 해야예. 그러면은 뒤에서 줄 어울릴 때 뒤에서 기계 이렇게 놔서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8029 #1 어울럼젠허주.(어울린다고 할 거지.)

108029 @ 어울리는 거는 삼춘이 허는 거고?(어울리는 거는 삼춘이 하는 거고?)

108029 #1 게메 그것이 다 어울리는 거라.(글쎄 그것이 다 어울리는 거야.)

108029 #2 큰호랭이 족은호랭이.(‘큰호랭이’, ‘족은호랭이’.)

108029 @ 예, 뒤에 거는 큰호랭이마씨? 뒤치기렌은 안 허여?(예, 뒤에 거는 ‘큰호랭이’요? ‘뒤치기’라고 안 해?)

108029 #1 뒤치기도 들어보난 맞다.(‘뒤치기’도 들어보니까 맞다.)

108029 #2 뒤치기엔은 안 굴아. 큰호랭이 가져오라.(‘뒤치기’라고는 안 말해. ‘큰호랭이’ 가져오라.)

108029 @ 아아.(아아.)

108029 @2 건 뒤치기고 이렇게 허는 건 뒤치다.(건 ‘뒤치기’고 이렇게 하는 건 ‘뒤치다’.)

108029 #1 아아.(아아.)

108029 @ 근데 삼춘네는 큰호랭이.(그런데 삼춘네는 ‘큰호랭이’.)

108029 #2 족은호랭이.(‘족은호랭이’.)

108029 @ 족은, 줄 비는 거는 족은호랭이. 여기에서 어울릴 때 돌려주는 사람은 큰호랭이.(족은, 줄 꼬는 거는 ‘족은호랭이’. 여기에서 어울릴 때 돌려주는 사람은 ‘큰호랭이’.)

108029 #1 큰호랭이.(‘큰호랭이’.)

108031 @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보통 삼간집 지을 때 줄 진줄하고 쪘른줄 뗃 개씩 필요했수가?(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보통 삼간집 지을 때 줄 ‘긴줄’하고 ‘짧은줄’ 몇 개씩 필요했습니까?)

108031 #1 집에 따랑.(집에 따라서.)

108031 @ 으, 집에 따라가지고.(으, 집에 따라가지고.)

108031 #1 뗃 개에 딱 정확하게 허여. 집이 크면이 줄이 더 늘어나고 족으면은 좁아지고 경 허는 거.(몇 개에 딱 정확하게 해. 집이 크면 줄이 더 늘어나고 작으면 좁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

108031 @ 보통 삼춘네 헐 때?(보통 삼춘네 할 때?)

108031 #2 보통 저 긴줄은 서른 개 쫄른줄은 서른다섯 개 내지 마흔 개.(보통 저 ‘긴줄’은 서른 개 ‘짧은줄’은 서른다섯 개 내지 마흔 개.)

108031 @ 으음.(으음.)

108031 #2 그 정도로.(그 정도로.)

108031 #2 그런 식으로 해서.(그런 식으로 해서.)

108031 #2 삼간집.(삼간집.)

108031 @2 긴줄이 서른다섯 개민 상당히 큰 집이우다.(‘긴줄’이 서른다섯 개면 상당히 큰 집입니다.)

108031 #1 서른다섯 개.(서른다섯 개.)

108031 #2 겐디 이디서는 그 이 간격을 좁게 놓는 디가 잇고.(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 간격을 좁게 놓는 데가 있고.)

108031 @ 바람이 쎄니까.(바람이 세니까.)

108031 #1 이디 바람이 쎄여부니까 직깍허게.(여기 바람이 세어버리니까 빽빽하게.)

108031 #2 또 곤란하게 살면은 좀 넓게 놓고 경.(또 곤란하게 살면 좀 넓게 놓고 그렇게.)

108031 @ 그러겠네.(그러겠네.)

108031 @2 긴줄이 서른다섯 개 높니까? 족은줄은마씨?(‘긴줄’이 서른다섯 개 높니까? ‘족은줄’은요?)

108031 #2 족은줄은 마흔 개나 마흔다섯 개.(‘짧은줄’은 마흔 개나 마흔다섯 개.)

108031 @ 예. 여기는 빽빽하게예. 바람이 쎄니까. 거고 삼춘, 지붕 일 때 그냥 일진 안찮아예? 이제 그 지붕 이는 순서는 한번 굽아줍서. 어떤 식으로 집을 이는 지?(예. 여기는 빽빽하게요. 바람이 세니까. 그리고 삼춘, 지붕 일 때 그냥 일진 안

찮아요? 이제 그 지붕 이는 순서는 한번 말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집을 이는지?)

108031 #2 순서는 젤 우에 상모루부터 쪽하게 내려오는 거주.(순서는 젤 우에 용마루부터 쪽하게 내려오는 거지.)

108031 @ 음.(음.)

108031 #1 상모르부터 내려옵니까? 우터래 올라가는 거주.(용마루부터 내려옵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주.)

108031 #2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다 헌 다음에 줄 올리 렌 헤서.(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다 한 다음에 줄 올리라고 해서.)

108031 @ 계단 그 새로 이렇게 집 우에 더프는 거를 뭐햄젠 하여?(그러니까 그 새로 이렇게 집 위에 덮는 거를 뭐하고 있다고 해?)

108031 #1 집 이는 거.(집 이는 거.)

108031 @2 집 일다.(집 일다.)

108031 #2 집 이는 거.(집 이는 거.)

108031 #1 집 이는 거.(집 이는 거.)

108031 @ 아, 집 이는 거. 그 다음 집 다 일면 이렇게 줄 매는 건 뭐렌 굴아?
(아, 집 이는 거. 그 다음 집 다 일면 이렇게 줄 매는 건 뭐라고 말해?)

108031 #2 줄 매는 거.(줄 매는 거.)

108031 @ 그냥 집줄 멘덴 영 굴아예?(그냥 집줄 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108031 #2 여기서 올려 주민 그디서. 밑에서 가만히 쳐다보면 줄이 딱 내려오면
은 저 두에도 있고 앞에 사름이 뻥겨서. 우에서가 다 허는 거.(여기서 올려 주면 그
거기서. 밑에서 가만히 쳐다보면 줄이 딱 내려오면 저 뒤에도 있고 앞에 사람이 땅
겨서. 위에서가 다 하는 거.)

108031 @ 우에서가. 게도 집 이는 사름은 아무나 못허지 안 힙니까?(위에서가.
그래도 집 이는 사람은 아무나 못하지 안 합니까?)

108031 #2 아무도 못 허여.(아무나 못 해.)

108031 #1 계단 옛날에는 집 이는 사름이 품이 엊어.(그러니까 옛날에는 집 이
는 사람이 품이 없어.)

108031 #2 품이 엊어.(품이 없어.)

108031 #1 잘 먹는 거뿐. 맥이는 거. 그 날은 집 일젠 하면은 흐린조 혜근에 조
오메기 멘들아근에 그 막걸리 만들어근에 일부러 집 일젠 허민 그치룩혜연 출련 완
전 잘 맥인. 잘 맥인덴 혜여봐야 그땐 무신거 혼웃이 잘 먹을 것이 잊어시냐마는.
(잘 먹는 거뿐. 먹이는 거. 그 날은 집 이려고 하면은 차조 해서 '조오메기' 만들여
서 그 막걸리 만들어서 일부러 집 이려고 하면 그처럼 해서 차려서 완전 잘 먹인.
잘 먹인다고 해봐야 그땐 무엇 한없이 잘 먹을 것이 있었으랴만.)

108031 @2 품이 엊어예?(품이 없다고요?)

108031 #2 거 다 수눌엉, 수눌엉.(거 다 품앗이해서, 품앗이해서.)

108031 @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고.)

108031 #2 우리는 우에 못하니까 우리는 우에 못허니까 수눈다는 것이 밑에서 매는 거. 그걸 헷어.(우리는 위에 못하니까 우리는 위에 못하니까 품앗이한다는 것이 밑에서 매는 거. 그걸 했어.)

108031 @2 줄 비는 거.(줄 꼬는 거.)

108031 #2 줄 비는 것은 품 주고. 줄 놓는 사람한테는 품 주고.(줄 꼬는 것은 품 주고. 줄 놓는 사람한테는 품 주고.)

108031 @ 집 이는 것만.(집 이는 것만.)

108031 #2 집 이는 것은 품을 안 받아.(집 이는 것은 품을 안 받아.)

108030 @ 거고 삼촌 집줄 매젠 허면 이 지붕 밑에 긴 왕대 해갖고 그 왕대 이 름은 뭐?(그리고 삼촌 집줄 매려고 하면 이 지붕 밑에 긴 왕대 해갖고 그 왕대 이 름은 뭐?)

108030 #1 서리. 서리렌 허지 아념니까?(서까래. 서까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8030 @ 거왕.(‘거왕’.)

108030 #2 거왕²⁷³⁾. 거왕.(‘거왕’. ‘거왕’.)

108030 @ 예. 거왕대 거왕.(예. ‘거왕대’ ‘거왕’.)

108030 @ 서리는 집 이렇게 허는 거.(서까래는 집 이렇게 하는 거.)

108030 #2 그거 그건.(그거 그건.)

108030 @ 왕대 해갖고 밑에 왕대 해근에 집줄 해영 밑에 매잖아예?(왕대 해갖고 밑에 왕대 해서 집줄 해서 밑에 매잖아요?)

108030 #2 거왕이라 그래.(‘거왕’이라 그래.)

108030 @2 예, 우리 쪽에선 거왕대.(예, 우리 쪽에선 ‘거왕대’.)

108030 @ 예, 왕대 해근에.(예, 왕대 해서.)

108030 #2 거기에 매달아 놓는 거.(거기에 매달아 놓는 거.)

108031 @ 예, 예. 계영 집줄도 어떤 텐 잘 짜르면 깨끗허곡 어떤 데는 두루 헤 불민 욕듣고.(예, 예. 그래서 집줄도 어떤 텐 잘 자르면 깨끗하고 어떤 데는 덜 해 버리면 욕듣고.)

108031 #1 줄 뻔뜰 때.(줄 밭을 때.)

108031 @ 으.

108031 #1 줄 처음에는 집 일 때는 기자 불려나지 아낼 정도로 헷당은에 메칠 잇영 그 흐꼼 잠 자면은 그때 이제 줄 뻔뜰 거주.(줄 처음에는 집 일 때는 그저 불려나지 않을 정도로 했다가 며칠 있어서 그 조금 잠 자면 그때 이제 줄 밭을 거지.)

108031 @ 으.(으.)

108031 #1 줄 뻔뜰 때는 다 뻔드와나근에 그 새가 어느 정도 대충 비영. 다 다 슬랑은에 놔두는디. 그 줄 뻔다놔근에 줄이 그 새가 능중낭중하는 거 어떤 집은 막

273) ‘거왕’은 처마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끊기 위한 장대다. 보통 왕대를 이용해서 만든다.

정성껏 ㅋ세로도 다 다듬곡. 앞이, 앞의만. 보기 좋게 두터렌 아무렇게 해도 뛰고 그치룩헨에 굽닥허게.(줄 밭을 때는 다 밟아놔서 그 새가 어느 정도 대충 비어서. 다 다스려서 놔두는데. 그 줄 밟아놔서 줄이 그 새가 들쑥날쑥한 거 어떤 집은 막 정성껏 가위로도 다 다듬고. 앞에, 앞에만. 보기 좋게 뒤로는 아무렇게 해도 되고 그처럼 해서 굽게.)

108031 #2 깨끗하게 허는 사름들이 많이.(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108031 #1 건 집의 일꾼 이신 사름덜.(건 집에 일꾼 있는 사람들.)

108031 @ 예. 계난 맨 처음 할 때는 듬성듬성 이렇게 헷당 나중에 한번 허는 거를 뻔뜬 덴 허여예?(예. 그러니까 맨 처음 할 때는 듬성듬성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번 하는 거를 밟은다고 한다고요?)

108031 #2 뻔따서 딱 뻔뜬 다음에 글로 굽으로 딱 잘라주지. 경 아녀민 줄이 막 남아. 처음에 헐 때는 막 줄이 남양 등경 잇주게.(밭아서 딱 밟은 다음에 글로 굽으로 딱 잘라주지. 그렇게 않으면 막 남아. 처음에 할 때는 막 줄이 남아서 늘어져서 있지.)

108031 @ 음 처음엔예.(음 처음엔요.)

108031 #2 혼 오일 쯤 잇당은에 딱 냅뜨면서 다 잘라. 새 이렇게 나온 것도 다 잘라.(한 오일 쯤 있다가 딱 밟으면서 다 잘라. 띠 이렇게 나온 것도 다 잘라.)

108031 #1 막 ㅋ세로 단발하는 식으로.(막 가위로 단발하는 식으로.)

108031 @ 집 단발을 시켜준 거라예.(집 단발을 시켜준 거네요.)

108031 @2 우린 호미로 헷엇는데.(우린 낫으로 했었는데.)

108031 #1 호미로, 호미로 하민 능중낭중하는 때문에 어떤 집은 ㅋ세로 진짜 ㅋ세로 깨끗하게 잘.(낫으로, 낫으로 하면 들쑥날쑥하는 때문에 어떤 집은 가위로 진짜 가위로 깨끗하게 잘.)

108031 #2 그 당시 ㅋ세는 재봉틀에 ㅋ세라도 막 커낫어. 이만큼씩. 요즘은 간단힌디.(그 당시 가위는 재봉틀에 가위여도 매우 컸었어. 이만큼씩. 요즘은 간단한데.)

108031 @ 예. 그 집줄 맬 때는 어떻 멧 번 맵니까? 이렇게.(예. 그 집줄 맬 때는 어떻게 몇 번 맵니까? 이렇게.)

108031 #1 아니 계난 집줄 매는 거는 짹 잡아뎅겨근에.(아니 그러니까 집줄 매는 거는 짹 잡아당겨서.)

108031 @ 으.(으.)

108031 #2 일단은 처음 할 때 한 거를 풀엉.(일단은 처음 할 때 한 거를 풀어서.)

108031 @ 음.(음.)

108031 #1 이제 짹 잡아뎅겨근에 혜영 이거 그 저 이것이 대막댕이민 이 안으로, 안으로 강 혜근에 그 이제 줄을 잡아땡겨근에.(이제 짹 잡아당겨서 혜사 이거 그 저 이것이 대막대기 이 안으로, 안으로 가서 해서 그 이제 줄을 잡아당겨서.)

108031 @ 예.(예.)

108031 #1 경 잡아뗐겨근에 그 다음엔 반대쪽으로 강 헤근에 잡아뗐기명 그 이 쪽더레 건너강 그 구녕으로 혜영.(그렇게 잡아당겨서 그 다음엔 반대쪽으로 가서 해서 잡아당기면서 그 이쪽으로 건너가서 그 구명으로 해서.)

108031 #2 거 매는 식이주계.(거 매는 식이지.)

108031 @ 아 한쪽에 하고 반대쪽으로 하고 그 다음 가운데로 혜갖고.(아 한쪽에 하고 반대쪽으로 하고 그 다음 가운데로 해갖고.)

108031 #1 으, 잡아땡경 짹 잡아땡경.(으, 잡아당겨서 짹 잡아당겨서.)

108031 #2 경 메민 탄탄해.(그렇게 매면 딴딴해.)

108031 #1 딱 맞추왕 끊엉.(딱 맞춰서 끊어서.)

108031 @2 좁아뎅경.(잡아당겨서.)

108031 #1 예, 고리 그거 훼게시리 가운데리 헤근에 짹 잡아땡겨근에 적당하게 다 끊어.(예, 고리 그거 되게끔 가운데로 해서 짹 잡아당겨서 적당하게 다 끊어.)

108032 @ 그 다음에 남은 집줄로는 버리지 아녀서예?(그 다음에 남은 집줄로는 버리지 않았지요?)

108032 #1 불 때.(불 때.)

108032 #2 불도 때고 방석도 만들고. 웃음.(불도 때고 방석도 만들고. 웃음.)

108032 #1 방석 그 정제에.(방석 그 부엌에.)

108032 @2 줄방석.(‘줄방석’)

108032 #1 정제에 끌아앉는 방석도 만들고 나머지는 불.(부엌에 깔아앉는 방석도 만들고 나머지는 불.)

108032 @ 동글락허게예.(동그랗게요.)

108032 #1 으.(으.)

108032 @ 그 방석은 여기서는 뭐렌 굴았수가? 줄방석 정젯방석.(그 방석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줄방석’ 부엌방석.)

108032 #1 방석.(방석.)

108032 #2 정젯방석.(부엌방석.)

108032 @2 우린 줄방석.(우린 ‘줄방석’.)

108032 #2 줄방석²⁷⁴⁾. 정젯방석. 정젯방석 혼 다섯 개만 멘들라 이러면서 경.(‘줄방석’. 부엌방석. 부엌방석 한 다섯 개만 만들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108032 @ 음, 정젯방석 혼 다섯 개만 멘들라, 예.(음, 부엌방석 한 다섯 개만 만들라, 예.)

연장

108033 @ 그 다음엔예. 아까도 이제 지붕 일명 햇지만 집 짓젠 허면 연장덜이잇어야 웰 거라예?(그 다음엔요. 아까도 이제 지붕 이면서 했지만 집 지으려고 하면

274) ‘줄방석’은 집줄을 이용해 만든 방석이다. 주로 부엌방석으로 쓴다.

연장들이 있어야 될 거네요?)

108033 #1 연장 있어야주.(연장 있어야지.)

108033 @ 어떤 연장덜이 있어야. 집 지을 때 필요한 연장덜?(어떤 연장들이 있어야. 집 지을 때 필요한 연장들?)

108033 #2 아 건 목수가 가져 오는 거.(아 건 목수가 가져 오는 거.)

108033 @ 목수가 하는 거. 대충 어떤 것들을 집 짓을 때.(목수가 하는 거. 대충 어떤 것들을 집 지을 때.)

108033 #1 건 엇인 거 엇이 다 있어야 헐 거라.(건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야 하거야.)

108033 #2 젤 필요한 게 귀자귀²⁷⁵⁾라고 한 것이 있어. 귀자귀.(젤 필요한 게 귀자귀라고 한 것이 있어. 귀자귀.)

108033 @ 귀자귀.(귀자귀.)

108034 #2 이런 통나무 가져오민 영 바로 세워주는 거 까까주는 거.(이런 통나무 가져오면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거 깎아주는 거.)

108034 @ 톱 있고.(톱 있고.)

108034 #1 자귀도 있어야 뛰고.(자귀도 있어야 되고.)

108034 #2 자귀도 있어야 뛰고.(자귀도 있어야 되고.)

108034 #1 옆자귀²⁷⁶⁾도 있어야 허곡.(‘옆자귀’도 있어야 하고.)

108034 #2 끌, 끌 구멍 뚫를 거.(끌, 끌 구멍 뚫을 거.)

108034 @ 예.(예.)

108034 #2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것도 있어야 뛰고.(이렇게 두드리면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108034 @ 돌멩이 저기 허는 거는?(돌멩이 저기 하는 거는?)

108034 #2 돌멩이 허는 거는 갠노라고. 돌멩이 영 만드는 거 갠노라고 이런 디까끄는 거 탁탁 허민 그것이 젤 중요헌 거. 그리고 빌레 캐젠 허민 웜마.(돌멩이 하는 거는 메라고. 돌멩이 이렇게 만드는 거 메라고 이런 데 깎는 거 탁탁 하면 그것이 젤 중요한 거. 그리고 너럭바위 캐려고 하면 지렛대.)

108034 @ 지렛대예?(지렛대요?)

108034 #1 못도 있어야 뛰고.(못도 있어야 되고.)

108034 @ 못도 있어야 뛰고. 그 다음에.(못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8034 #1 자귀.(자귀.)

108034 @ 자귀예, 그 다음에 낭들 까끄젠 허면은 아까 자귀도 허주마는 이렇게 대패?(자귀요, 그 다음에 나무들 깎으려고 하면 아까 자귀도 하지만 이렇게 대패?)

108034 #1 대패.(대패.)

108034 #2 대패 멘짝하게 허는 거. 대패로 잘 까까서.(대패 편편하게 하는 거.

275) ‘귀자귀’는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를 말한다.

276) ‘옆자귀’는 자귀의 일종이다.

대패로 잘 깎아서.)

108034 @ 대패도 하고예?(대패도 하고요?)

108034 @ 그 다음에 톱도 으라 질 아니우파? 톱은 어떤 톱덜 잊어마씨? 큰톱?
(그 다음에 톱도 여러 질 아닙니까? 톱은 어떤 톱들 있어요? 큰톱?)

108034 #1 톱도 여러 가지란게.(톱도 여러 가지던데.)

108034 @ 큰톱?(큰톱?)

108034 #1 중간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108034 @ 옛날은 나무 큰 거 허젠 허민 두 명이 허영 이렇게 허는 거 잇잖우
꽈?(옛날은 나무 큰 거 하려고 하면 두 명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108034 #1 둘이가 잡양.(둘이 잡아서.)

108034 @ 그런 톱은 무신 톱이렌 힙니까?(그런 톱은 무슨 톱이라고 합니까?)

108034 #1 거 뭐라 출톱이렌 혜나신가.(거 뭐야 '출톱'이라고 했었는가.)

108034 #2 그거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 집 짓젠 허니까.(그거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 집 지으려고 하니까.)

108034 #1 두 사람이.(두 사람이.)

108034 #2 두 사람이 혜가지고.(두 사람이 혜가지고.)

108034 #1 밀렸다 뻃겼다.(밀렸다 당겼다.)

108034 @2 예, 우린 틀톱.(예, 우린 들톱.)

108034 #2 틀톱? 아아.(틀톱? 아아.)

108034 #1 어쨌든 간에.(어쨌든 간에.)

108034 @ 대톱.(대톱.)

108034 #2 대톱은 큰 거. 이렇게 해서 큰 거?(대톱은 큰 거. 이렇게 해서 큰
거?)

108034 @ 대톱은 혼자 쓰는 거우파?(대톱은 혼자 쓰는 겁니까?)

108034 #2 예. 혼자.(예. 혼자.)

108035 @ 아, 혼자 쓰는 게 대톱이고예, 아 그 다음에 못들 뽑는 거 잊어예? 요
렇게 생긴 거예? 영 혜근에 못 뽑는 거.(아, 혼자 쓰는 게 대톱이고요, 아 그 다음
에 못들 뽑는 거 있지요? 요렇게 생긴 거요? 이렇게 해서 못 뽑는 거.)

108035 #2 것보고 금방 생각나겠다마는.(것보고 금방 생각나겠다만.)

108035 @ 못빼기?(못뽑이.)

108035 #1 못빼기. 못빼기.(못뽑이. 못뽑이.)

108035 #2 못빼기. 못빼기.(못뽑이. 못뽑이.)

108035 @ 저기 못도 박기도 하고.(저기 못도 박기도 하고.)

108035 #2 박아근에 오그라지면 그거 해서 뻃기면은 탁 빠지고.(박아서 오그라
지면 그거 해서 당기면 탁 빠지고.)

108035 @ 못빼기예. 못빼기도 보면 한쪽에 있는 것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못빼
기 있는 것도 있어예? 그런 건?(못뽑이요. 못뽑이도 보면 한쪽에 있는 것도 있고 양

쪽에 이렇게 못뽑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 건?)

108035 #2 그건 큰못 빼는 거.(그건 큰못 뽑는 거.)

108035 @ 아아.(아아.)

108035 #2 간단한 족은 못은 못빼기 그거 이거 박기도 하고 망치로도 쓰고 못빼기도 하고 큰 거.(간단한 작은 못은 못뽑이 그거 이거 박기도 하고 망치로도 쓰고 못뽑이도 하고 큰 거.)

108035 @ 예.(예.)

108035 #2 큰 거 헐 적에는 말이지. 이렇게 웬 거 있고 여기 있고.(큰 거 할 적에는 말이지. 이렇게 된 거 있고 여기 있고.)

108035 @ 양쪽에.(양쪽에.)

108035 #2 양쪽에.(양쪽에.)

108035 @ 큰 거 할 때 하는 거라예?(큰 거 할 때 하는 거라고요?)

108035 #2 막 큰 공사하는 디서.(매우 큰 공사하는 데서.)

108035 @2 그것이 빠루우파?(그것이 ‘빠루’입니까?)

108035 #2 빠루 빠루.(‘빠루’ ‘빠루’.)

108036 @ 대패. 대패도 종류 으라 개 아니?(대패. 대패도 종류 여러 개 아니?)

108036 #2 대패도 거친 거 헌 것은 거친 거 큰 거 나온 거 있고.(대패도 거친 거 한 것은 거친 거 큰 거 나온 거 있고.)

108036 @ 예.(예.)

108036 #2 민짝허게 허는 거는 적어서 아래 땡겨도 많이 긁어지지 않게.(반드럽게 하는 거는 적어서 아래로 당겨도 많이 긁어지지 않게.)

108036 @ 음.(음.)

108036 #2 막 얇게 긁어지는 거. 큰대패 소대패. 족은.(막 얇게 긁어지는 거. 큰대패 소대패. 작은.)

108036 @ 족은대패 허는 식으로, 다른 이름은 엿고예?(작은대패 하는 식으로, 다른 이름은 없고요?)

108036 #2 다른 이름은 엿고.(다른 이름은 없고.)

108036 @ 음, 옛날 자 같은 거는 어떤 걸로 썼수가? 집 짓젠 허민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음, 옛날 자 같은 거는 어떤 걸로 썼습니까? 집 지으려고 하면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108037 #2 자. 자 기역자 자.(자. 자 기역자 자.)

108037 @ 아 옛날은 기역자 자.(아 옛날은 기역자 자.)

108037 #2 기역자 자.(기역자 자.)

108037 @ 무슨 자 합니까? 기역자 자는?(무슨 자 합니까? 기역자 자는?)

108037 #2 곱은자 곱은자.(곱자 곱자.)

108038 @ 곱은자. 집 짓젠 허면 터에다가 영 줄 헐 때 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라예?(곱자. 집 지으려고 하면 터에다가 이렇게 줄 할 때 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108038 #2 으.(으.)

108038 @ 표시 허젠 허면 뭘로 표시해신고? 옛날에는.(표시 하려고 하면 뭐로 표시했는가요? 옛날에는.)

108038 #2 그 쪽하게 먹통이 있어. 먹통.(그 쪽하게 먹통이 있어. 먹통.)

108038 @ 예.(예.)

108038 #1 저 맞다.(저 맞다.)

108038 #2 먹통 해서 꽉 놔서 말이지 탁 뻥경 탁 튕기면은 줄이 딱 생긴다고.
(먹통 해서 꽉 놔서 말이지 탁 당겨서 탁 튕기면 줄이 딱 생긴다고.)

108038 @ 아아.(아아.)

108038 #2 그건 먹통으로 햇어.(그건 먹통으로 했어.)

108038 @ 먹통하고 먹통에 헹은에 탁 튕기는 거?(먹통하고 먹통에 해서 탁 튕기는 거?)

108038 #1 영 영 영 영 감는 것도 봐나신디.(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는 것도 봤었는데.)

108038 @ 거는 무슨거?(거는 무엇?)

108038 #2 아 그것이 먹통.(아 그것이 먹통.)

108038 @ 먹줄은?(먹줄은?)

108038 #2 아 먹줄이 먹통 안네 먹줄이 있는 거.(아 먹줄이 먹통 안에 먹줄이 있는 거.)

108038 @ 아 먹줄을 해야 돼예?(아 먹줄을 해야 된다고요?)

108038 #2 여기서 크찡하게 할려면은 여기다 먹통 위에 줄 있는 거 풀면서 딱 뽑아서 말이지 허면은 탁 튕기면은 줄이.(여기서 나란하게 하려면 여기다 먹통 위에 줄 있는 거 풀면서 딱 뽑아서 꽉 당겨가서 말이지 하면 탁 튕기면 줄이.)

108038 @ 먹으로 꽉 선이 나는 거라예.(먹으로 꽉 선이 나는 거네요.)

108038 #2 일직선으로.(일직선으로.)

108039 @ 예, 옛날 집 일 때는 흙으로 헐 때 단 손으로 불랏던 했잖아예. 손으로 말고 이제 쓰레트 허영 이제 시멘트 허젠 허면 옛날 영 허영 바르는 거?(예, 옛날 집 일 때는 흙으로 할 때 단 손으로 발랐다고 했잖아요. 손으로 말고 이제 슬레 이트 해서 이제 시멘트 하려고 하면 옛날 이렇게 해서 바르는 거?)

108039 #2 음.(음.)

108039 @ 영 흙도 받고.(이렇게 흙도 받고.)

108039 #2 아아.(아아.)

108039 @ 쇠로 된 것도 잊고?(쇠로 된 것도 있고?)

108039 #2 쇠로 된 거.(쇠로 된 거.)

108039 #1 쇠손 쇠손.(쇠손 쇠손.)

108039 @ 나무로 된 것도.(나무로 된 것도.)

108039 #2 나무로 웬 건, 나무로 웬 것은 대충, 대충하는 거. 대충하는 거 해서 그것에 대충해 놓은 다음에 췌손으로 마무리 짓는 거.(나무로 된 건, 나무로 된 것은 대충, 대충하는 거. 대충하는 거 해서 그것에 대충해 놓은 다음에 쇠손으로 마무리 짓는 거.)

108039 #1 멘짝하는 거.(편편하는 거.)

108039 #1 췌손으로. 췌손.(쇠손으로. 쇠손.)

108039 @ 그 다음에 영 받는 거는? 혹 받양은예.(그 다음에 이렇게 받는 거는? 혹 받아서.)

108039 #2 무슨 받이라고 허는데.(무슨 받기라고 하는데.)

108039 @ 혹받이?(혹받기.)

108039 #2 혹은 아니고 쎄멘 받는 거난.(혹은 아니고 시멘트 받는 거니까.)

108039 @ 고데 올릴 때도. 혹 올릴 때 이렇게 받양 허지예? 고데 이렇게 하는 거. 이름은 생각 안 나고, 삼춘 집 짓언. 집 하영 짓엇덴 허명은예.(새우 올릴 때도. 혹 올릴 때 이렇게 받아서 하지요? 새우 이렇게 하는 거. 이름은 생각 안 나고, 삼촌 집 지어서. 집 많이 지었다고 하면서.)

108039 @2 집 하영 짓고 하영 벌어부난예.(집 많이 짓고 많이 벌어버리니까.)

108039 @ 영 해근에 집 허는 거는 끊나신게.(이렇게 해서 집 하는 거는 끝났는데.)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페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5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